

2018 오픈 드라마 작품집 — 하권

2 0 1 8

오 펜

드 라 마

작 품 집

— 하 권

드 라 마  
유 경 민  
김 보 겸  
홍 혜 이  
최 이 룬  
문 민 정  
김 효 진

송 진  
김 민 주  
최 성 준  
구 옥 선  
김 의 정

반 야  
내 연 적 의 모 든 것  
밀 어 서 감 옥 해 제  
님 아 그 강 을 나 와 함 께  
라 스투 아 날 로 그 챔 피 언  
마 을 버 스 가 고 속 도 로 를  
달 려 야 하 는 이 유  
진 추 하 가 돌 아 왔 다  
년 팬 찰 니  
굿 바 이 내 인 생 보 험  
히 키 코 모 리 와 개  
민 아 의 유 산

O'PEN

CJ ENM

차례

드라마	유경민 · 반야	7
	김보겸 · 내 연적의 모든 것	69
	홍혜이 · 밀어서 감옥 해제	111
	최이륜 · 넘어 그 강을 나와 함께	161
	문민정 · 라스트 아날로그 챔피언	205
	김효진 · 마을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이유	259
	송진 · 진추하가 돌아왔다	313
	김민주 · 넌 괜찮니	371
	최성준 · 굿-바이 내 인생보험	429
	구옥선 · 히키코모리와 개	483
	김의정 · 민아의 유산	533

# 반야

유경민

---

## 작의

‘노란불…

달리다 노란불을 만나면 어떤 놈은 밟는 거라 했고,

어떤 놈은 멈추는 거라 했다.

뒤통이 뚫어지거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경우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4년 전, 치기 어린 선택으로 어긋나기 시작한 우정.

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청춘들의 지독한 성장담.

노란불엔 멈춰야 한다.

혼자 힘으로 멈출 수 없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오토바이 위에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가 있다면,

늦지 않게 구해내야 한다.

이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프게 될 것이다. 혹은, 이미 아프다.

---

## 등장인물

김영훈(19세, 남)

“때만 밀고 나갈했는데 밀어도 밀어도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체고 축구부 선수. 사람을 대할 때 계산 같은 거 할 줄 모른다.

모두가 다치는 것보단 혼자 다치는 게 낫다는 마음으로 4년 전 친구들을 보호하고 홀로 소년원에 다녀왔다. 그 후유증이 깊고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뻐 미처 알지 못했다.

유승봉(19세, 남)

“그래서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라고.”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고 경찰공무원 준비 중. 4년 전 일을

유경민

yeyey007@naver.com

2014 • 부산영상위원회 시나리오 워크숍 실무과정 수료

2015 • 영화사 케이프로덕션 시나리오 집필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반야〉극본

계기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려 노력한다. 영훈이에 대한 죄책감과 비겁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크다.

이태경(19세, 남)

“알잖아. 내 원래 비겁한 거…”

고등학생.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게 확실하고 계산이 빠르다.

김준영(19세, 남)

“야, 느그 그만해라. 둘 다 술 다 깨고 얘기해라.”

고등학생.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 같은 존재. 싸움이 나면 늘 가장 먼저 나서 중재하려 한다.

그 외

친구들 무리 네 명.

강대준(24세, 남) 영훈의 중학교 선배. 조폭.

김감독(50대, 남) 영훈 축구부 감독.

초등학생 영훈, 초등학생 승봉, 영훈 할머니, 판잣집 아이, 판잣집 아이 할머니, 의사, 김경사, 교도관, 스님, 보살, 기타 등등.

---

## 줄거리

조용한 암자. 열린 문 안으로 종이 연꽃등으로 장식된 법당 안이 보인다.

사십구재 중 마지막 칠재 의식이 치러지고 있는. 초점이 나가 누군지 얼굴을 알 수 없는 영정사진이 보이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준영과 태경.

절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앉는 두 사람. 의식을 돕는 보살이 술을 따라주면 향 위로 세 번 원을 그린 후 제단 위에 올린다. 다시 일어나 절을 하는 두 사람.

그 모습 뒤로 카메라 빠지면, 법당 앞 돌계단 위에 걸터앉아 있는 승봉과 영훈 보인다. 승봉의 시선으로 보면, 확 트인 전망 속에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생각에 잠겨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승봉. 옆에 앉은 영훈도 동네를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하노? 니는 입마, 생각이 너무 많다.” 영훈, 승봉을 돌아보며 말하는데, 승봉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읊조린다.

“이래 보니까… 우리 동네… 진짜 좁만하네…”

해질녘. 울퉁불퉁한 산길을 타고 내려가는 오토바이 두 대.

준영의 애마 뒷자리엔 승봉이, 태경의 배달용 오토바이 뒤엔 영훈이 타고 있다.

산길이 끝나고 포장도로가 나오자 속도를 올리는 오토바이. 바람을 가르며 한참 달리다 신호등 노란불 보이자, 준영 멈춰 서는데 태경 더 세게 액셀을 밟는다.

빠르게 내달리는 태경 뒤에서 바람을 느끼는 영훈 얼굴 위로, 영훈의 목소리.

“노란불… 달리다 노란불을 만나면 어떤 놈은 밟는 거라 했고 어떤 놈은 멈추는 거라 했다. 뭐가 됐든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경우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반야  
유경민

#1 암자 법당 안 + 마당(늦은 오후)

조용한 암자. 열린 문 안으로 종이 연꽃등으로 장식된 법당 안이 보인다. 49재 중 일곱 번째 의식이 치러지고 있는. 하얀 종이에 묵으로 크고 굵게 적힌 “六齋” 보인다. 그 옆으로 극락왕생이라고 적힌 한자 글귀와 종이웃, 종이배 보이고. 음식이 간소히 차려진 제단 앞에 스님이 목탁 소리에 맞춰 불경을 독송 중이다.

초점이 나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영정사진이 보이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준영과 태경. 절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앉는 두 사람. 의식을 돕는 보살이 술을 따라주면 향 위로 세 번 원을 그린 후 제단 위에 올린다. 다시 일어나 절을 하는 두 사람.

그 모습 뒤로 카메라 빠지면, 법당 앞 돌계단 위에 걸터앉아 있는 승봉과 영훈 보인다.

승봉의 시선으로 보면, 확 트인 전망 속에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생각에 잠겨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승봉. 옆에 앉은 영훈도 동네를 바라보다가,

영훈 (고개 돌려 승봉 보며) ... 무슨 생각하노? 너는 입마, 생각이 너무 많다.

대답 없는 승봉, 시선 그대로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다.

#2 공양방(늦은 오후)

밥상이 차려진 공양방. 밥을 먹고 있는 준영과 태경. 방으로 들어서는 승봉과 영훈 향해 밥 먹으라 하는 태경. 승봉 자리에 앉는데, 영훈 친구들 내려다보며,

영훈 마이 무라. 남기면 안 된단다.

#3 산길(해질녘)

해질녘. 울퉁불퉁한 산길을 타고 내려가는 오토바이 두 대. 준영의 애마 뒷자리에 탄 승봉. 태경의 배달용 오토바이 뒤엔 영훈이 타고 있다.

산길이 끝나고 포장도로가 나오자 속도를 올리는 오토바이. 바람을 가르며 한참을 달리다 신호등 노란불이 보이자, 준영 멈춰 서는데 태경 더 세게 액셀을 밟는다. 빠르게 내달리는 태경 뒤에서 바람을 느끼는 영훈 얼굴 위로,

영훈(N) 노란불... 달리다 노란불을 만나면 어떤 놈은 밟는 거라 했고, 어떤 놈은 멈추는 거라 했다. 뭐가 됐든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경우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멈춰 선 오토바이에서 승봉의 시선으로 배기음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태경의 오토바이 뒷모습이 보이며, 타이틀. “반야”

#4 운동장(오후)

고등부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 감독들이 신입 지명하러 온 날이라 긴장감이 감돈다. 영훈 비롯해 몇몇 선수들 벤치에 앉아 있고. 선수들에 대해 품평하며 정보 나누는 대학 감독들. 시간이 흐르고, 벤치에 대기하던 선수들 하나둘씩 경기에 나가는데, 영훈만이 계속 남아 있다. 감독 눈치 살피며 다가오는 코치.

코치 감독님... 영훈이 안 내보냈니까. 10분 남았습니다.

대답 없는 감독. 그때, A대 감독 가까이 오는.

A대 감독 (턱으로 영훈이 가리키며) 점마 저거 다쳤나? 와 안 뛰노.  
 코치 (반색하는) 영훈이요?  
 감독 (영훈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선배님 어제 사대부고에서 미드필더 영입하셨다던데.  
 A대 감독 맞다 영훈이. 내는 점마처럼 부지런히 뛰댕기는 애들이 좋더라. 한번 보자.  
 감독 (손 뻗어 경기 뛰고 있는 11번 선수 가리키며) 채는 어떻게습니까? 11번. 이명수. 점마가 켈 성실하고, 명수 아버님이...  
 A대 감독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는 영훈 한 번 보고는) 신감독 여전하네.  
 표정 굳는 감독. 코치한테,  
 감독 ... 지수 빼라.  
 교체 사인 보내는 코치. 13번 선수 나오고 영훈이 투입된다.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기가 재개되는데 영훈, 경기장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다. 고개 돌려 팔짱 끼고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감독을 보는 영훈. 달리기 시작하는 영훈.  
 상대 팀의 볼을 빼앗고 선수들을 하나들씩 젓히며 골대로 질주한다.  
 영훈의 발끝에서 날아간 공이 골대를 강타하는데, 다들 기가 막힌 표정으로 영훈을 바라본다.  
 자기 편 골대에 공을 차 넣은. 영훈 다시 한 번 골대에 공을 차 넣는다.  
 영훈 팀 골키퍼 어이없어 쳐다만 보고 있는데, 튕겨져 나온 공을 계속 다시 차 넣는 영훈. 골대를 폭행하는 느낌. 그제야 실수가 아님을 깨닫고 웅성거리며 영훈을 바라보는 눈들.  
 감독에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영훈. A감독에게 고개 숙여 꾸벅 인사 한 번 한 후 유니폼을 벗는다. 감독 면상에 유니폼 상의를 집어 던지고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영훈. 씨익 웃어준 후, 등 돌려 나온다.  
 감독 이 새끼가... 당장 안 튀어나! 하자 있는 새끼 거뒤흔터만 어디서 건방지게!

미련 없이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영훈.

## #5 길거리(해질녘)

옷통을 벗은 채 걷고 있는 영훈. 마주 보고 오던 사람들, 영훈을 경계하며 피해 걷는다.

## #6 영훈 집 대문 + 현관 + 거실(저녁)

낮은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와 좁은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영훈.

방 한 칸에 부엌과 이어진 작은 거실이 딸린 집. 살림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할머니, 아빠와 짝은 영훈의 유치원 졸업사진이 든 낮은 액자 보이고.

철 지나 빛바랜 동자승 모델의 달력이 걸려 있고, 그 위로 먼지 앉은 긴 염주가 걸려 있다.

좁은 거실에서 TV 보며 라면을 먹고 있는 준영과 태경.

상의를 벗은 채 들어오는 영훈 어이없게 보다 농담 한마디씩 던지는데.

태경 밖에서 함 뛰다 왔나? 일 번 축구, 이 번 다이다이, 삼 번...  
 준영 까악 변태.  
 태경 삼 번 막노동인데요? 님 무슨 생각하심?

키득키득거리는 둘 틈에 끼어들어 앉는 영훈.

준영 손에 들린 젓가락 뺏어 들고는 냄비째 자기 앞으로 끌어다 라면 한 젓가락 흡입한 후,

영훈 학교 때려쳤다.

잠깐의 정적.

태경 돌아아가. 몇 달 있으면 졸업인데 뭘 개소리고.



준영 장난치지 마라.  
영훈 햇반 있나?

대답 없는 영훈. 그저 라면 먹는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영훈 쳐다보며 욕 쏟아내던 애들, 허겁지겁 라면 먹는 모습에 위기감 느끼고 경쟁적으로 라면을 자기 그릇에 옮겨 담는다.

준영 (장난이 맞다고 생각하고) 농담도 존나 니같이 재미없게 하노.  
영훈 더 끓이라.  
태경 (영훈이 입에 넣으려면 라면 젓가락으로 낚아채 가며) 다 떨어졌다.

국물 한 번 들이켠 후 옆에 널브러져 있는 티 아무거나 주워 입으며 일어나는 영훈.

태경 (애교 피우며) 골목길 조심하고, 올 때 메가톤바.

## #7 영훈 집(시간 계속 바뀜)

몽타주.  
학교를 그만둔 후 열흘 정도의 시간.  
낮밤이 바뀌어 늦은 오후까지 늘어지게 자는 영훈.  
학교 마친 애들이 집으로 와 깨우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피시방 가고,  
또 자다 배고프면 일어나 컵라면으로 대충 배 채우고 TV 보며 깔깔대며 핸드폰 게임 하고, 다시 자고.

낚시 중인 영훈과 아이들. 입질 오자 빠르게 낚시대 걸어 올리는 영훈.  
미끼만 털린 걸 보고 허무해하는데, 옆에서 약 올리는 태경과 준영.

집에서 만화책 탐처럼 쌓아놓고 보는 영훈. 컵라면 빈 컵과 음료수 캔 쌓여가는.

지루한 얼굴로 리모컨 들고 TV 채널 돌려대는 영훈.

몽타주.  
또 늘어지게 자고 있는 영훈. 벌컥 열리는 방문, 방 안 가득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승봉이 들어온다. 시체처럼 늘어져 자고 있는 승봉을 내려다보며 발로 배를 쿡쿡 찌른다.  
뒤척이다 영훈의 티셔츠 말려 올라가는데, 계속 쿡쿡 찌르며 깨우는.  
영훈, 뒤고 짜증 섞인 얼굴로 실눈 뜨면, 내려다보고 있는 승봉 보인다.

승봉 배때기 비계 낀 거 봐라.

귀찮다는 듯 영훈 돌아누우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 던져주며 일어나라 손짓하는.

## #8 목욕탕 탕 안(오전)

사방팔방으로 튀는 목욕탕 물. 탕 안에 앉아 있던 애들 욱하며 인상 쓰는데, 물에 몸을 던진 영훈, 폼 잡으며 물에서 얼굴 확 빼 들고 머리 올백으로 싸악 넘겨 올린다.

태경 엠자 탈모 잘 봤구요.

CUT TO.  
당구비 내기로 물 안에서 숨 참기 대결하는 태경과 준영.  
시작! 동시에 외치며 잠수하는 태경과 준영.  
탕 끝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앉아 그 모습 바라보고 있는 영훈과 승봉.

승봉 괜찮나.  
영훈 지랄.  
승봉 왜 때려쳤는데.  
영훈 그냥.  
승봉 ... 후회 안 하겠나.  
영훈 조또. 지겹다.

그때, 못 버티고 먼저 물 밖으로 튀어 오르는 태경의 얼굴.

준영 (고개 들며) 앗싸! 1 대 0! 영훈이 우리 팀이다!  
태경 뭐라 하노, 우리 팀이그든?!  
준영 아 해라해라.

CUT TO.

물 안에서 숨 참고 있는 영훈과 승봉.  
둘 다 제법 오래 버티지만, 영훈이 먼저 물 밖으로 나오고.

준영 2 대 0! 아싸. 간짜장도 된다 했다!  
태경 (영훈 한심하게 보며) 니 어디 가서 체고 나왔단 소리 하지 마라...

### #9 당구장(오후)

당구 치고 있는 영훈과 승봉 태경, 준영.

태경 (통화 중인) 네, 짜장면 네 개요.  
준영 양아치가?! 간짜장이라고!

그때, 동네 선배 대준이 무리와 함께 들어오는.

태경 (대준 발견하고) ... 취소할게요.

긴장하는 태경과 준영. 대준에게 쭈뼛거리며 인사하는데. 승봉, 표정 굳고.

대준 느그 요새 잘 안 보이대. (어깨 툭 치며) 우리 영훈이 내년엔  
케이리그 데뷔하나?

영훈 (머리 굽적이며) 축구 그만됐습니다.

대준 맞나. 와, 행님이 니 프로 달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훈 죄송합니다.

대준 뭐가 죄송하노. 같이 한 게임 할래?

영훈 (애들이 불편해하는 거 느끼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라 했는데...  
대준 맞나. 담에 밥이나 한번 묵자. (핸드폰 건네며) 번호 찍어봐라.

영훈 핸드폰 받아 번호 입력 중이고. 그 모습 마음에 안 드는 승봉.  
대준, 긴장해 있는 태경과 준영 보며.

대준 내는 은혜 모르는 새끼들은 사람 취급 안 한다. 느그 영훈이한테  
잘해라.

이상해지는 분위기. 영훈 빠르게 핸드폰 건네며 인사하는.

영훈 재밌게 놀다 가십시오, 행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 #10 국밥집(저녁)

대준 욕하면서 국밥집에서 국밥 먹고 있는 아이들.

준영 학교 다닐 때도 존나 무서웠는데, 케이티엑스 타고 봐도 조폭인 줄  
알겠다. 전화 오면 어짜노.

영훈 내한테 뭐 한다고.

태경 대준이 행님이 중학교 때부터 니 마이 챙겼다가.

영훈 그거는 행님 할머니랑 우리 할매랑 켈 친했으니까 그런 거고.

승봉 엮여서 좋을 거 없다. 전화 와도 받지 마라.

영훈 알았다 임마. 밥 먹고 또 독서실 갈 끼가? (애들 보며) 임마 진짜  
이러다 시험 붙는 거 아이가. 대한민국 망했네.

키득대며 격하게 동조하는 태경, 준영.

승봉 (고기 건져 영훈이 입에 넣어주며) 빨리 묵기나 해라.

## #11 독서실 열람실 + 복도(저녁)

독서실에 끌려와 책상에 앉아 있는 영훈.  
영훈의 책상에 자기가 쓰던 고교 검정고시 교재들 한가득 내려놓는 승봉.

영훈 (쌓인 책 보고 승봉 보며) 돌아이가...?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 입에 갖다 대는 승봉. 따라 나오라고 고갯짓하고는 나간다.

승봉 하면 다 된다. 행님이 더하기 빼기부터 다 갈켜줄게.

영훈 내가 니보다 훨씬 공부 잘했거든?

승봉 고조선 때 얘기하세요?

뭔 소리고 하는 영훈 표정 보고서.

승봉 ... 고조선 모르나?

영훈 꼭 알아야 하나?

승봉 미친놈아... 그러게 축구 때려쳤으면 친 거지 왜 학교까지 때려치고 지랄이고...

예쁜 여학생이 복도를 지나가자, 눈길 따라가는 영훈.

영훈 (뒷머리 긁적거리며) 심심하니까 일단 며칠 나와보든가.

## #12 독서실 열람실(오후)

며칠 후. 집중해서 공부하는 승봉. 기지개 켜며 뒤돌아보는데 옆드려 자고 있는 영훈. 그때, 영훈 폰 진동이 울리고. 한쪽으로 고개 돌려 눈 감은 채 전화 받는 영훈.

태경(E) 마! 빨리 안 오나?!

## #13 운동장(오후)

귀찮은 표정의 영훈, 슬리퍼 질질 끌며 시끌벅적한 운동장으로 들어서는데.

[부산 동호회 축구 대회] 현수막 크게 걸려 있는. 표정 굳는 영훈.

준영 (축구화 던져주며) 경기 시작한다 빨리 신어라!

영훈 ... 느그 지금 내 이거 뭐라고 불렀나?

태경 아 좀 비싸게 굴지 말고. 두 판만 더 이기면 백만 원이다.

영훈 씨발...

CUT TO.

핸드폰만 챙겨 운동장 빠져나오는 영훈. 턱에 힘이 바짝 들어간 채 오한이 드는 듯 몸 떠는.

그때, 핸드폰 울리는.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신경질적으로 전화 받는데.

대준(E) 영훈아 바쁘나.

## #14 뒷골목(밤)

뒷골목에 덩치들이 타고 있는 검은 승합차 멈춰 서고. 그 뒤로 검은 그랜저가 멈춰 선다.

차 안. 운전석에 앉은 대준. 보조석에 영훈이 앉아 있다.

대준 (건물 하나를 올려다보며) 저기다. 민머리.

조용히 고개 끄덕이는 영훈.

## #15 타투 업소(밤)

건물 복도를 지나 타투 간판이 내걸린 업소 안으로 들어서는 영훈.

종소리가 울리고.  
밖의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와 대조되는 컴컴하고 묘한 분위가 흐르는 가게 내부. 입구를 지키고 있던 조폭 한 명이 영훈을 아래위로 훑는다.  
잔뜩 긴장한 표정의 영훈, 그때 여직원 다가오고.

영훈 (긴장한) 문신하러 왔는데요... 잠깐 화장실부터 좀...

직원, 긴장해서 떠는 영훈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화장실 안내해주는.  
조폭, 영훈이 거슬린다는 듯 보다 여직원이 돌아서 가자 치근덕대며 쫓아가는.  
직원과 조폭이 사라지자 숨죽이며 암막 커튼이 쳐진 시술대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영훈.  
시술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는.  
그때, 영훈의 얼굴에 VIP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이고, 영훈 문 살짝 열어보면, 이미 상반신에 시퍼런 문신이 가득한 민머리 남자가 옆드려 종아리에 문신을 받고 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영훈.

## #16 골목길(밤)

차로 돌아온 영훈,

영훈 (긴장한) 있습니다.  
대준 (영훈 어깨 토닥이며) 그래, 고맙다. 용돈 해라.

5만 원짜리를 스무 장을 건네는 대준.  
영훈, 당황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영훈 주머니에 꽃아 넣는.

CUT TO.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영훈, 뒤돌아보면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대준과 덩치들이 보인다.

## #17 독서실(저녁)

독서실 휴게실. 컵라면 먹고 있는 영훈, 승봉.

영훈 (젓가락질 멈추며) 라면 지겹다.  
승봉 편의점 음식 다 지겹다.  
영훈 (젓가락으로 라면 한 입 뜨다 영 안 내켜 내려놓는) 집밥 먹고 싶다.

집밥 먹고 싶다 하는 영훈의 말에 멈칫하는 승봉.

영훈 고등학교 졸업장 판다고 라면인생 벗어나겠다.  
승봉 라면이라도 먹고 살라면 있어야 한다.  
영훈 와... 범생이 다 됐노. 니가 내 줌 먹여 살리면 안 되겠다.  
승봉 되겠다.  
영훈 새끼...

그때, 영훈의 핸드폰 진동이 울리고. 발신자 이름 확인하고 급하게 받는 영훈.

영훈 예- 행님. 바로 가겠습니다.

통화하며 일어나 승봉에게 손 흔들고는 급히 나가버리는 영훈.  
부르러다 불잡을 새도 없이 사라지자, 영훈이 남기고 간 라면을 제 앞에 끌어다 먹는 승봉.

## #18 국밥집(저녁)

한 달 후. 경찰시험 필기 합격한 승봉을 축하하러 모인.  
가게로 들어서는 승봉.

준영 (일어나 깡뚝이 악수 건네며) 오셨습니까. 유반장님.  
태경 주인공이 켈 늦노. 니 축하한다고 다들 모였구만.

승봉 이제 필기 하나 붙였구만 뭐 축하하고.  
태경 니 돌대가리로 필기 붙였음 다 된 거지.  
승봉 영훈이네? 요새 독서실도 안 나오고. 시험 땀에 신경 못 썼더니  
잠수고.

서로 눈짓하며 눈치 보는.

승봉 ... 뭘데.  
준영 니 신경 쓸까 봐 말 안 했는데...

준영이의 말이 이어지고, 표정 굳어가는 승봉.

## #19 횃집(저녁)

대준 조직의 회식에 끼어 있는 영훈. 잘 차려진 일식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기본 좋게 취한 대준, 직원들에게 영훈 인사시키는.

대준 어릴 때 옆집 살던 동생입니다. 제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다들 잘  
챙겨주고 많이 가르쳐줬음 합니다. 영훈이도 열심히 배우고. 다 니  
하기 나름이다.

영훈 (기합 바짝 들어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짝 긴장한 채 술잔 들어 술 받는 영훈.

대준 (그 모습 귀엽게 보며) 다 컸네. 어릴 때 이불에 오줌 싸가지고 우리  
집에 소금 얻으러 오고 그랬는데.

영훈 아 행님...! 제가 언제요!

얼굴 시뻘게진 영훈. 분위기 한층 풀리고, 직원들 다들 영훈 보며 웃는.

## #20 영훈 방(밤)

영훈 집에서 2차 중인 아이들.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영훈.  
과자 몇 봉 안주로 먹고 있는 친구들한테 10만 원 꺼내주는 영훈.

영훈 (이불 위에 드러누우며) 열라들이가. 족발이라도 시키라.

준영 미친놈아. 기어이 거기 갔나.

태경 아메바가. 금마가 중학교 때 우리 군고구마 앵벌이 시키고, 수납금  
뜯어가던 거 다 까먹었나.

영훈 (갑갑한지 상의 벗으며) 언제 적 얘기고... 이제 쫌시럽게 그런 짓 안  
한다.

태경 그래 이제 그런 스케일 작은 일은 안 하시겠지.

니 그건 알고 그러나. 대준이 행님이 즈그 부두목이랑 짜고 대가리  
엿 먹여서 감빵 보낸 거.

준영 미친... 진짜가...

영훈 아이다. 그게 아니고,

승봉 아, 김영훈.

영훈, 누운 채 소리 나는 쪽 쳐다보면 술과 안주 가득 든 봉지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승봉.

승봉 ... 니 뭐 하고 멍기는데.

영훈 왔다. 오늘 못 가서 미안하고, 축하한다.

승봉 (애들 보며) 느그 다 나가라.

영훈 아들 한창 분위기 땀는데 지랄이고. (준영 보며) 족발 시키라 빨리.

승봉 그런 새끼들이 니같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애들 영입하는 이유가 뭘  
줄 아나.

몸 일으켜 세워 앉는 영훈.

영훈 (승봉 똑바로 쳐다보며) ... 뭘데?

승봉 겁대가리 없이 시키는 대로 칼빵 쳐줄 놈, 대신 감빵 가줄 털떨어진

영훈 새끼.  
와- 경찰 뽑는 시험에 그런 것도 나오나? 니가 보기에 내는 뭘 거 같은데? 칼뺑? 낄뺑?

분위기 싸늘해지자 말리는 준영.

준영 그만해라... 승봉이가 다 니 걱정돼서...  
영훈 씨발... 언제부터...! 누가 내 걱정해달라드나?

분위기 수습하려 애들 데리고 일어서는 준영. 승봉 팔 잡아끄는.

## #21 영훈 방(아침)

양복 빼입은 채 거울 보고 있는 영훈. 머리 왁스 발라 힘줘 세우는.

## #22 교문 앞(늦은 오후)

[수능 대박 기원] 등의 문구 적힌 현수막 보이고.  
수능 끝나고 나오는 친구들을 향해 손 흔드는 영훈.  
영훈을 보고 놀라 뛰어오는 태경과 준영. 그랜저 앞에 품 잡고 서 있는 영훈.

준영 설마 니 차가?!  
영훈 조만간? (씨익)

CUT TO.

보조석에 앉아 불안해하며 벨트와 손잡이 꼭 붙들고 있는 태경.

준영 (뒷좌석 중앙에 앉아 운전석 쪽으로 고개 내밀며) ... 보험 들었제?  
영훈 아! 걱정 마라. 쫄보들이가.  
태경 (덜덜 떠는 영훈 손 위에 손 겹쳐 누르며) 손에 진동 오셨는데요...?  
(사색이 되서) 아! 미친놈아!! 또 차선 넘었다!!! 핸들 왼쪽 왼쪽!!!

준영 야 어디 가노!!! 중앙선!! 그만!! 그만!!!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파도타기 하는 그랜저.  
하얗게 질러가는 얼굴들.

## #23 사진관 입구 + 안(낮)

사진관에 모두 모인 아이들 여덟. 단체사진 찍는다고 한껏 멋 부린.  
먼저 와 사진관에서 기다리던 애들도 영훈의 차를 보고 흥분하여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혼자 남아 유리창으로 그 모습 보고 있는 승봉.

CUT TO.

아무렇지 않게 승봉에게 장난 거는 영훈. 승봉도 받아준다.

영훈 힘 좀 줬네.  
승봉 왜? 새삼 반했다.

CUT TO.

사복을 입고 사진 찍는 중인. 어색한 미소에 자기들끼리 웃음 터져 웃고 난리 난.

CUT TO.

차이나 칼라의 옛날 스타일의 교복으로 모두 갈아입은 애들.  
셔터 누르던 사진사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인.

사진사 군사가 많아서 각이 안 나온다. 거기, 니. 자꾸 끄트머리에 걸리는데.  
영훈 (자기 가리키며) 저요?

준영 어... 안 되는데. (영훈 승봉 가리키며) 임마랑 점마 졸업사진 없어서 제일 잘 나와야 하는데요.

사진사 3센티씩만 옆으로들 좀 땡기봐라.

태경 3센티요??

CUT TO.

사진사, 흡족한 표정으로 하나 둘 셋 하며 셔터 누르자 플래시 터지고.  
앵글에 잡힌 아이들 모습 보이는데. 영훈, 친구들 무릎에 모로 누워 해맑게 웃고 있다.

## #24 사진관 앞(저녁)

들뜬 표정으로 어디 갈지 얘기 중인 무리. 서로 지 할 말만 하는.

준영 포차 가자니까!  
태경 클럽 가기로 했다가!  
영훈 일단 타라.  
태경 어딜 가든 저는 이 차의 승차를 거부하겠습니다.  
영훈 오늘 시험 친다고 너무 고생 많았을 리가 없겠지만, 행님이 좋은 데 데꼬 가줄게.

다들 눈 반짝해져서 영훈 쳐다보는.

준영 (영훈 품에 와락 안기며) 형아. 나 오늘 완전 힘들었오.

제일 빨리 차 문 열고 그랜저에 탑승하는 태경. 창문 내리고 빨리들 타라고 재촉하는데. 준영도 타는데.

승봉 잘 놀다 온나.  
영훈 뭐라 하노, 니도 같이 가야지.  
승봉 운동하러 가야 한다.

손 흔들고 돌아서 가는 승봉.  
영훈, 멀어지는 승봉 보다 운전석 문 여는.

## #25 업소 룸(저녁)

영훈이 속해 있는 조직이 관리하는 업소 룸. 잔뜩 기대하고 온 아이들.  
촌빔 날리는 인테리어 하며 아줌마 아저씨들이나 올 법한 카바레임에,  
황당한 표정으로 둘러보고 있는.

영훈 여가 쯤 큰 방이다. 특별히 비워두라 했다.  
태경 뒤지고 싶나?  
준영 내가 포차 가자 했제!

애들 일어나 나가려는데, 웨이터가 술을 가득 들고 들어온다.

태경 저희 나갈 거예요.

그때, 테이블 위로 올려지는 고급 양주병.  
양주병에 고정되는 시선들. 씨익 웃는 영훈.

CUT TO.

노래방 예약 기계를 들고 번호를 누르고 있는 영훈.  
노래 제목 뜨자,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들.

태경 내 또 저거 할 줄 알았다...

마이크를 잡은 영훈. 영훈의 애창곡 이승철의 <오늘도 난> 전주가 흐른다.  
영훈이 특유의 자메이카 억양을 흉내 내며 영어 랩을 시작하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랩의 마지막 가사 “원! 투! 쓰리! 고!!”를 함께 외치는 아이들.  
광란의 분위기가 시작되는. 모두 완벽히 단합된 모습으로 떼춤 추기 시작한다. “나도 알지 못한 날 굳이 알려고 들진 마- 보여줄 수 없는 내 마음만 안타까울 뿐-” 떼창을 하며 세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 #26 헬스장(저녁)

같은 시각. 노래 계속 흐르며,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 중인 승봉의 모습 보인다.

## #27 영훈 집 부엌 + 영훈 방(오후)

영훈의 방에 딱딱따닥 붙어서 널브러져 자는 아이들, 대어섯.

준영(E) 라면 다 됐다! 일어나라!

라면 먹으라는 소리에 뒤척이며 일어나는 태경.  
눈뜨자마자 핸드폰 확인하는데, 자기가 뭘 잘못 봤나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는. 결제 안내 문자 보는 중인. 카바레에서 180만 원이 결제된. 술이 확 깨는 태경.

태경 야! 김영훈. 일어나봐라.

태경, 옆에서 자고 있는 영훈 깨우는데. 영훈이 안 일어나자 팔 확 당겨 일으켜 세우는.

영훈 (눈 겨우 뜨며) 아, 뭐고...

영훈의 눈에 핸드폰 결제 문자 들이미는.

태경 이거 뭔데? 카바레에서 180만 원 뭐냐고!

태경이 소리 지르자, 다들 애들도 하나둘씩 깨는.

영훈 아 난 또 뭐라고... (다시 누우며) 니 어제 룸 소파에서 자고 있길래 내가 회비 카드 꺼내서 결제했다.

태경 하... (머리 쓸어 넘기며) 니가 쓰는 거라매. 장난하나.

그제야 상황 파악하고 다시 일어나 똑바로 앉는 영훈.

영훈 내가 언제 쓴다 했는데.

태경 좋은 데 데려가 준다는 게 그 말 아니었나. 아니면 우리가 그 거지 같은 곳에 미쳤다고 가나.

상 차리다 말리러 온 준영.

준영 야, 느그 그만해라. 둘 다 술 다 깨고 얘기해라.

태경 술 다 깬다! 뒤통수 처맞고 정신이 번쩍 들구만, 뭘 그만해.

영훈 뭐? 뒤통수...? 내가 억지로 끌고 갔나, 못 나가게 감금을 시켰나. 좋다고 퍼마신 게 누군데?

태경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나? 다 같이 자전거 전국일주 하자고 2년을 모은 돈이다. 그 돈을 니가 하룻밤에!

영훈 내가? 어제 내 혼자 퍼마셨나. (똑바로 보며) ... 이태경 여전히네.

태경 ... 니 지금 그거 무슨 뜻인데?

돌이킬 수 없이 싸늘해지는 분위기.

태경, 일어나 나가버리고 준영, 붙잡으러 따라 나간다.

그러거나 말거나 잠에 취해 미동도 없는 나머지 아이들.

## #28 업소(밤)

일하는 중인 영훈. 난동 피우는 취객 진정시키려는데.

영훈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말이 안 통하자 끌어내다 뺨 맞는.

취객 이 새끼가...! 어따 손을 대노! 니 내가 누군지 아나? 어?!



## #29 화장실(밤)

세수하는 영훈. 대충 물기를 손으로 훔쳐내고 거울로 터진 입가를 살핀다.

영훈 (쓰라리고) 우... 지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노.

그때, 화장실 칸에서 대준이 나온다. 놀란 영훈, 급히 비켜서서 자리 내주는데.

대준 (손 씻으며) 와? 많이 힘드나?

영훈 괜찮습니다.

대준 행님 친구가 거제도에서 펜션 하는데, 바람 좀 쐬고 올래?

영훈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대준 행님이 말해놓을 테니까, 친구들이랑 바람이나 쐬고 온나. 술도 여서 다 챙겨가라.

영훈 (90도로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대준 감사는 무슨. 우리 영훈이 친구면 다 내 동생들인데. 니한테 잘하나?

영훈 (부담스럽고) 아들 다 착합니다.

대준 그래, 잘 놀다온나.

## #30 중국집(점심)

배달 다녀온 태경, 가게로 들어서는데 영훈과 준영이 짜장면 먹고 있다.

준영 왔나. 점심 먹었나? 같이 목자.

태경 됐다.

어색한 영훈과 태경.

준영 사장님한테 얘기했다. 내일 알바 빼주신단다.

태경 ... 그걸 왜 니 맘대로,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승봉.

승봉 난 양주 냄새도 못 맡아보고 회비 다 털렸는데 본전 뽑아야지. 가자.  
태경 (승봉 쳐다보며) ... 니도 간다고?  
영훈 차랑 고기랑 술도 내가 다 준비한다. 가자 쫘.

## #31 거리(아침)

약속된 장소로 집결하는 아이들, 여덟 명. 낚시대 차에 싣는 태경.

준영 (아이스박스 살펴보며) 삼겹살 몇 인분인데?

영훈 20인분.

준영 누구 코에 붙이노.

영훈 목살 20인분.

준영 (트렁크 닫고서 영훈 보며 웃으며) 굶어 죽진 않겠네.

그때, 승합차 운전석에 탄 남자1 유리창 내리며 소리치는.

남자1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하자.

영훈 네, 행님! (애들 향해) 빨리 타라.

아이들 준비된 승합차에 올라타고, 출발하는 차.

## #32 도로(아침)

시원하게 도로를 내달리는 승합차. 보조석에 탄 영훈, 블루투스 노래 트는데. 차 안 가득히 울려 퍼지는 <오늘도 난>.

준영 아 또 그 노래고! 판 거 좀 틀어라!!

그러면서 또 “웨이 투! 쓰리! 고!!” 구간이 오자 놓치지 않고 떼창하는. 태경도 언제 맘 상했냐는 듯 신나게 노래 부른다. 승봉도 따라 하고.

그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 나오자 말하다 말고 다 같이 소리치는.  
 “이런 내 습관에 젖은 여자들은 많았지만! 차츰 내 주위를 보며 후회를  
 시작했어!!”  
 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승합차.  
 그때, 중간에 앉아 앞을 보고 있던 태경의 동공이 커진다.  
 광!!! 끼이이이익~! 갑자기 굉음과 함께 미끄러지는 승합차. 앞에 달리던  
 봉고차를 들이박고 핸들 꺾인 방향으로 밀려나 가드레일에 또 다시  
 부딪힌.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신음 소리만 내고 있는 아이들.  
 “오늘도 난 기억 속의 네게 의미 없는 후회 하며 지내겠지…”  
 그 위로 노래만이 평온하게 울려 퍼진다.

### #33 병원 / 8인실(오전)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애들.  
 8인실 병상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영훈의 자리는 비어 있는.  
 이마에 거즈 붙인 애도 보이고, 몇몇은 깁스까지 한.  
 승봉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다.  
 자기들끼리 사고 난 순간을 무슨 무용담처럼 떠들고 있는 애들.

태경 와 진짜 골로 가는 줄 알았다.  
 친구1 야 너는 중간에 있었지만, 나는 끝에 앉아가지고 가드레일에 처박힐  
 때 진짜 100톤짜리 빠따로 치맞는 줄 알았다.  
 태경 뭐라 하도, 내 딱 충돌 직전에 목격해가지고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거든.

목에 깁스한 준영, 승봉이 베드 앞에 서서 상태 살피며.

준영 어짜노… 시험 전까지는 깁스 풀 수 있단나?

한쪽 팔에 깁스한 채 전화 통화하며 병실로 들어서는 영훈.  
 뒤이어 보험사 직원 나타난다.

보험사 (둘러보며) 통화하신 김영훈 씨가 누구시죠?

CUT TO.

어이없는 표정의 아이들. 흥분한 태경.

태경 미친. 장난하나. 고의사고? 뭐 한 1억씩 주냐?!

보험사 절차상 질문한 겁니다. 여행자보험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대리  
 가입도 가능하고, 가입 절차가 워낙 간단해서 보험금 노린 사기가  
 많아서. 어린 친구가 화가 많네… 진정하시고, (영훈 보며) 보험  
 가입자가 강대준 씨로 돼 있던데 무슨 관계십니까?

강대준…? 술렁이는 아이들. 시선 일제히 영훈 향하는데.  
 그때, 병실로 들어서는 대준.

대준 친한 행님입니다.

인사하는 영훈.

영훈 행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대준 (영훈 살피며) 괜찮나? (다시 보험회사 직원 보며) 어릴 때부터 친한  
 동생들인데, 놀러 간다 해서 편하게 다녀오라고 이것저것 챙겨준  
 건데 뭐 문제 있습니까? (승봉 가리키며) 저 친구는 경찰시험 필기  
 붙고 곧 체력시험인데 다리가 저렇게… (속상한 듯) 어휴 어짜노…  
 안 그래도 지금 심란한 애들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보험사 직원은 대준의 말에 의심을 거두는 눈치인데, 그와 반대로 표정이  
 굳어가는 아이들.  
 이상해지는 분위기. 영훈의 표정도 좋지 않은.

### #34 병원 복도(오전)

대준을 배웅 중인 영훈.

대준 몸도 안 좋은데, 그만 드가라. 가게는 신경 쓰지 말고 꼭 쉬어라.  
영훈 예... 감사합니다. (망설이다) ... 저 행님,  
대준 차량 수리비는 신경 쓰지 마라.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어짜겠노.  
뒤처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5만 원짜리 몇 장 건네며) 애들 많이  
놀랐을 텐데, 몸보신해라.  
영훈 ... 감사합니다.  
대준 뭐, 할 말 있나?  
영훈 (아니겠지) ... 아닙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35 병원 / 8인실(오전)

다시 병실로 돌아온 영훈. 영훈 손에 들린 5만 원짜리 싸늘하게 보는 태경.

태경 겨우 그 돈 받고 우리 팔아넘겼나.  
영훈 야, 이태경.

영훈 먹살 잡는 태경.

태경 미친놈아! 하다못해 승봉이는 뺏어야지! 개고생해서 시험 붙은 애를  
꼭 저 꼴로 만들어야 했나?!

준영 (태경 말리며) 야, 영훈이도 다쳤다. 그만해라.  
태경 니나 그만 싸고돌아라! (애들 돌아보며) 느그 말해봐라. 지금 내가  
너무한 거가?! 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 돌리는 아이들.  
아이들 반응에 억울해서 자기가 더 열 받은 영훈.

영훈 야... 유승봉.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아무 말 없는 승봉. 영훈, 충격 받은 얼굴로 승봉 바라보다 돌아서 병실  
나간다. 승봉, 영훈 나가자,

승봉 ... 느그 지금 뭐 하는데.

### #36 영훈 집 부엌 + 영훈 방(오전)

혼자 라면 끓이고 있는 영훈. 김스는 풀었으나 다친 팔이 아픈지 움직임  
때마다 계속 인상 쓰는. 라면 꺼내는데, 몇 박스 쌓여 있는 라면.  
기다리는 연락 있는 듯 계속 핸드폰 보는데, 울리지 않는 폰.

CUT TO.

방에 작은 상 펴놓고 혼자서 라면 먹는 영훈. 한 젓가락 먹더니 젓가락  
내려놓는다.  
핸드폰 시계 보는 영훈. 카톡창 보는데, 아무것도 와 있지 않은.

### #37 병실 + 헬스장 + 업소 + 영훈 집(시간 바뀜)

한 달간의 시간 몽타주.  
독서실에서 자기 짐을 모두 정리 중인 승봉. 빈 영훈의 책상을 돌아본다.  
업소에서 잡다한 일을 하거나 대준의 기사 노릇을 하는 영훈의 모습.  
병실. 베드에 누워 폰게임 하거나 만화책 읽는 아이들 모습.  
헬스장. 김스한 채로 운동하는 승봉 모습 옷 바뀌어가며 보이고.  
병실 앞.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영훈.  
열린 문틈 사이로, 화기애애한 친구들 모습 보고 돌아 나온다.  
컴컴한 집에 귀가하여 불을 켜는 영훈, 텅 빈 집과 쌓여 있는 라면 박스  
보는.

### #38 병원 / 진료실(오후)

다리 김스 풀러 온 승봉.

의사 원래는 안 되는 거 알제?  
승봉 감사합니다.

승봉 다리의 깁스 풀기 시작하는 의사.

의사      조심해라. 널 끝나자마자 오고. 바로 다시 감아야 한다.

### #39 영훈 집 앞(아침)

승봉 대문 열고 나오는데, 그랜저와 함께 집 앞에 서 있는 영훈이 보인다.

영훈      (승봉 다리 쳐다보며) 괜찮나.

승봉      괜찮다.

영훈      타라, 시험장까지 태워줄게.

승봉      버스 타고 금방이다.

영훈      (뒤편 더 말하려다) … 알겠다. 시험 잘 치라.

영훈, 승봉에게 주려 산 엿을 꺼내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다,  
그냥 돌아선다. 승봉, 그 모습 보다 불러 세우는.

승봉      김영훈.

영훈이 돌아보면.

승봉      내한테 할 말 없나.

힘 빠진 웃음 짓는 영훈.

영훈      무슨 뜻인데. (승봉이 말이 없자) … 마음대로 생각해라.

돌아서는 영훈.

승봉, 차를 향해 걸어가는 영훈의 다리를 쳐다본다.

플래시백.

### #38. 병원 / 진료실(오후)

의사, 깁스 다 풀고 다리 살펴보며,

의사      (걱정되고) 널 버티겠나… 버티야지 어찌겠노. 잘하고 온나. 널 올 때 영훈이도 쯤 데리고 오고.

승봉      … 영훈이요?

의사      금마 요즘 뭐 하고 사노. 결과 들은 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왔다. 며칠 전에 코치 왔다 갔는데, 축구 그만뒀다며… 새끼… 그래도 내가 10년 가까이 지 주치의였는데… 선수 안 해도 평생 무릎 고생하기 싫으면 병원 오라캐라.

승봉      … 영훈이 무릎이 왜요?

플래시백.

멀어지는 영훈의 차를 오래도록 보고 서 있는 승봉.

### #40 체육관 안 / 복도 자판기 앞(오후)

이 악물고 뒤통일으키기 하고 있는 승봉.

결과 기록하던, 담당자.

김경사      58개! (기록하다) 어? 유승봉?

승봉      김경사님…?

CUT TO.

체육관 복도 자판기 앞. 음료수를 뽑아 승봉에게 건네는 김경사.

김경사      진짜 신기한 놈이네. 우리 동네 최고 꼴통이 우째 경찰 될 생각을 다 했노. 그래 니는 배짱이 있어가 잘할 끼다.

승봉      그만 쯤 놀리세요. (머쓱하게 웃다가) 저… 김경사님, 뭐 하나만 여쭙봐도 될까요?

## #41 국밥집(저녁)

오랜만에 모인 아이들. 영훈만 빠고 다 모인. 일곱 명 남짓.  
단골집 주인, 아이들 반기며 묶여 있던 파라솔 차례로 최악 펼쳐 야외  
테이블 세팅하기 시작한다.  
대학 합격한 얘기, 떨어진 얘기 등 오가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승봉,  
태경, 준영.

준영 시험 잘 쳤나?  
승봉 그냥저냥 했다.  
준영 고생했다. (봉투에서 사진 꺼내, 한 세트씩 나눠주며) 사진 찾아왔다.  
내가 안 가니까 어째 한 새끼도 찾을 생각을 안 하노.

사진 받자마자 잘 나왔는지 보는 아이들.

준영 (사진 보며 웃으며) 영훈이 진짜 대박이지 않나?

열어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태경.

승봉 (사진 확인하며) 영훈이는? 늦는다나.  
태경 … 안 불렀다.

승봉, 표정 싸늘해져 태경 보는데, 당황해서 수습하려는 준영.

준영 야, 그런 거 아니다. 영훈이 정신 좀 차리라고 애들이랑 짜고 잠시…  
태경 아니, 잠시 아니다. 내 이제 금마랑 얽히기 싫다.  
준영 (되려 준영이 놀라서) 야, 이태경. 니 내한테는,  
태경 느그는 화도 안 나나? 우리가 언제까지 금마 하는 거 다 받아줘야  
하는데?  
승봉 니… 설마 진짜 영훈이가 강대준이랑 짜고 일부러 사고 냈다고  
생각하나.  
태경 알았든 몰랐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영훈이 뽀에 애들 다 다쳐서

골로 갈 뻔하고, 보험사기니 뭐니 오해받은 건 사실이다이가.

연성 높아지자 승봉 쪽 테이블 쳐다보는 아이들.  
태경이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 끄덕이는 반응들 보이고.

태경 야 까놓고 말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때 놀러 갈라 했던  
거 강대준이 준비해준 거라는 거 왜 숨겼는데? 그래 몰랐다 치자,  
아무리 대가리가 나빠도 아직도 몰라서 붙어 있겠나.  
준영 야, 적당히 해라.  
태경 니나 적당히 해라. 언제까지 금마 뒤통다꺼리 할 건데? 니가 진짜  
영훈이 할맨 줄 아나.

할매라는 말에 이성 나가는 승봉. 조용히 마시고 있던 술잔 탁- 내려놓는.

승봉 그 새끼 대가리 나쁜 거 몰랐나?

싸늘해지는 분위기.

승봉 그 새끼가 대가리가 나빠서 무릎 병신 될 때까지 돈만 밝히는  
감독한테 후사당하면서도 지가 이용당하고 있는 걸 3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놈이고. 그 새끼가 대가리가 나빠서 즈그 집에 놀러 오는  
놈은 다 지 친구인 줄 알고 재워주고, 한 개 남은 라면까지 털어 먹인  
새끼다이가. 여서, 그거 모르는 새끼도 있나.

태경 … 지겹다 진짜.

승봉 그 새끼가…! 대가리가 좀만 더 잘 굴러갔어도 4년 전에… 그런  
선택은 안 했을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대가리 나쁜 건… 니  
같네.

거칠게 일어나는 승봉.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병들 엎어져 나뒹군다.  
태경, 승봉이가 앉아 있던 의자 거칠게 차는. 의자에 부딪혀 옆 테이블  
밀려 엎어진다. 음식, 식기 등 다 쏟아지고. 유리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태정 누가 등 떠밀었나?! 4년 전, 씨발...! 그 빛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  
니도 결국 빛 때문에 붙들려 있다는 거 아니가!

승봉, 말없이 태경 내려다보다 돌아서 나간다.  
정적만이 흐르는.

### #42 업소(저녁)

영훈, 업소 밖으로 취객을 끌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봉고차에서 우르르 내려 밀고 들어오는 다른 파 조직원들.  
놀란 영훈 뒤돌아 도망치는데, 머리를 가격당한다.  
휘청거리는 영훈의 머리채를 잡고 업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CUT TO.  
개싸움이 벌어진 업소 안.  
바닥에 던져져 있다 겨우 정신 차리는 영훈. 대준이 뒤에서 기습당하려  
하자 일어나 달려가는.

### #43 영훈 집 현관 + 방 안(새벽)

열쇠로 집 문을 따고 있는 영훈. 오한이 드는지 덜덜 떨리는 몸.  
계속 헛손질하는.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뒤를 확인하며 겨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영훈.  
불부터 켜는데. 방문 열고 놀라는 영훈. 승봉이 책상 앞에 서 있는.  
승봉, 영훈의 검정고시 시험성적표를 보고 있다. 평균 20점대인.  
영훈, 덜덜 떨리는 몸을 숨기려 애쓰며 인사하는데.

영훈 어쩐 일이고...  
상처로 엉망이 된 영훈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는 승봉.

승봉 사진 주러 왔다. (하면서 건네는)

영훈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네받으려는데 덜덜 떨리는 손, 빨리 감추며) 잘  
나왔네. (보일러 틀며) 자고 갈래?

승봉 (한숨 쉬는) 쫄보새끼가 뭐 깡패 짓을 하겠다고... 지랄 그만하고  
온나.

영훈 알았다. 알았으니까 자고 가라. 어?

CUT TO.

나란히 누워 있는 두 사람. 어색한 공기. 뒤척이던 영훈 살며시 일어나며,

영훈 웃지 마라...

영훈, 무릎으로 서랍장 앞으로 걸어가 위에 놓여 있는 낡은 카세트의 재생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카세트에서 아무 소리 안 나오고.

승봉 (상체 일으켜 앉으며) 뭐 하는데.

찰칵 소리 나며 재생 버튼이 올라오자, 능숙하게 테이프 빼서 뒷면으로  
돌려 놓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르는.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방 안. 반야심경인.

영훈, 다시 이불로 돌아와 눕는. 쪽팔려서 얼굴 시뻘건.

그 모습 황당하게 보는 승봉.

영훈 요새 꿈자리 사납다. 저거 틀면 좀 낫더라. 애들한테 말하면 죽는다.

승봉 (영훈 보다) 저거 아직 있었나... (눕는) 무슨 꿈 꾸는데.

영훈 ... 우리 할매.

승봉 ... 할머니 나오면 좋은 거 아니가.

영훈 할매가 자꾸 운다.

승봉 ... 헛짓거리 하고 땡기니까 그렇지. (돌아누우며)

꿈은 반대란다이가.

영훈 (그 모습 보고) 야... 등 보이지 마라.

승봉 (어이없고) 뭐 그럼 둘이 얼굴 맞대고 잘까? (가까이 얼굴 들이밀며)  
자자. 됐나?

영훈 (웃음 터진) 아, 돌아이가.

영훈 얼굴 밀어내는데, 계속 들이미는 승봉, 결국 숨넘어가게 웃는 두 사람. 그러다 다시 자세 고쳐 잡고 바로 누우며,

승봉 (진지하게) 약속했다.  
영훈 어...

### #44 업소 사무실(저녁)

업소 사무실. 긴장한 얼굴과 각 잡힌 자세로 대준 책상 앞에서 있는 영훈.

영훈 죄송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대준 어제 일로 많이 놀랬나. 원래 그렇게 배우면서 크는 거다.  
영훈 그냥... 이 일이 저랑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대준 (보다) 영훈아. 뭘 해본 게 있어야 판단을 하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밥만 축내놓고 맞니 안 맞니 그만 소리를 하고 있노.

말투와 표정 달라진 대준.

대준 내가 그동안 너무 배려했제? 일다운 일 줄 테니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보고 얘기해라.  
영훈 화나시는 거 이해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깁듯이 인사하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훈 돌아서 나오려는데,

대준 생각해보니... 밥값은 했네. 근데 그 일이 좀 꼬였다. 어짜노 영훈아, 니 친구들 다 보험사기로 콩밥 먹게 생겼는데.

영훈, 놀라 돌아보면.

대준 니야 한 번 해봤지만... 니 친구들이 견디겠나. 승봉이 금마는 어찌 됐노? 경찰 된다나?

그제야 고의사고였음을 깨닫는 영훈, 온몸에 피가 빠지는 느낌.

### #45 업소 룸(저녁)

빈 룸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영훈. 생각한다. 떨리는 몸을 진정하려 애쓰며 생각한다.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는 영훈. 친구들과 찍은 졸업식 대체 사진. 친구들 품에 모로 누워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모습 보이고. 차례로, 친구들 얼굴 하나하나 보는. 생각을 끝내는 영훈.

### #46 강변(오후)

강변에서 낚시 중인 아이들 대여섯 명. 승봉은 없는. 낚시대 걸어둔 채로 아무렇게나 바닥에 앉아 배달시킨 짜장면 먹고 있는 애들. 그때, 모래바람 일으키며 가로질러 달려오는 그랜저. 먼지에 인상 찌푸리는 아이들. 차에서 영훈 내리는.

준영 (중간에서 분위기 살피며 난처해하는) 어... 영훈아. 낚시하러 왔다.

대답 없이 앞에 놓인 낚시대 하나 들어서 미끼 확인하는 영훈. 비어 있자 미끼 하나 끼워 낚시줄 힘껏 내던진다. 첫가락질 멈추고 다들 뭐 하는 짓인가 영훈 보는데.

영훈 여서, 백날 낚시대 던져봤자 뭐 잡히더냐. (애들 내려다보며) 언제까지 길바닥에 앉아서 불어터진 짜장면에 뿌리친 쿠폰으로 탕수육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서 살 건데.

태경 ... 그 말 하러 왔나?

영훈 몸 상태 보러 왔다. 뭐, 낚시도 하고, 이제 다들 괜찮아 보이네. 그냥 살짝 흥내만 내겠다 했는데 그렇게 세계 들이박을 줄은 몰랐다.

슬렁이는 아이들.  
5만 원짜리 몇 장 꺼내 탕수육 그릇 밑에 끼우는 영훈.

영훈 실수니까 이해해라.

돌아서 차에 올라타는 영훈. 위악 부리는 거 느끼고 아무 말 없는 아이들.  
출발하는 영훈의 차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보는 태경과 준영.

### #47 산동네(오후)

산동네로 들어서서 영훈.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간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표정 없이 계속 걸어가는 영훈.

### #48 판잣집 마당(오후)

낡은 1층 판잣집 마당으로 들어서서 영훈.  
현관문 두드리는데 반응 없고 잠겨 있는. 대청마루에 걸터앉는 영훈.  
빗줄기가 거세지며 마당 가득 쌓여 있는 박스와 낡은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이 빗물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 그때, 소리치며 뛰어 들어오는  
태권도 도복 입은 초등학교 남자애.

아이 할매!! 내 금메달 땀다!

영훈을 보고 굳은 표정으로 멈춰 서는 남자애. 잠시 말 고르더니,

아이 우리 할매 돈 없어요.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거 아니구요, 바우처라서  
공짜로 방과후에서 하는 거예요.

문지도 않은 말을 혼자 쏟아내는 아이에 황당한 영훈.

영훈 ... 누가 물어봤나.

아이 아저씨 사채업자잖아요.

어이없다는 듯 웃는 영훈,

영훈 내가 사채업자로 보이냐.

아이 아니에요?

반박할 입장이 아님을 깨닫고.

영훈 (벌떡 일어나며) 장난치냐. 어딜 봐서 내가 아저씨고. (박스 쪽으로  
걸어가며) 니는 할매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박스 비 맞는 거 보고도  
가만있냐.

박스 옆에 있는 낡은 비닐들 끌어다 박스 위에 덮는 영훈.  
그런 영훈 가만히 보다 빨래 걷는 남자애.

영훈 (그 모습 발견하고) 야야! 냅두라. 빨래는 이미 망했다. 괜히  
도복까지 배려서 빨랫감 늘리지나 마라.

남자애, 입술 삐죽거리며 대청마루에 가서 앉는.  
비 맞으며 비닐 씌우는 영훈 가만히 보다가,

아이 아빠 빗이 얼만데요?

영훈 (수돗가로 걸어가 손 씻으며) 알면? 니가 갯개? 모르는 게 속 편하다.

아이 지금은 돈 없지만,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갯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영훈, 옷에 손 대충 닦고 남자애 옆에 가서 앉는.

영훈 뭐 해서 돈 많이 벌건데. 행님이 먼저 컸으니까 방법 좀 공유해도.  
아이 나중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상금도 받고 CF도 찍을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번다 했어요.

한숨 쉬는 영훈.



영훈 뭘 놈의 레퍼토리가 변하질 않노.

그때, 영훈의 배에서 천둥소리 나는.

아이 (한심하게 보다) 라면 먹을래요?

영훈 (손 내젓는) 라면 지겹다.

### #49 판잣집 방 안(오후)

밥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영훈. 된장찌개에 고등어조림, 가지볶음,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총각김치 등이 보이는. 남자애, 컵라면에 물을 부어 밥상으로 가져온다.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는 영훈.

### #50 과거. 영훈 집 부엌(오후)

어린 시절.

현관문을 열고 호들갑을 떨며 뛰어 들어오는 초등학교생 영훈.

영훈 할매! 내 오늘 두 골이나 넣었다!!

칭찬을 기대하는 영훈의 설레는 표정 위에 찬물처럼 끼어들어지는 목소리.

승봉 자살골 아니고?

밥상에 앉아 밥 먹고 있는 승봉을 보며 소리 지르는 영훈.

영훈 너는 왜 또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있는데?! 할매 점마 밥 주지 마라!

할머니 우리 똥강아지 고생했다. 어여 와서 앉아라.

영훈 할매 나는 라면. 라면 끓이도. 밥 싫다.

그러면서 걸어가 카세트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던 낡은 오디오를 꺼버리는.

할머니, 영훈 앞에 따뜻한 밥과 국 놓아주고서, 다시 오디오 켜는.

영훈 아 할매 쫘! 불경 쫘 그만 틀으라. 듣기 싫다! 그리고 내 라면 먹고 싶다니까!

할머니 알았다. 끓이주게. 밥도 묵고 라면도 묵으면 되지. 승봉이도 라면 묵으끼제.

승봉 네!

시원하게 대답하는 승봉과 맘에 안 든다는 듯 흘겨보는 영훈.

### #51 판잣집 방 안(오후)

밥과 찌개, 반찬을 싹 비운 영훈.

아이 (그 모습 어이없게 보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왔나...

영훈 (괜히 무안해서) 우리 할매보다는 너희 할매가 음식 솜씨가 쫘 못한 것 같다. 그래도 먹을 만하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라. (만 원짜리 하나 꺼내 건네며) 설거지는 니가 쫘 해라.

내밀어진 만 원짜리 가만히 보던 남자애.

아이 싫은데요. 사채업자한테 돈 받으면 두 배로 세 배로 갚아야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설거지는 원래 제가 하거든요?

남자애 보는 영훈 눈.

영훈 너는... 진짜 공부해야겠다.

### #52 판잣집 골목길(오후)

대문 밖을 나오는 영훈.

그치지 않은 비를 맞으며 골목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낡은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힘겹게 골목을 올라오는 한 할머니가 보인다.  
할머니가 고개 들어 영훈을 보자, 눈이 마주친 순간 얼어붙는 영훈.

### #53 과거. 소년원(오후)

텅 빈 눈으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중학생 영훈.  
철제 잠금쇠 풀리는 소리 들리며 교도관이 문을 연다.

교도관 김영훈, 면회.

CUT TO.  
소년원 면회실.  
영훈의 할머니가 두 손으로 엄주를 굴리며 대기하고 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혼자 들어선다.

교도관 (안타깝게 보는) 오늘도... 면회 거북니다.

CUT TO.  
소년원 강의실.  
교과 수업시간. 칠판에 시 수업이라고 적혀 있는. 그 옆에 주제  
'가족'이라고 적혀 있는.  
펜을 들지 않고, 주제가 적힌 글씨를 텅 빈 눈으로 보고 있는 영훈.

CUT TO.  
소년원 감방.  
바닥에 앉아 식판에 담긴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영훈. 그때, 문 열리며  
교도관 들어오는.

교도관 김영훈... 나와.

영훈, 교도관을 바라보는데, 교도관의 표정에서 불길함을 느낀다.

### #54 판잣집(오후)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영훈, 자기도 모르게 시선 피하며 다른 골목으로  
도망친다.  
멍한 얼굴로 쫓기는 사람처럼 빠른 속도로 걸어 내려오는 영훈.

### #55 길거리(저녁)

횡단보도에 서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영훈.  
천 원짜리 비웃 입고 군고구마 팔고 있는 중학생들 보인다. 폼 잡으며  
철없이 웃고 떠드는.  
신호등 불이 바뀌자, 건너가는 영훈. 겁에 질려 고개 숙이며 돈 내미는  
후배1.

후배1 오늘 비가 와서 별로 못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돈을 바라보던 영훈.

영훈 ... 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고 자기들끼리 눈짓 주고받는 후배들.

영훈 꼬지라고!!

영훈이 소리치자 그제야 다들 도망치듯 뛰어간다.  
드럼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영훈. 미친놈처럼 달궜진 드럼통을 밟는.

### #56 업소 / 대준 사무실(저녁)

짹 소리와 함께 고개 돌아가는 영훈.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그냥 왔다는 영훈의 대답에 꼭지가 돈 대준.

대준 그냥 와? 그냥? 아무도 없어서 그냥 왔다고?

실소와 함께 계속 되물으며 빵을 때리는 대준.

대준 근성 없는 새끼. 축구 때려치울 때부터 알아봤다. 제일 쉬운 일 시켰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하나?! 내 말이 우습나?

표정 없이 신음 소리 하나 흘리지 않고 이 악물고 그걸 다 받아내고 있는 영훈. 그때, 조직원 하나가 심각한 얼굴로 뛰어 들어온다.

조직원 행님...! 김창수 떠올랐습니다...!

거뿐지는 손. 굳은 대준의 얼굴.

## #57 업소(저녁)

영훈, 카바레 홀 빈 테이블에 앉아 블루스를 추는 중년의 남녀를 멍하니 바라본다. 초점 없는 눈으로 찢어진 입가의 피를 소매로 닦는데, 손목의 염주에 상처 쓸린다. 통증을 참으며 염주를 내려다보는 영훈. 염주에 피가 살짝 묻은 게 보이고. 영훈, 불안함이 엄습한 표정으로 염주에 묻은 피를 닦아낸다. 그때, 덩치들이 심각한 얼굴로 대준 사무실 안에서 나오고. 그중 한 명이 영훈을 부른다.

조직원 영훈아, 드가봐라.

## #58 업소 / 대준 사무실(저녁)

대준과 다시 독대하는 영훈.

대준 얼굴이 많이 부었네... 아까는 행님이 좀 지나쳤다.

대답 없이 듣고만 있는 영훈.

대준 어릴 때부터 아끼던 동생인데 축구도 그만뒀다 하고 가족도 없고, 중동 갔다던 아버지야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이가. 니 생활비도 안 부쳐주제? 안다이가. 행님도 할머니 손에 크고... 내도 고생 많이 했다. 처지도 비슷하고 해서 마음 쓰여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 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께.

그제야 고개 들어 대준의 눈을 보는 영훈. 의심스러운 표정.

대준 마지막으로 행님 한 번만 도와주고 가라. 짧게, 잠깐만 빵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승봉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영훈.

인서트.

#20 영훈 방(밤)

영훈, 누운 채 소리 나는 쪽 쳐다보면 술과 안주 가득 든 봉지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승봉.

승봉 그런 새끼들이 니같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애들 영입하는 이유가 뭐 줄 아나.

몸 일으켜 세워 앉는 영훈.

영훈 (승봉 똑바로 쳐다보며) ... 뭐데?

승봉 겁대가리 없이 시키는 대로 칼빵 놔줄 놈, 대신 감빵 가줄 덜떨어진 새끼.

인서트 끝.

텅 빈 영훈의 눈. 계속해서 설득하는 대준.

대준 초범이고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많이 안 받는다. 잘 봐라, 군대도

안 가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득이다. 거기다 행님이 그냥 가라 하겠나. 나오면, 니 작은 가게 하나,

영훈 … 싫습니다.

말 끊는 영훈에 기가 차고, 대답은 더 마음에 안 드는 대준.

대준 싫다고?

영훈 네, 싫습니다.

대준 웃는다.

대준 … 영훈아, 니는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손에 피 묻히기도 싫고, 빨간 줄 그이기도 싫고… 내가 니 왜 데리고 왔는지 아나? 니가 싸움을 잘하나, 머리가 잘 돌아가나… 딱 하나 의리. 의리 하나만큼은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는갑네…

CUT TO.

문 열고 덩치들 들어온다.

질질 끌려 나가는 영훈. 예상한 듯 동요 없는.

## #59 업소 / 빈 룸(저녁)

빈 룸 안에 처박히는 영훈. 영훈을 밟기 시작하는 덩치들.

계속해서 밟히는 영훈.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려 팔을 올리는데, 날아든 발길질에 영훈의 팔에 차고 있던 염주가 터져 알이 아무렇게나 굴러간다. 흩어지는 염주 알을 잡아보려 손을 뻗는 영훈. 그러나 그대로 의식을 잃는다. 의식 잃은 영훈을 두고 나가는 덩치들. 죽은 듯 쓰러져 있던 영훈, 눈을 뜨려 애쓰는 듯 눈가가 계속 떨린다. 가까스로 눈을 뜨자, 카바레 룸 천장이 보인다. 몸을 움직여보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내려간 시선에, 맥없이 널브러져 있는 염주 알이 보인다.

## #60 과거 회상. 소년원 + 장례식장(낮)

소년원 감방.

더러운 변소를 보고 토악질하는 영훈.

CUT TO.

소년원 감방.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형들을 보며,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는 영훈. 교도관이 달려와 소리 지르며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귀를 틀어막으며 무릎에 고개 박고 우는.

CUT TO.

소년원 감방.

바닥에 앉아 식판에 담긴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영훈. 그때, 문 열리며 교도관 들어오는.

교도관 김영훈… 나와.

영훈, 교도관을 바라보는데, 교도관의 표정에서 불길함을 느낀다.

CUT TO.

장례식장.

할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는 영훈.

뒤에 서 있던 친구들 다가와 얼이 나가 있는 영훈을 끌어안는데.

품에 끌려간 채 표정 없이 멍하니 서 있는 영훈. 아직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얼굴. 그때, 다가오지 못하고 뒤에 서 있던 승봉. 걸어와, 영훈의 팔에 염주를 채운다. 수갑을 채울 때의 소름 끼치던 느낌, 기시감에 흠칫 떨며 자기도 모르게 뿌리치는 영훈. 승봉,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에 나뒹구는 염주 주어준다. 떨리는 손으로 내밀며,

승봉 할머니가… 니 주라고. 꼭 전해달라고…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하는 승봉.  
일그러지는 승봉의 얼굴을 보고, 그제야 현실을 깨닫는 영훈.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목을 눌러 울음소리를 참아내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내며 서럽게 운다.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플래시백.

## #61 업소 / 빈 룸(밤)

널브러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영훈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영훈, 다시 몸을 움직이려 애쓰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겨우 상체를 일으켜 소파 난간을 붙잡고 이를 악물고 일어선다.  
룸의 문을 열고 죽을힘을 다해 내달리는 영훈.

CUT TO.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직원들. 영훈이 없어진 걸 알고 달려 나간다.

## #62 국밥집(밤)

국밥집 테이블에 앉아 있는 승봉과 준영, 태경.  
준영, 굳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쓴다.

준영 (승봉 보며) 합격 축하한다. 다행이다 다쳐서 걱정했는데,  
태경 왜 불렀는데?

다시, 굳어지는 분위기. 그때, 국밥이 나오고.

승봉 (말없이 차려지는 모습 보다) 일단, 먹자.

무거운 분위기에서 수저를 드는 셋.

## #63 골목길(밤)

비틀거리며 내달리는 영훈, 골목 귀퉁이에 몸을 숨기고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통화 연결음이 끊기자마자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상대방(E) 여보세...

영훈 개새끼야! 니 왜 한 번도 면회 안 왔는데?! 씨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나?!

그때, 뒷목을 가격당하는 영훈. 날아가 땅바닥을 뒹구는 핸드폰.  
한쪽 무릎을 꿇고 겨우 버티던 영훈, 조직원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고는  
도망친다.

## #64 국밥집 앞(밤)

더 이상 걸을 힘도 남지 않은 영훈. 점점 속도가 떨어지더니, 결국 국밥집  
앞에서 조직원에 붙들린다. 끌려가는 영훈의 두 눈에,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앉아 있는 승봉과 준영, 태경의 옆모습이 보인다.  
준영, 태경, 바깥 상황 모른 채 국밥 떠먹고 있는.  
승봉은 심각한 얼굴로 영훈에게 다시 전화 거는데. 받지 않는.  
영훈, 가게 안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치려 하는데, 입이 틀어 막히고  
질질 끌려간다.

## #65 국밥집(밤)

#63 이어지는.  
심각한 얼굴로 핸드폰 보고 있는 승봉.

준영 (승봉의 표정 보고) 왜? 뭐 일 있나?

승봉, 휴대폰 내려놓고.

승봉 내, 모레 군대 간다.

순가락질하던 준영과 태경의 손이 동시에 멈춰 선다.

준영 무슨 소리 하노? 니 군대 면제다이가? 그리고 담 주 경찰시험 최종면접 아니가?

승봉 면접 안 본다. 군대 간다.

태경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

승봉 영훈이랑 동반입대 신청했다. 제일 빨리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다.

준영 승봉아...

승봉 금마, 김정고시 시험 치러 갔더라. 평균 몇 점인지 아나? 24점. 근데 1교시부터 하나도 안 빼고 다 쳤더라. 그날 결정했다.

태경 ... 니 지금 존나 멋있어 보이는지 아나?

승봉 보인다가, 자꾸. 그만두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겠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혼자 속으로 우는 게 보이잖아. 체력시험 치러 갔다가 김경사님 만나서 대준이네 얘기 물었다. 거기 원래 대가리 곧 출소한단다. 영훈이, 거기 두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

준영 (답답한) 차라리... 내한테 말하지 그랬노...! 내가 가면 됐잖아.

승봉 한 번만 그때 얘기 꺼낼게. 싸우자는 거 아니고, 한 번은 우리 하고 가야 할 거 같아서... 그때... 영훈이 혼자 보냈으면 안 됐다. 우리한테 지켜운 그 일이, 그 새끼한테 상처다. 겁 많은 거 다 알면서 그 등 뒤로 숨은 거, 비겁했다. 영훈이 그 일 지금까지 한 번도 지 입으로 꺼낸 적 없었다. 우리 셋도 고등학교 들어온 뒤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입 밖으로 안 꺼냈다. 근데 나도 니도 준영이도 이 얘기가 지겹다면, 우리가 각자 혼자 속으로 되새긴 거겠지. 후회돼서...

태경의 표정이 점점 참을 수 없게 일그러진다.

태경 니가 먼저 도망쳤잖아 개새끼야! 영훈이 소년원 나와서 할매도 없는 텅 빈 집에서 매일 악몽 꾸면서! 1년도 넘게 잠도 제대로 못 잘 때! 무서워서 넌 도망쳤잖아! 그때, 준영이랑 내가 매일 밤 애 옆자리

지키면서! 망가진 모습 보면서 얼마나...!! 씨발...!

준영 ...

태경 그때 이후로 니 한 번도 영훈이 집에서 안 잤잖아. 이제 와서 왜 지랄인데...!

숨을 고르며 말을 고르는 승봉.

승봉 그래서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태경. 멍하니 앉아 있는 승봉.  
그 앞을 지키고 앉아 있는 준영.

**#66** 업소 / 대준 사무실(점심)

뒤로 팔 묶인 채, 속옷 차림으로 끌려 들어오는 영훈.

대준 (소리 지르는) 애 꼴이 이게 뭐고! 빨리 옷 안 입히나? (다정하게 영훈 보며) 배고프제?

CUT TO.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짜장면 배달원이 들어온다. 태경이다.  
철가방에서 그릇 꺼내다, 고개 떨군 채 엉망인 몰골로 앉아 있는 영훈 발견한 태경.  
대준, 그런 태경 보며 영훈 자극하는.

대준 영훈아, 니 친구 왔네.

그 말에 고개 드는 영훈. 퉁퉁 부어 잘 떠지지 않는 눈을 겨우 떠 태경을 보는데.  
충격에 떨리는 태경 몸. 영훈과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 고개 돌린다.

대준 와 영훈아, 저 새끼 봐라. 우정이고 나발이고 저렇게 쓸모없다. 행님

친구들 동네에서 내 보재? 오던 길 돌아간다. 개새끼들. 지들이 누구 덕에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안 그렇나 영훈아. 너는 저 새끼들 대신 독박 쓰고 소년원까지 갔다 왔는데 짐마 저 썩까는 거 봐라.

태경, 떨리는 손으로 겨우 그릇 다 내놓고 일어선다.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는 영훈의 절박한 시선 느껴지지만, 외면하고 나가는.

대준      행님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일단 밥 먹고,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일 일찍 목욕이나 좀 하고 경찰서 가보자. 어?

자포자기한 영훈의 눈빛. 텅 빈.

### #67 목욕탕 탈의실(아침)

탈의실에서 감시받으며 옷 벗는 영훈. 열쇠도 뺏기는.

### #68 목욕탕 탕 안(아침)

탕 안에 앉아 있는 영훈. 직원들 양쪽에 붙어 앉아 감시하고 있다. 탕 중앙을 향한 영훈의 텅 빈 시선 끝에, 친구들과 즐거웠던 한때가 보인다.

인서트.  
당구비 내기로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을 하던 때.

인서트.  
그때의 웃음이 생각나서 지금 상황도 잊은 채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영훈. 그러다, 영훈의 귀에 울려 퍼지는 승봉의 목소리.

승봉(E)      ... 후회 안 하겠나?

올라간 입가가 추락한다. 현실로 돌아오는 영훈.  
그때, 옆 탕에 종딩 무리가 우르르 들어와 앉는다.  
고구마 팔던 후배들이다. 등을 지고 있어 영훈은 후배들을 보지 못한.  
그때, 영훈과 등을 맞대고 앉은 후배1 허밍 하듯 노래를 부른다.

후배1      나도 알지 못한 날 굳이 알려고 들진 마~ 보여줄 수 없는 내 마음만 안타까울 뿐.

흠칫 놀라는 영훈. 고개 돌리려는데,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

후배1      내 먼저 나간다. 늦어도 9시까지 나온나.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하는 영훈, 영훈의 등 뒤로 탕 안에서 일어서는 물소리가 들려온다.  
그때, 다시 한 번 들려오는 목소리.

후배1      늦으면 뒤질 줄 알아라.

혼란스러운 영훈의 표정. 그때, 영훈을 톡 치는 옆에 있던 직원1.  
놀란 영훈이 돌아보면,

직원1      갔다 온나, 나라시.

### #69 목욕탕 / 세신실(아침)

세신실 베드에 엎드려 세신사에게 때밀이 받고 있는 영훈.  
불안한 얼굴로 눈동자를 굴려, 멀리 벽에 붙은 커다란 시계를 훑쳐본다.  
복잡한 표정의 영훈,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꼭 감았다 한참을 있다 다시 눈 뜬다. 영훈의 시선 끝에 9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곗바늘이 보인다.  
눈치 살피던 영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때 묻은 몸에 수건 하나 걸치고 도망친다.

## #70 목욕탕 밖(아침)

헬스복을 대충 걸치고 뛰쳐나온 영훈, 다급하게 주변을 살피지만 아무도 없는. 망연자실한 그때,

태경 진짜... 가지가지 한다.

골목 안쪽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에 앉아 걸옷을 던져주는 태경.  
얼떨결에 받아들이고 정신없이 끼입는 영훈.

태경 뭐 하노?! 빨리 타라.

정신 차리고 골목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영훈.

## #71 도로(아침)

최대 속도로 내달리는 태경의 오토바이.  
신호등이 주황불로 바뀌자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서는 태경.  
태경의 허리를 잡은 채, 그제야 입을 떼는 영훈.

영훈 뭔데...?

태경 뭐가.

영훈 이태경...

태경 존나 잘 처먹고 살 거라드만 짜장면 드럽게 많이 시키 목노. 니 진짜 짜증 나는 거 아나.

영훈, 그제야 긴장이 풀려 태경의 등에 머리를 기대고 얼굴을 파묻는다.

태경 미친놈아... 붙지 마라 옷 젖는다.

통명하게 말해놓고, 울먹이기 시작하는 태경.

태경 미안하다... 혼자 도망쳐서... 씨발... 어제 그 새끼들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존나 무섭더라...  
알잖아. 내 원래 비겁한 거...

태경 등에 얼굴 파묻은 영훈의 어깨가 떨린다.  
다시 초록불로 바뀌자, 태경 속도를 높여 내달린다.

## #72 수목장 주차장(오전)

수목장 주차장에 멈춰 서는 태경의 오토바이.  
준영이 하얀 국화 다발을 들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기대서 있다.

영훈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어리둥절해 준영 향해) 여기서 뭐 하는데?  
준영 니 기다렸지. (국화 다발 건네며) 드가봐라.  
영훈 (얼떨결에 국화 다발 받으며) 어?

## #73 수목장(오전)

수목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영훈의 눈에 나무 앞에 서 있는 승봉이 보인다. 승봉, 나뭇가지에 종이를 매달고 있는.  
다가가는 영훈, 나무 앞에 국화 다발 가지런히 내려놓고 절한다.  
일어나 가만히 나무를 바라보며 눈으로 인사 건네는 영훈.

승봉 사철나무로 하기 잘했다. 그제? 겨울에도 안 시려 보여서 다행이다.  
영훈 ... 갑자기 할머니한테는 왜?

승봉 내가 말한 적 있었나. 니, 할머니랑 진짜 많이 닮은 거... 특히 눈.  
영훈 ... 뭐 소린데.

그때, 영훈의 시야에 나뭇가지에 묶여 바람에 살랑이는 종이가 보인다.  
영훈, 다가와 종이 보면, 글이 적혀 있는.  
글씨를 눈으로 읽어 내려가다 동요하는 영훈의 표정.  
영훈이 쓴 시다.



인서트.  
소년원 강의실.  
칠판에 적힌 주제 '가족'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던 영훈, 연필을 든다.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

우리 할매는 눈이 나쁘다.  
내가 착한강아진 줄 안다.  
우리 할매는 눈이 예쁘다.  
그래서 지금은 할매를 볼 수 없다.  
지금 나를 보면 우리 할매 눈이 더러워질 거 같다.  
우리 할매는 어린 나를 먹이고 씻겼다.  
할머니한테 난 아직 착한강아지니까 할머니가 다시 먹이고 씻겨주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적어 내려가는 손.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인서트 끝.

승봉 내 매일 갔다... 니가 할매를 만나주지 않은 이유가, 내가 니를 볼 수  
없었던 이유다... 니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다. 같이 갔었어야 했다.  
미안했다, 영훈아. 아니, 미안하다...

영훈, 뭐라 말을 하려는데. 고르다, 한참을 고르다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승봉,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 꺼내 건넨다.  
영훈, 펼쳐보면 입영통지서이고. 김영훈 적힌.

영훈 미친... (다급히 승봉 보며) ... 아니제?  
승봉 니한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다. 참고로 거기  
훈련소에선 땡끄부대 젤 많이 간단다. 땡끄 안에 대가리 처박고  
있으면 절대 니 못 찾는다. 찾아도 그그가 어쩔 쥘대.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

영훈 뭐?  
승봉 오늘 입소다. 바로 비행기 타러 가야 한다.  
영훈 (어안이 병병해서) 미친놈아...  
승봉 (영훈 눈 똑바로 마주하며) 같이 가자, 영훈아.

영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눈으로 보면.

승봉 할머니 밥 삼시세끼 얻어먹은 죄로... 짬밥 같이 먹어준다.  
영훈 어...?  
승봉 (웃는) 동반입대라고.

영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 며칠간의 끔찍했던 기억이 몰려와  
오한 들린 사람 마냥 떨기 시작하는 영훈.

영훈 개새끼야... 진짜 니는... 처맞아야 한다...  
승봉 (그 모습 보다) ... 늦었다.

쪽팔려서 욕지거리 내뿜고선 아이처럼 엉엉 우는 영훈.  
승봉, 손을 뺐는데 영훈, 승봉을 바라보다 그 손 잡고 일어선다.

## #74 동네(오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오토바이. 태경의 뒤엔 영훈, 준영의 뒤엔 승봉이  
타고 있다.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동네.  
강변의 낚시터, 태경이 일했던 중국집 앞, 단체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  
사진관 등을 지난다. 다시 목욕탕 앞을 지나는 오토바이. 지나쳐가며  
목욕탕 입구를 돌아보는 승봉. 오래오래 본다. 영훈, 그런 승봉을 보는.

## #75 암자 법당 안 + 마당(늦은 오후)

#1 이어지는.  
법당 앞 돌계단 위에 걸터앉아 있는 승봉과 영훈.

승봉의 시선으로 보면, 확 트인 전망 속에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생각에 잠겨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승봉. 옆에 앉은 영훈도 동네를  
바라보다가,

영훈 (고개 돌려 승봉 보며) ... 무슨 생각하노? 니는 입마, 생각이 너무  
많다.

대답 없는 승봉,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승봉 이래 보니까, 우리 동네... 진짜 좁만하네... (하고서 여전히 동네를  
내려다보며) 왜, 왜 그랬는데. 대가리가 그 정도로 나뻐나... 아니면...  
우리 못 믿겠더나...

영훈 (웃는 영훈) 새끼... 빼졌나... (잠시 생각하는) 때만 밀고  
나갈랐는데, 밀어도 밀어도 계속 나오드라. 그래서...

## #76 목욕탕 세신실(아침)

#69 이어지는.

세신실 베드에 엎드려 세신사에게 때밀이 받고 있는 영훈.  
불안한 얼굴로 눈동자를 굴려, 멀리 벽에 붙은 커다란 시계를 훑어본다.  
복잡한 표정의 영훈,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꼭 감았다 한참을 있다 다시  
눈 뜬다. 영훈의 시선 끝에 9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곗바늘이 보인다.  
눈치 살피던 영훈, 갑자기 벌떡 일어나려 몸 움찔하는데,  
머리맡에 놓이는 빨대 꽂힌 요구르트 하나. 대준이다.

대준 영훈아, 혹시 지금 억울하나? 왜 니가 다 뒤집어써야 하나 싶고?

이를 악무는 영훈.

대준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니가 알려줬잖아, 그 새끼 어딴는지.  
문신집, 내 그래 염치없는 사람 아니다.

충격에 휩싸인 영훈의 표정. 덜덜 떨려오는 몸.  
결국 일어섰던 몸이 내려앉는 게 느리게 보여지고.  
굳은 채 엎드려 있는 영훈의 뒤통수를 토닥여주고 가는 대준.

## #77 암자 법당 안 + 마당(늦은 오후)

#75 이어지는.

법당 앞 돌계단 위에 걸터앉아 있는 승봉과 영훈.

영훈 때만 밀고 나갈랐는데, 밀어도 밀어도 계속 나오드라. 그래서...  
(말 고르는) 타이밍을 놓쳤다.

의식을 주관 중인 스님의 목탁 소리가 점점 커지자, 승봉, 일어나 법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 준영, 태경 옆에 나란히 선다.

절을 하는 세 사람의 뒷모습.

의식을 돕는 보살의 보조를 받으며, 영정 앞에 소주를 올리는 승봉.

끝까지 누구의 영정사진인지 보여주지 않는.

바깥 돌계단에 혼자 남은 영훈.

CUT TO.

암자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을 타고 울린다.

여전히 돌계단에 앉은 채 해가 누엿누엿 저가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영훈의  
시선 끝에 오토바이 두 대가 보인다.

오토바이로 걸어가는 승봉과, 준영, 태경.

자기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 거는 태경과 준영.

준영의 뒤에 올라탄 승봉이 고개를 들어 법당 쪽을 바라본다.

돌계단에 앉은 영훈이 승봉과 시선을 맞추며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시끄러운 배기음 소리만을 남기고서, 출발하는 오토바이. 멀어져간다.

끝.

지금껏 써왔던 글들이 컴퓨터 폴더에 잠드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어차피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할 글이라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고. <반야>는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많은 생각들을 밀어내고, 그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쓴 글이었다. 그런 <반야>로 오픈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닫혀 있던 문이 열리며 큰 화두를 받은 느낌이었다.

멘토이신 이태곤 감독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후,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게 안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멘토였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린 후 그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반야의 결말에 대해 감독님은 우려를 표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작법의 논리 사이에서 역량의 한계를 절감했지만, 극복해보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많은 공부가 된 감사한 멘토링 시간이었다. 또 감사하게도 <반야>는 영상화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좋은 연출 감독님을 만나 즐겁게 소통하며 촬영고를 만들어나갔다.

당선고에 비해 촬영고는 좀 더 친절한 대본이 되었다. 나만 알던 단서와 전사들을 좀 더 풀어놓았다. 중편 시나리오로 썼던 작품이라, 정해진 러닝타임을 위해 분량을 덜어내는 작업도 거쳤다. 두드러지게 수정된 부분은 멘토링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던 절정부였다. 정말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려졌던 상상권의 힘을 빼고 분량을 줄였다. 첫 회의 날부터, 회의할 내용을 A4 용지 두 장에 걸쳐 섬세하게 정리해오신 감독님 덕분에, 대본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 존중해주셔서 당선고의 틀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오래도록 닫혀 있던 문 너머로 이제 막 한 발짝 건너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묵묵히 열심히 써 내려가면서, 화두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고민의 시작점에 설 수 있게 해준, 오픈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꿈꾸던 시간을 함께해준, 함께해나갈 2기 작가님들께도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다.

## 내 연적의 모든 것

김보겸

---

## 작의

이 드라마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다.  
연적(戀敵)의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할지 말지 기로에 선 한 여자의 선택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었다.

---

## 등장인물

### 오동주(36세, 여)

약사. 다이어트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보통 여자다.  
어느 날, 13년이나 만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단서라고는 빨간  
동백꽃 모양의 핀을 꽂은 것밖에 모르는 연적을 추적한다.

### 이준희(26세, 여)

동주의 특별한 단골손님. 모텔 뺨치는 몸매와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

### 김지석(36세, 남)

대학교 시간강사. 동주의 오랜 남자친구다.

### 그 외

마은정(동주의 절친) 등 다수.

---

## 줄거리

올해 나이 36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하라, 대출 빚  
갚으라, 13년 사귄 남친 지석의 뒷바라지 하라, 20대 꽃다운 청춘에 그 혼한  
클럽 한 번 못 가보고 15평 약국에서 하루 열두 시간씩 지독하게 일만 하며  
살아온 약사 오동주의 소원은 올해는 꼭 미루고 미뤘던 결혼을 하는 것이다.

김보겸

red61051@naver.com

- 2012 • SBS 미니시리즈 공모 우수상 당선
- 2017 • KBS 경력작가 미니시리즈 공모 최종심
- 2018 • SBS 단막극 공모 우수상 당선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내 연적의 모든 것> 극본

그런데 어느 날, 지석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선언한다.  
 동주는 충격을 받고 지석을 뺏어간 연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하지만 단서라고는 빨간 동백꽃 모양의 핀을 꽂은 것밖에 모르는 동주.  
 결국 연적 찾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며칠 후, 우연히 동백꽃핀 여자를 만나고 뒤쫓게 되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바로 준희다.  
 트랜스젠더 준희는 동주의 특별한 단골손님이자 지석과 이별 후, 동주의 슬픔을 가장 위로해준 소울메이트 친구다.  
 그런 준희가 그토록 찾던 연적이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동주는 준희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지석에게 폭로할지 말지 기로에 서는데.

내 연적의 모든 것  
 김보겸

#1 허름한 창고 외관 + 창고 안(밤)

재갈 물리고 손발이 묶인 준희가 의식 없이 의자에 앉아 있다.  
 잠시 후 의식이 돌아온 준희. 주위 상황에 놀라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때,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드~르~룩 열린다.  
 준희 멍청하고 보면, 키 작고 뚱뚱한 여자 동주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부케가 아닌 전기톱을 들고 들어온다.

동주 (준희 앞에 다가와 선다)  
 준희 (겁에 질린 눈으로 웅얼대며) 누... 누구세요?  
 동주 (준희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다)  
 준희 !  
 동주 도둑년.  
 준희 (뭐라고 웅얼대는데)  
 동주 닥쳐! (노래 가사처럼) 니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 근데 니가 뭔데 훔쳐 가?! 니가 뭔데 내 파랑새를 빼앗는 거야!!  
 준희 !!  
 동주 (섬뜩한 표정으로) 오늘 그 못된 손버릇을 고쳐주겠어. 그래야 다신, 도둑질을 못 할 테니까. (전기톱 버튼을 누르자 웅~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톱 날이 빠르게 돌아간다)  
 준희 (웅얼거리며) 살... 살려주세요!  
 동주 (잔인하게 웃으며 전기톱을 높이 든다)  
 준희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친다)

동주, 전기톱으로 준희의 손목을 사정없이 자른다.  
 분수처럼 사방으로 터지는 새빨간 피!

동주 얼굴에도 튄다.  
동주,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  
손으로 얼굴에 튄 피를 닦아서 맛을 보는데, 그 위로.

준희(E) 어때? 내 피 맛이?

동주 돌아보면, 준희가 동주를 뒤킨다.  
그리고 손목이 잘려 피가 철철 흐르는 손으로 동주의 목을 조른다.

동주 (기겁해서 비명을 지르는) 아~악~~

## #2 현재. 동주 약국 안(낮)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동주, 비명을 지르며 깬다. 이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안도한다. 하지만 너무 생생한 꿈이다.  
동주, 혹시나 싶어 얼굴을 매만져보는데 뭔가 끈적거리는 게 느껴진다. 얼른 손을 보면 새빨간 피다!! 비명과 함께 의자에서 나자빠지는데, 그 순간 까르르거리는 사내아이 웃음소리!  
동주 정신을 차리고 보면, 데스크 맞은편에서 일곱 살짜리 남자가 케첩을 동주에게 분사한 자세로 개구지게 깔깔거린다.  
그때, 아이 엄마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아이 엄마 좀 늦었죠? 처방전을 병원에 두고 와서 우리 애 먼저 보냈는, (사태를 보고 놀라는) 어머! 웬일이니! 야, 강하늘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케첩은 언제 꺼내갔어?! (얼른 동주에게) 약사님 죄송해요! (근데 케첩 범벅인 동주 얼굴을 보니 웃음이 절로 터진다)

동주 (굴욕적인, 그 표정 위로, 마음 소리) 사람들이... 웃는다. 뭐가 그렇게 웃기지? 니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거야?

## #3 약국 / 화장실 안(낮)

세면대 앞에서 세수를 하는 동주, 세수를 다 하고 거울을 본다.

동주 (거울 속 자신을 깊게 보며, 마음 소리) 나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눈물 나는데. (차오르는 눈물, 그 위로)  
지석(E) 우리 그만 헤어지자.

## #4 과거. 뷔페 안(저녁)

한 달 전.  
뷔페 테이블 위로 끝없이 놓인 맛있는 음식들.  
동주, 음식들을 보자 흥분한다. 아이들처럼 행복할 때 입에서 터져 나오는 돌고래 비명을 지르면서 음식을 접시에 빠르게 담는다.  
그런 동주 옆에 지석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 #5 뷔페 일각(저녁)

자리에 마주 앉은 동주와 지석.

동주 (접시 가득 담아온 음식들, 먹방 여신답게 먹을 때마다 행복한 신음을 내며 발을 동동 구른다) 음~~ 너~어무 맛있쨌.

지석 (그런 동주를 굳은 표정으로 보는)

동주 이 갈비 완전 대박 썩시해. 한 접시 더 먹어야징. 자기도 먹을래? (일어서는데)

지석 (낮게) 동주야.

동주 왜?

지석 잠깐 앉아봐.

동주 왜? 뭔데? (앉으며) 빨랑빨랑 말해. 사람들이 갈비 다 가져간단 말이야. (그 와중에도 접시에 있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 먹을 때마다 행복한 리액션) 음~~

지석 우리, 그만하자.

동주 뭘 그만해? (다시 먹는다. 신음 소리) 음~ 맛있쨌.

지석 (동주를 가만히 보다가) 우리, 그만 헤어지자.

동주 (대수롭지 않게) 왜 또? 학교랑 계약 안 됐어? 너 우울한 건 알겠는데 진짜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죽는다. 남자새끼가 무슨 배포가

개미 똥구녕만 해? 학교가 거기밖에 없냐? 야, 내가 학교 하나 사줄게. 그니까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오케이?! (다시 먹는데)

지석 동주야. 나, 가슴이 편다.

동주 (엥?) 이걸 또 무슨 말 같잖은 소리야?

지석 (진지하게)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이야.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동주 (멈칫) ... 그 사람?

지석 나,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

동주 !!

지석 미안하다.

동주 (파르르 떨리는 손에서 포크가 힘없이 떨어진다)

## #6 현재. 다시 약국 / 화장실 안(낮)

#3 연결.

울어서 붉은 눈으로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동주.  
서서히 차오르는 분노, 이내 화장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간다.

## #7 거리(낮)

약사 가운을 휘날리며 달리는 동주,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달린다.

## #8 지석 오피스텔 외관 + 복도 안(저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퇴근한 지석이 내린다.  
지석, 피곤한 표정으로 오피스텔로 향하다가 뭔가를 보고 멈칫한다.  
시선을 따르면 동주가 가운은 반쯤 벗겨지고 머리는 산발을 해서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지석 (놀라서) 동... 동주야.

동주 (지석을 보고는 얼른 일어나려 하지만 오랫동안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제대로 서지를 못한다)

지석 (그런 동주를 잡아주며) 무슨 일이야?

동주 (지석을 보며) 나, 너랑 못 헤어져.

지석 (멈칫)

동주 말해. 누구야? (분노가 터진다) 어떤 년이랑 바람났냐고요!! 지선이 그년이야? 대학 때부터 꼬리 살살 찢잖아. 아니면 니네 학교 그 뭐냐 붙여시 강사 조미진이, 그년이야? 누구냐고?!

지석 (타이르듯) 동주야.

동주 대답해! 니들 다 불 싸질러버리기 전에 당장 말해! 말하라니,  
(하는데)

지석 (무릎을 꿇는다)

동주 !

지석 (진심으로) 나 좀 놔줘, 동주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고개를 숙인다)

동주 !! (맥이 탁 풀린다)

## #9 동주 약국 외관(늦은 밤)

불 꺼진 간판.

## #10 약국 안(밤)

깜깜한 약국 안으로 동주가 들어온다. 여전히 약사 가운은 반쯤 벗겨지고 머리는 산발이 돼서 낫 나간 표정이다.  
한동안 석상처럼 미동하지 않다가 조제실 가림막 커튼이 달린 커튼 봉(커튼 고리 하나가 빠져나와 있는)을 본다.  
그 표정에서, 페이드아웃.

## #11 병원 외관 + 입구 앞(새벽)

페이드인.  
빠르게 멈추는 택시에서 은정이 다급하게 내린다.

## #12 응급실 안(새벽)

은정, 울면서 정신없이 뛰어온다. 응급실을 두리번거리다가 누워 있는 사람 머리까지 시트가 덮인 침대를 보고 당장 달려가서 오열한다.

은정 (누워 있는 사람 몸 위로 엎드려 울면서) 이 미친년아, 사내새끼가 뭐라고 죽기는 왜 죽노! 니가 왜에에!! (그렇게 한창 오열하고 있는데, 그 위로)

남자(E) 누구데?

은정 (고개 들어보면 시트를 덮고 있던 남자 환자가 짜증 어린 표정으로 보고 있다. 화들짝 놀라는) 옴마야! 누... 누구세요?

남자 (반쯤 일어나는데 팔뚝에 용 문신이 있다) 고것은 내가 몰았잖여?

은정 (용 문신을 보고는 슬며시 물러서며 어색한 서울말) 그...렁지요? 고것은 선생님께서 물으셨죠? 죄송합니다. (꾸벅 인사하고는 애써 웃으며) 그러면 불쌍한 제 친구 녀은 어디 있을~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다른 침대 쪽으로 간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는데, 건너편 침대에서 동주가 목에 김스한 채로 커다란 롤케이크를 통째로 잡고 김밥 먹듯 우적우적 먹고 있다.

은정, 황당한 표정에서.

## #13 동주 약국 앞(아침)

문 앞에 종이 “개인사정으로 오늘은 쉽니다.”가 붙어 있다.

## #14 동주 약국 안(아침)

은정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 천장의 봉이 똑 부러져 있다. 그 위로.

플래시백.

#10 연결.

동주, 석상처럼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러다 조제실 커튼을

본다. 커튼 고리가 빠져 있다. 거슬리는 동주, 일어나 의자를 가지고 가서 커튼 앞에 놓고 올라간다. 빠진 커튼 고리를 꿰으려는데,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잘 안 된다.

계속 애를 쓰다가 중심이 쏠리면서 그대로 의자와 함께 넘어진다. 재빨리 커튼을 잡고 매달려보지만 동주 무게를 이기지 못한 봉이 우-찌끈 하는 소리와 함께 똑 부러지면 동주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다시 은정, 고개를 질레질레한다.

은정 내가 미친년이지, 미친년이야. (고개를 돌려보면 동주 테이블에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먹고 있다) 저런 아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지. (가서 동주 맞은편에 앉으며) 맛있나?

동주 아니.

은정 (?) 근데 왜 먹노?

동주 힘내야지. 힘내서 찾을 거야.

은정 누구를? (설마!) 김지숙이랑 눈 맞은 년? 그년 찾겠다고?

동주 응.

은정 (한심) 찾아서 뭐 할긴데? 뭐 막장 드라마처럼 그년 머리끄덩이라도 잡을기가?

동주 아니. 머리에 불 싸지를 거야.

은정 (혈!)

## #15 인서트

휘발유통을 아무지게 움켜쥔 통통한 여자 손.

## #16 대학교 외관(낮)

다음 날.

수업 종료 종이 울린다.



#17 대학 / 복도(낮)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복도로 한꺼번에 나와 인산인해다. 그런데 잠시 후 학생들이 뭔가를 보고는 흥해처럼 양쪽으로 짜-악 갈라진다. 복도 저 끝에서 새까만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쓴 동주가 휘발유통을 들고 마치 레옹처럼 걸어온다.

#18 대학 / 어느 강의실 안(낮)

학생들이 모두 나간 강의실. 조교(지석 후배), 학생들 리포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럭 열린다. 깜짝 놀라 돌아보면 휘발유통을 든 동주가 서 있다.

조교 (약간 쫓아서) 누... 누구세요?  
동주 (조교 앞으로 다가와서는 선글라스를 벗는다)  
조교 (그제야 동주를 알아본다) 동주 누나?!  
동주 너, 알지?  
조교 예? 뭐...요?  
동주 그년 누구야? 지석이랑 눈 맞은 년!!

#19 은행 외관 + 안(낮)

한창 바쁜 시간. 땡땡! 대기벨이 빠르게 울린다. 데스크에 앉아 있는 여자 은행원과 남자 은행원(지석 친구1)이 고객들을 맞는다. 땡땡!

친구1 15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158번 고객, (하는데 휘발유통이 퍽! 놓인다. 멍칫 보면 선글라스를 쓴 동주다)  
동주 (선글라스를 벗고 158번 번호표를 준다)  
친구1 (멍칫) 오동주?  
동주 년 알지?  
친구1 뭘?

동주 그년 누구야? 지석이랑 눈 맞은 년!

#20 편의점(낮)

지석 친구2, 카운터 아래에서 알바가 잘했니, 못했니, 구시렁대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딸랑~ 문 열리는 종소리에 정리를 멈춘다.

친구2 (일어서며) 어서 오세, (하는데 카운터 위로 휘발유통이 퍽 놓인다. 보면 동주가 서 있다. 역시 쫓아서) 누... 누구세요?  
동주 (선글라스를 벗는다)  
친구2 동주?  
동주 년 알지? 그년 누구야? 지석이랑 눈 맞은 년!

#21 노량진 / 고시 식당(낮)

지석 친구3, 오랜 공시생활에 지친 표정으로 공무원시험 책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 위로 휘발유통이 퍽 놓인다.

친구3 (놀라는) 아, 깜짝이야. (보면 동주가 서 있다)  
동주 (선글라스를 벗는다)  
친구3 오동주?  
동주 년, 알지?  
친구3 뭘?  
동주 오리발 내밀 생각하지 마. 니들 머리도 짹- 다 불 싸질러버릴 테니까. 그년 누구야? 지석이랑 눈 맞은 년!  
친구3 (표정에서)

#22 병원 외관 + 입구 앞(저녁)

입구 앞으로 멈추는 택시. 택시에서 내리는 동주, (그 와중에도 휘발유통은 들고) 눈물범벅인 얼굴로 빠르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 위로.

친구4(E) 너, 이려고 다니는 거 지식이는 당연히 모르겠지. 맹장 터져서 병원에 있으니까.

## #23 병원 / 복도(저녁)

휘발유통을 들고 울면서 병실을 찾는 동주.  
사람들, 그런 동주를 쳐다보고.

동주 (병실을 찾으며) 지식아... 지식아...

드디어 병실을 찾는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지식의 침대 앞에 앉아 있는 여자(뒷모습. 머리에 빨간 동백꽃 모양의 핀을 꽂았다)를 발견한다. 그 위로.

친구3(E) 간호해줄 사람 누구겠어?

동주, 지식의 여자라는 걸 직감한다. 막상 눈앞에서 보자 불 싸지르겠다는 패기는 사라지고 온몸이 덜덜 떨린다. 뒷모습만 봐도 아름다운 여자. 복도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교된다. 동주 손에서 문손잡이가 힘없이 빠진다. 그때, 병원 경비원 둘이 급히 와서는 동주를 잡는다. 동주, 멍한 채 힘없이 끌려간다.

## #24 경찰서 외관 + 안(저녁)

책상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마주 앉아 있는 동주.

경찰 휘발유통은 왜 들고 병원에 갔어요?

동주 (멍한)

경찰 (책상 치며) 아줌마!

동주 (그제야 경찰을 보며) 휘발유 아니에요. 물이에요.

경찰 예? (휘발유통을 열어 냄새 맡아보는) 어? 진짜 물이네.

동주 이제 가도 되죠? (일어나 힘없이 나간다)

## #25 인서트

불 꺼진 동주 약국 간판.

## #26 동주 약국 안(저녁)

어둠 속, 손님 대기 소파에 넋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는 동주. 두 눈에 점점 눈물이 차오르면서 끝내 오열한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동주 뺨을 타고, 목을 타고, 가슴께를 타고, 배를 타고,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러더니 어느새 동주 발밑으로 물이 찰랑거리더니 점점 차올라 동주 발목이 잠기고, 다리가 잠기고, 온몸이 잠긴다. 동주, 머리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영영 운다.

## #27 동주 약국 앞(저녁)

남자 손님, 약국에 온다.

손님 (꺼진 간판을 보고는) 어, 벌써 문 닫았네. (문 앞으로 와서 껌껌한 안을 들여다보고 아쉬운 표정으로 가려는데, 약국 문 앞에 물이 흥건하다) 왜 이렇게 물이 많지? 비 왔나? (하늘을 봤다가 가웃하는 표정에서)

## #28 인서트

동주 약국 문에 종이 “개인사정으로 오늘은 쉽니다.”가 붙어 있다.

## #29 약국 / 동주 방(낮)

다음 날.

침대, 화장대, 작은 TV, 작은 옷장으로 꽉 차는 방.

가장 잘 보이는 벽에는 전국 지도가 붙어 있는데, 지역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 이른바 동주의 미식지도다.  
동주, 초췌한 표정으로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폰이 울린다.

동주 (힘없이 받는) 여보세요. 아, 예. (사이, 영혼 없는 대답) 예. 예. 예.  
(끊는다. 그 위로)

은정(E) 누군데 그렇게 영혼 없이 받노?

동주 보면 방문 앞에 은정이 죽 쟁반을 들고 서 있다.

동주 (무감하게) 주인. 월세 올려달라고.

은정 (쟁반을 동주에게 주고) 얼마나?

동주 (받으며) 100만 원.

은정 100만 원?! 와~ 진짜 미친 거 아이가? 세입자가 봉인 줄 아나?

그때, 딸랑 종소리와 함께 약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은정 아~ 진짜 인간들 눈깔이가 썩었나! 장사 안 한다고 붙여놨는데!  
(나간다)

### #30 동주 약국 안(낮)

은정 (데스크로 와서는 짜증) 오늘 영업 안 합니, (하는데 순간 얼어붙는다)

은정 시선을 따라 문 쪽을 보면 모델 같은 외모의 아름다운 준희가 서 있다. 여자가 봐도 너무 예뻐서 절로 탄성이 나온다.

동주 (데스크로 나와서 준희를 보고는 반갑게) 왔어요.

준희 (반갑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동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준희 요즘에 좀 바빴어요. 저번에 약사님이 추천해주신 눈 영양제가 너무

좋더라구요. 눈 피로한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동주 그래? 다행이네.

준희 저 그거 주세요.

동주 오케이. (약장에서 영양제를 꺼낸다) 아! (뭔가 생각난 듯 다른 영양제를 하나 더 꺼내 봉투에 같이 담아주며) 이거 새로 나온 종합비타민인데 먹어봐.

준희 감사합니다. (계산 후에 봉투를 들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동주 잘 가요.

준희 (나간다)

은정 (준희 나가자마자) 저 여자 아는 아가?

동주 응. 단골이야.

은정 대박! 완전 인형인 줄 알았다. 얼굴이 어제 저래 쪼매나노? 밥 그릇, 아니 간장종지다, 간장종지. 키도 크고 몸매도 죽인다, 죽여. 완전 이쁘다!

동주 (표정 굳으며) 내가 저 여자처럼 저렇게 이뻐지면 지식이 안 떠났겠지?

은정 (멈칫)

동주 저렇게 키 크고, 얼굴도 작고, 몸매도 이쁘고 날씬하면 말이야.

은정 (한심) 심각하다, 심각해. 너는 지금 멘탈 교체가 시급하다.

남자 때문에 너무 썩었어. 주말에 약국 문 닫고 가자.

동주 (보는) 어딜? (표정에서)

### #31 한강 공원(낮)

다른 날.

많은 사람들이 햇살 아래 자리를 펴고 가만히 앉아 있다.

그 뒤로 서 있는 동주와 은정.

동주 (사람들 보며 작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은정 멍 때리기.

동주 앵?

은정 (뚫자리를 펴며) 니 그 머릿속에 든 김지숙이 그 시끼를 싸~악

지워버리는 데는 멍 때리기만큼 좋은 약이 없다. 뭐 하노? 빨랑  
앉아라!

동주 은정아, 나 장난할 기분 아니야.

은정 내 말 듣고 앉아 봐봐.

동주 (조금 짜증) 진짜 이럴 기분 아니... (하는데)

그때 앞자리에 앉은 준희가 뒤 돌아본다.

동주 (준희를 보고) 어?

준희 (역시 동주 보고 놀라며) 약사님?

은정 (준희 보고) 어, 그때 그 이쁜 언니네!

### #32 인서트

식당 테이블 위로 힘차게 부딪치는 소주 세 잔.

### #33 식당(저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은 동주, 은정, 준희.

세 사람, 건배를 하고 소주를 마신다.

은정 (쭉 마시고는) 카- (잔을 놓고 준희를 보며) 와~ 아무리 서울 바닥이  
좁다지만 이래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다. (동주 보며) 그자 동주야?

동주 (준희 보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준희 저도 약사님 보고 놀랐어요. 약사님이 멍 때리기 동호회 회원이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동주 아니. 난 회원은 아니고 이 친구 따라왔어요.

은정 (준희 보고) 회원님! 한잔합시다!

은정과 준희, 건배하고 소주를 마신다.

은정 (잔을 놓고) 멍 때리기만큼 정신건강에 좋은 게 어딴어요? 그죠?

준희 그럼요!

은정 (동주 보며) 이 촌년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지금 야만큼 멍 때리기가  
필요한 사람도 없거든요. 얼마 전에 실연을 당해서.

동주 (그런 얘길 왜 하냐고 보는)

은정 뭘 대수라고 숨기는데? (준희 보며) 아, 전 남친이 바람 피가 딴  
년한테 갔어요.

준희 !

동주 (은정 찌려보는)

준희 (걱정스레) 괜...찮으세요?

동주 (애써 웃으며) 괜찮아요.

은정 (혼자 기분 좋은) 참, 아까 이름이 뭐라 했어요?

준희 이준희입니다.

은정 맞다! 준희 씨는 멍 때리기 언제부터 했어요?

준희 3년 됐어요.

은정 3년! 와~ 역시! 딱 보는 순간 준희 씨는 내 과다 싶었어요. 내가 축이  
보통 년이 아이그든.

하고 깔깔 웃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온다.

은정 (생각 없이 바로 먹으려는데)

준희 (은정 손을 딱 때린다)

은정 !

동주 !

준희 (진지한) 그건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먼저, (음식을 보며)

이렇게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태를 눈으로 즐기고, 다음은 (손으로  
냄새를 당기며) 코로 즐기고, 마지막이 입으로 음미하는 거죠.

동주 (오~ 뭘 좀 아는데 싶다)

은정 와~ 나 방금 소름 돋았다. 여기 오동주가 또 있다.

준희 (동주를 보는)

동주 신경 쓰지 마요. (은정 보며) 똥입이니까. 미식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랭이거든. 자~ 그럼 시작합시다.

동주와 준희, 일심동체처럼 눈으로 즐기고, 코로 즐기고, 입으로 맛본다.  
두 사람, 동시에 음~ 하는 소리를 내고.

점프.

은정, 입을 벌리고 양옆에 있는 동주와 준희가 말할 때마다 번갈아 본다.

동주 장안동 해물칼국수 먹어봤어요?  
 준희 당근이죠. 그릇을 받는 순간 바다에 풍덩 빠지잖아요. 갓은 해물이 뿜어주는 바다 향기. 완전 시~이이~원하잖아요.  
 동주 그 집 할머니가 담근 새빠~알간 섞박지랑 먹으면!  
 동주, 준희 (동시에 돌고래 비명 지른다)  
 준희 (신났다) 노랑진 쇠머리국밥 먹어봤어요?  
 동주 (역시 신나서) 당근이줘. 그 집 앞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푹 삶아진 고사리가 완전 보들보들 야들야들. 난 고긴 줄.  
 준희 (박수 치며) 맞아요! 맞아!  
 동주 합정 아귀찜 먹어봤어요?  
 준희 당근! 당근!  
 동주 근데 그 집 요새 맛 좀 변한 거 같지 않아요?  
 준희 역시! 나도 느꼈는데! 아들이 이어받은 후로 맛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안 가요. 아, 그 연희동 돼지갈비 먹어보셨어요?  
 동주 당근. 짹~쪼르미 하면서 달~달한 양념과 부드러운 갈비가 일심동체가 돼서 (침을 푹 삼키고) 그걸 백김치랑 같이 싸서 먹으면 진짜 대~~박! (입맛 다시는) 아~~ 먹고 싶다.  
 준희 가실래요?  
 동주 두말하면 입 아프지.

준희와 동주, 바로 일어나 간다.

은정 (두 사람을 보고) 뭔데? 야, 또 먹는다고? 진짜 이건 아이잖아!  
(동주와 준희, 이미 가버렸다) 신이시여! 정녕 이 어린 양을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오동주 하나도 벅차 죽겠는데, 둘이라니요! 이걸 너무하시잖아요!!

### #34 인서트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돼지갈비.

### #35 돼지갈비 식당(저녁)

동주와 준희, 돼지갈비를 엄청 맛있게 먹는다.  
은정,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번갈아 보는데 어이없는 표정이다.

은정 와~ 3일 굶은 사람도 이보다 잘 먹지는 못한다. (질레질레하며 일어나는데)  
 동주 (먹다가 보는) 어디 가? 콩국수 먹으러 가야지.  
 준희 네, 후식 때려야죠.  
 은정 이 미친것들아! 후식을 콩국수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노? 배 터져 죽일라카나? (나간다)  
 준희 (잡지 않아도 되냐고 동주를 보는)  
 동주 신경 쓰지 마. (다시 갈비를 먹으며 돌고래 비명 지른다)

### #36 콩국수집 앞(저녁)

콩국수를 먹고 나오는 동주와 준희.

준희 이집 콩국수는 진짜,  
 동주, 준희 (동시에) 예~술.  
 동주 찌찌뽕!

두 사람, 까르르 웃는다.

준희 약사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신났어요. 나랑 이렇게 미식 코드가 맞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동주 나도 고마워요. 실은 나, 하나도 안 괜찮거든.  
 준희 (동주의 슬픈 눈을 본다. 말없이 동주 손을 잡아준다)

동주 (멈칫, 준희 보는)  
 준희 (동주 손을 꼭 잡고는 나지막이 노래를 부른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동주 (준희가 잡아준 따뜻함이 말도 못 하게 위로가 된다. 눈물이 흐르고)  
 준희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행인들이 비를 피해 빠르게 뛰어간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준희와 그런 준희를 보는 동주는 마치 우산을 쓴  
 것처럼 비를 맞지 않는 데서.  
 페이드아웃.

### #37 지하철역(낮)

며칠 후.

페이드인.

빠르게 지나가는 지하철.

계단에서 동주가 내려온다. 스크린도어 앞에 서는 동주, 준희의 위로로  
 한결 편안해진 모습. 그 위로.

동주 모(E) 일요일에 집에 와서 밥 먹어. 좁은 약국 방에서 혼자 먹지 말고.

잠시 후, 지하철이 들어온다.

### #38 달리는 지하철 안(낮)

조금 복잡한 지하철 안.

동주, 지하철역 안내도를 보며 가방에서 미식지도(작은)를 꺼낸다.

동주 (마음 소리) 왕십리는 팔각국수 맛집이 있고, 을지로는 간장게장

맛집이 있고, 종로는 북어 콩나물탕 맛집이 있고.

그렇게 동주의 미식지도에 적힌 음식들이 지하철이 가는 역마다 뱅뱅  
 나타난다. 동주, 즐겁게 상상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저 끝  
 반대편 문 앞에 서 있는 동백꽃 모양의 핀을 꽃은 여자를 본다.

플래시백.

#23. 병실에서 본 동백꽃핀을 꽃은 지식의 여자.

동주,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때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동백꽃핀 여자 내리자 동주도 얼른 여자를 따라 내린다.

### #39 지하철 계단(낮)

동주,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동백꽃핀 여자를 뒤쫓는다.

잡힐 듯 잡힐 듯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쉽지 않다.

### #40 지하철 입구 밖(낮)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서 입구 밖으로 나오는 동주, 순간 여자를  
 놓친다. 어디로 갔지? 이리저리 보는데, 잠시 후 커다란 입간판에  
 가려졌던 동백꽃핀 여자가 보인다.

동주, 얼른 달려가서 여자 등 뒤로 바짝 붙고는 손을 뺐어서 여자의 팔을  
 잡는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이 슬로우로 움직인다.

여자가 서서히 돌아보자 동주의 심장은 폭탄처럼 터질 것만 같다.

귓속으로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가운데, 드디어 온전히  
 드러나는 여자의 얼굴, 준희대!

준희 약사님?

동주 ! (충격)

준희 (반갑게) 정말 약사님 맞네요.

동주 (마른침을 꼭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준… 준희 씨가… 어떻게?  
 준희 전,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 약사님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오늘 약국 안 하세요?  
 동주 (머릿속이 캄캄해지며 정신이 없다) 그… 그 꽃…  
 준희 꽃? (생각하다가) 아~ 머리핀이요?  
 동주 그… 그거 준희… 씨 거 맞… 맞아요?  
 준희 네.  
 동주 (맞다고?!) 그럼… 그… 그년이, (하는데)

그때 대여섯 명의 여자들(중년 여성)이 시끄럽게 몰려온다.  
 동주, 여자들을 보는데, 모두 머리에 동백꽃 모양의 핀을 꽂았다.

동주 ! (이게 뭐지? 혼란스러운데)  
 준희 (여자들과 인사를 하고는 동주 보며) 약사님도 오늘 한강 공원 가세요?  
 동주 한…강?

동주, 멍한 표정 위로 빨간 동백꽃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진다.

## #41 한강 공원(낮)

멍 때리기 동호회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머리에 동백꽃핀을 꽂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멍 때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동주, 맥이 탁 풀린다. 그 위로.

준희(E) 이 꽃핀이요? 좌판에서 세일하길래 회원분들 주려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만드는 게 엄청 쉽더라고요. 담엔 직접 만들려구요.  
 동주 (혼잣말처럼) 그래, 내가 미친년이지. 준희 씨가 어떻게 그년일 수가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백꽃핀을 꽂은 여자들을 유심히 보지만 젊은 여자는 없다)  
 은정 (동주 등을 탁 치며) 뭐 하노?  
 동주 (깜짝 놀라는)

은정 하늘 안 무너진다. 빨랑 앉아라!  
 동주 (힘없이 앉고)  
 은정 (동주 옆에 앉고) 여기 몇 번만 더 나오면 바람난 시끼는 기억도 안 날걸? (멍 때린다)  
 동주 (한숨을 푹 쉬는데)

그때, 좀 노는 청소년들이 지나가면서 멍 때리고 있는 동호회 사람들을 보고 뛰나며 낄낄대다가 지들끼리 신호를 보내고는 가방에서 폭죽(바닷가에서 연기 내면서 타타타타! 터지는)을 왕창 꺼내 던지고는 도망간다.

이내 타타타타!! 터지는 폭죽! 갑자기 터져대는 폭죽 소리와 연기에 놀란 동호회 사람들, 일제히 일어나 피하면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동주만 멍하니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동주의 손을 잡고 끌고 간다.  
 동주, 보면 준희다. 그렇게 두 사람, 연기 속에서 함께 달려 나간다.

## #42 한강 다른 일각(낮)

한참 똥 듯 숨을 헐떡이는 동주와 준희, 서로를 본다.  
 그때, 두 사람 배에서 약속이나 한 듯 꼬르륵 소리가 난다.

준희 혹시 옥수동에 그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  
 동주 순대처럼 돈피가 들어간,  
 준희, 동주 (동시에) 피만두!!  
 준희, 동주 (동시에) 찌찌뽕!!

## #43 허름한 식당 안(낮)

다음 날.  
 마주 앉은 동주와 준희.

동주 와~ 여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아는 사람 진짜 없는데. 난 나만 알고

싫은 맛집이라서 은정이한테도 안 알려줬거든.

준희

실은 저, 맛집블로거예요.

동주

(놀라며) 진짜? 맛집블로거 누구? 나 웬만하면 다 아는데.

준희

혹시 식탐마녀...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주

대박! 진짜 식탐마녀님?!

준희

(수줍게) 네.

동주

(준희 손을 양손으로 꼭 잡으며) 나 완전 팬이야!! 식탐마녀님이 소개해준 맛집 다 가봤잖아!

준희

정말요? 감사해요.

동주

말도 안 돼. 준희 씨가 식탐마녀님이라니! 우리 사진 찍자. 이건 대대손손 자랑해야 돼. (폰으로 사진을 찰칵! 찍는다)

## #44 인서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주와 준희.

## #45 약국 안(낮)

다른 날.

은정

(폰으로 사진 보면서) 준희 씨가 식탐마녀라고? 니가 신처럼 모시는 그 파워블로거?

동주

응. 대박이지?

은정

와~ 대박대박. 진짜 니랑 보통 인연이 아이다, 그자?

동주

그런 거 같애.

은정

근데, 준희 씨는 분당에 산다고 안 했나? 거도 약국이 많을 텐데 왜 여까지 오노? 멀잖아.

동주

다른 데 가면 쳐다봐서.

은정

응?

동주

너무 이뻐서 자꾸 쳐다본다구. (일어나서 약품을 정리한다, 그 위로)

## #46 약국(밤)

플래시백.

1년 전.

동주, 약국 문을 닫으려는데, 준희가 들어온다.

준희, 여름인데도 긴팔, 긴치마를 입고 마스크까지 썼다.

동주

어서 오세요.

준희

(뭔가 주저한다)

동주

왜 그러세요?

준희

(계속 주저한다)

동주

(짐작된다) 아~ 피임약 찾으세요?

준희

(고개를 젓는다. 그러고는 결심한 듯 마스크를 벗는다)

동주

(준희 얼굴을 보고는 너무 이뻐서 와~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

준희

(손에 쥐고 있는 처방전을 내민다)

동주

(대체 뭐데 그래? 하고 처방전을 보고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준희를 본다)

준희

(공격적으로 날이 서서) 왜요? 왜 쳐다봐요?

동주

쳐다보면 안 돼요?

준희

?!

동주

(대수롭지 않게) 주민번호 1인 게 창피해요?

준희

!

동주

창피하면 왜 치마 입고 다녀? 그리고 죄졌나? 얼굴은 왜 가리고 웃은 왜 칠갑을 해? 더워 환장하겠는데.

준희

!

동주

(조제하러 조제실로 가려는데)

준희

(울음을 터트린다)

동주

(보는, 그 마음 모르지 않는다. 티슈를 뽑아주며) 울긴 왜 울어? 트랜스젠더가 뭐 대단한 거라고 유세를 해? 앞으로 유세하려면 오지 마.

준희(E)

(고마운, 그 표정 위로) 그때, 약사님이 정말 고마웠어요.



## #47 약국 / 동주 방(저녁)

다른 날.

동주, 침대에 앉아 있는 준희에게 차를 준다.

동주      별게 다 고맙네. (화장대 의자에 앉고)

준희      날 아무렇지 않게 봐준 사람은 그때 약사님이 처음이었으니까.

동주      준희 씨도 똥똥한 나를 아무렇지 않게 봐줬잖아. 썸썸이지 뭐. 근데 그 약사님 소리 좀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나의 식탐마녀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섭섭하다.

준희      그럼 뭐라고…

동주      언니라고 불러주면 안 돼? 식탐마녀님이 그렇게 불러주면 대대손손 영광이지.

준희      (너무 좋다) 저도 너무 좋아요. 언…니.

동주      (배꼽인사) 영광이옵니다~~

준희      (웃고는, 방 안을 보며)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동주      (슌슌한) 여기서 8년 동안 열두 시간씩 매일 일했어요. 작년까지도 휴일에 쉬어본 적이 없어. 명절에도 문 열었으니까. 동생들 대학 보내고, 대출 빚 갚고, 그 자식, 용돈도 주고. 그러다 보니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더라구.

준희      (조심스럽게) 그분이랑 오래 사귀셨어요?

동주      13년. 드~럽게 오래 만났지? 진짜 드럽게 오래 만났네.

준희      왜 그렇게 오래 만나셨어요?

동주      왜 그렇게? (처음 들은 질문이다, 생각한다) 모르…겠어. 진짜 왜 그렇게 오래 만났지?

준희      많이 미우세요?

동주      밉다 뿐이야? 그년놈들 머리채를 잡아서 불 싸지르려고 했는데.

준희      왜 안 하셨어요?

동주      … 웃더라구.

인터컷.

#23. 병실에서 동백꽃핀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는 지석.

동주      그 개자식이 너무 행복하게… 웃더라구. (슌슌하게 웃는다)

준희      (동주가 안스럽다)

동주      (애써 밝게) 준희 씨 앞에서 별 지랄을 다 하네, 진짜. 아, 맞다! 준희 씨가 블로그에 소개해준 맛집, 내가 지도 만들었는데. 함 볼래요? (벽에 붙어 있는 미식지도를 가리킨다)

준희      (보고는) 와~

동주      여기 다 가보는 게 통일 다음으로 내 소원이야. 어때? 멋지지?

준희      네, 진짜 멋져요, 언니.

동주      (웃는다)

## #48 동주 약국 앞(밤)

준희 택시를 타고 떠나고, 동주 손을 흔들며 배웅한다.

## #49 약국 / 동주 방(밤)

들어온 동주, 찻잔을 치우는데 침대에 준희 폰이 있다.

동주      에-헤! 준희 씨 폰 놓고 갔네. (바로 뛰어나간다)

## #50 준희 동네(밤)

택시에서 내리는 준희, 집을 향해 간다.  
잠시 후, 도착한 택시에서 동주가 내린다.

동주      이 근처가 맞는 거 같은데. 행복오피스텔이 어디지? (이리저리 보며 찾는데 저만치 가고 있는 준희를 발견한다) 어! 준희 씨!

준희, 듣지 못하고 계속 간다. 동주, 준희에게 뛰어가는데, 그때 준희 앞에 나타난 지석을 보고 멈칫 선다.

동주      김…지석?

준희 (지석을 보고) 오빠!  
동주 (!) 오... 오빠?!  
지석 (준희를 보고 환하게 웃고)  
준희 (달려가서 지석을 와락 안는다)

준희와 지석, 서로를 안고 흔들면서 다정한 눈빛을 나누고는 손잡고 함께  
준희 집으로 향한다.  
그런 두 사람을 보는 동주, 얼어붙은 채로 멍하다.

동주 이... 이준희... 너... 너야?!

손에 쥐고 있던 준희 휴대폰을 온 힘으로 움켜쥔다.  
휴대폰이 휴짓조각처럼 찌그러지는 순간 동주 위로 천둥번개가 우르르~~  
쾅! 쾅! 치며 폭우가 쏟아진다. 주위는 아무렇지 않고 오직 동주 위로만  
쏟아지는 데서.

## #51 인서트

방바닥에 종이처럼 우그러져 있는 준희 휴대폰.

## #52 약국 / 동주 방(낮)

다음 날.  
밤새 잠 한숨 못 잔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는 동주, 바닥에 우그러져 있는  
준희 폰을 노려보고 있다.  
잠시 후, 뭔가 결심한 듯 자신의 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동주 나야. 지금 좀 만나.

## #53 커피숍 외관 + 안(낮)

창가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동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지석을 본다.

지석 (냉정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동주 (말없이 가만히 보는)  
지석 무슨 일이냐니까?  
동주 너, 이준희에 대해 얼마나 알아?  
지석 (놀라며) 니가 준희를 어떻게 알아?  
동주 어떻게 알면 왜?  
지석 설마... 뒷조사했니?  
동주 했으면?  
지석 (실망스러운) 오동주! 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어?  
진짜 실망이다. (일어서 가려는데)  
동주 이준희에 대해 다 알고도 사랑할 수 있어?  
지석 (멈칫, 보는)  
동주 이준희가 어떤 여잔지 알고도 사랑할 수 있어?  
지석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뭘, 얼마나 더 알아야 하는데?  
동주 (벌떡 일어서며) 이준희가... 이준희가... (마음 소리) 말해.  
트랜스젠더라고 말해. 그럼 지석이 돌아올 거야. (다시 입 밖으로)  
이... 이준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차마 입 밖으로 뱉어지지  
않는다) 젠장! (그냥 돌아선다)

## #54 동주 약국 앞(낮)

동주, 힘없이 터덜터덜 약국으로 걸어온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상자(아이스박스)가 하나 놓여 있다.  
상자 위에 메모지가 붙어 있다.  
동주, 메모지를 읽어본다. 그 위로.

준희(E) 언니,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 안 계시네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제가 폰을 잃어버려서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개통하면 바로 전화할게요.

동주, 상자를 열어보면 피만두다.  
피만두를 본 순간 북받치는 감정.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그냥 준희가 너무 밍고 화가 난다.

동주 (원망스러운) 너는 왜... 나한테 온 거야? 지 동네 약국에 가지, 왜?  
왜에!! (당장 피만두 봉지를 들고 택시를 잡아탄다)

## #55 준희 오피스텔 앞(낮)

멈추는 택시. 동주, 빠르게 준희 집으로 간다.

## #56 준희 오피스텔 / 현관 앞(낮)

동주, 벨을 빠르게 누른다.  
반응이 없자 손으로 문을 쿵! 쿵! 쿵! 세게 때리는데, 그때 뒤에서.

준희 언니! (반갑게 뛰어와서는) 언니!  
동주 (분노로 쏘아보는)  
준희 (웃으며) 언제 오셨어요?  
동주 (마음 소리)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준희 (웃으며) 약국은요?  
동주 (마음 소리) 웃지 말라니까!

감정 터지면서 움켜쥔 피만두를 준희 웃는 얼굴에 던지려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준희를 잡아 돌려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다.  
동주, 놀라 보면 낯선 중년 여자가 준희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떠난다.

준희 (중년 여자를 보며) 엄... 엄마.  
동주 !  
준희 모 (준희를 위아래로 보고는) 너, 미쳤어?!  
준희 엄마.  
준희 모 기어이 수술한 거야?

준희 엄마도 여자잖아! 근데 내 마음 모르겠어?!  
준희 모 몰라! 너 내 아들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죽었다 깨나도  
내 아들!! 내가 널 낳으려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아? 니  
할머니한테, 니 아버지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 내가!!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오줌 물까지 마셔가며 온갖 미친 짓을 다 했어!  
그렇게 낳은 너야! 내 아들!!

준희 (미안하고 마음 아픈) 엄마.

준희 모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니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에!! (영영 울다가)  
그래, 너 지금 아픈 거야. 너무 아파서 이런 거야. 준희야, 치료받자.  
치료받으면 다 나아질 거야. (준희 팔을 움켜쥐더니 엄청난 힘으로  
끌고 간다)

준희 엄마! 싫어! 안 돼! (동주 보며) 언니!! 언니!!

동주, 말릴 사이도 없이 준희 모의 괴력에 준희가 끌려간다.  
잠시 멍하다가 이내 쫓아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사내 둘이  
동주를 막아선다.

동주 이봐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비켜요!! 당장 비켜어!! (달려드는데)

사내 둘, 동주를 힘껏 밀어버린다. 동주, 바닥으로 쓰러진다.

## #57 준희 오피스텔 앞(낮)

준희, 건장한 사내 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봉고차에 강제로 태워진다.  
준희 모까지 타면 봉고차는 떠난다.  
다리를 절뚝이며 뒤쫓아온 동주, 얼른 택시를 잡는다.

## #58 달리는 택시 안(낮)

조수석에 앉은 동주.

동주 기사님, 저 봉고차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59 도로 + 철문 앞(낮)

달리는 봉고차. 그 뒤로 쫓아가는 택시.  
그렇게 한참 추격전이 벌어지다가 봉고차가 어느 철문 안으로 들어간다.  
택시에서 내리는 동주, 봉고차가 들어간 굳게 닫힌 철문을 보면 옆에 걸린  
간판에 정신병원이라고 적혀 있다.  
동주, 놀라는 표정에서.

#60 정신병원 안(낮)

#56에서 건장한 남자(간호사) 둘에 의해 정신병원 독방에 갇힌 준희,  
철창문을 붙잡고 괴로움으로 비명을 지르는 데서!

#61 다시 정신병원 앞(낮)

동주, 준희 비명이 온전히 들리는 듯 꿈쩍 않고 서 있다. 그 위로.

인터컷.

#46. 처음 만났던 준희.

#33.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웠던 준희.

#36. 손을 잡아주며 노래를 불러주던 준희.

동주, 가슴이 아파온다.

#62 정신병원 / 독방(낮)

다른 날.

준희,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여자(E) 이준희 씨, 면회 있어요.

준희, 천천히 눈을 뜬다.

#63 정신병원 / 면회실(낮)

동주와 준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동주, 초췌해진 준희를 보니 안쓰러워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다.

준희 (담담하게) 벌써 두 번째예요, 정신병원. 처음 갇힌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동주 엄마가... 밉겠네.

준희 아뇨. 이해해요. 여자잖아요. 여자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쳤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 딸만 넷을 낳았어요. 할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늘 죄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주 당당하게 다른  
여자를 만났구요. 엄마한테 다섯 번째 딸은,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동주 ...

준희 엄마를 생각하면 여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실패했죠.

동주 (마음이 아프다)

준희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내 맘대로 살자. 남들이  
뭐라 하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내 모습대로.

동주 (깊은 울림, 혼잣말) 내가 원하는 내 모습대로.

준희 여자가 돼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남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난 거.

동주 ! (보는)

준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활짝 웃는다)

#64 정신병원 복도(낮)

동주, 면회실을 뒤로하고 복도를 따라 걸다가 로비에 있는 커다란 어항을  
본다. 뭔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어항으로 가서 어항 안을 들여다본다.  
물고기 한 마리가 어항 벽에 닿아서 더는 가지 못하고 계속 부딪친다.  
그 물고기 위로 오버랩 되는 지난날 동주의 모습들.

인서트.

친구의 소꿉주방세트를 부럽게 보는 어린 동주.

좁은 약국에서 열두 시간씩 계속 일만 하는 동주.

#8. 지식에게 어떤 년이냐고 악을 쓰는 동주.

동주, 손바닥으로 어항을 때린다. 점점 더 세게! 더 빠르게! 미친 듯이!!

어느 순간 조금씩 금이 가는 어항!

동주, 주먹으로 마지막 한 방을 힘껏 때리자 어항이 와장창 깨지며 토하듯

쏟아져 나오는 물과 물고기들!

병원 사람들, 어항이 깨져서 물바다가 되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팔딱팔딱거리는 물고기들의 아가미 옆으로 날개가 달리며

물고기들이 날아오른다.

동주, 환하게 웃는다. 그러고는 어디론가로 뛰어간다.

## #65 경찰서 외관 + 안(낮)

#24와 같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듯 서 있는 동주와 경찰.

경찰 (답답하다는 듯) 아, 진짜 몇 번을 말합니까? 부모의 동의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입원이 된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니까!

동주 내가 강제로 끌려가는 걸 봤다니깐요!

경찰 아줌마아아!! 경찰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이럴 거야! 당장 가요!!

동주 (엿 먹으라고 손으로 욱하고 나간다)

경찰 저 아줌마가 진짜! (문득) 근데 저 아줌마 어디서 봤지?

## #66 대학교 / 강의실(낮)

조교, 리포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린다.

깜짝 놀라 보면 동주가 서 있다.

조교 아~ 간탱이야.

동주 (다가와서) 지석이 이 개자식 내 전화 안 받아.

조교 형, 미안마에 논문 자료 조사 갔어요. 거기 오지라서 전화 잘 안 터져.

동주 쟤장! 쓸모없는 개자식! 언제 와?

조교 (지친 듯) 누나, 형 그만 놔주세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원래. 그냥 보내줘! 정말 사랑한다면 쿨-하게 보내주는, (하는데)

동주 (조교 배를 주먹으로 퍽! 치고 나간다)

조교 (배를 잡고 쓰러지고)

## #67 정신병원 외관 + 앞(낮)

쏟아지는 장대비.

홀로 피켓 하나를 들고 서 있는 동주.

피켓에는 [강제입원된 내 친구를 돌려주세요!]가 크게 쓰여 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런 동주를 폰으로 찍고 SNS에 올린다.

## #68 정신병원 / 준희 독방(낮)

준희, 창밖으로 동주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페이드아웃.

## #69 인서트

페이드인.

정신병원 철문이 열린다.

## #70 정신병원 정문 앞(낮)

다른 날.

열린 철문에서 준희가 나오면 동주가 기다리고 있다.

준희, 반갑게 동주에게로 달려오는데 동주, 냅다 준희 뺨을 때린다.

준희 (놀라는, 뺨을 감싸고 동주를 본다)

동주 억울해? 나만큼 억울해? 왜 하필 김지석이야?  
 준희 !! (설마?!)  
 동주 그래, 그년이 너야.  
 준희 (너무 놀랍고 당혹스럽다) 근데... 왜... 날 위해 피켓까지 들었어요?  
 동주 너니까.  
 준희 ?  
 동주 김지석 그 개자식 과랑새는, 너니까.

## #71 플래시백(#53 연결)

동주 이준희가 어떤 여잔지 알고도 사랑할 수 있어?  
 지석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뭘, 얼마나 더 알아야 하는데?  
 동주 이준희가... 이준희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려는데)  
 지석 나한테는 그냥 준희야.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세상이 쓰는 말이고.  
 동주 ! (보는) 알고... 있었어?  
 지석 난 그런 세상하고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내겐 의미 없으니까.  
 동주(E) !! (표정 위로) 그때 처음 알았어.

## #72 다시 정신병원 정문 앞(낮)

동주 그리고, (준희를 깊게 보며) 미워지지가 않았어. 이준희 니가.  
 준희 !  
 동주 그때 내 손만 잡아주지 않았어도 니 머리 불 썩질러버렸을 텐데.

인서트.

#36에서 말없이 동주의 손을 잡아주며 노래를 불러주던 준희.

동주 (준희를 깊게 보며) 그게 다야.  
 준희 (눈물이 흐른다)

그때 택시가 와서 멈춘다.

동주 타.  
 준희 ?  
 동주 지석이 5시에 공항에 도착한대. 가봐.  
 준희 (울면서) ... 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동주 (택시 문 열어준다) 눈물이나 닦아. 누가 보면 내가 때린 줄 알잖아.  
 준희 (얼른 눈물을 닦고 택시를 탄다)  
 동주 (택시 문을 닫아주면 택시 떠난다)

멀어지는 택시를 보는 동주의 모습 위로.

동주(N) 어릴 적 내 과랑새는 소꿉주방세트였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장학금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약국이었고, 약국 대출금을 갚고 나서는 지석이였다. 그래서 그토록 안달을 하며 가지려 했다. 그게 행복이라 믿었으니까.

## #73 인서트

동주 약국 문에 "개인사정으로 쉽니다." 종이가 붙어 있다.  
 잠시 후, 누군가 그 종이를 떼다.

## #74 동주 약국 안(낮)

한 달 후.  
 문이 열리고 부동산 중개인(여자)과 고객(여자)이 들어온다.

부동산 한번 보세요. 이 자리가 진짜 오래 한 자리예요. 전에 약사님이 8년을 했어요. 365일 휴일도 없이 열두 시간 꼬박, 심지어 명절에도 안 닫았다니까요. 그래서 단골들이 엄청 많아요. 다른 동네서, 심지어 인천에서까지 찾아오고 그런다니깐요. 진짜 좋은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고객 (고개 끄덕이고는) 네, 계약할게요.

#75 인서트

동주의 전국 미식지도.  
그 위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손.

#76 공원 일각(낮)

멋진 오토바이 한 대. 그 옆 벤치에 앉아 있는 동주, 음료수를 마시면서 미식지도에다 동그라미를 몇 개 더 그린다.

동주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가즈아!! (일어나서 헬멧을 쓰고 멋진 폼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그 위로)

동주(N)   이제 나는 과량새를 찾지 않을 것이다.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그냥 나로 사는 것, 그게 행복이니까.

#77 식당 안(낮)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 동주, 그 많은 음식을 다 먹는다.  
사람들, 무슨 여자가 저렇게 많이 먹냐고 수군거리고 낄낄거리며 폰으로 찍는 사람도 있다.  
동주, 그러거나 말거나 행복한 표정으로 돌고래 비명을 지르면서 맛있게 먹는다. 그 위로,

동주(N)   남들이 뭐라 하건.

#78 사무실(낮)

책상 위에 한가득 있는 동백꽃 모양의 핀.  
준희, 동백꽃핀을 만들고 있는데 카톡이 온다.  
확인하면 동주가 먹은 음식들이 찍힌 사진이다.

준희      (부러운) 완전 맛있겠다. 음~~

그때 문이 열리고 은정이 들어온다.

은정      뭐 해? 늦었어!

#79 한강 일각(낮)

멍 때리기 동호회 사람들, 쪽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  
늦은 준희와 은정, 조심스레 꽃핀을 회원 사람들 앉은 뒤에다 하나씩 놓는다. 은정, 꽃핀을 놓다가 누군가를 보고는 준희 팔을 찌른다.  
준희, 따라 보면 좀 떨어진 곳에 지석이 있다. 지석에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지석, 웃으며 손을 흔들고 키스를 날린다. 그 모습 위로.

동주(N)   세상이 뭐라 하건.

#80 식당 앞 + 도로(낮)

식당에서 나오는 동주,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시동을 건다.  
부르~~릉 울리는 소리와 함께 달린다. 그 위로.

동주(N)   그냥 나로 사는 것.

바람을 가르며 멋지게 질주하는 동주의 모습에서.

끝.

오픈은 작가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규태 감독님과 멘토링은 내게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다. 감독님은 항상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쉽게 생각하고 놓쳤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반성하게 했고, 때로는 따뜻한 말로 용기를 주셨다. 대본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해주시고, 같이 생각해주신 덕분에 드라마 배움 못지않게 인간적인 배움이 컸던 시간이었다.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집에 올린 대본은 오픈에 당선된 원본을 두 번째로 수정한 것이다. 사실 원본과, 두 번째 수정본, 그리고 영상화를 위한 세 번째 수정본 중 어떤 것을 올릴까 고민을 했었다. 원본은 5~6년 전쯤에 쓴 것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제와 캐릭터의 표현이 미숙해서 의도했던 바를 정확히 잘 전달하지 못했다. 세 번째 수정본은 원본의 주제를 새로운 스토리로 진행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원본의 미숙한 부분을 수정한 두 번째 수정본으로 결정을 했다. 많은 분들의 조언 덕분에 조금은 성장한 글을 올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내 연적의 모든 것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김규태 감독님과 오픈 관계자님들, 그리고 오픈 2기 작가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 밀어서 감옥 해제

홍혜이



---

## 작의

까뚝, 까뚝. 오늘도 아침부터 밤까지 쏟아지는 메시지. 오늘도 우리는 무수한 말 속에 갇힌다. 어떨 때는 의미 없는 말에 슬한 의미를 남기고, 또 어느 날은 의미 있는 한마디를 읽고 씹으며 남에게 상처를 남긴다. 고작 메시지 한 통이 의미와 상처를 독식한 세상이다. 언제부터 이토록 많은 의미와 상처들이 스마트폰 안에 쌓이기 시작한 걸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없는 말이 천 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달리기 시작한 지금. 결국,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언제나 사람이고, 다정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 시대를 지나, 말로 무수히 많은 빚을 지는 시대에서, 우리 다시 천 냥 빚 중 일부라도 갚아볼 수는 없을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메시지 몇 통이 아니라, 관심 몇 번이다. 고로 그저 조금이라도 메시지 대신 서로 관심을 주고받으면 빛이 빛도 되는 세상일 텐데.

---

## 등장인물

이주영(30세, 여) 아웃소싱업체 경리

오늘도 아침 7시 기상, 회식에 찌든 속을 달래기도 전에 까뚝 까뚝 하고 우는 핸드폰부터 달랜다.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기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회의 안건보다 중요하게 살피는 사장님 관심은 못 참겠다. 결국,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했다. 그런데 웬걸, 일명 회사 폰을 만들자마자 중학생들이 세운 메신저 감옥에 갇혔다. 이 억울한 옥살이 그만두고 싶은데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못 하는 말이 없다. 하루하루 제 밥그릇 챙기기도 벅찼던 슈퍼 울 이주영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믿었던 이주영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히어로가 되기로 한다.

홍혜이  
needberryz@gmail.com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밀어서 감옥 해제〉극본

우희주(15세, 여) 진짜 수감자 겸 탈옥수, 왕따, 중학생

오늘도 아침 7시 기상, 온라인 게임부터 켜다. 아이들이 시킨 대로 게임 돈을 모으고 겨우겨우 지각을 면하면, 그때부터 쉴 틈 없는 메신저 알림이 들이닥친다. 오늘도 우희주는 스마트한 감옥에 갇혀 있다. 말수 적고 착실한 성격으로 벌써 3년째 감옥살이를 묵묵히 감당해왔지만, 이젠 정말 한계다. 나와 내 상처 중에 무엇이 먼저 끝날까. 결국, 남몰래 전화번호를 바꾸며 탈옥 시도. 어라, 성공했다. 우희주 대신 누군가가 그 안에 갇혔다. 이대로 영원히, 졸업식 때까지만이라도 저 사람이 나 대신 스마트한 감옥에 갇히게 해주세요.

장여나(15세, 여)

귀엽고 순한 얼굴 뒤로 자신을 감옥의 집행자라고 일컫는, 교실의 왕.

마선경(30세, 여)

주영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일하는 경리 친구. SNS 중독자.

최대리(37세, 남)

주영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대리, 세상만사 다 관심 많은 스마트폰 중독자.

현장부장(51세, 남)

주영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현장부장, 경리인 주영을 만만하게 본다.

그 외

열다섯 교도관들, 희주 엄마, 주영의 회사 사장, 경리 군단 등.

---

### 줄거리

이번 역은 ○○역, ○○역입니다.

까뚝, 까뚝.

집으로 가려면 바로 갈아타야 했지만, 퇴근한 주영과 달리 그녀의 스마트폰은 오늘도 24시간 근무 중이다. 퇴근하고도 쏟아지는 메시지에 오늘도 30대

직장인 이주영은 내려야 할 때를 놓친다. 어떤 급한 용건으로 이토록 알림을 울렸을까. 확인해보면 프로필 사진을 향한 사장님의 호기심이 끝이다. 결국, 오늘마저 주영은 완벽한 퇴근과 지하철, 모두 다 놓치고야 만다. 피곤과 메시지만 쏟아지는 퇴근길. 참다못한 주영은 무턱대고 다음 역에서 내린다. 그뿐일까, 곧바로 핸드폰 가게에 들른다. 무작정 ‘회사 폰’이랍시고 핸드폰을 하나 더 구매한 거다. 내일부터 내 핸드폰에도 퇴근이 온다! 부푼 마음으로 잠들려던 때, 알림이 울린다. 그때부터다. 이주영 인생이 0과 1이 만든 세상 중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건.

다음 날 아침, 주영은 300통을 넘긴 메시지와 마주한다. 출처 모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거다. 심지어 아무리 단체 채팅방을 나가보려 해도 도로 잡혀 들어오기 일쑤다...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으려던 그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다. “너 자꾸 까먹나 본데 여기 감옥이야.”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깐.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주영,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감옥 채팅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 일단 알아낸 건 그들은 열다섯, 어려도 너무 어린 나이이며 그들에게 이 단체 메신저 방은 ‘감옥’이다. 어려서 만만하게 보았던 감옥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끔찍하다. 쉴 틈 없는 폭언은 기본, 게임 아이템을 구해오라고 하는 등 도저히 열다섯이 가하고 견뎌내기엔 끔찍한 순간만 이어진다.

며칠간 게임 퀘스트 해결은 물론, 온갖 기프트콘까지 바치며 가짜 우희주 행세를 하던 주영, 마침내 상황 파악을 끝낸다. 이 감옥의 수감자는 오로지 한 명, 나머지는 교도관을 자처한 방관자, 그리고 이 감옥의 주인은 단 한 명, 집행자다. 어떻게든 집행자를 찾아내려던 주영은 마침 집행자에게 20만 원을 주면 감옥을 없애주겠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잘만 하면 고작 20만 원으로 집행자의 신상을 알아낼 것 같았던 주영, 진짜 수감자인 척 집행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다. 당연히 알아내기만 할 뿐, 20만 원은 입금하지 않는다. 고작 20만 원으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줄 알고.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2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던 밤이 지나고, 감옥 채팅방에 달랑 인터넷 주소 하나가 올라온다. 확인해보니 한 SNS 계정 사이트였고, 그 계정엔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다. 자신이

약속을 어기며 벌어진 상황에 큰 죄책감을 느끼던 주영은 곧장 집행자와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다. 그렇게 경찰서에 들어선 주영이 마주한 건 집행자나 교실의 왕 같은 타이틀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어려도 너무 어린 아이였다. 이 모든 게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다는 걸 목격한 주영, 그대로 경찰서에서 빠져나온다. 그렇다고 핸드폰을 버릴 순 없었던 주영은 가짜 우회주 행세를 이어나간다. 그 아이에게도 이 모든 게 가벼운 장난이기를 바라며, 그렇게 주영이 서서히 죄책감을 떨쳐내던 그때, 그때에도 희주의 모든 곳은 감옥이었다.

핸드폰 속 감옥에서만 벗어났을 뿐, 여전히 24시간 자유로운 듯 자유롭지 않게 갇혀 지내던 희주는 끈질긴 괴롭힘 끝에 여나에게 감옥 속 희주가 가짜 희주임을 들리게 되고, 한편 여나는 희주인 척하는 새로운 수감자가 메신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하나로 희열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렇게 주영, 메신저 감옥의 가짜 수감자에서 진짜 수감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데,

— 밀어서 감옥 해제  
홍혜이

## #1 거리(해질 무렵)

상가 건물이 뻣뻣하게 늘어선 도시 어느 거리.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죄다 주변은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만 본다.  
그중 양복 입은 남자. 가까이서 보면 주식과 관련된 단체 채팅방에 집중했다.

50대 여자, 눈이 침침한지 핸드폰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  
보면, 아파트 입주민의 가격 담합과 관련된 단체 채팅방이다.

20대 남자,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지나가는데,  
시선은 오로지 핸드폰에 꽂혀 있다.  
보면, 대학 과 단체 채팅방이다. 온갖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그 옆으로 지나가는 중학생, 희주다.  
희주, 끊임없이 울리는 메신저 알림에 핸드폰 보려다가, 주머니에 넣는다.  
상반되어 보이는 남중생, 핸드폰을 보다가 희주와 부딪칠 뻔하고.

## #2 지하철역 / 플랫폼(저녁)

곧 열차 들어온다는 안내가 들리고.  
몇 안 되는 사람들, 하나둘씩 지하철을 타려고 일어서거나 줄을 선다.

주영(N) 오늘도 우리는 무수한 말 속에 갇힌다.  
어떨 때는 의미 없는 말에 술한 의미를 남기고.

1-1칸 앞,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씩 내딛는 희주가 보인다.

교복 차림인 희주, 한 걸음씩 그렇게 정지 안내 블록을 넘어서고.  
한 걸음 더.

주영(N) 또 어느 날은 의미 있는 한마디를 읽고 씹으며 남에게 상처를 남긴다.  
고작 메시지 한 통이 의미와 상처를 독식한 세상이다.

위태롭게 선 희주,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까, 말까 망설인다.  
그때 핸드폰을 꼭 쥐 희주 손이 서서히 보이고.  
희주의 핸드폰에선 메신저 알림이 끊이질 않는다.  
[야] [또 어디로 튀었냐] [하여간 발만 존나 빨라요] [5분] [5분  
드림ㅁㅁㅁㅁ] [친구 사이에 이러기야?]  
[오ㄴ존나 친구까지 시켜줬어ㅠ] [애 왜 안 읽어?] [튀지고 싶나 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영(N) 언제부터 이토록 많은 의미와 상처들이 스마트폰 안에 쌓이기  
시작한 걸까?

희주, 울먹이며 주변을 둘러본다. 주변엔 아무도 없다.  
울지 않으려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희주, 겨우 웃는다.  
희주 손에 쥐 핸드폰 전원이 꺼지면서 블랙아웃.

타이틀. “밀어서 감옥 해제”

### #3 지하철 안(저녁)

양복 입은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지하철 안.  
그 사이, 겨우 앉아서 조는 주영이 보인다.  
그때 주영의 핸드폰에서 메신저 알림이 울리고.  
[주영아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지?] [애들은 다 모였어] [또 파토?]  
[야 우리 사장 새끼가 드디어 돌았다] [미친 너 아직도 일해?]  
[이주영 오늘도 야근...?] [Завтра я не хочу идти на работу]  
쉬지 않고 계속 울리는 알림에, 주변 시선이 느껴진다.

실눈을 뜬 주영, 핸드폰 확인하면 회사 단체 채팅방이다.  
그때 회사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들.  
사장, [주영 씨, 프로필 사진 또 바꿨구먼!]  
사장, [ㅎㅎ남친이 골라준 건가? 젊어서 그런가, 기운도 좋아! 하하!]  
사장, [앗, 헤어졌다고 했나?]  
현장부장, [경리! 삼안에 돈 못 보낸 거 지금 일단 보내줘!]  
주영,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핸드폰만 노려보는데,  
마침 다음 역 안내방송이 들린다.

주영 (뭐라고 답장할지 고민하며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다, 한숨)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우르르 내리는 사람들.  
혼자 눈치채지 못한 주영, 앉아서 [네, 불만?]까지 입력했다가 지우고.  
대신 셀카였던 프로필 사진을 없앤다.  
느릿느릿 일어서며 사장에게 답장하는 주영.  
[넵! 확인하였습니다^^!]  
주영, 짜증이 난 얼굴로 출입문 앞에 서자마자, 출입문 닫히고.

주영 아나. (조심히 출입문을 두드려보는데)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지하철, 지하철 출입문 유리에 비치는 주영의 얼굴.  
사이, 다음 역 안내방송이 들린다.

### #4 지하철 플랫폼 / 계단(저녁)

바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사이, 주영 우두커니 서 있다.  
사이, 한가해진 계단.  
여전히 서 있던 주영, 제법 짜증이 난 표정으로 핸드폰을 확인한다.

주영 아... 진짜.

마침 메신저 알림 울리고.

보면, 또 다른 회사 단체 채팅방(일용직 근로자들이 주로 속함)이다.  
 [나 돈] 이어지는 일용직 근로자들과 현장부장의 메시지.  
 [경리! 또 돈 안 너었나!]  
 [나이를 먹으면 실력이 높아야지 건망증만 늘면 쫓...]  
 [빨리 답장해줘 (러시아어로)]  
 [Завтра я не хочу идти на работу] [спокойной ночи]  
 주영, 신경질적으로 주머니에 핸드폰 넣으며 계단 올라가기 시작한다.

## #5 핸드폰 가게(저녁)

핸드폰 가게 직원 두 명, 주영의 눈치를 살피는데.  
 주영, 곧바로 직진, 핸드폰 진열대 앞으로 향한다.

주영 저기요.  
 직원1 네, 네!  
 주영 새로 핸드폰 하나 하려구요. 화면 작은 거로요.  
 직원1 네... 네?  
 주영 요즘 사람들, 핸드폰 두 개쯤은 그냥 쓰잖아요. 아니에요?  
 직원1 (그런가? 의아해하면)  
 직원2 (다급히) ... 네! 네, 보통 그렇죠.

주영, 그제야 의자에 편히 기대앉더니 눈으로 핸드폰 진열대 훑어보고.

주영 저도 하나 더 할게요.  
 직원1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고객님. 요즘은 화면 작은 게 없...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기필코!

직원 두 명, 작은 핸드폰을 찾겠다고 가게 곳곳을 바빠 돌아다닌다.  
 기다리던 주영, 훑길 가게 벽면에 붙은 아이돌 핸드폰 광고 포스터를 보고  
 슬며시 기분 좋게 웃는.

직원1 (작아 보이는 핸드폰들을 쭉 주영 앞에 내려놓으며)

고객님께서 찾으시던,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핸드폰들입니다!

주영 죄송한데요. (아이돌 포스터 한 번 보고) 저거 주세요.  
 직원1 예? ... 예.  
 주영 근데요, 핸드폰 두 개 쓴다고 주변에 뭐, 문자가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죠? 콜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다른 번호 알 수 있다든지...  
 직원2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보호되는지 몰라요.

## #6 주영의 집(밤)

깔끔하면서도 단출한 주영의 원룸.  
 주영, 가방과 쇼핑백을 바닥에 툭 내려놓더니 침대에 드러눕는다.  
 주영, 이리저리 새 핸드폰을 확인하는.  
 화면을 꺾다가 켜보고, 원래 핸드폰으로 새 핸드폰에 전화도 걸어보는.

주영 여보세요?

새 핸드폰으로 원래 핸드폰에 전화 걸던 그때,  
 원래 핸드폰에 메시지 한 통 도착한다.  
 보면, 나타샤로부터다. [내일 점심 안주면 그만둘꺼야]  
 주영, 신경 쓰지 않고 새 핸드폰으로 전화 받는.

주영 네, 여보세요. (새로 산 핸드폰에 입을 몇 번 맞추더니 씩 웃는)

## #7 주영의 집(밤)

불 꺼진 주영의 집. 침대 옆 탁자에 핸드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침대 쪽을 보면, 폭 잠든 주영이 보인다.  
 그때 새 핸드폰 화면에 불 들어오고.  
 끊임없이 화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며 메시지들이 도착한다.

## #8 서울레코드 앞(밤)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  
그 사이 희주, 셔터가 내려간 서울레코드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서울레코드 앞에 쪼그려 앉아, 음악 감상 중인 사람이 보이고.  
걸음이 느려지는 희주, 뒤돌아보면서까지 그 사람을 유심히 보는.  
그러나 그런 희주가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다.

## #9 주영의 집(아침)

비몽사몽, 누워 있던 주영, 원래 핸드폰부터 보려다가, 그 옆 새 핸드폰을  
확인하면, 메시지가 300통이나 와 있다. 이미 와 있는 메시지들은,  
[야 다시 만들었다] [ㅋㅋㅋㅋ방학도 끝났는데 우리도 다시 놀아야지]  
[방학 동안 툭 없었더라] [존나 연예인인 줄 알았잖아] [○○○○○○○○]  
[확인 쫘ㅁㅁㅁㅁㅁㅁㅁㅁ] [야] [야 보라고] [설마 벌써 잠?]  
[잉? 우리 안 자는데] [도른?]  
그리고 그때 도착하는 메시지. [읽었네?]  
주영, 인상 찌푸리며 보다가, [잘못 초대하신 것 같네요.]만 보내고 나가기  
버튼을 누르더니 곧장 일어나는.

## #10 거리(아침)

주영의 회사 근처 거리, 피곤한 듯 하품만 연신 하며 걷는 주영.  
마침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리고.  
원래 핸드폰을 꺼내 보는 주영, 도착한 메시지는 없다.  
혹시나 해서 새 핸드폰을 꺼내 보면, 또 100건 넘게 쌓인 메시지.  
게다가 여전히 오고 있다.  
[야ㅋㅋㅋ 안 읽을 거면 게임 접속도 하지 마 좇갈게 진짜ㅋㅋ]  
[지금은 읽음~] [상황 파악 오지고요] [혹시 지금 우리 갖고 노시는지??]  
[퀘스트 쫘자나 봐주자] [ㄴㄴ 오늘 하는 거 봐서]  
[10분 뒤에ㅋㅋㅋㅋ보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영, 의아한 듯 보다가 나가기 버튼 누르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 #11 아웃소싱업체 회사 사무실(아침)

작은 규모인 아웃소싱업체 회사 사무실.  
창문 네 개에 “사람 구함”이라는 문구가 시트지로 크게 붙어 있다.  
현장부장, 두 줄로 나란히 선 일용직 근로자 여덟 명을 한 명씩 얼굴  
확인하며 인원 체크 중이다.

현장부장 신분증! 신분증 없으면 못 가! 안 갖고 온 사람, 손!

그 누구도 손들지 않자, 현장부장 만족한 듯 씩 웃는.

현장부장 내려가면 봉고 있거든? 그거 타. 가서 화장품만 닦음 돼!  
맞다. 잔업 있다. 오늘, (열 손가락 펼쳐 보이며) 10만 원이야.  
10만 원!

현장부장, 한 번 더 대충 세어보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간다.  
일용직 근로자들, 옹기종기 붙어서 곧장 현장부장 뒤를 따라 나가는.  
한 명 한 명 인사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하던 주영, 자리에 앉는다.  
최대리, 주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새 핸드폰에서 알림이 두 번 연달아 울리고.

최대리 아침부터 인기 많네, 주영 씨!

주영 (멋쩍게 웃는다)

주영, 원래 핸드폰을 만지는 척하다가 내려놓는데,  
그때 새 핸드폰에서 또 메신저 알림이 울리고.

최대리 주영 씨, 금세 남친 생겼나 봐?

주영 예?

최대리 자꾸 핸드폰 소리 나는데?

주영 … 제 거 아닌데요?

최대리 (주변 황급히 둘러보다가) 누구 또 핸드폰 두고 갔나?

(다시 핸드폰 게임에 열중한 채로) 찾으러 오겠지, 뭐.

주영, 대답 대신 애써 웃으며 컴퓨터를 켜다.  
그때 새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도착한다. [야 왜 자꾸 나가는데]  
단체 채팅방인 걸 알고, 나가기 버튼 누르려는데,  
[우희주 너 자꾸 까먹나 본데 여기 감옥이야]

주영 ... 감옥?

## #12 회사 건물 / 테라스(낮)

주영,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테라스 난간에 기대서 있다.  
선경, 보란 듯이 벤치 위에 도시락을 펼쳐놓더니 주영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 보면, 선경의 도시락은 제법 정성스럽고 예쁘지만, 주영의 도시락은  
볼품없다.  
주영, 털썩 앉아서도 새 핸드폰만 보다가, 선경에게 새 핸드폰 내밀고.  
선경, 흘깃 보더니 새 핸드폰 받아들고 픽 웃는.

선경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핸드폰을 샀는데 거기에 감옥이 있다?  
주영 (비장하게 고개 끄덕)  
선경 웃기고 있어.  
주영 내가 월요일에 널 웃길 이유가 있을까?

선경, 그제야 주영의 새 핸드폰을 확인해보면, 메신저 알림 울리고.  
[돼지 새끼도 아니고 밥 존나 맛있게 쳐먹내,,] [야 밥 맛있게 먹구 힘내서  
우리 물 줌ㅇㅇㅇ] [술까 힘낼 일도 아님ㅋㅋ] [이래야 너 친구 많아  
보이자나 다 너 생각해서 말한 거ㅇㅇ] [모르면 존나 서운할 예정ㅇㅇ]  
[야 씨발 계속 쳐다보지 마 기분 좇갈게]  
[여기서 좇갈다는 나쁜 말 아님 ㅇㅇ 다 너 생각해서ㅋㅋ~]  
선경, 픽 웃더니 새 핸드폰을 주영 쪽으로 내민다.  
주영, 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젓가락으로 도시락 반찬 집어 들려 하면,  
선경, 주영의 젓가락을 자기 젓가락으로 툭 치더니 바로 제 핸드폰으로

도시락 찌는.

선경 (여러 각도로 찌으며) 애들 장난이야, 그냥.  
인별에 이런 애들, 디게 많어.  
주영 (사진 잘 찍히게 음식 하나 집어 들고) 장난치곤 좀 살벌하지 않아?  
선경 제발 나이 먹은 티 좀 그만 내지, 이주영? 됐다. 이제 먹어.

주영, 그제야 집어 든 음식을 입에 싹 넣고.  
선경, 무심하게 SNS에 음식 사진들을 업로드 하는.

## #13 사무실(낮)

주영뿐인 사무실. 주영,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든 채 사무실을 치우고 있다.  
마침 그때 회사 전화기에서 전화벨 울리고.  
주영, 서둘러 전화기 앞으로 달려간다. 받기 싫어서 망설이다가, 힘없이  
받는.

주영 네에... 힘찬아웃소싱입니다...  
현장부장(F) 경리!  
주영 냅!

마침 그때 새 핸드폰에서 [희주야]라는 메시지가 도착한다.

현장부장(F) 러시아 애들, 점심때 일하랬더니 튀었어! 이거 어쩔 거야!  
주영 ... 예? ... 그걸 왜 저한테...  
현장부장(F) 나타샤가 어제 경리한테 문자했다드만!

주영, 원래 핸드폰으로 나타샤에게 받은 문자 확인한다.

현장부장(F) 점심에 일 시킬 거면, 뭐라드라, 러시아어로 이 새끼 저 새끼  
찾는데 내가! 어?! 그르케, 어!? 기초만 야매로 배웠다고 그르케  
말했는데도!!



주영, 책상 위에 걸터앉더니 듣는 등 마는 등 새 핸드폰에 집중하는.  
 [희주가 좋아하는 사람] 아이돌 무대 사진들, 메신저 창에 띄워지고.  
 [나랑 친했을 때 애네 아님 죽겠다고 난리침ㅠ~~]  
 [헉 근데 아직 안 뒤졌다니,,] [중고세상에서 애네 폰 번호 샀는데 좋까?]  
 [ㄴㄴ 희주 착해서 그런 거 못함ㅇㅇ] [어쩔 수 없지 모]

현장부장(F) 암튼, 어쩔 거야! 경리, 어쩔 거냐고! 듣고 있어?! 답답해 죽겠네,  
 증말!  
 주영 (애써 친절하게, 핸드폰만 보며) 예예, 부장님. 듣고 있죠오. 답답한  
 마음, 제가 정~말 잘 알죠. 죄송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시베리아에  
 가서 잡아 올 순 없잖아요? 다음번엔, (더 제대로 뽑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는데)  
 현장부장(F) 그럼 대체 사무실에 앉아서 경리 니가 하는 일이 뭐야?!  
 니가 현장을 알아!? 엉!?  
 주영 (애써 친절) 예예. 사무실에서 씨베리아 표, 찾아보겠습니다.

뚝 끊어진 전화. 주영, 나오려는 욕 꼭 참으며 전화기만 노려본다.  
 마침 새 핸드폰에서 메시지 도착하고.

교도관1(E)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넌 죽고 싶다는 애가 연예인이 좋아?  
 교도관2(E) ... 죽고 싶긴 해? 정말 그러고 싶어?

주영, 우두커니 서서 핸드폰만 보는데 연달아 메시지 도착하고.

교도관3(E) 나는 얼른 니가 그랬음 좋겠어.  
 교도관4(E) 이 감옥에서 나가는 방법 뭐지는 거 말곤 없는데.  
 왜 안 죽고 버티는지 가끔 궁금해. (웃고) 그냥, 그렇다구.  
 주영 (가만히 핸드폰 보다가) 이거... 애들 맞아?

## #14 감옥

주영, 등 떠밀려 어두컴컴한 감옥 안으로 들어간다.

감옥 문 닫히는 소리. 주영, 쇠창살을 붙잡고 흔든다.  
 두리번거리는 주영, 이윽고 드러나는 사람들.  
 얼굴은 보이지 않는 교복 군단이다. 다섯 명이나 된다.  
 감옥 앞에 서는 그들, 팔짱을 낀 채 주영을 본다.

시간 경과.

주영(N) 아무도 모르는 이 감옥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다만, 수감자는 한 명뿐이고.

그때 누가 열지도 않았건만, 감옥 문이 서서히 열린다.  
 주영, 뛰쳐나가려고 하면 네 명의 중학생, 막아서는.  
 주영, 뒷걸음질 치다가 헛디디며 넘어지고.  
 아이들, 주영을 내려다보는데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고.

주영(N) 단 한 명의 수감자를 감시하는 교도관들이 존재한다.

철창 너머에서 그런 주영을 지켜보는 중학생,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나다.  
 문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여나 (돌아서며) 너희 알아서 해.  
 주영(N) 그리고 이 감옥엔 진짜 주인인 집행자가 있다.

## #15 사무실(낮)

주영뿐인 사무실. 그때 새 핸드폰에서 메신저 알림 울리고.  
 [희주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새로 나온 고양이 이모티콘 좀 보내주라] [=사줘]  
 주영, 곧장 원래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주영 저기요. 이거 핸드폰, 편하게 쓰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직원1(F) ... 네, 고객님의?  
 주영 편하게 쓰라더니 아니, 무슨, 예전 번호 쓰던 사람인지 뭔지 감옥에 갇히질 않나... 계속 특이 온다구요. 다른 사람이 쓰던 번호, 몇 달은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직원1(F) 네, 고객님의.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너무 불편하시면 번호 변경 가능한데 그건 어떠세요?  
 주영 불편한 건 전데 왜 제가 또 불편하게 번호를 바꿔야 하는데요?

주영, 짜증은 나지만, 전화 끊고.  
 마침 새 핸드폰에서 메신저 알림이 울린다.  
 [읽고 이제 답장도 안 하나?] [존나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주영, 흘깃 핸드폰을 보다가 신경질적으로 고양이 이모티콘 선물하는.

주영 (뒤늦게 한숨, 책상에 엎드리며) ... 아, 애들 장난에 끼는 거 아니겠는데.  
 이어서 도착하는 메시지. [수고했어 희주야 이래서 내가 너 좋아해ㅋㅋ]

## #16 거리(밤)

회사 근처 거리.  
 주영, 새 핸드폰에 집중해서 주변은 신경도 안 쓰고 걷는다.  
 그 뒤로 걸어가던 선경, 주영을 발견하고 서둘러 다가간다.  
 선경, 주영 옆에 붙어 서고. 주영, 여전히 새 핸드폰 보느라 정신없는.

선경 설마 아직도 그 감옥?  
 주영 (고개 느리게 끄덕끄덕, 시선은 계속 새 핸드폰)  
 선경 쥐봐. 뭔데, 얼마나 재밌길래.  
 주영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경, 주영에게서 새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자, 주영, 서둘러 주머니 속에 핸드폰 넣더니 선경과 마주 보며 어설픈 미소 짓는.

선경 늘 말하지만, 주영아.  
 주영 내 일이나 신경 쓰자?  
 선경 그래. 제~발. 애들 장난에 그만 놀아나고. 응?  
 주영 (제 머리칼 헝클며) 그냥 장난 같지가 않아서 그래.

## #17 회사 사무실(낮)

주영의 책상, 서류 더미가 엉망으로 쌓여 있다.  
 피곤한 듯 앉아서 스트레칭 하던 주영, 액셀이 켜진 모니터만 본다.  
 그러나 시선이 점점 새 핸드폰으로 향하는 주영, 새 핸드폰 보려 하면.

최대리 오늘 들어온 근로자 카드.

최대리, 주영은 보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근로자 카드 묶음을 내민다.  
 주영, 근로자 카드 묶음을 받으려는데 급히 뛰어 들어오는 현장부장이 보이고.  
 마침 새 핸드폰에서 메시지 도착하고, 이어서 회사 전화벨이 울린다.  
 새 핸드폰을 슬며시 보더니 회사 전화부터 받는 주영.

주영 네, 힘찬아웃소싱입니다.  
 여자(F) 저기요!  
 주영 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자(F) 저 어제 한 시간? 아무튼 그쯤 일하고 그냥 나왔는데요!  
 돈 언제 들어와요!?  
 주영 (한숨) 오늘 오후 5시 내로,

주영의 말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끊어지는 전화.  
 현장부장, 물병만 챙겨서 나가려다가 되돌아와 주영 앞을 서성인다.  
 주영, 애써 못 본 척 모니터만 본다.

현장부장 경리.  
 주영 네?

현장부장 좀 웃어. 사무실의 꽃은 경리인데 꽃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쓰나.  
누가 보면 시든 꽃인 줄 알겠어.  
주영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재삼다.  
현장부장 뭐?  
주영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현장부장, 곧장 미련도 없이 사무실에서 나가고.  
주영, 굳어진 표정으로 사무실 문만 보다가, 다시 키보드를 두들긴다.  
그때 새 핸드폰에서 쉴 틈 없이 알림이 울린다.  
주영, 신경질적으로 새 핸드폰을 확인한다. 집행자가 보낸 메시지다.  
[교실에선 웃어야지? 누가 보면 내가 너 괴롭히는 줄 알겠다ㅋㅋㅋ]

주영 (문자 입력하며, 말로) 너, 나한테 웃음 맡겼니?  
  
안 읽음 표시를 나타내는 숫자가 15에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주영 … 아, 망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인쇄기 앞에 서 있던 주영, 자리로 돌아오며 새 핸드폰부터 확인한다.  
아예 사라진 안 읽음 표시, 여전히 답장 없이 조용한 감옥 채팅방.

## #18 학교 / 교실(낮)

아무도 없는 교실. 희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뒷문이 열리면서 남녀 구분 없이 다섯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들어온다.  
아이들, 희주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더니 일부러 책상 천천히 광, 광 두드리고. 여나, 희주의 앞자리 의자를 끌어와, 희주 바로 앞에 앉는.  
희주와 아이들의 얼굴은 보이나, 여나는 뒷모습만 보인다.

여나 웃어.  
희주 … 응?

여나 희주야. 나 너한테 맡겨놓은 웃음 있잖아. 그거, 지금 찾으러 왔어.  
  
희주, 어설피게 웃으려는데 여나, 그 순간 손을 뺐어서 희주의 뺨 툭툭 치는. 희주, 표정이 굳어지자 여나, 손가락으로 희주의 입꼬리를 짚욱 올려주고.

여나 웃어, 예쁘잖아.

## #19 학교 / 복도(낮)

간간이 수업 중인 선생님 목소리가 들릴 뿐, 한산한 복도.  
여나와 아이들, 희주를 기둥으로 몰아세우더니 억지로 희주 어깨 누르는.  
결국, 무릎을 꿇은 희주. 여나와 아이들, 웃으며 핸드폰으로 희주를 찍는다. 기둥 옆 창문 너머로는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 즐거워 보인다.

## #20 주영의 집(밤)

불 꺼진 방, 편히 잠든 주영이 보이고.  
계속 오는 메시지에 겨우 눈뜬 주영, 새 핸드폰을 확인한다.  
끊임없이 도착하는 메시지, 전부 [ㅋㅋㅋㅋㅋㅋ]다.

인서트.  
감옥 채팅방에 도착한 동영상.  
고개 푹 숙인 희주, 아이들의 힘을 못 이기고 복도 끝으로 밀려난다.  
끊임없이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리고.  
결국, 끝까지 밀려나, 벽에 어깨가 부딪힌 희주, 아픈 듯 인상 찌푸리자,  
아이들, 꼭 응원하듯 “우희주! 웃어줘!”라고 연신 외치며 웃는.

침대에 걸터앉은 주영, 굳어진 표정으로 핸드폰만 본다.  
그때 새 핸드폰에서 메시지 도착하고. 역시나 감옥, 교도관들이 보낸 메시지다.  
[앞으론 웃음을 잃지 말자 희주야] [SNS 스타 되고 싶으면 잊든지]

이어지는 [ㅋㅋㅋㅋㅋㅋ]들.

주영 이 새끼들이 진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집중해서 새 핸드폰을 쪽 훑어보는 주영이 보인다.

주영(N) 새벽 6시 기상. 6시부터 8시까지 게임 아이템 수집. 9시까지 등교. 이후 점심때까지는... 잠깐 잠잠해졌다가,

주영, 집행자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켜다. 예쁜 꽃 사진이다.

주영 내가 애부터 잡는다.

## #21 회사 건물 / 테라스(낮)

선경과 주영, 테라스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다. 잘 먹는 선경과 다르게 주영,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선경 애네 잡는 건 우리가 아니라, 경찰 아니냐?

주영 요즘 애들 신고해봤자...

선경 ... 그렇긴 한데. 무슨 수로 잡냐고.

선경, 젓가락 내려놓고.

두 사람, 집중해서 새 핸드폰을 보던 중 메시지가 도착한다.

감옥 채팅방이다. [아 존나~~~ 배고프다]

[방금 점심 먹어놓고 지랄은ㅋㅋ] [희주야 읽었네]

선경과 주영, 눈 마주치더니 한쪽 입꼬리만 올리는.

[오늘 편의점 신상 나왔던데 시간 돼?]

주영, 선경에게서 새 핸드폰을 뺏더니 무표정으로 답장한다.

[ㅠㅠ] [당근당근] [근처 편의점이 어디야?]

선경 (힐끔 보더니) ... 혼자 술 게임 하냐고.

주영 (선경 눈치 보며 힘없이) ... 당근, 당근! 어때, 애 같지 않냐?

선경 ... 예예, 그래요. 서른 살 이주영 씨.

주영 (머쓱한 듯) 답장이 왔나 모르겠네.

주영, 기도하듯 눈 감았다가, 핸드폰 보고. 선경, 심드렁하게 새 핸드폰 보면. 답장 없다.

사이. 주영과 선경, 서로 기대앉아, 멍하니 있는데 메신저 알림 울리고.

주영, 급히 확인하자, [우리가 그것까지 알려줘야 해?]

좌절한 듯 일어서서 테라스 난간을 잡은 주영, 한숨 폭 내쉬는데, 마침 새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도착한다.

확인하면, 집행자다. 심지어 감옥이 아니다. 1:1 채팅방이다.

[시간 있어?]

주영, 선경에게 새 핸드폰을 슬쩍 보여주면,

선경 많다고 해, 강.

주영, 서서히 입꼬리 올리며 답장한다. [응 나 시간 많아!]

곧바로 집행자에게 답장이 온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방폭할게 ^o^]

## #22 편의점 앞(밤)

주영, ATM 기계 앞을 서성인다.

선경, 그런 주영을 보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한숨 폭폭 내쉬고.

선경 야, 차라리 바닥에 20만 원을 뿌려.

주영 미쳤어?

선경 응. 지금 내가 보기에 너 미쳤어. 20만 원을? 그냥? 미쳤어?

한숨 폭 내쉬는 주영, ATM 기계 앞에서 집행자에게 답장한다.

[계좌번호 좀]

곧이어 올리는 메신저 알림음.

주영 접수 완료.

주영,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취소하곤 쿨하게 돌아선다.  
시간이 지나고. 주영과 선경,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  
선경,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다.  
주영, 테이블 위 비닐봉지를 툭 쳐보는데 아무것도 없다.

주영 대단한 더치페이 정신이다.  
선경 아껴 쓰고, 나 혼자 다 먹고, 뭐 그런 게 경리 정신이지.

주영, 선경의 맥주캔을 뺏으려는데 선경, 오히려 벌컥벌컥 마신다.  
주영, 포기하고 새 핸드폰 확인하려 하면.  
선경, 숨겨둔 맥주 한 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곤 아무렇지 않게 맥주 마시는.

주영 처음부터 주면 얼마나 좋아.  
선경 처음부터 줬으면 고마위는 했겠나.

사이. 선경과 주영, 맥주 마시기에 여념이 없다.  
주영, 맥주 마시다가 넋지시 새 핸드폰을 확인한다.

주영 ... 20만 원, 보내고 올까?  
선경 야, 이주영.  
주영 ... 어영?  
선경 정신 차려.  
주영 ... 하, 모르겠다.  
선경 커피 카피 아가씨, 애들 장난에 그만 놀아나고 퇴근이나 하세요.

주영, 곧바로 몸 일으키더니 걷기 시작한다.  
선경, 따라가려다가, 빈 맥주를 높이 들어서 일단 사진부터 찍는.  
주영, 그제야 선경을 돌아보더니,

주영 저기요. SNS는 수당 포함 안 되거든요.

## #23 회주의 집 / 거실(밤)

TV와 낮은 탁자가 눈에 띄는, 조금 좁은 거실 겸 부엌.  
희주와 희주 엄마, 낮은 탁자에 놓인 라면을 나눠 먹는다.  
희주 엄마,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가끔 깔깔 웃고.  
희주, 고개 꼭 숙인 채 연락 한 통 없는 새 핸드폰 화면만 껴다, 커던 그때.  
광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는.

희주 엄마 누구세요?  
여나 친구(OFF) 아, 희주 있어요!?  
희주 (잠시 말 없으면)  
희주 엄마 (사이) 왜 그래? 너 찾는 거 아니니?

희주 엄마, 걱정되는 듯 희주 보며 젓가락 내려두고는 일어서려 하면,  
핸드폰만 보던 희주, 다급히 일어선다.

희주 ... 엄마! 내가, 내가! 나가볼게.

## #24 회주의 집 앞(밤)

여나의 친구들, 억지로 희주를 붙들더니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간다.

## #25 버스 안(오후)

학생과 직장인으로 뒤섞인 버스 안.  
주영, 연신 하품만 하며 앉아 있는데 마침 원래 핸드폰에서 알림 울린다.  
커보면, 회사 단체 채팅방이다.  
[오전 끝 빅토르 아파서 조퇴ㅋ] [빅토르 안 아픈데]  
[Заткнись!] [почему?]  
이어서 새 핸드폰에서도 알림 울리고.

주영, 가방 안에 원래 핸드폰 넣고, 새 핸드폰을 확인해보면.  
 새 핸드폰엔 트위터 주소가 도착해 있다.  
 주영, 곧바로 눌러보는데 차마 더는 볼 수 없어, 눈 질끈 감고.  
 그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주영 바로 앞에 선 중학생 아이들, 핸드폰 보며 킬킬 웃고 있다.  
 주영, 서서히 눈을 뜨더니 그 아이들을 한참 본다.  
 자꾸만, 표정이 처참해진다. 믿을 수 없어서 새 핸드폰을 내려다본다.

## #26 공원(밤)

공원 벤치에 위태롭게 서 있는 희주만이 보이고.  
 고개 꼭 숙인 희주, 벤치 꼬트머리에 겨우 서 있다가, 혼자서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혼자 일부러 고꾸라진다.  
 이번에도 일어서서 벤치 위에 오른 희주, 그러나 이번엔 무릎을 꿇고  
 앉는다.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린다.  
 희주, 제 뺨을 내리치고, 제 목을 조르고, 그렇게 자학한다.  
 들리는 건 오로지 웃음소리뿐이다.  
 희주, 서서히 몸을 일으킨다. 벤치 끝에 겨우 서서 떨어질락 말락 하는.  
 그때 아이 중 누군가 “야, 20만 원짜리 연기치고는 찌는데?”  
 연이어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 박수 소리.

## #27 버스정류장(오후)

버스정류장 앞에 멈춰 선 버스.  
 교복 입은 아이들, 우르르 버스에서 내리고 이어서 주영, 따라 내린다.  
 아이들, 즐거운 듯 크게 웃으며 걸어간다.  
 주영, 그 아이들이 멀어질 때까지 가만 본다. 자꾸 울컥한다.  
 자꾸 처참해지고, 자꾸 화가 나려 해서 움직일 수 없다.

주영(N)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사람이 갇혀 있다.

## #28 경찰서 / 신고접수처(오후)

한산한 경찰서 신고접수처, 누군가 세차게 문을 연다.  
 보면, 급히 달려 들어오는 주영이다. 진정이 잘 안 된다. 자꾸 숨이 찬다.  
 주영, 주변 둘러보다가 무작정 경찰1 앞에 앉고.

주영 저, 제가 지금 (가방에서 핸드폰 찾으려) 뭘 봤냐면요. 애가, 혼자  
 자길 때려요. 막, 그걸 애들이 뭐 좋다고, 막, 웃으면서 찍는데...

주영, 새 핸드폰을 꺼내서 단톡방 속 SNS 켜는데.  
 영상 올라왔던 계정이 사라졌다.  
 아무리 새로고침을 해도 나오질 않는다.

주영 ... 없네요.

잠시 주영과 경찰1 사이에 침묵이 돌고.

주영 여기 있었어요... 있었대구요! 애가, 애가... 얼마나... 그걸 애가,  
 끝까지 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만 원, 내가 안  
 보냈는데, 개가 그걸 다 감당한다구요! ... 나는 그게 너무 아픈데.  
 하나도 재밌지 않은데! 다 웃어요. 재밌다고. SNS에도 올리고, 꼭...  
 노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한테 죽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경찰1, 횡설수설하는 주영을 의아한 듯 보기만 한다.  
 주영, 몇 번이고 새로고침을 해보지만, 여전히 계정은 사라진 채다.  
 가만 입술 물어뜯던 주영, 일어나려다가, 도로 앉으면,

경찰1 음, 그러니까 누굴 신고하시겠다는 거죠? 이름, 학교 아세요?

주영 ...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애네 계좌번호를 알아요.

## #29 회사 건물 / 계단(밤)

회사 건물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  
쫓그려 앉은 채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주영이 보이고.  
선경, 그런 주영 옆에 앉아서 주영의 새 핸드폰을 확인한다.

주영 ... 잘못되면 어찌지?  
선경 무슨, 그런 일로 사람이 잘못되냐. 좀 쉽게 생각해. 신고도 해줬잖아.  
주영 신고만 해줬잖아.

선경, 새 핸드폰 속 감옥 채팅방 스크롤을 쪽쪽 올려 보는.  
주영, 겨우 고개 들더니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영 내가 너무 등신 같아.  
아까 신고하고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안심했어.  
선경 (짧게 한숨) 야, 그거라도 한 게 어디야.  
술직히 생판 모르는 애한테 그 정도면 최선이야.  
주영 (다시 무릎에 고개 파묻으며) 아닌 거 너도 알잖아.

## #30 감옥

감옥 안, 희주 혼자 갇혀 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희주, 가만히 앞만 본다.

## #31 경찰서 / 중앙 현관(낮)

정문에서 중앙 현관으로 들어오는 여나와 여나 엄마의 뒷모습 보이고.  
사이좋게 붙어 선 두 사람, 다정히 서로를 걱정한다.  
“엄마, 괜찮아.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

## #32 경찰서 / 형사계(낮)

여나, 형사 앞에 조심스레 앉는다.  
그 옆으론 여나의 엄마, 안절부절못하며 서 있고.  
여나, 괜찮다는 듯 엄마의 손등을 몇 번 쓰다듬더니 형사 바라본다.

여나 아저씨도 놀라셨죠! 전화 받고 저도 되게 놀랐다니깐요.  
우리끼리 잠깐 싸웠던 건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요!

형사, 빠른 속도로 키보드 두들기는데.  
여나, 의자를 좀 더 당겨 앉더니 환하게 웃는다.

여나 와, 손 되게 빠르시다. 신기해요! 게임두 잘하세요?  
형사 (좋으면서 아닌 척) ... 쫘 하지.  
여나 어떤 게임 하세요? 저는요! 가을 이야기! 그거 쫘 해요!  
형사 나는 강, 폰게임이지. 바둑이랑 고스톱, 그런 거.  
여나 우와, 바둑 진짜 어렵던데. 막 까만 거랑 하얀 거밖에 모르겠어요.  
형사 (웃고) 크면 다 알게 돼 있어.  
여나 오오, 얼른 커야겠다. 저도 아저씨처럼 바둑 잘하고 싶거든요.  
형사 에이... 큰다고 바둑을 무조건 잘하는 건 또 아니고.

형사와 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웃는.

여나 아차, 희주랑은 화해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아.

그때 구석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보던 주영이 서서히 보이고.  
뒤돌아보는 여나, 주영과 눈이 마주친다.  
주영, 그런 여나를 한참 보다가, 말없이 형사계에서 나간다.

여나 신고한 사람이 저 언니예요?

### #33 경찰서 건물 앞(낮)

제법 한산한 경찰서 건물 앞. 주영, 통화 중이다.

주영      완전 얘기더라... 어떻게 저러지?  
선경(F)    유행이라니까, 요즘 애들.  
주영      ... 재가 집행자라는 거잖아. 근데... 아닌 것 같아. 애가 너무, 밝아.

여나, 환히 웃으며 주영을 바라보고 지나간다.  
주영, 그런 여나의 시선을 피하느라 애먼 데만 본다.

### #34 학교 / 교실(낮)

수업 중인 교실. 뒷문 천천히 열리고, 들어오는 건 여나다.  
여나, 밝게 웃으며 교실 맨 뒷자리인 희주 옆에 앉으려는데,  
마침 희주, 바닥으로 샤프 툯 떨어뜨리고 일어나려 하면,  
여나, 희주에게 자신이 가겠다는 듯 희주 어깨를 한 번 감싸 쥐는.  
교실 쓰레기통 앞까지 데구루루 굴러가는 샤프.  
여나, 곧바로 샤프를 주워오더니 희주 옆에 앉는다.

여나      (작은 목소리) 희주야. 이거.

여나, 환하게 웃으며 희주의 교과서 위에 샤프 내려놓고.  
희주, 샤프를 쥐려는데 여나, 희주 어깨에 슬쩍 얼굴을 기대다.

### #35 학교 / 여자 화장실(낮)

여학생 두 명, 세면대 앞에서 티트를 고쳐 바르고 있다.  
여나, 그런 여학생 두 명을 가만 보다가, 화장기 없는 제 얼굴을 거울로  
보는. 여나, 환하게 웃으려는데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희주가 화장실에서  
나온다.  
여학생 두 명, 슬그머니 물러서면 여나, 세면대 물을 튼다.

여나      희주야.  
희주      ... 응응?  
여나      손 씻어.

희주, 깨끗한 제 손을 내려다보며 망설이듯 천천히 세면대 앞에 서면,  
여나, 희주의 팔목을 억지로 붙들어서 세면대에 폭 담그고는 몇 걸음  
물러선다.

여나      애들아. 오늘은 희주가 저쪽 세면대가 마음에 드나 봐.

환하게 웃는 여나, 묵묵히 손을 닦고 또 닦아내는 희주.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손을 닦는 희주. 그 뒤로는 아무도 없다.  
그 바로 옆 세면대. 다섯 명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나란히 줄 서 있고,  
불편한 듯 희주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 #36 학교 / 복도(낮)

교실로 들어가려던 여나와 아이들, 마침 혼자 걷는 희주를 발견한다.  
여나, 멈춰 서더니 다짜고짜 웃음을 터트리고.  
그 웃음에 희주가 돌아보면, 아이들, 웃으며 서서히 희주에게 다가서는.  
여나, 희주와 아이들에게서 동떨어진 채 희주만 가만 보다가,

여나      희주야.  
희주      ... 응.  
여나      애들은 가라고 할까? 너 불편하면, 내가 그래줄 수 있는데.

희주, 느리게 고개 저으면 아이들, 희주 어깨 한 번씩 주무르며 지나가는.  
사이. 여나와 희주만이 남은 복도, 조용하다.  
희주, 여나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시선을 피하는데.  
여나, 천천히 희주 앞으로 다가서더니 희주의 양쪽 뺨을 한 손으로  
그려쥐고는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한다.  
이어서 여나, 환하게 웃는.

여나      희주야.  
 희주      … 말해.  
 여나      응, 안 그래도 말할 거였어. 왜? 나 말하지 마? 너 나 짜증 나?  
 희주      아니… 아니야.  
 여나      근데 왜 그랬어?  
 희주      뭐… 뭐가?

여나, 뒤돌아보더니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확 무표정으로,

여나      왜 내 웃는 얼굴에 침 뱉었다고 묻는 거잖아.

### #37 거리(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 다들 핸드폰만 보며 걷는다.  
 교복 차림인 희주, 이리저리 치이며 걷고 있다.  
 누구 하나 붙잡아보려고 해도 사람들, 여전히 핸드폰만 본다.  
 희주, 그들 사이에서 고개 푹 숙인 채 멈춰 선다.

### #38 학교 / 교실(낮)

여나와 아이들, 칠판 주변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다.  
 마침 열리는 뒷문, 사물함 앞에 서는 희주.  
 여나를 제외한 아이들, 희주를 보자마자 웃음이 멎고.  
 여나, 희주에게로 다가가더니 환하게 웃으며,

여나      희주야.  
 희주      … 응.  
 여나      나 핸드폰 줌.

희주,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만 붙잡고 있으면, 여나, 그 손을 가만 보다가 억지로 희주 교복 치마 주머니를 뒤지지만, 없다.  
 이어서 여나, 희주의 책상 앞으로 향하더니 서랍 안에 손 쑥 넣고.

서랍 안에 있던 교과서와 공책, 차례대로 우르르 떨어진다.  
 이어서 여나, 서서히 손을 빼면, 그 손엔 희주의 핸드폰이 쥐여 있다.

여나      너 아직도 퀘스트 꺼놓고 있더라?  
 희주      … 응.  
 여나      희주야. 어제 내가 톡으로 그랬잖아. 그만해도 된다고.  
 희주      … 응.

여나, 희주의 핸드폰을 희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친절하게 의자 빼주더니 희주에게 이리 오라는 듯 손짓하고.  
 아이들, 하나둘 희주와 여나에게로 다가간다.  
 희주, 잠시나마 가지 않고 버티다가, 끝내 자리에 앉고.  
 여나, 곧바로 제 핸드폰으로 감옥 채팅방에 메시지 보내는.  
 [희주야 뭐 해?]  
 아이들, 핸드폰 확인하더니 여나와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다.  
 이어서 아이들, 하나둘 감옥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희주의 핸드폰, 그 어떤 메시지 알림도 없이 화면 꺼져 있고.

### #39 사무실(낮)

복사기 앞에 서 있던 주영, 마침 메신저 알림 올리고.  
 [희주야 뭐 해?] [바쁨ㅋㅋㅋ?] [야] [아야야] [머하냐고] [읽씹이 취미  
 됐나?] [존나 어려울 게 따로 있지 이젠 답장을 어려워하네] [희주야]  
 [뭐 하나니까?]  
 주영, 한숨 푹 쉬더니 뭐라고 답장할지 고민하며 핸드폰만 본다.

### #40 학교 / 교실(낮)

그때 희주를 제외한 교실 속 모두의 핸드폰에서 알림 올리고.  
 보면, 희주다. [그냥 있어]

희주      (고개 푹 숙이고, 어쩔 줄 모르는)



여나 너, 아니구나? 감옥에 있는 애.  
교도관5 미친년, 많이 컸네.  
교도관1 야, 대답 안 해?  
교도관2 (희주 어깨 툭툭 치더니) 이걸 진짜 우회주잖아.  
교도관4 설마 이것도 짬이야?  
교도관3 번호를 바꿨으면, 바꿨다고 말을 해줘야지. 같은 반 친구끼리.  
여나 (환하게 웃으며) 재밌다. 그치, 애들아. 우리 이제 애랑도 놀까?

## #41 학교 / 교문(오후)

반쯤 닫힌 교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여나와 희주.  
희주는 교문을 넘지 못했고, 여나는 학교 밖에 서 있다.

여나 희주야, 내일부터 우리 재미있게 놀자. 응?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 애쓰지 마. 그게 다야.  
희주 ... 미안해.  
여나 응? 왜 미안해? 재밌게 놀자니까?  
희주 ... 으응, 그러자.  
여나 우리 이거 다 장난이잖아. 그치? 우리는 그냥 노는 거야. 맞지?  
그렇잖아, 니가 죽지 않는 이상.

희주, 고개 끄덕이지 못하면 여나, 교문을 한 번 소리 나게 흔들고.  
희주, 겨우 여나를 본다. 여나, 기분 좋게 미소 짓는다.

여나 오늘은 재미없었어. 내일 또 놀자, 희주야.  
희주, 걸음을 옮기려는데 여나, 한 번 더 교문을 흔들고는 씩 웃는다.

여나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그러고 서 있어. 우리 오늘 덜 놀았잖아. 그치?  
여나, 그대로 돌아서서 걸어가고.  
고개 꼭 숙인 채 힘없이 교문을 잡아보는 희주, 그러나 이내 손에 힘

풀린다.

## #42 서울레코드 앞(밤)

지나가는 사람 없이 셔터 내려간 서울레코드 앞, 홀로 서 있는 희주가 보이고. 우두커니 서서 음악을 듣기만 하다가, 고개 툭, 떨군다.

## #43 몽타주

사무실.  
문자 알림음. [희주야 아이템 줌]  
주영, 일하는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늦은 밤. 회사 복도.  
문자 알림음. 집행자, [덱다 ㅇㅇㅅㅋㄹ]  
주영, 핸드폰만 보며 걷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 결제했다는 알림.

거리.  
주영, 달리다가도 새 핸드폰 확인하기를 반복한다.  
문자 알림음. 집행자, [게임 카드 좀 빌려줘^ㅇ^]

## #44 사무실(낮)

주영과 선경뿐인 사무실.  
주영의 자리엔 선경과 주영의 도시락이 펼쳐져 있다.  
밥 먹느라 정신없는 선경과 다르게 주영, 핸드폰으로 게임 카드 뒷면을 찍는다. 주영의 책상 위 모니터를 보면, 이미 게임이 켜져 있다.  
선경, 밥 먹다가 의아한 듯 주영 보면서,

선경 뭐 하나, 너.  
주영 게임 카드 보내래서.  
선경 할 짓 없다, 너도.

주영, 새 핸드폰은 내려두고 다시 게임에 열중하려는데.  
선경, 마우스 뺏으려다가 그게 잘 안 되자, 주영 어깨 툭 미는.

선경 그러다 들키면 어찌려고.  
주영 들킬 거면, 벌써 들켰어. 애들이 뭘 안다고.  
선경 (길게 한숨)

### #45 거리(낮)

회사 건물 근처 거리, 우편 봉투들을 가득 안은 주영이 보이고.  
주영, 우편 봉투가 떨어질까 버둥대며 위태롭게 걷고 있는데.  
마침 새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린다.  
주영, 신경 쓰지 않고 걸으려다, 발이 꼬이며 와르르 우편 봉투들을  
쏟는다.  
쪼그려 앉아 하나씩 줍던 주영, 또 울리는 진동에 새 핸드폰 꺼내 보면,  
감옥 채팅방이다.

주영 아이씨... 진짜.

[희주야] [바뽀?] [바빠 보이네]  
주영, [지금은 좀 바쁜데] 답장 하나 보내고는, 새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둔  
채 우편 봉투부터 정리하려는 순간, [근데 아주머니]  
도착한 사진 한 장. 주영의 엄마다. [어머니 닮으셨네요]  
주영, 다급히 핸드폰을 집어 들더니 놀란 표정으로 가만 보지만 하고.  
사진 하나 더 도착한다. 주영과 웬 남자가 다정히 찍은 사진이다.  
[이 사람이 전 남친?] [헤어진 지는 두 달 되셨고] [힘드시겠다ㅠㅠ]  
주영,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 둘러보고.  
집행자, [연기엔 재능이 없으시네요 아주머니]  
계속해서 도착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들.

### #46 감옥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주영과 여나.  
여나, 감옥 안 주영을 가만히 보다가 환하게 웃는다.  
주영, 철창을 세차게 흔들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여나 여기, 생각보다 되게 재밌지?  
주영 ... 너.  
여나 응, 나. 나 되게 재밌다구. 그래서 너~무 고마워. (환하게 웃으면)  
주영 ... 너 내가 회주 아닌 거 알았어? 언제부터?

그때 여나 뒤로 등장하는 교복 군단들.  
여나, 교복 군단을 돌아보더니 무표정으로 가만히 주영 보고.

여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부터.  
주영 ... 근데 왜.  
여나 재밌잖아.  
주영 (철창 세차게 흔들고) 재밌니, 이러는 게?!  
무섭지도 않아? 나 어른이야.  
여나 응? 왜? 왜 무서워? 어떡하지, 난 그냥 재밌었는데.  
그리고 있잖아, 재미없어지려 했는데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꼭 재미있어야 될 거 같아. 우리 더 놀까?

여나, 다시 환하게 웃더니 주영에게서 돌아서는.

### #47 사무실(낮)

현장부장과 최대리, 외국인 노동자 세 명과 면접 진행 중이다.  
주영, 복사기 앞에서 근로자 카드를 인쇄하는.  
인쇄가 끝나고 주영, 종이 챙기려 하면 새 핸드폰에서 끊임없이 진동이  
울린다.  
[아줌마] [아 희주라고 불러야 보나?] [ㅇㅇㅇㅇㅋㅋㅋㅋ] [안읽씹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면서] [짤았나바[ㅠㅜㅠㅜㅜ] [아주머니~]  
주영, 새 핸드폰으로 슬쩍 시선을 넘긴다.  
그때 도착하는 메시지. [ㅋㅋㅋ어차피 볼 거면서]  
핸드폰 전원을 끈 주영, 현장부장과 최대리 쪽으로 향하려 하면,

현장부장 경리! 커피 줘!

주영, 말없이 정수기 앞으로 향한다.  
넋 놓고 물통 위에 종이컵 여러 개를 놓는 주영, 그때 종이컵 우르르  
떨어지고.

## #48 회사 건물 / 테라스(오후)

선경 뭔데. 왜 그러는데.

주영, 서서히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아서 쓰레기통을 보다가,  
다급히 일어서서 테라스 난간 쪽으로 달려가는.  
주머니에서 새 핸드폰을 꺼내 던지려고 하다가, 우뚝 멈추고.  
주영,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도시 전경을 본다.

선경 뭐 하나니까? 지금 뭐, 일하다 굳은 조각상이야?

주영 애들이 알았어. 내가 이주영인 거.  
근데... 근데 웃긴 건 계속 괴롭혀. 나인 거 알면 쫄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도 알고, 내 전 남친도 알아.  
야. 더 찌질한 건 나 무섭다, 지금?

주영, 힘없이 새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려 하면,  
선경, 주영의 팔목을 낚아채는. 주영, 어떻게든 선경에게서 벗어나려 하면,

선경 버려! 뭐 하는데!

주영 뭐?

선경 야, 요즘 세상에 폰만 꺼지면 같이 꺼지는 인연이 몇 갠 줄 알아?

누구는 전부가 꺼진댄다. 까놓고 그 새끼들이 그 폰 아니면,  
너 어떻게 괴롭힐 건데. 그냥 버려. 뭐가 무서워서 이 지랄인데!

주영, 다시 한 번 던져버리려고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고개  
떨구는.

선경 ... 아이고, 이 등신아.

주영 선경아, 니가 그랬잖아.

선경 뭐.

주영 누군 전부가 꺼진다면. 개한텐 내가 전부일 수도 있잖아.  
... 못 버리겠어.

주영, 꺼진 새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꼭 누른다.

그렇게 페이드아웃.

## #49 회주의 집 / 회주의 방(아침)

교복 차림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회주,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는다.  
회주,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 꼭 쥔다.  
모니터 화면에선 #26이 영상으로 나오고.  
회주, 겨우겨우 영상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는데.

## #50 사무실(아침)

최대리와 현장부장, 꼭 붙어 서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  
출근한 주영,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면, 가까이 다가가는 최대리.

최대리 주영 씨, 이거 봤어?

주영 네?

최대리 (모니터를 턱짚으로 가리키고)

주영, 모니터를 본다, #26, 즉 회주가 괴롭힘 당하는 영상이다.

최대리와 현장부장, 낄낄 웃으며 영상을 따라 한다.  
주영, 서서히 표정이 굳어진다.  
최대리와 현장부장 가운데 낄 주영, 도저히 모니터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본다. 입술을 꽉 문 채 어떻게든 보려 한다. 처참하다.

현장부장 그거,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라던데?

최대리, 의아한 표정으로 현장부장을 본다.  
주영, 여전히 이 상황이 처참하고, 아프다. 울컥하려 한다. 참으려 애쓴다.

현장부장 알고 보니 부산에 사는 연습생이었다나, 뭐라나.

게다가 엄마가 연예인 A씨래, 그 누구더라?

주영 … 지금, 그런 게 궁금하세요?

현장부장 그럼 뭐, 경리는 다른 게 궁금한가?

최대리 어차피 이런 얘기가 다 그런 거죠, 뭐.

주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모니터만 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새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순간이다.

최대리 … 근데 좀 예쁘지 않아요?

주영 (화가 치밀어서)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현장부장 경리,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건가?

주영, 최대리 컴퓨터 전원을 확 끄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자리로 향하면,  
최대리와 현장부장, 꺼진 모니터와 주영을 번갈아 본다.

현장부장 왜 이렇게 예민해?

주영 당연히 예민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주영, 뒤돌아선 채로 어떻게든 표정 관리해보지만, 손끝이 떨린다.  
겨우 마음을 다잡은 주영, 자리에서 파일철과 새 핸드폰만 챙기더니,

주영 부장님 일이었으면요? 입장 좀 바꿔 생각해보세요.

## #51 회주의 집 / 거실(아침)

희주,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다.  
희주 엄마, 문 앞까지 따라 나와, 희주의 교복 옷매무새를 정돈한다.

희주 엄마. 오늘 저녁에 비 온대. 우산 잊지 마. 알겠지?

희주 엄마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어.

희주 (미소 지으며) 그러게, 엄마가 딸 하나는 잘 키웠어.

희주,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꾸 울음이 나려 한다.

희주 엄마 우리 딸, 잘 다녀와.

희주 … 응, 다녀오겠습니다!

## #52 감옥

감옥 구석에 몸을 웅크린 희주가 보인다.  
서서히 밝아지는 감옥, 이어서 문 열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 희주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내민다.

주영 우리 이제 가자.

희주, 그 손을 물끄러미 보며 잡을지 말지 망설이다가, 고개 푹 떨군다.

희주 … 저 영원히 못 나가요, 여기서.

그냥 이려고 있는 게 나아요. 나가봤자… 똑같아요.

## #53 사무실(낮)

나란히 앉은 주영과 선경이 보이고.

두 사람, 주영이 쥔 새 핸드폰을 뵈히 보고 있다.

선경 찾아가서 때리는 건... 안 되지?  
주영 되겠다. (일부러 썬 척) 좀 스마트하게 접근해보자, 우리.  
그래도 경린데.

[ㅋㅋㅋ왜 읽기만 하세요,, 아주머니]  
[답 느리면 노잼,,]  
주영, 다급히 답장하려고 하면, 선경, 그런 주영을 제지하듯 핸드폰 뵈고.  
주영, 어떻게든 핸드폰 도로 가져오더니 답장한다.  
[대답할 가치가 있어야 대답을 하지]

선경 ... 스마트해지자며.  
주영 스마트하게 했잖아, 지금.  
선경 이렇게 싸우겠다고?  
주영 응. 괜 분명 아무것도 못 할 테니까. 이미 다 해봤을 거고.  
그럼, 내가 해야지. 어쨌든 나도 우회주었어.

곧이어 감옥 채팅방에서 메시지 오고.  
[대답해놓고 뭘 가치 타령이야 존나 끈대] [썬 척 오지고요]  
주영, 곧바로 답장하려는데 선경, 제 핸드폰을 꺼내 든다.

선경 야.  
주영 뭐. 말리지 마.  
선경 너도 나 말리지 마. 초대해.

주영, 넌지시 선경을 본다. 선경, 꼭 주영을 따라 하듯 핸드폰 쥐고.  
그때 아이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한다.  
[야 하긴 나도 무서워서 훈장질이라도 할 듯] [힝 썬 봐주자 우리가ㅠ]

시간이 지나고.  
주영과 선경, 각자 자리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핸드폰을 만진다.

선경, [아주 잘들 한다 니들은 변호사 친구 없지? 난 있어]  
감옥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도착한다.  
[누구세요?ㅠㅋㅋㅋ] [아줌마 친구도 있었어요ㅠ?]  
[그럼 머함] [쪽수로 처벌렸고요,,,ㅠ]  
그제야 주영과 선경, 서로를 마주 보고. 주영, 입꼬리를 씩 당기는.

주영 쪽수로 밀리면 쫓겠다. 그치?

주영, 하이파이브 제안하듯 손바닥을 내민다.

## #54 감옥

주영과 희주, 감옥 문 앞에서 교복 군단과 대치 중이다.  
그때 여나의 어깨에 슬그머니 손을 올리는 사람, 최대리다.

최대리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나, 돌아본다.  
최대리, 신기한 듯 이리저리 감옥을 구경한다.  
반대 방향에서 제법 품 잡으며 다가오는 현장부장, 감옥 구경 중이고.  
선경 역시 서서히 감옥 쪽으로 다가오더니 감옥 안을 살핀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 감옥 쪽으로 그림자 드리워진다.  
여나를 제외한 교복 군단들, 하나들 물려서더니 아예 도망치는.  
여나, 감옥 안으로 넘어지듯 들어가자, 그 틈에 빠져나오는 주영과 희주.

## #55 핸드폰 화면. 도시 곳곳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도시 곳곳 보이면서.  
감옥 채팅방, 최대리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미래엔사장님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삼안경리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제우스경리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해피경리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나진정밀경리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굿맨경리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집행자, [?]라고 메시지 보낸다.  
 뒤이어 행인1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라면맨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소리질러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제노짱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입장 알림.  
 교도관으로 등록된 아이들, 우르르 나가기 시작하고.  
 사이. 집행자, 퇴장하자 주영, 바로 초대하며 메시지를 보낸다.  
 [놀자며 어디 가?]

## #56 학교 / 교문(오후)

아이들, 두세 명씩 짝을 이뤄서 하고 중이다.  
 주영, 교문 밖에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흘깃흘깃 본다.  
 시간이 지나고. 반쯤 닫힌 교문.  
 저 멀리서 희주, 고개 꼭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다.  
 주영, 곧바로 희주를 알아보고, 희주만을 뚫어질 만큼 본다.  
 희주, 점점 주영과 가까워지고.

주영 (희주 명찰 보더니) 너야?  
 희주 네? ... 아, 제가 우희주예요. (눈치 보며) ... 맞죠?  
 주영 네. 맞아요. 이주영. 가짜 우희주.  
 희주 ... 죄송합니다. (허리 숙이며)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주영 (멍하니 본다)  
 희주 ... 정말 죄송했습니다.

주영, 허리 숙인 희주를 가만 보는데 울컥한다.

주영 너도 무서웠잖아. 무섭잖아.  
 희주 ... 네? ... 아뇨, 저 괜찮아요.  
 주영 아니, 내가 안 괜찮아.

희주, 허리 숙인 채 가만히 있다가, 주먹 꼭 쥐다.  
 주영, 어떻게든 희주의 얼굴을 보려 하지만, 잘 안 되고.

희주 ...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됐던 거 알아요.  
 제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이려고 있었으면, 했어요. 저 나쁘죠.  
 혼내셔도 돼요. 저... 혼나야 해요.  
 주영 나 좀 봐봐. 너 지금 나 보라구.

희주, 주먹 꼭 쥐며 서서히 허리를 들면, 울기 직전인 얼굴이다.

희주 (애써 웃으며) ... 죄송해요. 얼굴 보면서 사과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주영 너 잘못 없어. 나 이 말 해주고 싶어서 너 보고 싶었어.  
 이제 내가 말할 차례지? ...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개들 대신 미안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나대로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해.  
 희주 (웃으려다가 결국 울음이 나고)  
 주영 그만하자, 희주야.  
 네 잘못도 아닌데 잘못되어 버리는 거, 다 그만해도 돼.

희주에게 손을 내미는 주영. 희주, 망설이다 그 손을 잡는다.

## #57 서울레코드 앞(밤)

오가는 사람 사이로 셔터 내려간 서울레코드 앞에 홀로 서 있는 희주.  
 희주, 가만 음악을 듣는데 어느 순간 거리 소음이 사라진다.  
 오로지 음악만이 들리고.  
 희주, 돌아보면, 주영과 마주 보는 모습이 된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서울 레코드 앞에서 딱히 정해진 안무 없이 춤을 춘다.  
 눈이 마주치면 미친 듯이 웃는다. 우스꽝스럽고, 막무가내다.  
 그런 두 사람 계속 보이면서,

희주(E) 언니는 꿈 같은 거 있었어요? 보니까, 애들 다 하나쯤은 있던데,  
 주영(E) 있었지. 넌 없어?

희주(E) 전 아직이요... 언니는, 뭐였는데요?  
주영(E) 나는, 그냥... 스파이더맨 같은 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서울 레코드 앞에 쪼그려 앉은 두 사람.  
서로 눈만 마주치면 웃음이 난다.  
희주, 주영과 눈 마주칠 자신이 없어서 거리를 바라보며,

희주 언니. 스파이더맨 같아요, 지금.

## #58 지하철 안(아침)

주영,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필 사진을 희주와 찍은 사진으로 바꾼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주영, 꾸벅꾸벅 졸고 있다.  
마침 메신저 알림이 울린다.  
보면, 회사 채팅방 속 사장님이다. [헛헛! 역시 사무실의 꽃이야!]  
이어서 최대리, [어? 옆에 누구예요?]  
현장부장, [더 이쁘네~~]  
주영, 짜증이 난 표정으로 답장하려다가 애써 눈을 감는다.

## #59 사무실(낮)

기지개 켜면서도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주영, 바빠 일하는 중이다.  
그 옆으로 서성이는 현장부장 보이고.

주영 시키실 일이라도...?  
현장부장 러시아 남자애, 또 튀었어! 시베리아인지 어딘는지 좀 찾아봐!  
주영 부장님. 러시아에 시베리아만 있는 줄 아세요?  
현장부장 뭐?!  
주영 하하, 농담입니다!

현장부장, 뭐지 싶어서 주영 보다가, 이내 재빠르게 사무실에서  
나가버리고.

주영, 어이었다는 듯 웃으며 핸드폰을 보면, 연락 한 통 없다.

주영 이게 또 조용하니까... 심심하네.

주영, 연락처 목록을 뒤지며 여기저기 메시지를 보낸다.  
[잘 지내니?] [중학교 졸업 이후론 처음 연락해보네ㅎㅎ]  
[초등학교 때 너 뒤에 서 있던 주영이라구 해!]  
사이. 답장이 도착하지만, 죄다 형식적인 말들이다.  
[어머, 주영아! 잘 지내고 있어?] [누구세요?] [번호 바뀌었습니다!]  
주영, 답장하려다가 핸드폰 내려두고 한숨만 푹.

## #60 감옥

감옥을 에워싼 사람들, 감옥 안 여나를 일제히 내려다보고 있다.  
보면, 아주머니, 아저씨 등 나이 상관없이 다섯 명 정도다.

사람1(E) 공부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친구 괴롭히는 거 아니야!  
여나 (헛웃음) 뭐래, 진짜.  
사람2(E) 어려서 그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야!  
여나 (괜히 귀 후비며) 예예.  
사람3(E) 어른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다 친벌 받아, 학생!  
여나 (비꼬듯) 우와, 하느님이세요?  
사람4(E) 이리고 놀 시간에 공부나 해. 너희한테 미래를 맡겨야 하는데!  
여나 와, 정치하세요?  
사람5(E)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할  
시간입니다.  
여나 예예. (무미건조하게 하트 그리며) 사랑해요오.

그런데도 아무도 대답해주질 않자,  
여나, 분한 듯 철창 세차게 흔들어보고.

## #61 놀이터(저녁)

놀이터 정자에 혼자 앉아 있는 희주가 보인다.  
희주 옆에 놓인 희주의 핸드폰, 실 틈 없이 메시지가 오고 있다.  
희주, 감옥 채팅방에서 나가기 버튼을 누르며 일어서려는 순간이다.

초등생1(OFF) 야, 너 왜 그랬나니까!?

초등생2(OFF) 애 쫓 거봐. 진짜 웃겨. 얼른 찍어두자.

초등생3(OFF) 나는 이거 배경으로 해둬야지.

## #62 놀이터 근처 골목(저녁)

두리번거리며 걷던 희주, 골목길에서 초등학생 무리를 발견한다.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을 몰아세우는 초등학생 세 명이 보인다.  
희주, 주먹을 꽉 쥐고 한 걸음 물러섰다가, 한 걸음씩 다가선다.

초등생3 야, 저 아줌마 우리한테 오는데?

초등생2 뭐냐, 너 금세 일러바쳤냐?

희주, 체구 작은 초등학생의 손을 잡더니 제 등 뒤로 감춘다.

## #63 지하철 안(저녁)

복적이든 지하철, 대부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연락 한 통 없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주영, 서서히 눈이 감기고.  
마침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다.  
확인하면, [감사합니다.] 발신인은 희주다.  
주영, 입꼬리 올라간다. 답장을 고민하느라 지웠다가 쓰기를 반복하고.  
그때 다음 역 안내방송이 들린다.  
사이. 출입문 닫히고. 그제야 주영, 출입문 앞으로 달려간다.  
달리기 시작하는 지하철. 출입문 유리에 비치는 주영, 웃고 있다.

주영(N) 말로 천 냥 빚을 갚는 시대를 지나,  
말로 무수히 많은 빚을 지는 시대에서,

## #64 지하철역 / 플랫폼(저녁)

#2의 변주.  
한산한 플랫폼, 그 사이 주영이 보인다.  
주영, 계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그렇게 1-1칸 앞. 지하철을 기다리는 희주가 보인다.

주영(N) 우리 다시 천 냥 빚 중 일부라도 갚아볼 수는 없을까.

주영, 희주에게 문자를 보낸다. [어디야?]  
희주, 두리번거리다가, 주영과 눈이 마주친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더니 희주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며 웃는 주영에서.

끝.



〈밀어서 감옥 해제〉를 처음 쓴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집으로 걸어 돌아오는 길이었습시다. 울지 않으려고 무작정 메모하기 시작한 게 〈밀어서 감옥 해제〉입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에게 달려갈 힘이 되어주셨던 멘토 김종연 감독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작품집 후기에 감사하다는 말 남기고 싶어서 끝까지 이 악물고 썼습니다. 얼른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자랑합니다. 김종연 감독님, 이분이 제 멘토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많은 말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밀어서 감옥 해제〉에서 하고 싶었던 말 그대로 담아, 그저 감사합니다. 김종연 감독님, 그리고 같은 조 작가님들을 만난 순간이 오픈이어서 가장 다행이었던 순간입니다.

모든 오픈 2기 작가님! 만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수정 과정이 어땠는지를 자세히 말하려다, 그동안 제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적어둡니다. 이 후기 속 사람들이 제 과정입니다. 아빠! 엄마! 유나 언니! 은비야! 강낭아! 촌스럽게 나는 작품집 후기에 우리 가족을 꼭 적어두고 싶었어. 우리가 행복한 게 내 평생 꿈이야. 사랑해. 매일, 그렇게 영원에 가까워질 때까지!

## 남아 그 강을 나와 함께

최이륜

---

작의

… 하늘에서 저승차사 세 명이 툭 내려왔다. 저승 차사들은 음식상을 보더니, 시장해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사만이가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새 장삼을 입고 새 띠를 맨 뒤 새 짚신으로 갈아 신고는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목에 걸리는 법.” 하면서 주인을 찾았다.

… 저승차사들은 의논 끝에 사만의의 정명 삼십의 열십 자 위에 한 금을 비껴 그어 일천천 자를 만들어놓고 염라대왕에 “사만이는 정명이 삼천 년입니다.” 하고 일렀다. 과연 장적을 걷어보니 삼천 년을 살라고 되어 있어, 사만이는 그 후 삼천 년을 더 살았다고 한다. - 제주 설화 '사만이 본풀이' 중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처럼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면 답례로 수명을 늘려준다더라, 식의 설화를 접하면 “뭘야, 저승도 물질만능주의야?” 하고 쓴웃음이 지어지면서도, 받아먹고선 어쩔 줄 몰라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저승사자들이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날지도 모른다.

‘아, 잘 받아먹은 답례로 수명을 늘려준다는 걸 보면, 저승사자는 선물이라 여기는 모양이다. 이승의 삶과 시간 그 자체를…’

설화에선 당연했던 이 전제가 웬지 생경하게 다가온다면, 찬찬히 되짚어보게 될 것이다. 헬조선, 자살각 등의 용어가 흔히 입에 오르내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두가 그저 버티고 있는 듯 팍팍하기만 한 이 삶은, 정말 선물이었는가…? 위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 느낀 순간, 그래도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면 삶을 당연히 선물이라 여겼던 저승사자의 시각을 다시 빌려보기로 하자. 어쩌면 이 판타지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고단한 현재일지라도 이를 버티게 하는 어떤 기다림이 빛나고 있고, 그마저도 지칠 때쯤에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 피어난 또 다른 행복이 고개 드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연주**

이승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승사자의 비공식 조수가 된 망자

나이 스물하나, 어린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억울한 측면이 있었으나 크게 두렵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연주는 이미 어린 시절, 저승에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저승사자의 착오로 이승의 기억을 모두 잊게 된다는 저승 강 앞까지 다녀온 후, 죽음 뒤에도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알게 된 연주가 죽음이 두려울 리 없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의지할 것이라곤 자기밖에 없는 보육원 친구이자 남자친구인 승택뿐. 자신이 떠나고 나면 승택 혼자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지, 안 그래도 팍팍한 이 세상을 얼마나 더 힘들게 견뎌나가야 할지 잘 안다. 만약에 반대 경우라면 자신이라도 그럴 테니까... 그래서 연주는 결심했다. 사랑하는 승택이 혼자서도 이 세상을 꾸밈이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승택의 희망이 되기로. 기억을 잊게 된다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릴 테니, 승택에게 이 세상을 잘 살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면 함께 저승 강을 건너자 약속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안심시킨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어서도 강을 안 건너고 버티다가 저승사자의 제안을 받아 승택이 올 때까지 비공식 조수 노릇을 하게 됐다. 이후 연주는 저승사자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망자를 실어 나르는 일로 채워나가고,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넓은 세상과 수많은 삶을 접하며 내면적 성장을 거듭한다.

**저승사자**

까칠한 언행 뒤에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숨긴 외강내유 사자

나이 미상. 저승에서 중하급 관리직에 속하는 저승사자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주가 그를 그저 (저승)사자님, 혹은 사자 씨로 부르는 탓에 따로 이름은 알 수 없다. 주요 업무는 이승의 망자들을 불편함 없이 저승으로 나르며, 혹여 있을 망자들의 돌발행동이나 사고를 막는 것. 이를 위해서는 망자들이 저승사자에게 편안함과 근엄함이라는 상반된 느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 업무로 이승의 매체 연구 및 근무지의 트렌드 파악도 병행한다. (참고로 이 저승사자의 컨셉은 킹스맨으로, 언제나 댄디한 정장 차림이다.) 업무를 하다 보면 언제나 돌발행동을 하는 망자가 있기는 했지만, 세상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사랑

타령하는 연주는 저승사자의 근무 역사상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케이스다. 사리사욕으로 저항하거나 버티는 망자의 경우 호송부에 연락하거나 물리력을 쓰면 그만인데, 어리석긴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한 배려랍시고 고집을 부리니 자꾸 마음이 약해진다. 게다가 연주는 과거 자신이 실수한 이승인 인도 사고 피해자로, 승진 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주가 이 과거사를 약점으로 쥐고 협박하기까지 하니 연주의 고집을 쉽게 꺾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허허벌판에서 굶주림과 갈증, 외로움을 견디고 혼자 있는 녀석을 그냥 둘 수도 없어 고민하던 저승사자는 연주를 자신의 조수로 위장시키기로 결심한다. 연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집꾼으로 부려먹고, 대신 사자상에 나오는 음식을 나눠주는 등 그렇게 조금은 위험한 상부상조를 시작한 후, 혼자였던 일과는 자연스레 두 사람의 것이 되어가고 그 일상 속에서 저승사자에게도 이전에 없었던 행복이 스며들게 된다.

**승택**

연주를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하...였던 이승 사람

보육원에서 자라며 방황하던 시절, 부모도 별다른 친구도, 그렇다고 가진 재산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던 여자친구 연주가 스물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승택은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생각했다. 산다는 것은 형벌은 아닐까... 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 연주가 죽기 전 장난스레 했던 말들이 이상하게도 자신을 붙잡는 것 같았고, 그 후에는 꾸역꾸역, 그냥 버티며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삶의 중간에 다시금 인생의 선물 같은 사람, 승희를 만난다. 이후 승희와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게 되지만 더 이상 승택은 연주와 이별할 때만큼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이별의 끝에 또 다른 사랑이, 이 슬픔의 후에 지금껏 몰랐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이제는 경험을 통해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복되는 희로애락 속에 점차 단단해지며, 승택은 연주가 바랐던 대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나간다.

**승희**

승택의 새로운 여자친구.

## 후배 사자

저승사자의 후배이자 연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동료.

---

### 즐거리

사랑하는 이와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원한 안식을 뒤로 미룬 망자와  
과거의 실수를 덮기 위해 그를 자신의 조수로 위장시킨 저승사자의  
생을 넘나드는 동고동락을 그린 저승 판타지

스물 하나, 어린 나이에 죽을병에 걸린 연주는 세상에 홀로 남은 남자친구  
승탁을 위로하며 죽음 뒤에 있는 세상에서 못 다한 사랑을 이어가자는  
약속을 한다. 이는 어렸을 적, 저승사자의 착오로 진짜 망자를 대신해 저승  
강까지 끌려갔던 경험이 있는 연주이기에 가능했던 약속이었다. 승탁은 이를  
반신반의하지만, 자신의 뒤통까지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던 연주의 목소리를 연주의 사후에도 잊지 않고 떠올리며 외롭고  
불안한 삶을 힘겹게 이어나간다.

한편, 하필이면 딱! 자신을 실수로 끌고 갔던 저승사자에게 저승 강까지 인도된  
연주는 과거 실수를 빌미로 저승사자를 협박하며 강을 건너지 않고 승탁을  
기다리겠노라 고집을 부린다. 하지만 저승 강을 건너지 않은 망자는 이승의  
것도, 저승의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연주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악귀가 될 위협에 처하고, 이를 보다 못한 저승사자는 연주에게  
자신의 조수로 위장하고 일을 도와주면 망자의 가족들이 차리는 저승밥을 나눠  
먹게 해주겠노라 약속한다.

연주가 이를 수락한 후, 두 사람은 콤비가 되어 이승의 망자들을 인도하는 일을  
함께 한다. 연주가 본인의 생에서보다 더 많은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이승의 승탁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서 점차 연주를 잊으며 삶의 새로운 행복을  
얻게 된다. 이후 시간이 흘러, 승탁이 저승에 당도할 시간이 다가오고 연주는  
이를 저승사자를 통해 미리 알게 된다. 정해진 날짜에 저승 강가에서 승탁을

기다리던 연주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저승에 도착하여 연주 대신 자신의  
부인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저승 강 나룻배에 올라타는 승탁을 보게 된다.

이에 연주는 크게 상처 받고, 저승에서의 자신의 결정과 지난 시간을  
후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위로와 조언을 통해 비록 승탁과  
다시 이어지지는 못했더라도 승탁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즐겁고  
행복했음을 깨달은 연주는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의 방향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이 자라날 수 있음을 믿으며 미뤄두었던 저승 강 건너기를  
실행하기로 마음먹는다. 연주의 결심을 듣고, 연주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도  
즐거움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저승사자는 연주에게 저승에서 진짜 저승사자  
조수가 되어볼 것을 제안하고, 연주는 이를 기쁘게 수락한다.

—      남아 그 강을 나와 함께  
          최이룬

### #1      성당 / 예배당(낮)

영결식이 거행 중인 예배당 안의 모습. 앞에는 연주의 영정사진 뿌옇게 보이고, 흔들리는 촛불과 종교 조각상 등이 차례로 비춰지는 엄숙한 분위기. 그중 가장 앞쪽 자리,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승탁의 모습 위로,

승탁(N)   (무겁게 가라앉은, 기도하는 어조) 삶은… 정말 축복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왜 이리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인서트.  
산부인과 분만실, 산모의 비명 소리와 막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위로

승탁(N)   날 때부터 고통스럽고,  
  
          이어 기분 나쁘게 심장박동 정지음 울리는.

### #2      승탁의 회상. 병실(낮)

사망을 알리는 심장박동기 소리와 화면 지나면 병상에 누워 있는 연주의 얼굴 위로 의사들이 하얀 천을 덮고, 승탁이 그 위로 오열하며 쓰러진다. 그 뒤에는 영혼이 되어 놀란 병원복 차림 연주와 정장 차림 저승사자 마주 보고 있는.

승탁(N)   (#1에서 이어지는) 사랑하는 이를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야 하며,  
  
          이어 오열하는 승탁의 얼굴 클로즈업.  
          다시 병실 전체를 비추고 보면, 저승사자와 연주 모두 이미 사라지고 없고.

### #3      교외 수목장(낮)

수목장에 놓인 연주의 영정사진. 그 앞에 선 승탁과 다른 조문객들의 모습. 결국에 털썩,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승탁의 모습 위로,

승탁(N)   늘 마주해오는 불안과 시련에 떨어야 하는 건지요. 정말 삶은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나는 자꾸만 태어남이 형벌 같고, 앞으로의 삶이 남은 형기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 #4      저승 강 부근(낮)

아름답게 반짝이는 저승 강의 모습. 멀찍이서 “그때 정말 그랬다니까요?” 따지는 연주와 “글세 아니라니까!” 신경질 내는 저승사자가 서로 다투는 소리 들려오고, 강변에는 나룻배를 기다리는 수많은 망자들 모습. 이어 화면 전환, 멧진 정장 차림에 불량한 자세로 강변에 선 저승사자고.

저승사자   (어이없다는 듯)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연주      (환자복 차림, 맹랑하게) 진짜 기억 안 나요? 14년 전, 아침해보육원! 나 잘못 데려와놓고는 미안하다는 말만 한 스무 번 했잖아요!  
저승사자   (혁, 그런 적 있는데? 애써 침착하게) 뭐… 뭐, 그런 게 너 생각하는 거만큼 드물게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딴 사자랑 착각을 하거나…  
연주      아저씨 맞거든요? 내 인생에 제일 놀랍고 무서우면서도, 그 뭐랄까, 강렬하고 신기한 기억이라 내가 그때만큼은 또렷이 기억한다고요!  
저승사자   그게 문제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실수로 그랬다고 한다면 너는 기억을 못 해야… (하다가 생각난!)

인서트.  
동틀 무렵, 아침해보육원 앞. 마주 선 저승사자와 어린 연주. 저승사자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하면서 도망가듯 급하게 돌아서고.

저승사자(E)   (망했다!) 그때 당황해서 안 챙겨 갔었나? 물 먹인 기억이 없네?

연주 기억을 못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기억을 한다고요!  
 저승사자 (애써 뻔뻔하게) 그... 그래서 뭐! 이게 기껏해야 한 2, 30년 살까  
 말까 했을 게 까불고 있어. 얼른 배 안 타?  
 연주 못 타요, 억울해서 안 타요! (주저앉아 일부러 과도하게)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서 나는 못 가! 저승 것들이 지들 실수로 남의 인생  
 깎아먹고서는 어딜 또 데려가? 아이고, 아이고!  
 저승사자 (주위 살피며) 야, 안 일어나? 그래서, 저승사자 실수였으면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루 더 살게 해주면 돼?  
 연주 (어라, 먹히나? 별떡 일어나)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왕이면  
 정신적 보상이랑 이자까지 쳐서 한 10년 정도...  
 저승사자 (O.L)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하다가) 어? 너 옷 바뀌었다.  
 연주 뭐요? (하고 자기 옷 보면, 수의로 갈아입은) 어? 병원복이었는데?

## #5 화장터 / 관망실(낮)

관망실 유리창 너머로 화장로에 들어가는 관 보이고, 그 위로,

저승사자(E) 이승에서의 마지막 옷이 보내진 거지. (놀리듯) 장례 다 치르고 이승  
 육신도 화장 처리된 모양이네. 이제 어차피 못 돌아가겠는데?  
 연주(E) 벌써요?

이내 유리창 가리는 장막 내려지면 관망실 안, 얼굴을 감싸고 있는 승탁의  
 모습.

## #6 저승 강 부근(낮)

앞 장면의 승탁처럼 얼굴 감싸고 '망했다' 싶은 표정의 연주, 그러나 곧  
 펼쳐내며,

연주 알았어요, 그럼 다른 부탁할게요. 수명 연장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한  
 거! (진지한) 꼭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저승사자 (조금 호기심 생겨) 약속?

## #7 한강 다리 위(낮)

마포대교 위를 낮 나간 표정으로 걷고 있는 승탁의 모습.  
 승탁이 느린 발걸음으로 걷는 옆으로 난간에 "3년 전 걱정한 거 기억나?  
 1년 전 걱정은? 6개월 전 걱정은?" "지금 그 걱정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문구 스쳐 지나가고, 그 모습 위로 흐르는.

연주(E) 지금 내 말 안 믿는다는 거야?

## #8 승탁의 회상. 골목(낮)

낮은 담벼락을 따라 난 골목.  
 담벼락 위를 위험하게 걷는 연주와 그 손을 잡아주며 걱정스럽게 보는  
 승탁이고.

승탁 너 같으면 믿겠냐?  
 연주 진짜라니까? 나 아홉 살 때 보육원에서 자다가, 저승 강까지  
 끌려갔는데 거기서 사람 잘못 데려왔다고 한바탕 난리가  
 나가지고는...  
 승탁 (O.L)그래서,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럼 그때는 왜 얘기  
 안 하고?  
 연주 무서웠거든. 괜히 얘기하고 다니면 다시 잡으러 올까 봐.  
 승탁 이젠 안 무섭고?  
 연주 무섭겠냐? 어차피 죽을 날 받아놓은 마당에.  
 승탁 (일부러 짓궂게) 헛소리 그만하고 내려오시지? 그러다 떨어지면  
 진짜 황천길 직행일 건데?  
 연주 (혼자 감상에 젖어) 있잖아, 그때 그 강을 건너면 이승의 기억은 다  
 잊어버린대. 근데 그 소리 듣고도 어떤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선 배에  
 타더라?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쓴다는 듯이.  
 승탁 안 물어봤거든?

인서트.

저승 강변. 선후배들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의논하는 저승사자 모습. 저승사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어린 연주, 심심한 듯 고개만 빼꼼 내어 강 건너 바라보면, 강 건너편에는 노부부가 다정하게 배에서 내리는 모습이고.

연주 근데 있지, 저승사자들 막 떠들고 있을 때 심심해서 쪽 지켜보니까, 그 노부부가 강 건너서도 (승탁과 잡은 손 더 꼭 쥐며)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내리더라고. 기억은 잊었어도, 감정은 남았는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표정으로.

승탁 (그런 연주 말문 막혀 보는)

연주 (일부러 경쾌하게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며)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지?

승탁 (연주 머리 쓰다듬는, 괜히 장난스레) 그래서 뭐, 같이 가자고?

연주 (승탁 손 잡아 내리며) 이승에서 큰 벌 지으면 그 강도 못 건너고 지옥으로 끌려간대.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와! 절대 판생각하지 말고.

## #9 한강 다리 위(낮)

#7서 이어지는 상황.

“바로 저 강물처럼”이라 적힌 난간 앞에 선 승탁 모습 위로,

연주(E) 나 땀에 너 이번 생 망하면, 그 죄 다 내가 받을 거 같아 그래. 너 말고 내 걱정하는 거니까, 오래 잘 살다 오라고. 내가 기다릴 테니까.

승탁, 연주 생각에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운다.  
그 위로 슬픈 장면 깨며,

저승사자(E) (가소롭다는 듯 비웃고) 쪼그만 것들이 별 신파를 다 찍고 앉았네.

## #10 저승 강 부근(낮)

#6 상황 그대로 대치 중인 연주와 저승사자.

연주 (어이없고) 아저씨, 지금 웃었어요? 이 슬픈 얘기를 듣고?

저승사자 어이, 너희 몇 살이라고? 스물 하나? 아가, 개는 수명만 많이 남아 있으면 또 판 사람 잘만 만날걸? 너고 약속이고 다 잊고 잘 살 거니까 흰소리 말고 타, 얼른!

연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과거 아저씨 실수 다 까발릴 거예요? (나룻배 근처 가리키며) 저기 저 아저씨! 딱 봐도 높아 보이네. 일단 저기다 얘기하면 되나? (바로 걸어가고)

저승사자 (놀라) 야, 저긴 강림차사... (급히 연주 붙잡고) 야, 안 돼!

연주 (기세 양양한) 흥, 내가 모르는 줄 알았죠? 그때 아저씨가 자기 친구들끼리 쑥쑥떡떡하더니 위에 보고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갔던 거!

저승사자 (버럭) 대충 넘어가긴! 보고만 안 했다 뿐이지. 내가 그때 선배들한테 쪼인트를 얼마나 까인 줄 알아?

연주 봐봐요! 아저씨 맞잖아요! 다 기억나면서 아닌 척하고 있어.

저승사자 (아차 싶고) 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근데 다 지난 일을 갖다 이제 와서 어찌라고? 이제는 너 살아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팔자려니, 하고 강 건너지?

연주 싫다고요! 저 강 건너면 이승에서 기억은 다 잊는다면서요? 옛날에 아저씨 때문에 잘못 끌려왔을 때 다 들었거든요?

저승사자 그럼 뭐 어찌겠다고?

연주 그냥 여기서 기다린다고요, 승탁이 올 때까지. 나한테 실수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못 봐줘요?

저승사자 너 여기서 기다린다는 게 무슨 소린 줄은 알아?

## #11 강의실(낮)

인터넷 강의 연상시키도록 놓인 칠판과 그 옆 저승사자. (설민석 연상시키는 동그란 안경 끼고 있다) 칠판에는 “강 안 건너 망자가 악귀에 이르는 과정의 삼단논법”이라 적혀 있고.



저승사자 사랑하는 망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눈앞의 망자가 요구하는 바가 왜, 절대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 #12 저승 강 / 나루터(낮)

저승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고 있는 망자들의 모습.  
그 뒤 멀찍이 떨어져 피폐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연주 모습 위로,

저승사자(E) 모든 망자는 저승 강을 건너야만 이승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을 안 건너겠다 버티면 허기, 갈증 기타 등등의 괴로움을 살아 있을 때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루터로 올라서려던 한 망자, 갑자기 불편한 표정 지으며 입 안에 있는 것을 손에 뱉어내고 보면, 쌀알이 한가득이고.  
이때 어느샌가 다가와 옆에 선 연주, 망자 뱉어낸 쌀알들을 허겁지겁 자기 입에 넣는데 그 순간 경고음 울리며 화면 일시정지. 그 위로,

저승사자(E) 만약 허기를 못 참은 망자가 남의 것을 탐하죠? 그러다 걸리죠?

화면 정지 풀리고, 다른 저승사자 두 명에 양쪽 팔 붙잡혀 끌려가는 연주 모습 위로,

저승사자(E) (신난 목소리) 바로 저승법 위반으로 아웃! 악귀로 낙인찍혀 연옥행 특급열차 탑승되시겠습니다.

## #13 강의실(낮)

#11에서 이어지는 상황. 관 모양으로 생긴 책상에 앉아 저승사자와 마주 보고 있는 연주 모습 잡히고.

연주 저 질문 있는데요?

저승사자 응, 안 돼요.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이 대목에서 혹시라도 남의 거

안 훑치면 되지 않냐, 잘 견디고 견뎌보겠다,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게 쉬우면 다 남아서 가족, 애인, 친척에 사돈의 팔촌까지 기다리다 강 건너겠죠?

## #14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낮)

험한 표정으로 나무에 기대앉아 있는 연주의 모습 위로,

저승사자(E) 일주일만 굶는다고 생각해봅시다. (불쌍한 톤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그저 허기와 갈증을 견디다 견디다...

연주 뒤로 다가온 저승사자, 뒤에서 어깨를 툭툭 건드는데, 돌아서는 연주, 시뻘게진 눈으로 악귀처럼 으르렁거리고.  
놀란 저승사자,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데, 맹수처럼 달려드는 연주 모습 위로, #12에서처럼 경고음 울리며 화면 정지.

저승사자(E) 아귀가 되기 십상이죠.

연주(E) 아귀요?

이어 화면 정지 풀리고, #12에서와 똑같이 다른 저승사자 두 명에 양쪽 팔 붙잡혀 끌려가는 연주 모습 위로,

저승사자(E) 목구멍이 바늘과 같아서 못 먹고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귀신을 말하는 건데, 여튼 이때도 연옥행 특급열차 직행! 마지막 결론 봅시다.

인서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된 화면.

“대전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망자는 이래도 저래도 악귀가 된다.”

“소전제: 강을 건너지 않은 망자는 이승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결론: 강을 건너지 않은 망자는 어떻게 해도 악귀가 된다!” 그 위로,



저승사자(E) (인서트 화면에서 '결론' 부분에 별표 그려지는 위로) 딴 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결론! 강을 안 건너면, 어떻게 해도 악귀가 된다!

## #15 저승 강 부근(낮)

#10에서 이어지는.

저승사자 (아직 상황극에 젖은 톤으로) 악귀가 된다 이코르(=) 연옥행 특급열차 직행, 밑줄 하나 별표 세 개!  
연주 (당혹스럽고, 다급하게) 이제 설명 다 끝났죠? 질문요, 안 훔쳐 먹으 사 먹으면 되잖아요. 여기 식당 같은 것도 없어요?  
저승사자 니가 한번 둘러봐라. 여기 뭐가 있겠나.

연주 둘러보고, 화면 크게 잡히면 망자들이 줄 서 있는 나루터 쪽 이외에는 풀과 나무뿐인 험한 저승 강변의 모습.

다시 연주와 저승사자 바스트컷 돌아오면, 실망한 표정으로 주저앉는 연주와 그런 그를 '그럼 그렇지.' 하는 눈으로 보는 저승사자 표정 위로,

후배 사자(E) 선배님, 그래서요? 그래도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네?

## #16 저승 강 위 / 나룻배 안(낮)

저승에서 출근하는 저승사자들을 실어 나르는 나룻배 위.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의 후배 사자와 그 옆에 귀찮다는 표정의 저승사자 서 있고, 저승사자 한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는.

저승사자 나도 모르지. 내 할 일이야 저승 강까지 인도하는 걸로 끝이고, 배고프고 무서우면 알아서 막배에 비벼 땀뺐거나 짐작만 하는 거고.  
후배 사자 에이, 갔겠거니 생각하는데 (종이봉투 가리키며) 그건 챙겨오셨어요? (가까워지는 육지 보며) 거의 다 왔는데, 안 보이려나?  
저승사자 이걸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너 이거 막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후배 사자 승진 땀에 그러세요? 그니까 이승인 인도 사고까지는 그렇다 쳐도

어쩌다 강물 먹이는 것도 까먹으셔서 저승기밀유지수칙 위반까지...

저승사자 (주변 눈치, 소리 낮추며) 야, 조용히 안 해!  
후배 사자 근데 진짜 이실직고하고 호송부에 연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승사자 됐다 진짜 악귀라도 되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저승사자 승진도 승진인데, 악의를 갖고 버티겠다는 건 아니니까 억지로 끌고 가기도 좀 그렇잖아. 에이, 알아서 갔을 거야. 쓸데없는 걱정을...  
후배 사자 (O.L)(멀리 가리키며) 어! 쟤가?  
저승사자 (놀라 보며) 진짜 아직도 있냐?

## #17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낮)

나루터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 기둥에 기대 자는 연주의 모습, 한눈에도 지쳐 보인다.  
누군가 툭툭 차는 바람에 깨서 보면, 저승사자가 내려다보고 있고.

연주 헐, 저승사자. 나 진짜 죽었구나.  
저승사자 잠이 덜 깬구만?  
연주 아, 목말라. 꼬박 하루를 물도 못 먹고. 사자 아저씨, 저 강물은 써도 되죠? 저 정도면 공공재지, 공공재. (강 쪽으로 기어가고, 물 마시려는 찰나)  
저승사자 (당황한) 야, 너 그거 마시면 강 건너는 거랑 똑같은데? 기억을... (하다가 아차 싶은, 자기 입 틀어막고)  
연주 네? (저승사자 쪽 돌아보며) 기억을요?  
저승사자 아니야, 마셔. 얼른 마셔! 그건 맘껏 마셔도 돼.  
연주 (벌떡 일어나며) 이 사자 씨가 누구를 바보로 알고? 이거 마시면 기억 잊는 거죠? 그래서 나 마시고 강 건너게 하려고! 저승사자가 막 사기 쳐도 돼요?  
저승사자 니... 니가 먼저 마시겠다 했잖아! (민망해서 버럭) 그니까 바로 강 건너 아늑하고 편안한 세상이 있는데 왜 버티는 거야, 도대체?  
연주 (안 지고) 안 아늑하고 불편한 세상을 혼자 견디는 애도 있거든요?  
저승사자 그걸 니가 왜 신경 쓰냐고? 이제 세계 자체가 다른 사람인데!  
연주 내가 거기서 버티라고 그랬으니까요!

저승사자 야, 니가 버티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냐? 다 자기 명줄이 남았으니까 사는 거야. 이상한 삼류 로맨스 그만 쓰고 그냥 강... (보면)

연주 (기색에 전혀 변화 없고)

저승사자 (포기한) 그래도 안 건널 거지?

연주 안 건넌다니까요?

저승사자 에이씨. (신경질적으로 들고 있던 종이봉투 던지며) 난 일 가야 되니까 이거나 갈아입고 있어. (씩씩대며 가고)

연주 이걸 또 뭘데요! (하고 봉투 열어보다) 뭐야, 이걸 날 왜 줘?

## #18 편의점(밤)

편의점 계산대에서 즐고 있던 승탁, 놀란 듯 외마디 비명과 함께 번득 깨서 보면 미안한 표정으로 승희가 앞에 서 있고.

승희 아, 오빠 미안해요. 조심히 깨운다는 게.

승탁 아니야, 깜빡 졸았네.

승희 엄청 피곤했나 보다. 얼른 나와요. 오늘 사십구재? 그것도 가야 한다면서요.

승탁 아, 나 아직 정산도 안 해줬는데...

승희 제가 할게요.

승탁 아니야, 니가 교대까지 해줬는데... 일을 줄여줘도 모자랄 판에.

승희 어차피 일찍 온 거, 할 일 없이 있느니 오빠라도 빨리 퇴근시키는 게 낫거든요? 얼른 준비해요.

승탁 (절로 미소 지어지는) 고맙다, 진짜.

## #19 저승 강 / 나루터(낮)

시간 경과.

해질 무렵의 나루터. 저승사자, 자신이 데려온 망자들 나룻배에 태우는. 이때 화난 목소리로 “이봐요, 사자 양반!” 하는 소리에 저승사자, 놀라 돌아보면, 씩씩대며 저승사자 향해 다가오는 정장 차림의 연주고.

연주 (성난) 이 옷 뭐예요?

저승사자 옷이 옷이지,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근데 왜 여기까지 달려왔어? 아, 맘이 바뀌었나? 많이 배고프지? (연주 당기며) 자, 얼른 타자.

연주 (뿌리치고) 이거 봐, 어떻게든 강 건너게 할 속셈이지. 남의 거 막 쓰면 지옥 끌려간다며요? 내가 이거 입고서야 생각났어. 선물인 줄 알고 좋아서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등신이지, 내가 등신이야! 배고파서 정신도 오락가락하냐? 딱 악귀 되기 직전이구만.

저승사자 뱃사공 (뒤에서 불쑥) 악귀입니까? 위에 연락할까요?

저승사자 (뜨끔) 아니요, 재는... 신입입니다. 저승사자 신입! (연주에 다가가) 야, 여기서 시끄러워지면 둘 다 좋을 거 없으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 #20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낮)

시간 경과.

강 위로 나룻배 떠나가는 모습 보이고.

연주 자던 외딴 나무 근처에 선 저승사자와 연주의 모습.

연주 (머쓱하고) 진짜 그냥 선물이었어?

저승사자 그럼 상복 입고서는 대놓고 난 망자요, 하고 있는 걸 그냥 두냐? 오가는 사람 다 보고 재는 뭘까? 궁금하게 만들어서 소문 확 깔리게? 망자는 자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고 한 거 같아서...

연주 저승사자 그거. 알아봤더니 망자가 이승의 다른 물건을 탐내면 안 된다는 법만 있지 저승 거 쓰면 안 된단 법은 없더라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주 (화색 돌고) 그래요? 그럼 먹을 물이랑 음식도...

저승사자 반입 금지 물품이라 그건 안 되고.

연주 왜요? 비행기도 아니고 허접한 나룻배 주제에 웬 반입 금지 물품?

저승사자 내가 아냐? 내가 법 만든 것도 아닌데.

연주 히잉. (하다 눈치) 어쨌든... 옷 얘기는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저승사자 미안하면 다음 배나 타든가. 신경 좀 안 쓰이게.

연주 나 신경 쓰여요?

저승사자 당연하지! 할 일도 없이 주린 배 붙잡고 기약 없는 시간을 건디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난 상상도 안 되는데...

연주 (걱정해주는 건가? 좀 감동인 표정으로 보면)  
 저승사자 (갈수록 심각하게) 그러다가 악귀라도 되면, 어쩌다 저승에서 이랬는지 진상조사 들어갈 거고, 악귀 된 니가 있는 대로 지껄여서 괜히 다 내 책임으로 몰아지면 난 승진은커녕…  
 연주 (그럼 그렇지…) 아니, 무슨 저승사자가 승진 안 될까 봐 그렇게 세상 무너지는 표정으로… (하다 목소리 갈라지고) 아, 목 아파. 이젠 말도 그만해야겠다. 목이 타는 거 같네.  
 저승사자 그냥 갈증 때문에 오는 느낌이야. 몸 상태 자체가 바뀌지는 않거든. (나루터 쪽 보고) 배 들어오네. 난 퇴근할 거거든? 넌 오늘도 버텨보시려고?  
 연주 이승 시간으로는 이제 얼마나 지났죠? 저 죽은 날부터?  
 저승사자 오, 포기의 기미가 드디어 보이는 건가?  
 연주 아니요, 아직 얼마 안 됐으면 맘을 더 굳게 먹어야 할 거 같아서요.  
 저승사자 (포기한) 말을 말자. 힘내! 참고로 많이 힘내야 할 거야. 앞으로도 쪽, 오래오래. (나루터 향해 가고)  
 연주 (큰 소리로) 옷 고마워요! 저 정장은 처음 입어보거든요! (소리 낮추며) 사자님이 봐도 상복보다는 정장이 잘 받죠, 제가?  
 저승사자 (엔 안 되겠다… 돌아서고)  
 연주 (저승사자 멀어지자 기운 빠지는, 혼잣말로) 승탁아, 보고 싶다… 빨리 와라… (하다 문득) 아, 이건 좀 아닌가?

## #21 변화가 일대(낮)

순간 “웁” 하며 놀라게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도는 승탁의 모습. 돌아보면 재밌어하는 표정으로 서 있는 승희고.

승탁 (살짝 원망하는 투로) 야, 진짜 놀랬다.  
 승희 (아직도 신난) 오빠 나 볼 때마다 놀라는 거 같아요, 그죠?  
 승탁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장난 잘 쳐, 너?  
 승희 (일부러 시무룩한 척) 그래서 빼졌어요? 내가 교대에다, 오빠 시간까지 풀타임 대신 뛰어주기까지 한 게 몇 번인데?  
 승탁 아, 알지 나도. 그니까 오늘은 말만 해, 내가 보은으로다가 먹고 싶은

승희 (다시 신나서) 오빠 되게 밝아진 거 알아요? 그 언니 떠나고서 오래… (순간 눈치)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누구나 그런 일 겪고 나면 오래 힘들지만 오빠는 특히 좀 길게…  
 승탁 (O.L)오버하는 걸로 보였어? 가족도 아닌데?  
 승희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승탁 갠 여자친구면서, 평생 같이 큰 친구였어. 유일한 가족이었고.  
 승희 (뜻밖이고) 네? 어떻게…  
 승탁 나 보육원에서 컸거든. 크면서 중2병 걸려가지고 인간관계도 위아래 옆으로 전부 다 박살 났을 때, 그래도 옆에 있어준 애가 연주였어. 원래 내 인생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개박에 없었는데…  
 승희 (O.L)이제 내가 있죠?  
 승탁 (당황한) 뭐?  
 승희 오빠가 다시 밝아진 이유에 내가… (아닌가? 갑자기 민망한, 도망치며 어색하게) 아! 맛다, 깜빡한 일이… 밥 다음에 사줘요, 오빠.

잡을지 말지 고민하는 승탁의 손짓, 점점 승희의 모습은 멀어져간다. 승희 각도, 자기 머리 쥐어박으며 인파를 헤집고 나아가는데, 뒤에서 딱 잡는 손길. 그 자리에 얼어붙은 승희가 조심스럽게 돌아서면, 승탁이고.

승탁 너랑 나랑 시간 맞추려면 또 몇백 년 걸려. 그니까 오늘 그냥 먹고 가. 나 은혜도 모르는 사람 만들지 말고.  
 승희 교대 몇 번 해준 게 뭐 은혜씩이나.  
 승탁 그거 말고. 나 다시 밝아지게 도와준 거.  
 승희 (잘못 들었나? 아무 말 못 하고 보면)  
 승탁 배고프다. 가자.

손 내미는 승탁, 망설이던 승희도 이내 미소 지으며 승탁의 손을 잡는 위로,

연주(E)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배고프다… 배가 고프다…

## #22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낮)

다른 날, 앞 장면의 대사를 읊조리며 지친 표정으로 나무에 기대앉아 있는 연주. 눈이 쾅하다. 그 위로,

저승사자(E) (놀리는) 너 분명 먹다 죽었을 거야. 갈증이 어마어마할 건데 낮빛은 종단 말이야?  
연주 (힘없이 올려보면 저승사자 있고) 오셨어요... (이내 고개 떨어지는)  
저승사자 (조금 미안한) 진짜 화낼 기운도 없구나? 며칠째야, 이게?  
연주 (표정 변화도 없고)  
저승사자 니가 기다린다는 개는 벌써 애인을 한 세 번을 갈고도 남았겠구만.  
연주 (순간 무섭게 노려보고)  
저승사자 (움짤) 야, 너 진짜 악귀야? 어디 겁도 없이 저승사자를 막 노려보고... (이내 결심한 듯) 예라, 모르겠다. 악귀 되게 방치하는 거보다는 낫겠지. 일어나, 밥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연주 (갑자기 기운차게 일어서며) 진짜요? 어디서요?  
저승사자 (진짜 놀란) 아, 깜짝이야. 야, 너 방금까지는 연기한 거야, 뭐야?

## #23 변화가 일대(낮)

연주, 눈이 부신 듯 찌푸리다가 자신이 변화가 한복판에 서 있음을 알고 놀라고.

연주 여기, 여기 어디예요?  
저승사자 (서류가방 넘기며) 이거 받아. 앞으로 니가 해야 할 일이야.  
연주 뭐야, 이걸 갑자기 또 어디서 나왔어요?  
저승사자 니가 궁금해야 할 건 이게 뭔지 아닐까?  
연주 알아야 해요?  
저승사자 니 일이라니까? 너 밥 먹게 해줄.  
연주 (바로 초롱초롱해지는) 뭘니까, 저승사자님?  
저승사자 부담스럽다, 갑자기.  
연주 (애교 섞어) 에이, 우리 사이에.

저승사자 진짜 무섭게 왜 이래? (걸음 옮기며) 따라 걸으면서 들어. 니가 든 건 명부. 너는 오늘부터 내 비공식 조수가 되는 거야.  
연주 (따라 걸으며) 조수요?

## #24 장례식장 / 안치실(낮)

안치된 관 앞에 놓인 사자상.  
그 앞에 나란히 선 저승사자와 질색한 표정의 연주.

연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걸 좀...  
저승사자 배가 덜 고프지, 니가?  
연주 아니요! 죽을 거 같거든요? 이미 죽었지만.  
저승사자 그래!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어차피 너도 죽었는데 관짝을 그런 표정으로 볼 거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조수를 하나? 알았어요. 비위를 상할 조정 해볼게요.  
연주 어디서 지가 인심 쓰는 척을... 이것도 감지덕지인 줄이나 알아. 요즘은 사자상 안 차리는 집이 많아서 다음번은 언제가 될지 몰라. 진짜요? 그럼 진짜 많이 먹어줘야겠다. (전투적으로 앉으려는데)  
저승사자 (막아서며) 어허, 내가 말했지? 망자가 이승에서 남의 거를 탐내면 바로 악귀 낙인찍혀서 소환이라고.  
연주 (분노) 뭐예요, 진짜! 사자밥 먹게 해준다면서요!  
저승사자 (연주 밀어내는, 자리 잡아 앉으며) 이름이 왜 사자상이겠냐? 저승사자 거니까 사자상이지. (밥술 뜨며) 음, 오랜만에 먹는 이승밥이네.  
연주 (배반감에 노려보고)  
저승사자 (연주 보다 놀라 쿨럭) 야, 너 때문에 체할 거 같아서 더 못 먹겠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야, 너나 먹어.  
연주 먹으면 끌려간다면서요! 아하, 또 나 속이는 건가? 이거 먹어서 악귀로 저승 건너가게 하려고?  
저승사자 이게 누구를 사기꾼으로 보고! 먹기나 해. 사자밥인데 사자가 먹다 남겼으면 이제 주인 없잖아? 무주물이니까 너 먹어도 된다고.  
연주 (이제야 이해되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자리 앉으며) 그럼 잘

먹겠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저승사자

(좀 귀엽고) 맛있냐?

연주

(입 안 가득 넣은 채) 네. 근데 이 시체 주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 #25 장례식장 / 조문실(낮)

장례식장을 찾아 상주에게 인사를 나누는 조문객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상복 차림의 망자 모습 위로,

저승사자(E)

마지막으로 살던 곳 둘러보고, 자기 장례에 와준 지인들도 보고, 뭐 그러고 있겠지.

연주(E)

네? 왜요? 난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승사자(E)

너 장례식은 사자상을 안 차렸으니까. 노잣돈 한 푼도 없던데?

## #26 장례식장 / 안치실(낮)

#24에서 이어지는 상황.

연주

(꿀꺽 삼키고, 따지듯) 그럼 지금 이거 뇌물? 땡전 한 푼이라도 줘야 시간도 더 주고 막? 와, 무슨 저승 것들이 이렇게 썩었어!

저승사자

이게 진짜 악귀가 다 됐나, 너 지금 저승 것 앞에서 말 다 했어?

연주

(눈치 보다 급히 밥술 입에 밀어 넣고) 그래도 이걸 좀 아니잖아요!

저승사자

(연주 옆에 앉으며) 우리가 뭐 이승밥이 맛있어서 이거 받고 망자한테 더 잘하고 그러겠냐? 이승에서 암만 산해진미를 갖다놔도 우리 입에는 저승밥이 훨씬 잘 맞거든?

연주

(입 안 가득 찬, 우물우물) 그럼 왜 그러는데요?

저승사자

망자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 남은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지도록 돕는 거야. 이제 다시 볼 일도 없는데, 잘해주 봐야 딱 하나 더 떨어질 게 없는 망자한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하는 산 자들의 정성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라고.

연주

(멈칫, 갑자기 어두워지며) 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는 길에 뭐 하나라도 보태주고 싶어 하는...

저승사자

그럴 수도 있고, 떠나는 사람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던 걸 수도 있지. 살아 있는 자기 슬픔에 갇혀서. 너무 사랑했으면.

연주

(후자라고 믿고 싶은) 그런 거겠죠...?

저승사자

니 경우에는... 글썽? 니 생각은 어떤데?

연주

(저승사자 보다 답 못 하고 밥 먹는)

## #27 거리(밤)

인적이 한적한 어두운 거리. 걸어가는 저승사자와 그로부터 몇 걸음 뒤쳐져서 왠지 기운 없는 표정으로 따라가고 있는 연주.

저승사자

(멈춰서 돌아보며) 안 오냐?

연주

(여전히 기운 없는) 가고 있거든요?

저승사자

아휴, 답답해. (연주가 든 가방 뺏어 서류 꺼내 보고는 돌려주며) 오케이, 됐어.

연주

(구시렁)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면서 왜 난 데리고 다닌대?

저승사자

짐꾼으로. (가방 가리키며) 그거 종일 들고 다니면 은근 무겁거든. 왜, 싫어? 싫으면 전처럼 강가에서 멍 때리든가. 쫄쫄 굶으면서.

연주

치, 맨날 험박은. (하면서도 시무룩하고)

저승사자

뭐야, 뭐 때문에 아까부터 그렇게 저기압이야? 밥, 밥 노래를 부르는 걸 신나게 먹게 해줬더니만.

연주

저기압은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말 돌리려 시선 피하며) 근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어요? 막배 해 지기 전에 끊기던데. 오늘은 저랑 같이 강변에서 노숙하셔야 하나?

저승사자

말 안 했나? 이쪽이랑 저쪽이랑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저승의 찰나가 이승에서는 훨씬 길게 지나가. 이승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저승 건너가면서 압축된다고 해야 하나? 오늘 망자 나르면서 이승 저승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그사이에 이승 시간은 최소 몇 주 지났을걸?

연주

(영혼 없이) 우와.

저승사자

뭐야, 그 죽은 반응은?



연주 아니, 참 친절도 하시다고요. 그렇게까지 궁금한 건 아니었는데.  
 저승사자 (열 받고) 뭐?  
 연주 (저승사자 신경도 안 쓰고 뭔가 생각난 듯, 눈 반짝이며 돌연)  
 잠깐만요. 그럼, 시간 여유도 있겠는데 부탁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저승사자 (그럼 그렇지...) 어, 안 돼. (냉정히 돌아서 가고)  
 연주 들어보지도 않고? 아, 빠졌어요? (다급히 쫓아가는)

## #28 저승 강 / 나루터(낮)

앞 장면과 같은 날, 망자들을 배에 태우고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  
 이어 망자들을 실은 나룻배 떠나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 저승사자  
 돌아서면, 심통 난 표정으로 멀찍이 서 있는 연주의 모습이고.

저승사자 (어색하게 다가서며) 아직도 빠졌나?  
 연주 (빼친) 안 탄 거 보니 아직 막배 시간도 아닌 모양이구만,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안 들어주고... 치사하게.  
 저승사자 아귀 꼴로 있던 거 기껏 밥 먹여줬더니, 치사?  
 연주 그니까 이왕 잘해준 거 끝까지 잘해주지 그랬어요?  
 저승사자 굳이 봐서 뭐 한다고? 갠 너 보지도 못할 텐데.  
 연주 잘 살고 있는지 걱정되니까 그렇죠! 나 시한부 선고받았을 때 나보다  
 더 많이 울어서 오히려 내가 위로해줬던 애라고요, 승탁이가. 정신줄  
 다 놓고 막 사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  
 저승사자 (눈 똑바로 들여다보며) 거짓말.  
 연주 (화들짝) 네?  
 저승사자 귀신을 속여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반쪽 망자인 너 정도가  
 거짓말하는 건 다 보여, 이쪽 사람들 눈에는. 솔직히 말해. 아까 밥  
 먹을 때부터 수상했어, 너.  
 연주 (말 더듬는) 뭐, 뭐가요.  
 저승사자 이제 슬슬 의심스럽지? 개가 너랑 한 약속 같은 거, 아니 너라는 존재  
 자체는 기억하는지. 당장이라도 확인해보고 싶고 막 그렇지?  
 연주 (놀라 굳은 표정으로) 진짜 귀신 맞네.  
 저승사자 그걸 이제 알았어? 어쨌든 오케이. 너 원하는 대로 확인시켜줄게.

연주 만약 갔는데 개가 다 잊고 잘만 살고 있으면 바로 강 건너는 거다?  
 (흔들리는, 잠시 고민하다 힘껏 고개 저으며) 아니요! 싫어요. 확인  
 안 할래요.  
 저승사자 뭐야? 방금까지는 데려다달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연주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의심해서 하필이면  
 딱! 의심스러운 장면을 덮친 주인공이 혼자 오해하고, 애인이랑  
 싸우고 상처 주고 막 엇갈리고. (결연한) 그러니까 전 승탁이를 의심  
 안 하고 믿는 쪽을 택할래요.  
 저승사자 (고개 저으며) 드라마가 애들을 많이 버려놨어. 그럼 마저 열심히  
 믿으시든가, 난 분명히 기회 준 거다, 나중에 탄소리만 해?

저승사자 돌아서 가면 뒤에 남은 연주, 저승사자 앞에서 굳건하던 모습과  
 달리 다시 불안하고 생각 많은 표정이고.

## #29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낮)

다음 날, 성큼성큼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모습.  
 나무에 기대앉아 있는 연주 보고 건드는데, 돌아보는 연주 표정, 전혀  
 쾅하고.

저승사자 (놀라) 야,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도 부족해? 얼굴이 왜 이래?  
 연주 (피곤한 목소리) 잠을 잘 못 자서요. (반쯤 낫 빠진 표정으로)  
 승탁이가 나 잊지는 않았을까, 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걱정이 돼서.  
 저승사자 의심 안 한다며?  
 연주 의심을 안 한댔지 걱정을 안 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신경질적으로  
 일어나며) 사자님이 기다리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알아요?  
 저승사자 등 따습고 배부르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모양이지, 응? 그건  
 그렇고, (생각하니 화나는)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나한테 잘 보여도  
 모자랄 판 아니냐, 너? 내가 니 밥줄을 쥐고 있는데.  
 연주 아니 무슨 저승에서도 갑질이... (하다가 꼭 참으며) 알았다고요,  
 예민해져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승사자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알았으면 따라와. 일하게. (앞서가는)  
연주       (뒤에서 쥐어박는 시늉하고는 따라가는)

### #30   변화가 거리(낮)

이승 거리 한복판에 나타나는 저승사자와 연주의 모습.

연주       그래요 오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저승사자   (서류가방 건네며) 당연히 이거 드는 거부되지. 가자. (앞서가고)  
연주       (가방 받으며) 이젠 매번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대? (따라가는)

몽타주.

저승사자와 조수 연주의 활동상 및 시간 경과.

1. 장례식장. 수의 입은 망자 옆 저승사자와 연주, 연주 뭔가 잘못 건드려 떨어뜨리고, 이에 눈치 주는 저승사자의 모습.
2. 안치실. 사자상이 없어 실망하는 표정의 연주와 이를 구박하는 저승사자 모습.
3. 도로 한복판. 피 흘리며 놀라 서 있는 망자에 뭔가 설명하는 저승사자와 옆에서 망자의 피 닦아주며 달래는 연주의 모습.
4. 저승 강 나루터. 이어 공손히 인사하고 배에 타는 망자와 그를 뿌듯하게 보는 연주, 이에 미소 짓는 저승사자.

### #31   골목(밤)

골목을 따라 걸어가는 승희의 모습.

찬희(E)   누나!  
승희       (돌아보며) 이제 오냐? 늦었네?  
찬희       (승희 옆에 서서 눈치 살피며) 승탁이 형이랑 술 마셨거든.  
승희       (멈칫) 오빠 만난 거야?  
찬희       형 많이 힘들어하던데.  
승희       그러거나 말거나.

찬희       그냥 다시 만나지? 누나도 형 아직 못 잊은 거 아니야?  
승희       니 연애사나 신경 써, 남 일에 참견 말고.  
찬희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남이 뭐냐? 그러지 말고…  
승희       (귀찮다는 듯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고)  
찬희       (뒤따라가며) 아니, 진짜 왜 헤어진 건데? 형 상태 요즘 장난 아니라니까? 걱정도 안 되냐?

### #32   가정집 / 거실(낮)

연주, 평범한 집 안이라 놀라고.

연주       별 사고는 없는 거 같은데…  
저승사자   (약간 가라앉은) 처음 보는 거라고 괜히 놀라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마. 다 똑같은 죽음일 뿐이야.  
연주       놀라긴요, 제가 사자님 쫓아다니면서 죽는 거 한두 번 봐요?  
저승사자   마음 준비된 걸로 알고. 들어간다, 그럼. (방문 열고 들어가는)  
연주       (따라 들어가려다 멈칫)

### #33   가정집 / 방(낮)

방 중간에 의자를 두고 떠 있는 사람의 다리.  
그를 보고 놀란 연주, 방문 앞에 멈춰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20대 초반의 망자. 저승사자가 그에게 다가가고.

저승사자   강재혁 씨, 저승사자 왔으니 그만 가자.  
재혁       (웅크린 채) 사후세계 같은 거 없길 바랐는데… 있네요. 그냥 폭 자고 싶었는데.  
저승사자   저승에서도 잘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재혁       (눈물범벅으로 고개 드는, 흐느끼며) 저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는 것도, 이런 결심하는 것도… 근데 더 힘들어야 해요? 왜 열심히 못

살았나,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그래서 막 끝까지 벌 받고  
그래야 하나고요? 난 사는 거 자체가 벌이었다고요!

저승사자 (덤덤하게) 댁 가족들이 사자상을 꽤 거하게 차릴 모양이야.  
그러면 원래 망자한테 가족이랑 친구들 돌아볼 시간도 주고, 꿈에  
나타나게도 해주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인데... 싫지?

재혁 우리 가족들... 많이 힘들어할까요?

저승사자 이제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야. 니가 신경 써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니가 그 사람들 한 번 더 보고 갈지 말지만 정해.

재혁 자신이 없어요...

저승사자 그럼 갑시다. 쫓지 말고 일어나. (재혁 일으켜 세우며) 다 사람 사는  
데야.

연주 (재혁의 시체 쪽 보는 표정)

### #34 저승 강 / 나루터(낮)

다른 저승사자들과 망자 사이 섞여 나루터에 서 있는 재혁, 저승사자,  
연주의 모습.

재혁 (당황스러운) 저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뭐 벌이든 심판, 아니면  
고문 이런 거 없이...

저승사자 마조이스트야? 그런 거 원해?

재혁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떨며) 혹시 저 강 건너에 뭐가 있나요?

저승사자 있지, 망자들이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아늑한 세계가.

재혁 (미심쩍은) 진짜 그게 다예요? 이승의 일로...

저승사자 (O.L)말했잖아. 이승의 일은 이 강 건너면서 기억과 함께 모두  
정리된다고. 삶은 끝났어. 니가 좋든 싫든 이제 아쉬워서 붙잡고  
싶어도 닿을 수가 없는 거라고. 벌이라면 그게 벌일 거고. 폭 자고  
싶다고 그랬나? 그건 넘어가서도 맘껏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자고. 그쪽은 기억 못 하겠지만, 인연이면  
다시 닿겠지.

재혁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 고생하셨어요.

아직 두려운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배에 오르는 재혁.

이내 재혁이 탄 배 떠나가면, 지켜보던 저승사자와 연주도 돌아서고.

연주 자살은 중죄로 다뤄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맨날 사자님이 나  
협박할 때 나오는 연옥행 특급열차? 그거 실제로 보는 건가 했는데.

저승사자 너 나 따라다니면서 못 봤어? 막 죽은 자들이 느끼는 공포, 고통,  
절망. 그런 게 얼마나 큰지?

연주 봤죠... 질리도록.

저승사자 스스로 목숨 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해야 했다면 그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연주 하지만?

저승사자 (됐다, 싶고) 일어나 하러 가자고. (앞서가는)

연주 말을 이상한 데서 끊으시네. (비죽이며 따라가고)

### #35 한강 다리 위(밤)

동트기 직전의 새벽녘.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7에서와 같은 장소를 따라 걷는 승탁의 모습.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끝이다, 다 끝!” 등 중얼거리며 불안한 모습이고.

### #36 변화가 일대(낮)

복적이든 거리에 다시 선 두 사람. 저승사자, 지나가는 이들 바라보고.

저승사자 (한숨) 왜 받는 이들은 알지 못할까...

연주 (눈 비비며) 네?

저승사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걸으며) 그냥, 안타까워서. 버려진 선물이.

연주 (따라 걸으며) 버려진 선물? 아, 아까 망자 유족이 차린 사자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먹고 와서 아까워서?

저승사자 (발끈) 누구를 지 같은 식충이로 아나?

연주 (어이없고) 식충이? 버려진 선물, 그거 사자밥 아님 뭔데요?

저승사자 삶. 주는 이의 설렘과 정성, 기쁨의 마음이 가득 담긴.



연주 (심드렁한) 예? 삶이 선물이라고요? 삶을 주는 사람... (화들짝) 신? 사자님 신도 만나봤어요?  
 저승사자 그걸 꼭 만나서 물어봐야 아냐?  
 연주 (김새는) 에이, 난 또. 물어본 것도 아닌데 사자님이 어떻게 알아요? 삶이 선물인지, 완전 반대로 저승에서 죄진 사람들이 받는 벌인지.  
 저승사자 선물이야.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  
 연주 (멈춰서 보며) 그냥 일상이구만. 저승사람 눈에는 이게 아름다워요?  
 저승사자 (따라 멈춰 서며) 눈부시게.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잖아.  
 연주 에이, 제 귀엔 그냥 세상물정 모르는 저승사자 배부른 소리로 들립니다만? 모든 게 귀해서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데요. 뭐, 전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두 개 풀려오고, 다음엔 네다섯 개... 시기와 질투, 불안과 고통이 끝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기가.  
 저승사자 그러냐? (하고 올려다보는 표정)

### #37 한강 다리 위(낮)

#35에서 이어지는 상황. 날은 아까보다 밝아져 거의 아침 분위기다. 초점 없는 표정으로 걸다가 문득 한 자리에 멈춰 서는 승탁, 강변 쪽 바라보다가 난간 위에 “바로 저 강물처럼” 글귀 보고 표정 변하고.

인서트.  
 (#9에서) 같은 장소에서 연주 생각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던 승탁.

옛 생각에 피식, 웃음 나는 승탁 모습 위로,

저승사자(E) 근데, 그래도 선물이라 우기고 싶은 걸 보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신의 사자가 봐.

### #38 변화가 일대(낮)

#36에서 이어지는 상황.

연주 그거 이승 드라마 대사 따라 한 거죠? 무지 옛날 건데.  
 저승사자 (무안하고, 괜히) 빨리 움직여, 늦었어.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고)  
 연주 혼자 열심히 하는 척은... 나도 일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였거든요?

### #39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낮)

다른 날, 연주 기다리고 있고, 양손 가득 종이봉투 든 저승사자 다가오는.

연주 사자님, 이게 다 뭐예요?  
 저승사자 (무심하게 손에 든 거 내려놓으며) 아,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연주 (꺼내보며) 정장에 침낭에... 이거 다 저 주려고 가져오셨어요?  
 저승사자 (괜히 민망하고) 아, 일 가야지. 이따 끝나고 봐. 얼른!  
 연주 하여간 급하시기는.

이후 날에 따라 연주도 옷 바뀌고.

### #40 전통 한옥집 / 대문 담벼락(낮)

다른 날, 전통 장례를 치르는 초상집. 조문객 오가는 대문 옆에 놓인 푸짐한 사자상을 두고 앉은 저승사자 먼저 수저 들고, 연주는 옆에서 침 꼴깍 삼키며 기다리는.

저승사자 (투정하듯) 나 이런 거 안 먹는데. (반찬 몇 개 연주 앞에 밀어내고)  
 연주 (신난, 다른 반찬 보고) 사자님, 이런 건 잘 드세요? (자기 거 먹고)  
 저승사자 (어이없고) 아, 너 이제는 길바닥에서도 아주 잘 먹는다? (그래도 연주 말한 반찬 덜어주는)

### #41 바닷가 마을(낮)

다른 날, 해질 무렵의 바닷가 마을. 저승사자를 뒤따라가는 연주의 모습. 연주, 무심코 노을 지는 바다 풍경 보다 그 자리에 멈춰 서고.

저승사자 (돌아서며 채근하듯) 야, 너 왜... (하다 멈칫)  
 연주 (이미 냇 놓고 바다 보는)  
 저승사자 (고개 절레절레, 그러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서는)

## #42 변화가 일대(낮)

다른 날,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고 있는 저승사자와 연주의 모습.

연주 사자님, 전부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망자들 유족이 사자밥을 차릴지 안 차릴지 사자님은 어떻게 바로 보고 매번 아세요?  
 저승사자 어떻게 알긴. 보이니까 알지.  
 연주 사자님 미래도 보이시는 거예요?  
 저승사자 이승 일만. 말했잖아, 이승의 시간은 저승 넘어가면서 압축된다고. 시간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저승사람은 이승의 과거 미래가 좀 보여.  
 연주 와, 다행이다!  
 저승사자 다행이다? 신기하다도 아니고.  
 연주 아니요, 요새 든 생각인데 저 이렇게 이승에 와 있을 때 승탁이가 저승 가서 엇갈리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근데 사자님이 미래를 보시면, 승탁이 언제 죽을지도 미리 아실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 그놈의 승탁이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연주 아, 그렇지. 그럼 나중에 명부로라도 확인해주시면 안 돼요?  
 저승사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 그 모양이네. 싫어, 귀찮아. 안 해! (빠른 걸음으로 따돌리며 걸어가고)  
 연주 (다급하게 쫓아가며) 아, 그러지 말고요. (큰 소리로) 이승탁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요, 4월 6일생 이승탁!

연주의 마지막 말 “이승탁!”과 함께 화면 전환하고 보면, 30대 중반 느낌의 승탁, 순간 놀라 굳은 채 서 있고 그 뒤로 연주 일행 지나가는. 승탁, 흘린 듯 획 돌아서면 환한 미소 지은 채 서 있는 승희고.

승탁 (깜짝 놀란) 승희야?  
 승희 이게 몇 년 만이야?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다 만나고.

승탁 진짜... 신기하다. (미소 짓는)

## #43 저승 강 / 나룻터(낮)

다른 날, 망자들이 나룻배에 올라타고 있는 풍경.  
 수의 입은 한 망자가 저승사자와 연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모습이고.

망자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저승사자 별 말씀. 누구처럼 가네 못 가네 생떼 안 부리고 잘 따라와줘서 내가 고맙지.  
 연주 (내 얘기지? 흘겨보고)  
 망자 (나룻배 바라보며) 이제 진짜, 가야겠네요.  
 저승사자 응, 막배라 나도 탈 건데 애랑 할 말이 좀 있어서. 먼저 타고 있어.  
 망자 예, 그럼 전 먼저. (나룻배 쪽으로 가고)  
 연주 할 말이요? 빨리 하세요, 배 가요!  
 저승사자 나도 궁금한 거 있어서.  
 연주 저한테요?  
 저승사자 (하늘 보며) 여기 밤은 어떠냐?  
 연주 무슨 소리예요?  
 저승사자 밤 되면 배 끊겨서 여기 남는 사람이 없잖아. 저승 강 이쪽 편의 밤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연주 어떨겠어요? 이 허허벌판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죠.  
 저승사자 무섭기만 해? 근데 어떻게 버텼냐. 지금까지 혼자서.  
 연주 (괜히 걱정시켰나? 일부러 씩씩하게) 그래도 밤이라서 볼 수 있는 별이 있고, 아침 되면 저승사자님 올 거라는 기대도 있고, 아, 제일 중요한 거. 내일은 밥 먹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죠. 여기에.  
 저승사자 치매는 아닐 건데, 중요한 걸 빼먹네?  
 연주 뭐요?  
 저승사자 숙제야. 그런 의미로 내일은 휴가. 안 데리고 갈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연주 뭐예요, 진짜? 매일 밤 기다린단니까 갑자기 소름 돋아요? 아니면

무슨 심술이래요?

저승사자 어, 무슨 심술이야. (가다가 다시 돌아오며) 너 머리 나빠서 결국은 모를 거 같으니까 말하는 건데, 내일이야. 디데이.

연주 디데이?

저승사자 니가 오메불망 기다리던 승탁인가 그놈 사망일. 명부 관리하는 데다가 얘기해줬었거든. 내일이라고 오늘 알려주더라.

연주 승탁이요? 내일 죽어요? 개도 오래는 못 사는구나.

저승사자 오래 살았어. 니가 느끼기에 짧은 시간이라 그렇지. 연인이 됐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됐든 만나면 회포 잘 풀고, 니가 바란 그림대로 강 잘 건너가고. 간다. (돌아서고)

연주 (불잡으며) 잠시만요, 내일 그러고 그냥 승탁이랑 강 건너라고요? 그럼 사자님이랑 기억도 없어질 텐데, 이게 그럼 마지막...?

저승사자 (나룻배 보며 다급히) 야, 배 가겠다! 나 진짜 가야 돼. (연주 뿌리치고 뛰어가는)

연주 (저승사자 뒤에 대고 고래고래) 아니, 뭐가 이렇게 쿨해요! 아니, 매정해! 그간의 정이 있는데 이렇게 가나? 사자님! 이봐요, 사자 씨! (이내 기운 빠지는, 혼잣말로) 뒤도 안 보고 가나...

#### #44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밤)

별빛이 반짝이는 밤. 나무 근처 연주가 머무는 곳. 램프로 불 밝혀져 있고, 주위에 텐트(혹은 침낭), 행거와 거기에 걸려 있는 옷들 등 저승사자가 가져다준 물건으로 한 살림이다. 그 사이에 의자에 기대앉아 있는 연주의 모습이고.

연주 와! 드디어 마지막 밤이다! 저승 강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오긴 오네. (생각 복잡하고) 야, 어떻게 이것도 아쉬울 수가 있나...

저승사자(E) (#43에서) 저승 강 이쪽 편의 밤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연주 (감상에 젖어) 이 캄캄한 와중에도 이렇게 예쁜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나만 아네, 나만. 나만 아는 건데 나도 모를 뻔했고. 사자님 아니었음... (괜히 서운한) 고맙다는 말은 하게 해주지.

성격 진짜 이상해.

#### #45 저승 강 부근 / 나루터(낮)

다음 날, 연주가 멀찍이서 초조한 듯 서 있고, 이어 나루터 쪽으로 사자들과 망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연주, 다가가서 둘러보는데 죄다 모르는 얼굴이고 점점 초조해지는데.

연주 (불안한) 어떡해. 나 못 알아볼 거 같애... 얼굴 많이 변했을 건데, 벌써 놓친 거 아니야? 전 배 타고 갔나? (이러저리 둘러보는)  
승탁(E) (나이 든 목소리) 옛날에 들은 건데, 진짜 저 강 건너면 기억을 다 잊나요?

연주, 승탁임을 직감하고 돌아보면 조금 떨어진 데에 후배 사자와 노년의 승탁 서 있고, 승탁만큼 나이가 든 승희도 그 옆에 있는.

후배 사자 어? 어떻게 알지?  
승희 진짜 당신 말이 맞나봐?  
승탁 내가 허튼소리 하는 거 봤어?  
승희 다행이네, 당신 말대로 돌이 손 꼭 잡고 탔다가 같이 내리면 되겠어. 우린 진짜 생을 넘어서는 운명인가 봐.  
승탁 운명인 걸 이제 알았어? (행복해 보이고)  
연주 (허망한 눈으로 보는)

#### #46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낮)

시간 경과.  
나룻배가 건너편에 닿을 때까지 지켜보는 연주의 모습.  
승탁 먼저 배에서 내리고. 이어 승희 내리려 하자 잡아주려 손 내미는 승탁.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지려는 찰나, 새빨개진 눈으로 이를 지켜보는 연주의 표정.  
이때 갑자기 뒤에서 연주의 두 눈을 가리는 손, 저승사자고.

## #47 변화가 일대(낮)

도심 한복판, 연주의 두 눈을 손으로 가린 상태 그대로 저승사자와 연주 나타나는.

연주 (저승사자 손 떼어내고) 뭐야! (돌아보고선) 사자님? (주변 보며) 갑자기 이승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저승사자 나도 몰라. 한 번도 안 보이던 니 미래가 갑자기 보여서는. 니가 아직 완전한 저승사람은 아니라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안 가볼 수도...

연주 (O.L)호어영. (참았던 거 터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저승사자 (당황스럽고) 야, 뭘 또 그렇게 울고 그래?

연주 (중간중간 우느라 끊기며)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하필 왜 그때 눈을, 간신히, 내가 끝까지 보려고... (목 놓아 우는)

저승사자 (난감하고)

## #48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낮)

나무 밑에 혼자 앉아 있는 연주, 이어 연주 옆에 다가오는 저승사자고.

저승사자 아직도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연주 (쳐다도 안 보고) 말 섞고 싶은 기분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저승사자 아니,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 댄에는 너 도와준다고...

연주 (화나서 보며) 도와요? 뭘요? 난 개가 운명인 줄 알고, 개가 나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그동안 쟁소한 게 어이없고 억울한데,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 정리라도 될 거 같아서 열 받는 걸 참고 보고 있었다고요. 그걸 사자님이 왜 막으시는데요!

저승사자 인지상정, 측은지심! 그러고 있는 꼴이 불쌍하고 한심해서 그랬다, 왜?

연주 (또 눈물 차오르며) 나도 알아요. 안다고요! 지금까지 헛짓한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저승사자 (괜히 미안하고) 그렇다고 다 헛짓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 녀석이 그렇게 자기 수명 딱 채워서 잘 살다 온 게 다

지금까지 버텨온 니 마음 덕분인 걸로.

연주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승탁이한테 물어봤어요?

저승사자 받는 마음이야 몰라도, 주는 마음이 그랬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니가 바란 거, 개가 힘든 세상에서 잘 견디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고, 이루어진 걸로 보이던데? 결말은 좀 달라졌어도.

연주 예예, 어련하시겠습니까.

저승사자 그래도 그렇게 분해? 왜, 그 녀석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불행했어?

연주 누가 불행했대요? 그냥, 이제 와서 보니 맥 빠져서 그런 거지.

저승사자 (나루터 쪽 보며) 야, 막배 왔다. 난 갈 테니까, 혼자 너무 땅만 파지 말고 잘 생각해봐. 승탁인가 뭔가 개가 다른 사랑을 꽃피우는 동안, 그 시간 속에 너한테 뭘가 남았는지. 어찌면 기다림 같은 건 처음부터 없어도 좋을 핑계고, 시간을 견디게 한 진짜 행복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괜히 손 한 번 들어 보이며) 간다. (가고)

연주 (혼잣말) 귀신 아니랄까 봐 매번 훈계는...

## #49 저승 강 위 / 나룻배 안(낮)

저승으로 떠나는 배 안. 다른 저승사자와 망자들 사이에 섞여 연주 있는 쪽 바라보는 저승사자. 심란한 표정이고.

저승사자 (혼잣말) 갑자기 보여서 귀찮게 하더니, 이젠 안 보여서 성가시네.

후배 사자 (불쭙 나타나) 뭐가요, 선배님?

저승사자 아, 깜짝이야! 야, 너 왜 남의 말을 엿들어?

후배 사자 들으라고 말하신 줄 알았죠. 근데 뭐가 안 보여요? (소리 낮춰) 그 짝퉁 사자?

저승사자 (괜히 찢려서) 무슨! 그런 거 말고... 미래. 웬 성가신 망자의.

## #50 저승 강 부근 / 외딴 나무 근처(밤)

살림살이를 펼쳐놓고 바닥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는 연주의 모습.

연주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보네. 다시 봐서 반가워, 저승 강의 밤아.

오늘도 넌 무섭고, 쓸쓸한데... 예쁘구나. (생각 잠긴 표정 위로)

저승사자(E) (#48에서) 잘 생각해봐. 승탁인가 뭔가 개가 다른 사랑을 꽃피우는 동안, 그 시간 속에 너한테 뭐가 남았는지. 어쩌면 기다림 같은 건 처음부터 없어도 좋을 핑계고, 시간을 건디게 한 진짜 행복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연주 행복은 무슨. 불행하지 않았다고만 했지.

몽타주.

연주의 회상.

1. 처음 장례식장에서 사자상 먹던 모습.
2. 저승사자가 가져다준 옷 입어보고 신나던 모습.
3. 길에서 저승사자와 티격태격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던 모습.
4. 다른 망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떠날 때, 흐뭇하게 미소 짓던 모습.
5. 저승사자가 연주에게 반찬을 버리듯 덜어주는 모습.
6. 별밤, 노을 등 이승의 예쁜 풍경을 바라보던 모습.

연주 (열은 미소) 행복...했나?

## #51 저승 강 위 / 나룻배 안(낮)

다음 날, 출근하는 저승사자들 탄 나룻배 안.  
구석에 앉아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

후배 사자(E) (호들갑스레) 선배님!

저승사자 (보며) 뭔데?

후배 사자 (뱃머리 쪽에서 손짓하며) 빨리 보세요.

저승사자, 다가가서 보면 나루터 쪽에 한 짐 쌓아놓고 앉아 있는 연주 모습 보이고.

저승사자 저게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정신줄을 드디어 냈지, 냈어!

## #52 저승 강 근처 / 나루터(낮)

나루터에 한 짐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 기다리는 연주.

이어 나룻배 달고, 배에서 내리는 저승사자들이 이상하게 슬쩍 보며 지나가는.

연주, 살짝 민망하려는데 거친 발걸음으로 걸어오는 저승사자 보이고.

연주 (반가운) 사자님!

저승사자 (다그치듯) 야, 너 볼 장 다 봤다 이거지? 사람들 많은 데서 아주...

연주 (O.L)됐고요. 얼른 일하시죠, 사자님?

저승사자 뭐? 어쭙, 이제 니가 일을 갖다 재촉을 다 한다? 얼른 일해야 하는 걸 아는 애가 이 짐은 다 뭐야? 일단 여기 놓고, 움직여 얼른.

연주 움직일 필요 없어요. 오늘 첫 번째 일, (손 들고) 여기 있잖아요.

저승사자 (멈칫) 너... 타려고?

연주 기억은 언제부터 없어져요? 배 타자마자 다 까먹는 건 아니죠?

저승사자 그건 아니지.

연주 그럼 짐 실는 거부터 좀 도와주세요. 누구 덕에 한 살림이라. 이왕이면 같이 타고 가서 짐 내리는 거까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혼자 들고 가진 짐이 너무 많잖아요.

## #53 저승 강 나루터 / 나룻배 안(낮)

연주 짐 실은 출발 직전의 나룻배 안, 뱃사공과 연주, 저승사자뿐이고.  
이어 뱃사공, 나룻배 출발을 알리며 노 젓는.

저승사자 (어색한) 이렇게 사람 없이 배 타본 건 나도 처음이다.

연주 사자님, 있잖아요, 미리 하면 얼굴 보기 민망해질까 봐 미웠는데 잊어먹기 전에 얼른 할게요.

저승사자 (순간 두려운, 가드 올리며 방어자세) 뭐, 뭘?

연주 (꾸벅 인사하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툭툭거리면서도 실은 엄청 잘 챙겨주신 거, 저도 알아요.

저승사자 (미심쩍고) 야, 사람은 죽을 때 가까워지면 변하는 거야. 넌 옛날

연주 옛적에 죽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이 귀신이 끝까지…! 꼭 참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제 할 말만 할게요. (다시 정중히)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승사자 (진짜 왜 이러지…? 싶고)

## #54 저승 강 건너편 / 나루터(낮)

두 사람이 탄 배가 건너편에 닿자 짐 끌면서 하선하는 연주, 모든 기억을 잊어 무심한 표정이다. 배에 남아 짐 내리는 걸 도와주는 저승사자가 연주 보는 표정 위로.

연주(E) (앞 장면에서 이어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 되게 즐거웠더라고요. 일이긴 했어도 여기저기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가보고.

## #55 저승 강 나루터 / 나룻배 안(낮)

연주 (#53 장면에서 이어지는) 일부러 반찬투정 심한 척 사자상에 있는 이 반찬, 저 반찬 버려주시고, 위장이다 뭐다 해가면서 예쁜 정장도 많이 챙겨주시고… 덕분에 살았을 때도 못 해본 길 경험하는 매순간 신나서, 가끔은 정말 승탁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까먹었다니까요?  
 저승사자 그렇게 좋았음 계속 조수 노릇하지 그랬어? 배 타지 말고.  
 연주 언제까지 반쪽 망자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내 갈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길에 승탁이가 없어도, 또 그 나름의 다른 행복이 있겠다 싶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승사자 (내심 서운하고) 말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되냐…?  
 연주 (미소 짓고)  
 저승사자 (복잡한 표정으로 보는)

## #56 저승 강 건너편 / 나루터(낮)

#54 장면에서 이어지는 상황.

연주 (저승사자 향해) 감사합니다, 저 혼자 내려도 되는데.  
 저승사자 (뻔뻔하게) 뭘? 내 짐을?  
 연주 (당황한) 그쪽 짐이에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저승사자 아니? 지금 내린 짐 싹 다 내 건데?  
 연주 (저승사자 가만히 보며) 거짓말. 어디서 귀신을 속이려고 그래요?  
 저승사자 (움짤) 야, 너 다 기억나지? (하면서도 살짝 반가운) 어?  
 연주 기억이요? 글썽, 그런 건 모르겠고 (자기 짐 챙기며) 어쨌든 그럼 이걸 내 걸로 알고, 난 내 갈 길 갑니다. 네? (돌아서려는데)  
 저승사자 (붙잡으며) 어이, 잠깐만! 어딜 가는 줄은 알아?  
 연주 (저승입주신고센터 가리키며) 저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 가야 할 길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니야. 행복한 데에 가야 할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연주 (뭘 소리야… 보는)  
 저승사자 강 건너면 다 끝인 줄 알았지? 근데 왜 끝인 거 같아도 끝이 아닐 때가 많잖아. 니 일이 그래. 너 사실 저승사자 조수였거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연주 내가요? 저승사자도 아니고, 그 조수는 뭐 하는 건데요?  
 뱃사공 사자님! 건너편에서 기다릴 건데요. 빨리 출발해야 하는데…  
 저승사자 (급하고, 연주 향해) 들었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손 내밀며) 일단 타. 이것도 인연인데, 저승사자 조수란 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자세히 설명해줄 테니까. 얼른!

미심쩍게 보는 연주와 재촉하듯 내민 손 흔드는 저승사자.  
 연주, 이내 수긍하는 미소 짓고 저승사자가 내민 손 잡으면서 두 사람 손 포개지는.  
 나룻배에 오르는 연주와 그를 잡아주며 기뻐하는 저승사자의 표정, 이어 두 사람이 함께 탄 나룻배가 떠나가는 모습으로.

끝.



혼자 하는 습작이 익숙하던 사람으로서, 업계 전문가분들과 동료 작가분들에게 창작물을 평가받는 과정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기본기가 부족한 작품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진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수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글이 상대에게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더불어 본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글이 개인 소유물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의미를 안겨주고 만족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품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고자 창작자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를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미로서의 글쓰기가 아닌, 직업으로서의 글쓰기는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갖추어나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멘토이신 김종연 감독님을 비롯하여 같은 조 멘티 작가분들, 오픈의 다른 여러 작가분들과 센터 관계자분들 모두 아낌없는 도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받은 도움에 비한다면 아직 많이 부족한 대본이지만, 이를 자양분 삼아 앞으로 더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라스트 아날로그 챔피언

문민정

---

작의

사람의 뜨거운 피는 카피할 수 없다.

링은 평등하다. 누군가가 지면, 누군가는 이긴다.  
나의 링은 어떨까, 지금까지 몇 번을 웃었고 몇 번을 울었을까.

묻고자 한다. 이 드라마를 통해.  
당신은 지금 몇 라운드에서, 웃고 있냐고.  
또한, 희망으로 위로하고자 한다.  
당신의 라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2020년, 비주류 스포츠 '복싱'의 부활을 위해 아이(Intelligence)복서가 등장한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i-Boxer는 몇십 년에 걸친 복싱 선수들과 그들의 경기 등 빅데이터를 탑재했다. 그의 주먹은 어느 순간, 파퀴아오가 되고, 알리가 되고, 콜로프킨이 되고, 그의 가드는 메이웨더가 되고, 록키가 되고, 로페즈가 된다. 이런 강력한 i-Boxer와 맞서 싸워야 하는 한 남자가 있다고 치자. 과거 미들급 세계 챔피언 경력에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였지만, 한 번의 실수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죽은 부모가 남겨준 막대한 빚, 거기다 심장판막증 때문에 쉴 새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아픈 여동생이 있는 지지리 운도 없는 불운의 복서. 그래도 사랑하는 약혼녀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데 심지어 그녀조차 납치되고 마는 남자. 자신과, 가족, 사랑, 그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남자가 i-Boxer와 죽음을 각오한 한판승, 목숨을 건 스파링을 해야 하는 것! 이 드라마는, 질 게 뺀한, 그래서 슬프고 처절하지만 그래도 링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남자, '준열' 그의 이야기인 동시에 인공지능 로봇스포츠의 첫발을 디디는 역사적 현장의 스케치이다...!

문민정  
ineedyou090@gmail.com

- 2012 •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전문반 수료  
• KBS 드라마 <드림하이2> 보조작가
- 2013 • 심산스쿨 29기 심산반 수료
- 2014 • KBS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 보조작가
- 2018 • 2018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 등장인물

### 박준열(30세, 남)

33승 무패에 빛나는 미들급 세계챔피언이다. 하지만 이제는 잊힌 스타, 과거의 영광일 뿐. 하지만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스파링이 잡힌다.

### 강석주(33세, 남)

한때는 준열과 둘도 없는 형제 사이였다. 이제는 준열의 뒤를 쫓는 사채업자. 준열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이복서와의 경기를 주선한다.

### 권지안(30세, 여)

준열의 약혼녀, 당차고 저돌적인 멋진 여자. 준열을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 임코치(47세, 남)

준열을 스타로 키웠던 전력을 가진 코치.

### 박준희(20세, 여)

준열의 여동생. 심장관막증을 앓고 있어 늘 병원 신세다.

### i-Boxer(인공지능 로봇)

복싱을 위해 탄생한 인공지능 로봇이다. 준열의 상대.

### 설팀장(30대 후반, 여)

i-Boxer를 개발한 아이컴퍼니의 팀장. 명석하고 판단이 빠르다.

---

## 줄거리

인공지능 에이아이 컴퓨터 i-Boxer와,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  
미들급 세계챔피언에 빛나는 인간 박준열 선수의 세기의 대결!  
경기를 시작하는 공이 울립니다!

땡! 스텝을 밟으며 가드를 올리는 준열의 불안한 눈동자,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한 번의 실수로 5년의 출장정지, 아버지의 사업 실패, 떠안은 빚더미. 아픈 여동생 준희. 위기 앞에서도 가족은 지켜야 했기에, 수많은 날을 전국 곳곳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연명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이제 수술만 끝나면 약혼녀 지안과 결혼해 소박하게 살리라 꿈을 꿔던 것도 잠시...! 한때는 형제였고 지금은 원수인 사채업자 석주가 찾아와 준열의 피땀이 묻은 수술비를 빼앗으며 제안한다. “동생 살리고 싶어? 그럼 경기 하나 뛰어야겠는데?”

땡! 준열을 무서운 속도로 몰아붙이며 펀치를 날리는 i-Boxer. 인간이 만든 세계 최초 인공지능 복싱 로봇...! 수천 수백 개의 복싱선수들의 경기 이력을 갖고, 백만분의 일 초의 계산과 수로 한 방의 펀치를 날리는 철인 살인귀...! i-Boxer와 맞붙었던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은 운명을 달리했고, 한 명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제, 마지막 스파링 상대! 인간 박준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올 오어 낫싱의 승부!

땡! 경기 준비 중 들려온 약혼녀 지안의 임신 소식...! 이제는 이 경기를 통해 지킬 것도, 잃을 것도 많아진 준열. 지안은, 준열의 상대가 i-Boxer임을 알게 되고, 이 경기를 막으려 석주를 찾지만, 경기를 강행해야 하는 석주는 지안을 납치하기에 이르고...! 완전히 코너로 몰린 준열. 패배는 보이지만 해야 할 싸움이다. 인생을 건 스파링이 부디 자신을 구원해주기를... 야수 같은 뜨거운 눈빛의 준열, 건조하고 차가운 눈빛의 i-Boxer. 땡땡땡! 공은 울렸다. 주먹을 휘두르며 덤비는 두 선수!!

인간과 기계, 피와 오일, 이유와 계산, 피조물과 조물주!  
그들의 한판승이 시작된다!

— 라스트 아날로그 챔피언  
문민정

## #1 도심 풍경(밤)

자막 “2020년, 서울” 떴다가 사라지면, 도심 빌딩숲의 화려한 풍경과 빛나는 네온사인들. 그 위로 내지르듯 무언가 맞고 신음하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끼어든다.

해설자(E) i-Boxer 역시 대단합니다.  
박준열 선수에게 그대로 스트레이트를 먹이는 모습…!

## #2 호텔 / 경기장 실내(밤)

눈부시게 환한 조명, 실내를 가득 채운 관중들의 귀가 찢어지는 환호성.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두 선수. 청 코너 준열과, 홍 코너 i-Boxer가 보인다. 이미 많이 얻어맞은 듯, 엉망이 된 준열의 얼굴. i-Boxer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주먹을 내지르며 준열을 압박한다.

해설자(E) i-Boxer 연속 잼을 선사하는데요. 아 박준열 선수 코가 깨진 거 같죠?

해설자2(E) 아… 이대로라면 박선수 과연 2라운드를 넘길 수 있을까요?

해설자(E) 많은 매체가 박선수 3라운드 녹다운을 예상했는데요!

준열, i-Boxer가 왼 주먹을 뺀자, 피하는데 출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순간, i-Boxer, 준열의 오른쪽으로 라이트 강편치를 때린다. 순간적으로 슬로우 걸리는 화면, 준열의 고통스러운 얼굴. 강렬한 펀치가 오갈 때마다 아찔하게 스틸되는 카메라 플래시들…!  
다시 화면 빨라지면 1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공 소리. 레퍼리 끼어들어 두 선수 사이를 가른다. 장내가 찢어져라 울리는 관중들의 함성 소리. 코너로

돌아가는 선수들.  
링 위로 의자를 올리는 남자(임코치), 숨을 헉헉 몰아쉬는 준열.  
얼굴의 홍터가 인상적인 임코치가, 마우스피스를 꺼내서 물로 적신다.

임코치 (코를 지혈하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

준열, 중압감과 압박감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표정이고, 그의 멍한 얼굴 위로 오가는 수건들, 피를 닦는 분주한 손들, 얼굴로 물을 뿌리는 손들. 하지만 준열의 눈동자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건조하고 차가운 눈동자 i-Boxer에게 고정되어 있다.

임코치 (준열의 입 안으로 물을 쏟며) 바짝 붙지 마. 레프트 던져서 사정거리 체크하고 뒤로 빠지라고. 작전 잊었어? 우린 무조건 수비로만 가는 거다. 준열아! 박준열!

준열 (물 뱉으며, 코치 보곤, 힘겹게 웃는) 귀는 아직 들려요. 코치님.

라운드걸, 3라운드 팻말을 들고 링 안을 요염하게 돌고 있다.

해설자(E) 인공지능 에이아이 컴퓨터 i-Boxer와,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 미들급 세계챔피언 인간 박준열 선수의 세기의 대결!  
이제 3라운드로 접어들습니다! 장내의 뜨거운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인데요!

해설자2(E) 정말 대단한 함성입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실황 생중계되고 있는 이번 경기! 우승 상금이 무려 600만 달러죠?

해설자(E) 그렇습니다. i-Boxer의 연승으로 인해 챌린지 매치에 상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박준열 선수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할 텐데요.

임코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열의 입에 마우스피스를 끼워준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준열. 다시, 링 중앙에 서는 i-Boxer와 준열.  
두 선수, 글러브 터치한다. 땡-!!! 3라운드를 알리는 공 소리!

해설자2(E) 자, 경기 시작합니다. 과연 인간 박준열 선수, 모두의 예상을 깨고 3라운드를 버틸 수 있을까요?

i-Boxer, 전속력으로 준열에게 붙어, 펀치를 날린다. 가드를 올리고 막아보지만 속수무책인 준열. 그때, i-Boxer의 왼쪽 옆구리가 비어 보이고, 주먹을 날리려는 준열을 가볍게 피해 준열의 턱을 강타해버리는 i-Boxer. 순간 뒤로, 흰 얼굴이 꺾이며 서서히 넘어가는 준열.

해설자(E) 아……!!! 박선수 녹다운입니까?! 박선수 일어나야 합니다!!!!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는 준열의 머리. 모든 상황이 슬로우 걸린다. 달려오는 레퍼리, 표정 변화가 전혀 없는 i-Boxer, 관중석의 놀란 사람들의 표정, 환한 조명, 카메라 플래시. 해설자들 목소리 점점 줄어들고. 장내 관중들의 목소리도 멀어지면…  
헉- 헉- 헉- 준열의 지친 숨소리만 들려온다.  
카운트를 세는 레퍼리의 목음 처리된 입 모양과 손 모양…!

레퍼리(OFF) 세븐… 식스… 파이버… 포… 쓰리…!

천천히 떨어지던 준열의 머리. 링 바닥에 털썩 닿으면…!  
그 순간 페이드아웃.  
암전 위로 강렬한 타이틀. “라스트 아날로그 챔피언”  
타이틀 사라지면, 자막. “3개월 전”

### #3 줄음쉼터 / 트럭 안(새벽)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알람 소리. 기계적으로 폰을 찾아서 끄는 손. 시계, AM 4:00, 화면 밝아지면 운전석에서 새우잠을 잤는지, 온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한 얼굴의 준열. 늘어지게 하품을 하다가…

준열 (어딘가를 보며) 알았어. 알았어. 일어났어.

그의 시선 따라가면, 백미러 거울에 달려 있는 펜던트 속 두 여자의 사진. 애인 지안과, 동생 준희다.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글러브박스를 여는 준열. 봉투 속에 뺨뺨이 들어 있는 만 원권을 확인한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똑똑…

기사1 (경상도 말씨) 박선수 일났나?! 모닝커피 한잔 때리아지~!

### #4 줄음쉼터 / 주차장(새벽)

기사들, 누구는 소변 보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누구는 컵라면 먹고 각자의 풍경들 속에 덩치가 큰 남자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 준열.

준열 형님 여기가 완전 몽치셨어, 돌덩이야.

기사1 (신음 소리 내며) 으으으…

준열 (팔 잡고) 자 스트레칭 합시다. 자 후- 내뺨어 후- 자자 살살 몸 풀고, 그렇지 하나 둘. 후-

기사1 (후- 내려가다가, 악 소리 내는) 악! 아프다!! 고만~!! 고마해라!

준열 (뇌주며) 아 우리처럼 운전 오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보약이래니까 그러네.

기사1 (점퍼 앞섶에서 담배 꺼내며) 넌 이게 보약이다 이놈아…

준열 내 장담컨대 그 구름과자가 형님 인생에 비 내리게 할 거유.

기사1 자식이 씨… 아침부터 악담은… 오늘 서울 가제? 병원빈?

준열 (좋은, 웃는) 딱 맞췄지. 2천 모으는 데 2년이 걸리네… 형님은 얼루? 흥천으로 가나?

기사1 흥천 찍고 평택으로… (지갑에서 지폐 몇 장 꺼내주며) 제수씨랑 동생 맛있는 거라도 사줘라.

준열 (말리며) 에이!! 저번에 빌린 것도 못 갚았잖아. 됐어요.

기사1 내가 예전에 니 팬이었다 아이가. 요즘 애들 말로 덕질 알제 덕질? 그거 하는 기다. (돈 찢어주고, 일어나며) 누구 라이타 없나?

꾸깃꾸깃한 만 원짜리를 보고 있는, 준열의 고맙고 미안한 얼굴 위로,

DJ(E) 밤이 가장 길고 날이 가장 짧다는 스물두 번째 절기. 동지.

## #5 도로 위 / 달리는 트럭 안(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새벽.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준열의 트럭.  
라디오에서 이어지는 디제이의 목소리.

DJ(E) 하지만,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i-Boxer가 연일 화제네요. 오기자님 3일 있었던 경기에서 맞붙은  
메이더 선수, 의식불명이라고 전해졌는데, 어떨까요?

오기자(E) 뇌 쪽으로 충격이 가해져 두 번의 대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준열, 갑갑하다는 듯 창문을 조금 내리자,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DJ(E) 그림, 그날의 경기 하이라이트로 잠시 만나보실까요?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해설자들의 목소리.  
“아 아이복서의 강력한 레프트 들어갑니다. 메이더 선수의 장기를 그대로  
복사한 모습입니다. 마치 똑같은 두 선수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핸들을 쥐고 있는 준열의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게 보인다.  
“메이더 선수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더 이상은 못 들겠다는 듯 라디오를 끄려던 준열. 그 곁에, 옆에 올려뒀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에이씨… 주우려고 몸 숙이는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

## #6 몽타주. 비

1. 다급하고 소란스러운 119 사이렌 소리와 함께, 스트레처카로 옮겨져  
이동되고 있는 여동생 준희(20대)의 모습이 보인다.

눈물범벅인 얼굴, 급하게 뛰어나온 건지 맨발인지도 모르는 지안(30세).  
하늘에서 한 방울씩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2.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서울’ 표지판 아래를 달리는 준열.  
운전석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있는 핸드폰이 살짝 보인다.

3. 응급실로 빠르게 들어가는 준희와 쫓아가는 지안의 모습.  
핸드폰을 들어 “내꺼” 전화를 걸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야속한 기계음만 흘러나온다. 흔들리는 지안의 눈동자.

4. 서서히 비가 그치고 어둠이 깔리는 조용한 동네 풍경.

5. 동네 어귀, 어딘가에 주차하는 준열의 트럭 모습.

## #7 준열의 빌라 안(밤)

빌라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준열. 비에 젖은 머리를 강아지처럼 후루룩  
털어낸다. 101호 우편함에 가득 꽂힌 고지서들을 보다가 집 문을 여는데,  
그때, 옆집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오는 집주인.

준열 (난감하고, 죄송스러운) 어… 안녕하세요.

집주인 (빨히 보는) …

준열 그… 월세는 제가 하루빨리…

집주인 (냉랭한) 됐어요, 100에 30 살면서 10개월 밀렸음 나도 할 만큼 한  
거 같네. 그만 짐 뺄게요.

준열 … 저기 아주머니.

집주인 그리고 지금 할 소린 아닌 거 같은데 그 집 아가씨 아침에 병원 실려  
갔어.

순간, 돌처럼 굳어버린 준열의 얼굴.

#8 골목길(밤)

쏟아갈이 튀어와 트럭에 올라타는 준열. 시동 걸고 급하게 후진을 넣는데 그 순간 쿵--!!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면, 트럭과 충돌한 까만색 차량에서 내리는 덩치 좋은 남자들...! 사색이 된 준열, 보닛을 열고 돈 봉투를 챙기곤 반대쪽 조수석 차량 문을 여는데, 벌써 다가온 뽀뽀머리에 강패1(이하, 창기)

창기 박준열이. 이 썬끼야. 돈 안 갖고 어딜 가려고.

강패2. 준열 운전석 쪽을 여는데 그쪽에도 실실 웃으며 서 있는 강패2. 도망칠 길은 없다. 그대로 강패2의 가슴팍을 발로 차고 비틀거리는 강패2의 갈비뼈로 순식간에 라이트! 레프트! 후! 악 소리도 못 내고 널브러진 강패2. 곧바로 전력질주하며 달아나는 준열. 강패들이 그 뒤를 맹렬히 쫓는다...!

#9 골목길 / 추격전(밤)

비 내리는 골목길을, 재빠른 속도로 달리는 준열. 빗길에 주룩 미끄러지고, 뒤돌아보면 어느새 성큼 쫓아온 강패들이 보인다. 좁은 골목길로 다시 달리는 준열. 그때, 반대쪽으로 뛰어온 창기...!! 일촉즉발의 대치...! 고향과 함께 무식하게 달려드는 창기. 준열, 창기를 양손으로 막으며 앞치락뒤치락 힘겨루기를 하던 그때...! 준열의 점퍼에서 그만 툭...! 떨어지고 마는 돈 봉투...!!

창기 !!!!  
준열 !!!!

두 사람, 본능적으로 멈춘다. 1초... 2초... 3초!! 동시에 그쪽으로 손을 뻗는데! 그 순간 지그시 돈 봉투를 밟는 구둣발...! 고갯 드는 준열, 상대를 확인하자, 미간을 찌푸린다.

석주 (소리 없는 웃음) ... 친하에 챔피언이 이거 표정이 왜 이래.

CUT TO.  
봉투를 열어서 돈을 보는 석주. 휘-익 휘파람을 분다.  
무릎이 꿇린 채 석주를 노려보고 있는 준열.

석주 인상 퍼... 니가 여기서 웃어야 프로지. 그러면... 아마추어 같잖아.  
준열 ... 그 돈은 안 돼...  
석주 (보는)  
준열 내가... 일해서 빚은 갚을 테니까...  
석주 ... 트럭 배달로? 어느 세월에?  
준열 (참담하고) ... 며칠 내로 어떻게든 다시 구해볼게.  
석주 (자르며) 준열아... 우리 같은 것들한테 오늘 내일이 어딴냐...  
준열 당장 눈앞에 캐시가 중요하지.  
강패3 야...!! 강석주...!!!!  
준열 (준열을 퍽, 발로 차는) 이 썬끼지 없는 새끼가.

덤벼들려는 준열의 어깨를 누르는 창기. 놔!!! 소리치는 준열인데.

석주 니 아버지가 진 빚이 무려 5억이지? ... 이깟 걸론 티도 안 나고...  
준열 (어이없고, 충혈된 눈) 우리 아버지가 진 빚은 고작 1억이었지.  
3년 사이에 5억이 된 거고.  
석주 (표정, 순식간에 싸늘해지며) 이 새끼가 또 탄소리하네. 최사장한테 빌린 돈 1억. 3년 동안의 이자. 내가 대신 받으러 다니는 수입료...  
준열 매번 설명해야 해?  
석주 (노려보는) ...  
준열 니가 우리 사일 아직도 형 동생으로 생각하나 보다. 그러니까 똥오줌을 못 가리지.  
준열 (지지 않고 보고) ...

짧은 플래시백.  
옛된 준열과 석주가 링에 앉아,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현재.  
서로를 길게 노려보고 있는 두 남자.

석주 (뻘히 보다가) 준열아. 그냥 빌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차갑게, 뒤도는 석주. 준열, 모멸감에 일그러진 얼굴로 빌듯이 애원한다.

준열 알겠어...! 알겠으니까...!!! 제발... 그 돈만은... 안 돼...  
석주 (무시하고 가는데)  
준열 ... 준희... 살려야 해...!!

순간, 멈칫. 속을 알 수 없는, 애매한 표정의 석주.

준열 ... 동생 수술비야...  
석주 ...  
준열 (형형한 눈빛) ... 제발...

그제야 돌아보는 석주. 처참한 준열의 얼굴을 본다.

석주 그럼... 너 내가 시키는 거 하나 할래?

## #10 병원 / 복도(밤)

피로감에 억눌린 얼굴. 느릿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던 준열.  
귓가를 웅성웅성하던 소리, 점점 명료해지면,

지안(E) 왜 대답을 못 해! 돈 때문에 보호자니 동의서니 시간 끄는 거냐고!

준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면, 간호사 둘과 서 있는 지안 보이는.

간호사 (난감한) ... 아니... 정기검진비도 아직 미납 상태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술비도 미리 처리해주셔야...

지안 (자르고, 터지는) 일단 사람부터 살려요! 그 뒤에 도둑질을 해서라도 수술비 내면 될 거 아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잖아!!

간호사2 일단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규정이 있는데 다짜고짜 이러시면...  
지안 규정? 왜 돈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부끄럽나?

준열, 갑갑한 마른세수를 하다가,  
이내 빠른 발걸음으로 다가가 소리치는 지안의 팔을 붙잡는다.

지안 이거 봐봐!! (하며 보는데)  
준열 (가라앉은) 제가 보호잡니다. 동의서 주세요.

준열을 본 순간, 눈물이 그렇그렇해지는 지안.  
준열, 다 괜찮다는 눈빛으로 지안을 본다.  
화난 간호사 동의서를 팩 내밀며,

간호사 수술비 준비하시고 사인하세요.

생하니 가는 간호사. 지안, 저걸 확!! 쫓아가려는데 막는 준열.

준열 ... 잠깐만...

준열, 맨발인 채로 엉망인 지안의 두 발을 본다.  
소매로 지안의 발을 삭삭 닦아, 자신의 신발을 신겨주는.

준열 놀랐지...? ...  
지안 (울컥하는) ... 비는 왜 맞고 다녀... 감기 들게.  
준열 내가 미안해... 늦었어...

짴하게 준열을 바라보는 지안. 준열, 고갯 들기 전 표정을 수습한다.

준열 (애써 웃으며) 준희는...?

## #11 병원 / 중환자실 앞(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준혁이 보인다.

의사(E)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판막이 경화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내 수술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어요.

절망감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서 있는 준열. 붉어진 눈가...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에 쿵... 쿵... 유리창에 머리를 박는다.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준열.

준열 (전화) ... 내가 뭘 하면 되지?

## #12 복싱 경기장 + i-Boxer 몽타주(밤)

텅 비어 을싸년스럽기까지 한 복싱 경기장.  
관객석 어디쯤, 석주와 준열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석주 갖고 와.  
장기 (다가와 태블릿PC를 내민다)  
석주 (받아선) 장기 살려서 경기 하나 뛰자.  
준열 ... 출장정지 당한 거 알 텐데.  
석주 손은 좀 써야겠지만 대한민국에 어디 돈 없이 안 되는 게 있냐?  
준열 ... 상대 선수는?  
석주 (태블릿PC 건네주는)

인터컷.  
태블릿PC 화면.  
사람하고 똑 닮았지만, 어딘가 표정이 없고 차가운 i-Boxer가 링 위에서 몸을 푸는 모습. 뒤이어 스트레이트, 잭, 어퍼, 훅의 동작을 선보이는 아이복서. 동작이 교과서처럼 명확하다. 그 위로 석주의 목소리.

석주(E) 너도 알지? i-Boxer라고. 인공지능 복서 로봇.

인터컷.  
여러 가지의 동작들을 선보이는 i-Boxer. 무하마드 알리, 슈거 레이, 파퀴아오, 맥그리거, 록키, 타이슨... 그들의 전성기 시절 펀치 모습들이 겹쳐지며 한 장면씩 지나간다.

석주(E) 고 작은 대가리에 수백 수천 개 복싱선수들 경기 데이터가 다 들어있단 소린데... 요놈이 알리도 되고 타이슨도 되고 그런 거지.

인터컷.  
i-Boxer, 몸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전선. 키, 몸무게, 체력 등이 나타난다.

석주 봐서 알겠지만 i-Boxer 저게 너랑 체급이 같아. 미들급.  
준열 근데 상대 선수들이 줄줄이 죽어나가서 재량 붙을 사이즈가 없네?  
(기막힌) ... 제정신이야?

석주, 태연하게 의자에 기대앉아 앞만 보며,

석주 챌린지 상금이 차포 떼고 600만 불. 참가만 해도 다섯 장.  
준열 !!!  
석주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준혁도 살리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준열 (지그시 이를 악무는) ...  
석주 (쓴웃음, 비아냥) 왜... 흑시... 죽는 게 무서워?

석주, 품 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석주 그럼 없던 일로 하고... 목숨보다 돈이 필요한 줄 알았지.

잠깐의 침묵. 결단을 요구하는 석주의 눈빛.  
일그러지는 준열의 표정. 짧게 플래시 되는 기억들.



1. “24시간 내 수술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어요.” 의사의 목소리.
2. 간호사에게 소리치던 맨발의 지안의 모습.
3.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준열.

입술을 잘근 깨문다. 뭘 해야 하는지 아는 눈빛으로 변하는 준열.

준열 (자조적인) … 설마… 사는 게 지옥인데 죽는 게 무서울 리가…  
없잖아?

듣고 싶었던 대답이다. 일어서는 석주.

석주 (그럼 그렇지 싶은 얼굴로 웃는) 그래… 그래야지.

준열 (보는) …

석주 (박수 딱 치며, 가는) 경기까지 남은 시간 세 달.  
열심히 뛰어라 준열아. 혹시 아냐. 운이 좋아 살지도?  
(창기에게) 입금해줘 병원비 2천.

만족스럽게, 준열에게 등을 돌리는 석주. 그때.

준열(E) 아니! 2천에 1억 더!

석주 (멈칫하는) ?!

준열 (눈빛, 점점 단호해지며) 배당금에서 빚 제외한 금액, 1억.  
(이 악물고) 우리 아버지 목숨값 1억…!!!! 그 돈까지 입금해.  
그럼 운이 나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경기. 열심히 뛰어보지.

석주 !! 야 박준열!

준열 그래! 강석주!!!!

석주 !!

준열 어차피 링 위에서 내가 죽으면 배당금은 전부 니 몫이 되겠지!  
웃기지 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석주 (당황스러운 실소) … 야… 니가 대가될 다 굴리고.

준열 자존심을 버리니까 다른 게 보이네.

석주 (눈가가 찌푸러지며) 너 말고도 선수는 많아.

준열 (지지 않고) 난 널 알아. 그렇담 날 안 찾아왔겠지.

팽팽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남자. 손에서 지끈 담배를 부러뜨리는 석주.

석주 (당황이 수습된 얼굴로) … 넌 꼭 문제를 만들더라.

준열, 일어서서 석주에게 다가간다. 단호해진 얼굴로.

준열 문제는 해결하면 돼… 답은 알고 있잖아?

잠깐 노려보던 두 남자. 석주, 준열이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감한다.

석주 (창기 보며) 원하는 대로 입금해줘. (준열에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장르 막장으로 던한 건 너다. 준열아.

## #13 도로가(새벽)

텅 빈, 새벽 거리를 걷고 있는 준열. 그 위로 이어지는 석주의 목소리.

석주(E) 넌 이제 이 경기를 해도 죽고, 안 해도 내 손에 죽어.  
무슨 말인지 알지?

지키고 있던 단호함은 무너지고 두려운 표정이 되는 준열.  
쓰고 있던 캡 모자를 더 꼭 눌러써, 표정을 가린다.

석주(E) 서둘러라. 방심하다 그때처럼 또 다 뺏기지 말고.

빠-앙 도로에서 무질서하게 들려오는 클랙스 소리.  
그 소리와 뒤섞여 팽팽-! 어디선가 경기를 시작하는 공 소리 끼어든다.



## #14 준열의 회상. 경기장(3년 전)

링 위에서 땀범벅인 준열과 상대 선수, 준열 상대 선수를 밀어붙이고 그의 얼굴 위로 펀치를 한 번씩 날릴 때마다 짧게 끊어지는 암전. 고속으로 보인다.

해설자(E) 박준열 선수의 코너에선 이미 승리를 확실시한 분위기네요.

준열, 상대 선수를 끝도 없이 압박하고 이미 압도적으로 준열의 승리가 예상되는 분위기. 상대 선수 비틀거리며 녹다운만은 피하고 있다.

해설자(E) 관중들의 함성 또한 박선수의 승리를 예감합니다…!!

땡땡땡-!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공 소리가 들리고, 우승을 직감한 준열이 손을 번쩍 드는데…!

해설자(E) 챔피언십 대결 13라운드 종료됐구요, 이제 곧 점수표가 합산되어 나옵니다…! 다수결에 의한 승자는…! 아…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의 예상을 깬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입니다…! 전~홍~원 선수…!!!

준열, 흥분해서 항의를 하던 그 순간 준열이 “말리지 마!!!” 하며 뺨은 손등에 얼굴을 맞고 마는 심판…!!! 사고다…!! 놀란 사람들. 코피가 터지는 심판. 흥분한 준열을 끌어내는 코치진들…! 그 이수라장의 현장에서 스톱모션 걸리는.

## #15 아이컴퍼니 / 회의실(오전)

화면에 떠 있는 준열의 억울한 표정.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설팀장(여)이 회의장 위로 걸어 나온다.

설팀장 박준열 선수. 자존심 있고, 승부욕 있고, 젊고, 잘생겼고, 한때 사랑받았던 금메달리스트, 미들급 챔피언인데. 판정패 인정 못 하고

항의하다가 심판 때리고 5년 출장정지 받았어요. 선수 생활 사망선고 받은 거죠. (화면에 떠 있는 준열의 얼굴 보곤, 웃는) 캐릭터 좋죠? 대중의 관심은 쏠릴 거고, 흥행은 보나마나 뭐. (뻘하단 듯 웃는)

임원진들(4~5명), 서류를 넘겨보며 설팀장의 말을 듣는다.

설팀장 어차피 현재의 i-Boxer는 프로토타입일 뿐입니다. 실제 선수들과의 경기 후, 오류와 버그를 체크해, 단점 개선 후 등장할 i-Boxer X가 진짜! 인공지능 스포츠의 시작이죠.

임원진들, 설팀장의 계획이 맘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는다.

설팀장 그런데 지금 i-Boxer를 퇴장시킨다면? 과학계의 대발견이 아니라, 그저 살인극의 서커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미디어도 언론도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있고… 우리에겐 i-Boxer의 마지막 경기를 빛나게 해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요. (박수 탁 치는) 박준열 선수를 마지막 파이트로 지정하고, 배당금을 두 배로 올려서 분위기 한번 바꾸죠.

임원 다 좋긴 한데… 거… 선수 생활 사망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경진데 박준열 선수가 쉽게 하겠어요?

설팀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터컷.

준열의 집에서 인부들 손으로 실려 나가는 오래되고 초라한 가구들.  
준열의 가족사진과, 먼지 쌓인 트로피, 챔피언 벨트도 옮겨진다.

설팀장(E) 부친이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죽는 바람에 빚을 다 박준열 선수가 끌어안았어요.

인터컷.

터벅터벅 걸어오던 준열의 발걸음이 서서히 멈춘다. 집 앞, 김장 비닐봉투에 덮인 채 쓰레기처럼 버려진 준열 가족의 이삿짐들.

선티장(E) 복싱을 못 하니 돈 벌 길도 막막한데.

인터넷.

짐을 정리하는 준열, 박스를 드는데 아래로 쏟아지는 내용물들.

하... 주저앉았다가 다시 정리하면, 준희의 각종 검사비와, 병원 영수증, 고지서 등이다. 보다가 고갤 폭 숙이는 준열.

준열 (제 처지가 안타까워, 눈가 붉어지고) ...

선티장(E) 아픈 여동생까지 족쇄투성이거든요.

### #16 준열의 빌라 앞(오전)

쓰레기봉투에 싸인 준열 가족의 짐들.

그리고 그 어딘가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챔피언 벨트.

후, 숨 한 번 내쉬고 뒤돌아가는 준열. 그러다, 한 번 돌아본다.

선티장(E) 아마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거예요.

CUT TO.

언덕길을 내려가는 준열의 뒷모습. 그의 손에 챔피언 벨트가 들려 있다.

### #17 병원 / 중환자실 앞(오전)

의자에서 부스스 깨어나는 지안. 준열이 왔다 간 걸까.

어깨에 준열의 점퍼가 덮여져 있다.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는 지안.

지안 저기... 박준희 환자는...

간호사 (차트 보더니) 오후에 수술 스케줄 잡혀 있네요.

지안 수술요...?

간호사 병원비 완납 처리됐어요. (가는)

어딘가 불안함이 스치는 지안의 얼굴. 뒤돌아보지만, 복도 어디에도 준열의 모습은 없다.

지안 (톡 튀어나오듯) ... 준열아...

### #18 거리 + 커피숍(오전)

커피숍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임코치(40대, 남).

화가 난 얼굴로 두리번두리번 누군가를 찾다가, 순간, 탁 내려앉는 표정. 그의 시선 따라가면, 능청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준열이 보인다.

CUT TO.

시간이 조금 흐른 듯... 테이블 위, 식은 두 잔의 커피.

임코치 (단호) 안 된다.

준열 ...

임코치 석주 그 새끼 짓이나? (일어나는) 내 이 자식을 그냥...!

준열 (붙잡는) 코치님...

임코치 (준열 보다가, 화 가라앉히고, 후. 답답한) 야 이 새끼야!!! 죽으러 올라가는 링이야! 스포츠가 아니라 쇼라고! 뉴스 못 봤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중태야! 그 경기는 나가선 안 돼!

준열 (보는) ...

임코치 (단호한) 너 힘든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래도 이걸 아니야!

준열아 그냥 이번 경기는 포기하고...

준열 (말 자르며) 아뇨, 코치님... 저요. (점점 단호해지며) 지금까지 목숨 안 걸고 경기 뛰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임코치 (설득하려는) 박준열...!

준열 이번에도 똑같아요. 저한테... 경기가 잡혔고 이기려고... 도망치지 않으려고...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임코치 (더 듣지 않겠다는 듯 벌떡 일어서는) !!

준열 (점점 더 세계. 힘주어) 때린 만큼 득점하고, 맞은 만큼 실점한다. 상대가 하날 주면, 넌 돌을 쥐라...! 녹다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위험을 감수해라, 죽을 각오로 덤벼야 이긴다! 코치님 말씀 전부 새겼습니다. 열다섯부터 지금까지요.  
입코치 (답답, 버럭) 준열아 줘!

그때 준열의 폰에 문자 들어온다.

인서트.  
“준희 수술 시작해, 빨리 와.”

준열 코치님은 저한테, 포기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결연하게 보다가, 꾸벅, 인사하고 나가는 준열.

## #19 병원 / 수술실(오후)

바이오그래프의 소리와 함께, 보이는 수술대 위 준희의 모습.  
의사와 간호사, 여럿,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 #20 거리 / 석주 차 안(오후)

뒷좌석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던 석주. 그때 차에 올라타는 창기.

창기 박준희 수술 끝났습니다.

## #21 병원 로비 + 계단(오후)

달려 들어오는 준열,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가 곧장 비상구로 뚫다.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가는 준열. 새어 나오는 눈물.  
인생의 벼랑에서 실낱같은 희망이 스친다.

의사(E) 아직 경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구요.

## #22 병원 / 중환자실 앞(밤)

유리창 너머로 누워 있는 준희의 모습이 보인다.

의사(E) 중환자실 계시니까 의식 회복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지안과 준열.

지안 내가 우리 준희는 강해서 잘 버틸 거라 했지?  
준열 ... 고마워...  
지안 그 말은, 준희 일어나면 준희한테 하자.  
준열 (고맙게 보다가) ... 병원비 말아야... 왜 안 물어봐?  
지안 말할 때 되면 하겠지. 지금처럼.  
준열 (지안, 손잡으며) ... 나 징계 풀렸어. 코치님도 뵙고 왔고...  
곧 경기 하나 땔 거야.

순간 멈칫하는 지안. 예상은 했지만, 떨어오는 그녀의 눈빛.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준열을 본다.

지안 (남의 말 하듯) ... 준희 살려서 다행인데... 무섭네 난...  
준열 ...  
지안 그래도... 갈 거지?

준열, 무거운 얼굴로 지안을 보다가, 잡았던 그녀의 손을 꼭 쥔다.

준열 (힘 빼고, 피식 웃는) 가야지... 나한테 지금 복싱은 생계고...  
가족이니까...

가만히 한숨을 내쉬는 지안. 굳은살이 박인, 거친 준열의 손을 본다.  
이내, 결심한 듯 마음을 다잡은 표정.

지안 그럼... 준열아... 지켜. 전부.

준열 ...!!

준열, 지안이 하는 말이,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다.  
준혁을 보고, 그 창에 비친 지안을 본다. 그런 준열의 얼굴 위로.

해설자(E) 미들급 세계챔피언에 도전하는 박준열 선수 등장합니다.

### #23 임코치 연습장(밤)

TV를 통해, 준열의 예전 경기를 돌려보고 있는 임코치.

해설자(E) 라이트, 레프트 다시 빠져나가는 닐슨...!  
절대로 챔피언 자릴 뺏기지 않겠다는 방어를 펼치는데요...!

화면. 준열이 닐슨(20대, 흑인)에게 반격하며, 어퍼컷 날리는 장면.

해설자(E) 박선수, 반격합니다, 아~!!!! 강렬한 왼손 어퍼컷!!!  
여러분~~!!!! 미들급 세계챔피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환호하는 임코치에게 달려와 안기는 준열이 보이고, 화면 멈추는 임코치.  
벽에 걸린 준열과 석주, 임코치의 즐거운 한때의 사진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그날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결단을 내리는 표정의 임코치.

### #24 서울 전경(아침)

도시, 곳곳,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다.

CUT TO.  
새도복싱을 하며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준열,  
점점 더 빨라지는 준열의 다리.

### #25 임코치 연습장(아침)

허름하지만 나를 갖춰질 건 다 갖춰진 임코치의 복싱 연습장.  
들어오는 준열, 습관처럼 가방 내리고, 청소를 시작한다.  
뒤이어, 들어오다 멈칫하는 임코치.

### #26 임코치 연습장 / 임코치 방(오전)

임코치 앞에 고개 숙인 준열.

임코치 니가 내 말을 잘 들어? 지랄하네...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새끼...  
준열 ... 죄송합니다.

잠시의 침묵. 임코치, 준열을 본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놈이다.  
자신이 키워서 더 잘 안다. 천천히 준열을 바라보던 임코치, 순간 재빠른  
젖을 날린다. 준열 코앞에서 멈춰 있는 임코치의 주먹.  
두 남자의... 숨소리. 흔들리지 않는 준열의 눈빛.

임코치 여기까지만 지키고 살자고... 그랬었다.  
준열 ...

두 남자, 임코치가 뺨은 팔만큼의 공간을 본다.

임코치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 준열아. (주먹 걷어내며 웃는)  
준열 (서글픈 웃음이 나온다)  
임코치 그래, 니 인생 몇 라운드진 나도 모르겠고. 한 방을 날릴 수 있을지,  
아님, 녹다운될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준열 ...

임코치 내가 아는 건, 니가 뛰는 링 밑엔 언제나 내가 있단 거야.  
나 너 죽게 안 내버려둔다.

준열 (고맙고) 저 쉽게 안 죽습니다. 코치님...!

짙하게 서로를 보고 있던 것도 잠시.  
결의를 다지듯 글러브를 준열에게 딱 던지는 임코치.

임코치 그럼 목숨 걸고 뛰어야지! 올라와 임마!

CUT TO.

미트를 끼고 방어하는 임코치, 글러브를 낀 준열 스텝을 밟으며, 펀치, 위빙, 더킹을 빠르게 반복한다.

임코치 펀치 날리면서 뒤로 물러서고, (다시 팡) 호흡해 호흡!  
(다시 팡, 팡, 팡) 후! 후! 퍽 붙여 이 자식아! 다시!!  
(다시, 빠르게 오고 가는 미트 위 글러브) 스텝 계속 밟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준열, 미트를 치고, 임코치 밑으로 피하고, 한두 번 해본 숨씨가 아닌  
팀워크를 보여주는 두 사람. 헉... 헉... 거친 두 남자의 숨소리.

임코치 (부딪치고) 니 특기가 왼손인 건 누구나 알고 있어!!!

거친 숨을 헉헉... 야수 같은 눈동자의 준열. 얼굴에서 비 오듯 땀이  
쏟아진다.

임코치 이제 왼손은 잊어버려! 오른손에 온 힘을 실어서 치라고!!

CUT TO.

스피드볼 앞에 서 있는 준열과 임코치.

임코치 호흡을 바꿔 새끼야!!! 몸에 리듬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준열, 스피드볼을 친다. 서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발로 스텝을 밟는다.

임코치 지금까지의 박준열은 니 대가리에서 지워! 이제부터의 박준열을

새기라고!!! 잊지 마! 이 경기에서 니가 살아남는 방법은 니  
오른손이다!

준열, 집중한다. 턱을 가슴께에 붙이고, 주먹을 내민다.  
점점 더 빨라진다. 가속도가 붙는 스피드볼. 그 위로 선행되는 음악.

## #27 연습 몽타주(여러 날들)

음악과 함께 보이는 여러 날들.

### 1. 연습장

샌드백을 좌우로 흔드는 임코치, 준열 위빙을 타며 좌우로 스텝을 밟는다.  
임코치 뒤로 간헐적으로 보이는 석주와 임코치, 준열의 사진.

임코치 (순간, 샌드백 밀고, 부딪치는 준열) 어딜 봐 이 새끼야!! 여길  
봐야지!!!! 균형 잡고!! 계속 돌면서!! 가까이 다가와!

준열, 집중하려 노력하고, 임코치 샌드백 좌우로 흔들어 밀고,  
피하는 데 여념이 없는 준열, 제대로 펀치 한 번을 못 날리고 있다...!

임코치 (밀어붙이며) 집중 안 해!!!! 박준열!!!!

가드 올리고, 피하고, 숙이고, 다시 한 번 가드...! 팡, 고갯 속이는 준열.  
그대로 화면 튀면...! 경기장이다.

### 2. 준열의 회상. 경기장

라운드걸, 6라운드 팻말을 들고 돌고 있다. 부어오른 준열의 눈두덩이...  
그의 시선을 따라가면, 반대편에 서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선수...  
다름 아닌 얼굴이 영망이 된 석주다. 서로 바라보는 두 사람, 석주, 힘겹게  
윙크를 날린다. 피식 웃음이 터지는 준열인데, 아파서 찡그려지는 얼굴.  
땡-!!! 공이 다시 울리고 링 중앙에서 만나는 두 남자!

석주 (편치 날리며) 이제 안 봐준다.  
준열 (피하며) 누가 할 소릴.

석주, 준열의 몸과 얼굴로 맹공격을 퍼붓는다.  
차분히 가드를 올리고 빈틈을 기다리는 준열. 그 순간…! 석주의 스텝이 꼬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왼손 편치를 석주의 배에 내리꽂는 준열…! 억 하며 몸이 굽혀지는 석주를 향해 그대로 라이트…! 레프트…!! 충격에 비틀거리던 석주의 턱을 향해 한 방을 선사하는 준열…! 일순간 장내의 엄청난 환호성…!!! 그런데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 눈을 감고 고요하게 앉아 있는 아이복서가 보인다. 서서히 그래픽이 깨지듯이, 사라지는 사람들.

### 3. 아이컴퍼니 / 체력단련실

머리에 각종 선을 이은 i-Boxer가 눈을 뜬다.  
두 개의 화면 중 한 화면엔, 준열과 석주의 경기 장면이 재생되고 있다. 무표정하게 데이터를 수집 중인 것 같은 i-Boxer의 눈동자.

해설자(E) 아! 차석주 선수!! 박준열 선수의 장기인 레프트 편치로 무너지는 거 같은데요! 이제 승패는 박준열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 4. 준열의 회상. 경기장

로프에 기대서 헉헉…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석주.  
가드가 완전히 내려간 채로 스탠드 다운이 되기 일보직전이다.  
그의 마우스피스에서 처절하게 똑똑 떨어지는 피.  
석주,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주먹을 준열에게 휘두르는데,  
허공에서 떠돌던 그 주먹은 방향을 잃고 크게 휘청하는 석주.

준열 (차마, 더 치지 못하고 보고 있는) …!!!!  
해설자(E) 박준열 선수 피니시 편치를 날려야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관객들 야유 섞인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순간 무릎을 꿇은 채 링 바닥으로 쓰러지는 석주.

그를 붙잡기라도 하겠다는 듯 양손을 뻗던 준열,  
결심한 듯 마우스피스를 튼, 뱉어내곤 다운된 석주 옆에 털썩 주저앉는다.  
순간 다들 병- 찐 분위기. 조용해지는 장내… 달려오는 레퍼리…!!

준열 (거친 숨을 토하며, 누운 석주를 내려다보는) … 편하냐?

### 5. 아이컴퍼니 / 체력단련실

데이터 연산을 하는 중인지, 감은 아이복서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션이 보인다.

### 6. 회상. 경기장

석주, 초점을 잃은 것 같은 동태 같은 눈동자로 준열을 본다.  
그 순간 달려온 레프리, 석주의 얼굴에 대고 카운트를 센다.  
먼 곳에서 이명처럼 들려오는 카운트 소리… 원… 투… 쓰리… 포…

준열 (헉… 헉) … 시발… 못 일어나면 이제 내가 형이다.

석주, 서서히, 눈동자가 다시 뜨거워진다. 정신을 차리려는 표정.  
입에 문 마우스피스를 튼, 뱉어내며…

석주 (헉헉 숨을 몰아쉬다가, 피식 쪼개며) … 까고 있네… 이 새끼가… 나… 일어나면 너 죽는다… 알지?

준열 (픽 웃는) … 입은 아직 살아 있네.

### 7. 아이컴퍼니 / 체력단련실

감은 i-Boxer의 눈동자가 빠르게! 아주 빠르게 움직이다가 순간 빼이-- 경고의 소리와 함께 화면에 잡히는 “Err: Data not found”  
순간, i-Boxer의 얼굴에 “?”가 뜬 것 같기도 하다.

### 8. 회상. 경기장

레퍼리 세븐… 에이… 나인…!!!! 텐을 외치기 직전에 불굴의 힘으로  
일어서는 석주와 준열…!!!! 와아아-!!!!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의

강렬한 환호성! 이미 많이 지쳐 보이지만, 악으로 깡으로 덤비는 석주와 준열. 두 남자, 순간 믿기지 않을 빠른 동작으로 서로를 향해 피하지 않는 강렬한 주먹을 날린다. 석주, 의식이 희미해지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 바닥에 완전히 나자빠져 버린다. 맞은편…!! 비틀거리다가 다리에 힘을 주고 끝까지 서 있는 준열의 거친 숨소리…!!  
레프리 뛰어 들어오고, T-KO 선언한다.

해설자(E) 아! 차석주 선수 다운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승자는… (점점 작아지는)

임코치와 트레이너들 링 위로 모두 뛰어 올라온다.  
석주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지르는 준열…! 좋은 경기를 마친… 멋지게 웃고 있는 두 놈의 표정.

#### 9. 아이컴퍼니 / 체력단련실

화면 정지되면, “Err: Data not found” 문장은 사라지고 없다.  
빠르게 움직이던 눈동자도 서서히 멈췄다. 그제야 눈을 뜨면 기존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는 i-Boxer, 일어서서, 몸을 풀더니 대형 화면에 준열이 레프트 펀치를 날리는 모습과 똑같은 품새로 레프트 펀치를 날린다. 화면 멀리 떨어지면, 한 사람처럼 같은 모양새로 펀치를 뺀고 있는 i-Boxer와 화면 속 준열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 10. 연습장(밤)

거울 앞에서 새도복싱을 하고 있는 준열.  
i-Boxer와는 달리 라이트 펀치를 연습하고 있다.

#### 11. 연습장(아침)

미트를 낀 임코치와 연습 중인 준열, 글러브 낀 준열이, 미트를 팡 하고 치면 컷, 튀면서 반대쪽에 대련 선수가 들어와 있다. 실전 스파링이 진행된다. 집중하면서 상대 선수를 압박하는 준열.

## #28 임코치 연습장 앞(밤)

치킨 봉투를 들고 선 석주. 준열과 임코치가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본다.  
입가에 스치는 쓸쓸한 웃음. 문고리에 손을 올리면,

임코치(E) 강석주!

## #29 석주의 회상(5년 전 / 밤)

문 열리며 들어오는 임코치. 그의 시선으로 어색하게 서 있는 준열과 석주, 두 놈이 보인다.

임코치 연습 다 했어?  
석주 (과하게 끄덕이는) …  
임코치 (픽 웃는… 다시 가다가 멈칫, 돌아보면)  
석주 (급하게 오물거리며 입 안에 뭔가를 삼키고 있다)  
임코치 동작 그만. (쿵쿵쿵 삼거리… 치킨?  
돌 (입 안에 있는 걸 급하게 씹어대는) !!  
임코치 안 돼! 처먹지 마! 박준열! 강석주!! 니네 체급 맞춰야 해! 야! 뻔어!  
제발… 안 돼… 그럼 그냥 씹기만 해… 삼키지 마!  
돌 (꾸울꺃 삼키는) …  
임코치 야!!!!!! 이 미친놈들아!!!!!! (광분하는)

석주 도망가고, 준열 양손으로 치킨 들고 튀고, 임코치 쫓고, 세 남자의 한때.

## #30 현재. 임코치 연습실 앞(밤)

연습실 계단을 올라오는 지안. 문고리에 걸린 ‘삼거리 치킨’ 봉투를 발견한다.  
석주가 왔다 간 것을 안다. 따뜻하면서도 쓸쓸해지는 눈빛.

### #31 임코치 연습실 안(밤)

임코치와 링 위에서 스파링을 하던 준열. 천천히 헤드기어를 벗고 웃는다.  
연습실 유리문 밖, 치킨 봉투를 들고 손 흔들고 서 있는 지안.

### #32 거리(밤)

배를 통통 치며, 지안과 걷고 있는 준열.

준열 아, 진짜 배부르다... 나랑 코치님 그 집 치킨 환장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고, (하는데)  
지안 (자르며) 준열아 (불쑥) 이번 경기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준열 그래~ 어?!!!

그때, 길거리 사격장 아저씨가 “아가씨 한번 해봐요.” 하며 호객행위.

지안 그럴까요?

조잡한 사격장 총을 잡는 지안. 탕!

지안 우리 엄마 허락은 받았고 (탕) 준희는 당연히 좋아할 거야. (탕)  
보증금 500에 월세 40. (탕) 집은 작운데 주인이 도배랑 장판  
해준대. (탕) 결혼식은 안 올려도 되는데 (탕) 혼인신고는 하자.  
(탕-탕-탕)

전부 다 맞혔다. 놀란 아저씨. 싹 웃는 지안. 아저씨, 엄청나게 큰 곰돌이  
인형을 준다. 받아서, 준열 품에 꽂 안기는 지안.

지안 이걸 그냥 가지고.  
준열 (명해져 있다가) 저... 지안아.  
지안 진짜 선물은 이거. (주머니에서 건네는 사진)  
준열 (보면, 태아의 초음파 사진, 멍칫) ...

지안 병원 갔다 왔어. 8주래.  
준열 (말을 잊지 못한다, 감격의 눈물이 떨어지려 한다) ...  
지안 (따뜻하게) 이제 지켜야 할 게 늘었네...?  
준열 (지안을 끌어안는다) ...  
지안 (배에 손 올리며) 그 작은 게... 여기 있어... 우리 셋, 함께...

준열, 지안을 꼬옥 껴안는다. 그 모습에서 찰칵. 사진으로 정지되면.

### #33 도로 위 / 달리는 석주 차 안(밤)

운전석엔 창기가, 뒷좌석엔 석주가 보인다.  
준열의 그간의 행적들이 찍힌 사진들을 넘겨보는 석주.  
그러다, 준열과 지안, 두 사람 안고 있는, 그 사진에서 덮는다.

창기 (백미러로 석주 보며) ... 계속 감시할까요?

쉴쉴하게 웃는 석주. 차창을 열고, 사진을 밖으로 날려 보낸다.

석주 바람이 차다. 창기야...  
창기 ...  
석주 오늘은 어머님 방 창문 꼭 닫아드리고 이부자리 봐드려라.  
창기 ...  
석주 ... 우리도 가끔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차창을 올리는 석주. 그때, 올리는 전화벨.  
피곤하단 듯 핸드폰 내려다보다가 이내 받는다.

### #34 주차장(밤)

차에서 내리는 석주.  
옆 세단에서 내리는 여자는, 아이컴퍼니 설팀장이다.



설립장 내일 방송 나갈 거예요.  
석주 (무미건조한) 벌써? 빠르네.  
설립장 참 이거. (서류봉투 내밀며) 저희 쪽 법무팀에서 차후에 벌어진 문제 때문에, 미리 사인 받아오라고 하네요.

석주, 봉투 열어보면 “경기 중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다.  
진짜 양아치는 따로 있네… 싶은… 쓴웃음이 지어지는 석주.  
그런 그의 얼굴 위로 뉴스 시그널 음악.

### #35 뉴스 화면

뉴스 시그널 음악과 함께 화면에 등장하는 남자 아나운서(이하, 손영식).

손영식 예, 시청자 여러분. 손영식의 시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i-Boxer 쇼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i-Boxer의 무차별적인 연승 행보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그런 i-Boxer를 막으러 나온 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준열이란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 #36 석주의 사무실(밤)

석주, 양손에 깍지를 끼고, 화면을 보고 있다.  
준열의 경기 장면 하이라이트들이, 화면으로 보이며,

손영식 2010년에 데뷔해, 2012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2013년에, 미들급 세계챔피언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 #37 병원 / 대기실(밤)

보호자 대기실, 환자나 보호자들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다.  
물병에 물을 떠오던 지안, 관심 없이 지나쳐 가는데. 순간… 뭘 본 느낌이다. 멈춰서 화면을 보면 i-Boxer와 준열이 글러브를 맞댄 모습이 화면에 잡힌다.

손영식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통찰력과 집중력, 경기에 대한 간절함이, i-Boxer의 수위기에 밀리자 복싱계가 내놓은 새로운 타자인데요…! 이 두 선수의 경기 어떻게 보는지,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물병…! 지안은 없다.

### #38 임코치 연습장 / 임코치 방(밤)

TV 화면에 나오고 있는 뉴스. 예상을 못 했던 상황에 놀란 준열, 화면 반으로 갈라지면, WAC복싱 프로모터 자막과 함께 보이는 남자(40대).

프로모터 에이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가늠이 안 되는 링 안에서,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 i-Boxer… 이걸 콜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한 대 맞은 듯, 정신을 못 차리던 준열이 그제야 펄쩍 정신을 차린다…

준열 (지안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

놀라선 전화기를 꺼내, 내 사랑, 전화를 거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임코치 (놀라선, 뛰어 들어오는) 야… 준열아!

준열, 전화기를 들고 뛰어나간다.

### #39 석주 사무실(밤)

테이블 위에 징징 진동 소릴 내며 홀로 돌아가고 있는 핸드폰.  
그 뒤로 석주와 지안이 마주 보고 서 있다. 팽팽한 적막감이 가득한데…

석주 안타깝게 지안을 바라보면, 현재 지안의 얼굴에서 오버랩 되면서, 옛된 지안이 지금과 같은 표정으로,

지안 오빠 난 준열이 사랑해, 미안해.

꽃을 들고 서 있던 석주에서, 리모컨을 들고 있는 석주로. 바라보고 서 있는 지안과 석주의 얼굴 뒤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TV 소리.

손영식(E) 이렇게 화제와 논란 속에 놓인 i-Boxer의 경기. 벌써 한 명의 선수가 죽고, 다른 한 명의 선수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준열 선수가 부디 기적을 보여주길...

하는데, 딱! 화면을 끄는 석주. 갑작스러운 적막에 놓인 두 사람.

석주 ... 앓을래?

지안 (간절한) 여기서 멈춰 오빠.

석주 (가라앉은) ... 난 제안을 했고, 받아들인 건 준열이다.

지안 (맘 아픈, 배에 손 올리며) 준열이가 왜 선택했는지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오빠한테 온 거야. (담담해지려 애쓰며) 지킬 게 많아서... 잃을 게 많아서...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링에 올라가는 그 사람... 막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보내지도 못하겠다.

석주 ...

지안 (맘 아프게 보다가) 부탁할게. 오빠가 그만해줘...

석주 ...

지안 오빠 인생 이렇게 된 거 준열이 탓 아니야.

석주 (참담한, 화를 참고) ... 내 인생...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안 ...

석주 (참고, 가볍게 웃으며) 넌 왜 나만 보면 화를 내고 뭐라고 하나... 짜식이... 한 번을 안 웃어주네...

지안, 마음을 바꾸라는 듯 석주를 바라본다.

지안 (맘 아픈, 간절하게) 나 곧 엄마 된대. 남편 도움 필요하고, 우리 애기가 (배에 손 올리며) 오빠한테 삼촌이라 불렀음 좋겠어.

석주 (둥...! 숨기고) !!

지안 ... 경기 취소해줘 오빠.

석주 ... 그렇지 못 하겠다면...?

지안 준열이 팔이라도 아니, 다리라도 부러뜨리겠지. 내가... 못 할 거 같아?

석주 ... 아니... 하겠지 넌.

그때 누군가 들어오고, 지안 돌아보면, 문 막는 창기.

지안 !!

석주 그래서 못 보내겠다. 지안아.

지안 (놀란) 오빠!!

석주 임신부 안정 취해야지. 아무리 배 속이라도 아빠 맞아서 죽는 꼴을 보여줄 순 없잖나. 경기 끝날 때까지 너 여기 좀 있어라.

지안 (충격의) 오빠!!!!

그때, 석주 핸드폰 울리고. 보면 '박준열'.

석주 (받으며) 그래. 준열아. 우리 만나야지?

## #40 거리(밤)

멈칫 멈춰 서는 준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안의 비명 같은...

지안(E) 준열아!!!!

## #41 공터(밤)

석주의 멍살을 잡아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고 넘어뜨리는 준열. 이성을 잃은 것 같은 얼굴이다.

준열 (버럭) 지안이 어디 있어 이 개새끼야!!!!  
석주 어디 있는 줄 알면? 아무것도 못 지키는 천하에 등신 새끼가!  
준열 강석주 이 미친 새끼야!!!  
석주 미치지 않고서 이 세상 살 수가 있나!! 누구는 안간힘을 써도 다  
않고! 누구는 노력을 안 해도 얻는데!!!

옆치락뒤치락 넘어지고, 서로를 때리고 일어서고, 막상막하의 싸움.

준열 도대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준열의 위에 올라탄 석주. 주먹으로 실 새 없이 준열의 얼굴을 치면서,

석주 기억하냐. (퍽) 내가! 내가 너한테 그랬지…!! 준열아.

짧게 플래시백.  
회상.  
옛된 석주의 간절한 얼굴.

석주 준열아.

현재.  
코에서 피가 터져 흘러내리는 준열.

석주 (이빨 꼭 깨물고, 맘 아픈) 형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 좀 할게.

플래시백.  
회상(3년 전).  
임코치 연습장 앞, 나오는 준열을 붙잡는 석주.

석주 이번 경기 내가 나가게 해줘라.

준열 …

석주 (황설수설, 정신없는) 니 손에 가짜 김스 채우고… 코치님한테

사고였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챔피언 벨트만 따내면 이 은헨 두  
배로 세 배로 값을 테니까…!!

준열 … 형.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석주 준열아… 제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어?

무릎 꿇는 처연한 얼굴의 석주. 그런 그를 아프게 보는 준열.

현재.

울분에 차 제정신이 아닌 두 남자의 처절한 모습.

플래시백.

회상.

경기장. 준열이 챔피언 벨트를 양손에 들고 로프에 매달려 환호하고 있다.  
임코치, 링 위로 올라와 준열을 껴안고, 지안, 꽃을 들고 링 위로 올라온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는 석주. 쓸쓸히 뒤돌아 나간다.

현재.

석주 (맘 아픈, 억울한, 소리치며) 다 니 세상 같았지! 전부 가진 거  
같았지! 신에 선수! 코리아 핵주먹! 떠받들어 주니까 세상이 온통  
만만해 보였지 이 새끼야!!

준열 아무도 너한테 강패 짓 하라고 한 적 없어! 그때 도망친 건  
형이잖아!!

석주 (눈가 그렇그런한, 버럭) 아픈 우리 엄마!!!! 내 동생들!! 빌어먹을  
술꾼 아버지!! 나는 거리로 나가야만 했어! 살아야 하니까…!! 그런  
나한테 네까짓 게 강패 짓이라고 한마디로 내 인생을 정리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지 박준열 이 개자식아!!

석주, 거칠게 준열 머리를 붙잡아, 아스팔트 위에 처박는다.

석주 (고통스러운) 준열아. 내가 그 경기 올라갔잖아? 우리 엄마는 아직도  
살아 있다. 근데 넌 나한테 그 기회를 안 줬지. 그때 니가 기회를

줬다면 난 지금쯤 다르게 살고 있을 거야.

옆어진 준열의 눈에서, 아픈 눈물이 줄줄 흘러나온다.

석주      그런데!! 나는 기회를 주지. (목이 메는) 니 동생을 살리고... 니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으아악 고향과 함께 석주를 밀어내고, 그의 얼굴을 치고 올라타는 준열. 하지만 멈칫... 석주를 보는. 맘 아파 차마 내려치질 못하는.

석주      (절규하듯) 처...!!!! 치라고!!!!

부들부들 떨며 차마 주먹을 내려치지 못하는 준열. 그 순간 준열을 자빠뜨리는 석주. 피범벅인 두 사람. 치고, 또 내려친다.

석주      너랑 나랑 카테고리가 달라 보여? 난 깡패 새끼고 넌 운동선수? 준열아 착각하지 마. 너한테 있는 건 나한테도 있었어! (이 악물고... 나직하게 내뱉는) 꿈... 가족... 사랑...

준열      (맘 아프다, 우는) ...

석주      (일어나며) 이걸로 우리 계산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준열      (우는) ... 허영...

석주      ... (준열의 형 소리에 마음 미어지는) ... 준열아 거지 같고 구질구질한 꼴 우리 그만 봐야지... 부탁이니까 그냥 죽어라 링 위에서.

안주머니에서 설팀장이 건넸던 서류 꺼내는 석주.

준열의 손을 잡아 거칠게 지장을 찌는다.

가만 아프게 준열을 보다가 가버리는 석주.

준열, 이를 앙다무는데... 아픈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 #42 거리(밤)

석주, 옆구리를 붙잡고 비틀하는. 그때, 다가와 부축하는 창기.

창기      ... 괜찮으십니까.

석주      ... 따라오지 말래니까... (웃는, 장난스레) 저 자식... 주먹이 안 죽었네... 아 갈비뼈 나간 거 같은데...

창기      대체... 박준열이한테 왜 그러십니까... 굳이 최사장 사채까지 갖고 오고... 그것 땀에 형님만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석주      (서늘하게) 이제 너도 날 가르치냐.

창기      (입 다무는) ...

석주      (창기의 머리를 다정하게 툭툭 치며) 나 챔피언 때려눕혔다. 봤지?

창기      (맘 아픈, 웃어주는) ...

석주      야... 눈 오네...? 올 엄마 죽을 때도 눈 왔는데... (하늘, 아프게 보는)

## #43 임코치 연습장 / 링 위(아침)

실전 스파링이 진행 중인 링 안. 상대 선수를 압박하며 미친놈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준열. 이미, 룰도, 매너도 잊은 것 같은 그의 행동...!

#41. (E) 다 니 세상 같았지! / 그때 니가 기회를 줬다면 난 지금쯤 다르게 살고 있을 거야. / 부탁이니까 그냥 죽어라 링 위에서.

으아악-!!!! 상대 선수,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준열, 주먹을 날리려 든다. 링 안으로 뛰어 들어와 말리려는 임코치.

임코치      (버럭) 야 이 새끼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스파링을 해야지!! 니가 뒷골목 깡패 새끼야?!!!

하지만, 흥분한 준열은, 주먹을 휘두르다가 임코치의 얼굴을 친다.

억, 그대로 맞고 비명과 함께 주저앉는 임코치.

그제야, 정신이 든 것 같은 준열.

준열 (마우스피스 뱉으며) 코치님…!

준열, 링 안을 보면, 피투성이로 뺨어 있는 상대 스파링 선수와 코에서 피를 흘리는 임코치가 보인다. 자책감이 스치는 표정.

### #44 오피스텔(밤)

광광광!!! 문을 부수려 하는 지안. 아무리 발로 차도 열리지 않는 문. 지안, 이 경기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입술을 잘근 깨무는.

### #45 병원 / 중환자실(밤)

잠든 준희 옆 테이블. 1억 원이 찍혀 있는 통장. 그 위에 메모지, “비밀번호 \*\*\*\*”

### #46 오피스텔 앞(밤)

문 앞에서 서 있는 석주의 처연한 얼굴. 핸드폰 문자를 읽고 있다.

준열(E) 형 나는 살아야겠다. 우리 계산은 30년 뒤에 끝내자.  
석주 (픽 웃으며, 폰 주머니에 넣고) 황당한 새끼. 끝까지 멧있는 척은…

### #47 임코치 연습장 / 링 위(밤)

링 위에 누워 있는 준열. 지친 헉-헉 소리가 들려온다.

지안 준열아… 지켜. 전부.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는 준열. 가슴에 올린다. 결의를 다지는 표정. 눈을 감는다. 함께 압전되는 화면.

### #48 TV 화면

준열의 이전 경기 명장면들과, i-Boxer의 모습 교차 편집되며, 프로그램 오프닝 분위기가 물씬 나는, 목소리들이 끼어든다.

해설자(E) 복싱 역사상 이런 경기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미들급 세계챔피언,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 박준열 선수!  
자, 이 선수 의지 하나로 수차례 힘든 상대들을 꺾어온 전력이 있습니다!

해설자2(E) 박준열 선수와 맞붙는 i-Boxer! 인공지능 에이아이인 이 선수는 등장만으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스피드! 민첩성! 판단력!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이 시대가 바라던 선수입니다!

카메라 빠지며, 관람석의 관중들, 그리고 링을 홀다가,

### #49 호텔 경기장 / 라커룸(밤)

앉아 있는 준열, 맞은편에 선 임코치. 준열의 손에 붓대를 매주고 있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인 라커룸 안. 바깥에서 벌어지는 세상과, 이곳의 세상은 공기조차 다른 것 같다.

임코치 (힘겹게, 툭) … 준열아…

준열 … (보는)

임코치 그냥 지금이라도…

그 순간, 임코치 귀 옆으로 순식간에 스친 준열의 주먹.

준열 더는… 욕심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지키겠습니다.

임코치 !!! (준열이 내민 팔의 공간을 보는)

서로를 짠하게 바라보는 두 남자의 눈빛. 알 수 있다. 느껴진다. 지금 이 심장박동이, 뭘 지키기 위해 뛰고 있는지…!

그때, “박준열 선수. 출전 준비합니다. 경기 시작 3분 전!”

임코치      그래 임마! 박준열! 넌 파이터다! 챔피언이야! 한순간도 잊지 마라.  
준열      (끄덕인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듯 집중하는)  
임코치      … 살자 준열아!  
준열      (눈을 뜬다. 결의를 다지는 표정)

## #50 호텔 경기장(밤)

뜨거운 열기 속에 앉아 있는 관객들. 앞줄에 앉은 석주의 모습.

CUT TO.  
등장곡과 함께 걸어 나오는 준열. 사람들, 준열에게 희망찬 환호성,  
휘파람, 응원의 눈빛을 보낸다. “박준열! 박준열!” 관중들 사이에서 지안을  
찾는 준열.

해설자      자, 박준열 선수 나오고 있습니다…! 환호성이 대단한데요!  
해설자2     아 한때 박준열 선수의 테마곡 나오네요. 감동입니다…!

이번엔 i-Boxer가 등장한다.  
실제로 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 감탄의 연속이다.  
강렬하고도 낯선, 그가 풍기는 위험한 분위기.

해설자      i-Boxer가 인간하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라죠?  
해설자2     그렇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지막 싸움…!!

i-Boxer의 뒤로 들어오는 설팀장 외 기술자들, 대형 모니터 뒤로 선다.  
i-Boxer의 그래프가 떠 있다. 링 위에 각자 코너에 서는 두 선수.

임코치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 오른손이다…!  
준열      (끄덕이는데) …!!

레퍼리 달려온다. 임코치, 준열에게 마우스피스를 끼어준다.  
i-Boxer, 또한 링 중앙으로 나온다.  
두 사람, 글러브 터치. 땡-!!!! 경기 시작된다.

해설자(E)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무모한 도전! 인간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무섭게 달려드는 i-Boxer, 준열, 주먹을 뺨을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얻어맞는다. 실로 대단한 i-Boxer의 펀치력. 임코치, 코칭을 하며 소리  
지르고 설팀장, 태블릿PC를 보고 있는. 관중들의 놀라운 탄성들 끼어들고  
준열, 가까스로 i-Boxer를 피해, 레프트 던지지만 순식간에 피해버리는  
i-Boxer. 다시, 준열을 압박해오고 연속으로 코와 머리를 맞자, 비틀하는  
준열. 그 순간 1라운드를 끝내는 종소리 들려온다…!

## #51 오피스텔(밤)

땡땡땡-!! 그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툭 떨어진 현관문을 광 열고 나오는  
지안! 달린다. 준열을 향해서…!

해설자2(E)   아… 이대로라면 박선수 과연 3라운드를 넘길 수 있을까요?

## #52 프롤로그 화면. 호텔 경기장(밤)

프롤로그에 보였던 화면 이어지는데, 우리가 못 봤던 장면이 붙는다.

임코치      (준열의 입 안으로 물을 쏘며) 바짝 붙지 마. 레프트 던져서 사정거리  
체크하고 뒤로 빠지라고. 작전 잊었어? 우린 무조건 수비로만 가는  
거다. 준열아! 박준열!  
준열      (물 뱉으며, 코치 보곤, 씩 웃는) 귀는 아직 들려요. 코치님.

3라운드를 시작하는 공이 땡-!!! 울린다.

해설자2(E)   자, 경기 시작합니다. 과연 인간 박준열 선수, 모두의 예상을 깨고

3라운드를 버틸 수 있을까요?

i-Boxer, 전속력으로 준열에게 붙어, 펀치를 날린다. 가드를 올리고 막아보지만 속수무책인 준열. 그때, i-Boxer의 왼쪽 옆구리가 비어 보이고, 주먹을 날리려는 준열을 가볍게 피해 준열의 턱을 강타해버리는 i-Boxer. 순간 뒤로, 획 얼굴이 꺾이며 서서히 넘어가는 준열.

해설자(E) 아……!!!! 박선수 녹다운입니까?! 박선수 일어나야 합니다!!!!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는 준열의 머리. 레퍼리 카운트를 센다.

레퍼리(OFF) 세븐… 식스… 파이프…!

CUT TO.

관중석 어딘가. 놀란 채로 벌떡 일어서 있는 석주의 모습.

CUT TO.

병원. 눈을 번쩍 뜨는 준희. 감았다 뜯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룩.

준희 (힘겹게 발음하듯) … 오빠…

CUT TO.

시민들 몽타주. 다들 가는 길을 멈추고, 핸드폰을, 전광판을 본다. 곳곳에서 장소만 바뀔 뿐,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얼굴, 얼굴에서.

CUT TO.

택시에서 내려서 달리는 지안. 넘어진다. 그렇그렁한 눈동자로 다시 일어서서 배를 부여잡고 뒀다.

CUT TO.

#4에서 나온 트럭기서1 갓길에 차를 대고 “준열아!!!” 소리치는.

CUT TO.

#41.

석주 그런데 나는 기회를 주지. 니 동생을 살리고… 니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CUT TO.

#32.

지안 (따뜻하게) 이제 지켜야 할 게 늘었네…?

준열 (지안을 끌어안는다) …

지안 (배에 손 올리며) 그 작은 게… 여기 있어… 우리 셋, 함께…

CUT TO.

경기장. 그렇그렁해진 눈으로 굴지의 힘으로 일어서는 준열. 귀가 찢어지는 관중들의 환호성…!!! 비틀비틀하다가, 드디어 똑바로 일어서는 준열. 또다시 덤벼드는 i-Boxer…!!

해설자(E)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는 박준열 선수. 하지만 가망은 없어 보입니다!

가드를 올리고 최대한 집중하는 준열의 표정. 의지와는 달리 강렬하게 밀어붙이는 i-Boxer의 주먹을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 준열. 준열의 다른 쪽 눈에서 피가 터진다. 귀에서도 피가 흘러내린다.

해설자2(E) 도저히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박선수 포기해야 합니다…!

가드가 완전히 내려간 채로 스탠드 다운이 되기 일보직전의 준열의 모습… i-Boxer 달려든다! 무차별적으로 준열을 밀어붙이며 라이트! 레프트! 훅! 아무런 방어도 공격도 하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준열…!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임코치는 눈을 질끈 감는다. 관객조차도 얼굴을 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주먹은 쉴 새 없이 날아든다.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다운되는 준열.

임코치, 준열을 살려야 한다…! 타월을 던지려고 잡는데, 그때 링 가까이로 뛰어온 석주…!!!

석주 준열아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박준열!!!!

준열, 바닥에 널브러져 그렇그렁한 눈으로 석주를 본다.

석주 이 등신 새끼야!!! 일어나라고!!!! 난 못 했어도 넌 지켜야지!!  
넌 해야지 새끼야!!!

그 순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두 사람의 눈빛.  
그런데 일순간 공격을 멈춘 i-Boxer, 가우똥… “?” 석주와 준열을 번갈아  
보는데…  
으아악… 불굴의 힘으로 일어서는 준열…!!

해설자(E) 이게 무슨 일이죠! i-Boxer! 피니시 펀치를 날려야 하는데요!!

순간, 기술자 팀이 분주해진다. i-Boxer 쪽 코너 화면에 떠 있는 “Err: Data not found” 그때, 준열의 입에서 툭 내뱉어지는 마우스피스와 처절하게  
똑똑… 떨어지는 피… 준열, 고개를 들어 석주를 본다. 그리고… 임코치를  
본다. 관중을, 그리고 먼 곳 어딘가를 훑던 준열의 시선은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i-Boxer에게 향한다.

준열 (비틀, 하지만 힘주고) … 와라, 넌 내 승리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  
거다.

그대로, 엄청난 속도로 i-Boxer에게 달려드는 준열!  
i-Boxer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준열에게 달려든다!  
라이트 펀치 팡! 레프트 펀치 팡! 훅을 팡 연신 두들겨 맞던 그 순간…!  
준열의 입에서 퍽 하고 터지는 핏방울…! i-Boxer를 클린치하며 버티는  
준열. 순간, i-Boxer의 눈에 팡 하고 튀는 준열의 뜨거운 핏방울과 땀…!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진 0.01초의 틈…! 이때다! 준열, 주먹을 뺀다!

치고… 또 치고… 또 친다…!! 순간적 기습에 비틀하는 i-Boxer…!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다… 절대로 이대로는… 지지 않겠다…!!  
모든 염원을 담은 준열의 왼손 스트레이트…!! 그 순간, i-Boxer 화면에  
그래프들이 엉킨다. 이때다! 동시에 서로의 얼굴로 주먹을 날리는  
i-Boxer와 준열…!!! 굉장한 펀치다…! 모든 시공간이 멈춘 거 같다.  
i-Boxer, 넘어지지 않으려고 뒷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눈을 감고 연산을  
한다. 준열의 왼손 스트레이트가 눈앞에 그려진다. 그대로 같은 포즈로  
서서 왼손을 던지는 i-Boxer! 하지만 계산은 빗나간다! 준열은 지금까지  
연습했던 오른손 어퍼컷으로 i-Boxer의 얼굴을 날린다!!!  
벌떡 일어난 관중들의 굉장한 환호성, 흥분한 해설자의 목소리들.  
눈물을 흘리는 임코치. 멀어지는 모든 소리들. 뱅글뱅글 도는 조명.  
헉… 헉… 소리를 가득 메운 준열의 지친 숨소리… 저 앞, 희미하게 보이는  
i-Boxer가 뒤로 쿵 하고 넘어가자, 그제야 모든 힘이 빠진 듯, 링에 무릎을  
털썩 꿇는 준열…! 그때…

지안(E) (비명 지르듯) 준열아!!!!

고개를 돌리는 준열. 피가 흐르는 입이 벌어진다. 눈물이 흐르는지  
뿌예지는 장면 안에, 지안이 달려오는 실루엣이 흐릿하게 번진다.  
됐다… 진짜 다 끝났다… 그대로 퍽 하고 링 위로 쓰러지는 준열,  
엉망인 얼굴 안에 편안해진 표정.

## #53 호텔 경기장 / 복도(밤)

관중들의 환호성과 해설자들이 떠드는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온다.  
마치… 자신이 경기를 뛰기라도 한 것처럼 지쳐 보이는 석주의 얼굴.  
그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설팀장. 두 사람의 스킴에서.

플래시백.  
아이컴퍼니 회의실(3개월 전).  
설팀장과 마주 보고 있는 석주. 손에 들린 준열의 프로필.



석주 이 게임 한 번이면 박준열 재기 가능합니다.  
설립장 굳이… 우리 쪽에서 무리하게 이 경기 할 이유 없는데…  
석주 아니, 하셔야 할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엔딩인데, i-Boxer 이대로 퇴장시키기엔, 드라마가 부족하거든.  
설립장 (맞는 소리다, 피식 웃는) 이 경기로 당신이 얻는 건 뭐죠?

플래시백(3년 전).  
시합 끝나자마자 달려온 건지 얼굴 여기저기가 부은 준열이 다급하게 뛰어와 수납대 앞에 선다.

준열 (절박한) 여기 강석주 보호자 엄마요…!!! 수술비 여기 있어요!!  
빨리 수술시켜 달라고! 돈 갖고 왔잖아!!! 우리 형…!!! 엄마!!!  
살리라고!!!

그 모습, 저 멀리서 석주가 보고 있다. 코너에 숨는 석주, 무너지는 표정.

현재.  
복도. 설립장은 안으로, 석주는 밖으로 걸어 나간다. 그의 얼굴 위로.

석주(E)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잃지 않으려는 거지.

할 일을 마친 것 같은 후련한 그의 표정. 경기장 문 여는데.

준열 … 형…!

석주, 보면 얼굴이 엉망인 준열의 왼쪽엔 지안이, 오른쪽엔 임코치가 그를 부축하고 서 있다. 그렇그런 눈으로 석주를 보는 준열.

준열 이제… 가자… 집에… 가서… 한숨 자자. (힘겹게 웃는다)  
석주 (딩달아 그렇그런 피식) … 까고 있네… 이 새끼가…

임코치의 따뜻한 눈빛, 지안의 아픈 미소, 두 친구의 잠깐의 시선.

결국 모두는 그렇게 인생에서 지키고자 했던 것을 이룬 건 아닐까.  
그들의 등 뒤로 천천히 닫히는 경기장 문과 함께 암전…  
어두운 화면 그 위로 들려오는 소리.

“과거, 박준열 선수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절차를 밟던 i-Boxer가 드디어 i-Boxer X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제 인간은 1라운드도 건디지 못하는 죽음의 링…! i-Boxing, i-Sports 그들만의 리그로 복싱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 #54 에필로그. 경기장

소리 점점 작아지면, 땡! 공 소리와 함께 i-Boxer와 i-Boxer X가 링 위에서 맞붙는 모습이 보인다.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 틈 관중석 어딘가에서 관심 없다는 듯 일어서는 한 남자. 문을 열자 환한 빛이 새어 들어온다. 그제야 남자 얼굴이 보인다. 준열이다. 라스트 아날로그 챔피언의 강렬한 얼굴이 화면 가득 보이다가 카메라… 멀어지면… 어디선가 점점 크게 몰아치는 관중의 환성 소리… 박준열! 박준열! 박준열! 뚝! (암전)

끝.

작년 12월, 눈이 많이 내렸고 여러모로 추운 겨울이었다. 그때 쓴 작품이어서 그런지, 대본 속 캐릭터들이 추운 거리를 걷거나, 눈 내리는 하늘을 보는 씬이 더러 있다.

작품 속 세상은 결국, 작가의 세상과 닮아 있다. 그래서, 모든 대본은 작가 본연의 색과 정서로 쓰임을, 그러니 남을 흉내 낼 필요도, 내 글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신 멘토 김종연 감독님께, 깊은 애정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

덕분에, <라스트 아날로그 챔피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서를 해치지 않고 수정을 마칠 수 있었고, 작가가 가진 색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겨울에 쓴 대본으로, 봄에 당선이 되어, 사랑하는 오픈 식구들과 보낸 뜨거운 여름이 이제 지고 있다. 또다시 계절은 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쓸 테니, 부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색을 잃지 말고 쓰고 웃고 살아가길 바라본다.

# 마을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이유

김효진

---

## 작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사람에게서 얻는다.

서로 양속인 36살 두영과 7살 건!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폐차 직전의 마을버스.  
두영에게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삶의 공간,  
건에게는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인 '01번 마을버스'.  
각자 마음속 깊은 상처를 갖고 만난 두 사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원하는 두 사람의 행복 찾기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

## 등장인물

### 윤두영(36세, 남)

폭행 살인미수 전과자. 지금은 마을버스 운전기사. 큰 덩치에 투박하고 거친 인상, 욕하는 성질까지, 사람들은 두영의 과거를 알고 나면 “그럼 그렇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를 외쳐댄다. 하지만 본래 악질이어서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건 아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결혼가정,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차가운 시선과 경멸에 보태져 비수처럼 꽂혀오는 게 아파 구질구질 변호하지 않고 교도소로 도망쳤던 것뿐. 그만큼 독하지 못하고 마음 여린, 정도 많고 귀여운 구석까지 있는 남자.

### 건(7세, 남)

맞아서 터지고 멍든 얼굴, 대충 걸친 옷. 영락없는 폭력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의 꼴꼴로 마을버스를 타고 동네를 누비는 미취학 아동.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두영과 으르렁거리지만 눈치도 빠르고 씩씩해서 동네 어른들에게 안쓰러운 존재이다. 엄마의 부재와 양육자의 폭력을 잘 참고, 잘 버텨내서 일찍 철든 것 같아 보여도 부모의 관심과 정이 고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가

김효진

0324rdagywls@naver.com

- 2004 • 홍보대행사 근무(마케팅/PPL 담당) (~2006)
  - 마케팅 브랜드: 리복, HUM, 프레시니스버거
  - 드라마 PPL: 드라마 <파리의 연인>, <섬마을 선생님>, <유리화> 등
- 2006 • 출판 편집기획(학원교재/아동도서/학습만화 기획개발) (~2017)
- 2016 • KBS아카데미 드라마작가 중급과정 수료
-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필요한 보통 아이.

연희(28세, 여)

건의 엄마. 건을 미자에게 맡기곤 밤낮으로 돈 버는 일에 매달려 있다. 하루빨리 자신의 가게를 차려 건과 함께 사는 게 목표다.

미자(32세, 여)

연희의 아는 언니, 양육비를 받고 건을 돌보고 있다.

수철(38세, 남)

미자의 남편, 건을 학대하고 괴롭힌다.

그 외

최부장(50대, 남, 교도관), 김부장(50대, 남, 마을버스 회사 부장), 슈퍼 주인(60대, 여), 이주임(30세, 여), 문식(40대, 남), 서준(3세, 남), 미자와 수철의 아들 등.

---

### 줄거리

출소 후 비루하고 희망 없는 날들을 사는 36살 두영,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며 사는 7살 건.  
두 사람의 상처 치유 드라이빙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불행한 기억, 차가운 현실로부터 도망치기만 한 삶을 산 남자 두영**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두영의 엄마는 두영을 데리고 중식당을 운영하는 박사장과 재혼을 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박사장의 학대가 시작되고 두영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유년시절을 보내게 된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급우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리다 싸움에 휘말려 소년원까지 다녀오게 되는 두영. 그 후 성인이 된 뒤, 엄마의 생일날 선물을 들고 찾아간 중식당에서 박사장에게 맞는 엄마를 본 두영은 이를 말리다 박사장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고 박사장 가족의 신고로 살인미수 죄를 덮어쓰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던 두영은 출소 후 남들처럼 살아보라며 운수회사 명함을 쥐여주는 교도관의 말에 폐차 직전의 01번 마을버스 앞에 서게 되는데, 두영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낡은 01번 마을버스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이 되어준다.

그런데 그 마을버스를 자신의 친구라 주장하며 안방처럼 들락거리는 꼬마가 나타났다. 말과 행동이 거침없는 데다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른다. 무시하고 외면하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비를 걸어오는 꼬마. 피하자! 피하는 것이야말로 두영 인생의 특기이자 유일한 필살기. 그런데 못 참겠다. 너 같은 꼬마한테마저 당할 순 없다. 한바탕 퍼부어줬는데 이 꼬마, 불우한 인생 스토리가 소싯적 윤두영 못지않다. 거기다 힘들다 아프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수철에게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무식하게 버티기만 한다. 마침, 두영이 살인미수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회사와 마을에서 떠나라고 난리가 나고, 두영은 또다시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떠나는 발걸에 걸린 수철의 모진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건. 이 녀석 이대로 그냥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다. “같이 가자. 너, 내가 엄마한테 데려다줄게.”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버티는 삶을 살고 있는 아이 건**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자라면서 옆에 있던 여자 어른은 엄마의 아는 언니 미자, 남자 어른은 엄마가 양육비를 주고 간 날이면 그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악착같이 괴롭히고 때리는 미자의 남편 수철이다. 수철에게 맞은 날이면 곧장 엄마에게 달려가 차라리 고아원에 맡겨달라고 말하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맞아서 터진 입술과 멍든 얼굴을 보여주며 맞기 싫어 도망쳤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함께 살 거란다. 이런 건에게도 유일한 안식처는 있다. 곧 폐차될 01번 마을버스 영일이. 엄마와 함께 살게 되더라도 영일이랑 만큼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운전기사라며 조폭 같은 남자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건의 말을 무시하다 사고까지 내서 영일이에게 상처를 줬지만, 사람 외모 갖고 판단하지 말랬다고 생긴 건 조폭인데 하는 행동은 투박하지만 따뜻하다. 거기다 힘까지 세다. 점점 좋아지는 이 아저씨, 그런데 그럼 그렇지 이 아저씨 생긴 대로 왕년에 좀 놀았나 보다. 아니, 조금이 아니다. 살인미수 전과자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피하고 내쫓자고 난리가 났다. 하지만 건은 안다. 윤두영이란 아저씨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거. 건에게 두영이 아저씨는 이제 영일이 만큼이나 함께하고 싶은 친구가 됐다.

그들만의 유일한 안식처 폐차 직전의 01번 마을버스,  
그 마을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이유

어? 나는 원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지 않나요?

나는 마을만 운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에구구구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침이 엮어진 그 천년의 긴 세월만큼이나 난 달리고 또 달렸고, 이젠 폐차만을 남겨둔 처지인데.

어느 날 세상 험한 꼴은 혼자 다 겪은 것 같은 우중충한 얼굴의 두영과 내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과 예쁨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나를 아끼고 좋아해줬던 건이 나를 데리고 엄마 찾아 삼만리를 하시겠다. 가만두면 폐차될지도 모른다나 뭐라나? 열심히 일한 나! 겸허히 나의 운명을 받아들인 뒤 고칠로 새롭게 태어나 이 한 몸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국하려 했던만, 팔자도망은 못 한다고 했던가. 이것들이 나를 고속도로로까지 끌고 나온 것이다.

만나자마자 으르렁거리며 싸워대다 나에게 영광의 상처까지 안겨줬지만, 뭐, 그 덕분에 덩치만 컸지 마음은 아직 어리광과 상처로 가득 찬 두영과 어른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건이 둘의 상처를 알아보고 친해지는 계기를 줬으니 내가 참아야지.

이제 두영의 상처 받을 것 같으면 일단 피하고 도망부터 치는 그 버릇만 좀 고쳐지면 될 거 같은데, 이눔시키!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건의 납치범으로 오해를 받으니 또 도망치려 한다. 그것도 건이 혼자만 바닷가에 버려두고! 에라이~!! 도대체 너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니? 캉~ 마! 엉덩이를 꼭 차줄 수도 없고, 너 그렇게 계속 도망치기만 하면 네 인생의 종착지는 없단 말이다. 힘들어도 유턴하지 말고 종착점까지 가야 한다고! 뭐? 이번엔 도망 안 친다고? 건과 함께 가보겠다고? 그렇지~! 그거지!! 잠깐, 나도 함께 가자고? 인생이란 도로 위를 고속도로처럼 유턴 없이 쭉욱 달려보자고? 에휴, 그럼 어쩔 수 없지. 김부장이 폐차하러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럼, 어디 한번 달려볼까?

승객 여러분 곧이어

〈마을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이유〉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눈물샘이 약하신 분들은 손수건을 준비해주시고,

불일은 미리미리 보신 뒤 중간에 내리시거나 갈아타시는 분 없이 오라이~

— 마을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이유  
김효진

### #1 낚은 01번 마을버스 안 /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  
정적이 감도는 차 안.  
고작 2미터 남짓의 앞길만 비추는 라이트에 의지해 위태로운 표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두영(36세, 남).  
금방이라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두영의 눈빛이 보조석을  
향하면, 안전벨트에 걸쳐진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건(7세, 남)이  
보인다.

형사1(OFF) 오후에 김수철이랑 다툼이 있었다는데,  
아무래도 김수철 아들이라 생각하고 데려갔나 봅니다.

### #2 고속도로 위(밤)

부감으로 내려다보이는 어두운 고속도로.  
두영이 운전하는 마을버스가 화면으로 들어오고,  
운전석 두영의 얼굴이 풀샷으로 잡히면,

형사1(OFF) 낚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둠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을버스, 그 뒤로,

타이틀. “마을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이유”

### #3 교도소 안(새벽)

출소 준비를 마친 두영, 최부장(50대, 남)과 함께 걷고 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추고, 두영의 발 아래로 자막. “한 달 전”

최부장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주며) 얘기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가봐.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에 나가면 남들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두영 (선뜻 대답은 못 하지만 두영 역시 그러고 싶은)

### #4 교도소 밖(새벽)

문이 열리면, 검은색 스포츠색을 어깨에 걸친 두영이 나온다. 마중 나온 이  
하나 없는 험한 두영의 앞길.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는 두영.

두영 (썩쓸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제기랄.

### #5 종식당 안(낮)

짜장면 곱빼기(비벼진 것)를 순식간에 흡입하는 두영.  
배달을 다녀온 문식(40세, 남), 배달통 내려놓고 카운터 앞에 서면,  
두영, 물을 마신 뒤 일어나 카운터로 가 만 원을 낸다.  
문식, 두영이 앉았던 테이블 쓱 보곤 거스름돈 4천 원을 내어준다.

두영 (거스름돈 받으며) 이래서 장사가 돼? 간만에 먹는 나도 겨우  
먹었네.

문식 (보며 놀라고) 두영아?! 니 언제 나왔나?

CUT TO.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두영과 문식.

문식 박사장 그 새끼 언젠가 별 받을 줄 알았다. 어떤 놈이 불 질렀는지  
몰라도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아차 싶고, 눈치) 갈 데는 있고?

두영 ...  
문식 니, 내랑 같이 일 안 해볼래?

그때, 문식의 처, 커피를 놓고 가며 문식을 꼬집고, 문식 “아 왜?” 하면,

두영 빌붙을 텔 빌붙어야지... 면이나 좀 잘 삶아. 통통 붙어서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표정 바뀌고, 커피 들이켠 뒤) 얼굴  
봤으니까 갈게.

문식 사모님한테 봤나?

두영 (멈칫) ... 소스도 너무 싱겁더라. 면은 좋겠하게 소스는 찢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손 흔들고 나오며 깊은 숨)

## #6 중식당 인근 버스정류장(오후)

정류장에 앉아 있는 두영.

곧 해가 지고, 사람들의 발길 뜰해지며 밤이 깊어가는데,  
갈 곳을 정하지 못한 두영, 계속해서 버스를 보내기만 한다.

얼마 뒤, 막차인 듯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버스가 두영 앞에 멈춘다.  
버스기사, 미동도 않는 두영을 보곤 출발하려다 앞문을 열며,

기사 (두영을 향해) 막차예요.

## #7 버스 안(밤)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버스. 내내 창밖만 보던 두영, 주머니에서  
최부장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보면 운수회사 명함이다.

## #8 ○○동네 어귀(낮)

왕복 2차선을 끼고 분식집과 편의점형 슈퍼, 부동산 등 점포 몇 개가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동네. 군데군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차 두  
대가 맞잡아 겨우 지날 수 있는 도로로 마을버스 한 대가 지나간다.

## #9 미자네 분식집 앞(낮)

낡은 간판 아래로 오래된 코팅지가 붙어 있는 통유리.

자주 닦지 않아 군데군데 얼룩이 있는 유리 너머로 분식집 내부를 보면  
안쪽 주방 옆으로 식구들이 생활하는 쪽방이 보이고, 문 뒤로 수철(38세,  
남)이 서진(3세, 남)과 놀아주며 문밖을 훑어보고 있다. 분식집 문  
안쪽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희(28세, 여)와 미자(32세, 여).

미자 그동안 고생 많더니, 이달 말에 잔금 치른다고?

연희 응. 참, 그리고 이거, (가방에서 돈 봉투 꺼내 건네며) 언니 아니었음  
나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미자 (손사래를 치며, 찢리기도 하고) 은혜는 무슨, 내가 뭐 그냥 봐줬나?

미자, 수철 쪽 한 번 옮겨보고는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봉투를 넣는다.

연희, 미자와 눈인사를 한 뒤, 건(7세, 남)에게 간다.

분식집 앞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건.

연희 (또 떨어뜨려 놓고 가려니 마음이 아프고) 건아, 엄마 그냥 가?

건 (고개를 들고) 정말, 한 달 후엔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연희 (고개를 끄덕인 뒤 건의 머리를 넘겨주다 무릎 까져서 딱지 앉은 텔  
보더니) 건아? 여기 왜 그래?

미자 (순간 놀라고)

연희 넘어졌어?

건 ...

미자 (O.L)아유, 애들이 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걱정  
말고 어서 가~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연희 (건을 보다 지갑에서 만 원짜리 다섯 장 꺼내 미자에게 주며) 언니,  
이걸로 삼계탕이라도 사 먹어. 그리고... 건이 조금만 더 부탁할게.

미자 어, 그래. (건의 눈치 살피며)

건 (입을 앙다물고 주먹을 꼭 쥐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다.)

## #10 미자네 분식집 앞 정류장(낮)

연희, 캐릭터 밴드를 건의 무릎에 붙여준 뒤 남은 밴드를 손에 쥐어주며,

연희 건아, 이 밴드에 약이 발라져 있어서 다쳤을 땐 이거 하나만 붙이면  
된대. 미자 이모가 바빠서 못 해주면 건이라도 붙여야 해. 알았지?  
건 (무릎에 붙여진 밴드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그때, 정류장에 멈추는 마을버스. 연희, 버스에 올라 건을 보고 손을  
흔든다. 곧 그 마을버스 뒷문으로 검은색 색을 멘 두영이 내리고, 연희를  
보내는 건과 마을로 들어서는 두영, 세 사람이 한 화면에 담긴다.

## #11 두영의 방(오후)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중개인, 두영에게 방을 소개해주며,

중개인 총각 혼자 지내기엔 여기가 켈 괜찮지 싶네...  
두영 (방을 둘러보는)

CUT TO.  
반지하 창으로 들어오던 빛이 가로등 불빛으로 바뀌며 방이 어둑해지면  
이불도 없이 몸을 웅크린 채 잠든 두영의 모습이 보인다.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움찔거리는 두영.  
창밖으로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 이내 빗줄기로 바뀌고,  
괴로워하는 두영의 얼굴 위로 급하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뒤덮인다.

인서트.  
두영의 꿈. 골방(밤)  
요란하게 내리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빗소리와 함께 몽둥이로 책상을 내리치는 둔탁한 음이 “탕, 탕, 탕...”  
일정한 간격으로 들린다. 몽둥이 내려치며 한 걸음씩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발(박사장, 새아빠). 그 발 앞에서 떨고 있는 겁에 질린 어린 두영(7세).

곧 내리쳐지는 몽둥이를 오른팔로 막는 두영. 두영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문밖에서 방문을 두드리며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 쓰는 소리.

두영 모(OFF) 내가 잘못했어요. 차라리 나를 때려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두영, 괴로운 듯 움찔대다 천둥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뜬 뒤 일어난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두영. 온몸에 뒤덮인 땀.  
두영,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마른세수를 한 뒤 오른팔에 남아 있는 흉터를  
본다. 빗줄기가 요란스럽게 두영의 방 창문을 때린다.

## #12 마을버스 차고지 + 낯은 01번 마을버스 안(낮)

마을버스 한 대가 차고지를 나가면 차고지로 들어오는 두영이 보인다.  
사무실 앞에 서 있던 김부장(50대, 남), 두영을 보곤 따라오라며 손짓한  
뒤 구석에 세워진 낯은 01번 마을버스(영일이) 앞으로 간다.

김부장 최부장님이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탐탁지 않은) 하여간 문제  
만들면 아무리 형님 부탁이라도 어쩔 수 없어. (보면)

두영 ... 네...

김부장 조금 있다 번기사 들어오면 한번 같이 돌아보고, (영일이 보며) 이  
차야. 내일부터 한번 몰아봐~

두영, 낯은 01번 마을버스와 마주 본다.  
두영을 뒤로하고 김부장, 사무실 앞으로 오는데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보던 이주임, 사무실에서 나오며,

이주임 (의심) 혹시 지난번에 부장님 지인이 소개한다던 그 사람은 아니죠?

김부장 ... 그 사람이면?

이주임 전 싫어요!! 무서워서 같이 어떻게 일해요?

김부장 걱정 말고 이주임 일이나 잘해! 참, 그 말을 안 해줬네. (시선  
영일이를 향하는) 이주임이 한번 가봐~



CUT TO.

두영,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켜 뒤, 핸들이며 여기저기를 만져본다.  
 그러곤 룸미러로 버스 안쪽이 보이게 조절하는데,  
 그때, 버스 의자에 걸쳐져 있는 이상한 물체, 흡사 사람의 다리 같은,  
 두영, 잘못 봤나 싶어 고개를 돌려 버스 안쪽을 살피면,  
 사람의 다리가 분명하다.  
 두영, 당황하고 놀라 침을 꿀꺽 삼킨다.  
 사무실 쪽을 한 번 보곤 다시 버스 내부를 보는 두영.  
 두영, 버스 내부로 들어가 다리 쪽으로 가본다.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의 맨다리. 왠지 싸해지는 기분.  
 두영, 다리에 가까워질수록 긴장되고 식은땀이 흐른다.  
 고개를 돌려보면 문 옆에 빗자루가 있고, 두영, 얼른 빗자루를 잡는다.  
 손에 든 빗자루를 꼭 잡고, 마른침을 삼키며 고개를 빼 의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 “헉” 하고 몸이 뒤로 젖혀지는 두영.  
 의자에 건이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다.  
 얼굴엔 멍 자국과 핏자국, 두영, 낮빛 변하며, 뒷걸음질 친다.  
 시체라고 확신한 두영, 서둘러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건 쪽에서 움직이는  
 소리 들리고, 고개를 돌려보면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는 건의 위치.  
 두영,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머릿속 복잡하고, 망설이다 들고 있던  
 빗자루로 건을 꼭 눌러본다. 미동도 없는 건.

두영 (다시 빗자루로 건을 누르며) 어이, 산 거야? 야...  
 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두영을 보는)  
 두영 (놀라서) 으아아아악~~~!!!! (뒷걸음질 치다 자빠진다)

잠시 뒤, 두영, 건의 등을 밀어 쫓아낸 뒤 마을버스 안으로 들어오면,  
 앞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있는 건.  
 두영, 다시 건을 끌어내는데, 창문을 넘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두영, 그런 건을 보는데 슬슬 짜증이 나고.  
 두영, “영일아~” 하며 발버둥 치는 건을 옆구리에 낀 뒤 걸어 나와  
 내려두곤 두어 걸음 가다 딱 멈춰 돌아보면 따라오다 멈춰있는 건.  
 두영, 무섭게 건을 쳐다보며 “쓰읍?!” 하면 건, 두영을 좀 보다

시무룩해하며 발길을 돌린다.

### #13 01번 마을버스(해질녘)

변기사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두영, 변기사 옆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터벅터벅 걷고 있는 건이 보인다.

이주입(OFF) 조 아래 사는 앤데, 여기에 자주 놀러와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건을 보다 시선을 거두는 두영.

### #14 ○○동네 전경(오전)

다음 날, 분식집과 편의점형 슈퍼가 마주 보고 있는 한적한 거리.  
두영이 모는 낡은 01번 마을버스가 그 거리로 들어온다.

### #15 낡은 01번 마을버스 안 + 미자네 분식집 앞(오전)

두영의 첫 운행,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두영이 조심스럽게 미자네 분식집 앞 정류장에 버스를 멈춘다.  
암기한 것을 잊지 않으려는 듯 꼭꼭 씹어 율조리는 두영.

두영 (중얼) 멈춘 다음 문 열고, 마을버스 문 연 뒤 손님 타면 돈 받고, ...?

두영, 율조리는 순서대로 돈 통을 보는데 그냥 들어가는 손님.  
두영, 뭐지? 하는 표정으로 버스에 오른 첫 손님을 보면, 건이다.

두영 (또 너냐? 하는 표정으로 보면)  
 건 (뭐? 왜? 하는 표정으로 되받아 보는)  
 두영 (미간 찡그리며, 턱으로 돈 통을 가리키면)  
 건 (아! 그거? 하는 표정으로 건 역시 턱짓으로 돈 통을 가리킨다)  
 두영 (애 뭐야? 하다) 돈 내라고? 너 혼자야?

건 (팔짱 끼며) 나 혼자고, (턱으로 돈 통 가리키며) 이거 안 보여?  
 두영 (뭐? 하는 표정으로 보면)  
 건 (고개를 절레절레하다 손으로 한 글자씩 짚으며) 미!취!학!아!동!  
 무!료! (뻘뻘 하는 표정) 나, 미취학 아동이야! (출입문 앞좌석에  
 앉는다)

두영, 건을 룸미러로 본다.  
 험클어진 머리, 아무렇게나 입은 옷, 맞아서 터진 입술과 멍든 팔다리.  
 건,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아이다.

건 (창밖을 보며 투명스럽게) 출발 안 해?  
 두영 (뭐 이런 게 있지? 하는 표정)

마을버스 문 닫히고, 버스 출발한다.

## #16 낡은 01번 마을버스 안(시간 경과 / 낮)

건과 노인(70세, 남) 두 명을 더 태운 마을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추면,  
 아이 엄마(30대)가 아이(3세, 여)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스에 오른다.  
 아이 엄마와 아이 앉으면, 마을버스 출발하는데,

건 (두영의 운전하는 모양새를 지켜보다) 아저씨, 초짜구나?  
 두영 (당황, 마침 신호 대기 중이라 고개 돌려 건 보며) 뭐?  
 건 (알보듯) 마을버스 운전 처음이지?  
 두영 (어이없으면서도 뜨끔하고) 허~! 아니거든? (다시 정면)

두영, 둘러대곤 느낌이 이상해 룸미러로 버스 안을 보면,  
 노인들 갑자기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더니 손잡이를 꼭 붙잡고,  
 아이 엄마, 아이를 무릎에 앉힌 뒤 꼬옥 감싸 안고 손잡이를 꼭 잡는다.

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알밋게) 출발~  
 두영 (다시 고개 돌려 분한 마음에 건을 보며 눈을 부라리는데)

그사이 신호가 바뀌며 뒤에 차가 클랙슨을 “뿡~~!!!” 울린다.  
 두영, 놀라 급출발을 하게 되고, 승객들 몸이 앞으로 갔다 뒤로 꺾인다.  
 노인들과 아이 엄마 긴장한 티 내며 손잡이를 더더욱 꼬옥 잡는다.  
 잠시 뒤, 어느 순간 두영의 뒤로 와 두영의 운전석에 혼수 두고 있는 건.  
 “멈춰.” “지금 출발해.” “아니지, 아니지, 진작 깜빡이를 켜어야지.”  
 두영, 정신 못 차리겠는 가운데, 버스, 교차로로 들어서고,

건 (몸 반쯤 일어서 있고) 속도 줄이고, (두영의 어깨를 치며) 줄이라고!  
 두영 (점점 짜증,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하는 표정으로 속도 줄이지 않고)  
 건 (어깨 흔들며, 마음 급하다) 지금 줄여야 한다고!  
 두영 (짜증)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해! (속도 줄이지 않고)  
 건 (등짝을 치며) 멈춰! 지금 멈추라고!  
 두영 앓! 야! 너? (몸을 획 돌려 건을 쏘아보다 아이 엄마와 눈이  
 마주치는데)  
 아이 엄마 (앞을 보곤 놀라 눈 뚱그래지며 말 못 잇고) 저저저~  
 두영 (아이 엄마의 표정을 보고야 급히 앞을 보는, 놀라는) 어~~~~~

이미 두영의 차선으로 반쯤 들어와 있는 승용차, 그사이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승용차 운전자, 두영의 앞으로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를 밟는다.  
 두영도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이미 너무 늦은 타이밍.  
 (E) “끼이익~~!! 쿵!!!!” 두영, 놀라 질끈 감았던 눈을 떠본다.  
 뒤쪽 범퍼를 받친 승용차 운전자, 뒷목 잡으며 차에서 내리고,  
 두영,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건(E) 거봐! 내가 멈추라고 했잖아!

## #17 마을버스 차고지(낮)

낡은 01번 마을버스(영일이)를 등지고 화를 삭이고 있는 두영.  
 김부장, 버스의 앞 범퍼를 심각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금이 가서 짝 갈라지고 살짝 내려앉은 마을버스의 앞 범퍼.  
 건, “영일이” 하며 갈라진 범퍼를 어떻게든 붙여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부장 (한참 보다 한숨)  
이주임 (청테이프를 들고 나오며 짜증) 내가 이럴 줄 알았어.부장님, 전화요.  
김부장 (한숨 폭 쉬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이주임 (범퍼에 청테이프를 붙이며 구시렁) 이거 부품 구하기 힘들 텐데...  
건 (청테이프 붙여지는 거 보곤 속상해, 두영을 보고) 아저씨가 고쳐놔!  
두영 (화나고 짜증 나는 거 간신히 참으며)  
건 아저씨가 고쳐놓으라고! 아저씨 때문에 영일이 저렇게 됐잖아!  
두영 (듣기 싫고, 짜증)  
건 (잡아끌며)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저렇게 어떻게 다녀!!  
두영 (건의 손 뿌리치며) ...  
건 (다시 두영 붙잡으며 힘으로 안 되자 두영을 때리며) 고쳐놓라고!  
두영 (뿌리치며 신경질) 놔!  
건 (다시 잡고, 이번엔 발로 차며) 고쳐놓고 가라고! 고쳐놔!  
두영 에잇, 진짜! (눈 부라리면) 애초에, 네가 뒤에서 그렇게 정신없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거지같이 돈도 안 내고 탄 주제에, 그리고 여기가 네 놀이터야? 너 왜 여기 와서 이러는데?  
건 (노려보다 주먹을 날리면)  
두영 (손을 잡으며) 너 그리고 아까부터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어른을 때려? (보다 그만두자 싶은) 에휴 (손을 놓으면) 무슨 애가 이렇게 폭력적이야? 깡패야 뭐야?

**두영, 뒤돌아 가려는데 갑자기 머리통으로 날아오는 빈 캔.**

두영 이게, 진짜!?! (머리 만지며 화나서 뒤돌아보면)  
건 나 거지도 아니고 깡패도 아냐! 이 똥개야! (주먹 꼭 쥐고 두영 노려보다 뛰쳐나간다)  
두영 (폭발) 야! 너, 앞으로 판 데 가서 놀아!! 여기 한 번만 더 와봐!! (씩씩)  
이주임 깡패 같다니까 그렇죠, 재 깡패 같단 말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또 올 거예요.  
두영 (보다) 왜요?

이주임 (말할까 하다 낯은 01번 마을버스 보며) 저 버스가 자기 친구래요. (애들을 이해 못 하겠다는 듯 고개 흔들며 사무실로 들어간다)

두영, 낯은 01번 마을버스를 보면 엉망으로 붙여진 청테이프.  
두영 역시 보기 싫은. 두영, 부서진 범퍼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쉰다.

## #18 슈퍼 앞 + 미자네 분식집 앞(저녁)

두영, 맥주를 한 캔 사들고 나와 벌컥벌컥 마신 뒤 분을 삭이며 “똥개?!” 하는데 미자네 분식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미자(E) (악을 쓰며) 놔! 애한테 또 왜 그래? 그만하라니까!!  
수철(E) (취해서 버럭) 시끄러, 너 이리 안 와?  
슈퍼 주인 (60세, 여) (쓰레기봉투 들고 지나가며) 에휴, 또 시작이구먼~

**두영, 캔 찌그러뜨린 뒤 일어서려는 그때 분식집 밖으로 던져지는 건! 건을 본 두영, 순간 멈칫! 하는데,**

수철 (술에 취한, 건의 떡살을 잡고) 건방진 새끼가 어디다 눈을 똑바로 뜨고.  
건 (지지 않고 수철을 노려보는)  
수철 이 새끼가 그래도, (손을 올리면)  
미자 (가게에서 나와 수철에게 돈 봉투 쥐여주며) 자 여기 있다 이 웬수야!  
수철 (그제야 실실 웃으며 건 팽개치고 가는)  
미자 (건 보며)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있을 땐 나가 있으랬지?! (미자 괜히 앞치마에 화풀이하리며 가게로 들어가고)

**엎어진 채로 주먹을 꼭 쥐는 건. 그런 건을 바라보는 두영.**

## #19 마을버스 차고지(아침)

두영, 마을버스 차고지로 들어와 영일이 앞으로 다가가는데 부서진 범퍼 앞에 쪼그려 기대 잠든 건이 보인다. 두영, 잠시 멈춰 건을 바라보는데,

김부장(E) 윤기사, 잠깐 나 좀 보지.  
 두영 (돌아보면)  
 김부장 (다가와) 어제 그 운전자 입원한다는 걸 겨우 말렸어. 그냥 치료비 조로 위로금이란 범퍼 수리비 보내주기로 했는데,  
 두영 (O.L) 그건, 제가 부담할게요.  
 김부장 (고개 끄덕인 뒤 영일이 보며) 그리고, 저 차는 곧 폐차할 거라 고치기가 뭐하네...

두영, 뒤돌아보면 그새 일어나 갔는지 보이지 않는 건.  
 두영, 버스에 올라 시동을 켜는데, 숨어서 두영을 노려보는 건.

## #20 동타주

1. 거리. 영일이를 몰고 운행을 하는 두영. 운전하는 동안 시간 경과.  
 2. 차고지.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돌아오는 두영. 두영, 버스에서 내려 문을 잠그려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본다.

## #21 슈퍼 앞 + 미자네 분식집(저녁)

두영, 슈퍼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나오는데 분식집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건이 보인다.

분식집 안에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서준과 식사 준비를 하는 미자가 보이고, 미자, 닭백숙 냄비를 테이블에 놓고 그릇마다 나눠 담은 뒤,

미자 (건 보며) 건아, 얼른 와서 먹어. (쪽방 보며) 당신도 빨리 나오고,  
 건, 테이블에 앉고, 수철도 배 굶으며 나와 앉더니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아 속 풀린다.” 하곤 다리를 집어 뜯어 먹기 시작하는데,

건 (자기 그릇의 퍽퍽 살을 보며) 나도 다리 먹고 싶어.  
 미자 (서준에게 다리 살을 뜯어 먹이다 뜨끔) 어, 다음엔 너도 다리 줄게.  
 건 (먹지 않고 뚫어져라 그릇만 본다)  
 수철 (먹던 다리 내려놓고 건을 못마땅하게 보다 머리를 때리며) 마! 그럴 거면 먹지 마!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어디서 타박이야?  
 건 (노려보면)  
 수철 어쭈?! 너 내가 그렇게 보지 말랬지?  
 건 나도 다리 먹고 싶다고! 우리 엄마가 나 고기 사주라고 돈 주고 갓잖아!  
 수철, 미자 (뜨끔)  
 수철 (먹던 다리 건의 그릇에 던지며) 먹어! 그래, 먹어 이 자식아. 근데 네 엄마가 뭐 수백 주고 간 줄 알아? 너 여기서 자고, 씻고, 세끼 먹는 비용으로 턱도 없어. 일가친척 하나 없는 걸 그나마 우리가 받아줘서 고아원에 안 가고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게 어디서!  
 에잇 입맛 떨어졌어. 안 먹어 이씨 (쪽방으로 들어가면)  
 미자 (한숨 쉬며) 으이구,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지? 하루도! (쪽방으로 가며) 그렇다고 뭘 또 안 먹어! (수철 보며 버럭) 빨랑 나와 먹어!  
 건 (얼굴에 튀 국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문다)

잠시 뒤, 분식집에서 나오는 건, 두영을 지나쳐 어딘가로 걸어간다.  
 파리를 앞에 앉은 두영, 맥주를 한 번에 들이켠 뒤 캔을 찌그러뜨린다.

## #22 치킨집 앞 거리(밤)

두영, 걷는데 어디선가 고소하고 맛있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 냄새나는 곳으로 시선이 가면 가마솥 기름 안에서 지글지글거리며 튀겨지고 있는 가마솥 옛날통닭. 두영, 흘린 듯 그곳으로 가다 발걸음을 멈춘다. 가게 앞에 서서 닭이 튀겨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건.  
 두영, 잠시 건을 보다 곧 눈길을 거두고 지나쳐 간다.

## #23 마을버스 차고지(아침)

이른 아침, 사무실 사람들 아직 출근 전이다.

두영, 영일이 앞에 멈춰 서면 부서진 범퍼 앞에 쪼그려 기대 잠든 건.

청테이프 위로 건이 붙여놓은 캐릭터 밴드가 두영의 눈에 들어온다.

잠시 뒤, 시동 거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는 건, 깜짝 놀라 일어서는데,

건을 피해 후진을 하는 영일이. 건, 놀라 영일이를 쫓아가며 문을

두드린다. 멈추는 영일이. 건, 운전석 앞쪽으로 가면, 두영이 앉아 있다.

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설마 하며) 혹시 폐차하러 가는 거야?

두영 (보니 쉽게 비켜줄 것 같지 않고, 버스 문을 연다)

건 (팔 벌려 막으며) 안 돼! 영일이 아직 더 달릴 수 있어.

두영 (보다 통명스럽게) 탈 거야? 말 거야?

## #24 카센터(아침)

카센터 직원(20대, 남)과 얘기 중인 두영.

입구에 세워진 영일이 옆에 딱 붙어서 쭈뼛거리며 그 모습 바라보는 건.

잠시 뒤 두영, 대기실로 들어가면 카센터 직원 건을 보며,

카센터 직원 (건에게) 꼬마야, 여기 위험해. 너도 아빠랑 같이 대기실에 들어가 있어.

건 (멋쩍게) 아빠 아난데...

## #25 카센터 대기실 안

두영,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다.

뽕뽕해하며 잡지와 커피머신, 사탕 등을 만지작거리는 건.

그때 여직원(20대) 물병을 들고 와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면,

건 (사탕 들고 여직원 보며) 이거 먹어도 돼요?

여직원 (건성으로) 응. (나가다 상처투성이인 건을 보곤 놀란다)

건 (사탕을 만지작거리다 포도 맛을 하나 골라 까먹는다)

여직원 나가면서 두영의 뒤통수를 경멸하듯 쓰아보고 나가는데,

두영, TV 화면으로 비치는 여직원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두영, 옆에 놓인 신문을 집으려는데 신문 옆으로 놓이는 커피,

두영 (커피 보고 뭐지? 하는 시선으로 건 보며)

건 (멋쩍게) 마시든가? (쑥스러운지 TV로 시선 돌리며) 코코안 줄 알고 눌렀더니 커피네. 큼...

두영, 커피 잔을 집는데, 건의 멍든 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건을 찬찬히 보는 두영.

건, 광대와 입술에 상처 자국이 있고, 얼마나 멍살을 잡혔는지 티셔츠의 목이 축 늘어져 있다. 성한 데라곤 한 곳도 없는 가녀린 팔과 다리.

두영 도망칠 것이지. 미련하긴. (건 보며) 어이, 그걸 다 맞고 있냐고?

건 (못 들은 척 TV에서 시선 떼지 않고, 웃긴 장면 나오니 웃다) 도망치면... 나중에 들어와서 더 맞아.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뭐...

두영 (답답) 인마,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라고 했어. 그게 뭐 말이냐면?

건 (O.L)(TV 시선) 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악몽이라고 생각하면 (말끝 흐리며)

두영 뭐?

건 (시선 허공) 꿈속에선 안 아프잖아.

두영 꿈속에선 안 아프다고? (감정 바뀌며) 누가 그래? 꿈이 안 아프다고?

건 (보며)

두영 ... 바보야, 나중엔 그 꿈 때문에 매일 밤 아플지도 몰라.

두영과 건 서로를 한동안 바라본다.

## #26 거리(오전)

말끔하게 수리된 마을버스(영일이)를 몰고 가는 두영.

두영의 뒤로 창문을 열고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며 가는 건이 보인다.

## #27 마을버스 차고지 안(아침)

다음 날 아침, 버스에 올라 운행 준비를 하는 두영. 보조석 서랍에서 수건을 꺼내 사이드미러를 닦은 뒤 룸미러로 차 안을 보며 조정하려는데,

두영 (룸미러로 보이는 뒷좌석의 다리를 보며 화들짝 놀라) 아우씨!!!!  
진 (부스럭거리며 일어서고)  
두영 (고개를 확 돌리며)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진 (하품하고, 머리 긁적이며, 무심하게) 내가 더 놀랐거든.  
(창문 쪽 보며 시크하게) 출발하지. (다시 하품)

두영, 건을 보고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고, 마을버스를 출발시킨다.

## #28 낡은 01번 마을버스 안(낮)

두영과 건이 함께 탄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CUT TO.  
노인정 앞에서 멈추는 마을버스, 기다리는 사람 없어 출발하려 하자,

진 잠깐만! 금방 할아버지들 (노인정 가리키며) 저기서 나올 거야.

곧, 노인 둘(#16의) 나오며 마을버스를 보곤 걸음을 재촉한다.

CUT TO.  
#16의 사고 났던 교차로로 들어서는 마을버스.

진 여기는 신호가 금방 바뀌어. 그냥, 천천히 가. (건너편 경찰차 가리키며) 저기 경찰차 보이지? 딱지 주려고 기다리는 거야~  
두영 (경찰차 보고 흘깃 건을 보며 제법이라 생각, 속도를 줄인다)

CUT TO.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들어오는 마을버스. 사무실 앞에서 마을버스에 탄 두영과 건을 뚫어 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주임.

## #29 슈퍼 앞(오후)

슈퍼 주인, “못 보던 양반이네?” 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테이블 쪽을 훑어본다. 그때 이주임 슈퍼로 들어오며,

이주임 (피곤) 뭘 그렇게 또 뚫어져라 봐?  
슈퍼 주인 어 왔어? 아니, 못 보던 양반이 아까부터 앉아서 계속 누굴 기다리길래.  
이주임 (테이블 내다보면)  
슈퍼 주인 (그제야 이주임 보며) 아유, 올라가서 밥 먹어. 저녁 차려놔어.

이주임, 신사를 보곤 가웃하더니 슈퍼에서 나와 건물 위로 올라간다. 잠시 뒤, 두영이 와 테이블에 앉은 신사에게 인사를 하면 밝게 웃으며 “앉지.”라고 말하는 남자, 최부장이다.

두영 (반갑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 어쩐 일로...  
최부장 (웃으며) 어, 요 근처 지나다 잘 지내나 싶어서.  
두영 (눈을 잘 못 맞추고 쑥스러운)  
최부장 (보다 옆에 놓인 치킨 봉투 내밀며) 오다가 냄새가 좋아서 샀어. 아직 저녁 전이지? (두영에게 치킨 주곤 일어선다)  
두영 엇?! (같이 일어서며) 벌써 가시게요? 같이 드시지...?  
최부장 (인자하게) 나도 집에 가봐야지. (어깨 두드리며 웃어준다.)

두영, 치킨을 두 손으로 들고 멀어져가는 최부장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 #30 두영의 방(밤)

두영, 벽에 기대앉아 앞에 놓여 있는 치킨 봉투를 바라본다.

한참을 바라보던 두영, 쇼핑백에 손을 넣어 다리 한쪽을 뜯어낸다.  
 그러곤 잠시 보다 우걱우걱 씹는다.  
 크게 한 입씩 베어 입 속으로 꾸역꾸역 넣는 두영.  
 그러다 갑자기 복받치고, 다시 한 입 물고 삼키는데 목에 맺히는,  
 두영, 기침을 한 뒤 봉투 안을 보면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콜라 두 캔.  
 두영, 거칠게 캔을 뜯 뒤 벌컥벌컥 마신다. 갑자기 흐르는 눈물.  
 두영, 코를 훌쩍 마시고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으며 다시 봉투에서 다리  
 한쪽을 뜯어내 꾸역꾸역 먹는다.  
 남은 콜라를 따서 마시고, 다시 닭다리를 뜯어 먹고, 콧물을 훌쩍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방 한가운데 앉아 치킨을 먹는 두영의 뒷모습에서.

### #31 낡은 01번 마을버스 안(낮)

노인정 근처, #16의 노인 두 명과 두영만이 타고 있는 마을버스 안.

노인1 아 그러고 보니까 요 며칠 그 꼬맹이가 안 보이네~  
 노인2 뭘 일 있나? 또 먼젓번처럼 똥지게 맞고 다리라도 부러진 거 아냐?  
 노인1 (창밖 보더니) 아이쿠, 기사 양반 우리 여서 내려야 하는디~?

### #32 미자네 분식집 앞(오후)

건(OFF) 도망치면 나중에 들어와서 더 맞아.

분식집으로 향하는 두영의 빠른 발걸음.  
 분식집 앞에 멈춰 선 두영의 발, 스틸 업 되면, 두영의 시선 앞으로,

인서트.  
 문 앞의 휴무 쪽지 “6~7일까지 쉽니다.”

### #33 슈퍼 안 계산대 앞(오후)

두영 (돈 건네며) 분식집은 쉬나 봐요?  
 슈퍼 주인 (담배 바코드 찍고 건네며) 아~ 밥 먹으려고?  
 (생각) 그 강릉인지 속촌지 간다면서 어제 오늘 쉽다던데?  
 두영 (아~ 여행 갔구나? 하는 표정)  
 슈퍼 주인 (고갯짓) 조, 저~ 아래에도 밥집이 있어. 거기도 한번 가봐요~  
 두영 (쭈뼀 인사하며 나온다)

### #34 치킨집 앞 거리(오후)

두영,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걷다 표정 굳어지며 멈춘다.  
 두영의 시선이 머문 곳을 보면, 치킨집 앞에 서 있는 건.  
 어제 오늘 배를 굶았는지 더욱 해쓱해진 얼굴과 비쩍 마른 팔과 다리.

두영 (화가 치밀며) 이런 쌍.

건의 손바닥 위에 놓인 꼬깃꼬깃하게 접힌 천 원짜리 한 장과 동전들(천 원). 치킨 가격과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맞춰보는 건. 그때,

두영(E) 아, 딱 2천 원이 모자라네!  
 건 (뒤돌아보면)  
 두영 (누가 보면 뺨 뜯듯) 어이, 미취학 아동, 너 2천 원 있냐?

### #35 치킨집 안(오후)

두영과 건이 마주 앉은 테이블 위로 놓이는 옛날통닭 한 마리.

두영 (치킨의 다리를 쭉 뜯어 쓰윽 보더니 건 앞에 내려놓으며) 앗!  
 가슴살인 줄 알고 뜯었는데 다리네~ (건 살짝 보며) 너 먹을래? 난  
 다리는 영~ (하며 가슴살을 떼어내 한 입 물며) 아~ 치킨은 역시  
 가슴살이지! (건을 살짝 본다)



건 (치킨에서 눈 못 떼며, 침 꼴깍 삼키곤) 그, 그래... 아저씨가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저씨, 좋아하는 거 먼저 먹어. 꼴깍~

건,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듯 다리를 잡고 한 입 베어 무는데, 3초 뒤, (치킨을 씹고 꼴깍 삼키는 동안 건의 머리 위로 3, 2, 1 카운트다운) 건의 눈 만화처럼 커지고, 건의 머리 위로 폭죽이 터진다.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건.

잠시 뒤, 블록해진 배를 문지르다 그제야 빈 접시와 자기 앞에 쌓여 있는 치킨 뼈를 보곤 미안한 표정으로 두영을 보는 건.

두영 (짤하면서도 웃음이 난다) 이제 배가 좀 찼냐?

건 (씨익 웃다 갑자기, 표정 싸해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옆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으로 급히 가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낸다)

두영 (깜짝 놀라 바라보기만 할 뿐)

### #36 놀이터 벤치 옆(저녁)

벤치 위에 소화제 빈 병과 사이다 빈 캔이 놓여 있고, 건, 벤치 옆 쓰레기통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는 괴로운 표정으로 배를 감싸고 있다.

두영 (등을 쳐줘야 하나 망설이다 맘과 다르게 통명스럽게) 그러니까, 무랑 음료수도 같이 먹으면서 먹으라니까... 그냥 치킨만 냅다 먹더니,

건 (얼굴 싸하고, 괴로운 표정)

두영 (더 잔소리 못 하겠다) ... (보다 갑자기 뭔가 생각났는지) 너, 너 꿈쩍 말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달려가다 뒤돌며) 어디 가면 안 돼!?

시간 경과.

가로등 밑 벤치에 앉아 있는 두영과 건, 얼굴을 마주하고 맞잡은 두 손. 서로에게 몰두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데,

두영 (비장함이 느껴지게) 마음의 준비는 됐겠지?

건 (숙연하게) 응.

잠시 뒤, 두영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있는 건.

두영, 건에게 머리를 잡힌 채 한 손으로 건의 왼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바늘을 들고 건의 엄지를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다.

건 (두영의 머리를 잡고 밀며) 하지 마, 이제 그만하라고~!!

두영 (건의 엄지를 집요하게 노려보며) 잠깐만 잠깐만 이번엔 진짜야, 믿어봐!

건 (두영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그만하라고~

두영 (머리 뜯긴 데가 아파서) 아악! 너 진짜? (그러나 다시 바늘로 건의 엄지손가락을 조준하며)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비장하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바늘 든 손을 높이 쳐들었다 건의 손으로 내리꽂으면)

건 (악!!!!!! (두영의 머리를 쥔 손 더욱 세게 비트는데, 왼손 엄지에서 수수알만큼 봉긋하게 올라오는 검붉은 피)

두영 (악~~~!! (피 보곤 뻤지 싶은, 건의 손 놓고, 건이 머리채 잡은 손을 잡으며) 놔! 놔!

건 (머리 흔들며)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라고 했 (큰 트림) 꺼억~~~ 지! (손으로 코 막고 인상 쓰며) 읍!!

두영 (손으로 코 막고 인상 쓰며) 읍!!

건 (몇 번이나 찌르냐고?!! (다시 길고 큰 트림) 꺼어어어억~~~

두영 (보다 크게 웃으며) 푸하하하하~ 내려갔나 보네~

건 (그제야 머리채 잡았던 손 놓고 무안해한다) 아이참, 꺼어어~~억~

두영 (계속 웃으며 그런 건이 귀여운 듯 머리를 흐트러뜨린다)

### #37 미자네 분식집 앞(저녁)

두영, 건에게 죽(인스턴트 죽 열 개)이 들어 있는 봉지를 건네며,

두영 (당분간 속 편해질 때까지 이거 먹어. 따뜻하게 데워달래서... 그냥 네가 따뜻한 물에 좀 담가놔다가 먹어라. 여행도 지들끼리만 갔는데,



건 내가 안 간다고 한 거야. (센 척) 바다... 시시해서.  
 두영 (보다) 바다가 시시하다고?  
 건 (서운한 티 안 내려) 응, 재미없잖아.  
 두영 (눈치 없이) 재미없긴, 파도타기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장난) 수영하고 있으면 거기서 막 오징어가 같이 놀자고 (오징어 흉내) 이렇게 이렇게 막 헤엄쳐 오고, 또 돌고래들도 같이 놀자고 (돌고래 점프 모습 흉내) 요래 요래 하며 오고 그러는데? 거기다 모래성도 만들고, 모래찜질도 하고, 바다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 바다 못 가봤구나?  
 건 응. (만화에서 봤던 바다를 떠올리며 상상에 빠지는 건)  
 두영 (바다 한 번 못 가봤다는 말에 웬지 무안) 아, 못 가봤구나.

### #38 건의 회상. 미자네 방(낮)

불을 켜지 않아 어둑한 방에서 무릎을 오므리고 앉아 TV를 보는 건.  
 TV에서 나오는 불빛에 비친 건의 모습 보면 건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고, 얼굴엔 코피 자국이 남아 있다.  
 건이 보고 있는 TV 화면<니모를 찾아서> 또는 EBS만화 <두다다쿵> 시즌2, 13화 '바닷속 보물을 찾아라' 중) 카메라에 잡히고,

### #39 건의 상상. 바닷속(CG로 표현)

만화처럼 건, 스노클링 물안경을 쓰고 바닷속을 헤엄치면 돌고래와 거북이, 니모 등이 와서 건 주변을 맴돌고, 건 웃으며 바닷속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연희가 웃으며 헤엄쳐 온다. 행복한 얼굴로 바닷속을 헤엄치는 건과 연희. 그때 저만치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개헤엄 또는 개구리헤엄)으로 헤엄을 쳐 다가오는 두영.

### #40 도시락 가게 안(저녁)

주방과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는 5평 남짓한 도시락 가게.  
 가게를 둘러보는 연희와 중개인(50대, 남) 그리고 가게 주인(60대, 여).

가게 주인 갑자기 우리 아들이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나도 함께 가게 됐다우.  
 중개인 들어오시는 분이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으니 서로 잘된 거죠 뭐... (연희 보며) 자, 이제 매매계약서 작성하러 가실까요?  
 연희 네. (일어서서 가게를 한 번 둘러보곤 눈시울이 붉어진다)

### #41 택시 안(저녁)

미자네 가족이 탄 택시, 분식집 앞에서 멈춘다.

미자 (운임 치르고 수첵과 서준 깨우며) 여보, 일어나 다 왔어.  
 수첵 (눈을 뜨곤 기지개를 켜 다음 두리번) 다 왔어? 서준아, 다 왔다 내리자.  
 서준 (눈뜨자마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 #42 슈퍼 계산대 앞(저녁)

미자, 아이스크림 네 개와 4천 원을 계산대 앞에 놓는다.

슈퍼 주인 (봉지에 담아주며) 잘 다녀왔어?  
 미자 네.  
 슈퍼 주인 참, 요번에 새로 온 마을버스 기사가 건이랑 원래 아는 사이야?  
 미자 네? 왜 그러시는데요?  
 슈퍼 주인 아니, 방금 전에 건이 체했다고 죽을 한 봉다리 사서 주길래~ 저녁도 사 먹인 거 같고,  
 미자 건이가 원래 붙임성이 좋잖아요. 또 그 낡은 버스를 워낙 좋아하니깐,  
 슈퍼 주인 (O.L)(듣다 기가 차) 아이구, 애가 정 줄 데가 없으니깐 그렇지, 그 낡은 마을버스가 뭐가 좋다고 맨날 거기 가 있겠어?  
 미자 ! (심기 불편)  
 슈퍼 주인 (눈치) 아니, 난...  
 미자 (돌아서 썩하고 나가면)  
 슈퍼 주인 (구시렁) 가라 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미자 뒤에 대고 샷대질)

이주임 (편한 차림으로 가게로 들어오며) 왜? 또 뭔데? (음료 하나 꺼내 마신다)

슈퍼 주인 아니, 건이가 진짜 그 고물버스가 좋아서 거길 가겠냐고? 술만 마시면 애를 들들 볶고, 또 개 엄마 다녀가면 돈 받아내려고 며칠은 애를 잡아대니까, 애가 글루 도망가 있는 거 아냐? 안 그러냐? 내 말이 틀렸어?

이주임 그만 남에 집 일에 신경 꺼. 그러다 괜히 그 집 남자 술 먹고 엄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찌러 그래?

슈퍼 주인 야, 난 그 새로운 운전기사 인상만 보곤 참엔 별로였는데 사람이 됐더라. 건이 밥도 사 먹이고, 채했다고 죽도 사주고, (생각) 지난번에 그 인상 좋은 신사도 그 기사 찾아온 사람이더라고.

이주임 아~ (고개 끄덕이며 듣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

인서트.

차고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얘기 나누는 김부장과 최부장.  
이주임,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

최부장 그게, 다 사연이 있어. 나 한번 믿고 일 시켜봐. 애가 요즘 애 같지 않게 진득한 데가 있어. 기사 부족하다며?

김부장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그래도 살인미수는 좀...

이주임 (살인미수란 말에 흠칫 놀라 최부장을 보는)

### #43 마을버스 차고지 사무실 앞(오전)

사무실 앞에 동네 주민들(10여 명)이 몰려와 김부장에게 따지고 있다.

주민1 그런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해? 살인미수 전과자라며?

슈퍼 주인 거 지난번에도 마을버스에서 싸우다 사고 냈다며? 욱하는 성격에 또 무슨 일을 벌일 줄 알고?! 나 내 딸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꼴 못 봐!

주민2 내보내요! 안 그러면, 우리 이 회사 버스 다신 안 탈 줄 알아!!

난처한 얼굴의 김부장.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곧, 그 무리를 향해 두영이 다가가고, 격앙되어 따지던 슈퍼 주인, 두영과 눈이 마주치자, 표정 싸해진다. 사람들 일제히 두영을 보더니 흠칫 놀라고 해코지라도 당할까 눈길을 피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뜨려 한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건, 뒤를 돌아보는데,

슈퍼 주인 (건을 잡아끌며) 건아, 너도 이제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영겁결에 사람들에게 휩쓸려 함께 가는 건.  
두영, 그 자리에 굳어 두영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며 몰려가는 소리 두영의 귓가에 맴돌고, 두영, 고개를 들어 이주임과 김부장을 보면 이주임, 두영과 눈 마주치자 얼른 사무실로 들어가고, 김부장, 두영을 보다 한숨을 쉬곤 시선을 돌린다.  
두영의 멍한 눈에 눈물이 차오르려 하다 독하게 변하며,

두영 (자조 섞인) ... 그래, 꺼져줄게. 잘들 살아라.

### #44 몽타주

1. 반지하 앞. 두영,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2. 마을버스 차고지. 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두영을 찾는다.
3. 거리. 두영,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4. 차고지 사무실. 건, 문 열고 "아저씨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5. 문방구 앞. 두영, 문방구 앞을 지나다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8세)을 보더니 걸음을 멈춘다. 선뜻 떨어지지 않는 발.

### #45 두영의 집 앞(낮)

건, 허름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건 아저씨~ 아저씨, 그 안에 있지? 문 열어봐~ (손잡이 흔들며) 아저씨?  
(손잡이 놓고) 아저씨 미안해. 아까,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화났지? 나는 안 갈려고 했는데 슈퍼 아줌마가 갑자기 막 끌고 가서,  
 … 아니야, 아저씨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문 좀 열어봐. 응? (엄마가  
 아이 달래듯) 우리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계속 문 두드린다)  
 두영(E) (통명스럽게) 그래서 문이 부서지겠냐?

건, 반가운 마음에 돌아보면 두영, 검은색 스포츠색을 어깨에 걸치고,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서 있다.

두영 자! 였다 얼굴. (뻔히 보다) 얘기해봐!  
 건 (민망해하다 갑자기 울음 터지고, 두영 때리며) 간 줄 알았잖아.  
 두영 (엄살) 아! 아! 뭐야 너? 너, 진짜 그 손버릇 고쳐야 돼.  
 건 (고개 숙이고 계속 울며) 말도 안 하고 간 줄 알았다고…  
 두영 … (건의 머리를 털며) 그래서 다시 왔잖아. 말하고 갈려고,  
 건 (흠쩍거리며 놀라서 보며) ?  
 두영 (건의 손에 쇼핑백을 쥐여주며) 자.

건, 안을 보면 닭다리 과자와 초콜릿, 한글과 연산 문제집이 들어 있다.

건 (두영을 보며 따지듯) 뭐야? 이거?  
 두영 닭다리네 치킨 먹고 싶을 때 먹고, 책은… 너 내년에 학교 갈 거  
 아니야? 앞으론 괜히 마을버스 타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심심하면  
 공부해 공부! 안 그러면 커서 나처럼 돼. (보다 착잡,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고)  
 건 (선물들을 보며) 이걸 왜 주는데? 이거 주고 가서 안 오려고?  
 두영 … (보며) 응. 잘 살아라… (뒤도는데)  
 건 (두영 쪽으로 쇼핑백 던지며) 필요 없어!  
 두영 (서서 쇼핑백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 본다)  
 건 누가 이런 거 필요하대?  
 두영 (구부려 앉아 주우며)  
 건 (울며) 가지 마.  
 두영 … (쇼핑백을 다시 건의 손에 꼭 쥐여주며) 가야 돼. 최부장님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돌아서서 발걸음을 땀다)

건 (가만히 서서 울며) 영일이도 폐차장에 보낼 거래. 근데 아저씨까지  
 가면, 나는… (끄억끄억) 아저씨, 가지 마~  
 두영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발걸음을 땀다)

## #46 24시간 해장국집 앞(낮)

연희, 큰 손가방을 들고 사장과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다.  
 직원들 연희에게 “잘 살아.” “고생 많았어.” 등 덕담 한마디씩 건넨다.

## #47 미자네 분식집 안(낮)

설거지하는 미자에게 “돈 있으면 내놔봐.” 하며 귀찮게 하는 수철.  
 테이블엔 수철이 마신 소주병이 보이고,

미자 (고무장갑을 획 벗으며) 없다고! 다 가져갔잖아. 벌써 다 날렸니?  
 (지긋지긋) 으휴 내 팔자야~ (방에서 놓고 있는 서준이를 본 뒤)  
 서준이나 좀 보고 있어. 파 좀 사오게. (나간다)  
 수철 파는 뭐 돈으로 살 건데? 에이씨!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맥주처럼 벌컥벌컥 마시곤) 이누무 여편네, 누굴 바보 등신으로  
 아냐?

수철, 소주를 마저 마시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다.

## #48 차고지 사무실 안(낮)

이주임, 김부장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팔짱 끼고 내려다보며,

이주임 이렇게 넘겨도 돼요?  
 김부장 (봉투 보다) 어차피 폐차하려던 차니까, (수첩을 뒤적이며) 이제  
 알아봐야지 뭐 별수 있나? (책상 위 전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른다)

## #49 미자네 분식집 앞(낮)

두영이 건에게 사준 죽과 소핑백에 담겨 있던 과자, 초콜릿, 학습지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좀 떨어진 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왜 또 저런대?”, “저러다 애 잡겠네.” 하며 웅성거리고 있다.

곧, 취기가 오른 수철이 건의 멍살을 잡고 분식집 밖으로 내던진다. 바닥으로 내다 쫓히는 건. 건의 얼굴, 이미 수철에게 맞아 엉망이다. 건에게 다가오는 수철, 한 손에 몽둥이가 들려 있다.

건에게 다가오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테이블과 벽에 몽둥이를 내리치는 수철. (E) “퍽! 퍽! 퍽!”

건 (반항할 힘도 없다. 다가오는 수철과 사람들을 한 번 보곤 시선 떨군다)

수철 돈 통에 손 안 댔으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저걸 샀어? 어?! 그동안 도둑놈을 키웠어. 도둑놈을, 너 같은 쥐새끼가 집 안에 있으니 돈이 마르지!? (건의 팔을 발로 밟고) 너 같은 새긴 다신 도둑질 못 하게 손모가지를 분질러야 돼! (건의 손을 노려보며 몽둥이를 쳐든다)

수철이 쥔 몽둥이가 허공을 갈라 건에게 내리꽂히면, 두 눈을 꼭 감고 체념한 듯 받아들이려는 건. 건의 꼭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때, 수철의 손목을 잡는 거칠고 묵직한 손.

수철, 짜증 나게 누구냐는 듯 보면, 두영, 수철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

두영, 수철의 손목을 잡은 손아귀에 점점 힘을 주면,

수철 (몽둥이 놓치고 인상 쓰며) 아, 아, 너 뭐야? 이거 못 봐?

두영 저거, 다 내가 사줬어. (건 보곤) 재 엄마한테 돈 받고 키워주는 거니까 니들이 사줘야 하는 건데, (수철 보고) 안 사주길래 내가 사준 거라고!

건 (두영의 목소리에 긴가민가해서 눈을 떠보면)

수철 네가 뭐데?

두영 나? 동네 아저씨. (손목 비틀며 수철을 바닥으로 밀고, 건을 보며)

짐 싸!

건 (그 말에 놀라 눈 커지며 보면)

두영 내가 너 엄마한테 데려다줄게.

수철 (몽둥이 다시 들고 휘두르며 비틀) 너 뭐야? 건방진 새끼가 죽을라고?!

두영 (몽둥이 뺏어 들며) 너! 이걸로 애 때리면 재 죽어. 이걸로, 네 애도 똑같이 때릴 수 있어? (무섭게 보며) 어? (건 보고) 미취학 아동, 너 이 집구석에서 쉼길 거 없어? 그럼 그냥 가고!

건, 얼빠진 듯 두영을 보다 생각난 듯 쪽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연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봉투를 꺼내 나오며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두영이 사준 책을 집으며,

건 (미련 없이) 가자.

## #50 지물포(낮)

그릇이며 살림살이가 든 봉지를 양손에 든 연희가 지물포 안으로 들어온다. 연희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연희 저, 남자에 방에 도배 좀 하려고 하는데요?

## #51 도로 갓길(낮)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되어 있는 낡은 1번 마을버스. 운전석에 앉은 두영, 전화를 거는데 (F) “뚜뚜뚜뚜뚜...”

두영 통화 중이네, 조금 있다 다시 해보자. (시동 걸며)

건 (전화 끊기 기다렸다) 어떻게 된 거야?

두영 (건의 얼굴 보며) 으휴, 얼굴이 이게 뭐냐? 도망이라도 치지... (한숨)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일이~ 영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두영 내가 샀어. (쑥스러운 듯 탄소리, 명함 보며) 여기가 네 엄마 일하는

건 가게라고? (전화 걸고, 받으면) 여보세요?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두영 (두영을 보고 있다 전화를 끊으면) 저기, 내 이름 건이야. 김! 건!  
두영 (휴대전화 내려놓고 보며) 알아 인마~

마을버스, 비상등 꺼지고, 좌측 깜빡이 들어오며 도로로 합류한다.

## #52 24시 해장국집 앞(오후)

#46의 해장국집 앞, 건, 해장국집 안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두영, 건물 옆에 서서 “안녕하세요. 건이랑 잘 아는 동네 아저씨인데요.”  
이런 식의 인사 연습 하는데 뒤쪽 주방에서 들려오는 직원들 목소리.

여직원1(E) 김사장이랑 합친 게 맞다니까! 아니, 애 맡아준 사람한테 연락도  
없이 그만둔 거면 뻔한 거 아냐?

여직원2(E) 애만 불쌍하게 됐네.

두영, 가게 안의 건을 보는데, 풀 죽은 모습으로 가게에서 나오는 건.

## #53 분식집 안(오후)

수철, “아우 머리야.” 하고 인상 쓰며 일어나면,  
서준이 혼자 방 한편에서 TV를 보고 있다.

수철, 밖을 향해 “물~ 물~” 하는데 대답 없는, 수철, 분식집으로 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데, 미자 들어오며,

미자 내가 애 좀 그만 잡으라고 했지? 이제 어떻게 거야!! 아무 데도  
없잖아!

수철 (귀찮은) 거 고물 마을버스에 가 있겠지.

미자 (버럭) 없다고!!! 마을버스도! 건이도!

## #54 도시락가게 쪽방(오후)

연희, 방에 하늘색 벽지로 도배를 하고 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면,

연희 (받고) 언니~ 그렇잖아도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듣다 놀라며)  
뭐?

## #55 기사식당 밖(저녁)

두영, 식당 앞에 서서 전화를 걸고 있다.

(F)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소리שמ으로 연결됩니다.

두영 (킁킁) 거, 건이, 내가 데리고 있는데, 이 번호로 연락 줘요.

그때, 두영의 바로 앞으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  
두영의 “이 번호로 연락 줘요.”란 말 오토바이 경적 소리에 묻히고,  
두영, 놀라 오토바이를 피하다 “이런 씨, 야 이 새끼야!” 하다 엉겁결에  
전화기 우물정자를 누른다. 두영, 아차 싶어 전화기를 귀에 다시 대보는데,  
(F)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두영, 다시 전화를 할까 하는데 배터리  
방전음이 울린다. 식당 안을 들여다보는 두영.  
풀 죽어 앉아 있는 건의 앞으로 음식들이 놓인다.

## #56 기사식당 안(저녁)

두영, 건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을 들며,

두영 네 엄마한테, 나랑 같이 있다고 메시지 남겼어.

건 … 식당 그만됐는데 왜 나 안 데리러 왔을까?

두영 (건의 손에 손가락 쥐어주며) 밥부터 먹어. 곧 연락 올 거야. 참,  
(두리번거리더니 직원 보고) 여기요, 여기 핸드폰 배터리 충전 좀?

직원 (두영에게 와 핸드폰 받아 가고)

두영 (건 보다 기분 풀어주고 싶어서) 밥 먹고, 바다 보러 갈까?

건 (본다)

직원, 두영의 핸드폰 받아 계산대로 와서 충전하려다, 핸드폰을 떨어뜨린다. 두영의 핸드폰에서 배터리가 분리되고, 직원 놀라서 두영 쪽 한 번 보더니 재빨리 두영의 핸드폰에 배터리 끼워 넣고, 충전기 잭을 연결한다. 그때, 계산하려는 손님들 밀려오고, 직원, 전원 켜는 것을 잊는다.

### #57 경찰서 안(밤)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형사들.  
간이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형사들을 바라보는 미자.

형사1 (조형사 보며) 반장님, 윤두영이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조형사 (보면)

형사1 고등학교 때 폭행치사로 소년원에서 1년 복역, 그 후 살인미수로 남부교도소에 있다 한 달 전에 출소했네요.

미자 (듣곤 놀라고)

형사1 오후에 김수철이랑 다툼이 있었다는데 아무래도 김수철 아들이라 생각하고 데려갔나 봅니다. (조형사 본다)

조형사 (표정) 애 엄마는?

그때 사색이 된 얼굴로 땀에 젖어 경찰서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연희.

CUT TO.

핸드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고, 곧 녹음된 음성 파일이 흘러나온다.

두영(F) (쿵쿵) 거, 건이, 내가 데리고 있는데, 이런 씨 “빵~” 새끼야!

인서트.

고속도로 요금소(밤).

요금소를 통과하는 두영의 마을버스.

(F)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שמ으로 연결됩니다.

형사1, 두영에게 전화를 해본 뒤 조형사를 보며 고개를 젓고, 연희, 그럴 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먹이면,

인서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밤).

어두운 고속도로 위로 낮은 어번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형사1(OFF) 납치, 맞는 것 같습니다.

### #58 휴게소(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휴게소로 들어오는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주차장에 멈추면 급하게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건. 출싹거리며 뛰어 들어가는 건의 뒷모습을 보며 웃는 두영.

### #59 휴게소 화장실

건이 불일을 보고 있으면 두영이 들어온다.

두영, 슬쩍 건 쪽을 보면, 건 부끄러운 듯 몸을 돌리고.

불일을 마친 건, 세면대로 와서 손을 닦으면 이어 두영이 손을 닦기 위해 세면대로 온다. 손바닥으로 수돗물을 막아 두영 쪽으로 튀게 하며 장난치는 건. 두영 “앗, 차거!” 하며 수돗물을 손으로 받아 건에게 뿌린다. 건, 얼굴에 물이 닿자 “앗” 하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두영을 발로 찬다.

두영 아! (정강이를 잡으며 아파서 인상) 야, 너 내가 그 손버릇 고치랬지?

건 (화난 말투) 발로 때렸거든?

두영 뭐? 내 말이 그 말이야? (보다) 너 너무 폭력적이라고?! 너 깡패야?

건 (O.L)(발끈) 그런 아저씨는? (씩씩대며 보다) 아저씨도 사람 때려서 감옥 갔다 왔다며? 깡패는 아저씨가 깡패지!!

두영 뭐!!!!

## #60 휴게소 화장실 밖 길(밤)

건, 씩씩대며 고속도로 쪽으로 가면, 두영 쫓아와,

두영 (팔 잡으며) 가긴 어딜 가?  
 건 (팔 뿌리치며) 놔!  
 두영 (둘러세우며 버럭) 여기가 어딘지 알고 가긴 가?  
 건 (문득 사방 둘러보곤 고개 숙이고 눈물) ... 아파서 그랬단 말이야.  
 두영 뭐?  
 건 갑자기 얼굴에 물이 묻으니까 입술이 따가워서...  
 두영 !  
 건 (울며) 나 깡패 아냐... 깡패는 나쁜 사람이잖아... 난 아무나 막 때리지 않아... 물 때문에 아파서 그랬다고...  
 두영 ...

## #61 휴게소 주차장 / 넓은 01번 마을버스 안(밤)

두영, 건의 입술에 연고를 발라주면,

건 미자 이모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 깡패였대. 그래서 나도 깡패 같대.  
 (보며) 나, 정말 깡패 같아?  
 두영 ... 아니야. 너 깡패 안 같아. 앞으로 그렇게 말 안 할게... 미안해.  
 건 나도. (두영의 오른팔에 난 상처를 보다) 근데, 여긴 왜 그래?  
 두영 (팔 보곤) ... 그냥... (생각하기 싫은 듯 다른 곳 시선)  
 건 누가 때렸구나? (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지? 아저씨  
 아무도 안 때렸을 것 같아... 사람들은 이상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영 (한숨 쉬곤) 때렸어... 엄마를 때리길래... 새아빠가 나를 때리는 건  
 참겠는데, 엄마를 때려서... (시선 먼 곳)

말하고 나선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 두영의 팔에 난 흉터에 붙여주는 건.

두영 ? (보며)  
 건 (두영의 팔을 보며) 여기 많이 아팠겠다.

두영, 팔에 붙은 밴드를 보고 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내려 하고,  
 두영, “아우씨 다리 저려~” 하며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다.

두영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자.

인서트.

두영의 방(밤).

급하게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고, ‘철컱’ 잠금이 풀리면 구둣발로  
 들이닥치는 형사들. 텅 빈 방을 둘러본 뒤 서둘러 나가는 형사들.

맨 뒷좌석에 누워 계속 몸을 뒤척이는 두영. 두영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시트와 살이 닿아 “뿌잉, 뿌욱” 하고 소리가 난다.

건 (눈 감고) ㅋㅋㅋㅋ.  
 두영 (민망) 방귀 똥 거 아니거든?  
 건 ㅋㅋ, 누가 뭐래? 푸하하하하~  
 두영 (확 일어나며) 아~ 도저히 못 자겠다. 넌 그동안 여기서 어떻게  
 잤나?  
 건 (보며) 그럼 바닥에서 자든가?  
 두영 바닥? (생각하다) 울~ 천천대?

두영, 머리에 손 괴고 백팩에 기대 누워 마을버스 천장을 보고 있다.  
 건, 팔걸이에 기대 뒀 발은 창문에 올려두고 발가락을 꼬지락거린다.

두영 (불쑥) 야, 미취학 아동, 너 우주 가봤어?  
 건 (보며) 우주?  
 두영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눈 감아봐! 내가 눈 뜨라고 할 때까지 절대  
 뜨면 안 돼!!? 내가 너 우주에 데려다줄게~  
 건 (뉘지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눈을 꼭 감는, 궁금하고 기대되는)



두영(E) 자, 이제 눈 떠봐!

두영의 말에 눈을 뜨면 마을버스 천장을 수놓고 있는 수많은 형광 별. 건전지를 넣는 천체 별자리 무드 등이 켜져 있는 마을버스 안.

건 (감탄) 와~~~!!!!

두영 (자기 옆자리 가리키며) 이리로 와!

건 (두영의 옆으로 옮겨와 팔을 머리에 괴고 천장을 본다)

두영 근데 너 이 버스가 왜 좋은 건데? 차고지에 새 버스도 많더구만~

건 새 버스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 깨끗하고 예쁘면 모두 다 좋아하지만, 오래돼서 아무도 안 타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면... 버려지니까...

두영 ... (천장 보다) 너 저 행성이 뭔지 알아? 저게 목성이라는 건데?

건 토성 아니고? 고리 있으면 토성이잖아?

두영 알아 알아, 내가 설마 모르겠어? 너 시험해본 거야.

티격태격하면서도 얼굴은 행복한 두영과 건.

인서트.

현관문 앞(밤).

소란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형사들. 안에서 불이 켜지며 “이 밤에 누구야?” 하며 문 열고 나오는 사람, 보면 김부장이다. 김부장 놀라고, 형사들 뒤로 사이렌이 돌아가고 있는 경찰차가 보인다.

## #62 해안가 도로 + 낡은 01번 마을버스 안(아침)

해안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마을버스.

두영, 시원하게 뻗은 해안가 도로를 콧노래(고속도로 로망스)를 부르며 달리고 있다. 두영, 자기 흥에 취해 점점 노랫소리 커지면 옆 좌석에서 큰 타월을 덮고 자고 있던 건,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두영 (흥얼거리며 즐겁게) 일어났어?

건 (두영을 한 번 보고 앞을 보더니) 와~!! 진짜 바다네?!!

## #63 바닷가 주차장 + 낡은 01번 마을버스 안(아침)

바닷가가 보이는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하는 두영. 주차를 하는 동안, 건 빨리 내리고 싶어 마음이 급하다.

건 (신나고 급하다) 아저씨, 나 나가도 되지?

두영 잠깐! (뒷좌석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잠~!

건, 뒤를 돌아보면 플라밍고 튜브와 손잡이에 걸려 있는 상어 수영복!

## #64 몽타주(지난 새벽)

1. 새벽에 잠에서 깨는 두영. 건을 보는데, 건, 몸을 웅크리고 있다.
2. 휴게소 편의점. 두영, 건에게 덮어줄 큰 타월을 찾는데, 그 옆 옷걸이에 걸린 상어 수영복과 플라밍고 튜브가 눈에 들어온다.
3. 마을버스 안. 건에게 타월을 덮어주고 뒷좌석 손잡이에 상어 수영복을 걸어놓은 뒤 웅크리고 앉아 플라밍고 튜브에 입으로 바람을 넣는 두영. 튜브가 부풀어 오를수록 두영의 얼굴도 빨개진다.

## #65 경찰서 안(아침)

초조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연희,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다. 그때, 전화벨 울리면 형사 받은 뒤,

형사1 반장님, 윤두영이 소재 파악됐습니다.

조형사 (휴대전화와 총, 수갑 등을 챙겨 일어서며) 출동하자고.

연희 (달려와 조형사의 팔을 잡고 애원) 저도 데려가주세요.



#66 바닷가 모래사장(낮)

썸! 하며 아기상어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건과, 플라밍고 튜브를 머리 위에 지고 있는 두영. 바다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는 둘.

CUT TO.

파도와 백사장을 오가며 즐겁게 노니는 사람들.

금방 물놀이를 한 두영과 건, 모래사장에 앉아 찞바를 까고 있다.

찞바를 까서 한 입 먹던 건, 두영을 보더니 자기 것 내려놓고 두영에게,

건 쥐봐. (꼭지를 푹 분질러준 뒤) 자, 찞바 처음 먹어봐?

두영 어?

건 (손 보곤) 손 이리 쥐봐. (손에 묻은 모래 털어주며) 손 털고 먹어야지.

두영 어... (보다) 꼭, 엄마 같다... ( 먼 산)

건 (보다) 엄마 보고 싶어? 같까?

두영 (보다)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가.

건 (해맑게) 내가 같이 가줄게. 어딘데? 우리한테 영일이도 있잖아~

두영 ... 하늘나라에 계서...

건 (놀라고) 미안...

두영 어...? 어...

두영의 분홍색 플라밍고 튜브, 홀로 파도를 타며 왔다 갔다 한다.

잠시 뒤, 건에게 모래찞질을 해주는 두영.

두영, 건의 얼굴에 햇별이 들자 몸을 움직여 그늘을 만들어준다.

건 (그런 두영을 보고 웃더니) 나, 그냥 미자 이모네 분식집으로 데려다줘.

두영 (놀라 보며) 뭐?

건 (담담히) 거기서 엄마 기다릴래.

두영 (말문이 막히고 답답)

건 한 달 지나면 같이 살 거겠어. (생각)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

두영 (답답) 인마, 너 미련한 거야? 뭐야? 거기 다시 갔다간 너, 네 엄마 만나기 전에 하느님 먼저 만나는 수가 있어. (건 앞쪽으로 가 앉으며) 그리고 너, 맞는 거에도 단계가 있다! 내가 보니까 넌 초월 단계야. 근데, 때리는 사람은 말이야, 초월한 사람을 봐, 그럼 더 화가 나서, 이게 버터? 그럼 이것도 버터봐라! 하며 더 강도가 세진다고.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야! 이 바보야!

건 (바보란 말 기분 나빠) 바보는 아저씨가 바보지! 뉴스는 8시에 하거든?!

두영 뭐?! (생각) 지금 뉴스가 9시에 하는지 8시에 하는지 그게 중요해? 내가 그 얘기해? 애가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먹네? (한 번 심호흡) 내 말은? 너 거기 다시 가면 안 된다고... 너 거기 다시 가면... (말하려다 말고) 암튼 안 돼! 한 달이라고? (육해서) 거기 다시 갈 거면 차라리 한 달 동안 나랑 살아!

건 ?! ... (보다 일어서며) 진짜?

두영 (씩씩거리다 정신 들고, 내가 뭘 말을 한 거지 싶어) 어?

건 지금 말한 거? 진짜냐고?

두영 뭐?!?! ... (그제야 흥분 가라앉고) 내, 내가 뭐라고 했는데?

건 한 달 동안 같이 살자며?

두영 내가? (같이 살잔 말 진심이지만 웬지 쑥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웃으며) 생각해볼게.

두영 (일어서며) 아, 배가 고프니까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오네? (두리번거리다 편의점 보곤) 가서 뭇 좀 사 올게. (가려는데)

건 (두영의 바지를 잡으며) 혹시, 말해놓고 후회돼서 도망가는 거야? (풀 죽어) 그런 거면 같이 안 살아도 돼.

두영 애가 또 사람을 비겁한 사람으로 만드네, 마! 싸나이를 뭇로 보고! 내가, 뭐, 내 입으로 한 말 지키기 싫어서 도망이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건 (시무룩)

두영 너 혼자 두고 안 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진짜 배고파서 그래.

건 (여전히 시무룩)

두영 (보다 이런 짓만은 절대 안 하려 했는데) 못 믿겠으면 자,

진 (새끼손가락 내밀며) 약속. (손가락 내밀고는 쑥스러워 미치겠는) 금방 올게.  
(그런 두영의 새끼손가락에 새끼손가락 걸고 환히 웃으며) 기다릴게.

## #67 낯은 01번 마을버스 안 + 교도관 집무실 안(낮)

빵과 우유를 산 두영, 젖은 옷을 벗은 뒤 차 문을 열어 보조석에 던지고, 티셔츠를 꺼내 입은 뒤 핸드폰을 찾는다. 전원이 꺼진 핸드폰. 두영, 전원을 켜는데, 전원 켜지기 무섭게 울리는 전화벨, 보면 최부장이다.

두영 (받고) 네, 무슨 일로?  
최부장 아니, 전화를 왜 이제야 받아? 자네 혹시 건이라는 애랑 같이 있나?  
두영 네, 제가 건이...  
최부장 (O.L)자네가 그럼 정말로 그 앨 납치한 거야?  
두영 (놀라) 네? 납치라뇨?  
최부장 어젯밤에 김부장한테 전화가 왔었어. 자네가 분식집 남자랑 실랑이를 벌이다 양갈음으로 애를 납치했다고.  
두영 아니, 그건, 그 새끼가... (머릿속 복잡) 부장님, 그건...  
최부장 (O.L)그리고 자네가 끌고 간 마을버스 말이야, 버스회사 사장이 경찰한테 탈취당했다고 한 모양이야.  
두영 그건 제가 김부장님한테...  
최부장 (O.L)자네 수배 떨어진 상태고 납치에 쓰였다고 하니까, 일단 자수하게.  
두영 네?  
최부장 일단 돌아와서 자수해. 애랑 잘 돌아오면 김부장도 잘 얘기해준다고,

두영, 갑작스러운 얘기에 어쩔 줄 모르겠는데 두영의 마을버스 쪽으로 다가오는 순찰차. 순찰차를 보는 순간 두영의 머릿속 암전되고,

플래시백.

1. 경찰서 취조실. 교복 입은 두영(19세), 얼굴 피투성인 채로 형사와 마주

앉아 있다.

두영 그 자식들이 먼저 그랬다니까요?!!  
형사 (서류 몽치로 두영의 머리 치며) 시끄러, 너 같은 새끼 말을 누가 믿어?

2. 감방 안. 두영을 둘러싸고 발로 짓밟는 수감자들.

두영, 무작정 전화를 끊은 뒤 빵 봉지와 전화기를 보조석으로 던지고, 낯 나간 사람처럼 급하게 버스에 올라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건다. 마을버스 유리 넘어 혼자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건을 담은 카메라.

## #68 ○○시 요금소(낮)

요금소 앞에 멈춰 있는 조형사의 차.

요금소 직원 (주눅 들어서) 요금표도 내고 돈도 내니까, (억울하다는 듯) 근데 안 되면 원래 고속도로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승합차 안 무전으로, “○○해수욕장 인근에서 용의 차량 발견”

## #69 낯은 01번 마을버스 안 / 바닷가 근처(낮)

흔이 빠진 얼굴로 쫓기듯 버스를 모는 두영.  
그리고 마을버스 뒤를 쫓으며 스피커로 멈추라고 말하는 순찰차.  
그때 아기상어 수영복을 입은 건, 앞으로 뛰어들며 버스를 가로막는다.  
두영,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면, 버스 앞엔 건이 아닌 아기상어 수영복을 입은 또래의 아이와 엄마.  
아이 엄마, 두영에게 인사한 뒤 아이와 손가락 걸며 “다신 혼자 다니지 마, 약속” 하며 간다. 그 모습 보던 두영 건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고,

두영(OFF) 못 믿겠으면 자, 약속.

두영, 건과의 약속 떨치려는 듯 고개를 젓는데 옆자리에 빵과 우유 든 봉지가 보인다. 잠시 보다, 사이드미러 보면 순찰차에서 내려 두영 쪽으로 오는 순경, 두영 다시 급하게 마을버스를 출발시킨다.  
 그렇게 순경도, 앞의 신호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두영과 마을버스.  
 두영, 한참을 가는데 옆 좌석에 느껴지는 건의 빈자리, 옆자리 보면, 건에게 덮어줬던 타월과 건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인다.  
 그러다 오른쪽에 밴드를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며 감정이 북받치는 두영.  
 두영, 그동안 눌러뒀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고, 삼키려 애썼던 눈물이 뺨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한번 터지자 추슬러지지 않는 감정.  
 점점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두영, 앞이 보이지 않고,  
 결국, 차를 갓길로 세우고 참았던 것을 토해내고 마는데,

건(OFF) 많이 아팠겠다.

플래시백.

#61 두영의 팔에 밴드를 붙여주는 건.

#49 수철에게 말하는 건.

#36 두영이 손을 따주면 트림을 하는 건.

#66 두영의 손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는 건.

#66 바닷가에서 약속을 하는 두영과 건.

두영 너 혼자 두고 안 가. 금방 올게.

건 기다릴게.

두영, 울음을 멈춘 뒤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그때 순찰차,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은 뒤 순경 급히 내려 운전석 문을 두드린다.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버스를 길게 뒤로 뺀 뒤 곧바로 유턴을 하는 두영.  
 두영, 더 늦기 전에 건에게 가기 위해 액셀을 밟는다. 굉음을 내며 RPM을 올리는 영일이. 순경,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라서 뒷걸음질 친다.

## #70 해안가 도로(낮)

건에게 가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두영과 영일이.  
 순찰차와 조형사의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두영이 탄 마을버스를 쫓는다.  
 멀어지는 마을버스와 그 뒤를 쫓는 순찰차와 조형사의 차.  
 햇빛에 반짝이며 일렁이는 파도가 해안가로 와 시원하게 부딪힌다.

## #71 바닷가 주차장(낮)

수갑을 찬 두영의 두 손에 들린 빵과 우유가 든 봉지.  
 두영, 건과 연희에게 다가가고, 조형사 뒤에서 지켜보는데,  
 연희, 두영이 다가오자 시선을 피하며 건을 꺾고 끌어안는다.

건 (답답) 아저씨, 나는, 아저씨랑 나랑 엄마한테 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 때린 사람도 아저씨 아니라고 했는데.

두영 (O.L) 빵이 다 떨어져서 좀 멀리 갔다 왔어. 오래 기다렸지? (건에게 봉지를 건넨 뒤 연희를 보며) 안녕하세요. 저, 건이 아는 동네 아저씨데요. (꾸벅 인사하며) 실례가 많았습니다. (돌아서서 가다 멈추고) 근데...

건, 연희 (두영을 보면)

두영 (돌아서지 않고) 엄마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

두영 엄마면... 건이가 뭘 원하는지, 애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지 (고개 돌려보며)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자 연희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연희, 건을 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린다. 건을 안은 연희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린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며 햇살에 반짝인다.

## #72 해안가 도로(낮)

조형사의 차가 해안가 도로를 달리면 그 뒤를 따라 견인차에 끌려가는

낮은 01번 마을버스.

### #73 도시락 가게 인근 거리(낮)

라떼아트로 꽃을 만드는 투박한 손.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나는 뺨사리.

두영,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면, 앞에서 기다리는 손님도 인상.

두영, 우유 거품을 휘휘 뿌려 꽃을 아예 없애버린 뒤 쓰름 웃으며 커피를

건넌다. 섹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 가는 손님.

간이 카페로 개조된 낮은 01번 마을버스.

마을버스 옆으로 <영일이네 커피>라고 쓰인 가판대가 세워져 있다.

두영, 손님이 간 뒤 한숨을 몰아쉬는데,

두영 앞으로 놓이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도시락.

건        엄마가 가져다주래!

두영     (통명)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라고 엄마한테 가서 전해.

건        (어이없고) 뭐래? 싫음 마! (도시락 잡는데)

두영     (재빠르게 건의 손 잡으며) 낙장불입! 찢다 뺏는 게 어딴어?

건, 그런 두영을 보고 픽 웃으며 도시락에서 손 빼면,

도시락 가게 앞에 서 있는 연희를 향해 씩스러운 듯 고개 인사하는 두영.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이 풀샷으로 들어오며.

끝.

작가 후기    덜어냈고 채워졌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드라마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두 번째로 썼던 마을버스였다.

그만큼 오랜 시간 만지고 다졌던 작품이었다.

이곳 오픈에 와서 덜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불안했었다.

혹시라도 이렇게 덜어내다 그나마 작품이 갖고 있는 장점마저 남게 되지 않을까 봐.

하지만 수정을 거듭한 뒤에야 센터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덜어내도 덜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정서... 그렇게 작품이 담고 있는 정서를 남겨둔 뒤 그다음 채워기는 연습을 했다.

덜어낸 만큼 채워지는 것들도 많았다.

비단 마을버스만 채워졌던 시간이 아니었기에 소중한고 귀하게 여겨진다.

앞으로 누가 지금처럼 나와 내 글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함께 수상한 오픈 2기 작가님들과 이나정 감독님, 그리고 오픈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채우고 갑니다. 글도 마음도.

# 진추하가 돌아왔다

송진

---

## 작의

내 오랜 그녀, 진추하가 기적처럼 돌아왔을 때 나도 나에게로 돌아갔다.

《ONE SUMMER NIGHT》의 주인공 진추하. 그녀가 2005년 한국에 와서 한 방송사의 콘서트 무대에 선 적이 있었다. 스물넷의 나이로 은퇴한 그녀는, 70년대에 피아노 치며 노래하던 그 아름다움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고 그녀를 오래도록 기다려온 팬들은 열광했다. 그녀는 24년 전에 떠난 자신을 아직도 기다리는 팬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그것을 “Miracle”이라고 불렀다. (싱어송라이터인 그녀는 그 마음을 담아 《Miracle》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고 갔다.) 진추하라는 한 스타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의 4, 50대 아저씨들! 중년의 나이가 되어 이젠 누구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그런 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열광하는 모습은 슬프도록 아름다워 보였다. 그건 남편이나 아버지란 짐을 벗어던진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은 아니었을까? 그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가슴 밑바닥에 앙금처럼 남아 나를 울렸다.

이 드라마는 한 가수와 그녀를 기다려온 팬들의 이야기라는 옷을 입었지만 실은 ‘자기애’에 관한 한 남자의 소박한 성장드라마이다. 깨달았다 해도 사실 우리 삶은 통째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드라마는 그저 어느 날 우리 삶에 다가온 작은 열정에 대한 작은 판타지이다.

---

## 등장인물

### 임현식(45세)

4남매의 맏아들로 일찍부터 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기에 자신보다는 늘 가족을 챙기는 게 몸에 배어버린 ‘착한 사람’ 그 자체. 그 습성은 직장에서도 일관되어 남들이 미루는 일, 본인이 다 해버린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건 내색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 그런 게 있었는지도 잊은 사람.

송진  
sley3@naver.com

- 2007 •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창작반 수료
-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진추하가 돌아왔다》 극본

**유정희(43세)**

만머느리로 고생도 했지만, 착한 남편이 살림을 도맡다시피 하면서 자신을 아껴주기에 별다른 불만은 없다. 하여 어지간하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착하고 대범한 아내.

**유정(15세)**

현식의 외동딸. 아빠가 어느 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옛날 가수에 빠졌단다. 헐! 아빠가 아빠 물건을 사는 꼴을 다 본다.

**어머니(73세)**

몇 년 전 살짝 풍을 맞아서 한 손을 쓰지 못한다. 요즘 들어선 가끔씩 오락가락하며 살짝 치매가 오고 있는 중. 흥시를 좋아하는 이 어머니, 이제 아들에겐 돌봐주어야 하는 어린애가 되어가고 있다.

**장동식 상무(53세)**

시장 안 작은 신협 특성상 믿음신협의 실질적인 권력자. 자신의 낚시터에 동행하지 않으려는 임현식 과장의 충성태만이 불만이다. 그러나 임현식이라는 인간의 됴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마음 깊이 아끼는 알고 보면 임과장 인생의 우군 중의 하나인 팬클럽은 상사.

**정은영(22세)**

신협의 창구일과 잡일을 두루두루 하는 여직원. 동방신기의 열렬한 팬. 누군가의 팬으로 산다는 것,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현식의 팬질에 있어 유일한 조력자.

**박정환 과장(40세)**

믿음신협의 과장. 상무에게 충성하고 싶어 하지만 상무가 기회를 안 준다. 충성하고 싶은 이유는 승진 때문이고, 승진하고 싶은 이유는 오직 67만 4천 원이라는 월급 인상 때문이다. 자신의 핵심역량은 부동산과 각종 재테크에 내어주고 직장일은 부업인 듯한 남자.

**오민수 대리(34세)**

가끔은 빠릿빠릿한 듯도 하지만 가끔은 눈치 없는 일관성 없는 친구.

**첼시아러브님(30대, 여)**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도 못 하고 빚 갚고 있는 상태. 온갖 문화생활과 팬질이 자신을 숨 쉬게 해주는 탈출구인 진추하의 젊은 팬.

**그 외**

50대 남, 40대 남, 좌관 할머니, 음반샵 판매원, 방송국 경비아저씨(50대), 과일가게 아줌마, 낚시꾼1, 낚시꾼2, 진행요원, 현식 모(40대), 현식 부(40대), 현식의 여동생(30대 후반), 현식의 남동생(30대 후반), 어린 현식(16), 어린 현식 친구(16), 현식 남동생(12), 현식 남동생(10), 현식 여동생(7세), 고등학생1, 2(남), 이웃 아줌마 등등.

---

줄거리

**현식의 이야기**

아버지를 잃고 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만아들로,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자식, 치매기가 오락가락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보다는 식구들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멜론 하나 선뜻 집어 들지 못하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다. 가난한 집 만아들에게 시집와 시동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식당까지 하는 아내인지라 그저 늘 미안하고, 뭐 더 해줄 게 없을까 싶다.

그런 현식의 일상에... 어느 날 진추하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때 현식의 첫사랑이었던 진추하! 집에 오면 집안일과 어머니 수발에, 회사에선 휴일이면 낚시 가자고 눈치 주는 상무까지... 그동안 현식은 그렇게 살았다. 그런 그에게 있어 진추하는 그냥 가수가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에 멈추어버린 시계이다.

그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 시절 소년처럼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소년 시절에 사두었던 진추하의 LP 한 장. 그 마음을 발견한 그는 행복하다.  
그는 결심한다. 반드시 가리라!!!  
24년 만에 돌아온 그녀, 진추하가 있는 서울로…

#### 상무의 한마디

나로 말하자면, 믿음신협이 실질적인 권력자. 얼마 전 상무로 승진하면서 내가  
하던 부장 자리에 임헌식 과장을 앉힐 생각이 굴뚝같다. 그런데 당사자는  
간절하지 않다. 상사가 부하 승진시켜 주고 싶어 혼자 김치국 마시는 뭔가  
이상한 그림이네…  
저 새끼 왜 내가 들은 패에 관심이 없을까…  
남시하며 충성하면 그 아름다운 부하에게 난 조기승진이라는 하사품을  
내려주고 싶은 건데… 새끼… 내가 지 이빠하는 거 다 알면서 은근히 무정하고  
도도한 새끼.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듯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심중의 포인트를 도저히  
모르겠던 자식.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근히 반항이 시작되더니… 드디어  
정기총회 날 줄행랑까지…! 헛, 어이없다!!

#### 정희의 한마디

너럭지 않은 집의 판아들과 결혼해 고생한다지만, 내 남편은 진정 착하고 선한  
사람. 식당일 힘들다고 아침엔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진짜 내 편인 남자.  
그런데 요즘 남편이 살짝 수상했다. 알고 보니 진추하가 한국에 온다는 사연이  
있었네… 뭐 한 번 봐주지. 난 대범한 아내니까! 그런데 슬슬 남편이 선을  
넘어가는 중. 집안일도 게을리하고 무려(?) 나에게 소리소리 지르며 반항한다.  
이건 뭐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 좋은 건 한 번도 못 하고 산 사람이라  
문득 안쓰러운 마음도 드네.

#### 어머니의 한마디

판아들로 고생만 시킨 것 같아 안쓰럽고 또 안쓰러운 내 아들. 몇 년 전 풍도 한  
번 찍히는 바람에 집안일도 못 해주고, 게다가 요즘은 오락가락 치매기도 있어  
정말 아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한데도 먹고 싶은 건 또 먹고 싶다… 흥시라고…  
그런데 언제나 한결같던 아들이 요즘 산책도 자주 나가주지 않고, 등 보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말소리도 안 들리게 뭔가를 귀에 꼽고 있다.  
오락가락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동그란 호떡같이 생긴 플라스틱이랑  
귀에 꽂고 있는 것만 망가뜨리면 우리 헌식이는 다시 내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 진추하가 돌아왔다  
송진

#1 프롤로그

자막. “2005년”  
방송국 앞. 밴 차량 한 대 천천히 서고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내리는  
20대 남자 연예인(화려한 복장) 두 명, 방송국 문으로 들어간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10대 소녀들 대여섯 명, “오빠, 오빠!” 외치며  
뛰어가는데.  
뒤에서 방송국 경비아저씨, 한심하다는 듯 찻찻거리는 얼굴.  
경비아저씨 시선으로 앞쪽에 중년의 사내(헌식) 뒷모습 보이면.

경비아저씨 (동의를 구하듯) 맨날 봐도 맨날 한심해... 재들은...

뒤돌아보는 헌식, 양복 상의 안에 진추하 사진이 프린트된 티를 입고,  
목에는 카메라를 걸고, 손목엔 야광팔찌를 하고, 플래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백 옆구리에 끼고 있다.

경비아저씨 (!!! 헌식의 외양도 뭔가 이상하다 싶다)

헌식 여기... (방청권 내밀며)

경비아저씨 (위아래로 헌식을 훑는)

헌식 (모른 척) 저기 오늘 8시에 있는 콘서트...

그때, “진추하님이다, 첼시아, 첼시아” 등등 소리 들리고.  
4, 50대 남자들 열 명 정도 [기다렸어요, 진추하!] 등등 쓰인 피켓 들고  
검은 자동차 뒤로 뛰어가며 외친다.  
돌아보는 헌식, 누군가와 눈 마주치고 반가운 표정.  
50대 남, “저쪽이라네.” 하면서 뛰어가면 헌식, 같이 뛰기 시작.  
경비아저씨, 그 모습에 어이없다.

헌식 일행 멀리로 가면서 웅성거리는 위로 한 장씩 뜨는 70년대 진추하의  
사진들. 76년 영화 <사랑의 스잔나> 허리우드극장 흑백 신문광고 뜨고,  
다시 진추하의 <ONE SUMMER NIGHT> 음반 LP재킷 뜨는.

타이틀 “진추하가 돌아왔다” 뜬다.

#2 바닷가 갯바위

바닷가 갯바위에서 낚시 중인 헌식과 상무(53).  
주변엔 간격을 좁 두고 낚시꾼들 대여섯.  
무료하고 지겨운 표정의 헌식,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는데,  
상무, 입질이 오고 줄을 당겨 잡아 올리자 모두 그쪽을 바라본다.  
낚시꾼1, 2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며 상무에게 다가간다.

낚시꾼1 40센티 넘겠는데.

낚시꾼2 5자는 되겠네요. 첫 미끼에 대물이 오네요. 여기 포인트인가 보네.

상무 (감성돔 들고 바라보며) 포인트는 말이죠... (헌식 보며 읊어라, 잡은  
고기 호뭇하게 보다가 챙겨놓고 다시 미끼 끼우고 낚싯대 드리운다)

헌식 (O.L) 그때그때 다르답니다. 세상 물가에 포인트 아닌 곳은  
없답니다.

어느 포인트건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진정한 포인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교과서 읽듯 바다 보며 건성으로)

낚시꾼1 이야~~ 저희는 초보인데 많이 다니셨나 보네.

헌식 아, 뭐... (관심 없이 다시 바다를 본다)

낚시꾼1, 2 부러워하며 자기들 자리로 돌아가던 중,  
다시 입질이 오는지 “어, 어.” 하며 긴장하고 줄을 당기는 상무.  
낚시꾼들 다시 지켜보고. 상무, 줄을 당기는데... 심상치 않은 무게다!!

상무 야야~! 입과장! 이거 7자다, 7자. 이거... 이거... 어떡하나?  
(홍분해서 말이 엉킨다)

헌식, 엉거주춤 일어나 팔로 허리를 짚고 옆에서 멀뚱히 바라보는데,

상무 (버럭한다) 뭐 하나~! 빨리~! 빨리~!

헌식, 꾸무럭대며 다가와 뜰채를 든다.  
물고기는 퍼덕이고 상무, 힘겹게 낚시대 잡고 안간힘 쓰는데.  
헌식, 뜰채 들고 뜨는 동작, 영 미덥지 않다.  
상무, 줄을 당기며 안타까워 소리소리 지른다.

상무 깊이 폭 뜨라고~~!! 깊이~!

상무의 독촉에 헛뜰채질 하다가 물살에 뜰채를 놓치는 헌식.  
놓친 뜰채 잡으려 허둥대다 당황한 헌식,  
급한 맘에 퍼덕이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보려 허우적대면,

상무 (고기 줄 당기랴, 헌식 보고 외치랴 정신없다) 야!! 뜰채부터 건지라고~!

헌식, 가라앉는 뜰채 건지려 한 발 더 내딛다 그대로 물에 풍덩 빠지고.  
그때, 상무, 낚싯줄 끊어지면서 뒤로 나자빠진다.  
물고기는 낚싯줄을 끊고 도망가버리고, 헌식은 바다에 빠져 주저앉아 허우적대는.  
상무, 절규한다. “야!!!!!!!!!!!!!!!!!!!!!!!!!!!!!!”

### #3 정희의 식당 + 바닷가 일각 교차

작은 밥집 정도의 식당. 테이블 대여섯 개 있는 규모의 단정한 실내 분위기. 정희, 테이블에 앉아 야채를 다듬으며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정희 (살갑게 웃는) 어째… 당신이랑 가야 고기가 잘 문다는데…

바위 위에 늘어놓은 젖은 옷 날아가지 않게 돌로 눌러 얹으며 전화

받고 있는 헌식. 상무의 웃인 듯 꺾 끼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채 덜덜 떨면서 쭈그리고 앉는. 멀리 뒤로 보이는 상무, 낚시꾼1, 2에게 “이만했죠?” 하면, “에이… 그거보단 작아 보이던데…” 그러면, 팔을 더 벌리며 “이만했다니까요… 내가 아주 오늘… 그냥!!” 하며 분을 못 참고 헌식 쪽을 보며 방방 뛰고 있는.

헌식 년 매운탕만 걱정되냐? 상무님 미끼 노릇 하는 나는 안 불쌍하고?  
정희 (달래는) 자연산으로 몸보신도 하고 좋지 뭘.  
헌식 난 살생에는 취미 없어.  
정희 어이구, 다 잡아먹으라고 있는 고기들이야. 당신, 부장 안 되고 싶어?

헌식, 멀리 보이는 상무 돌아보며 “에…에취” 해대는.

### #4 바닷가 방파제나 갯바위

아이스박스 열면, (클로즈업) 마늘 다진 것, 파, 양파, 빨간 고추, 파란 고추 어슷썰기 한 양념들 정갈하게 담겨 있다.  
한옆에는 버너, 물 끓는 코펠, 옆에는 잡은 고기들 서너 마리.  
도마 위엔 칼로 돤이나 우럭 정도의 생선 머리 탁 내려치는 손. (클로즈업) 아직 분을 식이지 못하고 씹씩대는 상무의 손이다.

상무 (칼로 양념 가리키며) 네 와이프 반만 닮아, 벌써 정성이 달라.  
못 와도 마음이 오니까 이렇잖아?  
너! 넌 몸만 오니까 이런 대형참사가 벌어지지.

헌식, 한옆에서 기죽어서 탕 끓일 준비 중이다.

상무 (버럭) 대충해. 바닷고기는 어떻게 해도 맛있어. 민물매운탕이 어렵지.

CUT TO.  
클로즈업. 보글보글 끓고 있는 돤이나 우럭 정도 매운탕.

상무 (한입 떠 넣고는) 카~~ 네 와이프 양념이 널 살렸다.  
 현식 (기죽어서) 네... (순가락 들고 매운탕 뜨는)  
 상무 (현식 보며, 다시 분이 치민다) 너, 7자 놓치면 원래는 살인나는 거야.  
 현식 (조그맣게) 그게 넘어질 때 보니까 60센티도 안 될 거 같던데...  
 상무 뭐? (매운탕을 연신 떠 넣으면서) 너... 너 인간이 그렇게 비겁하면 안 돼. (사이사이 수저로 현식을 가리키며) 그냥 죽을죄를 진 거야 너는.

CUT TO.

바위에 있던 현식의 옷 말라 있고... 바다는 반짝반짝 빛나고...  
 도마 위엔 회 떠 먹고 남은 흔적, 매운탕 먹고 난 그릇들 보이고.  
 상무와 현식 종이컵에 커피 한잔 마시고 있다.

현식 ... (종이컵 들고 한 모금 마시는)  
 상무 입과장아, 넌 대체 좋아하는 게 뭐냐? 응?  
 현식 (상무 보는) ?  
 상무 (혼잣말하듯)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  
 (현식 보며) 넌 다 좋은데 인생에 포인트가 없어. 바람 빠진 풍선 같달까... 인생 낙이 별거냐? 사람이 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게 행복이야. (갯바위 가리키며) 그래서 낚시꾼들이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죽는 거야. 너도 그런 게 있나 한번 생각해보라고...!  
 현식 ... (한 손으로 종이컵 돌리며 마지못해) 생각은 해볼게요.  
 상무 뭐? (에라... 인간아... 말을 말자... 하고 일어나 저쪽으로 가버린다)  
 현식, 종이컵 돌리다가 문득 상무가 가리킨 갯바위... 낚시꾼들... 물끄러미 바라본다.

## #5 현식의 집 외경

5층 아파트나 4층 정도의 소박하고 오래된 낡은 빌라.  
 입구엔 낡은 화분들 몇 개 놓여 있고, 한편엔 오래된 커다란 나무 서 있는.

## #6 현식의 집 주방 겸 거실(보통의 30평 정도 구조)

(E)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그릇들 부딪치는 소리 들리는 위로, 카메라, 거실 풍경 천천히 훑고 있다.  
 소파 뒤 거실 벽에 걸린 현식의 세 명의 동생들 결혼식 사진.  
 신랑, 신부 옆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와 선 현식. 여섯 명이 찍은 각각의 사진 세 장. TV 놓인 벽엔 TV, 2000년대 초반의 미니컴포넌트 오디오, 컴퓨터 책상 나란히 있다.  
 어머니, 소파에 앉아 소리 작게 해놓고 TV 아침뉴스 정도 보는.

현식, 앞치마 두르고 아침 준비 중. 능숙하게 움직인다.  
 식탁 위로 밥, 국, 생선 포함한 반찬들 몇 가지 착착 놓인다.  
 클로즈업.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밥과 국.

CUT TO.

안방과 마주 보고 있는 방문 작게 두드리며 “유정아, 나와.” 하고는 뒤돌아보면 살짝 열린 안방 문 사이로 자고 있는 정희의 뒷모습.  
 현식, 정희 깡개 봐 조심스레 안방 문 닫아주고 거실 쪽으로 걸음 옮기면 소파에 있던 어머니 보이지 않는다.

## #7 앞베란다

어머니, (거실 쪽에선 안 보이는) 안방 앞 베란다에 신문지 깔고 쪼그리고 앉아 있다. 베란다 구석에 있는 잡동사니들 중 종이상자 하나를 무심히 보다가 뚜껑 먼지를 쓸 듯 왼손으로 한 번 쓸어주는 어머니. (불편한 오른쪽 팔 엉거주춤 들고 있는) 인기척에 돌아보면, 현식, 다정하게 웃는다.

어머니 감감해...

## #8 주방

현식, 의자 빼면 오른쪽 팔 엉거주춤 든 어머니 앉는다.  
 식탁 한옆 하얗게 개켜진 턱받이 하나 빼서 익숙하게 어머니 목에  
 돌려주는 현식. 어머니, 왼손으로 숟가락 들다 내키지 않는 듯 놓으면,  
 현식, 알겠다는 듯 일어나 냉장고로 간다.

CUT TO.

현식, 스푼으로 홍시 떼서 어머니에게 먹이는.

어머니 (왼손 내밀며) 인취, 내 먹을 수 있다가.  
 현식 (한 스푼 더 넣어주며) 어머니, 내가 누구?  
 어머니 (픽 웃는) 니가 어머니래잖어, 지금... 내가 빙신인 줄 아나벼,  
 이놈이...  
 현식 (웃으며 홍시에 박힌 줄 골라낸다)  
 어머니 (알겠다) 어젯밤에 내가 또 헛소리 해썬네벼.  
 유정(E) 할머니식구들 있는 밤에만 그러더라.

책가방 뒤에 두고 식탁에 앉아 숟가락 드는 교복 차림의 유정.  
 현식, 홍시 마저 끊어서 먹이고 나면, 어머니 왼손으로 숟가락 든다.  
 생선 발라서 어머니와 유정의 밥그릇에 놓아주는 현식.

상무(E) 그래서 누가 갈 거냐고~~~!

## #9 신협

아침조회 시간.  
 고객응대 카운터 왼쪽부터 은영(22), 현식, 오대리(34), 박과장(40)  
 순으로 앉아 있다. 그 뒤를 화가 난 상무 서성거리며.

상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밀린 대출금들 받아오고 싶지 않나?  
 난 그럴 거 같은데...?!

다들, 앞만 보고 말이 없다.

상무 마산건어물~ 여기 누가 갈 거야? 다섯 달 밀린 거 어떡할 거야?

상무, 박과장 쪽으로 가며 바라보는데, 박과장 딴전이다.

오대리 (상무 돌아보며) 지난주에 임과장님이 두 번이나 가셨대요.  
 상무 맨날 가는 놈만 얼굴 디밀어 되겠어? 뉴페이스가 가서 압박을  
 해야지.

오대리 (눈치 없이) 에이, 뭐 다 아는 얼굴인데 뉴페이스가 어딴어?  
 상무 (저 눈치 없는 자식) 너, 넌 그냥 가만있어. 너더러 가라는 거 아닌데  
 왜 끼어들어?

상무, 박과장 옆에서 허리 숙이고 얼굴을 뺨뚱히 보면, 박과장 눈  
 깜빡깜빡하며 곳곳하게 모니터만 바라본다.  
 현식, 그런 두 사람 말없이 보다가 수습하는 느낌으로.

현식 제가 이따 시장 도는 길에 다시 들러볼게요.  
 상무 (현식의 말 무시하고) 남한테 가서 빚 독촉하는 게 쉬운 놈이 어딴어.  
 월급 받잖아들, 월급 받으니까 싫은 소리 하고 사는 거야.  
 현식 (순하게) 제가 가요, 걱정 마세요.

상무, 현식을 물끄러미 보는데.  
 박과장, 상황 종료되는 분위기 잼싸게 감지하고 머그컵 들고 "아, 커피나  
 한잔 마셔볼까." 하며 알밋게 탕비실 쪽으로 가면, 상무 "저 압삽한 자식"  
 하는 표정으로 뒤통수 보는.

현식, 은영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은영의 모니터 보인다.  
 반 정도 축소된 창에 동방신기 윤희, 창민 사진 보이지만 현식 관심 없고,

현식 (작은 소리로) 마산건어물 서류 어디 있어?

은영, 서류 건네는데 현식의 핸드폰 진동으로 울린다.  
현식, 상무 눈치 보며 조심스레 전화 받는.

## #10 신협 건물 밖

건물 밖 후문 쪽이나 구석 정도.

여동생 (배시시 웃으며) 오빠 바쁘지?

현식, “그렇지 뭐.” 중얼거리는데, 그때 울리는 현식의 핸드폰 벨소리.  
현식, 폴더 열면 옆에서 액정 보던 여동생, 현식의 전화기에 귀를 바싹 댄다.

남동생(E) 형, 나 그때 그 대출금 이번에 못 갚을 거 같은데…  
여동생 (전화기 낚아채며) 작은오빠는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정말… 쯔~~  
제때제때 갚으면서 살자. 아니, 왜 다 커서까지 자립심이 없나 몰라.  
큰오빠 속상하다, 진짜아~~! (그러곤 폴더 탁 닫아 꺼버리는)  
현식 입마, 준식이도 힘들어…  
여동생 (핸드폰 건네며) 큰오빠 힘드니까 그렇지… (뭔가 눈치 보는)  
현식 이자… 두 달 치 밀린 거… 내가 넣었다.  
여동생 (뜸이 보이는구나 호들갑)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현식 들어가 봐야 하는데…  
여동생 (O.L) 나, 천 만 원만 더 대출해주라. (배시시 웃는)

CUT TO.

저만치 가고 있는 여동생 뒷모습 보던 현식.  
담배 한 개비 꺼내, 손바닥에 탁탁 치다, 하늘을 꿈벅꿈벅 올려다보는…

## #11 시장 일각

양쪽에 노점상들 보이는 중앙 통로를 걸어오는 현식.  
상인들과 인사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

좌판 할머니에게 만 원짜리 몇 장 받고 수첩에 기록하는 현식.

좌판 할머니 이번 달 이자 일주일이나 미리 주는데 좀 안 깎아줘?  
현식 (자상하다) 그러게… 밀릴 땐 벌금 받으면서… 그죠?

현식, 걷다가 과일가게 앞에 멈춰 홍시 팩에 담긴 것 보면, (7천 원 쓰인)  
과일가게 아줌마 익숙하게 홍시를 비닐에 담는다.

과일가게 아줌마 홍시가 오늘 비싸네.  
현식 네에…

현식, 비닐 받으면서 옆 흘끔 보면 멜론들 쌓여 있다.

과일가게 아줌마 (현식 눈길 보고) 오늘 멜론 싸. 쌀 때 하나 사 먹어~!

위에 가격표 보면 5000원 쓰여 있는. 잠시 망설이다 입맛 다시며  
돌아서는 현식. 돌아서는데 삶은 옥수수 노점 보인다.

## #12 시장 일각

현식을 제외한 신협 직원들과 상무.  
점심식사 마친 듯 커피 한 잔씩들 들고 걸어오고 있다.  
오대리, 은영 “내일은 임과장님네 식당 가요.” 중얼거리면서…  
건어물 가게 보이면 마산건어물인 듯.  
박과장 은빛 반짝이는 큰 멀치 쌀인 앞에서 “야, 이거 죽방렴 멀치인가  
보네.” 하며 짹째 하나 들고 씹어보다가 상무, 눈길 찌릿 느끼고,

박과장 김사장님, 우리 이자 언제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한마디 건성으로 던지고는 먼저 앞으로 가버린다.

상무 (박과장 뒷모습 보며 절레절레) 저 새긴 멘트에 영혼이 없어.

뭔가 성의가 없어. (멸치 하나 집으며) 죽빵을 날리고 싶은 자식.

### #13 정희의 식당

테이블 대여섯 개 있는 작은 밥집. 손님들, 두어 테이블.  
정희, 옥수수 먹으며 맞은편에 밥 먹고 있는 현식 바라본다.  
찌개와 반찬 대여섯 가지 정도의 백반. 한옆엔 옥수수와 #11의 홍시 팩.  
정희, 물컵을 현식 앞으로 당겨준다.

정희 내일은 뭐 먹고 싶어?  
현식 (더없이 다정하다) 당신 편한 거.  
정희 식당 주인이 다 거기서 거기지, 당신 (힘준다) 먹고 싶은 게 뭐냐고?  
현식 (숟가락 놓으며 탄말하는) 새벽시장 가지 말라니까...  
정희 (미소) 왜, 집안일 하기 싫어?  
현식 (물 마시며) 당신 힘들잖아, 그리고 우리 시장 물건도 좋은데...  
정희 허이구, 누가 신협 직원 아니랄까 봐...  
현식 (일어서며 핸드폰 거는) 어머니? 식사는 하셨죠?

현식, 홍시 팩 들고서는 손짓으로 정희에게 간다고 하며 나간다.  
정희, 현식의 뒷모습 따뜻하게 본다.

### #14 몽타주. 집 + 집 앞 놀이터나 아파트 일각(밤)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설거지하는 현식.  
어머니 모시고 아파트 내 놀이터 정도에서 산책하는 모습.  
어머니, 행복한 얼굴로 현식의 옷자락 움켜쥐고 따라오거나,  
혼자서 앞서 걷는 어머니 뒤에서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현식.  
집으로 오던 유정, 어머니 모시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면  
현식, 혼자서 아파트 일각에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 찾아 꺼내는 현식.  
담배 한 개비 손가락으로 다른 손바닥에 툭툭 치다 문득 밤하늘  
올려다보는 현식.

### #15 신협 외경

창에 버티컬 치는 은영의 모습.  
정문에 셔터가 내려가고 있는 시장통 한편의 믿음신협.

오대리(E) 와... 진추하네...

### #16 신협 안

오대리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이름이냐?

마감하던 현식, '진추하'라는 소리에 일어나 오대리 자리로 몸을  
움직이려는데...

상무(E) 중앙마트!

상무, 열 받은 얼굴로 들어오면,  
오대리에게 몸을 기울이다 다시 자리에 고쳐 앉는 현식.

상무 군산수산! 여기도 전부 대출금 회수불량인 거 알지?  
이거, 이거... 조합원들 피 같은 돈 날아가는 소리 안 들려?

다들, 숨죽이는.

상무 난 당신들 나이 때 밭 벗고 받으러 다녔어. 실적은 현장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부지런히 밭바닥 훑으며 다니는 게 실적인 거  
몰라? (양복 상의 들고 나가며 문득 현식에게) 똑바로 하세요!

상무, 뒷문으로 다시 나가면 다들 긴장이 확 풀리고.

현식 (아무렇지 않게 서류 보면서) 결산합시다.  
오대리 (현식에게 뒷문 쪽을 향해 고갯짓하며) 낚시 한번 가주세요.

현식 일해.  
 오대리 사무실 분위기 좀 바꿔주시지… 정기총회도 얼마 안 남아서 신경  
 곤두서 계신데, 낚시 한번 모시고 가서 기분 짝 풀어드리세요.  
 현식 (서류 보며) 한 달 전에 갔다 왔어.  
 오대리 (오버하며 놀라는 척) 하… 한 달이면 상무님 몸살 날 때 되신 거죠.  
 은영 (O.L) 하여튼 상무님은 기분 나쁘면 존댓말하며 비꼬시는데, 예휴.  
 현식 (오대리 보고) 참, 아까 진추하… 뭐라고 안 했어?  
 오대리 예? 아…! (모니터 보며) 한국 온다네요, 진추하가.  
 현식 누가 온다구? 정말? 우리나라에?  
 오대리 보세요, 다음 달에 한국 온다네요.

현식, 일어나 오대리 밀치고, 오대리 모니터 보는.  
 모니터엔 진추하의 70년대 사진.  
 “진추하. 스물넷에 은퇴한 70년대의 우상, 24년 만에 한국 온다”  
 현식, 낮이 나간 얼굴로 자리에 돌아와 앉는다.

은영 진추하가 누구예요?  
 박과장 (오대리 모니터 쪽 보며) 진추하는 말이지…

현식, 꿈꾸는 듯 멍한 얼굴이다. 그 위로,  
 진추하 & 아비의 <ONE SUMMER NIGHT> 노래 흘러나오며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 #17 현식의 회상. 작은 레코드가게 밖 + 안

70년대 레코드점.  
 유리창엔 <사랑의 스잔나> 같은 진추하 포스터들.  
 창밖에 붙어서 노래 듣고 있는 중학생 현식(16)과 현식 친구(16).  
 열린 문 안으로 카메라 들어가보면 교련복 입은 고등학생(남) 두 명.  
 <ONE SUMMER NIGHT> 1절 끝나고 소리 작아지며.

고등학생1 (진추하의 LP 들고) 드디어… 사는구나…!

고등학생2 (부러운 듯) 좋겠다, 전축도 사고… 근데 우리 올리비아 핫세는 왜  
 노래를 안 하는 거냐?  
 고등학생1 (여유 있게 웃으며) 아무나 하나? 미모, 노래, 연기 안 되는 게  
 없잖나… 우리 추하 누나는…  
 고등학생2 (헤드락하며) 미친놈, 죽을래?? 감히 우리 핫세 누님을…

티격태격하는 고등학생들 뒤로, 어느새 들어와 진추하 LP(비닐포장된)를  
 계산하고 있는 현식.

현식 친구, 계산하고 나가는 현식을 뒤따르며,

현식 친구 (고개 가웃하며) 니네… 전축 샀어?  
 현식 (씩 웃고 뿌듯해하며 나가는)

현식과 친구 화면 밖으로 빠지고, 벽에 붙은 진추하 포스터 클로즈업 하면  
 그 공간에 가득 찬 듯 들려오는 그녀의 노래.

## #18 실험 사무실 안

노래 끝나고, 현식, 혼자 낮 나간 얼굴.  
 은영, 박과장, 오대리 컴퓨터 근처에 서 있다.

은영 진추하는 몰라도 이 노랜 알죠. 리메이크 여러 번 됐었잖아요.  
 근데 오대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옛날 가수를 아세요?  
 오대리 이런 걸 클래식이라 하는 거야, (슬며시 웃으며) 나 유치원 때 우리  
 삼촌이 맨날 들려줬거든.  
 박과장 왜? 삼촌이 진추하랑 결혼이라도 한다고 막 떠들고 다녔나?  
 오대리 (놀라며) 어…? 어떻게 아셨어요?  
 박과장 뭐, 진추하가 70년대 워너비였긴 했지…

세 사람, 웃다가 문득 현식 보면 낮이 나간 듯하다.

## #19 버스 안(밤)

서류가방 메고 퇴근하는 현식. 비스듬히 건너편 자리에 앉은 10대들 이어폰 낀 모습 눈에 들어온다. 이어폰에 계속 시선 주는 현식.

## #20 집 거실(밤)

소파에 앉아 TV 보는 어머니.  
턱받이와 옷자락에 흥시 흘리며, 왼손으로 서툰게 흥시를 먹고 있다.  
정희, 주방 쪽에서 다가와 흥시 묻은 어머니 얼굴과 옷을 수건으로 닦아준다.

어머니 (오락가락하는 중) 우리 아들이, 현식이가 닦을 건데... 미안해요.  
정희 (순가락 빼앗아 입에 떠 넣어주며 다정하게) 맛있어? 어머니...

그때,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문 열고 들어오는 현식.  
정희와 어머니 반가워하는데,

현식 (표정 없이 멍한) 다녀왔습니다.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버린다.  
정희, 어머니 턱받이 다시 닦아주는데, 어머니 오락가락하며 “맛있어.” 하는 데서.

## #21 안방(밤)

잠들어 있는 정희 옆에서, 현식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앉는다.

## #22 베란다(밤)

잠옷 차림으로 베란다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7의 잠동사니 박스 뒤지는 현식.

오래된 일기장, 앨범 등등 사이로 보이는 #17의 진추하 LP판.  
비닐 벗기지 않은 상태 그대로다.  
쓰다듬어보는 현식, 반가움과 회한이 얽힌 복잡한 표정이다.

## #23 현식의 회상(#30까지). 70년대의 한옥집 마루

아담한 마당이 있는 한옥.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다지 남루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  
마루에 차려진 아침상에 둘러앉아 식사 중인 현식의 가족들.  
현식 모(40대), 현식 부(40대), 현식 남동생1(12세),  
현식 남동생2(10세), 현식 여동생(7세), 현식(16세, 검은 교복 차림)

현식 (밥숟가락 놓고 눈치 보는) 아버지...  
현식 부 (무슨 말 할지 아는) 왜에?  
현식 내 친구 영철이네 이번에 전축 샀다던데...  
현식 부 (깃곳게 모른 척) 야, 사내자식이 지조가 있어야지, 임마.  
현식 ?  
현식 부 올리비아 핫세가 더 이쁘냐? 진추하가 더 이쁘냐?  
현식 (무슨 말인지 알고 말 못 하는) ...  
현식 부 너, 작년엔 올리비아 핫세가 이쁘다고 안 했었냐?  
현식 (O.L) 내가! ... 여자 보는 눈이 높아졌거든...  
현식 부 (어이없어 웃는) 뭐...? (슬쩍 아내 눈치 보며) 진짜? 진짜 그 정도야?  
현식 모 (밈지 않게 눈 흘기는)

## #24 회상. 현식의 방(새벽)

어린 현식, 남동생들과 셋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다. 아버지 조심스레 들어와 현식의 볼을 툭툭 치면서 깨운다. 어슴푸레 눈뜬 현식 보면, 아버지 씨익 웃고...



#25 회상. 극장 앞

〈사랑의 스잔나〉 영화 간판이 붙어 있는 소도시의 허름한 극장 앞. 표를 끊은 듯 들고 들어가는 아버지와 헌식의 모습 뒤로 보이는 조조할인 문구.

#26 회상. 극장 안

〈사랑의 스잔나〉 영화 보이는 스크린.  
진추하가 피아노 치며 〈ONE SUMMER NIGHT〉 부르는 장면.  
몰입해서 보던 헌식, 아버지 보면… 표정이 서서히 빠져든다.  
그런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고는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의 헌식.

CUT TO.  
엔딩크레디트와 함께 음악이 흐르고… 감동에 젖은 헌식, 옆을 돌아보면  
흠쩍흠쩍 울고 있는 아버지!! … 꾀, 웃음이 터지는 헌식.

#27 회상. 극장 밖 거리 일각

헌식, 아버지 사이 좋게 두런거리며 걸어오고 있다.

아버지    우리 헌식이, 변절할 만했네…  
헌식       ??  
아버지    이쁘다고~~! 근데 난 노래를 잘해서 더 좋다.  
헌식       (좋아서 싱글벙글)  
아버지    (뭔가 결심한 듯) 까짓거 사자… 전축!  
헌식       (놀라서) 진짜?  
아버지    민주고등학교 가면!!  
헌식       (침 꿀꺽 삼키며) … 진짜지? 아버지… 약속 꼭 지키기다?

헌식, 신나서 뛰어가면 아버지, “같이 가야지.”  
뒤돌아보며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는 뛰어가는 행복하게 빛나는  
헌식의 얼굴.

#28 회상. #17의 레코드가게 앞 거리(#17과 이어지는 씬)

진추하 LP 들고서 가게를 나서는 헌식과 헌식 친구. (#17과 같은 옷차림)

친구       그럼, 그래서 판을 미리 사놓는단 말이야?

헌식, 꼬덕이며 판을 가슴에 안고 신나서 앞서가면.

친구       (뒤따라가며) 저 자식 저러다 진짜 민주고등학교 가는 거 아냐?  
아… 씨. 서울은 뽕뽕이 돌린 지가 언젠데.

#29 회상. 헌식의 집 앞

진추하 LP판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걸어오는 헌식.  
고개 들어보면 열린 대문 밖으로 걸린 근조등.

#30 회상. 헌식의 집 마당

마루엔 헌식 부의 영정사진.  
상복을 입은 헌식 모, 그 앞에 엎어져 소리 없이 울고 있다.  
무슨 일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헌식.

이웃 아줌마 (헌식의 등을 때리며) 하루 종일 어디 쏘다니다 왔어?  
(울음 터트리며) 느이 아버지… 사고당하셨어.

헌식, 멍하니 서 있고 그때 동생들 세 명 고물고물 헌식 앞으로 몰려온다.  
헌식에게 매달리면서 “형”, “오빠야” 하면서 우는 세 동생.  
헌식, 멍하니 마루를 보다가 내려다보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세 동생의  
얼굴.  
카메라 뒤로 좀 빠지면, 헌식의 뒤로, 마당에 떨어져 있는 진추하의 LP판.

### #31 거실(밤)

현식, LP판 들고서는 TV 옆의 작은 오디오세트 물끄러미 본다.  
시디플레이어뿐인 오디오.

### #32 큰 규모의 음반샵 안

현식, 기대에 찬 얼굴로 들어와, 점원(20대)에게 다가가는.

현식 여기 진추하 있죠?  
 점원 에??  
 현식 진추하요, 70년대 가수고 정말 유명한데...  
 점원 (가우똥) 그런 음반 없는데요.  
 현식 (그럴 리 없다)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봐주시지.  
 점원 (마지못해 매장 컴퓨터 모니터 검색하는) 아, 그런 가수 있긴 하네요.  
 현식 (반기며) 그죠? 유명하다니까.  
 점원 근데, 저희 매장에 옛날엔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품절로 뜨네요.  
 현식 너무하네...  
 점원 ?  
 현식 아니, 이렇게 큰 매장에서 진추하같이 유명한 가수 걸 안 팔면 뭘 파나? (실망해 돌아서 나가는)

점원, 그 뒤로 작게 “뉘래? 진추하가 누구야?” 정도 중얼거리는...

### #33 신협 사무실 안

마감업무 중, 상무는 자리에 없다.  
현식, 머뭇거리다가 은영을 보면, 은영의 모니터 배경화면에 동방신기 윤호와 창민의 사진 떠 있다. 창 닫고 할 때마다 보이는 배경화면.

현식 저기, 시디가게에서도 없는 음반은 어떻게 못 구해?  
은영 (모니터 보며 일하는) 뭐 사시게요?

현식 응, 어제 그 진추하 말이야, 오래돼서 그런지 없더라고.  
은영 (보는) 인터넷 음반 사이트 뒤져보세요. 중고 사이트도 있구요.  
현식 아...  
은영 (픽 웃는) 머야, 과장님 진추하 팬이세요?  
현식 (뭔가 수줍은) 어? 어...

은영의 모니터 창이 닫히자 또 보이는 동방신기 윤호, 창민.

현식 (괜히 친밀감 들어서) 애들이 동방신기라고 했나?  
은영 (반가워서) 네. 정말 잘생겼죠?  
현식 그런 거 같네.

좋아서 히... 하고 웃는 은영. 깨알같이 들리는 “애는 창민이에요.”

시간 경과.  
직원들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  
현식, 혼자 남아 모니터 보며 음반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있는.  
(결제하시겠습니까? 묻는 정도의 화면 잡아주는)

### #34 할인매장 안(밤)

빈 쇼핑카트 밀고 전자제품 있는 곳에서 있는 현식.

현식 (점원에게) 여기 휴대용 시디플레이어 안 팔아요?  
점원 에이, 요즘 시디플레이어 안 팔죠.  
유정 (뒤쪽에서) 아빠, 나 시디플레이어 필요 없어!!  
현식 (시디플레이어도 없고, 딸도 거슬리는) 내 거야!! 니 거 아니고!

현식, 카트 밀고 앞서가면 유정, 고개 가우똥하며 “아빠 꺼?” 중얼거리는.  
보면 현식, 카트를 카트 줄에 밀치듯 밀어 넣고 가버리는.

## #35 신협

직원들 마감하는 중. 상무는 자리에 없다.  
탕비실 쪽, 박과장과 오대리 커피 마시며 잡담하는.

박과장 올해 2005년에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월급쟁이 살길은 그래도 부동산이야. 오대리도 맨날 쓸데없는  
인터넷만 하지 말고, 주말엔 현장 답사도 나가보고…  
오대리 사주에 전 부동산으로 돈 벌 팔자 아니라던데…  
박과장 그런 게 어딴어?! 치열하게 공부해봐라… 돈 되는 거 다 보이지…  
오대리 (마시던 종이컵 구겨 버리고 돌아서면)  
박과장 (따라가며) 근데… 이번 총회 때 월급 인상된단 소문 들은 거 없어?

그때, 현식, 수금 들고 온 수첩 끼고 힐레벌떡 들어온다.

현식 (은영 쪽으로 오며) 택배는?  
은영 (고개 저으며) 아직요.

몽타주 느낌. 오대리, 뒷문 셔터 내리려고 하면, 양팔 벌리고 그 앞을  
막아서는 현식, 셔터 반만 내리고는 그 앞에서 서성이고.  
현식 돌아와 자리에 앉으면, 은영이 셔터 앞에 가서 서성인다.  
두 사람 같이 셔터 앞에서 서성이는. 그러다 택배기사1 들어오면 현식,  
택배상자 낚아채는데 이름 보고는 풀 죽어 은영에게 주고. 현식, 실망한  
얼굴로 자리에 앉는데, 그때 택배기사2 들어온다. 현식 부리나케 달려가  
택배상자 낚아채는데 보면 또 은영이다. 은영에게 풀이 죽어 내밀면 은영,  
미안한 듯 배시시 웃는다. 택배기사3 다시 들어와 “임과장님.” 부르면  
현식, 달려가 빼앗듯이 상자를 낚아챈다.  
은영과 현식, 나란히 앉아 사이좋게 상자를 열어보며 행복해하는.  
은영의 상자 안에서 나오는 건 돌돌 말린 최강창민과 유노윤호  
브로마이드들.  
현식의 상자 안에서는 시디플레이어와 이어폰이 나오고.  
현식, 흐뭇해서 시디플레이어 가슴에 안아본다. 살짝 이어폰도 끼어본다.

은영, 브로마이드 접어 책상 아래에 넣고는 현식의 시디플레이어 본다.

현식 매장들은 안 팔더라고. 온라인으로 하나 샀지.  
은영 잘하셨어요. 참, 진추하 팬클럽 찾아보셨어요? 있으면 거기부터  
가입을 하셔야 해요. 모든 정보는 팬클럽에서! (으쓱)  
현식 아… (고개 끄덕이며 또 하나 배우는구나 싶은)  
오대리 (끼어드는) 그럼, 진추하 들으실라고 이거 사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MP3로 다운받으면 돈 안 드는데…  
은영 (찌릿 보는) 팬들은 그런 거 안 받거든요?! 우린 CD로만 듣거든요?!

현식, 은영 그럼요! 하는 얼굴로 같이 고개를 한 번 끄덕이면 오대리,  
어이었다.

박과장 팬질은 10대에서 끝내고… 돈을 모아야지…

현식과 은영, 박과장 찌릿, 찌려보는.  
박과장, 눈 피하면… 현식과 은영 서로 웃으며 보는 데서.

## #36 거리 + 집 앞 외경(저녁 무렵)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는 소도시의 저녁 거리.  
하얗길의 유정, 가방 메고 걸어오는데 가로등 불이 탁탁 들어온다.  
빌라 집 앞으로 들어서는 유정.

## #37 집 거실(저녁 무렵)

“다녀왔습니다.” 하며 들어오던 유정, 거실 보면, 소파 위나 바닥 여기저기  
널린 옷가지들, 장 봐온 비닐 등등 지저분한 실내.  
어두워져가는 시간인데 아직 불을 켜지 않아 다소 어두운 실내.  
어머니, 식탁에서 혼자 저녁 먹고 있다.  
유정, 놀라서 보면 현식, 인터넷에 열중이다.  
유정, 식탁 위 조명 탁 켜고, 거실도 불을 켜준다.

유정 아빠.  
현식 (돌아보지도 않고) 밥, 국 다 있어. 데워 먹어.  
유정 (어이없는) ??

시간 경과.

유정, 욕실에서 나와보면 현식 여전히 모니터 보고 있다.  
어머니, 소파에서 잠들어가는.

유정 아빠, 할머니 소파에서 잠드셨는데...

현식, 못 듣고 계속 인터넷 중.  
유정, 살짝 모니터 보면 진추하 사진들 떠 있고 팬사이트 같은 곳 헤매고 있는.

### #38 동 거실(밤)

불 꺼진 실내, 모니터만 켜져 있다. 현식, 이어폰 끼고 진추하의 동영상 보고 있는데, 정희, 잠옷 바람에 하품하며 안방에서 나온다.  
현식, 정희를 보고 놀라서 얼른 창을 닫아버리고 다른 창을 연다.

현식 다... 당신, 안 자?  
정희 그거 내 대사야. 안 자고 있는 건 당신이야. 내가 자다 나온 사람이고...  
현식 (당황해서) 어, 어... 그러네.

정희, 들어가려다 문득 (컴퓨터 옆에 놓인 시디플레이어 보고는) 다시 나온다.

현식 (다시 놀라며) 어... 왜...? 뭐...?  
정희 (눈 가늘게 뜨며)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지...?

다시 긴장하는 현식, 그러나 이내 별 관심 두지 않고 "얼른 자."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정희.  
현식, 휴우 하고는 다시 모니터에 바싹 붙는다.

### #39 실험 안

마감 후. 다들 업무 중. 눈치 보며 채팅 중인 현식.  
화면에 채팅 내용 보이면서,

30대 여(E) 추하내사랑님, 이번 일요일 서울 정모에 오실 거죠?  
(모니터 화면 대화명: 첼시아러브)

은영 (옆에서 흐뭇하게 보다 작게) 첼시아가 뭐예요?  
현식 (소곤소곤) 진추하 영어 이름... (다시 열심히 자판 치는)

현식(E) 그럼요, 제가 집안에 맡은 일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가야죠.  
(모니터 화면 현식의 대화명: 추하내사랑)

30대 여(E) 이번에 온리진추하님께서 희귀한 자료들 많이 가져오신대요.  
현식(E) 아, 정말 기대되네요. ^^ (이모티콘 쓰면서는 좀 서툴게 자판 보고 모니터 보고 하는. 입력하고 나서 미소 짓는 현식)

상무(E) 잘한다, 잘해...

현식,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고, 다른 직원들도 상무에게 집중한다.  
상무 『낙시와 떡밥』이라고 쓰인 잡지 들고서 보란 듯이 책상 탁탁 치고 있다.

상무 정기총회 보고가 코앞인데, 나, 이거 스트레스 땀에 죽을 거 같은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현식 (낙시책 보이자 시선 피하는)

상무, 낙시책 책상에 확 집어 던진다.  
모두 현식 쳐다보는데 현식, 슬며시 눈 피한다.

박과장 (기회다 싶어) 이번 일요일에, 저랑 낙시 한번 가지죠?  
제가 매운탕도 끓여드리고...

상무 (O.L) 됐어, 너랑 가면 순 잡어들만 꼬여. 매운탕은? 매운탕은 아무나 끓이나? (현식 보는)

현식 (눈 피하는) ...

오대리, 은영 니가 해결해줘라... 하는 눈빛으로 현식 바라보면, 상무의 시선 피하던 현식, 그들의 눈빛과 마주치자 모른 척 시선 돌리다가, 다시 상무와 눈 마주치는...

현식 (시선 느끼고 수비 들어간다) 그때 거긴 사리 때, 물때 별로던데요.

상무 (적극적) 아니, 거기 말구, 안동, 그때 갔던 데 있지? 그 위쪽에 죽이는 쏘가리 포인트가 있다던데. 그때 자네 와이프가 끓여준 쏘가리 매운탕은 정말 내가 먹어본 최고의 매운탕이었지.

현식 그런 정보가 진짜겠어요? 쏘가리 포인트는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던데...

상무 (저게 들은 건 있어서 헛 하는 표정)!

현식 (흠뻑 보고는 다시 모니터 보는) ...

상무 (전열을 가다듬고) 임과장, 그때 생미끼 불쌍하다고 했지 그... 루어났시 해볼래? 루어는 가짜미끼니까...

현식 (O.L) (용기 내서) 저 못 갑니다, 이번 일요일엔 집에 일이 있어서요.

박과장 (끼어드는) 제가 모신다니까요.

상무 (박과장에겐 관심 없고 현식 보는데 반응 여전히 냉담) ...

이거, 부장 자리 빨리 사람 하나 들여서 같이 다니든지 해야지.

현식 (좀 뜨끔하지만 모른 척) ...

## #40 신협 건물 밖

상무 너 정말 이럴 거야?

현식 제가 필요.

상무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딱 잘라서 못 간다고 하고 말이야. 너 나한테 지은 죄 갚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은 가꿔도 모자라.

현식 ?

상무 너, 너 지난번에 7자 놓친 거, 그거 진짜 살인이 나든 인연을 끊든 할

일이야. 내가 그걸 봐줬는데 이래?

현식 솔직히 말해서...

상무 (O.L) 아니, 솔직하지 마. 뭘 또 솔직하고 그래.

현식 저 솔직하고 싶어요, 이번엔.

상무 (빈정 상한 듯) 니가 언제는 안 솔직했냐? 넌 항상 솔직했어, 일관되게! 죽! 온몸으로 솔직했어. 뭐 사람이 꼭 말로만 말을 하나.

현식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절 데리고 다니시는데요?

상무 나도 그게 싫어. 싫은데...! (한 톤 꺾인) 너랑 가면 사이즈가 달라져.

현식 암튼 전 이번엔...

상무 (O.L) 내 맘에 드는 답을 해. 내 맘에 드는 답이라면 그게 진실이든 아름다운 거짓말이든 상관없어.

현식 ... (망설이는)

상무 ... (눈 부릅뜨고... 그러나 간절하다)

현식 (눈 질끈 감고) 저...

상무 ... (고개 한 번 끄덕이는... 그렇지! 이제 대답해봐...)

현식 죄송합니다.

상무 (허탈하다. 급 약해지는) 아놔... 정말 못 가?

현식 저 들어가볼게요.

상무 (들어가는 현식 뒤에 대고) 너 진짜... 부장 안 되고 싶어? (혼잣말) 지가 몸이 달아야 하는데 왜 내가 애원하는 거 같지?

## #41 집 거실(밤)

현식, 이어폰 꽂고 모니터 보면서 열중인데.

정희, 들어오다 보면 개키지 않은 빨래들하며 집 안 어질러져 있다.

정희 유심히 현식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웃거리는.

현식 (뭔가 인기척에 놀라며 이어폰 빼는) 당신... 일찍 들어왔네.

정희 뭐가 일찍이야, (고갯짓하면 시계 11시) 근데 요즘 당신 바빠? 청소 상태가 영... (가우똥)

정희, 못마땅하게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카메라 안방에서 옷 갈아입으며 오가는 정희의 동선과 거실에 있는 현식 같이 잡는.

현식 (안방 쪽에 대고) 저기... 나, 이번 일요일에 낚시 가.  
정희 (익숙하다) 민물이야? 바다야?  
현식 저기... 아, 안동... (더듬는)  
정희 쏘가리 잡으러 가는구나. 에휴... 그럼 또 따라가야지.  
나 가면 사모님 가지겠네.  
현식 이... 이번엔 당신 안 가도 돼.  
정희 그래? 웬일이래? 그럼 나아 좋지. (방 쪽에서 나오며)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정희, 다시 나와 현식을 말없이 보자 긴장하는.

현식 ... 어... 어... 왜?  
정희 쏘가리...!  
현식 (긴장해서) 어...영.  
정희 매운탕 하나까 맛있더라, 한 마리 좀 챙겨와. (들어가는)

현식, 휴 하고 안도하는.

## #42 기차역

현식, 캐주얼 차림에 낚시가방 들고 낚시조끼 입고, 들뜬 얼굴로 기차에 올라타는.

## #43 기차 안

현식, 창밖 풍경 보다가 품속에서 진추하의 사진 꺼내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그러다가 낚시조끼 내려다보고는 슬며시 벗는 현식.

## #44 카페 안(정모 장소)

아담한 실내, 풍선 같은 장식들 앞에 달려 있고,  
[우리들의 켈시아, 진추하를 그리는 모임] 정도의 현수막 보이고.  
대어섯 개의 테이블마다 너댓 명씩 앉아 있다.  
현식, 들어와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사람들과 인사하는 모습.

CUT TO.

한 테이블에 50대 남(의사), 40대 남, 30대 여, 현식, 넷이 앉아 있다.  
현식 발 아래엔 낚시가방. 테이블엔 50대 남의 진추하 관련 소장품들.

50대 남 (현식에게) 서울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현식 고생은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으셨는지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50대 남 해외 사이트나 이베이 같은 데서 개인들이 파는 소장품 구입한 것도 있고...  
현식 아... 이베이... (바싹 귀 기울이며 끄덕끄덕)  
50대 남 (으쓱해서) 이게, 팬생활이라는 게... 정말 정성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또 수확이 있는 거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현식 (가르침을 듣는 자세) 그럼요.  
40대 남 (30대 여에게) 근데 여긴 30대가 어떻게 팬이 되셨나?  
30대 여 (배시시 웃는) 제가 원래 70년대 음악 마니아거든요, 진추하님 목소리 듣고서는 아... 이 맑은 목소리는 시대를 넘어서는 클래식이구나. (감탄하듯 혼자 허공 보는)  
50대 남 우리 켈시아가 작사에 작곡에 진정한 싱어송라이터죠. 거기다 미모까지... 우리가 괜히 20년 넘게 기다렸겠어요?  
현식 그럼요.  
40대 남 (30대 여에게) <사랑의 스잔나> 그 영화는 못 보셨죠? 어려서...  
30대 여 네, 진짜 보고 싶은데...  
40대 남 (목소리 낮추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는 좀 별로예요. 추하님 얼굴 보느라 본 거죠.  
30대 여 냉정한 팬이시네요. (까르르 웃는)

시간 경과.

맥주와 가벼운 안주들 테이블에 널려 있고, 사람들 적당히 취해서  
삼삼오오 옆 사람들과 오순도순 얘기 중이다.  
현식과 30대 여, 얘기 중이다.

30대 여 (끄덕거리며) 아, 맞아들이시구나. 전 거꾸로 위에 언니, 오빠들 다  
결혼하고 나서 집에 부도가 났거든요.

현식 (서로 자기 얘기 하는) 동생들 다 키우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아내가 착하죠. (부끄럽게 웃으며) 오늘 몰래  
왔어요.

30대 여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년 넘게 빚 갚으면서 결혼도 못 하고…  
그러면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는 할 수 있구나, 너 힘들지?  
하고 가끔씩 제게 상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식 (끄덕이며, 말 이르려는데) …

그 순간, 몇몇이 <ONE SUMMER NIGHT>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다 같이 합창하기 시작하면 현식의 테이블 사람들도 따라 하는데.  
노래 부르며 진심 행복해 보이는 현식, 크게 따라 부르는…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d think of you,  
my heart would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진추하의 얼굴이 프린트된 무릎담요나 큰 타월 같은 팬클럽 굿즈,  
망토처럼 두르고 아저씨 몇몇 앞에 나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 #45 현식의 아파트 앞(밤)

현식 밝은 얼굴로 <ONE SUMMER NIGHT>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걸어온다. 걸음을 멈추고 낚시가방 속에서 낚시조끼를 꺼내 입으며 계속  
노래 흥얼거린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정희의 말.

정희(E) 매운탕 하나까 맛있더라, 한 마리 좀 챙겨와.

## #46 집 거실(밤)

낚시조끼 입은 현식, 낚시가방 메고 한 손엔 스티로폼 상자 들고 들어온다.  
정희, 소파에 팔짱을 끼고 냉한 얼굴로 앉아 있다.

현식 (살짝 더듬으며) 어, 어머니는?

정희 (뭔가 쌀쌀맞은) 주무셔.

현식 버, 벌써?

정희 (벽시계 바라보며) 쏘가리 잡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나 보네.  
재밌었나 봐?

현식 어? 영… (뜨끔해서 스티로폼 박스 들고 허둥지둥 주방 쪽으로 가며)  
당신 주려고 쏘가리 챙겨왔지.

정희 (현식 모습 기가 차서 보다가 부엌 쪽으로 오며) 그래?

현식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아이스박스 풀어보며 짐짓 과장된) 이거 귀한  
거야. 오늘따라 쏘가리가 안 잡혀서…

정희 (아이스박스 보면 쏘가리 한 마리 얌전하게 누워 있다) 한 마리네?!

현식 응, 한 마리는 거기서 먹고, 한 마리 남은 거 상무님이 당신 주라고.  
하하… 참 상무님은 당신 생각 많이 해주셔. 그지?

정희 두 마리 잡혀서 한 마리는 먹고 한 마리는 남겨왔다?

현식 어… 그렇지.

정희 (훗) 자세히도 설명하네.

현식 …

정희 사모님이 (강조하는) 그 한 마리로! 끓여주신 매운탕 맛은 어땠어?  
내가 끓인 것보다 맛있었어? 그 한 마리?!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에  
감정을 실어 쏘가리 머리를 푹푹 찢러댄다) 직장상사도 날 그렇게  
챙겨주시는데 (현식 올려다보며) 당신은 왜 그럴까?

현식 … (헉, 이건 뭐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희 (일어서며 눈 똑바로 보는) …

현식 (시선 피해 뒤돌아서며) 씨… 셋을게.

정희 (O.L) 사모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당신! (현식 뒤통수 보는)

현식 … (멈칫 그대로 얼어붙는다)

정희 (현식 앞으로 돌아서 가며 얼굴 바짝 들이밀면)



현식 (겹먹은 얼굴로 뒤로 물러서는) ...  
정희 (나지막히) 당신, 바람났니?  
현식 (긴장이 풀려) 앵?

CUT TO.

식탁에 찌르륵 펼쳐져 있는 진추하 사진들, 포스터, CD, 사진이 새겨진 머그컵. 클로즈업.  
팔짱을 낀 정희, 현식과 식탁 위 물품들 번갈아 보며 웬일이니? 어이없는. 건너편 의자엔 혼나는 학생처럼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현식.

정희 어이구, 진짜 바람 맞네, 늦바람!  
현식 ... (?)  
정희 그러니까 당신 같은 아저씨들이 또 있단 말이지? 그런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 거지? 헛... 재밌네... 재밌어...  
(내가 말을 말자... 일어나 들어가는) 근데! 어지간히 하고 말어, 응?

현식, 혼자 뽀뽀하게 남아 휴우 하다, 식탁 위 보고 다시 깨알같이 웃는.

## #47 실험 안

아침. 고객은 없고, 상무는 아직이고, 직원들만 출근한 상태.

은영 어떠셨어요? 팬클럽 정모 가니깐 정말 도움 많이 되시죠?  
현식 (흐뭇) 응, 정말 정보의 바다더라구.  
은영 그렇다니까요, 팬생활은 혼자 못 해요, 뭉쳐야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뿌듯하게 웃으며) 전 다음 달에 일본 콘서트 따라가요.  
현식 (부럽고, 축하해주는) 아, 좋겠다.

박과장, 오대리 두 사람 어이없게 보는.

은영 (모니터에 창민 사진 보며) 우리 창민이가 부쩍 이뻐지더라고요.  
현식 (사진 건너다보며) 응, 짜식이 아주 잘생겼네.

은영 참, 팬클럽 정모, 정팅은 진짜 기본인 거고요...

은영, 더 말하려다 상무 들어오는 걸 보고 입을 다문다.

상무 (들어오며 현식 들으라는 듯) 입질도 형편없고... 순 잡어들뿐이고...  
에휴, 우리 마누라는 매운탕 하나 제대로 못 끓이고...  
현식 (모르는 척, 은영과 더 얘기하고 싶은) 우리, 점심 같이 먹을래?

## #48 정희의 식당

테이블에 차려진 1인 밥상. 현식의 점심 상차림.  
그 앞에 앉아 벽시계를 보고 있는 정희.

## #49 떡볶이집

은영과 현식 사이좋게 떡볶이 먹으며 떠들고 있는.  
현식의 핸드폰, 한옆에서 진동으로 울리는데 듣지 못하고.

## #50 아파트 놀이터 일각(밤)

어머니 모시고 산책 중인 현식, 마음이 급해 보인다.  
앞에서 어머니 옷자락을 끌며 걸음을 재촉하는, 자주 뒤돌아보는 현식.  
어머니, 손을 뒤쪽으로 가리키며 더 걷고 싶어 하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어 어머니 팔을 잡아끄는 현식.

## #51 집 거실(밤)

어머니, 현식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현식, 급하게 컴퓨터 앞으로 간다.  
어머니, 뒤에서 현식 유심히(?) 바라보다 혼자 소파에 앉는.  
현식, 모니터에 창 뜨면 빠르게 자판을 두드린다.

추하네사랑(E) 채팅 다 끝났죠?



온리진추하(E) 네, 왜 시작하자마자 나가셨어요?

현식, 속상한 얼굴.

CUT TO.

어머니, 무언가 찾고 있는 현식 뒤에서 (오른쪽 팔 들고) 서성대고 있다.

어머니 (상태 오락가락하는 중) 산책 가자.

현식, 대답 없고 무언가 찾느라 정신없이 오가는.

현식 (유정이 방에 대고) 유정아! 내 이어폰 못 봤어?

유정(E) 아니, 못 봤어요.

어머니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현식 뒤를 따라다니며) 산책 가자.

현식 (짜증 나는) 어머니! 좀 전에 저랑 나갔다 오셨잖아요~

현식, 찾다가 안방에도 가고, 어머니 방에도 가는 동안,

어머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TV 틀고.

현식, 어머니 방에서 반으로 잘린 시디랑 줄이 끊어진 이어폰 들고 나온다.

현식 (화가 나서) 어머니!

어머니 (판청 부리며 TV 보는) ...

현식 (TV 탁 끈다)

어머니 (기분 나쁜 듯도 한) ...?

현식 어머니도 어머니가 보는 거 이렇게 끄니까 기분 나쁘죠?

어머니 (금세 천진난만한) 산책 가자고 그러는거?

현식 (미치겠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오락가락 사람 힘들게 하면서 아들내미가 딱 하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왜 가만 놔두질 못하세요?

어머니 (놀란) ...

현식 나도 할 만큼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도, 그 꼴도 못 봐주냐구요?

현식, 소리소리 지르며 “에이...씨” 하면서 속상해서 이어폰 보는데, 정희, 어느새 들어와서 보고 있었다.

정희 (어머니 등을 밀며) 어머니, 들어가 주주세요.

어머니, 현식 눈치 보며 방으로 들어가는.

정희 당신, 왜 그래?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오락가락하실 때 그러신 모양인데. 큰 사고 안 치는 거 고맙다고, 치매도 이쁘게 걸렸다고 한 게 누군데? 당신 같은 효자가 왜 생떼를 쓰냐고?

현식 생떼?

정희 그래, 그 진추하 좀 못 들은 게 그렇게 화나냐?

현식, 정희 노려보다가 모니터 앞에 가서 앉는다. 정희, 헛, 어이없다.

## #52 집 거실(밤)

불 꺼져 있고 현식, 모니터에 몰두 중이다.

50대 남(E) 해외 사이트나 이베이 같은 데서 개인들이 파는 소장품 구입한 것도 있고...

화면 보면 해외 사이트 창들 여러 개 떠 있다.

창 하나 크게 키우면 진추하 팬클럽 사이트.

[콘서트 후 진추하님과 무대에 설 열 명의 팬을 초청합니다.

응모하시겠습니까?]

현식, 눈이 커져서 응모 버튼 누른다.

## #53 신협 안

택배직원 들어와서 상자, 현식에게 놓고 가면,

현식 얼굴에 화색이 들고, 박과장, 오대리 쫓쫓 하며 또? 하는 얼굴.

택배상자 풀어보려는데 현식의 전화, 진동 오는.

현식 (“동생” 떠 있고, 성가시다) 왜 또?  
여동생(E) 오빠, 천만 원 그거, 되는 거래?  
현식 몰라.  
여동생(E) 오빠가 그 정도는 맘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현식 (열 받는) 뭘 내 맘대로 해줘. 내가 언제 내 맘대로 해줬어?  
다 규정대로 해준 거지. 몰라! 바빠! 끊어!

현식, 전화 끊고 다시 기대되는 표정으로 상자 풀어보는.

## #54 집 거실

현식, 신나서 택배상자 안고 들어온다.  
어머니, 혼자 TV 보고 있고.

## #55 정희의 식당 + 집 거실 분할화면

손님들 두어 테이블 있고,  
정희, 아픈 얼굴로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든다.

정희 여보.  
현식 (회사에서 들고 온 택배상자 열어보며) 왜?  
정희 나 좀 아픈 거 같아.  
현식 (하나씩 꺼내는) 그래?  
정희 (반응이 왜 이래?) 뭐가 그래는 그래야. 토요일이니까 당신이 좀 나와서 도와줘.  
현식 (긁지들 거실 바닥에 짹 펴보는) 나, 정기총회 때문에 바쁘데...  
정희 (힘없이) 그래? 할 수 없지...  
현식 그래, 미안해. (서둘러 끊고 뿌듯하게 바닥을 보는)

## #56 동 거실(낮)

현식, 모니터 보고 있고, 현식의 뒤로 택배상자 열려 있고,  
진추하 사진 포스터, 티셔츠 등등 팬클럽 제작 굿즈 보인다.  
어머니, 음식물 얼룩진 턱받이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 정희 들어온다.

현식 (화들짝 놀란) 다... 당신 어떻게 들어왔어?  
정희 (둘러보니 가관이다) 식당문 닫고, 현관문 열고 들어왔다. 왜?  
현식 (말 끝나기 무섭게 몸 돌리며) 응.  
정희 (어이없어 열 받는) 내가 아까 아프다고 했지?  
현식 (계속 모니터만 보며) 응.  
정희 당신 정기총회 땀에 바쁘다고 했지?  
현식 (반쯤 돌아보며 엉거주춤) 응?  
정희 (말없이 보는) ...  
현식 (뒤가 따갑다) 쉬어, 그럼.

정희, 어머니 보면 때 묻은 턱받이 하고 있고, 집 안 꼴에 열이 나는데,  
현식의 태도에 폭발해서 갑자기 택배상자와 물건들 집어 던진다.

정희 쉬라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쉬라고?  
현식 (명해서 돌아보는)  
정희 당신 좀 어디가 어떻게 된 거 맞지? 다 큰 어른이 이려고 싶냐?  
이려고 싶냐고? (오래되어 보이는 포스터를 들더니 북북 찢어버린다)  
현식 (일어나 포스터를 주우며) 당신 미, 미쳤어? 이게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 줄 알아?  
정희 미친 건 당신이지, 아니, 10대 애들이면 또 몰라, 이게 40 넘은 남자가 할 것이니? 내가 애들이 이래서 속 썩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남편이 이런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 이게 미친 것이지 뭐야?  
현식 (목소리 높인다) 뭐? 미친 짓?  
정희 (놀라서 멍칫)

현식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하면 안 되지? 내가 갖고 싶은 건 하나도 가지면 안 되지?

정희 (멈칫하지만 지지 않고) 누가 그러라고 했어? 당신 평생 받아들 노릇 하느라고, 그 착한 아들 티 내느라고, 나도 그 장단에 맞추고 살았어.

현식 그래서 억울해? 억울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 그래서! 나도 너한테 미안해서! 니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고, 너 싫다는 건 입만 뽐낼해도 안 하고, 너 힘들까 봐!! 집안일 다 하고, 너한테, (사이) ... 너한테 미안해서 어머니 수발도 내가 다 들고...

정희 (기막히다) 당신 그 많은 말 다 하고 싶어서 그간 어떻게 참았어?

어머니 (한구석에 서 있다 겁먹은) 나, 나 흥시 안 먹어도 돼.

현식, 어머니 말에 어머니 쪽을 보다가 “에잇” 하고는 현관문 광 닫고 나가버린다. 정희, 나가는 뒷모습 어이없어 쳐다보는.

## #57 집 베란다

정희, 화가 나서 바닥을 박박 닦는데, #7(#22)의 상자 보인다.  
**살짝 열린 상태.**  
 한옆으로 치우려다 문득 열어보면 진추하의 LP판 보인다.  
 그때 핸드폰 벨소리, 앞치마나 주머니 정도에서 꺼내 받으면,

현식 여동생(E) (익숙하게 응석 받아달란 투의) 언니...

정희 ...

현식 여동생(E) 오빠가 이상해요...

정희 (마뜩잖다) 뭐가요?

현식 여동생(E) 아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 좀 더 해달랬더니, 것도 달랑 천만 원에... 퍽퍽거리구... 승질 피우잖아, 정말 오빠 왜 그런대요?

정희 (갑자기 열 받는) 오빠가 무슨 해결사래요? 왜 다들 맨날... 그렇게 치대요. 아직도 다들 어린애가? 형, 형, 오빠, 오빠, 왜 그래요?? 정말!

현식 여동생(E) (어? 놀라서... 울 듯한) 언니...

시간 경과.

전화 끊은 상태. 정희, 멍하니 주저앉아 진추하 LP판을 보는.  
 꺼내서 만져보면 비닐포장 그대로. 비닐을 손으로 만져보는  
 복잡한 표정의 정희.

## #58 실험 안

마감 후 서터 내린, 혼나는 분위기.

상무 우리 출자금이 얼마지들 알지? 근데 2억? 2억이면... 어이쿠야... 건너편 은행은 발 빠르게 지난달에 1억 회수했다던데.

직원들 ...

상무 좋아, 다 좋은데 제일건업 부도난 거 시장에도 다 소문났는데 정기총회 때 누가 말할 거야? 어떻게 말할 거냐구?

현식 제가 자료 정리해서 말 만들어보겠습니다.

상무 몰라, 임과장이 알아서 해, 아니면 사표를 쓰든지... (불똥 튀는, 은영에게) 기념품 수량 최종 확인했어?

은영 이따... 전화해보려고 했는데요...

상무 거봐, 거봐... 내가 안 챙기면 일이 안 돌아가. 사람들이 정기총회 왜 오는지 물어봐? 암만 실적 좋아도 기념품 안 주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조합원들 맘이야, 알아?

상무, 의자에 걸린 양복 상의 확 벗겨서 나가버리면,

박과장 직원들 맘은? 우리 월급 인상이나 챙겨주시지...

오대리 와... 이 질긴 기승전 월급 인상!! (엄지척) 인정!

박과장 야, 초연한 척하지 마. 너 과장 되면 세금 떼고 42만 3천 원 올라. 42만 원 올라봐라, 아침에 별떡별떡 일어나져. (오대리에게 몸 기울여 작게) 참고로 난 부장되면 67만 4천 원!!

오대리 ... (고개를 절레절레)

현식은 두 사람 상관없이 모니터와 서류만 번갈아 보며 일에 집중하고 있다.

## #59 신희 안(밤)

현식, 혼자 남아 서류 보며 일하다 기지개 켜는데, 땀 뚝 하고 메일 알림 들린다. 마우스 클릭하고 모니터 바라보던 현식, 점점 모니터 가까이 가더니 갑자기 일어나 기쁨을 참지 못하고 어설픈 춤을 춰댄다. 그러다가 문득 책상 위 달력을 보면,

인서트.

“11일 정기총회”라고 표시된 2005년 10월 달력.

현식, 속상한 얼굴로 앉으며 한숨 쉬는. 모니터와 달력 번갈아 보는 데서.

## #60 거리 일각(밤)

퇴근길, 풀 죽은 얼굴로 걷고 있는 현식의 모습 위로 소리.

인서트.

모니터 메일 화면, 보낸 사람 “진추하 팬클럽”

[11일 콘서트 후 진추하님과 무대에 설 수 있는 열 명에 뽑히셨습니다]

40대 남(E) 월차 내고 갑니다. 평일이라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30대 여(E) 전 병원 간다고 둘러대려구요.

50대 남(E) 전 병원 문 닫고 갑니다.

30대 여(E) 참, 추하내사랑님은 꼭 오시겠네요? 축하드려요.

50대 남(E) 열 명 안에 당첨되시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현식(E) 네에... (자신 없는 목소리다)

거리 일각, 걸음 멈추고 한숨 한 번 쉬는 현식.

## #61 집 거실(밤)

불 꺼진 실내, 우울한 얼굴로 모니터 바라보는 현식.

모니터엔 기차표 예매하던 중, “10월 11일 화요일 2시 예매하시겠습니까?”

묻는 창 떠 있다. 한동안 바라보던 현식, 창을 닫는다.

닫힌 창 아래로 열려 있던 창. 모니터에 보이는 팬클럽 사이트 문구.

[우리의 첼시아, 진추하가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 24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창마저 닫아버리면, 배경화면에 깔린 진추하의 사진.

현식, 고민스러운 얼굴로 모니터 아래 버튼을 눌렀다 꺾다 한다.

그런 뒷모습 잡으면 깜박이듯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진추하의 얼굴.

진추하의 <제이도채홍(第二道彩虹)> 혹은 <GRADUATION TEARS> 흐르고.

## #62 작은 규모의 강당 정도

[2005년 제32회 믿음신희 정기총회]라고 쓰인 현수막 걸려 있고,

사람들 들어오면서 기념품 박스 줄 서서 받는다.

신희 직원들 분주하고, 상무,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돌아다니고.

보고서 맡아 들고 벽에 머리를 기대는 등 안절부절못하는 현식.

오대리 (다가오며) 임과장님. 2시부터 시작하면 5시는 되어야 끝나는데 왜 점심도 안 드시고 올라오셨어요?

현식 (탄생각) ...

오대리 임과장님!

현식 (혼자 애타서) 정말 미치겠다!

오대리 배고파서요?

현식 ...

오대리 제가 뭐 좀 사다드려요?

현식 (!) 그래, 오대리.

오대리 (서로 탄소리) 뭐, 드실래요?

현식 (서류를 오대리 가슴에 탁 안겨주며) 오대리, 어제 나랑 최종 점검해서 이거 내용 다 알지?

오대리 ?

현식 그냥 올라가서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오대리 (니가 읽을 건데 뭐) 머... 그...렇겠죠?  
 현식 그래, 그렇지? 좋아! 그럼 읽어!!  
 오대리 (이해 안 가는) ... 예?  
 현식 자네가 대신 올라가는 거지.  
 오대리 제가요? 왜요? 싫어요, 저 못 해요. 갑자기...  
 현식 원래 기회는 느닷없이 오는 거야.  
 오대리 (거부하는) 아니죠, 이건...  
 현식 (단호하게) 나, 오늘 못 가면 평생 바람 빠진 풍선이야.  
 오대리 (이건 또 뭘 소린가) 과장님...  
 현식 오대리 순발력 있어서 잘할 거야. (등을 쳐주며) 믿는다!

현식, 재빨리 돌아서서 뛰어나간다.  
 오대리, 주위 둘러보며 서류 들고 난처한.

CUT TO.

오대리, 찢찢매고 있고. 상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전화기 들고 있다.  
 다시 누르는데 '임과장'이라고 액정에 보이는.  
 <ONE SUMMER NIGHT> 컬러링만 들리고...

## #63 집 거실

앞 씬의 <ONE SUMMER NIGHT> 컬러링 소리, BGM으로 바뀌고  
 헬레벌떡 들어오는 현식. 베란다와 컴퓨터 옆에 있던 포스터나 응원물품들  
 후다닥 챙겨 종이백에 넣는다.  
 어머니, 어리둥절 바라보고. 나가려던 현식, 식탁 위에 홍시 두 개  
 가리키며 드시라는 시늉을 하고 바람처럼 문 닫고 나간다.

## #64 몽타주

종이백을 거드랑이에 끼고 쓴살같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현식.  
 동네 길을...

가로수 늘어선 큰길을...

달리고, 달리는 현식.  
 그 옛날의 열여섯 살 까까머리 소년과 겹쳐 보인다.  
 레코드점 앞에 서성이던 소년, 현식.  
 진추하 레코드를 들고 품에 안으며 나오던 소년, 현식.  
 그때 그 소년으로 돌아가 달리는 현식.  
 어른 현식의 모습 #25, #26과 같은 옷을 입은 어린 현식으로 바뀌어  
 달리는...  
 달리는 현식 뒤로 땅 위엔 똥구는 낙엽들.

기차역으로 달려가는 현식.  
 헬레벌떡 기차에 오르는 현식.  
 떠나는 기차 뒤로 또르르 구르는 낙엽들.  
 그 위로 흐르는 <ONE SUMMER NIGHT>...

## #65 방송국 앞

프로로그와 같은 그림. 같은 복장의 현식.  
 검은 승용차나 밴 정도, 사라지고 나자, 옆구리에 종이백 든 채로 사람들  
 따라 뛰어온 현식, 숨이 차다.

50대 남 (현식에게) 못 보셨죠? 진추하님 내리셔서 나, 악수했다오.  
 40대 남 (꿈꾸는 듯 멍한) 저 얼굴... 세월의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  
 30대 여 (감동 먹은) 정말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이시지 않아요?

현식, 사람들이 마냥 부러운.

40대 남 (문득 현식의 옷차림 보고) 많이도 준비하셨네... 부럽습니다.  
 30대 여 (웃으며) 참, 이따 무대에서 보시잖아요? 진짜 좋으시겠어요.

사람들, 부러운 듯 현식 보며 한마디씩 거들면 현식, 기분 좋아져  
 우쭐거리는.

## #66 방송국 앞

사람들 길게 줄 서 있고, 헌식의 일행들도 서 있는.  
 진행요원 “이제 입장합니다.”  
 입장하며 행복해하는 일행들, 기대에 부푼 헌식의 얼굴.

## #67 공개홀 안

앞쪽 자리에 앉은 헌식, 들뜬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뒤를 돌아보면 계속 입장 중인 사람들.  
 가지고 온 플래카드 꺼내고, 야광봉 켜지는지 테스트해보고 한 번 흔들어본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헌식.

시간 경과.  
 객석 정리되고, 헌식과 주변 사람들 저마다 기대에 찬 얼굴.  
 헌식과 팬클럽 사람들(40대 남, 50대 남, 30대 여) 플래카드 들고 있다.  
 [기다렸습니다. 진추하. 당신을!]  
 [진추하, 첼시아, 아름다운 싱어송라이터] [우리의 영원한 스잔나] 등등.  
 돌아보며 그 열기에 행복해하는 헌식.  
 그때 울리는 핸드폰 진동. 꺼내보면 “딸”이라고 뜬다.  
 헌식, 무시하고 주머니에 그냥 넣고, 옆자리 팬클럽 일행들과 눈이 마주치자 웃는.  
 또 진동 울리고, 이번엔 “내마눌님” 뜬다.  
 헌식, 쳐다보다 그냥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울리다 끊어지고, 바로 다시 전화 올린다. 무시하는 헌식.  
 음악 울리고, 안내요원, “핸드폰 꺼주세요.” 외친다.  
 헌식, 전화기 끄려 풀더 열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

## #68 공개홀 안

헌식, 뒤쪽 출입문에서 자신의 짐 챙겨 들고 나가려다 뒤돌아보는.

음악 곧 시작하려는 듯 울려대고...

진행요원 (헌식을 보고) 공연 시작합니다, 착석해주세요.  
 헌식 ... (울 듯한 얼굴로 보는)  
 진행요원 ??  
 헌식 (켜지는 음악 소리에 무대 보며 더 울 듯한 얼굴)

관객들, “진추하, 진추하” 외치는 소리 멍멍하게 들려오고,  
 조명 들어오는 무대와 헌식의 얼굴 번갈아 보여주는.

## #69 방송국 앞

헌식, 종이백, 야광봉 등등 들고 처량하게 혼자 나온다.  
 갑자기 빗방울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하고, 헌식, 찡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는다. 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백 비에 젖어 툭 터져버린다.  
 떨어진 포스터, 야광봉을 주워 가슴에 안고 처량하게 걸어가는 헌식의 뒷모습.

## #70 기차 안(밤)

달리는 창문 밖에는 빗물이 창을 때리고.  
 가슴에는 야광봉 안고 앉아서 비에 흠뻑 젖은 헌식.  
 멍하니 앉아 있다 핸드폰 열어보면,

인서트.  
 휴대폰 액정.  
 딸. “아빠, 할머니 없었어.”  
 딸. “아빠, 전화 좀 받아봐.”  
 (E) 정희. “당신, 정말 미친 거 맞네, 오대리한테 들었어. 일단 어머니부터 찾고 보자구.”

### #71 아파트 일각(밤)

비는 그치고, 현식 비 맞은 물골로 포스터와 물품들 안고 나타난다.  
어머니 찾고 있던 정희, 유정 그 꼴을 보고는.

정희 (가슴에 반짝이는 야광봉 보니 어이없고) ...  
유정 아빠...  
정희 (쌀쌀맞게) 옷이나 갈아입고 나와.

현식, 천천히 아파트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정희, 유정 어이없어 보는.

### #72 엘리베이터 앞(밤)

엘리베이터에 탄 현식. 비 맞아서 꼬질꼬질해진 모습으로 벽에 힘없이 기대면, 스르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 #73 집 주방 + 거실(밤)

현식, 안방으로 가려다 문득 식탁 보면 놓아둔 홍시 두 개 보이지 않는다.  
현식, 두리번거리다 거실 쪽 보면 소파 앞쪽, 베란다 쪽으로 홍시 몇 점 떨어진 게 보인다. 다가가는 현식.

### #74 베란다(밤)

안방 쪽 베란다에 선풍기 상자 보이고.  
현식, 끌리듯 다가가보니 상자 옆에 어머니 잠들어 있다.  
입가엔 홍시 물어 있고, 그 옆엔 #7의 종이상자 열려 있다.  
안에 있던 물건들 여기저기 홍시 물어 있는데, 가만 보면 진추하의 LP판만 아무것도 물어 있지 않고 깨끗하게 한쪽에 세워져 있다.  
현식, 어머니를 보고 안도하며 긴장이 풀려, 허탈하게 주저앉는.  
그제야 안고 있던 물건들, 손에서 스르륵 놓치는데.  
눈물 고이는 현식. 그리고 진추하의 LP판 앞으로 굴러가 반짝이는 야광봉.

### #75 아파트 공원(밤)

현식과 정희, 의자에 좀 떨어져 나란히 앉아 있다.

정희 (누그러진) 그래, 실컷 보구 왔냐?  
현식 못 봤다.  
정희 왜 못 봤냐?  
현식 니들이 전화해대서. (생각하니 다시 속상한)  
정희 으흠...  
현식 (홀쩍이는 듯한)  
정희 우냐? (본다) 혼날까 봐 선수 치는 거지?  
현식 (정말 우는)  
정희 그날... 당신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다 맞더라. 당신... 너무 참고 살았어.  
현식 (울다가 보는) ?  
정희 만아들 노릇 하느라 애쓰고, 당신 만나 사는 나... 불쌍하다고, 좋은 남편 돼주느라 애쓰고... 당신... 애썼어... 진짜 애썼다...  
현식 (그 말 듣고 설움이 밀려와 소리 내어 우는)

정희, 옆으로 다가가면 어깨를 기대며 우는 현식.

### #76 아파트 공원 놀이터(밤)

앞 씬 연결. 현식과 정희, 나란히 그네에 앉아 있다.

정희 근데... 당신, 다음에 태어나도... 나랑 또 결혼할래?  
현식 ...  
정희 어~ 어? 나 같은 와이프가 또 어딴다고?  
현식 ... 당신한테 미안해서.  
정희 (따뜻하게 웃으며 보는)  
현식 유정이가 여섯 살 때 나한테 묻더라.  
정희 ?

현식      아빠, 아빠는 꿈이 뭐야? 그때 그 말을 듣고 알았지. 아, 난 한 번도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인간이구나.

정희      (짙한)

현식      내가 꿈이 어딴어? 웃겨, 웃긴 거지, 난 그냥 유정이 아빠고, 어머니  
          아들이고, 당신 남편이고 그런 거지.

정희      여보…

현식      참, 이상하지? 진추하가 돌아오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게 내가 뭔가  
          좋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사고, 애태우고 그러는데… (하늘 보는)  
          … 참 행복하더라…

정희      (현식을 보는 시선 깊고 따뜻하다) 아까 보니까 당신 어머니 맞대.  
          아들이 좋아하는 진추하 사진엔 홍시 안 묻힌 거 봐봐.

현식      (미소) 옛날에 왜 진축이 비쌌잖나?

정희      …

현식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들이 내 얼굴 그렇게 빨리  
          올려다보는데… 그때부터 진축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렸지.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돈 벌어서 사야지… 했는데 보니까  
          턴테이블이 다 없어진거라…

          현식과 정희의 다정한 그네 타는 뒷모습 보이며 현식의 목소리 작아진다.

## #77 신협 사무실

          현식, 눈치 보면서 뒷문으로 들어서는데.

상무(E)   너! 짤릴 각오, 하고 간 거지?

          음츠린 현식, 상무 앞으로 가면 『뉘시와 떡밥』 잡지 들고 있는 상무.

현식      (상무 책상 앞에 서서) 시말서 쓰겠습니다.

상무      (비꼬는) 시말서 갖고 되겠습니까?

현식      (혁…) 그럼 사, 사표…?

상무      (화 풀린 듯 느긋한, 탄소리) 오대리를 이참에 부장 승진시켜야겠어.

보고… 잘하더라고…

오대리, 빈말인 줄 알지만 싱긋거리고 박과장, 그래도 혁 하고 보는.  
현식, 계속 어쩔 줄 모르는데.

상무      시말서는 쓰는데… 흠, 담 주에 쏘가리 잡으러 가자고 느이 와이프  
          전화 왔더라. 간만에 매운탕 제대로 된 거 한번 먹어보자.

현식      (살았다) 감사합니다.

상무      그래, 앞으론 그래.

현식      …?

상무      뉘시 가자고 하면 똥 찌은 얼굴 하지 말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야.

현식      … (미소)

상무      뉘시터만 사계절을 겪어봐야 하는 건 아니더라, 임현식이~!! 다시  
          봤어.

현식      (툭툭대는) 제 인생에 포인트가 없다면서요.  
          한 달에 한 번! 저도 그 이상은 양보 못 해요.

          직원들, 다들 픽 웃고.

          현식, 씩 웃는데 <ONE SUMMER NIGHT> 벨소리.

          상무, “저 놈의 포인트…” 중얼거리고.

남동생(E) (대뜸) 형, 나 보증 좀 서줘. 서류는 알지?

현식      (잠시 흔들리다가) 내가 니들 대출하고 보증 서주는 사람이야?

남동생(E) (당황한) 혁영…

## #78 집 거실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 현식. TV 옆에 놓여 있는 턴테이블.  
          놀라서 다가가면 그 옆에 아직 뜯지 않은 진추하의 LP 세워져 있고.

정희(E)   나도 옷 한 벌 살 거야.



헌식, 돌아보면 정희, 뒤에 서 있는.

정희 비싼 건 비싸다던데, 비싼 건 아냐. (으쓱대는) 뭐 별거 아니더라구, 그냥 사면 되는 걸...

헌식, 좋아서 턴테이블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정희 적금 들자.

헌식 (돌아보며) ?

정희 홍콩 가자고, 가서 진추하 봐야 될 거 아냐?

헌식 (손짓하며) 저기... 말레이시아 사는데,

정희 (손짓 흉내 내며) 그럼 저~기, 말레이시아 가든지...

헌식 (감동한) 여보...

정희 (모르는 척 가위나 칼 건네며) 나도 좀 들어보자고, 몇십 년 만에 뜯는 판이 소리 날라나?

헌식, 진추하 LP 조심스레 뜯어 턴테이블에 올리는.

소리 날까 잔뜩 기대하면서 턴테이블을 둘러싼 헌식과 정희의 모습.

바늘 올리면 지직... 지직대는 소리와 함께 음악 나오고 "나온다, 나온다."

하는 정희.

진추하 & 아비의 <ONE SUMMER NIGHT> 흐르며 페이드아웃.

헌식(N) 그녀가 왔던 기억으로 그 이후를 살았다.

치매를 앓던 어머니는 5년 전 스잔나처럼 하얀 겨울에 떠나셨고...

## #79 에필로그

자막 올라가면서 깨알처럼 들리는 느낌으로...

2018년 신협 사무실. 상무 자리에 앉아 있는 헌식.

부장 자리에 앉아 있는 박과장. 그리고 오대리. 은영 대리. 20대 여직원.

헌식, "오과장, 이번 일요일에 쓰가리... 어때?"

오과장, "상무님. 그거... 갑질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휴일에 직원 불러내고 그러시면..."

헌식, "에라 이눔아..." 하다가 박부장 보면, 머리 싸매고 괴로운 상태.

헌식, "박부장 왜 저래?"

오과장, (소곤소곤) "확실한 정보라고 샀는데 반 토막 났대요."

그때, 택배기사 들어와 상자 하나 여직원 책상에 놓고 가면,

여직원, (상자 열어 엑소 굿즈 보여주며) "요샌 제가 우리 엑소 보는 맛에 살아요."

은영, 헌식, 그 모습 보며 피식 웃는 데서.

헌식(N) 우리 믿음신협은 아직 그 시장, 그 골목에 있다. (페이드아웃)

자막.

"그녀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뜨겁게 맞아주었던 아저씨들...

秋霞, 그녀의 이름처럼 가을노을과 같은 시절이 오고 있는 아저씨들...

그날의 기억들로 남은 시간들 행복하시길..."

끝.

역시 인생은 알 수가 없다. 느닷없이 당선이 되었고...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웠다.  
수정되지 않은 날것의 초고를 내보인 대가로 두고두고 부끄러웠다.  
다른 분들의 당선작들을 볼 때도, 멘토링을 받을 때도,  
드라마 제작을 앞두고 제작사분들을 만날 때도... 내내 부끄러웠다.  
세상에 태어나 부끄럽다는 그 말, 제대로 배웠다.  
속절없이 부끄러웠고, 간간이 읊소한 변명은 구차했다.  
멘토링 기간 동안 마음 깊이 와닿는 말을 건네주었던 이나정 감독님,  
이제 같이 드라마 제작의 길을 헤쳐나갈 성도준 감독님.  
드라마는 동시대성의 예술이란 것을 절감하게 한 이 낯은 대본을 그래도 어떻게든  
애정을 갖고 바라봐주시고, 그 안에서 같이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수정 작업은 대본과 영상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다.  
걱정하고, 격려해주신 센터장님, 오픈에서 늘 말없이 고생해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같이 당선된 작가님들에게도 감사하다.  
이제 부끄러움을 알았으니, 어떻게 써야 할지 두려워지고 막막하다.  
그래도 또 어찌어찌 쓰고, 어찌어찌 살아갈 것이다. 가보련다...

# 넌 관찮니

## 김민주

---

## 작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야 타인에게 솔직하고 성숙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정에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이구… 쫓쫓쫓… 그 집 부모 고생이 많겠네…”

“그 아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 힘든 일 많겠어…”

장애아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부모, 그 가족, 그 주변인들의 희생과 고난, 역경에 더 초점을 두기 마련이다.

이 드라마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 아이의 눈으로 말해보고 싶다.

---

## 등장인물

**윤주영(20세) 고등학교 2학년, 지체장애 1급**

걸을 수 없는 불편한 몸으로 2년 늦게 학교생활을 시작했지만 공부를 잘하고 미술에 소질이 있다. 성격은 밝은 척하지만 속내는 주눅이 들어 있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마음 둘 곳 하나 없다.

**김혜진(18세) 고등학교 2학년, 기분이 바로바로 표정에 나타난다.**

초등학교 때부터 윤주영과 짝이 되고, 그 이후로 주영의 손발이 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선 윤주영 보호자로 낙인찍혀 갖가지 봉사상을 휩쓸었다. 본성은 착하지만 주영을 도와주느라 피곤한 몸은 아직 어린 혜진을 변하게 하는데…

**한준우(28세) 신입교사**

주영의 학교로 첫 부임을 한 총각 선생님. 여고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교육에 강한 열정과 열의로 주영에게도 관심을 쏟는다.

**장수희(45세) 주영의 어머니, 가정주부**

장애아이지만 어차피 낳은 자식, 보란 듯이 키워 보이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김민주

minjunangja@hanmail.net

- 2005 • 에세이집 『뛰어라 내 다리야 이 세상 끝까지』 출간
- 2006 • 영상작가교육원 사이버 기초 드라마작법 강의 이수
  - 싸이더스FNH 작품계약
- 2008 •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뱅크 창작기획안 공모전 시나리오 부문 분상 당선
- 2009 • 콘텐츠진흥원 대학생 창작클럽 수료
  - 제1회 철도문학상 에세이 부문 우수상 당선
- 2012 • 영화 〈베일〉 각색
- 2014 • 굿픽처스 작품계약
- 2015 • 영화사 Y2mc 각색작가 계약
- 2016 • 메이퀀픽처스 기획작가 계약
-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의지로 주영은 명문 대학을 생각해도 될 만큼 잘 따라왔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 윤우재(48세) 주영의 아버지, 교사

술과 사람을 좋아한다. 딸 주영을 아끼고, 가족을 사랑한다. 다만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 집안일은 아내가 너무도 알아서 잘하기에 자신의 위치가 없음을 느끼고 외롭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신념하에 모두에게 친절할 뿐인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한다. 이번에도 일이 자꾸만 꼬인다.

#### 그 외

박종태, 황마담, 윤수영, 학교 교사들, 학생들 등 다수.

---

#### 줄거리

정말 고마워! 근데... 정말 짜증 나.

푸른빛이 도는 새벽, 오늘도 엄마 등에 업혀 등교를 했다.

나, 윤주영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나의 몸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나는 감사한다. 손발이 되어주는 가족에게,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하다.

스무 살이 되면서 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른이 된 기분이니까.

내 짝궁에겐 비밀이다. 친구들에게 난, 똑같은 열여덟 살 여고생이고 싶다.

“고마워!”

건네받은 캔 커피에는 동생뻘인 짝궁의, 자신이 피로함을 알리는 한숨도 같이 달려온다. 내 마음속 악마가 고개를 든다.

“야! 누가 너더러 날 도와달랬니?”

####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면 정말 이골이 나도록 듣는 말이 있다.

고생하는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네가 할 수 있는 효도는 공부뿐이다.

그분들의 은혜를 어찌 잊겠나...

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나는 모르겠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무엇인지, 왜 저토록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날 낳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로 허구한 날 술자리를 즐기고 외박을 일삼는지, 아버지를 도통 모르겠다. 그런 술 취한 아버지에게 틈만 나면 나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혼자 훌훌 떠나버리고 싶다는 엄마. 내가 얼마나 떨어지는 성적에 초조하고, 나의 미래를 불안해하는지 알고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밤이면 밤마다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슬픈 밤을 지새우는 나를, 아는지 모르겠다.

윤주영의 생각은 어때? 네 지금 기분은 어떠냐고...

얼마 전, 우리 학교로 첫 부임한 미술 담당 신입교사.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듯, 그도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얼굴빛이 싱그럽다.

나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독특한 제자에, 교육적 호기심이 불끈 솟나 보다.

어느 날 문득 내게 건넨 선생님의 질문.

“네 생각은 어때? 다른 사람 말고, 윤주영의 기분은 어떠냐고...”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얗다.

분명 나라는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고, 뭐든 스스로 해야 하는 남동생이 힘들고, 날 돕는 친구들이 휠체어를 드느라 힘들어한다.

나는...?

나는...

그래, 맞다. 나는 화가 났던 거다. 내가 지금 상처 받고, 힘들어한다.

나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어둠으로 까맣게 젖은 방.

여러 가지 생각에 이리저리 뒤척거리다 간신히 잠이 든다.

한창 잠에 빠져들 때쯤, 꿈속인지 생시인지 기분 나쁜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이윽고 날카롭고 무서운 소리가 오고 감을 느낀다.

번쩍 눈을 뜬다. 시커먼 천장이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노려본다.

엄마, 아버지가 오늘도 다룬다.

시끄러운 소리가 방 안 가득 비집고 들어와 뼈곡히 들어찬다.

머릿속에 식은땀이 차올라 살갓을 간지럽힌다.  
 눈물이 왈칵 솟는다.  
 “오오오~”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의 입 밖으로 터져 나온다.  
 뻗뻗하게 굳고, 땀으로 젖은 몸을 일으켜 침대 밑으로 기어 내려온다.  
 엉금엉금 기어 방문을 연다.  
 이젠 나도 내 감정에 솔직해질 테다.  
 어른이 될 테다.  
 서로에게 새파랗게 날을 세운 두 사람에게로 기어간다.

넌 괜찮니  
 김민주

#1 꿈. 푸른 초원(낮)

파란 하늘과 초록빛 드넓은 초원이 어울려 동화책 삽화 같은 예쁜 공간  
 한가운데 새하얗고 기다란 테이블에 맛난 음식과 케이크를 놓고 둘러앉아  
 주영에게 박수를 치며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수희, 우재, 수영, 혜진,  
 주영의 반 아이들…

일동 (밝게 웃는 얼굴로 노래하는) 생일축하 합니다~♪  
 생일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주영이의~♪ 생일축하 합니다~♪  
 혜진 (재촉하며) 주영아. 얼른 눈 감고 소원 빌고 촛불 꺼야지.  
 주영 (웃으며) 응응.

두 손바닥을 맞대고 눈을 감고 중얼중얼 소원을 비는 주영,  
 행복하게 눈을 뜨는데, 순간 주영의 얼굴이 굳어 당황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바뀐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무표정하고 정색하는 얼굴로 변했다. 그러더니 하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영이만 두고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동.

주영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하며, 애절하게) 가지 마… 가지 마…  
 나만 버려두고 가지 마!! 나도 데려가… 나도 데리고 가~~

주영의 외침에도 모두 떠나 사라지고 허허벌판에 주영이만 혼자 남았다.  
 주영, 눈물이 터지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한다.

#2 현실. 달리는 차 안(낮)

조수석에 앉아 сал롯 잠에서 깨는 주영. 꿈이구나… 안도의 한숨 쉬는데,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음을 깨닫고 얼른 눈물을 훔쳐 닦는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수희가 흘끔 주영을 보더니 잠에서 깬 걸 알고  
잔소리를 시작한다.

수희 (운전하며 싸늘하게) 니 아빠, 외박 4일째다.  
주영 (수희가 안 보이게 고개를 돌리고 인상을 구기며 '또 시작이다...'  
하는 듯 듣기 싫은 얼굴이었다가, 얼굴을 풀고 표정 관리하며  
수희에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래잖아.  
수희 이거 니 아빠 얘기야. 니가 말 좀 해봐.  
주영 (구시렁) 내가 뭐 무슨 말 한다고 달라지나...  
수희 계속 니 아빠 이런 식이면 나 더 이상 못 산다. 그럼 니 학교도 없어.  
주영 ... (눈을 질끈 감고 삭이는)  
수희 (깊이 한숨 내쉬며 침울하게) 내가 무슨 편지...  
주영 (주눅 든 얼굴로 고개 숙이고 있는)

### #3 학교 건물 앞(낮)

수희의 차가 멈춰 서고, 수희가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실은 휠체어를 꺼내  
펼치고 조수석 앞으로 밀고 가 주영을 안아 휠체어에 앉히려는데,  
주영이 다리에 힘을 미쳐 주지 못해서 수희와 같이 휘청하며 넘어질  
뻔한다.

수희 (짜증 나는 얼굴로 주영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찌르며  
신경질적으로) 다리 힘줘! 힘?! 나 이제 너 버거워. 감당 안 돼.  
주영 잠깐 딴생각하느라 그랬어. 미안... (수희의 손길에 흐트러진 머리칼  
정돈하며 휠체어에 바로 고쳐 앉는)

### #4 학교 1층 계단(낮)

계단 앞에서 기다리던 혜진이 주영을 데리고 오는 수희를 보고  
꾸벅 인사한다. 수희, 휠체어에서 주영을 안아 일으켜 등에 업는다.  
주영을 업고 계단을 올라가는 수희. 혜진이 휠체어를 접어서 들고 따라

올라간다. 무표정한 주영의 얼굴.

### #5 교실(낮)

주영이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수희와 혜진.  
교실 맨 앞자리 교탁 앞 책상에 주영을 밀어 넣어 앉혀준 수희, 주영에게  
별다른 눈 맞춤도 말도 없이 혜진에게,

수희 그럼 오늘도 좀 부탁한다, 혜진아.  
혜진 네. 가세요-  
수희 (교실을 나서며 허리가 아픈 듯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인상을  
구기고) 어휴 허리아... 어휴 허리아... (나가는)  
혜진 (자리에 앉으며) 오늘은 모닝똥 성공했어?  
주영 아니. 실패. 벌써 4일째데 나올 생각을 안 하네...  
혜진 너도 참... 초딩 때부터 변비인생이었지? 나는 먹고 나면 세 시간  
안에는 꼭 나오던데... 보자... 여덟 살부터 지금 열여덟이니까 벌써  
10년째 옆에서 보는 건데도 이해가 안 가네...  
주영 몸을 잘 움직이는 일이 없어서 그렇겠지 뭐... 근데 너랑 나랑 벌써  
10년이야?  
혜진 그러네. 어우, 징글징글해.  
주영 (웃는)  
혜진 근데 어떻게 고1때 한 번 빼고 9년씩이나 계속 같은 반이 될 수가  
있지? 선생님들이 반 배정할 때 일부러 붙여주는 건가? 안 그래도  
되는데... 너도 나, 좀 지겹지 않냐? 다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렇지 않아?  
주영 (순간 얼굴 굳었다가 얼른 미소 짓는 얼굴로 바뀌며) 그래, 지겹다,  
지겨워. 우리 무슨 부부도 아니고 뭐냐? 그치?  
혜진 부부면 이혼이나 할 수 있지. 이건 뭐, 족쇄도 아니고... 무겁다,  
무거워.  
주영 (애써 밝은 척하며) 족쇄 풀 열쇠가 어딘가 있겠지. 잘 찾아봐...  
혜진 근데 너 왜 의자에 안 앉고 휠체어에? 의자로 옮겨 앉혀줘?  
주영 (어색하게 웃으며) 오늘 1교시 컴퓨터.

혜진 아... 맞다. (급격히 얼굴 어두워져서 인상 구겨지며) 으항~ 컴퓨터 시간 제일 싫어~ 왜 5층 맨 꼭대기에 컴퓨터실을 만들고 지랄이야... 싫다 싫어 진짜...

주영 (밝은 척 웃으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인 게 어디야... 그것만도 다행이지. 헤헤...

주영이 말은 무시하고 책상에 앉으려 얼굴을 묻는 혜진. 씩씩한 주영.

## #6 학교 계단(낮)

혜진이 주영이 탄 휠체어 손잡이 양쪽을 잡고 끌어당기고, 여학생 두 명이 휠체어 양옆 팔걸이 부분을 잡아끌며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을 붙이고 계단을 오르고 있다.

혜진이 힘든 기색이 역력하고, 그 휠체어에 탄 주영은 미안하고, 불편하고, 계단에서 구름까 무섭기도 하고, 이래저래 어색해서 굳은 얼굴이다.

그렇게 혜진과 학생들이 주영을 데리고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던 남선생이 이 모습을 보고 말을 건다.

남선생1 하이고... 옥본다, 옥봐. 느그들이 옥본데이... (혜진 보며) 니가 김혜진이제? 전교에 니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꼬 소문이 자자하다. 하이고~ 으째 이리 착할꼬...

혜진 (어색하게) 감사합니다.

남선생1 (주영을 보고) 니는 김혜진이한테 신세 진 거 우째 다 갚을래? 으잉? 항상 친구한테 고마워하고 은혜 갚는 마음으로 잘해야 된데이... 알긋나?

주영 (밝은 척 웃으며) 그럼요, 그럼요... (끄덕끄덕) 당연하죠.

남선생1 그래그래. 암, 그래야지... 그럼 느그들이 옥 좀 봐래이~

남선생1, 지나가고 나면 혜진과 학생들 다시 구령을 붙이며 주영이 탄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오른다. 웃던 주영의 얼굴이 어느 순간 무표정하게 바뀌는 모습에서, 떠오르는 타이틀, “넌 괜찮니?”

## #7 교실(낮)

주영, 혜진을 비롯한 반 학생들이 앉았고 담임이 아침조회를 한다.

담임 이상, 전달사항은 끝났고, 시상을 하나 하겠다. 김혜진! 앞으로 나오도록.

혜진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 담임 앞에 서면)

담임 (상장 보고 읽는) 봉사상. 김혜진. 위의 학생은 선량한 마음과 숭선수범의 행동으로 봉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교육부 장관 김규태. (혜진에게 상장 건네는)

혜진 (뻔뻔하게 상장 건네받고 꾸벅 인사하면)

학생들 (환호하며 박수쳐주는)

주영 (혜진에게 엄지 척 들어 보이고 웃으며 박수쳐주는)

혜진 (주영을 보고 민망한 듯 웃는)

## #8 교사용 여자 화장실(낮)

혜진, 주영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여교사1이 보고 아는 체한다.

여교사1 주영이 또 화장실 오고 싶다 했나 보네? 집에선 안 나와?

주영 (상긋 웃으며) 그러게요. 그러면 좋은데 이눔에 용변이 맘대로 조절이 안 되네요...

여교사1 (손 닦고 화장실 나가며) 할 수 없지. 그럼 수고 좀 해라, 혜진아~

혜진 네에- 안녕히 가세요~

혜진, 익숙하게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주영을 안아서 변기에 앉혀주고 나가서 휠체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칸막이 문을 닫아준다.

혜진 나 옆 반에 미술 준비물 좀 빌려다놓고 올게. 잊어먹고 안 가져왔어. 금방 올게.

주영(E) 응. 알았어.

### #9 교사용 남자 화장실(낮)

준우가 급한 얼굴로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와 칸막이 문을 두드리는데 모든 칸이 사람들로 다 찼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우왕좌왕하던 준우가 밖으로 나가고,

### #10 교사용 여자 화장실(낮)

준우, 뺨뺨 고개를 내밀고 화장실 안을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다. 이래도 되나? 망설이다가 급하게 밀려오는 용변에 에라 모르겠다, 들어와서 칸막이 안으로 급히 들어간다.

### #11 동 / 주영의 칸 + 준우의 칸(낮)

주영과 준우가 각각 들어간 화장실 칸막이 안 모습. 이분할 화면. 옆 칸에 누군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주영. 드디어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고 시원하게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 준우.

(E) (천둥 치는 듯한 방귀 소리와 함께 푸드득 설사하는 소리)  
주영 아침에 볼일 보고 왔다더니? 많이 먹었어? 사운드가 완전 설산데?  
준우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는)  
주영 ??? 김혜진! 옆에 혜진이 아니야?  
준우 (아놔... 어찌지... 난감한 얼굴로 말 안 하고 있는)  
주영 ... 선생님이세요?  
준우 (에라 모르겠다. 눈을 질끈 감고) 네, 저 이번에 교사로서 첫 부임한 교사입니다.  
주영 (남자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나, 남... 남자 선생님이 왜 여자 화장실에...  
준우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남자 화장실은 다 차 있고 너무 급해서 그만...

주영 아... 네... 근데, 저... 학생이에요, 선생님.  
준우 (요것 봐라? 갑자기 근엄한 어투로) 학생? 너 뭐야? 왜 학생이 교사용 화장실을 써?! 교칙위반 아니야?  
주영 아... 그게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데 학생 화장실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서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준우 아... 그런 거였어? 너나 나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네. 통치자. 얼른 볼일 보고 나갈게.  
주영 네...  
준우 (다시 한 번 똥꼬에 힘을 주다가 문득) 근데 너 혹시... 들었냐?  
주영 네? 필요?  
준우 비둘기 날리는 소리... 푸드...득...  
주영 (???) 비둘기요? 그게 무슨... (하다가 무슨 뜻인 줄 알아채고 팝... 터지는 웃음 참으며) 아... 네... 드, 들었어요.  
준우 (아놔... 이게 무슨 창피냐 싶은 피로운 얼굴, 짐짓 근엄하게) 공부는 잘하냐?  
주영 상위권이긴 한데... 왜요?  
준우 똑똑한 학생인가 보구나. 의식 있는 학생이니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비웃는다거나 소문을 낸다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크흠...  
주영 팝... 네... 말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준우 고맙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 #12 동 / 교사용 여자 화장실(낮)

준우가 나와서 발꿈치를 들고 총총총 화장실을 나서다가 한쪽에 세워진 휠체어를 본다. 그러다 서둘러서 화장실을 나가는 준우.

### #13 교실(낮)

주영, 혜진을 비롯한 반 학생들 각자 수업 준비를 하며 떠들기도 하고, 교실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분주한 분위기의 교실 풍경.



정보통 여학생1이 교실로 뛰어 들어와 교탁 앞에 서서 호들갑을 떠다.

여학생1 야야야, 자매님들! 이 몸이 요번 새로 온 미술에 대한 정보 하나  
알아냈다. 임용고사 합격해서 이번이 첫 부임한 첫 학교래.

주영, 여학생1의 말에 퍼뜩 생각나는 목소리…  
#11에서,

준우 (에라 모르겠다. 눈을 질끈 감고) 네, 저 이번에 교사로서 첫 부임한  
교사입니다.

주영, '아까 그 화장실남이 미술선생?' 하고 짐짓 놀라는데,  
계속해서 정보를 풀어놓는 여학생1.

여학생1 키포인트는 나이가 이제 27살이고, 총각이라는 거.  
학생일동 27살? 총각? (웅성웅성대면서 박수치며 끼야악~~ 돌고래 소리  
내는)  
혜진 (친구들 반응에 못 말린다는 듯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웃는다)  
주영 (오… 아까 얘기 나눈 사람이 그런 선생님이었어? 하며 혼자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학생2 (환호하는 학생들 자제시키며) 워~ 워~ 자매님들 아직 좋아하기엔  
일러. (자기 얼굴 쓱쓱 위아래로 훑어내리며) 이게이게 엉망일 수도  
있다구. 아니면 오크에, 호빗죽일 수도 있고.  
학생일동 (들뜬 분위기 금세 가라앉고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E) (수업 종소리)

학생들, 각자 자리에 돌아가서 앉고, 여학생1이 교실 밖 복도를  
지켜보다가 황급히 들어와 자리로 돌아가며,

여학생1 야야야! 온다온다온다! 대박이야, 대박!

학생들, 진짜? 진짜? 하며 어수선하다가, 교실 문이 열리자 일동 조용해서

들어오는 준우에게 시선 집중된다.

혜진도 준우를 보고, 주영도 준우를 처음으로 보고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준우, 씩씩하게 걸어 들어와 교탁 앞에 선다.  
조용하던 학생들의 입에서 “오오오~~” 하는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박수를 친다. 박수 소리 그치면,

준우 (흐흠… 목을 가다듬고) 안녕?  
학생일동 (목소리 좋다고 오오오- 감탄의 소리) 잘생겼다아~!!  
혜진, 주영 (웃는)  
준우 자, 내 이름은, (하고 칠판에서 분필 찾으려는데 다 떨어지고 없다)  
분필이 떨어졌네… (하고는 뒤돌아보고 맨 앞자리에 앉은 주영을  
보고) 거기! 가서 분필 좀 가져오지?  
주영 !!!!  
혜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당변 아니야, 내가 당변이잖아. 내가 갔다 올게. (하고는 교실을 나간다)  
준우 (주영을 보는데)  
주영 (뻔뻔한 미소로 가만히 앉아 있다)  
준우 (주영에게) 거기 학생은 왜 가만히 있는 거지? 내가 부탁한 건  
학생인데?  
주영 (교실 한쪽 구석에 접어서 세워둔 휠체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준우 (뭐지? 하고 주영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겨보면 휠체어가 보인다.  
주영과 휠체어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다가 드디어 깨닫고, 바보 도  
터지는 소리로) 아~~~!! (하고 주영을 보면)  
주영 (맞다고 고개 끄덕이는)  
학생일동 (으하하 웃음 터지는)  
혜진 (웃는)  
준우 내가 좀 축이 좋아. 딱딱 찍기만 하면 쓱쓱 골라낸단 말이지.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흠칫 놀라며, 주영에게) 그럼, 아까  
아침에 그…?  
주영 (눈은 안 웃고 입꼬리만 올리며 어색하게 끄덕이는)  
혜진 (뭐지? 하고 주영 보는)  
준우 흐흠… (말 돌리고) 자, 일단 내 이름은 한준우라고 한다. 소문 벌써

다 들었겠지만 이번이 선생님께서 첫 학교라서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하다. 이 희망이 실망으로 바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잘들 부탁하마. 알았나?

학생일동 네에~~  
준우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학생2 선생님! 첫... (하는데)  
준우 (말 자르며) 설마 아직도 식상하게 첫사랑 얘기 해달라는 건 아니지?  
학생2 에이~ 첫사랑은 무슨... 첫.경.험. 이야기 해달라구요~  
학생일동 (오오오- 환호하는)  
준우 (모르는 척) 첫경험? 무슨 첫경험?  
학생일동 에이~~ / 알면서~~ / 우우우-  
준우 (가웃하며)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오늘 첫 출근해서 강렬했던 첫경험은 하나 있었다.  
학생일동 뭔데요? / 뭐예요? / 얘기해줘요~  
주영, 혜진 (역시 궁금한 눈으로 보는데)  
준우 (깊은 한숨을 쉬며) 하아... 내가 비둘기 한 마리... 날려 보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고 강렬하게.  
학생일동 앵? / 무슨 소리지? / 우리 학교에 비둘기가 있었나? (웅성대는데)  
주영 험...!! (터져 나오는 웃음을 손으로 틀어막고 고개를 숙여 혼자 킁킁댄다)  
혜진 (웃는 주영에게 입모양으로 왜? 하고 묻는데)  
주영 (암것도 아니라고 손을 내젓고 고개 흔드는, 그러면서 계속 웃는)  
혜진 ???  
준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 남은 얘기들은 앞으로 차차 하기로 하고, 교과서 퍼. 이론부터 익혀보자.

웃음 터지는 걸 진정하느라 가슴을 쓸어내리고 교과서 펴는 주영.  
그런 주영을 보고 가웃거리며 역시 교과서 펴는 혜진.

### #14 주영네 집 현관 + 거실(낮)

현관문 도어락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린다. 소파에 앉아 티비를 보던 수영이 일어나 현관문을 열면 추레하고 턱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란 우재가 들어온다. 우재를 본체만체 그대로 소파로 다시 올라가 과자 먹으며 티비 보는 수영. 우재가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어색하게 서서 수영에게 말을 건다.

우재 비번 바꿨냐?  
수영 (티비 보는 채로) 어.  
우재 누가?  
수영 엄마가.  
우재 년 왜 학교 안 가고 이려고 있어?  
수영 개교기념일.  
우재 아... (하다가) 니가 이제 중1이고 누나가 고1이지?  
수영 (여전히 티비 보며 툭 던지듯) 중2, 고2.  
우재 아... (하다가 문득 거실 천장을 보고) 저거 LED조명 아니야? 누가 바꿨어?  
수영 엄마가. 전기세가 덜 나간대.  
우재 엄마는 어디 갔어.  
수영 차, 오일 교환하러.  
우재 나한테 말 없었는데? 벌써 교환할 때 됐나?  
수영 (심드렁하게) 아빠가 알아서 뭐 하겠?  
우재 ... 내가 좀 알면 안 되냐?  
수영 어차피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우재 (기가 차서 멍하게 있다가 안방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가며 체념한 듯 다비치 노래 '8282' 한 소절 흥얼거리는) 문자라도 남겨줘~♪  
오!오!오~ 날 울리지 마~♫  
우재 (헐... 하고 쳐다보다가 다시 티비 보며 과자 먹는)

### #15 우재네 학교 교무실(낮)

우재, 수업하고 와서 피곤한 얼굴로 수학 교과서를 책상에 털썩 던지며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양쪽 관자놀이를 주무른다.  
역시 수업 마치고 온 동료 교사가 옆자리에 앉으며 우재를 보고 말을 건다.

동료 교사 집에 갔다 오신다더니, 다녀오신 거예요? 옷이 그대론데?  
 우재 집에 갔는데 빨아놓은 내 옷이 하나도 없더라.  
 동료 교사 사모님 그러실 만하죠 뭐. 외박 4일이라니... 내가 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구만.  
 우재 예효... 나도 모르겠다...  
 동료 교사 대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사모님 속을 썩이시는 거예요?  
 우재 쓰읍... 에헤이~ 기분 꿀꿀한 얘기 그만하고, 오늘 마치고 약속 있어?  
 한잔 (술잔 넘기는 시늉하면) 푹, 꺾으러 가자. 우리 황마담이 얼마나  
 서비스 잘해주는지 몰라. (영혼 없이 쓰게 헛웃음 웃는)  
 동료 교사 (안타까워 말리는 투로) 아휴... 윤우재 선생님~

## #16 교실(낮)

학생들이 책상 밖으로 발을 빼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로 준비를  
 하다가 종소리 울리자 수업하던 교사가 채 나가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일어나서 우르르 우당탕탕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다.  
 교사도 학생들도 모두 뛰어나가고 교실에 주영과 혜진만 남았다.

혜진 (피곤하고 무기력한 얼굴로) 좀 이따 급식소에 애들 좀 빠지고 나면  
 같게. 저번에 애들 많을 때 갔다가 식판 둘 다 놓쳐서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주영 (미소 지으며) 응응, 혜진이 너 편한 대로 해.

혜진, 자신의 어깨와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힘들고 피곤한 듯 책상에  
 엎드려 눕는다. 두 팔을 뻗어 혜진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주영.

## #17 급식소(낮)

학생들이 다 빠지고 한산해서 열 명가량의 학생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혜진이 식판 두 개를 들고 밥을 탄다. 혜진 뒤에서 준우도 식판에  
 밥을 탄데, 혜진이 식판 두 개를 들고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들러니 손에  
 잘 안 잡혀서 킁킁대는 모습을 보는 준우.

준우 밥을 왜 두 개씩이나 타?  
 혜진 (그제야 준우를 보고 꾸벅 인사하고는) 주영이 밥을 교실까지  
 가져다줘야 하거든요.  
 준우 주영이? 왜?  
 혜진 휠체어...  
 준우 아~~ 그 애 이름이 주영이구나? 내가 들어줄게, 같이 가자.  
 넌 니 식판이랑 주영이 뭉 수저만 들고 따라와. 아무래도  
 니 손보다는 내 손이 커서 들기 편하지 않겠냐?  
 혜진 감사합니다...

## #18 교실(낮)

교실에 혼자 앉았다가 같이 들어오는 혜진과 준우를 보고 놀라는 주영.  
 준우, 주영의 책상에 식판을 하나 놓고 옆자리 책상을 하나 끌어다가  
 주영과 혜진 책상 가운데 붙여서 식판을 놓고 의자를 가져다 마주 앉는다.  
 준우,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런 준우를 식사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보는 주영, 혜진.

준우 (입 안 가득 밥알 넣고 주영과 혜진을 보며) 안 먹냐들?  
 주영 (정신 차리고) 아... 네... (숟가락 드는)  
 혜진 먹어야죠. (식사 시작하는)

잠시 말없이 식사하던 주영, 혜진, 준우.

준우 (주영에게) 급식소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 먹는 맛도 꿀맛인데...  
 급식소 가서 먹고 싶지 않아?  
 주영 (뭔가 말하려는데)  
 혜진 (자기가 먼저 대답하는) 휠체어 끌고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보다는 제가 식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준우 (주영을 보며) 다른 친구들한테도 부탁해서 좀 들어달라고 하지.  
 애가 손이 작아서 한 번에 들고 오기 어렵겠던데...  
 주영 (역시 뭔가 말하려는데)

혜진 (먼저 대답하는) 다들 편하게 밥 빨리 먹고 와서 점심시간에 쉬고 싶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저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준우 (주영의 식판 보다가) 호박 싫어해? 다 골라서 빼놨네?

주영 (말하려는데)

혜진 (먼저 대답) 주영이 호박 싫어해요. 냄새가 별로라고. 근데 또 호박죽은 좋아해서 잘 먹어요.

준우 (혜진 보다가 다시 주영을 보며) 야자는 몇 시까지 하고 가? 9시? 10시?

주영 (이젠 아예 대답할 생각 없이 밥만 먹고 있는)

혜진 (자기가 대답하는) 주영이는 9시까지만 하고 엄마가 데리러 오셔서 집에 가요. 10시까지 하면 주영이 아줌마가... (하는데)

준우 (말 자르며 주영을 보고) 윤주영이 말해보지 그래? 나는 윤주영이한테 질문한 건데.

주영 !!!! (준우 보는)

혜진 !!!! (준우 보는)

준우 (뻘히 주영을 보며 그렇지 않냐고 어깨 으쓱해 보이는)

주영 아... 네... (혜진의 눈치를 보는데)

혜진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마저 한다)

주영 10시까지 하면 엄마가 좀 피곤해하셔서 일찍 집에 가서 혼자 공부 마저 하고 자요.

준우 아... 그래? (끄덕끄덕하고 다시 식사하다가 다시 주영에게) 집에서 공부하면 잘 안 되지 않냐? 침대 보면 막 눕고 싶고.

주영 그래도 해야죠.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딴겠어요...

준우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 인생 뭐 있냐? 즐거우려고 사는 거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 요즘 세상에 꼭 대학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는 우걱우걱 식사 마저 하는)

주영 (웬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것 같아 신기해서 준우 쳐다보는)

혜진 (웬지 준우와 주영에게 따돌림당하는 기분이라 셀쭉한 얼굴로 준우 쳐다보는)

준우 (막 먹다가) 아~ 우리 학교 급식 맛있네. 허허... (주영과 혜진을 번갈아 보며 실없이 웃어 보이는)

## #19 화장실 세면대(낮)

주영과 혜진이 세면대 앞에 각각 서서 (주영은 휠체어에 앉아) 양치질을 한다. 물로 입 안을 헹구고 먼저 양치를 마친 혜진이 주영을 기다리며 말을 한다.

혜진 미술, 내일도 같은 시간에 급식소 와서 우리랑 같이 먹으려나?

주영 (양치하며 웅얼거리는) 얼마 (설마) ...

혜진 나는 그래주면 훨씬 편하고 좋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라서 뭔가 불편한 감이 있단 말이지. 너는 안 그래?

주영 (웅얼거리며) 응응, 아오 으애 (나도 그래) ...

혜진 하긴 뭐... 몇 번 도와준다고 쳐도 얼마나 가겠냐? 무슨 핑계 대고 빠져나가겠지.

주영 (컵에 물을 담아 입에 물고 입 행구는)

혜진 나니까 지금 10년이 넘게 이려고 있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주영 (끄덕이며) 그럼그럼... 알지.

혜진 내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삭신이 쭈셔도 결석 한 번을 못 해. 나 없으면 주영이 너 학교생활 올스톱이잖아. 다른 애들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주영 (끄덕이며) 그럼그럼... 그러니까 내 생각해서라도 어디 아프지 말고 (미소 지으며) 건강해야 된다, 친구야? 부탁이다...

혜진 에혀... 알았다. 양치 다 했어?

주영 응, 다 했어.

혜진 후우... 가자... (주영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 #20 교실(낮)

담임이 생활기록부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한 명씩 줄 서서 나와 카드를 받아서 자리로 가 앉는 학생들.

담임 (카드 나눠주며) 엇그제 신체검사 한 거 다 기록해놓으라 했지?

그거 생활기록부 카드에 항목별로 체크해서 기입하고 제출하도록.

주영의 얼굴이 안절부절못하는 얼굴이다.  
주영의 앞 번호 학생4가 주영의 카드를 받자 주영이 긴장을 하는데,  
학생4, 바로 주영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자기 카드를 받아 자리로  
가버린다. 몰래 휴우... 한숨을 쉬는 주영.  
옆에서 신체검사 결과 기록하는 혜진의 카드를 보면 생년월일에  
2001.06.08.이라고 적혔다. 주영의 시선이 자신의 카드 생년월일로 가면,  
1999.09.22.라고 적혔다.

혜진 년 작년보다 키 얼마나 컸어? (하고 주영의 카드를 보는데)  
주영 (얼른 생년월일 손으로 슬쩍 가리며) 어? 어... 난 그대론데? 너는?  
혜진 (눈치 못 채고 한숨 쉬며) 겨우 1.5센티 컸다. 언제 이 호빗족에서  
벗어나나... 내 성장판 이미 닫힌 건가?  
주영 에이... 아닐 거야... 더 크겠지 뭐...

혜진, 입맛 찹찹 다시며 다시 자기 카드 보고 기입하는 데 정신이 팔렸다.  
주영, 혜진이 안 보는 사이 얼른 기입을 하고 카드를 뒤집어놓는다.  
카드를 다 나누어준 담임이 혜진에게 말한다.

담임 오늘 진로상담 윤주영이니까 이따가 청소 끝나고 주영이 좀  
교무실로 데리고 와라, 혜진아.  
혜진 네, 알겠습니다.

## #21 교무실(저녁)

교무실 문 노크 소리가 들리고, 주영을 데리고 혜진이 들어온다.  
주영의 휠체어를 담임 자리 책상 앞에 세우는 혜진.  
혜진, 교무실을 나가려는데 뒤이어 준우가 들어온다.  
혜진, 준우에게 수줍은 듯 꾸벅 인사하고는 총총총 도망간다.  
준우, 교무실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데 담임 자리 바로 옆자리다.  
담임, 주영의 휠체어를 가까이 끌어당겨서 상담을 시작하는데,

준우가 흘끔 주영을 보고는 다른 일 하는 척 귀를 기울인다.

담임 (컴퓨터 화면에 주영의 성적표 띄워놓고 보며) 쓰읍... 기록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지... 이번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해봤어?  
주영 네...  
담임 이렇게 성적 기록이 심하면 안 돼~ 수능시험 때는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 성적 들쭉날쭉한 이유가 뭐 거 같아?  
주영 (고개 숙인)  
담임 혹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어? 공부에 집중 못 할 만큼?  
주영 (웃으며 손 내저으며) 에이~ 우환은요, 무슨... 제가 좀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를 부려서 그렇죠...  
담임 주영이 니가 지금 농땡이나 피우고 있을 때야?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주영이 어머니,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혜진이까지... 다 너 하나 잘되는 거 보겠다고 돌봐주는 거  
아니야.  
주영 네네... 잘 알죠...  
담임 모든 사람들한테 보답하고 은혜 갚는 일은 니가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 생각해봐라, 그거 말고 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주영 없죠... (헛웃음) 하하...  
준우 (주영을 물끄러미 보는)  
담임 미대라서 실기점수가 더 높다고 해도 주영이 니가 원하는 한국대  
미대는 수능점수 비율도 50퍼센트나 돼. 알고 있잖아. 지금 이대로면  
니 성적으로는 지원 못 한다?  
준우 수능점수를 50퍼센트나 봐요? 와아... 많이 바뀌었나 보네...  
담임 (준우 보고 손뼉 치며) 아 맞다. 한준우 선생님 한국대 미대  
출신이지요?  
준우 (뒤틀리 굵적이며) 하핫... 네, 어찌다 보니... (주영 보며 으쓱이며)  
오호~ 윤주영이 학교 보는 눈이 있구만?  
주영 (준우 새삼스럽게 보는)  
담임 잘됐네~ 우리 주영이가 목표로 하는 데가 거기에요. 한선생님이 팀  
좀 주시면 되겠다. 윤주영! 앞으로 한선생님한테 그림 좀 봐달라고  
해. 입시정보도 좀 얻어내고. (준우 보며) 한선생, 주영이 부탁 좀

드립니다?

준우 네네, 물론이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영 보며 잘해보자는 눈짓)

주영 (끄덕이며 어색하게 미소 지어 보이는)

담임, 주영의 휠체어를 밀고 교무실을 나간다. 그 모습을 보던 준우인데, 맞은편 교사2가 준우에게 말한다.

교사2 저 애는 다른 애들보다 두 살 많다더니 그래서 그런지 아무 말 없이 씩 웃고만 있어도 무슨 다른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준우 (놀라며) 두 살 많으면 그럼 지금 스무 살이에요?

교사2 네네. 근데 다른 애들이 자기 나이 아는 거 싫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담임선생한테 신신당부를 한다네요.

준우 (생각에 잠기는)

## #22 학교 건물 앞(밤)

수희, 주영을 조수석에 태우고, 휠체어를 뒷좌석에 싣고, 배웅 나온 담임과 꾸벅 인사 나누고는 운전석에 올라타 차를 출발한다. 떠나는 수희의 차.

## #23 달리는 차 안(밤)

수희, 주영, 말없이 정적 속에 차를 타고 가는데, 수희 눈치를 보던 주영이 먼저 말을 건다.

주영 엄마, 내 모의고사 성적표 봤어?

수희 (금시초문이라는 듯) 성적표 나왔어?

주영 어제 보라고 줬잖아.

수희 내가 요즘 니 성적표가 눈에 들어오겠니?

주영 오늘은 아빠 들어오겠지.

수희 빛이 벌써 4천이다. 뭘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집에 프라이팬

하나 어딴지도 모를 거야.

주영 (고개 돌려 무표정하게 창밖만 보고 있는)

수희 너같이 시원찮은 애 키우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봐라.

주영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와서 손으로 머리를 짚고 인상을 찌푸린다)

수희 친구들이랑 여행은 고사하고 이긴 창살 없는 감옥신세니...

주영 (관자놀이를 주무르며 두통을 없애보려 하지만 계속 아파 괴로운)

수희 너랑 나랑 그냥 같이 가버릴래?

주영 (눈 질끈 감고) 난 더 살고 싶으니까 가시려거든 혼자 가시고...

약국에 좀 들르자. 나, 머리 아파. 토할 것 같애.

수희 (아프단 소리에 또 걱정은 되고) 머리 아파? 어떻게 아픈데?

주영 그냥 진통제 두 알 먹으면 되니까 약국에나 세워.

수희 (침울한 한숨) 으휴...

주영 (창밖만 보는)

## #24 약국 앞 도로 / 차 안(밤)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약국에 들어가는 수희.

주영, 멍하게 기다리는데 두고 간 수희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이 울린다.

주영, 아무 생각 없이 수희 핸드폰을 들어 액정을 들여다보는데,

미리보기 화면으로 문자 내용이 보인다.

인서트.

핸드폰 속 문자내용.

[수희씨! 우리 1박2일 여행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수희씨 좋아하는 석양도 같이 보고 싶고, 밤바다도 같이 보고 싶어요♥♥♥-박종태 사장님]

굳은 주영의 얼굴. 충격을 받은 주영이 당황하는데, 수희가 차 뒷자리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낸다. 얼른 수희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하는 주영.

수희, 운전석에 올라타서 주영에게 생수병과 진통제 두 알을 꺼서 건네준다. 받아서 약을 먹는 주영. 다시 출발하는 수희의 차.



## #25 주영의 방(밤)

침대와 책상, 책장 등으로 꾸민 깔끔한 느낌의 학생 방.  
 휠체어에 앉은 주영의 교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혀주고 있는 수희.  
 수희, 주영의 상의 교복 단추를 풀고 벗기면 러닝 차림의 주영이 수희  
 눈치를 보다가 슬쩍 말을 건다.

주영 엄마한테 여행 같이 가자는 친구들은 많아?  
 수희 많지 그럼. 불은 후 땀에 못 가는 거지.  
 주영 (떠보듯) 친구들은 다 여자?  
 수희 (뜨끔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엄마 나이 되면 여자고 남자고 그런  
 거 없어. 다 그냥 인간 대 인간이야.  
 주영 내 친구 엄마 아빠들은 다 애인 한 명씩은 있다던데...  
 수희 (얼버무리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입고 공부나 해.  
 (주영에게 평상복 입히며)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전교 1등 한 번 못 하는 게 말이 돼? 운동신경만 다친 게  
 아니라 지능도 좀 떨어지는 건지, 원...  
 주영 (할 말 없어지고 고개 숙이는)  
 수영(E) 엄마, 나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사줘!

수희, 주영 돌아보면 추리닝 차림의 수영이 방으로 들어와 주영의 침대에  
 걸터앉는다.

수희 핸드폰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수영 떨어뜨려서 액정 다 깨졌단 말이야.  
 수희 그럼 액정 고쳐서 쓰면 되잖아.  
 수영 액정 수리비에 몇십만 원만 더 보태면 아이폰 살 수 있는데...  
 수희 몇십만 원은 돈 아니야?  
 수영 엄마는 돈으로라도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수희 뭐, 뭐?!  
 수영 솔직히 누나 하나 챙긴다고 나는 나 혼자 큰 거나 다름없잖아.  
 초등학교 때 비 오는 날 우산 한번 갖다줘봤어? 소풍 때 한번

따라와주길 했어? 다 누나 챙기고 따라다닌다고 정신없었지.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해달란 말이야.

수희 ...  
 주영 ...  
 수영 ...  
 수희 나쁜 놈... (하고는 방을 나가버린다)  
 수영 (뺨뺨하게 있다가 방을 나서려는데)  
 주영 미안하다, 수영아.  
 수영 (멈춰서 주영 보는)  
 주영 (수영 보며) 누나가 미안해...  
 수영 (뺨뺨한 얼굴로 있다가 헛기침하며 방을 나서며 큰 소리로) 엄마,  
 그래서 사줄 거야, 말 거야?

수영, 방을 나가고 문을 닫아준다.  
 주영, 크게 한숨을 몰아 내쉬고, 문제집을 펼쳐 든다.

## #26 안방(밤)

문을 닫고 방바닥 이부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수희인데,

수영(E) (크게) 사줄 거냐, 말 거냐고오~!!!  
 수희 (크게) 니 아빠 들어오면 사달라고 해!!! 엄만 돈 없어!!  
 수영(E) 우이쨌...  
 (E) (광! 하고 수영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

수희, 한숨을 몰아쉬고는 파스를 뜯어 꺼내서 허리에 붙인다.  
 통증이 와서 얼굴을 찌푸리고 아파하는 수희.  
 수희, 파스를 다 붙이고 자리에 드러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24에서 본 종태의 문자다. 빙그레 미소가 피어나는 수희의 얼굴...  
 설레는 표정으로 종태에게 답메시지를 보내는 수희의 모습.

## #27 주영의 방(밤)

문제집을 풀던 주영,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켜는데, 현관문 도어락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을 열고 우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주영, 벽시계를 올려다보면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각이다.  
 주영, 가만히 방 밖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데, 안방에서 수희가 나오더니 말다툼을 시작한다.

수희(E) (비아냥거리며) 왜 들어왔어? 난 니 새끼들 키워주는 보모니? 가정부야?  
 우재(E) (술에 만취해서 꼬인 발음으로) 아~~ 거 드럽게 시끄럽게 떠드네… 입 좀 닫아, 입 좀…  
 수희(E) 나는 시원찮은 애 하나 가지고 떡을 치는구만.  
 우재(E) 아이구… 우리 장수희 여사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없어. 뭐든지 척척 해내고 알아서 잘하는데. 내가 해줄 일이 뭐가 있겠어… 월급이나 갖다바치면 그만이지.  
 수희(E) 앓느니 죽는다고 내가 다 하는 일 아니야! 주영이 한번 떠맡아볼래?  
 우재(E) 아유 네네~ 제가 알아서 기어야지요…

주영, 들리는 말다툼 소리가 듣기 싫어 책상 서랍에서 귀마개를 꺼내 귀를 막아보지만 소리는 계속 들리고, 두 손으로 두 귀를 꽉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는다.

페이드아웃.

## #28 교실(낮)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학생들. 혜진도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데 주영은 물끄러미 혜진을 본다.

혜진 (웃 갈아입으며 주영에게) 예효… 주영이 너는 좋겠다. 귀찮은 체육 수업 안 들어도 되고…

주영 (웃으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한데…  
 혜진 너,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심심할 틈도 없으면서?  
 주영 혼자 하면 집중도 안 돼. 난 체육 하고 싶은데?  
 혜진 땀별에 운동장 뛰면서 뺨질뺨질 땀 흘리고 몸 전덕전덕 해져봐야 니가 지금 얼마나 편한 건지 알지…  
 주영 (웃는)  
 혜진 잠이나 좀 자든지. 휴우… 이러나저러나 좋~~겠다. 째… 교실 잘 지켜라.

체육복 다 갈아입은 혜진, 교실을 나가고, 다른 학생들도 우르르 교실을 나가자 혼자 덩그러니 남은 주영, 텅 빈 교실을 한번 훑- 둘러보고는 문제집을 꺼내서 본다.  
 수업시작 종소리가 울리고, 조용해진 학교… 공부하는 주영인데, 복도를 지나가던 준우가 창문 너머로 교실에 혼자 앉은 주영을 발견하고 교실로 들어온다. 돌아보는 주영.

준우 (주영의 옆 분단 자리에 걸터앉으며) 체육?  
 주영 네.  
 준우 같이 나가서 애들 하는 거 구경하지 왜…  
 주영 체육 끝나고 나면 애들 거의 녹초가 되는데 저까지 챙겨서 데리고 다니려면 힘들거든요… 그냥 교실에 있어주는 게 다들 편해요.  
 준우 그건 누구 생각인데?  
 주영 … 에?  
 준우 니가 교실에 있는 게 다들 편하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고.  
 주영 (생각해본 적 없던 질문에 가웃) 글썩요? 그냥 다… 모두의…전부의 생각이 아닐지…  
 준우 쓰읍… 그건 아닐 거 같은데…  
 주영 (잠시 생각해보는데)  
 준우 암튼.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주영 아… 문제집…  
 준우 야야… 남들 몸 쓰고 있는데 혼자 머리 쓰고 있는 건 반칙 아니냐?  
 주영 (주눅 들어) 아… 좀 그렇죠? 하하… 그럼 뭐 해야 하지…?



(두리번거리는)

준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농담 농담~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시구만? 오케이, 접수!

주영 (어색한 미소)

준우 이려고 있지 말고, 우리도 몸 좀 쓰러 가자!

주영 ??? (의아해서 보는)

## #29 학교 교정 벤치(낮)

화단에 예쁜 꽃이 만발한 초록의 잔디를 배경으로 나무 벤치가 있는 교정에 준우가 벤치에 앉았고, 휠체어에 탄 주영이 벤치 옆에 자리하고 나란히 앉아 스케치북에 4B연필로 풍경 스케치를 한다. 주영의 스케치를 옆에서 보는 준우.

준우 에이~ 내가 뭐 봐주고 말고 할 수준이 아니구만.

주영 그... 그렇게 수준 이하예요?

준우 폼... 뭐래나? 너무 잘한다고 이눔아~ 나 고2때 생각하면 니 그림 반도 못 따라갔어.

주영 (안도하며) 아...

준우 다른 그림도 한번 보자. (하고는 주영의 스케치북 가져가서 훑어보며) 이 기세면 한국대 미대는 아주 그냥 씹어먹겠는데?

주영 ... (꾸벅) 감사합니다...

준우 너도 체육시간엔 몸 쓴다 생각하고 손이라도 써. 포트폴리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골 때리게 공부나 하고 있지 말구.

주영 (피식 웃으며) 네...

준우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지? 네 그림 보고 뭐라고 하셔?

주영 ... 엄마 아빠 제 그림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미대 지망하고 있는 것도 모르시는걸요?

준우 왜? 말씀 안 드렸어?

주영 제 진로에는 관심 없으셔요. 워낙 신경 쓸 게 많으셔서들...

준우 부모님이 자식 일 말고 더 중요하게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냐?

주영 (쓰게 웃으며) 그러게요...

준우 하긴... 부모님이 신경을 쓰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었어. 어차피 인생은 우리 각자가 책임지고 사는 건데.

주영 (뒤통수 얻어맞은 듯한 얼굴로 준우 보는)

준우 왜 그렇게 봐?

주영 아... 아니 뭐... 그냥...(어색한 미소 짓는데)

준우 근데 주영이 너는 왜 자꾸 영혼 없는 미소를 지어?

주영 네?

준우 꼭 웃기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보여주듯이 미소 짓잖아. 너 솔직히 웃고 싶지 않지? 근데 왜 영혼 없이 괜히 웃냐?

주영 (머리 굽적이며) 제가 그랬나요? 몰랐는데... 습관인가?

준우 너무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하지는 마. 인생 피곤하다. 너 웃는 얼굴이 예쁘기는 하다만...

주영 (예쁘다는 말에 볼 빨개지는데 부끄러워서 괜히 고개 돌리고 탄청 피우는)

준우 암튼 윤주영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살아보니 인생 뭐 별거 없더라. (문득 주영 얼굴 보고는) 얼굴이 왜 빨개? 더워?

주영 (당황) 예? 빨강기는 무슨... (말 돌리는) 근데 되게 어른인 척하시네요?

준우 내가 어른이지 그럼 애냐?

주영 핏... 아직 서른도 안 되셨으면서.

준우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야.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어봤냐에 따라 스무 살이 어른일 수도 있고, 마흔 살이 애일 수도 있는 거지. 주영이 너도 이미 어른이 된 건지 모르는 일이고. 참! 너 스무 살인 거 비밀이라며?

주영 (주위를 급히 살피며 검지를 입에 갖다 대고) 췌! 누가 들겠어요!

준우 (목소리 낮춰) 왜 비밀인데?

주영 안 그래도 뒤는데 나이마저 튀고 싶지 않아요. 나이 많다고 애들이랑 보이지 않는 벽 생기는 것도 싫고...

준우 (끄덕끄덕하다가) 근데 비밀로 할 거면 왜 애초부터 학교를 늦게 들어왔어? 뭐, 병원 치료받느라 학교 못 다니기라도 한 거야?

주영 엄마, 아빠가 절 학교에 안 보내실 생각이었어요. 집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치면 된다고... 제가 학교 가고 싶다고 우겨서 겨우겨우 2년

늦게라도 초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나지막이) 밖에 내놓기에 제가 창피하셨던 건지…

준우 에이~ 뭐래나? 괜히 놀림 받고 상처 받는 일 생길까 봐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겠지.

주영 (말 돌리는) 아! 근데 점심시간 때 식판 들어주시는 건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준우 글썽? 시간 되면 들어주는 거고, 안 되면 그만하는 거고… 왜 내가 불편하나?

주영 (손사래 치며) 아뇨 아뇨! 그런 건 아니구… 헤헤… (하고 또 어색한 미소 짓는데 아까 준우 말 생각나고, 얼른 무표정으로 바꾸며 시선 돌리는)

준우 (그런 주영을 보고 피식 웃고는 하늘 올려다보며) 하아… 하늘 좋~~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준우, 햇빛에 눈이 부시고 눈을 지그시 감는데, 그런 준우를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주영. 주영의 시선으로 보이는 준우의 눈, 코, 입, 턱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칼… 주영의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 뛰고, 자기 심장에 손을 얹고 ‘뭐지? 왜 이러지?’ 하며 당황하는 주영.

(E) (수업 마치는 종소리)

준우 이만 들어갈까? 우리 이야기는 투 비 컨티뉴.

주영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네네.

준우, 주영의 휠체어를 밀고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던 혜진이 준우와 주영의 뒷모습을 본다. 왠지 질투심이 일어나는 혜진의 얼굴.

혜진(E) 지갑이 없어졌어.

## #30 교실(낮)

교복으로 갈아입은 혜진이 가방과 책상서랍을 뒤지며 지갑을 찾고, 자리에 앉은 주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혜진을 본다.

혜진 너 진짜 내 지갑 못 봤어?

주영 응, 못 봤어. 학교 올 때 갖고 온 건 확실해? 집에다 두고 온 거 아니고?

혜진 내가 무슨 치매야? 그런 것도 기억 못 하게? 분명히 갖고 왔어. 아까까지 분명히 있었고.

주영 그럼 어딜 간 거야… 이상하네…

혜진 교실에 누구 들어온 사람 없었어?

주영 응, 없었… (하다가 교실 비웠던 거 기억나고) 아… 잘 모르겠네… (계속 가방 뒤져보며 주영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 대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지… 교실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어휴…

주영 (표정 굳어져서 주눅 드는데, 애써 미소 지으며) 미안해… 내가 잘 봤어야 하는데…

혜진 (짜늘하게) 됐어. 착한 척하기는… (하고는 팩 토라져서 수건을 하나 집어 들고 교실을 나간다)

주영 (생각에 잠기는)

## #31 화장실(낮)

혜진,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나오려는데, 체육복 차림의 여학생5가 달려와서 혜진에게 지갑을 건넨다.

여학생5 혜진아, 이거 니 지갑.

혜진 (당황) 어? 이, 이게 어떻게…

여학생5 니가 빌려준 체육복 사이에 끼여 있던데? 안 보이게 체육복으로 덮어줬다가 딸려서 왔나 부지.

혜진 아… 그런가 보네…

여학생5 그럼 나 먼저 간다. 체육복은 청소시간 때 갖다줄게. (손 흔들고는)

뛰어가는)

혜진, 자기 손에 들린 지갑을 보고는 '아놔... 일이 꼬였네...' 하는 얼굴로 찌푸리며 터덜터덜 화장실을 나간다.

### #32 교실 문 앞 + 교실(낮)

교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던 혜진, '에이 몰라.' 하는 얼굴로 지갑을 몸 뒤에 숨기고 들어온다. 혜진이 주영을 보면 책상에 엎드려 두 팔에 얼굴을 묻고 잔다. 주영이 안 보는 사이 쭈그리고 앉아 지갑을 열린 가방 깊숙이 넣는 혜진.

### #33 야간자율학습실(밤)

학생들이 야자를 하고 그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주영과 주영 옆자리에 앉아 공부 중인 혜진. 학생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순찰 중인 준우. 수학 문제집을 풀던 주영, 머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돼서 짜증 난다. 문제를 풀던 펜으로 박박 검은 칠 낙서를 하던 주영, 이럴 바엔 그림이나 그리자, 옆에 책상에 건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펼치고 필통에서 4B연필을 꺼내는데 연필심이 다 닳아서 뭉툭하다. 주영, 후우... 한숨을 내쉬고는 커터칼을 꺼내서 4B연필을 깎는데, 어느 순간 멍하게 딴 생각에 빠져서 딴 곳을 보며 연필을 깎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크게 베고 놀라서 커터칼을 놓쳐 책상 아래로 떨어뜨린다. 주영의 커터칼이 떨어지면서 옆자리의 슬리퍼를 신은 혜진의 발을 찍어 살짝 상처가 난다.

혜진 (깜짝 놀라고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악!!!  
주영 (혜진의 발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어!! 혜진아, 괜찮아? 많이 다쳤어?  
혜진 (자기 발 보며) 쓰읍... 아... 따가워...  
주영 (울 듯한 얼굴로) 미안해... 많이 아파? 보건실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순간, 준우가 주영의 손을 확 낚아채 들어 올린다. 주영, 놀라서 준우를 올려다보는데, 심하게 피가 흐르는 주영의 손. 혜진도 보고 놀라는데,

주영 전 됐고, 혜진이 좀 보건실에... (하는데)  
준우 (화를 내며) 니가 더 다쳤잖아, 임마!!!  
주영 (놀라서 준우 보는)  
혜진 (준우 보는)  
학생일동 (그들을 보는)

준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주영의 손을 둘둘 감아 감싸 쥐고 한 손으로 주영의 휠체어를 밀며 달려 나간다.  
혜진, 뽀뽀하다가 양말을 벗고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다친 부위에 붙인다.

### #34 보건실(밤)

보건실 침대 앞에 휠체어가 세워졌고, 침대에 걸터앉은 주영의 손에 보건교사가 붕대를 감아주고, 주영 앞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지켜보는 준우.

보건교사 우선 응급처치는 해놨는데 살이 안 붙으면 병원 가서 꿰매는 게 좋을 거예요. 우선 좀 지켜보도록 하죠. 좀 쉬다 가요.  
준우 (꾸벅 목례하면)  
보건교사 (나가면서 침대 앞 커튼을 쳐서 막아준다)  
준우 (주영에게) 안 아프냐?  
주영 별로 안 아파요.  
준우 안 아프긴 개뿔. 칼로 그렇게나 쭈셔냈는데 안 아플 리가 있어?  
주영 진짜 잘 모르겠는데... (물끄러미 자기 붕대 감은 손 보는)  
준우 (주영을 말없이 보는)  
주영 (멍한 얼굴)  
준우 너는 어떨 때 기분이 나쁘냐?  
주영 ... 몰라요...  
준우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언제고?

주영 (고개 절레절레)  
 준우 화를 내본 적은 있어?  
 주영 ... 없는 것 같아요.  
 준우 (답답해서) 아니, 어린애가 왜 이렇게 무딘 거야? 니 나이 때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프면 아프다, 무조건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발산해야 하는 때야.  
 주영 저는 그냥 평범한 애가 아니잖아요.  
 준우 평범한 애가 아니면? 무슨 외계인이라도 되냐?  
 주영 저는 맘대로 제 마음 표현했다가는... (절레절레) 안 돼요.  
 준우 왜 안 돼?  
 주영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거예요. 부담스러워할 거고.  
 준우 윤주영아, 왜 그렇게 생각... (하는데)  
 주영 (정색하며) 선생님! 선생님이 처음 선생님이 되신 거라 열정이 가득해서 저 같은 애한테도 관심 갖고 잘해주시는... (하는데)  
 준우 (주영의 뺨을 찰싹! 아플 만큼 때린다)  
 주영 !!!! (뺨을 잡고 놀라서 준우를 보는)  
 준우 (심각한 얼굴로 주영을 보며) 윤주영! 지금 기분이 어때?  
 주영 (멍하게 보는)  
 준우 어? 기분 어떠냐구.  
 주영 ... (고개 숙이고) 무슨 이유가 있는 거겠죠... 맞을 만한 이유...  
 준우 하아... (답답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왜 니 감정을 몰라? 왜 때리세요!  
 제가 지금 왜 맞아야 해요! 아파요! 소리치고 화를 내야 하잖아!  
 주영 ... 전 그렇게 못 해요...  
 준우 (크게) 도대체 왜?!!  
 주영 (터져 나오듯) 버림 받기 싫어요!! 그 누구한테도... 버림 받는 것보단 내 감정 모르는 편이 낫다구요...  
 준우 (뺨의 말에 놀라서 주영을 보는)  
 주영 ... (멍한 얼굴)

가만히 주영을 보던 준우가 주영에게 다가가 가만히 품에 안아준다.  
 메마른 눈빛으로 멍하게 앞만 보는 주영.

준우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영을 안아주며) 버리긴 누가 널 버려?  
 그 누구도 널 버리지 않아, 임마...

주영, 말없이 가만히 안겼고, 준우가 그런 주영의 등을 톡톡툭툭거린다.

### #35 강당(낮)

강당 무대 위에서 훈화 말씀을 하는 교장선생님.  
 전교생이 강당 바닥에 앉아서 듣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휠체어에 앉은 주영이 혼자 우뚝 솟아 있다. 그런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주영이 최대한 앉은키를 낮추려고 허리를 숙이고 불편한 자세를 유지한다.  
 학생들 뒤편에서 선생님 무리에 끼어서 학생들을 순찰하던 준우가 주영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다.

### #36 교실(낮)

청소시간이라 의자를 책상 위에 뒤집어 올리고, 책상을 교실 뒤쪽으로 싹 밀어붙여서 학생들이 청소하는데, 맨 앞자리에 주영이만 책상 그대로 두고 앉아서 동떨어진 섬처럼 튀어 보인다.  
 혜진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데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리번거리며 어색해하는 주영의 모습을, 복도를 지나던 준우가 창문 너머로 발견하고 멈춰 서서 한동안 지켜보다가 지나간다.

### #37 교실(낮)

교탁 앞에 담임이 서서 조회 중이다. 집중해서 듣는 주영, 혜진을 비롯한 학생들.

담임 고2 학교생활의 꽃! 수학여행 날짜가 잡혔다.  
 학생들 (박수 치며 환호하는) 오오오~~!!!  
 주영, 혜진 (박수 치며 웃는 얼굴)

### #38 몽타주. 서울 곳곳의 관광지들(낮)

덕수궁, 청계천, 광화문광장,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등등의 관광지, 하하호호 떠들며 관광하는 학생들, 실 새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댄다.

그 무리 가운데 주영의 휠체어를 밀며 구경 중인 혜진, 주영을 챙기느라 귀찮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며 나름대로 즐기고, 주영도 중간중간 혜진의 눈치를 살피지만 수학여행을 기분 좋게 즐긴다.

### #39 숙소 로비(밤)

담임이 대자보를 펼쳐 들면 방 배정된 학생들의 이름이 쓰였다. 학생들 저마다 자기 방 호수를 확인한 뒤에, 담임에게 방 열쇠카드를 받아 흠어지는데, 혜진이 목을 쪽 빼고 자기 방 호수를 확인한다.

인서트.

○○○호 김혜진, 윤주영, 서경지, 임태주, 정지영.

표정 어둡게 한숨 꾸욱 내쉬는 혜진인데, 휠체어에 앉아 대자보가 보이지 않는 주영이 혜진 눈치를 보며 슬쩍 물어본다.

주영 같은... 방이야?

혜진 (주영 휠체어 밀고 가며) 당근 같은 방이지 그럼, 담임이 너랑 나랑 떼어놓겠냐? 휴우...

주영 (민망한 미소)

### #40 숙소(밤)

휠체어에 탄 주영이 숙소 방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고, 혜진을 비롯한 나머지 학생들은 가방에서 짐을 풀어놓으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주영, 혼자 심심하고 무료하고 뽀뽀하기도 해서 괜히 허공을 보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가락을 까딱까딱하고 박자를 맞춘다.

시간 경과.

학생들이 집 정리가 끝나고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깔아놓은 뒤, 혜진과 함께 주영에게 다가와서 주영을 함께 안아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붙여 들어 올려 이부자리 위에 눕힌다. 주영의 양말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뒤 주영의 옆에 자리 잡고 눕는 혜진. 다른 학생들도 방의 불을 끄고 나란히 눕는다. 그렇게 다 같이 누워 잠을 청하는데 다들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말뚱말뚱 뜨고 있다.

혜진 다들 자냐?

일동 아니.

혜진 ...

일동 ...

지영 좀 놀다가 잘래?

일동 (말 떨어지기 무섭게) 쵸!!!

학생들, 일어나서 방의 불을 켜고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혜진, 주영을 일으켜서 앉혀주고 옆에 앉는다.

‘뭐 하고 놀지?’ 하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던 학생들, 괜히 웃음 터져서 까르르 웃는다. 함께 웃는 주영과 혜진. CUT TO. 아이엠그라운드 게임 하는 모습. CUT TO. 바니바니 게임 하는 모습. CUT TO. 369게임 하는 모습. CUT TO. 007빵 게임 하는 모습. CUT TO. 곰발바닥 게임 하는 모습. CUT TO.

인서트.

새벽 2시를 가리키는 벽시계.

깔깔깔 웃으며 게임 하던 학생들,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하고...

경지 (웃다가 흘린 눈물 닦으며) 아놔... 열라 웃기네...

일동 (웃다가 정적이 흐르고)

태주 이제 뭐 할래?

일동 ...

지영 (벽시계를 보고는) 우리 오랜만에 진실게임 한번 할래?

새벽갠성으루다가?  
 경지 폼... 새벽갠성? 좋다. 하자.  
 혜진 그럴 분위기나 되나 지금?  
 태주 방에 불을 끄고 할까?  
 지영 서로 얼굴은 보여야 하지. 눈에 쌍심지 켜고 할래?  
 경지 아! 나 양초 있어. (가방에서 양초 꺼내서 각각 나눠주는)  
 혜진 혈... 양초는 왜 갖고 왔대?  
 경지 공포체험 극기훈련이라도 시키면 써먹을라고.  
 일동 (푸하하 웃고) 무슨 초당이나? / 치밀한데? / 압튼 또라이야...  
 주영 (피식 웃는)

점프.

김캄한 방 안에서 촛불을 손에 들고 둘러앉아 사뭇 진지한 얼굴로  
 진실게임 중인 학생들...

지영 내 차례지? 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면 누군지 말하기.  
 경지 일단 나는 있어. 우리 집 앞에 카페에서 알바하는 대학생 오빠.  
 태주 아~ 그때 말했던 그 오빠?  
 경지 응응.  
 태주 (다른 아이들에게) 그 오빠 완전 강동원 닮았어. 장난 아니야.  
 얼굴천재, 얼굴천재. (엄지척)  
 경지 하아... 언제 번호 한번 따보나... (하다가) 압튼 너네들도 빨리 불어.  
 태주 나는 아직 없어. 굳이 꼽으라면 우리 방탄 오라버니들...  
 혜진 으휴, 저 초당...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빠순이나?  
 태주 (짜려보는) 울 오라버니 무대 한번 보고 나면 그런 소리 못 할걸?  
 혜진 (어깨 으쓱해 보이고는) 아... 나도 있어. (땀 들이다가 수줍게)  
 한준우 선생님.  
 주영 (놀라서 보는)  
 일동 (놀리며) 우오오오울~~~  
 지영 다음, 주영이.  
 주영 ... (망설이다가 툭 던지듯) 나도... 한준우 선생님.  
 혜진 (알고 있었다는 얼굴)

태주 앵? 뭐야 뭐야~? (장난치듯) 이진 뭐가요요~ 절친이 연적으로  
 바뀌는 순간인가요요~  
 지영, 경지 (하하하 웃는데)  
 주영, 혜진 (서로 외면하고 말없이 무표정하게 있다)  
 태주 (분위기 이상해서 바꾸려고) 늑다리 뭐가 좋다고들 그러냐? 자자!  
 다음! 누가 질문할 차례야? 주영이지?  
 주영 (혜진에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일동 ???  
 혜진 뭐가?  
 주영 내가 질문할 차례지? 우선 김혜진한테 물어볼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지갑이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윤주영에게 말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에스 올 노'로 대답해줘.  
 혜진 (놀란 얼굴로 주영을 보는)

## #41 과거. 교실(낮)

#32에서, 교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던 혜진, '에이 몰라.' 하는 얼굴로  
 지갑을 몸 뒤에 숨기고 들어온다. 혜진이 주영을 보면 책상에 엎드려 두  
 팔에 얼굴을 묻고 잔다. 주영이 안 보는 사이 꾸그리고 앉아 지갑을 열린  
 가방 깊숙이 넣는 혜진인데, 엎드려 자던 주영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혜진이 황급히 지갑을 넣고 숨기는 걸 본다. 얼른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엎드려 자는 척하는 주영. 지갑을 가방에 넣은 혜진이 교실 뒤편으로 가자  
 슬며시 눈을 뜬 주영의 얼굴이 슬프다.

## #42 숙소(밤)

#40에 이어서 계속되는 진실게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혜진과 주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힌다.

혜진 너는 왜 알면서 모르는 척했는데?  
 주영 니가 먼저 말해주길 바랐으니까.  
 혜진 내가 왜?

주영 친구잖아. 십년지기 친구.  
 혜진 (기막히다는 듯) 하! 너는 날 친구라고 생각은 하니?  
 주영 무슨 소리야?  
 혜진 니 몸종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주영 (화가 나서) 너야말로 날... (하다가 입을 닫으며) 아니다... 뻘다...  
 혜진 내가 널 뭐?! 말을 왜 하다 말아?

주영, 눈을 질끈 감는데 떠오르는 장면 하나.  
 플래시백.  
 #34에서...

준우 (주영의 뺨을 찰싹! 아플 만큼 때린다)  
 주영 !!!! (뺨을 잡고 놀라서 준우를 보는)  
 준우 (심각한 얼굴로 주영을 보며) 윤주영! 지금 기분이 어때?  
 주영 (멍하게 보는)  
 준우 어? 기분 어떠냐구.

주영,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뜨고 혜진을 보며 말한다.

주영 혜진이 너는 날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짐짝처럼 생각하잖아.  
 혜진 !!!!  
 주영 니가 내 앞에서 한숨 한번 내쉴 때마다, 피곤한 얼굴 한번 보일 때마다,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말 한 마디 할 때마다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혜진 그럼 니 앞에서는 마냥 웃는 얼굴만 보여야 돼? 나도 힘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무슨 강철 로봇인 줄 알아? 내가 꼭 생색내는 것처럼 말한다?  
 주영 생색내는 거 맞거든?  
 지영 (둘을 말리며) 야야, 그만들 해. (하는데)  
 혜진 하! 그래. 생색냈다 치자. 그럼 뭐 어텐데? 너한테 이만큼 해주고 있으면 생색내도 되는 거 아니야?  
 경지 에이~ 왜들 이래~ 적당히 하자. 응? (하고 말려보지만)

주영 그래서 항상 미안해하고, 안 좋은 소리 한 번 못 하고 절절매고 있잖아!  
 혜진 진짜 친구면 그렇게 안 해! 서로 지적도 하고, 머리 뜯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하다가 왈각 눈물이 솟고, 울먹이며)  
 그러는 게 진짜 친구 사이지. 너는 나한테 안 그러잖아. 니 속 얘기 한 번을 제대로 해준 적 있냐? 씨... 나쁜 기집애...  
 주영 (같이 눈물이 터지고 울먹이며) 너랑 싸웠다가 니가 나 몰라라 하고 나 버려두고 혼자 급식 먹으러 가고, 화장실도 안 데려가고, 짹도 안 해주고... 그러면 난 어떡하냐?  
 혜진 (눈물 툭툭 흘리며 어이없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내 인성이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주영 (역시 눈물 툭툭 흘리며) 나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단 말이야...

혜진, 주영, 서로 서러워서 끼이끼이 울기 시작하고, 지영, 경지, 태주도 둘을 보다가 덩달아 울음이 터진다.  
 어느 순간, 서로서로 얼싸안고 오열하는 학생들...  
 학생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어두운 방 안, 주영의 손에 든 양초의 촛불이 타들어가 녹아내린다.

## #43 ○○산 등산로 초입(낮)

학생들이 줄지어 등산로로 걸어 들어가는데 휠체어 탄 주영과 혜진, 담임, 준우가 한쪽에 서서 대화 중이다.

담임 너무 가파르기도 하고 돌길이라서 같이 가기가 좀 그러네...  
 준우 제가 주영이랑 같이 놀면서 기다릴게요. 다녀오세요, 선생님.  
 혜진이도 어서 가고.  
 담임 아, 그러실래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한선생님. 가자, 혜진아.  
 혜진 네.

혜진, 주영에게 웃으며 갔다 온다는 눈짓을 한다. 웃으며 꼬덕꼬덕하는



주영. 담임과 혜진이 가고 나면 준우가 주영의 휠체어를 밀고 발걸음을 옮긴다.

## #44 산책로(낮)

풍경 좋고 평탄한 휴길을 준우가 주영의 휠체어를 밀고 가며 산책 중이다.

준우 그래서 달밤에 울음바다가 됐?  
주영 (피식 웃으며) 네.  
준우 너네 둘이 한 번은 풀고 갔어야 될 문제였는데 잘했네...  
주영 네. 잘됐어요.  
준우 혜진이도 너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거 같다.  
주영 ???  
준우 누구한테도 미움 받기 싫고 두루두루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주영 (생각하는 얼굴)

준우, 걸다가 벤치를 보고 주영의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우고 그 옆에 나란히 앉는다.

준우 윤주영 너도 너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태어났으면 인생, 누구 신세 지고 사는 거지 뭐... 너희 부모님, 동생, 혜진이, 나, 누구나 다 신세 지고 살아.  
주영 그래도 염치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준우 에이~ 까짓거 꼭 있어야 되냐? 좀 나쁜년, 쌓년 되는 것도 괜찮아.  
주영 폼... 하하하... (웃는)  
준우 오- 이제 좀 영혼이 있게 웃네.  
주영 (쓱스러워 판청 피우는)  
준우 부모님들 문제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그냥 화김에 쏟아내는 헛말일 뿐이야.  
주영 ... 엄마 아빠 애인들은요?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을...까요?  
준우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엔 주영이 부모님들에게 각자 숨 쉬는 구멍이 필요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 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거든.

주영 네...  
준우 윤주영이 안 되겠으면 어제 혜진한테 했던 것처럼 표현을 해봐. 네가 뭐가 속상한지, 어느 부분이 너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너의 감정을 똑바로 느끼고 직시해서 솔직하게 말해버려.  
주영 (끄덕끄덕하며 생각하는 얼굴...)  
준우 (주영 보다가) 오호... 뭐, 느껴지는 게 있는 거 같은 얼굴인데?  
주영 (끄덕이다가 배를 움켜쥐고) 변... 변의가 느껴져요...  
준우 음... 변의... (하다가) 뭐?! 변의? 화장실? (우왕좌왕하며) 급해?  
주영 (준우의 팔을 붙잡고 읊조리듯) 과민성 대장증후군... 빨리... 화장실...

## #45 장애인 화장실(낮)

준우, 주영을 휠체어에서 번기에 앉혀주고,

준우 됐나? 나가 있으면 되나?  
주영 네. 끝나면 부를게요.  
준우 오케이. 문 밖에서 기다릴게, 불러. (하고 서둘러 나가는)

## #46 장애인 화장실 문 앞(낮)

준우, 나와서 문을 닫아주고 섰는데,

주영(E) (크게) 선생님~~!!  
준우 (크게) 어? 왜!!  
주영(E) (크게) 귀 막고 노래 좀 부르고 계시면 안 돼요?  
준우 노래는 갑자기 왜?  
주영(E) 소리 들리잖아요~  
준우 아이구, 안 들립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주영(E) 비둘기 날릴 각이란 말이예요!! 빨리~~ 귀 막고 노래해요!!  
준우 (폼! 웃음 터지는데)  
주영(E) 빨리 안 부르시면 선생님 비둘기 얘기 소문 낼 거예요!!



준우 (귀여운 듯) 아유 알았다 알았어. (목을 가다듬고 두 귀를 막고)  
흐흠... (트와이스의 '치얼 업' 노래 부르는) 치얼 업 베이베, 치얼 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지나가는 행인들이 준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상관하지 않고 웃으며 열창하는 준우의 모습.

## #47 관광고속버스 문 앞(낮)

혜진이 주영을 버스에 태우려고 업으려는데, 준우가 다가와서 나선다.

준우 비켜봐, 내가 안아다가 태워줄게.

준우, 주영을 공주님 안기 자세로 안아 올리는데, 안기면서 준우의 얼굴과 가까워진 주영의 얼굴이 부끄러워 붉어진다. 부끄러워하는 주영이 느껴져서 준우도 괜히 흐흠... 헛기침하고는 버스에 오른다.

## #48 학교 앞(밤)

고속버스에서 내린 학생들 서로서로 인사하며 하교하고,  
수희가 차 조수석에 주영을 태우고, 휠체어를 뒷좌석에 싣고,  
담임에게 꾸벅 인사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차가 출발한다.

## #49 달리는 차 안(밤)

운전하며 또 잔소리 쏟아내는 수희. 차창 밖만 보는 주영.

수희 시원찮은 자식새끼가 수학여행을 간다는데 가든지, 말든지...  
주영 (눈을 질끈 감고 참다가) 내가 수학여행은 잘 갔다 왔는지, 누가 잘 챙겨줬는지 그런 건 안 궁금해?  
수희 누가 챙겼든 잘 갔다 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주영 (뭔가 속말을 하려는데)

수희 이참에 그냥 이혼해버리고 널 친가에 맡겨버릴까?  
주영 (하려던 말을 못 하고 입을 다물어버린다. 물끄러미 차창 밖만 보는)

## #50 주영의 방(밤)

불이 꺼졌고 주영, 웅크린 자세로 잔다.

## #51 주영의 집 거실 + 주영 방 + 수영 방 + 안방(밤)

깜깜한 집 안에 전화벨이 울린다.  
부스스 일어난 수희, 밖으로 나와 전화 받고.

수희 네. (전화 속 목소리 없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각각의 방에서 주영, 수영, 우재 모두 깨서 눈뜬 채 누워, 바깥 상황을 듣는다.

수희 (좀 더 언성 높여) 여보세요! (사이) 이게 감히 어느 집이라고 이 시간에 전화를 해! 와봐! 어디 한번 와서 얘기해봅시다!  
지금 당장 와! (확 전화 끊는다)

우재, 직감한 듯 나와서 허리에 손 얹고 섰다.  
수희, 벌겋게 달아올라 흥분한 상태.

수희 하다 하다 이제 별 더러운 짓을 다 한다?  
우재 (직감이 맞구나 싶어 입에 침이 마른다)  
수희 으~ (분통 터지고 속상하다)  
우재 ...  
수희 뭐라 말이라도 해봐.  
우재 아니야. 오해야.  
수희 (기막힌) 뭐?  
우재 술집 마담이라구...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즘 내가 잘 안 가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야.  
 수희 (어이없고) 허! 그렇다고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허  
 꼬부라지는 소리로 이 집에 전화를 해?  
 우재 ...  
 수희 윤우재 씨 바꾸랜다. 당~당하게! 지금 집에 올 거라 그런다. 오라  
 그랬어. 어디 감히... 어딜 오겠다고? 체...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자.  
 우재 이리로 온다고 했다고?  
 수희 왜? 두 여자 대면한다니까 떡살이라도 잡힐까 봐 겁나나 봐?

주영의 방. 주영, 갑자기 무서움에 떠다. 큰 소리로 오고 가는 말들과  
 짹짹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리고 컴컴한 방 안의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이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주영, 식은땀이 흐르고.

수희 당신하곤 이제 끝이야. 내일 서류 해올 테니까 도장 찍자.  
 우재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수희 이렇겐 못 산다고. 지금 난 아무 경제력도 없으니까 수영이, 주영이  
 당신이 키울 수밖에 없어. 아무 조건 없이 나만 갈 테니까, 이제  
 끝내자.  
 우재 내가 아니라잖아. 내가 아니라는데 왜 그래~!  
 수희 (울부짖는) 다 들었다고!  
 우재 ?!  
 수희 (호느끼는) 다 들었던 말이야! 당신 학교 찾아갔다가... 남선생  
 이야기 다 들었어.  
 우재 ?  
 수희 점심때마다 그 여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온대며...  
 우재 (당황) 아... 그건...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그래서...  
 수희 (들리지 않고) 당신 상대하려면 도대체가 재미가 없다고...  
 당신 몸보신이나 시키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으으영어어영~ (통곡하는)  
 우재 (소리 지르는) 그만해!!  
 수희 술이나 좋아하는 줄 알았지... 내가 몰랐네... 몰랐어...

우재, 뜻대로 말도 안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주위에 물건 집어던지고.  
 외장창 깨진다. 수희, 찾김에 울면서 같이 집어던지기 시작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온 집 안 가득하고.

우재 (씩씩거리며) 나는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어. 안 그래? 뭐든지  
 당신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당신이 스스로 다 해버리잖아. 내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수희 허!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자식 뼈 빠지게 키워주니까,  
 뭐가 어찌? 당신이 할 게 없다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

식은땀 흘리며 두려움에 떨던 주영,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상한 소리  
 내며, 힘들게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고, 엉금엉금 힘겹게 기어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주영이 거실 밖으로 다 나왔는데도 흥분 상태인  
 수희와 우재, 주영을 보지 못하고 계속 싸운다.

주영 으아아아아아악~~~~~! (굶게, 있는 힘껏 내지른다)

순간 멈추고 정지한 우재, 수희, 수영. 주영을 본다.  
 기어오다가 멈춰 무릎 꿇은 상태다.

주영 (딱 막혀 답답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억누르다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목소리로 크게) 죽고 싶어!!!!

영망이 된 수희와 우재가 놀라서 주영을 쳐다보고, 원망스럽게 보는 주영.

주영 (계속 울고 있는 상태다) 좀... 죽여주라. 제발 날 죽여줘!!  
 죽여달라고!!!! (사정하듯) 어?! 제발 나 같은 거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해버려라!! 응?! 이혼해!!! 병신자식 떠났단  
 핑계 대면서 그렇게 억지로 살지 마!! 당신들 각자 인생 찾아 훨훨  
 날아가버리라고오!!!

수희 (주저앉아 주영을 진정시키느라 주영의 등을 쓸어내린다)

주영 (울조리듯) 그게 싫으면 제발 시설에 갖다 버려주든지...

내 미래 따위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절대 헤아리지 말고...

우재 (고개 숙인)  
주영 (숨이 차다. 옆드린 채 눈을 감고 들릴 듯 말 듯 토해내듯 나지막하게) 나... 살고 싶어...

수영의 방. 수영이 일어나 앉아서 듣다가 눈물이 흐른다.  
'아씨... 쪽팔리게...' 하는 얼굴로 얼른 손바닥으로 눈물을 훔쳐댄다.  
주영이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한다. 우재와 수희가 주영을 끌어안고,

수희 (울면서) 주영아! 정신 차려! 주영아!!  
우재 (울면서) 주영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주영아...

## #52 병원 응급실(밤)

침대에 링거를 맞으며 잠든 주영. 그 옆에 우재와 수희, 수영이가 서서 의사에게 설명을 듣는다.

의사 학생이 스트레스 지수가 심각하고 높습니다. 신경 쓰는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인사하고 가는)

우재, 수희, 할 말이 없어 서로 말없이 마주 보다가 잠든 주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두 사람이다. 수영도 걱정 어린 눈으로 누나 주영을 바라본다.

## #53 교실(낮)

수희, 주영의 휠체어를 책상 앞에 앉혀주고 가려다가 돌아보고 말한다.

수희 밤에 공부할 때 출출하지? 야식 뭐 해줄까?  
주영 ... 골뱅이소면.  
수희 알았어. 준비해놨다가 밤에 만들어줄게. 엄마 간다~

수희, 주영에게 손을 흔들며 교실을 나서다가 발이 걸려서 허우적 넘어질 뻔하며 몸개그를 선보인다. 놀라서 보다가 깔깔깔 웃음 터지는 주영.  
다시 주영에게 손을 흔들고 나가는 수희.

## #54 학교 계단(낮)

수희,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에 잠긴다.

## #55 회상. 교무실(낮)

책상에 마주 앉아 면담 중인 준우와 수희.

준우 손이 베여서 피가 철철 하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헤진이 아픈 거부터 신경을 쓰더라고요, 주영이가... 근데 그 피가 손에서만 철철 흐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님...  
수희 (충격에 입을 틀어막는)

## #56 현재. 차 안(낮)

수희, 운전석에 올라타며 흐르는 눈물을 훔친다.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하는 수희.

## #57 달리는 차 안(낮)

신호에 걸려서 차를 멈춰 세운 수희, 문자 알림음이 울려서 핸드폰을 보면 박종태 사장이다. [우리 언제 볼까?] 하는 문자에 답문자를 쓰는 수희,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라고 쓰고는 종태 번호를 삭제한다.

## #58 교실(낮)

주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는 모습.

## #59 우재 학교 교무실(낮)

수업을 마친 우재가 자리로 돌아와 앉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울린다.

우재, 문자 확인하면,

[아빠! 일찍 와서 나 수학과외 좀 해줘. 성적 떨어졌어...ㅠㅠ -이쁜 딸]

빙그레 웃는 우재. 또 들어오는 문자 한 통.

[화장실 전등 나갔어. 빨리 와서 같이줘요. 전등은 내가 사다놓을게.

-마누라]

또 하나 들어오는 문자 한 통.

[아빠 주말에 같이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요. 올 때 돈가스도...^^ -멋진

아들]

우재, 피식 웃고 있는데 옆자리 동료교사가 앉으며 말을 건다.

동료교사 윤선생님, 오늘도 한잔하러 가실래요?

우재 (일어나 외투 입으며) 일찍 들어가 봐야 돼. 내가 할 일이 많네.

동료교사 웬일이래요? 황마담 기다릴 텐데?

우재 황마담한테 나 말고 다른 호구 하나 소개시켜줘요, 나 먼저 갑니다~ (하고는 미소 지으며 서둘러 나가면서 다비치 '8282' 노래 흥얼거리는)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오! 오! 오~♪

동료교사 (가웃거리는)

## #60 교무실(낮)

담임과 진로상담 중인 혜진. 옆자리에서 힐끔 보는 준우.

담임 사회복지학과 가려면 지금 성적으로는 모자란 거 알지?

혜진 네...

담임 주영이 덕분에 받은 봉사상이 제법 되니까 가산점이 많이 붙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성적이야. (성적표 보다가) 가만 보니까 주영이랑 다른 반 됐었을 때 딱 성적이 떨어졌었네. 주영이가 공부 많이 가르쳐주지?

혜진 ... 네.

준우 김혜진도 윤주영한테 도움 받는 게 있는 거네?

혜진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네요...

담임 서로서로 도와주는 모습 보기 좋다. 혜진이 힘든 거 누구라도 다 알고 있으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혜진 어깨 두드려주는)

혜진 (꾸벅) 감사합니다.

## #61 교실 복도(낮)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에 잠긴 혜진.

## #62 몽타주. 혜진과 주영의 추억거리

1. 초등학교 교실. 혼자 맨 뒷자리에 외톨이로 앉은 어린 혜진에게, 활짝 웃어 탄 어린 주영이 다가가서 말을 걸고 웃어주는 모습.
2. 중학교 교실. 수학 문제 풀이법을 혜진에게 가르쳐주는 주영의 모습.
3. 공원. 소풍을 가서 혜진의 도시락까지 같이 챙겨와서 건네주던 주영의 모습.
4. 혜진 얼굴이 그려진 핸드폰 케이스를 선물로 주던 주영의 모습.
5. 학예회 때 강당 무대에서 같이 춤추던 주영과 혜진의 모습.
6. 아자시간에 즐기고 있는 혜진을 깨워주는 주영의 모습.

## #63 교실 문 앞(낮)

혜진이 교실 문 앞에 서서 공부하고 있는 주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문득 고개를 든 주영이 혜진을 보고 어서 오라고 웃으며 손짓한다. 미소와 함께 고개 끄덕하며 주영에게 달려가는 혜진.

## #64 주영네 집 식탁(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중인 우재, 수희, 주영, 수영.

수영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내 아이폰 사줄 생각 없다는 거야?

우재, 수희 어.  
수영 와아... 진짜 너무하네... 나는 완전 내놓은 자식이야. 혼자 크다, 혼자.  
주영 혼자 크긴 뭘 혼자 크냐? 딴 건 몰라도 니놈 수학이고, 영어고, 공부는 내가 다 시켰다. 그건 알지?  
수영 에이~ 무슨... (하고 생각해보다가) 뭐... 그건 인정!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구르기 인정, 인정 올리지 말고 인정.  
우재, 수희 ???? 뭘 소리야?  
주영 아, 별거 아니야. 요즘 유행하는 급식체라고 급식총들이 쓰는 말이야. 한마디로 인정한다는 말.  
수희 인정한다는 말 한번 되게 복잡하게 하네. 노인정이다 이눔아.  
수영 험... 장수희 여사, 이 드립은 뭘가요오~  
일동 (웃음 터지고) 푸하하하~~~

## #65 교정 벤치(낮)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우고 혼자 앉아 스케치북에 스케치 중인 주영.  
뒤에서 준우가 몰래 다가와 그림을 들여다보면 준우 얼굴을 그리는 주영.

준우 (벤치에 앉으며) 쓰읍... 이 잘생긴 얼굴을 과연 그림으로 다 담아낼 수가 있을까?  
주영 (깜짝 놀라 황급히 스케치북 덮는데)  
준우 뭘 부끄러워하냐? 어차피 전교에 윤주영이 한준우 좋아한다고 소문 짝 났는데...  
주영 (입술 삐죽이다가 새침하게) 한준우 선생 마음은 어떠신가?  
준우 어쭈? 말이 짧다?  
주영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봐요. 자기감정을 직시하라면서요.  
윤주영에 대한 한준우 선생님 본인 감정을 직시하면 어떠신가요?  
준우 음... (땀 들이는)  
주영 (기대에 차서 준우를 보는데)  
준우 ... 투 비 컨티뉴.  
주영 (김 빠져서) 에이~ 뭐야~~

빠진 척하는 주영과 그런 주영을 보고 귀엽다는 듯 싱겁게 웃기만 하는 준우.

## #66 교실 계단(낮)

혜진, 주영이 탄 휠체어 손잡이 부분을 끌고, 다른 학생 두 명이 각각 휠체어 팔걸이 부분을 잡고 끌어당기며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을 붙여가며 계단을 오른다. 지나가던 교사3이 아는 체를 한다.

교사3 아이구... 고생들이 많네... 쫓쫓쫓... 혜진이 착하다, 착해. 에구 기특해라...  
혜진 (민망한 미소)  
교사3 주영이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주영 (싱긋 웃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안 무거워지게 다이어트 중입니다.  
학생들 (으하하 웃는)  
교사3 그래.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주영 냐! 근데 사람은 원래 신세 지면서 사는 거래요-

다 같이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교사3의 존재는 잊히고, 주영의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학생들...

## #67 컴퓨터실(낮)

컴퓨터 앞에 각각 학생들이 자리 잡고 앉고.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은 주영과 혜진. 혜진이 팔이 아픈 듯 자기 팔을 주무른다.

주영 팬찮아?  
혜진 너는?  
주영 응?  
혜진 너는... 넌 팬찮니?

주영 (힘차게 고개 끄덕이며) 난 이제 괜찮아.  
혜진을 보며 편안하게 웃는 주영의 얼굴에서...

끝.

작가 후기 12년 전, 2006년도에 썼던 작품을 묵혀두기가 아까워 응모를 해본 작품이 당선돼서 좋기도 했지만 지금 다시 읽으면 너무 부족함을 느껴 창피하기도 한, 정말 저의 자식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멘토 감독님이 누가 돼주실까 기다렸고, 김규태 감독님의 멘토링과 함께 오랜 2기 동기 작가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당선작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은 읽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정서에 따라 평가도 제각각일 거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고, 제가 가진 하나의 고정관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피드백을 주시는 내용들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작품이 세세하게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드라마트루기는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규태 감독님의 멘토링은 주로 질문을 하시고 작가가 답변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깨달아가게끔 해주셔서, 제가 스스로 쓰는 글에 납득이 가고, 그래서 진심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대본을 영상으로 표현할 때의 인물 감정선이라든지,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멜로디의 분위기 하나하나도, 갑자기 튀는 일이 없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작품 수정을 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거칠고 투박해서 모난 돌맹이 같았던 작품을 갈고닦아, 제법 봐줄 만한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재미있는 글을 쓰는 드라마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 굿-바이 내 인생보험

최성준

---

## 작의

SNS의 데이터를 백업해서 인공지능처럼 만드는 서비스라든가,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인공지능으로 되살리는 기술.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블랙미러> 같은 SF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주효한 것은 죽은 이를 그리워하고 보내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남겨진 자의 마음이 아닌, 떠나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또 그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직접 감명 깊었던 몇몇 만화나 게임, 영화에서처럼 구현해보고 싶었다.

---

## 등장인물

### 김(43세, 남)

시간 관리에 엄격한 재무컨설턴트. 모든 일을 철저히 계획대로 처리하려는 직업병.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조차 자기 뜻대로 관리하려는 ‘꼰대’ 아버지.

### 윤(35세, 여)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IT기업 ‘매직미러’ 소속 연구원.  
한 사람의 인생을 보관하여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담당자.

### 아들(19세)

고3. 아버지의 뜻에 따라 1학기 수시로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숨겨온 다른 꿈이 있다. 어릴 때 사고로 죽은 엄마에 대해 아버지가 쉬쉬하는 것에 대한 반항심.

### 처남(37세, 남)

김의 처남. 중고가전제품 가게 운영. 소탈하고 인간미 넘치지만 조카에게도 찢쩍맨다.

최성준  
csj@daum.net

- 2012 •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카데미 기획창작과정 수료
- 2014 • tvN <라이어 게임> 보조작가
- 2015 • MBC <밤을 걷는 선비> 보조작가  
• 영화 <수색역>, <엄마를 만나는 스토리보드 작업
- 2016 • tvN <피리 부는 사나이> 보조작가
-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굿-바이 내 인생보험> 극본



---

## 배경 설정

‘인공지능’이 아직 완벽한 수준까진 발전되지 않았지만, 특정 인간의 사고 패턴을 모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한 사람의 기억과 인격 데이터를 입력하여 프로그래밍하면, 그 사람과 거의 흡사한 인격체로서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자, 자신과 꼭 닮은 유사AI를 만드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대박을 친 개발사는 이를 바탕으로 ‘인생아카이빙’이라는 프로젝트를 도입하는데, 불치병이나 노환으로 생을 마감할 날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보험으로 자신의 기억을 AI로 기록해두는 서비스다.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질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더는 그들과 만나지 못할 스스로에 대한 위안으로서…

의뢰인의 정신적 복제품이나 다름없을 수준의 AI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록원이 파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의 곁에서 그의 인생과 경험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가 살아온 모든 기억의 흔적들로부터 가치관과 사고 패턴, 인간관계 등 의뢰인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일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분석하여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뢰인이 세상을 떠난 후, 계약에 따라 완성된 AI를 유가족에게 보내준다. 마치 ‘그는 죽었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위로를 현실로 구현이라도 하듯…

---

## 줄거리

잘나가는 재무컨설턴트인 김(43세)의 유일한 골칫거리는 고3 아들이다. 직업병처럼 생애주기별 인생플랜을 모두 짜놓고 철저히 미래에 대비하며 살아왔건만, 아들 녀석이 뒤늦게 반항기가 온 모양이다. 남들 다 가려는 서울대에 수시합격을 해놓고도 등록을 안 하겠다며 몰래 가솔까지 감행한다. 그래봤자 숨어든 곳이라곤 유일한 친척, 처남(아들의 외삼촌)의 가게. 혼쭐을 내줘야지 달려가는데, 돌연 여태껏 세워둔 완벽한 미래설계가 물거품이 돼버리는 일이 생긴다. 계획에도 없던 유전병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길어야 6개월, 항암치료를 받아도 1년 이상은 힘들 거라는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안락사를 받기로 결정한다. 단,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까지는 지켜보고 죽을 작정. 그사이 김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자신이 죽은 후까지 미래의 준비를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차마 아들에게 알릴 엄두는 나지 않는다. 오래전 아내가 죽은 후 오직 아버 손으로만 자란 아들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 녀석 미래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것만 같다. 처남이란 것도 영 미덥지가 못하고, 갈등하던 와중에 윤(35세)이라는 박사가 나타난다. 자신을 ‘매직미러’라는 회사 소속 ‘아카이버’라고 소개하며, ‘당신의 인생을 보관하라’는 제안을 하는데, 죽음을 앞둔 의뢰인의 기억과 인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공지능을 만드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쉽게 말해 죽은 사람을 대신할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다. 김은 이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거면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아들에게 끝대로서 군림할 수 있으리라.

김은 윤을 통해 자신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가상현실에 접속하게 된다. 가장 최근의 기억에서부터 인과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과거의 경험을 기록한다는데. “아드님은 왜 말을 안 듣죠?” “그야 나도 모르지.” “모든 일엔 이유가 있어요. 기억의 기록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니까.” 항상 준비된 계획에 따라 살아왔던 김이지만 정작 ‘왜’를 고민했던 적은 없었다. ‘당연히’ 그래야 했으니까. 하지만 윤은 끊임없이 이유를 묻는다. 이에 김은 진통제에 의지해가며 자신의 과거를 하나둘 다시금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막혀버린다. 그 기억은 바로 아내의 죽음. 아내는 15년 전 ‘사고사’로 죽었지만,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는지는 기억이 까맣게 비어 있는 것이다. 왜 기억을 지웠는지 알아야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는데. 하지만 도저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결국 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아들까지 어떻게 알고 병원에 들이닥친다. 하지만 김은 끝까지 시한부인 것을 거짓말로 숨기면서 아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아들은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 김에게 처음으로 반항의 외침을 뱉는다. ‘엄마가 죽은 것도 아빠 탓’이 아니냐며.

죄책감과 자괴감에 휩싸인 김은 윤에게 매달린다. 제발 자신이 죽은 후,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달라. 망가져버린

자신과는 ‘다르게!’ 하지만, 본래의 계약은 의뢰인과 ‘똑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었고, 김의 요청은 결국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이다.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무엇보다 윤이 감당할 수 없는 윤리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그럼에도 윤은 도저히 김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지는데…

— **굿-바이 내 인생보험**  
최성준

**#1** 병실(낮)

째깍째깍, 손목시계 눈금.  
침상에 기대어 앉아 있는 입원환자 김(42세, 남).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뭔가 불안한 눈초리. 안색 어둡다.  
그런 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옆자리 환자 노인.

노인 11시 반.  
김 네?  
노인 점심밥. 11시 반은 돼야 혀. 많이 시장함 요거 좀 잡춰봐. (문병 선물로 보이는 과일을 권한다)  
김 아닙니다.

잠시 정적.

노인 사람들이 손목시계를 언제부터 썼는지 아시는가?  
김 1차 대전 아닙니까. 병사들이 작전시간을 확인하려고…  
노인 맞는 말이지만, 제일 처음 손목시계를 찬 건 비행사였어.  
재밌지 않나? 하늘을 날면서도 사람들은 시간을 확인해야 했던 게지.  
김 (뒤편 대꾸하려다가, 툭툭툭툭 마른기침이 터진다)  
노인 거, 아직 젊은 양반이 안됐어. 보자… 1년? 반년?  
김 … 것도 너무 깁니다. 시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낸 적이 없는데.

별종이라는 듯 김을 보는 노인.  
신경 쓰지 않는 김. 창밖을 본다.  
날씨 맑다.

김(E) 시계를 보면 주어진 하루 중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죠.

## #2 강연장(낮)

자막. “2주 전”

하늘색 대형 스크린의 PT 화면, ‘자산운용인생플랜’  
유창하게 강연하고 있는 정장 차림의 김.

김 하지만 ‘시간’이란 건 본래, 시계의 눈금처럼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쪼개서 (시계를 찬 손목 들어 보이며) 여기 표시해둔 것이지요.

그 앞으로 빼곡히 앉아 있는 직장인들 모습.  
김, 찬찬히 걸어 나오며 계속한다.

김 그렇다면 우리 인생, 또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은행에서 나눠준 달력? 사주팔자?

스크린, 다음 슬라이드 ‘생애주기별 소득/지출 그래프’가 뜬다.

김 바로 여러분 개인의 재무제표, 소득과 지출입니다.  
(청중 하나 지목하며) 앞의 남성분,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남자 (깜짝) 세전이요?

김 됐습니다, 대충 알겠네요. (청중들 웃는다)  
보시다시피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들일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저축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 그래프를 시계 초침처럼 가능한 한 잘게 쪼개봅시다.  
바로 여러분 인생의 시계가 되어줄 테니까요.

일부는 지루해하고 일부는 관심 기울이는 청중들.  
슬라이드 마지막장. 김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미래재무설계사 김우재’

김 재무설계를 제대로 받으려면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 #3 회사 로비(밤)

걸어가며 수첩 다이어리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우는 김.  
‘재무설계 특강’에 완료 표시로 줄을 긋는다.

(여 음성) 이제 퇴근하십니까, 김팀장님?

김 어, 그래 수고가 많아.

하며 살짝 고개 드는데, 목소리가 들린 안내데스크 쪽엔 아무도 없다.  
대신, 유리로 된 스크린에 여비서의 모습(그래픽)이 스르륵 나타난다.

A 오늘부터 로비 근무를 맡은 ‘A-30b-2’입니다.  
아침에도 인사드렸는데, 못 보고 지나치셨죠?

김 A… 뭐라고?

멈춰서 살짝 당황한 김. 동년배의 회사동료가 다가온다.

동료 매직미러에서 새로 나온 인공지능 비서래.

김 인공지능?

동료 요새 젊은 애들 비서 같은 거 안 하려 하잖아. (A에게) 내일 날씨는?

A (생긋 웃으며) 강수확률은 10프로라는데, 믿어봐야죠.  
그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니 출근길 마스크 착용하세요.

동료 (어깨 으쓱) 이러다가 우리 직종까지 위협해지는 거 아냐?

김 (흥) 찍이나.

다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김. 페이지를 넘기면, ‘가족 모임’ 적혀 있다.

동료 (슬쩍 보고) 가족 모임? 웬일이야.

김 자식새끼 인생부터 확실히 설계해놔야지.

동료    애 잡겠다, 잡겠어. 민재랑 우리 현석이 같은 학년 아녘나?  
 김        (동료가 들고 있는 커다란 박스를 보며) 그건 또 뭐야?  
 동료    이거? (에헴) 요즘 애들 받고 싶은 선물 1위! 드론인가 뭐가.  
 김        장난감을 무슨… 현석이도 민재랑 같은 고3 아녘나?  
 동료    아니, 장난감이라니 이게 얼마짜린데…

두런두런 대화하며 로비를 나서는 두 사람.

A        (땡그러니 남아)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 #4 김의 차(밤)

휘파람 불며 운전하는 김.  
 이것저것 쇼핑을 했는지 조수석에 쇼핑백과 박스들이 쌓여 있다.  
 그중 동료가 산 것과 같은 드론 박스. ‘매직미러’라는 회사 상표 보인다.

#### #5 김의 아파트(밤)

바리바리 싸들고 집 안에 들어서는 김.

김        민재야 아빠 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고 헿하다)

CUT TO.  
 식탁 위, ‘축! 서울대 수시합격!’ 글귀의 케이크.  
 김, 손목시계 초침에 맞춰 손가락만 까딱이고 있는데. 전화 온다.

아들(E)    아빠?  
 김        어, 민재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들(E)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가요.  
 김        뭐? 아빠랑 합격파티 하기로 했잖아.  
 아들(E)    죄송해요, 아빠. 근데 저… (하는데)  
 김        (말 자르며) 김민재. 아빠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시간약속을 어기는 건…

아들(E)    (역시 말 자르며) 그 약속, 아빠가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요.  
 김        뭐라고? … 너 지금 어디니?  
 아들(E)    나중에 전화할게요.  
 김        !! … 니 외삼촌네 가게냐?

뚜… 전화 끊어진 신호음 들린다.

#### #6 중고가전제품 가게(밤)

구닥다리 느낌이 풍기는 중고가전제품 가게. 거의 철물점 수준.  
 고장 난 전자레인지, 구형 브라운관TV, 통돌이세탁기 등이 대충 쌓여  
 있다.  
 전화 끊은 아들(19세), 라면 박스 따위에 든 짐들을 안쪽 방으로 옮긴다.  
 가게 한구석 낚시 의자에 앉아 그 모습 지켜보는 김의 처남(37세).

처남        괜찮겠냐? 너 아버지 뚜껑 열리실 텐데…  
 아들        그래서 미리 나온 거니까, 삼촌도 협조해줘.  
 처남        대단하다 증말. (눈치 살피다) 차라리 한번 들이받는 게 어때?  
               왜, 있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아들        통할 것 같아?  
 처남        (단호) 아니.  
 아들        (피식 웃는) 자기 아들 인생도 계산기 두드려서 정하는 양반인데 뭐.  
               아무튼, 여기 내가 쓴다, 삼촌?

가게 안쪽 좁다란 창고방. 아들의 짐들이 아무렇게나 옮겨진 상태.  
 그 가운데 이젤과 캔버스 등, 화구가 보인다.

#### #7 아파트 주차장(밤)

핸드폰 든 채로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김.  
 수화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김 이 녀석이 진짜…

재빨리 차를 몰아 나가는 김.  
그런데 주차하려는 다른 차가 앞길을 가로막는다.  
'초보운전' 딱지. 서툰 운전으로 차를 빼지도 넣지도 못하고 있는데.  
짜증이 치솟아 경적을 빵양 올려대는 김.  
깜짝 놀란 초보차, 그만 성급하게 후진하려다가…

김 뭐야, 어? 어… 엇!

급발진으로 쿵!! 김의 차를 박아버린다.  
다급히 뛰어나온 운전자가 김의 차 문을 두드리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윤 괜찮아요?! 저기요!

충격을 받은 김은 머리가 멍한데. 흐려지는 시야에 윤의 모습이…  
'A'와 꼭 닮았다. 어라? … 그대로 의식을 잃는 김.

## #8 병실(낮)

잠시 압전 후, 눈을 뜬 김.  
금세 사태 파악을 했는지, 손목시계 확인하고는 일어나 나갈 채비 한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의사와 윤(35세, 여). 난감한 기색이다.

윤 저기… 죄송합니다.  
김 어, 그… 초보운전? (윤의 얼굴 잠시 훑으며) 스읍…  
윤 ??  
김 아닙니다. (명함 꺼내주며) 보험은 들어왔죠?  
지금은 급히 가볼 데가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의사 김우재 씨. 당분간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김 괜찮아요, 뭐 좀 까진 것뿐인데.  
의사 … '이틀 전'이에요. 사고가 난 게.

김 ??  
의사 의식이 없으신 동안 몇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일단 앉으시죠.  
  
의사가 눈치를 주자, 조용히 병실 나가는 윤.  
진료 차트를 올려두고, 진지하게 뭔가 말하는 의사의 모습.  
김은 무표정하게 설명을 듣고 있다.

## #9 사무실(낮)

김,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눈치 못 채고 업무 전화에 서류 작업에 일하느라 바쁜 직원들.  
김이 있든 없든 별 상관없이 분주한 모습들이다.  
그중 서류함 옮기느라 끙대는 여직원. 김이 말없이 다가와 도와준다.

여직원 아, 팀장님. 휴가 아니셨어요? 사고 나셨다고…  
김 별거 아냐. 그… 집에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여직원 (웃는) 워커홀릭,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리에 앉는 김.  
빼곡하게 도배된 포스트잇. 미팅과 업무계획 관련 사항들.  
그 옆 자그마한 가족사진이 보인다. (아들 네 살 무렵)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는 김.

## #10 로비(낮)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김. 아무도 없는 로비인데.

A 역시 휴가는 가족과 보내셔야죠, 김팀장님?  
김 (힘없이 걸으며, 멍하니) 그렇겠지…

하다가 문득, 유리 스크린 앞에 다가서는 김.  
A의 모습, 차림새만 다를 뿐 윤과 똑같다.

플래시컷.

#8, 윤의 모습.

김 너 뭐야? 기계 맞아?  
 A 어머, 지난번에 소개드렸는데 잊으셨어요?  
 김 ... 그냥 닳은 건가. (골치를 부여잡으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A (생긱)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오후 일정은 없으신가요?  
 김 (테스크에 기대앉아 혼잣말하듯) 나는 말야. 늙어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짜놔서. 민재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장가보내고... 노후는 물론이고 내 관작 사이즈까지 센티미터 단위로 알아놔다 이 말이야. 근데 뭐? 6개월? 길어야 1년? 이렇게 멀쩡한데 그것밖에 못 산다고?  
 A 저는 비서 프로그램이라 신체진단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먼 미래의 일까지 계획이 필요할까요?  
 김 ... 그게 우리 회사 일이고 내 업무인 거 모르나?  
 A 자산관리를 통한 미래설계. 알죠. 하지만 그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 (노려보며) 그게 무슨 말이야?  
 A 한 사람의 인생, 시간이라는 게 돈이나 수치로 환산 가능한 것인지요.  
 김 수치로 움직이는 기계가 할 법한 대사는 아니지 않나?  
 A (미소) 팀장님도 그게 기계에 어울리는 방식이란 텐 동의하시나 봐요?  
 김 (한 방 먹은) 뭐...!?! (하다가 번쩍 정신이 든 듯) 와하하하!  
 내 생각을 말해줄까? 난 여태껏 기계처럼 살아왔어! 그리고...  
 A ...  
 김 앞으로.

뭔가 마음먹은 얼굴이 된 김. 발길을 돌려 다시 사무실로 올라간다.

## #11 BAR(밤)

허둥지둥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처남.

스스스 술잔을 들이켜고 있는 김을 발견하고 옆에 앉는다.

처남 매형, 아니 웬 술을...  
 김 오오, 처남. (잔 내밀고 술 따라주는)  
 처남 (바로 꿀꺽하고) 그... 민재 제가 잘 데꾸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구...  
 김 장사는 좀 어때. 아직 옛날 가전품 같은 게 팔리긴 하나?  
 처남 마니아들 상대로만 조금... 그렇죠 뭐 요즘 세상에.  
 김 (한 잔 더 따라주며) 내가 처남이랑 한잔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네.  
 처남 그거야 매형이 스께-줄이랑 그, 건강관리가 워낙에 철저하셔서 갖구... (눈치 보다가 바로 받아 마시곤) 크하...!  
 김 (웃는) 나 죽는다더라.  
 처남 (그새 기분 좋아진) 에이, 요거 쪼매 섭취한다고 사람 안 죽습다?  
 김 (부스럭, 서류 한 장 내민다) 6개월 시한부. 항암치료랑 이겨져서 하면 1년 정도 지켜본다는데, 확률은 희박.  
 처남 ...? (그제야 놀라서 김의 얼굴 쳐다보는) !!!  
 김 (대수롭지 않게) 민재한테 내가 따로 얘기하든 할 테니까 말하지 말고.  
 주섬주섬 포트폴리오 파일 꺼내는 김. 펼쳐두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한다.  
 처남 아니... 이게 무슨...  
 김 자, 처남. 잘 들어야 돼. (술기운 떨치고 또박또박) 좀 전에 회사는 정리했어. 퇴직금이랑 보험금이 꽤 나올 테니, 시키는 대로만 관리하면 돼. 이게 내 펀드랑 계좌들이고, 항목별로 자세히 적어놔었으니까 쪽 읽어보고, 나중에 민재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제없을 거야. 이 적금은 증액해서 묶어둘 테니까 장가보낼 때 쓰고... 나머지 이건 내 입원비 3개월 치.  
 처남 (들으면서 점점 얼굴 심각해진) 3개월...이라뇨...?

김 민재 대학 입학하는 건 봐야지.  
 처남 아니 아간 치료 받으면 1년은... (문득) 매형, 설마...  
 김 (술잔 비우고 내려놓는) 그 후에는, '굿바이'야.  
 (마지막 서류, '연명치료중단동의서' 끄집어내며) 안락사를 해주면 좋겠어.

## #12 병실(낮)

자막. "입원 1개월 차"  
 시계 11시 30분이 지나고 있고.  
 각자 침상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김과 옆 환자.

노인 그래서 애한테 말 안 한다고?  
 김 말씀드렸잖습니까. 애 입학하는 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저는.  
 노인 에잉, 썩썩... (갑자기 쿨럭쿨럭 피로워하는)  
 김 괜찮으세요?  
 노인 (жат아들며) ... 후회할 텐데.  
 김 모를 일이지.  
 노인 가야 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구면.  
 김 ...?

노인의 가족들이 병문안을 오며 대화 끊긴다.  
 딸과 손주로 보이는 꼬마.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노인.  
 흘긋 그 모습 보는 김. 핸드폰에 아들의 연락처를 띄워놓고 망설이다가,  
 다시 접는데.

담임(E) 너 미쳤어?!

## #13 교무실(낮)

교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는 다른 선생들.  
 아들이 담임 앞에 서서 구박을 듣고 있다.

담임 수시 붙여놓고 합격 취소하면, 다른 애들까지 피해 보는 거 모르니?  
 아들 ...  
 담임 이유나 들어보자. 대체 뭐가 불만이야?  
 아들 ... 죄송해요, 쌤.  
 담임 (의자 돌려 앉으며) 됐다. 아버지께 말씀 안 드렸지?  
 아들 (움짤) 드렸는데요.  
 담임 (전화기 들고 바로 통화 걸면)  
 아들 쌤...!!

## #14 병원 복도(낮)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병실 나서는 김.

의사 (오다가 마주치는) 아니 어디 가세요. 치료 받으실 시간인데...  
 김 잠깐이면 됩니다.  
 의사 안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신 상태라...  
 김 면역 같은 소리 하네. (밀치고 지나가려는데, 어지럼증에 벽을 짚는)  
 의사 (부축하며) 이것 보세요.

그때 병실 안에서 경보기 소리가 울리더니, 노인의 가족들이 울며불며 뛰쳐나온다. 놀라는 김과 의사.

## #15 임종 목격 몽타주(낮)

1. 병실로 달려오는 의료진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사. 노인은 위태로운 상황.
2. 결국, 노인의 생명유지장치 빼- 신호. 의사가 숨이 끊어진 노인의 얼굴을 가려준다.
3. 오열하는 가족들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김. 공포감 서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4. 플래시컷. 과거, 병실에서 천으로 덮인 임종한 아내 모습 바라보는 김.



## #16 병실(밤)

낮의 소란은 잊은 듯 어둠이 깃든 병실.

김 아들 녀석이 대학을 안 가겠답시다. 그 서울대를 붙어놓고서는…  
미련한 자식 아닙니까? 근데도 그 애비란 것은 여기서 꼼짝도 못  
하고…

이제 옆자리엔 듣는 사람이 없다. 쓸쓸히 고개를 돌려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이 들어온다.

윤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김 …

윤 정식으로 소개드리죠. 매직미러 연구팀, 윤현진 박사입니다.

윤을 보는 김의 얼굴에서 플래시백.

## #17 플래시백. 아파트 단지(밤)

#11에 이어, 김을 집 앞까지 부축해서 온 처남.

김 다 왔으니깐, 처남은 가서 일 봐. 아까 내 말한 거 명심하고…  
알겠지?

처남 … 매형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대답 대신 휘이휘이 손짓으로 처남을 돌려보내는 김.

처남 사라지자, 취한 몸을 이끌고 벤치에 앉는다.

윤 (어느새 다가와) 김우재 씨?

김 (숙 보더니) A…??

윤 ?

김 아, 초보운전… 보험처리 됐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윤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다른 용건이 있는데요.

김 제가 시간이 좀 없는 사람인 거 아실 텐데. (자리 뜨려는데)

윤 안락사,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김 (멈칫) … 그걸 어떻게?

윤 죄송해요. 그 담당의가 지인이라…

김 당신. 우리 회사 로비에 그쪽이랑 똑같이 생긴… 뭐가 있던데.

(술기운 올라오는) 대체, 무슨 꿈꿉이지? 당신 정체가 뭐냐고!?

윤 저희 회사 제품인가 보네요.

김 뭐? (비틀)

윤 오늘은 힘드신 거 같으니까, 읽어보시고 내키면 연락 주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전단지 같은 책자를 건네주고 지나쳐간다)

김 뭘…

보면, “매직미러-라이프 아카이브: 당신의 인생을 보관하세요.”라고 쓰인  
안내책자. 잠시 바라보다 대충 서류가방에 꾸겨 넣고 길을 옮기는 김.

## #18 병실(밤)

김 (책자 들어 보이며)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윤 라이프 아카이브. 저희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한 서비스예요.  
의뢰인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데이터로 기록해서 그와 똑같은 사고  
패턴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김 여기도 그리 쓰여 있긴 한데. 무슨 보험 같기도 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런 게 맞는지 확실치 않아서…

윤 직접 확인해보실래요?

김 …?

그때 김의 핸드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온다.

김, 영상통화를 받아 곧 화면에 통화 상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노인(영상) 안녕하십니까? 시간낭비 한 적 없는 양반.  
 김 !!?

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마는데.  
 윤이 주워서 건네준다.

김 이 사람은... (다시 확인하고는 윤에게) 이게 무슨 수작질입니까!  
 노인(영상) 아이고~ 그리도 냉정하던 양반이 어찌 이 난리신가?  
 김 !! ... 당신, 아니 어르신... 분명히 돌아가신 게...  
 노인(영상) 죽었지. 근데 그건 내가 아닐세. 놀랍지 않나?  
 김 ...!?!?  
 윤 간단히 말하면, 고인의 인공지능 복제품이에요. 의뢰인이 죽더라도, 영구적으로 네트워크에 보관하게 되고요. 가족들은 의뢰인이 마치 살아 있을 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노인(영상) 그래그래... 원래는 가족 외에는 안 되지만, 죽기 전에 내 특별히 자녀 애길 해두었어. (결결 웃는)

김, 자세히 뜯어봐도 혈색만 훨씬 좋아 보일 뿐 살아생전의 노인 모습 그대로다.

노인(영상) 어찌다 이걸 했는지 궁금한 눈치구먼? 나야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우리 딸내미랑 손주 녀석들 봤잖나?  
 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빈자리만 남기고 가고 싶진 않았어.  
 김 어르신...  
 노인(영상) 자네는 아마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 같은 치들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죽어서까지도 꺾꺾...

화면 속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는 노인. 그대로 통화는 끊어진다.

윤 아직은 영상이나 목소리 정도구요. 머지않아 실체화까지 가능할 거예요.  
 김 그럼 우리 회사 로비에 있는 것도...

윤 아, 그건 좀 달라요. 단순한 비서 프로그램에 비주얼만 제가 제공한 거니까.  
 김 (생각 정리하는) 내가 죽어도... 인공지능이 내 행세를 할 수 있단 거죠?  
 윤 네.  
 김 만약 내가 죽은 걸 모르면, 완전히 그게 나라고 믿을 수도 있나?  
 윤 방금 보셨잖아요?  
 김 ...  
 윤 어떠세요. 지금 결정하시겠어요?

김,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밤하늘을 바라본다.

김 이를테면... 마지막 인생보험일까.

### #19 병원 주차장(밤)

앞서가는 윤을 따라가면서 다소 난감한 표정의 의사.

의사 그래서, 승낙했다고?  
 윤 (끄덕) 병에 걸린 거, 죽는 거, 아카이브 하는 거. 전부 다 아들한테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의사 비밀이라고? (윤을 붙잡는) 당연히 가족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냐?  
 윤 원칙적으로. 아직 법으로 규정된 건 없어.  
 의사 그 양반은 결국 죽어서까지 아들한테 끈대짓을 하겠다는 건데.  
 윤 뭐 일단 우리한테 적합한 의뢰인이니까.  
 의사 그 의뢰인이 내 환자라는 사실은 잊었나?  
 윤 그러니까 모른 척 좀 해줘. 내가 왜 의대 때려치웠는지 선배 알잖아.  
 의사 ... 윤교수님은 나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  
 윤 그러니까... 이걸 남겨질 사람을 위한 일이야. 선배나 나처럼.

차 앞에 도착한 윤. 붙어 있던 '초보운전' 딱지 떼어버린다.

#20 병원 전경(낮)

#21 병실(낮)

김이 의존하고 있는 생명유지장치 옆으로, 아카이브를 위한 장비들이 세팅된 상태.  
컴퓨터 서버 및 여러 개의 모니터를 제외하면 정체불명의 기기들.  
다소 이질적인 분위기가 된 병실 안.

김 이게 다 뭐니까?  
윤 말해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김 신상자료는 다 제출해드렸는데...  
윤 그러게요. 이렇게 꼼꼼히 기록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김 그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충분히 알겠죠?  
윤 조금요. 그치만 이런 결론 부족해요. 인간의 사고는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시죠? 아카이브의 핵심은 의뢰인이 체험한 과거... (자기 머리 손가락으로 톡톡) 즉, 기억 그 자체니까.  
김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윤 설명하면 복잡하니 바로 가보죠.

윤, 눈앞에 VR기기처럼 보이는 장비를 김에게 씌우고 편히 눕힌다.  
곧바로 주사기로 김의 팔에 뭔가 투여하는데.  
뭐라고 더 말하려다, 이내 스투룩 의식이 잠기는 김.

#22 아카이브. 김의 아파트(밤)

케이크 앞에 홀로 앉아 있는 김. (#5 상황) 전화기 울리고 있다.

김 어...? (얼떨떨한. 전화를 받으면)  
아들(E) 아빠,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가요.  
김 민재야? (문득) 이거 설마 그...  
아들(E) (예전과 같은 대사) 나중에 전화할게요.

김 (정신이 번쩍 든) 민재야! 아빠가 지금 그리 같게. 좀만 기다려라.

#23 아카이브. 아파트 주차장(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김. (#7 상황)  
전처럼 초보딱지 차가 앞을 가로막는다.  
재빨리 차에서 내려 달려가 앞의 차 문 열어젖히는 김.

윤 (놀란 얼굴) ?!  
김 나와봐요!

윤을 내리게 하고 대신 탄 다음, 신속하게 대신 주차하는 김.  
다시 자기 차로 돌아와 급히 액셀을 밟는다. 뒤로 들리는 윤의 목소리.

윤(E) 잠깐만요!

#24 아카이브. 중고가전제품 가게 밖 + 안(밤)

차를 세우고 내린 김, 곧장 달려가서 잠긴 가게 문 두드린다.

김 문 열어!  
처남 매형??

문 열어주자, 번개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김.

김 민재야!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중고가전제품으로 가득한 가게 안.  
김, 아들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처남 아니 매형, 좀 침착하시고... (목소리 찾아들고)

김, 가게 안을 헤매는데, 도저히 아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가게 안이 가전제품들 더미에 휩싸인 미로처럼 연출되고.  
헤매던 끝에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곳에 갇히는 김. 처남의 모습도 사라지고  
없다.

김 이게 뭐야...? 민재야...! 처남...?  
윤 (어디선가 나타나 걸어오며) 지금은 여기까지네요.  
김 윤박사?! 이게 대체... (혼란)  
윤 여기는 김우재 씨 기억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일종의 가상현실?  
김 하지만 뭔가 좀 다른데...  
윤 우리가 모든 걸 시간의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김, 다시 주변을 보면.  
미로는 사라지고 평범한 모습의 가게 안으로 돌아와 있다.  
반대편에, 걱정스럽게 김을 바라보고 있는 20대 중반 여인(#9 사진  
아내)이 서 있다.

김 (가슴이 철렁) 당신이 어떻게...  
아내 (슬픈 톤으로) 자기는 왜 항상 이런 식이야?  
김 ...

불현듯 밀려오는 절망감에 김, 눈을 질끈 감는데.

## #25 병실(낮)

VR기기를 벗으면, 그대로 병실에 누워 있는 김. 숨이 가쁘고, 눈가가  
축축하다. 생명유지장치에 찍힌 심장박동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고.

윤 (물과 알약 건네주며)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김 (간신히 받아 삼키는) ...  
윤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 입력하며) 그 가게의 기억이, 아내에 대한

기억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아내분이 돌아가신 게 15년 전이었죠?

김 ... (얼굴을 쓸어내리는)  
윤 (서류를 보며) 아드님은 왜 가출을 한 건가요?  
김 그야! ... (시선 피하며) 나도 모릅니다.  
윤 모든 일엔 이유가 있어요. 기억의 기록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니까.  
김 인과관계라니...  
윤 이 작업의 목적은 과거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표면화된 정보들은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되지만, 몇몇 중요한  
시점들은 직접 그 기억에 접근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되거든요.  
김 (머리가 복잡한) 후...  
윤 일단 아드님과 관계에 집중해보죠. 기억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한 단계씩 더 소급되는 시점에 접근할 수 있어요.  
김 이런 걸 여러 번 해야 된단 거죠?

윤, 생명유지장치의 수치를 살핀다.

윤 천천히 해보죠. 무리하면 탈이 날 수 있으니까.

탈...? 피식 웃는 김의 얼굴에서.

## #26 중고가전제품 가게(밤)

카운터에 웅크리고 앉아 통화 중인 처남. 당혹스러운 얼굴.

처남 (듣다가) 알겠어요, 매형. ... 네에...

전화 끊어지자 한숨을 푹 내쉬는 처남. 뭔가 골똘히 고민하다가, 머리 벽벽  
긁는데.

아들 (불쑥) 다녀왔습니다.

처남 아쿠, 깜짝야.  
 아들 뭘 놀라고 그래. (문득 의심의 눈초리) 삼촌, 설마 아빠 만났어?  
 처남 어? 어어??  
 아들 가만 보니 이상해.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당장에 쳐들어오고도 남았을 타이밍인데... (처남 눈 똑바로 보면)  
 처남 바, 바쁘신가 부지...? (시선을 피하자)  
 아들 배신자.  
 처남 그, 그런 거 아니야!! 그... 전화. 전화가 왔었지~ (눈치 보다가, 술술) 너네 아버지, 해외 어디로 출장 가신다던데? 그 뭐야, 뉴질랜드라던가? 그래갖구, 당분간은 나더러 니 좀 잘 챙겨주라시드라...  
 아들 흐응... 그럼 아예 안 돌아와도 될 텐데.  
 처남 ...  
 아들 (책가방을 화구 가방으로 바꿔 들고 뛰어나간다) 다녀오겠습니다.  
 처남 (머리 벽벽) 돌아버리겠구만...

## #27 아카이브. 교무실(낮)

학교 교무실에 들어서는 김.  
 윤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온다.

김 (혼잣말하듯) 민재 담임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담임 아, 민재 아버님이시죠? (김을 안으로 안내하는)

그런데, 교무실 안의 다른 선생들이 모두 담임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김 ?? ... (으스스) 이 사람들은 대체...?  
 윤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기억에 없는 부분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아마 학교 선생을 다 이런 이미지로 여기시나 보네요.  
 담임 다름이 아니라, 민재를 서울대 입시반에 넣고 싶은데 말입니다.  
 아 글썽 민재가, 미술학원 다닌답시고...

김 (비로소 기억난다는 표정) 후... 민재 3학년 막 올라갔을 무렵입니다.  
 담임 여기가 민재 다닌다는 그 학원입니다. (미술학원 광고지를 건네는)

광고지를 받아 드는 김.  
 돌연, 주변 공간과 사물들이 스리슬쩍 재배치되고 재구성되기 시작하더니...

## #28 아카이브. 미술학원(낮)

투두둥... 순식간에 미술학원 실내로 바뀐다.  
 각자 이젤 앞에 둘러앉아 정물화를 그리고 있는 학생들.  
 그 가운데 섞여서 열심히 연필을 놀리는 아들(고1)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교복을 입힌 석고상이다.

김 (흠칫 놀라지만, 곧 아들을 발견하고) ... 민재야!  
 아들 (고개 드는) 아빠?

성큼성큼 다가가는 김, 막무가내로 아들의 캔버스를 빼앗아 집어 던진다.  
 그러고도 분을 못 이긴 듯 씩씩거리는 김.

김 김민재. 이딴 시간낭비 하지 말랬지!? 건설적인 일을 할 생각을 앓고.  
 아들 (주변을 신경 쓰며, 기가 팍 죽은) ... 잘못했어요.

저벅저벅 김을 스쳐 지나가는 아들.  
 김, 문득 안쓰러운 듯 붙잡으려는데, 아들의 모습 사라진다.

윤 (한편에서 지켜보다) 생각보다 식상한 전개였네요, 가출한 이유는.  
 김 이때 알아듣게 얘기했다고 생각했건만, (한숨) 애 삼촌한테 확인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윤 그런데 너무 식상해서 오히려 의문인데요.  
 그렇게까지 미술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 ...  
윤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그렸던 캔버스를 주워드는 윤.  
김에게 보이면, 유치원생이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그림이다.

## #29 병실(낮)

쿨럭... 기침을 하며 VR을 벗는 김. 안색이 창백하다.  
일어서서 뭔가 조작하고 있는 윤.  
프린터 같은 장치에서 기억 속에서 본 그림이 출력되어 나온다.

김 그런 것도 됩니까?  
윤 (그림 들어 보이며) 본 기억이 있으시겠죠?  
김 (슬쩍 눈길 피하며) 가출한 이유 나왔으니까 이제 다 된 거 아십니까?  
윤 원하시는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되려면, 아드님 관련해서 필요한 기억은 전부 기록해야 돼요.  
김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윤 사람의 기억이란 게, 잊었다고 생각한 것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림을 건네준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건네받은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김.

김 ... (내키지 않는) 애가 유치원 때 그렸던 거예요.

윤, 다시 VR을 씌워주면.

## #30 아카이브. 유치원(낮)

장난감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있고.  
한구석에 스케치북 펼쳐놓고 앞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린

아들(4세).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 좀 전의 그 그림이다.

어린 아들 (김을 발견하고, 달려오며) 아빠, 아빠, 이거!

잠시 애뜻하게 바라보다가, 아들을 안아 올리는 김.  
그때 등 뒤에서 아내가 다가온다.

아내 어머, 민재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은가 보구나?  
어린 아들 엄마 이거 이거!  
아내 우와~ 잘 그렸네? 역시 민재도 이쪽에 소질 있는 거 아닐까?  
김 여보...

서글픈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는 김.  
그런데 아내의 옷소매에 묻어 있는 붉은색 물감이 눈에 띈다.

윤 (자세히 보며) 이거, 유화물감이죠?  
아내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게 언제 묻었지? (김에게 배시시 웃어 보이며) 정신없었네, 화실에서 바로 오는 바람에.  
윤 (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아내분이 미술을 하셨단 내용은 없었는데요.  
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그저 미소 지으며 김을 바라보는)  
윤 그게 아드님한테 달랐던 것 같죠? 다음 연결고리는 이걸로...  
김 !! ...

윤이 김에게 아내 옷소매를 들어 보이자, 공간이 (교무실에서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김,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힘주어 아내의 팔을 잡아챈다.

놀란 얼굴로 김을 바라보는 아내.

그러자 쿵! 소리와 함께 일순간 주변이 어두워진다.

유치원은 사라지고 까마득한 어둠 속에 서 있는 김, 당황해 두리번거리는데.

아내(E) 미안해 여보.

김, 그 목소리에 다시 아내를 보면.  
붙들고 있는 건 아내가 아닌 현재의 아들 모습. 분노에 찬 눈빛.

### #31 병실(낮)

괴로워하는 김의 VR기기를 벗기고 흔들여 깨우는 윤.  
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자 식은땀이 한가득 배어 나온다.

윤 괜찮으세요?  
 김 (숨을 몰아쉬며) 아까 그건... 뭘니까.  
 윤 아무래도 그 기억이... 아내분 죽은 시점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모니터에 뜬 문자열 확인하며)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접근 불가능해요.  
 김 이 이상은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윤 아드님한테는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김 그런 건 제가 판단합니다.  
 윤 우재 씨... (앞에 앉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이 죽은 후에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물론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건을 떠올릴 땐 저항이 생기긴 하지만...  
 김 (다소 흥분) 아내의 죽음을 떠올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이는 고작 네 살배기였고. 이제 와서 녀석이 무슨 꿑꿑이든 간에... 중요한 건, 아버지로써 절대 그걸 용납할 생각이 없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한바탕 쏟아내고) ... 저도 민재를 위해서 이 일을 결정한 겁니다.  
 윤 (잠시 보다가) ... 알겠어요, 그럼. 아드님 문제는 이 정도 해두죠.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나 정리한다)

### #32 시간 경과 몽타주

1. 밤낮 안 가리고, 수차례 VR기기를 썼다 꺾다 반복하는 김의 모습.  
2. 김은 점점 더 많은 양의 진통제에 의존하게 된다. 이를 지켜보는 윤의 모습.

### #33 병원 옥상공원(밤)

난관에 등을 기대 채, 담배에 불을 붙이는 윤.  
주변 테라스를 산책하던 환자들 및 가족들, 인상 찌푸리며 자리를 피한다.  
윤, 그들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는데. 이를 발견하고 달려와서 담배 빼앗는 의사.

의사 남의 업소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 입 빨고, 문질러 끈다)  
 윤 (담담히) 선배. 그때 우리 아버지, 봤지?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 그랬었지.  
 윤 많이 힘들어하셨지?  
 의사 응.  
 윤 ... (난간 앞으로 몸을 돌려, 먼 곳을 보는)  
 의사 김우재 환자... 비슷해. 진행이 빨라. (자리 뜨며) 곧 뇌세포까지 잠식될 거야.

### #34 미술학원 / 복도(밤)

이젤 앞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아들의 모습.  
강사가 다가가 뭐라 뭐라 지도해주고.  
아들, 밝은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놀린다.  
창가 밖 복도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윤... 어쩔까 하다가 그냥 돌아간다.

### #35 중고가전제품 가게(낮)

가게 창문에 아침 햇살이 비춘다.

처남, 기분 좋게 창고방 문 활짝 열고 들어선다.

처남 우리 쪼카! 아침 무꼬 학교 가야지? (하다가) …!!

방은 비어 있고, 탁자 위, 지난번 처남이 김에게 받은 서류들이 널려 있다.

아들 (뒤편에 서 있다) 그것들 다 뭐야…?

처남 !! … 아, 그, 이, 그게 말이지…

아들 삼촌!!! (와락 끼안는)

처남 (흐읍! 울컥, 등 두드려주며) 별일 아니야 민재야. 진짜 별일 아니야.

그런데 날쌔 동작으로 처남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아들.

재빨리 창고에서 나와 광! 문을 닫아걸고, 처남을 가둔다.

처남 어머? (안 열린다) 어허!! 문 열어봐, 민재야!! (문 덜컹덜컹)

아들 … (처남 핸드폰 목록에서 병원 번호를 발견하는)

### #36 병실 앞(낮)

힐레벌떡 달려온 아들. 병실 문을 확인하는데.

뒤따라온 처남이 붙잡고 말린다.

처남 민재야!

아들 여기 있는 거지? 아빠.

처남 삼촌이 설명해줄게. 일단 나오자.

아들 (기가 막힌) 삼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만 속고 있던 거야?

처남 그게… 아 미처부리겠네. (머리 벅벅) 민재야… (하다가 헉)

김 민재 너, 이 시간에 학공 어찌고 여길 왔어?

멀쩡한 듯 일어나 걸어 나온 김.

얼어붙는 처남의 모습에 대충 상황 알겠는 눈치.

아들 아빠!?

김 집을 나갔으면, 뭐라도 계획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학교도 빼먹고… 이래서야 아빠가 널 믿을 수 있겠어?

아들 출장 갔다며… (시선으로 병실을 가리키는)

김 아빠가 과로를 좀 했다. 너 공부에 방해될까 봐 말하지 말라 했고.

아들 …

김 알았으면 얼른 학교 가.

아들 거짓말 좀 적당히 해.

김 뭐라고?

아들 날 믿을 수 있겠냐고? 그러는 아빠는? 인생 자체가 거짓말투성이 아냐?

김 김민재!

아들 (분에 겨운) 엄마 죽었을 때도 그렇고.

김 (헉 하고 말문이 막히는)

아들 별 받는 거야.

아들, 그대로 획 돌아서 가버리고. 우물쭈물하던 처남도 뒤따라간다.

그제야 비틀하며 벽을 짚는 김.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윤이 다가와 부축해준다.

김 (숨을 고르며) 못 보신 걸로 하시죠. 그건… 대충 다 끝나갑니까?

윤 입력된 아카이브 자체는 거의 완성 단계예요.

문제는 역시 아내에 대한 기록과 데이터가 충돌되는 지점이…

김 이쯤 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기억하지 않는 과거란 건, 앞으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윤 인공지능은 사람이랑 달라요. 논리적으로 누락된 과거가 있으면 사고 패턴 계산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김 그럴 필요 없어요. 난 내 과거를 몽땅 보관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들한테 사람 구실 시킬 만큼, 옳고 그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 정돈 지금까지 입력한 걸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 … (고민하다가)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김 테스트?

### #37 병실(밤)

검은 스크린에 ‘Rendering…’ 뜨더니, 곧 ‘OK’로 바뀌고, 프롬프트가 깜빡인다. 컴퓨터 조작을 마치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세팅하는 윤.

윤 아직 불완전하지만 음성은 작동될 거예요.

김 (살피보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피커 음성(E) 그냥 하고 싶은 얘길 해보시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김의 목소리와 같지만 기계음이 다소 섞인 음성.  
(이하 K)

김 내 목소리…?

(K) 의뢰인 김우재의 목소리, 맞습니다. 현재 테스트 모드입니다.

김 (얼떨떨) 거참… 민재 생일이 언제지?

(K) 9월 25일. 이런 거 말고 질문다운 질문 좀 없습니까. 건설적으로다가.

김 (흥미로운) 내가 죽으면 네가 민재를 챙겨야 돼. 알고 있지?

(K) 물론. 잘 생각한 겁니다. 그 떨떨한 처남은 영 못 미더웠잖아.

김 (와하하 웃더니) 맞는 말이야.

(K) 민재 입학한 후 바로 안락사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현 수준의 포트폴리오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금만으로 4년 학비 문제없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퇴직금까지 포함할 경우, 필요 시 어학연수 및 여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 진출해서 결혼비용까지 스테이블 합니다.

김 (들으며 만족스러운) 완벽해. 완벽해요.

윤 (끼어들다) 만약 아이가 계속 미술을 하겠다고 하면요?

김 (불쾌) 뭐니까. 그럴 리가…

(K)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처남 수입으로는, 앞서 제시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재 입시는 물론 생계가 힘들 겁니다.

김 아하… 현실적으로 나가시겠다. 나도 동의해.

윤 (심각한) 이걸 협박하겠단 얘긴데요.

김 정 말 안 들으면, 협박이라도 해야지. 정신 좀 차릴 필요가 있어요.

윤 (듣다못해) 제가 웬만해선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우재 씨도 참 나쁜 아버지네요.

김 그쯤 하시죠, 윤박사님.

윤 애가 미술을 하면 죽은 아내가 생각나서 싫다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최소한 아이랑 이야기라도…

김 (버럭) 내가 민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윤 !! …

(K) (그러자 다시 스크린 ‘Rendering’으로 바뀐다) …

김 (몸 일으키며)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얼맙니까?

윤 … 네?

김 계산하자고.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건 그쯤 하고.

윤 … !

그때 스크린에 뭔가 찍히기 시작한다. 딱딱딱 표로 된 수치들이 마구 올라가는데.

출력되는 자료를 보고, 금세 뒀지 알아보고 사색이 되는 김.

(K) 검색 결과 1건. 김우재 님의 재무설계서 내역입니다.

작성일은 2007년. 한유나 씨 사망보험금 및 손해배상액 포함.

윤 !? …

갑자기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걸어차는 김. 발로 마구 짓밟으며 신경질 부린다. 윤, 그 모습 보며 눈만 깜빡이는데.

김, 한바탕 화풀이가 끝난 듯 윤에게 돌아서더니…

눈을 부릅뜨는 김, 돌연 정신을 잃으며 쓰러진다.

깜짝 놀라 엉겁결에 달려들어 받쳐 안는 윤.

동시에 생명유지기에서 경고음. 위독하다는 신호다.



윤 김우재 씨!!!

### #38 병원 복도(낮)

김을 긴급히 수술실로 옮기는 의사, 의료진들의 모습. 윤도 따라가며 초조한데. 의식이 없는 김은 그 상태로 꿈을 꾸다.

### #39 꿈. 병원 분만실(밤)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김.  
아내, 힘겨워하고. 곧이어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김, 울컥 눈물이 난다.

아내 왜 자기가 울고 그래?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보얇게 얼굴이 상기된 아내를 껴안아주려는 김.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때의 김의 차림새, 옷에 온통 유화물감 얼룩으로 지저분하다.

김 나와봐요, 윤박사. 저 왜 몸이 안 움직이지요?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박사님...

### #40 중환자실(밤)

슬픈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김. 일반 중환자실에 잠들어 있다.  
한바탕 난리법석이 끝나 위기를 넘긴 상태.  
조심스럽게 들어와 살펴보는 윤. 기척을 느낀 김이 눈을 뜬다.

김 미안합니다.

윤 제 탓인걸요. 제가 하는 일이... 이래요.

김 오래된 꿈을 꿴어요.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나 죽는대요.

윤 ...

김 그 기계가 검색해낸 재무내역... 아내 죽은 뒤에 새로 설계한 겁니다.  
윤 그렇다는 건...

김 갑자기 자산이 늘어났죠.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당시로선 어마어마했어요. 덕분에 혼자서 애 키우는 데 모자람이 없었고요.  
근데 주위에선 나더러 손가락질하더군. 와이프 목숨 팔아다 장사질을 했다고...

윤 ... 걱정 말고 쉬세요. 처음 요청대로 잘 마무리해볼게요.

김 (몸을 일으키려는) 아뇨. 안 됩니다.

저걸 이대로 만들어버리면, 민재는 절대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말 협박이든 뭐든 안 통할 거라구요.

윤 (심각한 얼굴로 고민에 빠진) 하지만...

김 저는 더 이상 민재 앞에 나설 자신도 없고, 남은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만큼은 민재한테 도움이 되게... 지금의 나와는 다르게, 만들어달란 말입니다. 윤박사라면 가능하죠?

윤 (난감한) 그러려면 데이터를 '조작'해야 돼요. 원칙에도 어긋나는 데다, 회사에서도 더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거라구요.  
무엇보다 지금 우재 씨 몸 상태로는...

김 나는 곧 죽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될까요?

윤 ...

### #41 미술학원 앞 / 거리 / 버스정거장(밤)

입시미술학원 입구, 간판 아래서 죽치고 기다리는 처남.  
쫓그러 앉아 옆자리엔 담배꽁초가 수북하고.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는데.  
학원 마치고 빠져나오는 학생들. 썩덕인다.  
“야, 야, 양아치다. 저쪽으로 가자.”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떨어져 혼자 나온 아들.  
줄고 있는 처남을 발로 툭툭 건드려 깨운다.

아들 여기서 뭐 해?

처남 (깜짝 놀라 깨고는) 민재야! 니가 전화를 안 받아부리니까는...

아들,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히 갈 길 가는데.

처남 (따라오며 주절주절) 민재야... 너희 아버지 있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신대... 너두 그거 봤지? 난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지만서두, 그... 니 생각해서 다 그 압튼 한 거란 말야.

아들 ...

처남 글구 누나... 니 엄마도 그런 거 아니다. 그때... 사고 난 원인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 민재 니두 있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야...

아들 (멈춰 선) 나도 알아. 안다고. 그때부터 아빠 제정신이 아닌 거.  
그래서 나도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 근데... 이게  
뭐냐고...

처남 민재야...

아들 삼촌도 그래, 짜증 나지 않아? 아빠한테 그렇게 무시당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식새끼 떠맡기면?

처남 (시무룩해진) 그으거야... 내 조칸데... 울 누나 아들이고...  
매형도 판에 얼마나... 응? 그러셨으면 내 얼굴 보는 게 그랬겠냐?

아들 ...

처남 난 그래도 고맙드라. 일케라도 나 찾아주는 거. 너 아버지가...

더는 못 들겠다는 듯, 마침 도착한 버스에 휙 올라타는 아들.  
처남, 황급히 따라 탄다.

## #42 중고가전제품 가게 앞(밤)

여전히 아들 옆에 착 달라붙어 조잘대는 처남.  
묵묵히 앞만 보고 걸던 아들.

아들 (못 이긴 척) 알았어, 알았어. 내일 다시 가볼게, 병원.  
처남 (급 망긔) 진짜루다.  
아들 참나...

하는데, 가게 앞에 웬 수상한 양복의 모습이 보인다.

잠긴 문을 건드리고, 창문 앞을 서성이는데.

아들 삼촌 저 사람...  
처남 (헤벌레) 사람? (보고는) 헐! 아니 이 잡것이 남의 가게에다...

기척 느낀 양복이 깜짝 놀라 도망가려 하자, 처남, 득달같이 달려들어  
덮친다.

처남 잡았다 요놈...! (조이는)  
의사 악! (바둥바둥) 나 의사 의사! 김우재 씨 담당의!!  
아들 ?! (다가오면)

## #43 매직미러 본사 앞 + 로비(밤)

커다랗게 ‘매직미러 테크놀로지’ 로고가 붙어 있는 사옥.  
황급히 택시에서 내려 회사 입구로 달리는 처남과 아들.

처남(E) 아니, 환자가 사라졌는데 병원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사(E) 여기도 아니면... 아마 그 친구가 데려간 거 같아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막아서는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처남.

처남 윤박사란 사람도 사라졌다고요?  
직원 우리도 지금 비상이라구요. 장비랑 프로그램 다 빼돌려서, 어딜  
갔는지... 병원에서 난리라,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아들 (억울한) 아니, 환자부터 찾을 생각을 해야지...  
직원 아무래도 환자분 책임도 있으니까 저희는 딱히 손쓸 도리가...  
처남 (사람들 밀치며 고향) 이이이 스벌놈들아!! 애가 그 환자  
아들이라고!!!

분위기 험악해진 로비. 화가 치솟은 처남, 씩씩거리다.

## #44 지하실(밤)

아카이브 장비를 가져와 열기설기 설치해둔 어딘가의 지하실.  
그 사이로 오래돼 보이는 생명유지장치 또한 놓여 있는데.  
간이조명들 사이로 아카이브 기기의 모니터 불빛만 깜빡인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상에서 VR기기를 착용하고 있던 김.

김 (VR기기 벗고 몸 일으키며) 안 됩니다. 역시 다 새까매편.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윤 이제 와서 지금까지 한 걸 다 뒤엎는 건 무리예요.  
그보다 더 과거 단계로 넘어가서 인과관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더 강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우재 씨. 혹시 아내에 관한 다른 기록이라든가...  
김 (낙담하는) 소용없어요. 아내 죽고 그때 자료들은 몽땅  
태워버렸으니까.  
  
김, 들고 있던 재무설계서(#37에서 출력했던)를 옆으로 던져버린다.  
  
윤 다시 찬찬히 정리해보죠. 지금까지의 아카이브에는 15년 전, 아내가  
죽기 이전의 특정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김 원인이 불분명한 화재로 아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밖에는...  
윤 그리고 이 재무설계서는 그 이후에, 즉 보험금이 나온 걸 바탕으로  
다시 만든 거란 말이죠.  
김 어쩌면 정말로 내가 아내의 목숨을 흥정하려 했던 걸지 모르죠...  
윤 지나친 생각이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가 죽기 이전에  
만들었던 재무설계서를 '기억 속에서' 찾아낸다면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김 기억... (좌절하여 양손으로 마른세수하는데)  
윤 (보다가, 문득) ... 그 시계.  
김 ?  
윤 (김의 시계를 가리키며) 그 손목시계, 언제부터 차고 다니셨죠?  
김 이건 분명... 아내가 선물로... (뭔가 깨닫는) !!!

윤 (일어서는) 좋아요. 그때로 가보죠.

손목시계를 끌러서 손에 쥐는 김. 윤이 그대로 VR기기 씌워준다.

## #45 아카이브. 대학교 잔디밭(낮)

동기들(E)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김우재! 김우재!  
김 응?

김, 주변에서 외쳐오는 소리에 눈을 떠보면, 손목시계를 찬 손으로,  
하이바에 가득 찬 똥막걸리(?)를 눈앞에 들고 있다.  
어느새 새내기 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김의 모습, 지금의 아들과 꼭  
닮았다.

선배 (목소리 깔며) 잠깐 스톱.

찬찬히 다가온 늙다리 선배. 카약, 가래침을 모으더니 튼, 술에 뺨어  
넣는다. 새끼손가락으로 휘휘 저어 섞는데.  
다른 새내기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 윤, 얼굴 찌푸린다.

동기들 (자지러지는) 오오오! 금단의 비법주가 탄생했다! 마셔라!!  
윤 으... 구시대의 산물. 명색이 명문대 아녘어요?  
김 (둘러보며, 반가운) 새내기 댄 나름 방탕한 학창시절을 보냈었죠.  
선배 (김에게) 남기른 남긴 만큼 다음 타자가 독박 쓰는 기라. 알제?  
(윙크)

김, 문득 고개를 돌려 다음 순번 기다리는 옆 학생을 보는데.  
대학 시절의 아내다. 풋풋한 모습.  
공포심 반 기대감 반으로 김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

아내 무, 무리 안 해도... 돼.  
김 (그 모습에 마치 그 옛날처럼 얼굴이 화끈)

윤 두 분이 처음 만난 시점인가 봐요.  
아내 (불현듯 윤에게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쏜다)

눈 딱 감고, 하이바 가득한 썸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김.  
환호하는 동기들, 요란하게 박수 쳐대고. 주변 어두워진다.

#### #46 아카이브. 주점(밤)

김이 내려놓는 빈 술잔. 소주잔으로 바뀌어 있다.  
어둑어둑 조용한 주점에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김과 아내.  
아내, 테스트기를 내민다. 깜짝 놀라는 김.

아내 (울떡) 어쩔 거야!!  
김 (멍) ... 결혼하자.  
아내 !!?!?

#### #47 아카이브. 결혼식장(낮)

땡!! 폭죽 터지고, 꽃종이 휘날린다.  
하객들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턱시도를 입은 모습의 김. 분위기에 휩쓸려 마치 진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하객들의 성화에 못 이기듯, 아내에게 키스하며 눈을 감는 김.

#### #48 아카이브. 흐린 보랏빛 카페(낮)

김, 눈을 떠보면.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볼에 입 맞춰준다.

아내 (수줍은 듯) 됐지?

신혼여행지로 보이는 이국적인 느낌, 자그마한 카페.  
잔잔한 빛이 비추고 있고. 김은 그리운 향기에 취한 듯 아내를 바라본다.  
김이 앉아 있는 앞에 놓인 손목시계. 그리고 그 옆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다. 보면, 노트북 화면 작업창에 '우리 부부 재무설계'라는 제목.

김 찾았어요. 이게 그때 태워버렸던 최초의 재무설계 자릅니다...  
(화면 내려보다가) 그런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내 (몸으로 김을 밀치며) 이제 좀 비켜봐. 중요한 거라니까?!  
김 어?

김을 옆으로 밀어내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자판 두드리는 아내.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

아내 여행 와서까지 일하는 거 같아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짜놔야 앞으로 자알 사는 거예요...

김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지 얼어붙어 있다가,

김 아니, 당신이 무슨 재무설계를...?  
아내 내가 하지 그럼 누가 해?  
김 ??  
아내 자긴 이런 숫자 들어가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  
김 ... (혼란스러운)  
아내 나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벌어들일 수입이 정해져 있어. 그렇다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저축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해.  
김 당신이 어떻게...  
아내 자, 끝! (엔터 친다)

김이 혼란스러워 하자, 주변 사물들이 점점 뒤엉키고 사라지기 시작한다.

아내 두고 봐. 이게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래, 시계 같은 게 되어줄걸?

어느새 아내는 사라졌고, 출력된 재무설계서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상단 끝부분에 쓰여 있는 작성자명... '미래설계사 한유나'

김, 망연자실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윤 이케... 기억이랑 기록이 맞지 않았던 지점이었네요.  
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윤박사, 알고 있었던 겁니까?  
윤 그럴 수도 있다고 봤어요. 정신적 외상으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는  
제법 있으니까. 이제... 전부 기억이 나시나요?  
김 (아내가 남긴 서류를 집어 들며) 제가 재무설계사가 된 건... 아내가  
죽고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김, 순간 온몸에서 저릿한 고통이 밀려온다.

윤 괜찮아요?  
김 (가슴 움켜쥐며) 하아... 아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윤 (다급히) 일단 그만하죠. 일어나세요.  
김 (창백해진 얼굴로 눈을 질끈 감는) ...

### #49 아카이브. 옛날 화실(밤)

김, 눈을 뜨면, 이젤이 놓여 있고. 대형 캔버스 앞에 앉아 있다.  
손에는 유화붓이 들려 있고. 입고 있는 작업복은 물감투성이다.  
눈앞에 있는 그림은 아직 미완성인 아내의 초상화다.

아내 아직 멀었어? 나 다리 저린데...

저 앞에, 아내가 모델로 다소곳이 앉아 있다.

김 ... 여보.  
아내 (눈치 보다가) ... 여보, 이런 말 미안한데... 자기 화실 있잖아...  
(작심한 듯) 일단 내놓는 게 어떨까?  
김 ...  
아내 자기 미술 하는 거야 나도 응원하고 좋아하지만...  
우리도 그렇고 많이 어렵잖아 요즘. 아무래도 지금 형편에는...

가슴 아픈 표정의 김, 뭐라고 말을 하려고 입을 떼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마비가 된 듯 움직일 수도 없다. 그런데 어디선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기계음이 섞인... (K)의 목소리다.

(K) ‘그러게 왜 회사를 나와 갖고.’  
김 !!!!! ...  
아내 (화나지만 참는) 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붙어 있겠어. 민재는 어떡하고...  
(K) ‘그러니까 다 내 책임이라는 거지?’  
김 (입 안에 뱀도는 소리로) 그러지 마...  
아내 (벌떡 일어서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앞으로 민재 학교도 보내고  
해야 할 텐데... 남아 있던 적금 죄다 깨먹은 지가 언젠 줄이나  
아냐구...  
(K)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했지 않아?’  
아내 ... (눈물이 맺힌다) 자기는 왜 항상 이런 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헉 하고 찬 숨을 토하더니 무릎 꿇고 쓰러지는 김.  
쿨럭쿨럭...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기침을 쏟아낸다.  
그리고 귓가에 먼 곳으로부터 생명유지장치 경보신호가 들려온다.

### #50 지하실(밤)

생명유지장치 요란하게 울리며, 김의 맥박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윤, 다급히 김의 VR기기를 벗겨내지만.  
김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 있다.

윤 (당황) 설마... 안 돼, 일어나요!  
거기 계속 머물면 진짜로 위험하다고요!

다급히 김의 몸을 흔드는 윤.  
하지만 김은 괴로운 얼굴로 땀만 흘리며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 뒤로 모니터에는 뭔가 뜨기 시작한다.

따르륵 따르륵 알 수 없는 수치들이 기록되며 고속으로 스크롤되는 스크린.

### #51 아카이브. 검은 공간(밤)

아무도 없는 검은 공간.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김, 혼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아내도, 아들도, 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김 여보? 민재야? (...) 박사님? (...)  
(고개를 돌리며)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보면, 김의 뒤편으로 화실이 불타고 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김.

### #52 병실(낮)

자막. “일주일 후”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의 김.  
곁에 앉은 처남, 월드컵 축구 시청하고 있다.

처남 (TV 보며 흥분) 오... 오... (머리 부여잡는) 으아악!!  
TV(E) (아나운서) 그대로 경기 종료...! 이렇게 되면 4차전 결과에 따라...

땀, TV 꺼버리는 처남. 털썩 주저앉아 의식 없는 김에게 조잘거린다.

처남 참 너무허네, 진짜. 고기서 고걸 똥볼을 날려? (성질난다) 우리나라는 차~암 경우가 많아. 허구한 날 경우의 수나 따지고 있고... 그쵸, 매형?

하지만 대꾸 없는 김의 모습.  
조용히 아들이 들어온다.

아들 경기 끝났어?  
처남 응응. 아 글썸, 이 손흥민이가...

하다가 기운 없어 보이는 아들 얼굴을 보고는, 수다 맞는 처남.

처남 오늘은 삼춘이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폭 자... 응?  
아들 ... (마지못해 고개 끄덕)

### #53 김의 아파트(밤)

아무도 없는 거실,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는 아들.  
김의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다.

아들(E) 안락사!!? 아빠를 죽이겠다고요!?

인서트.  
플래시백. 병원 진료실.  
‘연명치료중단동의서’(#11)을 갈기갈기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아들. 말리는 처남.  
의사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 옆에는 담담히 서 있는 윤.

의사 저 상태로는 항암치료도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처남 (기어 들어가는) ... 가망성이 없는 겁니까, 선생님?  
의사 (담담히) 현재로서는 암세포가 뇌 전체를 잠식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아들 ... 살려내요. 아빠랑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윤 (막아서며) 김우재 씨가 동의하고, 진행한 일이에요.  
아들 당신! 당신 때문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윤에게 달려들자)  
처남 (간신히 뜯어말리며) 미, 민재야...!  
아들 안락사든 뭐든, 난 절대로 동의 안 해!

다시 현재.

윤(E) 저도 가슴 아파요. 하지만 김우재 씨가 했던 모든 선택들은 다  
아드님을 위해서였다. 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아들 웃기지도 않아.

손목시계를 멀찍이 던져버리는데. 툭, 그 옆에 웬 박스가 눈에 띈다.  
뭔가 싶어 다가가 들어보는 아들.  
서툴게 포장된 포장지를 뜯자, 김이 샀던 드론이다. 손으로 끼적인 김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를 한참을 들여다보고 서 있는 뒷모습.

## #54 윤의 개발실(밤)

개발실 짐을 정리하는 윤. 허탈한 표정.  
그런데 해체된 장비들 사이에서 뭔가 불빛이 반짝인다.

윤 아니, 이게 어떻게...

서버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 놀란 윤, 모니터를 켜보는데.  
문자열이 스크롤되며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다.

## #55 김의 아파트(밤)

드론을 작동시켜보는 아들. 전원은 들어오는데, 사용법은 잘 모르겠다.  
비틀거리는 드론을 보던 중, 전화벨이 정적을 깬다.

아들 (보면,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E) 민재야.

아들 !! ... 아...빠?

김(E) 그래 아빠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 #56 병실(밤)

과당탕 문 열어젖히고 달려 들어온 아들. 허겁지겁 김의 상태를 확인한다.  
TV 켜놓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처남 깜짝 놀란다.

처남 잉? (눈 부비며) 민재야 오늘 밤엔 삼춘이 있는다니깐은...?

아들 아빠 일어났지?

처남 어? ... 아니?

아들 일어났었잖아... (흔들어보며) 아빠. 아빠! 아까 전화했잖아!

처남 (안타까운) 민재야...

아들 아빠한테 전화 왔었다고. 진짜라니까?

처남 민재야... 삼춘이 생각을 조음 해봤는데...

아들 진짜라고!! 나더러 안락사에 동의하고, 대학에도 가라 했다고!!

윤(E) 그 전화. 김우재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처남과 아들, 고개 돌리면, 어느새 들어와 상황을 본 윤이 서 있다.

CUT TO.

장치를 연결시켜둔 병실 TV.

화면에 그래픽 처리된 김(K)의 모습이 떠 있다.

TV 화면 속 자막. "영상인식 장치와 음성인식 장치를 연결해주시시오."

아들 그러니까... 아빤 내가 이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길 바랐다는  
거죠?

윤 처음엔 그랬었죠. 하지만 완성하기 전에 이렇게 돼서...

아들 (결심한) 아뇨.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계획한 대로... 해야 돼요.

윤 !? 하지만... (처남을 보지만)

처남 (별수 없다는 듯 끄덕이는) ...

화면 속 K, 무심히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김을 바라보기라도 하듯.

## #57 아카이브. 옛날 화실 + 검은 공간(밤)

김 여보!! ... 민재야!!!

팍! 문을 부수고, 불길의 일렁이는 화실 안으로 들어온 김. (#51에서 이어지는 상황) 사방 둘러보지만 검게 변한 실내와 붉은 화염뿐. 불길 헤치며 헤매고 또 헤매는데.

(K) 이걸 진짜 기억이 아니야. 넌 그때 구하러 오지도 못했어.

김, 타들어가며 무너져가는 건물 잔해를 피하며 헤집는다.

김 큼... 여보!! 어디야!!

(K) 유나는, 민재를 구하려다 죽었고, 불의의 사고였을 뿐이야. 네 잘못도 아니고, 아무런 비밀도 없어.

김 시끄러...

(K) 네가 목격한 건 이런 게 아니라, 통장 잔고였지. 유나 보험금이랑 이 화실 손해배상 금액이 찍힌.

김 시끄럽다고!!!

고함을 지르자. 팍! 하고 주위의 불길과 사물들이 모두 사라진다. 검은 공간에 홀로 놓인 김. 적막한데. 헉, 하며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호흡곤란.

## #58 병실(낮)

누워 있는 김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의사. 지켜보는 아들과 처남, 윤. 저마다 가슴이 아픈 표정들.

의사 (담담히) 이것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는 빛이 잘 들어오게끔 커튼을 열어두고 자리를 피해준다.

곁에 가까이 앉는 아들, 김의 손을 잡아 친다. 조금씩 사그라지는 김의 숨결.

## #59 아카이브. 검은 공간 + 옛집(낮)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어진 김.

(K) 민재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줬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계획한 대로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건설적인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할 거야.

김 민재...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는 김. 공간은 예전에 살던 집으로 변해 있는데. 곁에는 울다 지쳐 잠든 어린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아내는 없다. 어린 아들의 팔에는 갓 아문 화상 자국이 뚜렷하다. 책꽂이에 그녀가 남긴 재무 관련 서적들이 가득하다. 낫가에 어렴풋한 아내 음성.

아내(E) (웃음기 묻은) 가서 그림이나 그려. 자진 이런 거 봐도 모르잖아.

(K) 아직도 이런 걸 떠올리고 싶은 거야?

김 아니야.

(K) 그럼 이제 그만...

김 아니라고. 나는 아직 아니야.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죽을 수 없어.

기척에 잠에서 깬 어린 아들이 눈을 부비더니, 김에게 다가와 안긴다. 그들 앞으로 무표정한 (K)의 형체가 나타난다.

(K) 이제 와서? 어째서? ... (가웃, 하더니 이내 알겠다는 듯) 그래, 네 마음 알겠어. 또 계획이 틀어진 거지?

## #60 병실(낮)

숨이 멎어가는 김을 꼭 붙잡고 있는 아들. “아빠...” 낮게 내뱉는데.



김의 대답 대신 들려오는, 생명유지장치 신호음 빼...  
화면 암전. 김은 죽었다.

## #61 윤의 개발실(낮)

프린트에서 출력되는 어떤 그림(#49)을 뽑아 드는 윤.  
잠시 보고는, 아들에게 건네준다.

## #62 에펠로그 몽타주(낮)

1. 겨울이 지나고 봄의 초입. 신학기 캠퍼스 곳곳의 풍경들.
2. 캔버스와 이젤을 옆에 끼고 어딘가로 향하는 아들의 발걸음. 경쾌하다.
3. 그사이 리모델링된 중고가전제품 가게. 카운터에 앉아 즐고 있는 처남. 그 안쪽으로,
4. 잘 정돈된 민재의 방. 예의 그림이 액자로 걸려 있다. 아내 초상화 완성본인데... 원래 김이 그리던 구도와는 달리, '김'의 모습이 아내와 함께 다정히 담겨 있다.

## #63 중고가전제품 가게(밤)

브라운관 모니터. 지지직 하더니... 노이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K)의 형체. 입가에,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

끝.

작가 후기 난생처음 발 디딘 먼 나라의 입국심사관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있는냐고!  
내가 뭘 하고 있더라... 글을 쓰고 있었나...?  
정녕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자신이나 있는 건가?  
아니 그보다, 지금 내가 이 나라엔 왜 왔지? 도망을 왔나?  
그로부터 사흘 후 당선 소식을 듣고, 또 얼마 후 난생처음 만나게 된 전우들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주신 감독님들께 내 밀천이 드러나면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더라... 뭔가 하고픈 이야기가 있긴 했나...?  
그저 뉘두리? 다만 뭐라도 좀 흉내 내고 싶었던 거 아닐까?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센터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았다.  
너는 아무래도 인생을 너무 대충 산 거 아니냐고!!

그러하여 비로소 질문을 찾았고,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적어둔다.  
부끄럽지만 힘이 되는 존재들이 곁에 있기에 고맙고 또 고맙다.  
참, 작품집에 실을 대본은 처음 글과는 후반부가 조금 다르다.  
이 또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지만, 누가 그랬지. 병이 나오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 히키코모리와 개

구옥선

---

## 작의

바라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받아서, 더는 상처 받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 같아서,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간힘으로써 가장 상처 받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닐까.

완벽한 히키코모리의 생활에 우연히 들어온 개 한 마리.  
과연 히키코모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

## 등장인물

윤여진(22세, 여) 히키 4년 차

히키코모리 생활 2년 만에 독립 당(?)했다. 히키가 된 계기? 이젠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은둔생활이 좋다. 여진은 처음 엄마가 내준 보증금을  
줄이고 줄여 두 번의 이사를 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틴 4년, 여진은 히키로 사는  
것에 완벽한 행복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진의 집에 우연히 숨어든 개 한  
마리, 지금 그 개의 존재가 히키로 사는 여진의 행복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문세희(21세, 여) 히키 1년 1개월 차

여진과 현광을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났다. 이후 두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며  
단체톡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실제로는 거구의 히키코모리지만 SNS상에선  
나름 셀럽이다. 아무도 모르는 세희의 이중생활인 셈. 그런 세희의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는 네일아트다. 꿈이 있다면 자신을 모르는 나라로 가서  
네일아트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이현광(17세, 남) 히키 6개월 차

학교폭력 가해자로 정학을 받고는 게임페인으로 히키가 되었다고 두 사람에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피해자다. 하필 아이들이 모두 보는 교실에서 벌어진

구옥선  
scars19@hanmail.net

2013 • 문학계간지 『문장21』 시 부문 당선  
2014 •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전문반 수료  
2016 •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 보조작가  
2017 •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2> 보조작가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일이었다. 현광은 당시의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 당한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SNS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플을 남기는 게 일과라면 일과다.

---

### 즐거리

#### 만렙 히키코모리의 일상은 그 누구보다 완벽하다(feat. 개)

여진은 4년 차 히키코모리다. 하루 종일 집에서 생활한다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며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상하자마자 스트레칭을 겸한 운동과 삼림욕, 경제활동은 물론 친목활동 역시 이어나간다. 비록 랜선일지라도. 그렇게 시간 단위로 쪼개진 완벽한 히키코모리의 일상에 갑자기 끼어든 개 한 마리! 여진은 개를 도로 갖다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더욱이 개를 멀리 놓고 오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결국 여진은 두 달에 한 번 쓰레기 버리러 가는 그날, 개를 갖다 버리기로 하고 개와 함께 한시적 동거를 시작한다. 한편 [히키들]의 멤버 현광과 세희는 여진이 개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도차를 보이는데.

#### 랜선 친목 모임 [히키들], 상처를 받은 사람 또한 상처를 줄 수 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럼에도 내 상처에만 눈이 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히키코모리 6개월 차 고등학생 현광이 바로 그렇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친 마음을 어찌지 못해 가장 만만한 엄마에게 성질을 부린다.

또 다른 히키 세희는 이제 막 독립을 했다. 부모님이 더는 두고 보기 괴로워 세희를 내친 것인데, 100킬로그램의 거구지만 꽃다운 나이 스물한 살, 세희에게도 꿈은 있다. 바로 네일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의 또 다른 소통창구인 SNS에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함께 뽀샵한 사진을 올리곤 하는데, 언젠가부터 악플이 시작됐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톡 [히키들]에 동영상 하나가 떴다. 여진이 개를 찍어 올렸다. 개의 배에서 꿈틀하는 그것, 개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

바라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이 지났건만 여진은 비를 핑계로 개를 쫓아내지 않는다.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라 '짱이'다.

여진은 짱이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동물병원 출산비용을 알아보지만 비싸다.

결국 집에서 짱이의 출산을 돕기로 하고, [히키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히키들] 각자의 사정 때문에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짱이의 출산이 시작됐다.

다행히 순탄하게 첫 번째 강아지가 나왔다.

그런 여진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아무래도 감동, 받은 것 같다.

이대로 성공인가 싶은 순간 짱이가 또 맴을 돌기 시작한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두 번째 강아지가 배 속에 있다!

과연 여진은 짱이와 배 속 강아지를 구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 히키코모리와 개  
구옥선

## #1 여진의 방(낮)

자막. “만렘 히키코모리는 행복하다”

인서트.

꼭 닫힌 여진의 집 현관문 205호.

잠자는 곳, 매트리스.

8평쯤 되는 원룸이다. 이불 속에서 손이 뻗어 나온다.

오전 9시 핸드폰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이 곧장 핸드폰 알람을 끈다. 머리를 매트에 박고 엉덩이를 천장을 향해 비죽 솟구친다. 스트레칭이다.

카톡 소리 난다. [히키들]이라는 단체 카톡방이다.

-11시부터 단 10분간 ○○사이트, 생필품 특가 있음.

-추천인 넣으면 10퍼 추가 할인임. 내 아디 세희공주. (히키코모리 1년 1개월 차 세희다. 프로필은 네일아트 한 손톱과 함께 “잠수 중”)

-ㄹㅇ? (히키 4년 차 여진이다. 프로필은 색색의 마카롱과 함께 “돈 워리, 비 해피”)

-패스. (히키 6개월 차 현광이다. 프로필은 암흑이다.)

-허니버터칩이랑 콜라가 대박 씬. (세희)

-군만두용 만두도 1+1임. (세희)

카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진(22세, 여)은 크고 작은 스트레칭 동작들을 이어나간다.

점프.

노트북 앞에 여진이 앉아 있다. 사이트를 훑어보는 여진의 눈이 매섭다. 3킬로그램짜리 쌀, 라면과 우유, 화장지, 비누 등 장바구니에 담는다. 5만 원이 안 돼서 무료배송이 아니란다. 삼겹살을 장바구니에 넣는다. 6만 원이 훌쩍 넘는다. 입맛을 다신다.

여진(N) … 언제 먹었더라?

손가락으로 꼽아본다. 다섯 손가락이 접혔다가 펴지기를 두 번 왕복하고도 세 손가락이 또 접힌다.

여진(N) 고작 한 달?!

결국 뻘다. 삼겹살 대신 들어간 건 1+1 콘플레이크다. 50,110원!! 결제한다.

## #2 욕실(낮)

졸졸 흐르던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잠근다. 세면대 3분의 1도 안 찼다. 비누칠을 먼저 한 후 그 물로 세수하는 여진. 그 다음 세면대 안에 물을 버리고 다시 졸졸 물을 튼다. 어김없이 3분의 1 지점에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거울을 보며 꼼꼼히 세수한다.

여진(N) 나는 히키코모리다.

## #3 현광의 방(낮)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불가하다. ‘이것이 히키코모리의 방이다’ 싶은 방이다. 노트북에는 SNS가 떠 있다. 되는 대로 침대 위에 쓰러져 자고 있는 누군가, 뼈대가 얇은 남자아이다.

여진(N) 처음에는 치솟는 분노를 풀 길이 없어 누군가를 괴롭히고만 싶었다. 대상은 늘 만만한 가족, 그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타깃이 된다.

그때까지 잠든 줄만 알았던 현광(17세, 남), 불안간 “으아아아악” 비명 지른다. 현광 모가 밖에서 노크한다. “현광아, 왜 그래? 또 머리 아파?”  
 엄마의 목소리에 현광은 언제 소리를 질렀냐는 듯 비명을 멈춘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다.  
 방 안의 침묵에 엄마는 더 애가 탄다. “현광아? 엄마 말 들리지? 괜찮은 거 맞지? 응?” 이불 속 현광은 만족한 듯 편안한 얼굴이 된다.

#### #4 세희의 방(낮)

방 한구석에서 오도카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세희(21세, 여)다.  
 세희는 분홍색 치마에 곱슬곱슬한 파마머리를 했다. 언뜻 보면 만화 캐릭터의 코스프레를 한 것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100킬로그램은 가뿐히 넘길 것 같은 거구의 몸이다.  
 한참을 움직이던 손가락이 멈췄다. 핸드폰 속 사진 역시 분홍 치마에 곱슬곱슬한 파마머리지만, 누가 봐도 청순가련이다. 뭔가 아쉽다.  
 마지막으로 속눈썹을 더욱 길게 그리고 나서야 SNS에 올린다.

여진(N) 히키코모리 2년째, 주방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달랑 놓여 있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가 내 몫으로 있었다.

그리고 보니 세희의 집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듯 박스들이 쌓여 있다. 방 한쪽, 네일아트 관련 용품들이 한가득이다. 벽면 역시 네일아트용 디자인 사진들이 붙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비비추 꽃을 찍은 사진이 눈에 띈다. 새집, 새 공간 세희가 뿌듯하게 방 안을 둘러본다.

시간 경과.  
 밤이다. 주황빛이 새 나오는 곳이 어딘가 보면 냉장고다.

여진(N) 분노 다음에는 슬픔이었다. 나는 그때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다.

무표정한 얼굴의 세희가 냉장고 문을 연 채 아귀처럼 음식을 먹어대고 있다.

#### #5 여진의 방(낮)

말끔한 얼굴의 여진이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 위로 햇살마저 눈부시다. ‘즐거찾기’에 등록해놓은 사이트를 하나하나 방문해 로그인-로그아웃을 한다. 일부러 광고를 시청하기도 한다. 노트북 화면에 뜬 시각이 10시 59분에서 11시로 숫자가 바뀐다. 그때까지도 조용히 광고를 보던 여진, 경쾌하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여진(N) 히키코모리 4년째인 지금, 돈 위리 비 해피!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다. 통장에는 2,990원이 입금됐다!!  
 통장의 전체 잔액은 7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여진(N) 9시 기상, 10시 스트레칭 및 세안, 11시 경제활동까지.  
 그 누구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핸드폰 액정을 거울 삼아 앞머리를 매만진다. 어째 거슬린다.

#### #6 욕실(낮)

여진이 미용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다. 솔도 친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미용가위를 정리한다. 문득 가위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본다. 날이 반짝하고 빛난다. 가위마저 관리가 잘 됐다는 증거다. 흡족한 여진, 가위를 가위집에 넣는다.

(N) Since I saw you, It has been so long.

#### #7 여진의 방(낮)

팟캐스트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since’의 용법에 대해 설명 중이다.

여진 (입 안 가득 콘플레이크를 넣은 채 웅얼거리듯)

여진(N) Since I saw you, It has been so long.  
오전에는 간단한 식사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한다.

점프.  
노트북으로 미드를 보고 있다.

여진(N) 영어 공부의 심화학습은 바로 미드다.

아까 공부한 문장이 나온다. 여진이 자막이 뜨기 전에 먼저 말한다.

여진 널 본 이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방금 말한 여진의 문장이 자막에 뜬다. 여진, 소심한 박수 치며 환호한다.

### #8 '초록들'이 있는 곳(낮)

애기 상추와 실파,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분 두 개 옆에 여진이 앉아 있다.  
가부좌를 틀었다.

여진(N) 으으음, 피톤치드.

얼마 안 있어 가부좌를 틀고 있던 여진이 벽 쪽으로 뒤통수를 콩 박는다.  
졸았던 게다.

### #9 주방 / 싱크대 앞(밤)

싱크대를 붙들고 스쿼트를 하고 있는 여진의 뒷모습이 보인다.

여진 (땀이 뻘뻘 난다) 여든여덟, 여든아홉, 아흔, 아흔하나...  
여진(N) 건강관리에 운동은 필수다. 병원에 가면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일만은 피해야 한다.

100개까지 하고 나서야 설거지를 시작한다. 천장에서 물건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여진이 핸드폰을 확인한다. 오후 6시. 고개를 가웃한다.

### #10 현관(낮)

잠금쇠를 한 채 현관문을 살며시 열어본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 고정되어 있다. 이삿짐 나르는 인부들의 소리도 드문드문 들린다. 순간 위층에서 내려오는 여자(20대)와 눈이 마주쳤다. 놀란 여진, 쓴살같이 집 안으로 숨어든다. 그때까지 평정을 유지했던 여진은 겁에 질린 모양새다. 집 안의 모든 것들이 여진을 향해 쏟아질 듯 달려든다. 패닉이 왔다. 얼마나 흘렸을까. 긴 한숨을 토해낸다. 그제야 빠르게 열린 현관문을 본다. 후다닥 달려 나가 쾅! 소리 나게 문을 닫는데.

### #11 욕실(낮)

자막.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양치를 하는 여진. 뒤통가 세하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 #12 집 안 곳곳(밤)

1. '초록들'이 있는 곳  
주방 쪽 보일러실 겸 창고, 즉 애기 상추와 대파가 있는 '삼림욕'하는 곳이다. 어두운 한구석 무언가 반짝 빛나는 것 같기도 하다. 가까이 다가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2. 현관, 신발장  
신발장 문을 열어본다. 신발장엔 새것 같아 보이는 운동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여진,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신발장을 닫는다.

3. 거실, 창가  
마지막으로 거실의 창문을 단속한다. 그제야 안심이다.

### #13 여진의 방 / 매트리스(밤)

잠자리에 든 여진,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진다.  
여진이 고개를 돌리자 푸른 안광과 마주친다. 설마 저건 개…?

여진 (너무 놀라 어버버거린다)  
여진(N) … 꿈인가?!

인서트.  
#10 중에서.  
놀란 여진이 쓴살같이 집 안으로 숨어든다.  
위층에서 내려오던 개 한 마리가 열린 현관문을 향해 뛰어든다.  
후다닥 달려 나가 광! 소리 나게 문을 닫는데.

여진(N) 아아아아아아악! 아, 진짜 소리 질러야 되는 거지!  
여진 아아아아아아악!

여진의 비명에 개 역시 죽어라고 왈왈 짖어댄다.  
비명이 멈추자 개 역시도 짖는 것을 멈춘다.

여진 … Where are you from…?

### #14 계단 / 3층 복도(밤)

후드티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여진, 고무장갑을 꼈다. 개를 장갑 낀 손으로 어설피게 잡았다. 그 와중에도 뭐가 맘에 안 드는지 개는 으르렁댄다.  
각 층마다 다섯 개의 문이 나란히 서 있다. 그중 여진의 바로 윗집 305호 앞에 미처 버리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가 있다. 재활용 쓰레기들을 뒤져보지만 주인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305호 앞에 서자 개는 끄끙거린다. 개와 305호를 번갈아 보던 여진, ‘설마…’ 한다.  
여진, 준비해간 포스트잇을 305호를 시작으로 304호와 303호에

붙이려고 하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여진, 백스텝으로 도망간다.

인서트.  
‘305호’ 포스트잇.  
“개 주인을 찾습니다. 갈색 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분은 205호로 문의 바랍니다.”

포스트잇은 바람에 살랑살랑 뜰어지려 한다.

### #15 여진의 집 문 앞(밤)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잠깐 고민하는 여진, 신발장에서 운동화 끈을 찾아낸다. 개에게 가슴 끈을 매달아 바깥 문고리에 걸어둔다.  
여진은 얼른 들어가 문을 닫는다.

### #16 욕실(밤)

거울을 본다. 후드티에 개털이 묻어 있다.  
진저리 치는 여진, 하나하나 일일이 떼어낸다.

### #17 여진의 방 / 노트북 앞(밤)

한글 창을 띄워놓았다. 비지엠처럼 들리는 개의 끄끙대는 소리… 여진은 애써 모른 척한다. 여진, 대사를 치고 있다. “대박부동산이쥬? 혹시 오늘 한길오피스텔에서 이사 나간 집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한길오피스텔 305호에서 개를 키우던가요…?” 여진은 핸드폰과 대사를 번갈아 본다.  
고민하던 여진, 결국 전화 대신 문자를 보낸다.

시간 경과.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피스텔, 창밖은 황무지에 가깝다. 가까스로 보이는 것이라곤 ‘대박부동산’ 간판뿐이다. 그러나 여진의 문자에



답문은 없다. 그때까지 창밖에 새겨진 여진의 문자, [혹시 한길오피스텔 305호에서 개를 키우던가요…?] 촘촘히 떠 있다가 툭툭 아래로 떨어진다. 여진, 좌절한다.

인서트.

#14 중에서.

305호 앞에서 유난히 킁킁대던 개의 모습.

여진(N) 나 때문에… 내가 괜히 문을 열어가지고 개가 잘못 들어온 거야.

## #18 매트리스(밤)

여진, 눈을 감고 있다. 어디선가 벽벽 긁는 소리가 들린다.

여진이 이불을 젖히면 소리 역시 끊긴다.

여진이 이불을 뒤집어쓰면 소리는 다시 시작된다.

여진(N) 꿈이다. 꿈일 거다. 이젠 분명 꿈일 거다.

이젠 킁킁대기까지 한다.

여진(N) 참으면 된다. 순간의 고통이다.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Patience is bitter, but the fruit is sweet.

벽을 긁고 킁킁 소리를 내고… 동시다발적이다.

이불을 뒤집어쓴 여진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와 동시에 광광광!! 여진의 문을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치고 있다.

혹시 개주인…?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여진은 잼싸게 후드를

뒤집어쓴다. 잠금쇠를 건 채 살짝 문을 연다.

그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건 다름 아닌 개다.

옆집 남자 개새끼 교육도 좋지만 잠 좀 잡시다, 예? 새벽엔 좀 들여놔요.

개를 건네받은 여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점프.

햇빛이 들어찬 방이다. 핸드폰 가까이 가던 여진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곳을 보면 개다. 구석에서

귀를 쫓긍한 채 자고 있는 개. 녀석도 마냥 편한 잠자리는 아니었던

듯하다. 이윽고 알람이 울린다.

여진 (알람을 끈다. 으레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같이 사는 거 아냐. 주인 못 찾으면 쓰레기 버리는 날 너도 갖다 버릴 거야.

## #19 주방(낮)

여진이 콘플레이크에 우유를 만든다. 여진을 향해 개가 계속 점프한다.

아차, 싫다. 밥술에는 1인분의 밥뿐이다. 여진이 두 숟가락 정도를

덜어냈다가, 다시 한 숟가락을 뺀다. 물에 말아서 개에게 준다.

허겁지겁 먹는 개… 그런 개와 경쟁이라도 하듯 여진의 숟가락질이 빨라진다.

## #20 몽타주. ‘개 따로, 사람 따로’(낮)

벽에 기댄 멍한 시선의 여진이다.

(E) 팟캐스트 음악 오프닝.

음악이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강사를 따라 “hello, everyone!” 인사한다.

개 역시 인사하듯 큰 소리로 짹기 시작한다.

여진 (조용히 팟캐스트를 끈다) 야.

개 (잠잠하다)

여진 (다시 팟캐스트를 켜다)

개 (잠잠하다)

여진 (영어회화를 따라 한다)

개 월! 월! 월!  
여진 야!

점프.  
여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로그인-로그아웃을 한다.  
통장 역시 2,990원이 찍혀 있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여진 (개를 본다) 냄새 정도는 맡게 해줄게.

초조하게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한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그날 특가인 삼겹살을 담는 데 성공한다. 나이스!

점프.  
여진, 스텝퍼를 밟는 중이다. 스텝퍼 위의 숫자가 늘어난다. 995, 996,  
997, 998, 999! 네 자리 자릿수는 없다. 다시 제로 세팅된다.  
개가 제 꼬리를 물려고 빙글빙글 돈다.

여진 저것도 제정신은 아니야.

스텝퍼에서 내려오는 여진, 어라, 개가 없다?  
조용히 구석에서 똥을 싸느라 부들부들 힘을 주며 떨고 있는 개.  
핸드폰을 들어 그런 개의 모습을 사진 찍는다. 찰칵!

## #21 현광의 방(낮)

노트북 모니터에는 SNS가 떠 있다. 그 아래 댓글 또한 외모 찬양  
일색이다. 현광은 여자의 얼굴(#4의 세희가 올린 포토샵 후 사진이다)을  
뚫어져라 본다.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때 카톡이 올린다.  
여진이 보낸 개의 '똥 싸느라 힘주는' 사진이다.

-우리 집에 개가 들어왔다. (여진)

개의 사진을 보는 현광의 얼굴, 폼… 웃음이 터진다.

## #22 세희의 방(낮)

-우리 집에 개가 들어왔다. (여진)  
-근데 저거 설마 진짜 똥? (현광)

현광의 특을 확인한 세희, 뻥사리 난다.

세희 에이씨이.

보면, 손톱에 비비추 꽃을 그리고 있었다.

세희 (사진을 확인한다) 어우 드러. (피하다가도 다시 시선이 간다)

## #23 여진의 집 문 앞(밤)

통화 중이던 마트 택배기사가 라면과 삼겹살이 든 박스를 앞에 놓는다.

택배기사 예, 현관 앞에 있어요. (전화 끊는다)

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현관문에서 하얀 손이 나와서  
더듬거리며 박스를 찾는다. 택배기사가 움찔한다. 하얀 손은 박스를  
들어놓자마자 광! 문을 닫는다.

택배기사 (부정 댄다는 듯이 옷을 손으로 툭툭 털다)

## #24 주방(밤)

프라이팬에 삼겹살 두 줄을 올려놓는다.

점프.

스티로폼 상자에서 애기 상추와 실파를 따는 손.

점프.

싱크대 위, 깨끗하게 씻은 애기 상추와 실파가 놓여 있다.  
콧노래 소리에 맞춰 잘 익은 고기를 리드미컬하게 가위로 자르는 손.

점프.

노트북이 있던 테이블은 밥상이 됐다.  
채소와 김치 정도가 놓여 있고, 대미를 장식하듯 고기 접시를 내려놓는 손.  
여진이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로 해동하고 있는 그때,  
상 위에서 죠스처럼 서서히 개의 머리가 위로 올라온다.

점프.

전자레인지 해동음이 땡! 들리자 여진이 밥을 가지고 상 앞으로 온다.  
고기의 양이 현저히 줄어 있다.

여진 (저절로 고개가 돌아간다. 개를 본다)  
개 (입가에 기름이 잔뜩 묻어 있다)  
여진 (기가 찬다) 설마... 너냐...?

여진과 개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된다.  
개는 빠르고 민첩하며 작다! 여진은 느리고 둔하며 크다!  
작은 집이지만 그래서 더욱 박진감 넘친다.  
결국 개는 여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싱크대와 냉장고 사이로  
피신한다.

여진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밥은 다 먹은 줄 알아.  
(뒤돌아 가려다가) 이제부터 똥도 화장실 번기에다가 싸.

여진, 다시 밥상 앞으로 온다. 속상함에 어깨를 흔든다.

## #25 세희의 방(밤)

세희, 카톡을 쓰는 중이다.  
“똥 사진 올리지 마요” 소심해진다. 지운다.

-내보낼 거죠? (세희)  
-반드시, 필히, 꼭 내보낼 거야. (여진)

그제야 안심이 되는 세희, 손가락을 짹 펴 보인다. 손톱마다 다른 디자인의  
네일아트가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비비추 꽃을 그린 손톱만 영 이상하다.  
마스터하지 못한 탓이다. 세희, 맘에 안 든다. 흥...

## #26 여진의 방 / ‘초록들’이 있는 곳(낮)

자막. “히키가 개를 키울 수 없는 이유”

여진, 명상에 잠기듯 ‘초록들’ 앞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그때 머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여진의 눈이 반짝 떠진다.

## #27 3층 복도(낮)

예의 복장을 갖추고(후드티와 마스크, 고무장갑) 개와 함께 올라가는  
여진. 여자(#10의 여자다)가 세금고지서들을 챙겨 나오고 있다.  
여진이 붙여놓은 포스트잇은 아직 붙어 있다. 계단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여진, 여자를 향해 개를 요이땅 출발시킨다.  
반짝 솟은 귀, 신나게 꼬리를 치며 여자를 향해 달려가는 개, 나름대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어라? 305호 여자가 개를 본 척 만 척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여진 ...?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자가 오른다.

그때까지도 개는 여자의 발치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데.  
“개! 저리 안 가? 샬렛, 따라오지 말랬지!”

여진(N) ... 샬렛?!

여진은 두 눈으로 개가 나동그라지는 것을 봤다. 여자가 개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쫓아낸 것인데.

여진(N) ... 버려졌다.

닫힌 엘리베이터를 향해 죽어라 뛰어가 박박 긁는 개.

여진(N) 분명 버려진 거다.

여진의 얼굴 표정이 차분해진다.

## #28 여진의 방 / 매트리스(밤)

여진이 누워서 카톡 중이다.  
개는 자신이 버려진 걸 아는지, 구석에 머리를 대고 몸을 말고 있다.

- 여유 되면 키워봐요. (현광)
- 난 반대. 히키코모리가 무슨 개를 키워요. (세희)
- ㅇㅈ (여진)
- 더욱이 개 따위 키울 여유 없음. (여진)

여진, 핸드폰을 던져놓고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

시간 경과.  
대자로 뻗어 잠이 든 여진, 얼굴에 식은땀이 난다. 악몽이라도 꾸는 걸까.

인서트.

꿈속.

대낮이다. 여진의 방은 어느덧 거리로 바뀌어 있다. 침대 매트에 누워 꿈쩍달짝 못 하는 여진, 그 주변으로 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진을 내려다보며 지나간다. 여진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싶지만 꿈쩍도 할 수 없다. 그때, “샬렛, 따라오지 말랬지!”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뜨는 여진, 딱딱하게 몸이 굳었다. 가위에 눌렸다. 발가락을 움직이려 애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개가 그런 여진의 발가락을 핥아준다.

그 덕에 가위가 풀린다. 가까스로 눈이 떠진다. 깊이 심호흡을 한다. 여진과 개가 길게 눈을 마주친다. 처음으로 교감하는 히키코모리와 개.

## #29 욕실(다른 날 / 낮)

여진, 핸드폰으로 헤드라인을 검색하고 있다. 큰일을 보기 위해 몸을 잡으려는데, 그런 여진의 뒤로 개가 뛰어 들어온다. 여진을 멍뚱뚱 지켜본다.

여진 (손으로 휘이휘이 한다) 가. 우리 아직 그런 사이 아니야.

개 (말똥말똥)

여진 너 누가 쳐다보는데 똥 쌀 수 있어?

개 (말똥말똥)

여진 (포털 창에 개가 사람 큰일 보는데 화장실에 들어오는 이유를 찾아본다, 소리 내어 읽는다) “가설이지만 개는 배변 시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된다. 개가 배변할 때 주인을 지그시 바라보는 심정은 아마도 ‘날 지켜줘’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배변을 할 때도 내가 널 지켜줄...게...”

개 (말똥말똥)

여진 (핸드폰을 닫는다) 네까짓 게... 무슨...

하면서도 더 이상 개를 쫓아내려 하지 않는다.

## #30 몽타주. '개와 함께'(낮)

### 1. 아침 스트레칭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 중인 여진, 돌아보면 개 역시 길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 2. 경제활동

여진이 노트북 앞에 앉아 으레 광고를 시청하고,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하고 있다. 그 옆에서 뚫어져라 모니터를 보고 있는 개.

여진, 그런 개를 발로 슬쩍 밀어놓는다.

### 3. 미용

여진, 거울을 보며 3밀리쯤 앞머리를 자른다. 거울에 비친 개의 모습이 보인다. 여진, 입모양으로만 '뭐?'

### 4. 영어 공부

팟캐스트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여진이 소리 내어 회화 공부를 할 때마다 개도 윙윙 짹지만 익숙한 소음이다. 이젠 그러거나 말거나다.

### 5. 삼림욕

가부좌를 튼 채 명상에 잠긴 여진의 옆에 개 역시 길게 누워 있다.

### 6. 운동

스텝퍼를 밟는다. 여진의 모습을 쫓아 위아래로 개의 고개가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 모습이 조금은 귀엽다. 여진, 피식 웃는다.

### 7. 식사

여진, 자신의 저녁밥에서 이전보단 조금 더 많이 떼어 개의 밥그릇에 놓는다. 그리고 보니 여진과 개는 먹을 때만큼은 몹시 닮았다. 둘 다 엄청 급하게 먹는다는 얘기가.

### 8. 잠

여진의 발끝에서 잠들던 개는 점차, 허리춤, 가슴께에까지 왔다.

여진은 자연스럽게 가슴께까지 올라온 개를 끌어안는다.

## #31 여진의 방 / 노트북 앞(낮)

미드를 보던 여진의 표정이 이상해진다. 욕실로 향한다. 개 역시 여진을 따라 욕실로 향한다. 여진, 핸드폰 생리앱으로 날짜를 확인한다.

여진(N) 어쩐지 허리 아프더라.

욕실 장식장에서 생리대를 꺼낸다.

개가 그런 여진을 눈으로 좇는다.

불일을 다 마친 여진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다.

여진 근데 넌 뭐야? (개를 들어본다. 들어보는 품은 역시나 어색하다) 암컷이네. (개의 배가 뽕뽕하다)

여진, 이내 급격하게 배가 아파진다.

공차, 개를 내려놓고 싱크대 서랍으로 가서 진통제를 찾는데,

'윤여진'이라는 이름의 대학병원 약봉투가 나온다. 여진의 손이 멈춰하는 것도 같다. 이내 진통제를 찾아낸다. 소리 나게 서랍을 닫는다.

점프.

여진은 널브러져 있다. 다크서클마저 내려왔다. 생리통으로 정신마저 혼미하다. 점차 눈이 감긴다.

점프.

선잠에 빠진 여진은 목직한 무게감을 느낀다. 보면 개가 여진의 배 위에 올라가 있다.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온도, 털로 뒤덮여 부드럽고도 목직한 몸체, 한마디로 핫팩 역할을 하고 있다. 여진이 숨을 쉬면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개 역시 오르락내리락한다.

여진 (저도 모르게 개의 몸을 쓰다듬는다. 털이 제법 부드럽다)

다시 잠에 빠져든다.

점프.

여진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을 때, 옆으로 누워 잠든 개의 배가 꿈지락대는 게 보인다. 설마 잘못 봤겠지, 싶어 돌아눕는다. 그때,

여진 ... 설마...? (벌떡 일어난다)

여진이 잠든 개의 배를 쓰다듬는다. 확실히 움직임이 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으로 가 붙는다.

### #32 현광의 방(낮)

-‘자고 있는 개를 찍은 동영상’ 뭐 이상한 거 없어? (여진)

-살쥘다. 너무 잘 먹인 거 아니에요? (세희)

현광은 액정 속, 개의 분홍색 배를 확대한다. 손가락으로 쓰담쓰담 해본다. 촉감이 느껴질 리 없는데도 어쩐지 따뜻하다.

### #33 여진의 방(낮)

-꼭 임신한 거 같아요. (현광)

-‘놀람의 이모티콘’ (세희)

포털 검색창에는 이미 여진이 찾은 개의 임신 자료들이 있다. “임신 말기인 50일 이후부터는 암컷의 배에 손을 대면 태아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진 역시 의심이 가던 바를 이미 확인했다.

여진(N) 한 마리가 아니었어...?

인서트.

상상컷.

여진이 삼겹살을 굽고 있다. 개가 여진에게 ‘악마 얼굴’을 하며 으르렁대고 있다. 여진은 삼겹살을 조금 덜어 개에게 건넨다. 그 옆에 새끼들 역시 개를 따라 으르렁댄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기는 모두 개들의 몫이다.

여진(N) (좌절한다) 한 마리도 버거운데, 두 마리라니.

여진, 개가 있는 자리로 시선을 주는데, 어라? 개가 없다.

점프.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본다. 화장실부터 싱크대 하부장, 신발장까지! 문을 열 때마다 여진의 표정은 점차 일그러진다.

여진(N) 우리 집은 고작 2층이니까 집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어. 어쩌면 더 잘된 건지도 몰라.

굳게 닫힌 창문, 현관문, 더욱이 비좁은 원룸 안, 빠져나갈 곳이 없어 보인다. 마음이 급해진 여진, 급기야 냉장고도 열어본다.

여진(N) 걱정 따위 안 해, 안 한다니까?!

여진의 시선이 닿는 마지막 ‘초록들’ 그 사이 끼어 자고 있는 개를 찾았다! 여진, 털썩 주저앉는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개가 여진을 향해 달려온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개를 만지려는데, 그런 여진의 옆으로 글자들이 생겨난다. “히키코모리가 무슨 개를 키워요.”

여진(N) 그렇다. 나는 히키코모리다.

여진, 결심했다!

여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다) 반드시, 필히, 꼭 내보낼 거야.

## #34 몽타주. '내보낼 거야'

### 1. 쓰레기 모아놓은 곳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이 이미 차고 넘친 상황이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여진(N) 아직 널널하구만, 뭐. 조금 더 버티다가 쓰레기 버릴 때 내보낼 거야.

### 2. 노트북 앞

미드를 보며 치와와의 털을 쓰다듬고 있다. 개를 쓰다듬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다. 창밖에는 비가 온다.

여진(N)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 오잖아. 비 그치면 내보낼 거야.

### 3. 거실 창가

햇빛을 받으며 스쿼트를 하고 있다. 개가 한쪽에 꼬리를 들고 누워 햇빛바라기를 하고 있다. 임신한 배 때문에 힘든지 숨을 험겁게 내쉬고 있다.

여진(N) 자는 엘 갑자기 내보낼 순 없잖아. 좀 이따 잠 깨면 내보낼 거야.

### 4. 욕실

욕실에서 힘을 주는 여진, 의젓하게 앉아 그런 여진을 바라보는 개. 개가 뒷발로 머리를 긁는다. 극강의 귀여움이다!

여진(N) 저녁은 먹고고... 내보낼 거야.

## #35 여진의 방 / 노트북 앞(밤)

개는 엎드려 있다. 귀만 쫄긋한 채 '경제활동' 하는 여진을 바라본다.

여진 (톡 터져 나오는 진심이다) 짱이?

자기가 불러놓고 움찔한다.

여진(N) 뭐야, 나 지금 개한테 이름 붙여준 거야?!

마른하늘에 날벼락 친다. 개는 여전히 귀만 쫄긋하다.

여진(N) 짱이라니, 짱이라니, 짱이라니...

여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는 일어나 꼬리까지 흔든다.

여진 ... 짱이...??

짱이가 다가온다. 여진의 손가락을 핥는다. 여진은 감격한다.

## #36 세희의 방(밤)

자막. "개가 환기하는 것들"

세희의 열 손가락에는 이제 모두 비비추 꽃이 그려져 있다. 어째 세희의 표정이 떨떠름하다. 그리고 보니 깔끔하게 된 건 하나도 없다. 지우기 위해 아세톤을 찾아드는데, 카톡 뜬다.

-결심했어. 짱이랑 같이 살기로. (여진)

## #37 현광의 방(밤)

-짱이가 누구예요. (세희)

"그 개 이름이 짱이에요? 촌스러."까지 썼다. 보내기를 누르기 직전이다.

(E) 창문 아래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현광이 핸드폰을 놓고 창문 커튼을 슬쩍 열어보는데, 개는커녕 그림자도 안 보인다.

인서트.

과거.

1. 교실 안

마치 1인칭 시점의 게임처럼 아이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이리저리 채어나동그라지는 현광.

2. 운동장

다친 현광의 옆에 떠돌이 개가 앉는다. 그런 개를 바라보는 현광.

카톡 수신음!

그제야 현광은 생각에서 깨어난다.

-근데 문제가 있어. (여진)

-임신했다면서요, 병원 데려갈 거예요? (현광)

-데려갈 수 있어요? (현광)

#38 세희의 방(밤)

세희

웬일이니, 웬일이니, 진짜 미쳤다. 완전 멍건 같던데.  
(사진을 다시 본다. 아무리 봐도 멍건은 아니지만)

팔뚝에 물린 상처를 본다.

인서트.

과거.

'개조심'이 붙어 있는 대문에서 개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 핫도그를 들고 있던 초등학교 세희의 손으로 점프한다.

상처를 보던 세희가 고개를 젓는다. 핸드폰을 놓고 원래 하던 네일아트로 돌아간다.

-그게... (여진)

#39 여진의 방(밤)

여진이 노트북을 본다. 화면은 '우리 강아지 집에서 출산하기!'

인서트.

세희의 방.

심기일전하는 세희, 손톱에 비비추 꽃을 그려보지만 번번이 삐끗한다.

세희

에이씨이... (다시 카톡창 본다)

-많이들 그렇게 한다니 봐.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여진)

인서트.

현광의 방.

불특정 다수의 SNS에 사진마다 악플을 달던 현광의 눈이 반짝 떠진다.

-동영상 보고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여진)

#40 여진의 방(밤)

짱이가 힘겹게 숨을 내쉰다. 여진, 그런 짱이를 바라보며 카톡을 이어간다.

-그래서 봤어요? (세희)

-아니, 아직. (여진)

-보고 얘기해요. (세희)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내보낼 수도 없죠. (현광)

-그런가? (세희)

-우리 집 근처에 24시 동물병원 하는 데 있는데. (세희)

-어디? (여진)

-어디?? (현광)

-성수동 옥수빌라 바로 옆. (세희)



## #41 세희의 방(밤)

세희 (1초 후에) 미쳤어... 우리 집을 알려주면 어떡해...

억울한 세희, 질세라 카톡 보낸다.

-그쪽은 어딘데요? (세희)

-남양주 목현리 한길오피스텔. (여진)

## #42 현광의 방(밤)

-사실 우리 아빠 수의산데. (현광)

-근데 못 도와줌. (현광)

-나 때문에 엄마랑 이혼하고 나가 살거든요. (현광)

현광 (마찬가지로 1초 후에) ... 나 뭘 한 거야.

이런 애길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사실 강남8학군에 살고, 보딩스쿨 준비했었고, 게다가 엄마는 교수고, 뭐 그런 거 아님? ㅋㅋ (여진)

현광 (사실이 그렇다!) 어떻게 알았지...?

현광,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멀리 떼어놓는다.

## #43 여진의 방(다음 날 / 낮)

여진은 냉장고와 싱크대를 살핀다. 라면과 쌀, 반찬 등 음식물의 양을 체크한다. 5킬로짜리 쌀이 하나, 짜장 라면과 일반 라면이 각각 예닐곱, 인스턴트 카레, 참치 각각 세 개씩, 1킬로짜리 고추장과 한 줄의 식빵이 있다. 한동안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역을 확인한다. 심봤다!

## #44 노트북 앞(낮)

인터넷으로 일단 개 사료 10킬로짜리를 산다. 59,000원!

여진은 후딱 결제한다. 그래놓고 자기도 놀랐다.

여진 (깨달았다) ... 사랑인가 봐.

옆으로 누워 햇빛바라기 하던 짱이가 고개를 든다.

그런 여진의 옆으로 -59,000원이 뜬다. 잔액은 241,000원!

## #45 현광의 방(낮)

방문을 사이에 두고 현광 모와 현광이 이야기 나눈다.

(현광 모) 자니?

현광 (엄마에게 카톡 한다. '왜?')

(현광 모) 목소리 좀 들려주지.

현광 (방문을 주먹으로 친다)

(현광 모) (한참 만에) 이번 주 생일이잖아, 혹시 뭐 갖고 싶은 게 있나 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카톡 말고, 얼굴 보고 말로 해주면 더 좋고, 응?

현광 ... 응. (했다가 열린 입을 틀어막는다. 카톡으로 'ㅇㅇ'만 찍어 보낸다)

동시에 카톡 온다. 짱이를 찍은 동영상이다. 현광이 동영상을 터치한다.

배에서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누가 봐도 완벽한 태동이다.

## #46 세희의 방(낮)

세희 역시 카톡을 봤다. 동영상을 본다. 몇 번이고 본다. 포털 검색창에 '강아지 집에서 출산하기'를 검색한다.

-빠르면 오늘 밤일 거 같아. (여진)

## #47 여진의 방(낮)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세희)

-초음파를 안 했으니 당연. (현광)

-응... (여진)

-개한테도 못할 짓인 거 아니에요? (세희)

-... (여진)

-가위 삶았어요? (세희)

여진이 끓는 물에 가위를 삶고 있다. 그 위로도 카톡이 올라간다.

-실도 삶아요. (세희)

-무명실이면 더 좋다는데. (세희)

세희의 카톡에 여진이 얼른 실도 냄비에 넣는다.

-개집은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던데. (현광)

여진, 아차 싶다.

점프.

겨울 잠바로 박스를 꼭 감쌌다. 제 집인 걸 아는지 짱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

## #48 여진의 방 / 노트북 앞(밤)

자막. “고독이 사라지는 순간”

여진은 박스 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튜브로 강아지 출산 동영상을 본다. 동영상에는 임신한 개가

헉헉대며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다.

여진(N) 생명이 나오는 순간이야. 위대하다고.

막에 싸인 강아지가 나오자 살균한 가위로 막을 찢어주고, 탯줄을 무명실로 꼭 묶은 뒤 가위로 잘라준다.

여진(N) 경이롭고 신비하고, 그리고 또 어찌면 모든 생명체의 살아가는 목표... 우웨에웨에웁...

여진 (육실로 뛰어가 더는 참지 못하고 토한다) ... 징그러워...

박스를 바라보는 여진, 두려움이 엄습한다.

## #49 현광의 방(다음 날 / 낮)

불특정 다수의 SNS를 향해 욕을 달아놓던 현광, 또다시 #21에서 봤던 사진(세희)과 마주쳤다.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사진의 댓글은 찬양 수준이다. 그냥 넘기려는 찰나, 다시 사진으로 돌아온다.

여자의 앞머리보다 속눈썹이 더 앞에 있다?

포토샵이다. 피식 웃는 현광, 악플을 남긴다. “아, 시발. 포토샵을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악플을 달고 나니까 막혔던 숨이 뚫린다.

그러자 일제히 찬양 일색이던 댓글들이 하나둘씩 의구심으로 바뀐다.

“그러게, 왜 그걸 미쳐 몰랐지?”, “완전 포토샵붓이구만”, “사실은 남자 아니야?” 실시간 달리는 댓글에 현광은 뿌듯함마저 느낀다. 경쾌하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현광의 손가락.

## #50 여진의 방(낮)

여진, 박스를 보고 있다.

박박 긁는 소리와 함께 심호흡 소리가 들린다.

불안한 여진, 두 사람에게 카톡을 날린다.

-어떻게 해, 진짜 나오려나 봐. (여진)

### #51 세희의 방(낮)

SNS 댓글을 보던 세희의 눈이 커진다. 댓글이 달렸다. “아, 시발. 포토샵을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속눈썹이 어떻게 앞머리보다 앞에 있음? 얼척이 없음. 이 사람 다른 사진도 다 이상함. 완전 잘못된 포토샵의 예 ㅋㅋ” 그 뒤로도 다수의 사람들이 위에 댓글에 동의하며 악플을 달았다. “이 여자 분명 똥땡이”, “아니, 성형괴물”, “아니, 남자임. 설마 해도 남자 맞음 ㅋㅋ”

### #52 여진의 방(낮)

짱이의 박스가 좌우로 흔들린다. 한껏 거칠어진 심호흡 소리가 들린다. 여진은 핸드폰을 확인하지만 두 사람으로부터 아무 메시지도 없다. 박스 안을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는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박스 안이 조용해진다. 조심히 박스를 감싼 잠바를 치워본다. 여진, 코를 훌쩍인다. 촌스럽게 눈물이 날 것만 같다. 그런 여진의 눈동자에 작은 생명체가 어른거린다. 여진은 이제 무릎을 꿇은 채 경이로운 것을 보듯 보고 있다.

여진(N) 너는 왜 태어난 걸까. 나는 왜 태어나 있는 걸까.

새끼는 탐욕스럽게 어미의 젖을 문다.  
그런 새끼를 바라보는 여진의 시야가 흐리다.

### #53 세희의 방(낮)

악플을 보고 있는 세희, 세희의 집 안이 흔들린다. 꼭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똥땡이래요, 괴물이래요, 100킬로래요.” (초등학생들의 놀리는 목소리)

“설마 여자냐? 코끼리 다리, 저 정도면 병 아니야?”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놀리는 목소리)

“글쎄요, 알바 다 구했다구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린 사람 다 구했어. 나가요.” (여자의 목소리)  
괴로워하는 세희, 결국 집 안의 목소리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 #54 세희네 빌라 앞(낮)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빌라를 마주 보고 서 있다. 그것도 대낮에!  
세발자전거를 탄 아이가 멀뚱히 서 있는 세희를 향해 땡땡 고무 클랙슨을 눌러댄다. 그 소리에 옆으로 비켜선다. 아이의 자전거가 뒤뚱거리며 제 갈 길을 간다.

세희 나... 나왔어...?!

### #55 여진의 방(낮)

갑자기 짱이가 이상하다. 비칠대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짱이!  
여진은 그 자리에 굳었다.

인서트.  
꼭 닫힌 여진의 집 현관문 ‘205호’

### #56 몽타주. 여진의 과거(낮)

1. 거리  
길을 걷던 여진(교복을 입었다), 갑자기 구토가 올 듯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 일종의 전조증상이다. 간질발작을 일으킨다.

여진(N) 열여덟의 봄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2. 병원, 진료실

의사가 뭐라 뭐라 질문한다. 여진 모(여진 모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화려한 복장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고개만 저를 뿐이다. 의사는 여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본다.

의사

혹시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여진, 여진 모를 바라본다. 두 사람 동시에 고개를 젓는다.

3. 병원, 로비

여진, 의자에 앉아 여진 모를 기다린다. 병원약국에서 약을 타고 있는 여진 모의 뒷모습을 본다. 병원약국 창구에서는 여진 뒤편의 약(#31의 그 약봉투다)이 계속해서 나온다.

4. 학교 앞

여진 모가 여진과 함께 등교 중이다. 여진은 여진 모의 팔뚝에 손톱자국이 날 정도로 여진 모를 의지한 채 걷는다.

점프.

아이들이 삼삼오오 하굣길에 오른다. 기다리던 엄마가 오지 않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만 오래도록 신호만 갈 뿐이다.

#57 여진의 집 앞(낮)

‘205호’의 문이 열린다.  
타월에 쓴 짱이를 안고 뛰어나온다.

여진(N)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태어난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58 거리(낮)

여진이 미친 듯이 뛰어온다.

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번쩍 든다. 택시가 선다.

택시기사

어디 가세요?

여진

(입이 굳는다)

그리고 보니 여진은 후드티도, 마스크도 없다. 거기다가 째한 대낮의 햇살, 그 햇살에 잠시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런 여진을 두고 택시가 떠나간다.

무심코 내려다봤을 때 여진의 품에 짱이가 안겨 있다.

버스정거장을 향해 눈 질끈 감고 뛰어가는 여진, 시야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어쨌든 대낮에 거리를 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59 버스정거장(낮)

일단 시내로 나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데, 버스 안 승객들이 보인다.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여진.

#60 도로(낮)

휘청이며 버스에서 내린다.

여진(N)

버려진 게 아냐. 포기한 게 아냐.

#61 거리(낮)

여진이 터덜터덜 거리를 걷고 있다. 차마 무서워서 짱이를 쳐다보지도 못한다.

여진(N)

이유 없이 태어났지만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건 더 싫어.

노을이 지고 있는 거리 위로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 #62 동물병원 앞(밤)

반짝이는 동물병원의 간판.

여진이 동물병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

데스크직원(빠죽 키만 큰 20대 남자다)이 여진에게 뭐라 뭐라 묻는다.

여진은 울음이 터져 제대로 말을 못 한다.

진료실에서 나온 수의사가 사태를 파악하고, 여진에게서 짱이를 받아 안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게 보인다.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 #63 세희의 방(밤)

자막. “히키들”

냉장고 문이 열려 있다. 먹을 만한 건 다 집어 먹었다.

세희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 [히키들] 단독방에 대화를 역순으로 읽고 있다. 그러다 짱이의 동영상을 플레이한다. 똥 싸는 동영상, 자는 동영상 등등.

## #64 현광의 방(밤)

-어떻게 해, 진짜 나오려나 봐. (여진)

여진의 특에 뭐라 대꾸를 하려는데, 문득 세희의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확인한다. 비비추 꽃이 그려진 네일아트다.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인서트.

열정적으로 악플을 달고 있는 현광의 모습.

모니터에 뜬 사진 중 비비추 꽃이 그려진 네일아트 사진.

현광 (!) ... 설마?!

## #65 여진의 방(낮)

매트리스.

핸드폰 알람이 울리지만 여진은 일어날 생각이 없다. 스트레칭? 더더욱 생각 없다. 이불 속에서 팔만 나와 핸드폰을 꺼버린다. 핸드폰 카톡이 울린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여진이 핸드폰을 확인한다. 아직까지 여진의 뒤통수만 보인다.

-개마저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개팔자 상팔자라고, 왜 품종 있는 개들은 그러잖아요. 사람보다 더 이쁨 받고. (세희)

-짱이도 그냥 믹스견은 아닌 거 같던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개였을 거 같음. (세희)

-아빠 병원 갔을 때 보면요, 입원시켜놓고 안 찾아가는 개들도 많았어요. (현광)

-혈. 병원비 때문에? (세희)

-아마도. 나름 비싼 개들이었는데도요. (현광)

-참, 새끼 낳았어요? (현광)

-새끼 낳았음? (세희)

숫자1은 사라진 지 오래건만 여진으로부터 답은 없다.

인서트.

세희의 방.

세희가 마지막에 그린 비비추 꽃 네일아트를 전송한다.

-완벽하죠? 드디어 마스터. (세희)

인서트.

현광의 방

사진을 확인한 현광은 더더욱 괴롭다.

-우리 정모해요? (현광)

다시 여진의 방이다.

그때까지도 얼굴을 볼 수 없던 여진이 얼굴을 내민다.

밤새 울었는지 통통 부어 있다.

-히키코모리가 정모를 어떻게... (세희)

-짱이랑 새끼 보고 싶지 않음? (현광)

곧이어, '여진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인서트.

현광의 방.

창가로 바람이 훑 하니 불어 암막커튼이 날린다. 놀라는 현광.

인서트.

세희의 방.

그 순간 형광등이 깜박 나갔다가 들어온다. 너무 놀라 두 눈만 깜빡이는 세희.

## #66 욕실(낮)

맹렬히 세수를 한다. 거울 속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다.

이마에 손등을 대본다. 뜨끈뜨끈하다. 좀 전의 맹렬함은 사라지고 부스스 벽에 기대앉는다. 언젠가 사뭇던 사료포대를 안고 운다. 눈물과 콧물은 자꾸만 흐르는데, 소리는 없는 울음이다.

## #67 세희네 빌라 앞(낮)

나갈 준비를 마친 세희가 빌라 앞 평상에 앉아 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정모해요, 무슨 일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현광)

-어딘지 알고? (세희)

-남양주 목현리 한길오피스텔. (현광)

-가서 근처 부동산에 물어봐도 될걸. (현광)

-똑똑하다, 요즘 애들. (세희)

-근데 무엇보다 너 나올 수 있어? (세희)

-엄마 찬스. (현광)

-누난? (현광)

-나, 사실 한 번 나와봤는데 괜찮았어, 장거리는 모르지만. (세희)

-그럼 일단 ㄱㄱ (현광)

그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는다.

세발자전거를 탄 아이가 세희의 앞을 지나 밖으로 나서기 위해 방향을 튼다. 곧이어 그만 균형을 잃고 앞으로 파당 넘어진다.

세희

(넘어지는 아이를 봤다)

아이

으아아아아앙.

세희

(아이를 살피기 위해 주저앉은 채 얼굴만 앞으로 쭈욱 내민다)  
괜찮아? 안 다쳤어?

아이

(세희와 눈이 마주치자 더 큰 소리로 운다)

세희

어디 아파? 엄마는?

아이

(세희의 얼굴을 가리키며) 으으으... 못생겼어...!!

세희

이게 진짜...! (어라 평상 앞에서 떨어지지 않던 엉덩이가 떨어졌다!)  
진짜...?!

## #68 현광의 방 + 거실(낮)

현광 역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문에 귀를 갖다 댄다. 인기척을 살핀다. 조용하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린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현광 모와 뒤늦게 눈이 마주친다.

현광 모

(아들이 반가워서 다가간다)

현광 (다가오는 현광 모를 보자 움찔한다)  
현광 모 (!) 내 정신 좀 봐, 마트를 간다는 게,  
현광 (아차 싶다) 엄마…  
현광 모 (돌아본다)  
현광 생일선물, 얼굴 보고 얘기해달라고 했잖아.

## #69 도로(낮)

자동차 한 대가 달려간다.

## #70 자동차 안(낮)

현광 모가 운전하고 있고, 조수석에 현광이 앉아 있다.

현광 혹시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나 학교 안 가.  
현광 모 응.  
현광 방에서도 완전히 나온 건 아니야.  
현광 모 응.  
현광 (짜증 난다) 엄마는 왜 다 응이래?  
현광 모 응?  
현광 왜 다 응이냐구.  
현광 모 … 엄만 너 믿어. 누가 뭐래도 믿어. 언젠간 나가지 말래도 학교도  
가고 방에서도 나올 거라고 믿어.

인서트.

마치 1인칭 시점의 게임처럼 아이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이리저리 채어  
나동그라지는 현광의 모습이 되감기된다. 아이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채이기 전, 교실 바닥에 쓰러지기 전, 먼지가 묻기 전, 말끔한 교복을 입은  
상태로 반듯하게 서 있는 현광이다.

현광, 눈물이 나온다. 흐르기 직전 손등으로 닦아낸다.

## #71 버스 안(낮)

세희가 버스를 타고 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쳐다보는 게 느껴지면,  
네일아트 한 손톱을 바라본다. 보라색 비비추 꽃, 세희에겐 부적과  
다름없다. 카톡 온다.

-어디쯤? (현광)

-다 와가. (세희)

## #72 여진의 오피스텔 앞(낮)

양산으로 최대한 얼굴과 몸집을 가린 세희. 현광은 그런 세희를 알아봤다.  
성큼성큼 세희에게 걸어온다. 세희도 그런 현광을 알았다. 그냥 스쳐가는  
현광, 다시 돌아온다. 뒤에서 세희의 소매 춤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린다.  
두 사람, 그제야 마주 본다.

## #73 여진의 방(낮)

여진은 삼림욕을 하고 있다. 그때 벨소리가 들린다.  
현관문 렌즈를 확인하는 여진. 사람이 두 명이나 서 있다.  
야구모자로 얼굴을 가린 현광과, 양산을 손에 쥐고 있는 세희다.

점프.

세 사람이 상 앞에 모여 앉았다. 셋 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킵, 하고 누군가 웃으면 따라 웃는다.

도대체 뭐지? 싶어 다가가보면… 세 사람, 모여 앉아서도 카톡질이다.

-어떻게 찾았어. (여진)

-다 눌러봤음. (현광)

-헐. (여진)

-뺱이고, 골라서 세 군데 눌러봤어요. (현광)

-카톡 하지. (여진)

-그냥 놀래켜주고 싶어서. (현광)  
-하다하다 안되면 카톡 할 참이었는데. (세희)  
-눈이 퉁퉁 부었네. (세희)  
-응. (여진)  
-새끼 이쁘다. (현광)

그러고 보니 현광의 품에는 짱이의 새끼가 있다.

-그래서 짱이네요? (현광)  
-짱이네? (세희)

긴장감이 감돈다.

-‘입원 중인 짱이를 찍은 사진’ (여진)

세희와 현광, 두 사람 다 안심한다.

-안심하긴 일러. (여진)  
-그래도 다행. (현광)  
-ㅇㅇ (세희)  
-근데 너 나한테 할 말이란 게 뭐야? (세희)  
-? 할 말? (여진)

두 사람 다 현광을 본다.

-그게 사과하고 싶어서요. (현광)  
-나한테 뭐 잘못했어? (세희)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현광)  
-뭐야. 싱겁긴. (여진)  
-근데 세희 누나 생각보다 이쁜 거 같아요. (현광)

부끄러움에 세희가 현광을 툭 치자, 저만치 나가떨어진다.

## #74 쓰레기 버리는 곳(밤)

자막. “에필로그,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분리수거를 하다 말고 가로등 앞에 서 있는 여진, 뭔가를 봤다.

인서트.

가로등에 붙은 전단지.

“실밥 따기 알바(가방, 사람 옷, 강아지 옷 종류 다양함) 공장근무/재택 둘 다 가능. 010-\*\*\*\*-\*\*\*\*”

누가 볼세라 짹짹 전단지를 떼다.

## #75 다세대 주택 지하에 위치한 공장(밤)

여진이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공장의 문을 두드린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린다. 아주머니가 문틈 사이로 여진을 관찰한다.  
여진은 문이 닫힐까 봐 발을 얼른 문틈에 끼워 넣는다.

공장주인 … 누구세요?

여진 (문틈으로 전단지를 보여준다) This…

공장주인 (그제야 문을 다 연다) 아…

여진 (고개만 꾸벅할 뿐)

공장주인 주 5일 근무에 10시부터 4시, 시간당 6,000원씩 계산해서 7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진 …

공장주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왜 말이 없어?

여진 But… Telecommuting… I wanna work in my room.

공장주인 (다시 여진을 본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왜 아까부터 자꾸 혼자 꼬부랑말이야. (그냥 들어가려 한다)

여진 Please…



공장주인 (여진의 이마에 딱밤을 날린다)  
 여진 아파…!  
 공장주인 거봐, 한국어 하는구만. 검은 머리면서, 뿔 꼬부랑말은.  
 여진 (맞은 게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재택근무 하고 싶다구요!  
 공장주인 그거 돈 얼마 안 돼.  
 여진 저기, 그래도…  
 공장주인 그래, 그럼. 하긴 뭐 아가씨들은 따로 직업이 있겠지. 부업으로 하는 거면 재택도 괜찮구. 손이 빠른 아가씨인가 보네. 오늘 배우고 물건 가져갈래요?  
 여진 Right now…?  
 공장주인 또, 또 그런다. 신분증은?  
 여진 (또다시 고개만 끄덕일 뿐인데)

## #76 여진의 방(낮)

대형 검은색 봉투 서너 개가 방에 널브러져 있다. 쪽가위로 강아지 옷을 이리저리 살피가며 실밥을 땀다.

여진(N) 짱이 병원비가 얼마나 될까. 5만 원쯤…?

실밥을 다 땀 강아지 옷을 획 하니 한쪽으로 던진다.  
 이번에는 봉투에서 사람 옷을 꺼내 드는 여진. 옷을 360도로 돌려가며 실밥을 땀다. 나름 현란하다.

여진(N) 10만 원일지도 몰라.

완성된 옷을 획 하니 한쪽으로 던진다. 이번에는 천으로 만든 손가방이다. 가방 안쪽과 바깥쪽 모두 살살이 실밥을 땀다. 쪽가위로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실밥을 따는 소리가 꽤 리드미컬하게 들린다.

여진(N) 나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실밥을 다 땀 가방을 획 하니 던진다. '순이'가 그런 여진을 향해 월! 짓는다. 보면 완성품 위에 올라가 쉬를 누고 있다. 짹째 튀어가 가방을 들여보지만 이미 흥건하다.

여진 내 130원!!

## #77 동물병원(밤)

입원실 안 건강해진 짱이가 보인다.  
 여진이 입원실에서 짱이를 꺼내 안는다.  
 짱이에게 코를 박는다. 쿵쿵 냄새를 맡아본다. 그리웠던 짱이 냄새다.

데스크직원 저기요… 보호자분.

여진 (맞다, 계산이 남았다)

데스크직원 47만 6,000원입니다.

여진, 설마… 고개를 두리번거린다. 병원 안에는 여진뿐이다.

데스크직원 47만 6,000원이요, 짱이 보호자분.

여진 (너무 큰 금액이라 입만 뻐끔댄다)

데스크직원 아… (아마도 청각장애로 착각한 듯하다, 계산기에 숫자를 찍어준다, 친절하게 손짓으로 짱이를 가리키기까지 한다)

여진 (계산기의 숫자를 바라본다… 잘못 찍은 건 아닐까? '476,000'에서 '0' 하나를 삭제해본다. '47,600'이 된다! 계산기를 내민다)

데스크직원 (단호해진 표정으로 숫자를 확인한다, 데스크직원이 다시 계산기를 내민다, 계산기에는 470,000원이 찍혀 있다) 더는 안 돼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입모양을 크게 벌려 또박또박 얘기한다)

여진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본다)

그런 여진을 짱이가 쳐다보고 있다.

## #78 다세대 주택 지하에 위치한 공장(밤)

공장주인 아주머니와 대치 중인 여진.

공장주인    응?

여진        … 출근해도 돼요?

공장주인    안 들려, 뭐라는 거야. 이 밤에 들이닥쳐선.

여진        … 출근해도 되냐구요…

공장주인    에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가씨 그리고 날 밝을 때 좀 찾아와. 위험하게 밤에만 돌아다녀. 내일 얘기해. (돌아서 들어가려는 찰나)

여진        출근…! 해도 돼요!?

공장주인    (뒤돌아본다) … 난 또 뭐라고.

## #79 여진의 방 현관(다음 날 / 낮)

신발장을 보면 운동화가 없다.

공장주인(E) 밥 왔어. 밥 먹고 해.

## #80 공장 안(낮)

여진        (일하다가 돌아본다. 함바집에서 주문한 밥이 도착했다) … 예.

다른 아주머니들 웅성거린다.

파마머리    뭐란 거야, 들렸어?

공장주인    예, 됐어.

파마머리    그게 들려?

공장주인    그럼 그게 안 들려?

여진 밥을 먹고 있다. 일한 뒤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있대!

## #81 여진의 오피스텔 근처(낮)

여진, 짱이와 순이를 데리고 산책 중이다. 오피스텔 화단에는 보라색 비비추 꽃들이 빼곡히 피어 있다. 여진의 행색은 여전히 수상하지만 셋은 느긋하게 산책을 즐긴다.

끝.

《히키코모리와 개》는 쓰면서 즐거운 작품이었다.

오픈에서 당선 전화가 왔을 때, 깨달았다. 내가 즐겁게 쓰는 작품은 남들도 즐겁게 읽어주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독님을 만나 멘토링을 시작했다.

감독님은 한 씬 한 씬 촬영고를 목표로 예정 있게 씬을 짚어주셨다. 멘토링 전과 후 이야기의 구조나 정서, 캐릭터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개의 생사가 달라졌다.

작품의 톤상, 그리고 지금껏 봐오던 개를 굳이 죽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개를 살리고 나니 에필로그가 찰떡같이 붙었다.

멘토링은 그렇게 나만의 글짓기에서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이었다.

즐거움에서 끝날 일은 아니었다. 매 씬 책임감을 느꼈다.

이런 작업들은 앞으로 펼쳐질 긴 시간들 사이사이 자양분이 될 것이 틀림없다.

오픈 축하 이나정 감독님, 그리고 멘토링을 같이한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민아의 유산

김의정

---

작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망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기록인 이른바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을 누가,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IT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기사 중 발췌

죽은 소녀의 디지털 유산으로 살아가는 두 명이 있다.  
소녀의 친구와 소녀의 엄마.  
소녀의 친구는 계속 소녀가 살아 있게 만들고,  
소녀의 엄마는 그런 소녀를 보며 살아  
둘은 그렇게 소녀가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을  
소녀를 보며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소녀가 사라진다.  
허구가 사라지자 과거 속 묻어둔 진실이 다가온다.  
과거 속 소녀는 피해자다.  
소녀의 친구는 가해자들을 찾아간다.  
소녀와 함께 사라지려 하는 소녀의 엄마,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씩 용기 내어 다가가지만,  
그럴수록 숨겨왔던 과거만 드러난다.

다시 마주하게 된 소녀와 친구.  
죽음의 무게에 눌린 소녀와 삶의 무게에 눌린 친구.  
이 두 사람을 통해 말하고 싶다. 용서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

등장인물

정은수(18세 / 25세, 여) 고2 / 흡소핑 재택 상담원

민아가 죽은 후 거의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 어둠을 두려워하고,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다. 민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자를 보고 민아

김의정

kas075@naver.com

- 2008 • 영화 <블랙 웨딩데이>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마켓 월 추천작 선정
- 2009 • 영화 <메리크리스마스> 각본계약
- 2014 • 영화 <검은 눈동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지원프로그램 최종심
- 2016 • 영화사 PG엔터테인먼트 <퍼즐게임> 각색
-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블로그에 꾸준히 사진을 올린다.

이민아(18세, 여) 고2

은수와 절친. 대표 엄친아. 미정파에게서 은수를 막아주는 존재다.

박현자(44세 / 51세, 여) 민아 모

민아가 죽은 후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은수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보며 민아가 올린 거라 믿는다.

차주연(18세 / 25세, 여) 고2 / 건설회사 인턴

미정파 넘버3. 건설회사 회장 외손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할아버지 재산 펄펄 쓰며 별 생각 없이 지낸다. 제일 멍청해 보이지만 나름 얻어걸린 날카로움도 있다.

설지선(18세 / 25세, 여) 고2 / 의대생

미정파 넘버2. 의사 집안 막내딸로 제멋대로 살다가 민아 사건 후 개과천선해 의대에 들어간다.

강미정(18세 / 25세, 여) 고2 / 블로그회사 계약직

미정파 대장. 지선이나 주연과는 달리 극히 평범한 집 딸이지만, 카리스마와 냉혹함은 전혀 평범하지 않다.

기현(18세, 남) 고2

은수가 좋아하는 남학생. 민아와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다.

정부남(40대 후반, 남) 블로그회사 부장

미정의 불륜남.

이성철(53세, 남) 현자 남편, 민아 부

민아의 죽음 후 운영하던 회사까지 망한다. 현자와 이혼하고 사라졌다.

---

## 줄거리

따스한 봄별이 시작되는 3월.

한낮 봄별을 두터운 이중커튼이 가둔 거실 안. 어두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친다. 모니터 앞 은수는 오늘도 채택 상담원 일과를 마치고 인터넷을 연다. 온갖 SNS를 검색해서 커피나 음식,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골라내 민아의 블로그에 올린다. 마치 민아가 한 것처럼.

민아의 블로그를 보는 50대 여인 현자. 하루의 일과가 블로그로 시작해 블로그로 끝난다. 어느 때와 같이 블로그 속 사진과 글을 보고 같은 장소를 찾아가 같은 음식을 주문한다. 그 음식을 보며 민아와 대화하는 일이 살아가는 이유다.

그들의 민아는 7년 전에 죽었다.

민아의 친구 은수와 민아의 엄마 현자는 현실에서 죽은 민아를 대신해, 온라인 속 살아 있는 민아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둘의 일상을 깨는 일이 발생한다.

민아의 블로그가 사라진 것이다. 은수는 충격에 빠질 틈도 없이 현자부터 떠오른다. 역시나 현자는 민아가 사라지자 패닉에 빠져 쓰러지고 마는데... 현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은수는 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라진 민아만 돌려놓으면 분명 현자는 깨어날 것이라 믿는 은수, 민아가 사라진 이유를 좇는다. 그 이유는 은수를 과거로 이끈다. 민아가 죽을 당시의 시간으로. 민아를 죽게 만든 가해자들에게.

7년이나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왜 민아의 존재를 없애는 걸까?

가해자들은 은수에게도 두려운 존재다.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렵지만 현자를 살리기 위해 용기를 쥐어짜 그들에게 말한다.

“민아 블로그 살려봐.”

7년 동안 그들의 모습은 변했지만 은수를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은수는 무시만 당한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던

은수는 현자를 살리기 위해, 오직 현자를 위해, 고양이에게 달려든다.

은수는 가해자들에게서 민아를 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 현자가 깨어날까.

은수는 정말 현자가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걸까.

꼭 막힌 집 안에 틀어박혀 24시간 형광등을 켜놓고 밤마다 수면제를 먹는 히키코모리 삶으로 다시 돌아갈까.

민아의 유산

김의정

## #1 은수 집(낮)

은수(V.O) (하이톤) 네~ 고객님. 현재 방송 상품 66까지 미듭사이즈 입으시면 맞습니다. 66반이시면 우선 라지로 주문하시고 사이즈 교환 가능하십니다. 네~ 맞교환입니다~

기계적인 밝은 목소리 선행되며 보이는 실내, 일반 실내보다 밝다. 한낮인데도 두터운 이중커튼으로 외부를 차단하고, 실내등은 모두 켜놓은 상태.

상당히 깨끗하다. 가구는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과 TV, 소파가 전부다. 하지만 비어 있지는 않다. 생수통 같은 빈 재활용품들이 벽면에 가지런히, 차곡차곡 쌓여 있다. 사방에 하얀 벽지를 방문까지 연결해 붙여서 얼핏 보면 방이 없어 보인다. 열린 문은 화장실뿐이고 불도 켜 있다.

TV로 홈쇼핑 방송을 모니터하며 상담 중인 은수, 핏기 없는 얼굴에 눈만 빨갛게 충혈되어 있다. 시계를 본다. 홈쇼핑 재택근무 프로그램 채팅창에 ‘마지막 콜’이라고 친다. 통화연결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연결되는 전화.

남자(V.O) (다짜고짜) 야! 너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니들 뻘에 가정 파탄 났어! 니들 싸그리 다 고소할 거야!

은수 고객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성함부터 말씀해주시면...

남자(V.O) 장난해?! 이미 다 떠 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말해봐! 내 이름이 뭔지!

은수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자(V.O) 왜?!

은수 ... 고객님, 성함을...

남자(V.O) 내가 말해볼까? 니들 그거 불법이잖아. 전화만 하면 정보 다 뜨면서 먼저 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내 정보를 유출해?!  
 은수 (채팅창에 팀장에게 SOS 메시지 보낸다)  
 남자(V.O) 거기 우리 집 주소가 어디로 나와?!  
 은수 (화면 보면 개포동과 금호동 두 개의 주소가 있다)  
 남자(V.O) 두 개지? 개포동은 우리 집이고, 금호동은 내 애인 집이야. 니들이 내 마누라한테 애인 주소를 알려줬다고! 거기 내 직업은 안 나오지? 내가 변호사야! 통화 내용 녹음하는 거 다 알아! 니들 회사를 없애버릴 거야!

팀장에게 메시지가 온다. “나한테 넘겨요” 은수는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팀장을 연결한다. 헤드폰을 벗고, 빠른 듯 고개를 돌리는 은수. 인터넷 창을 연다. 손을 뻗어 식빵봉지에서 식빵을 꺼내 씹어 먹는다. 커다란 책상엔 빈 식빵봉지와 빈 생수통이 열을 맞춰 가지런히 쌓였다. 여러 개의 SNS 창을 열고 사진들을 검색한다.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보다 커피와 케이크가 찍힌 사진에서 멈춘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을 본다. “오늘은 경리단길 나들이~ 모던 카페 왔어용~ 헉! 바닐라 크림 모카와 초코 크레이프 케이크 조합이 예술이에용~” 원주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빼고 커피와 케이크만 찍힌 사진을 카피한다. 은수는 마치 자신이 먹은 것처럼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오늘은 경리단길에서 디저트~ (하트) 대박 맛남!!! 바닐라 크림…” 글을 남긴다.

## #2 이태원 모던 카페(낮)

2층까지 연결된 넓은 통유리 안으로 보이는 내부,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다. 비슷한 분위기의 젊은 사람들이 케이크와 커피를 마신다. 현자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머리와 옷을 매만진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올라온 부스스한 머리와 푸석한 얼굴, 마른 몸에 걸친 옷은 색이 바랬다. 카운터 앞. 영어로 쓰인 커다란 메뉴판을 올려다보는 현자.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핸드폰으로 블로그의 사진과 글을 보지만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 주문을 기다리는 직원의 눈치를 보다 블로그 사진을

보여준다. (#1과 동일 사진)

현자 저... 이거 주세요.  
 직원 (사진을 보고는) 아, 바닐라 크림 모카요. 사진에 있는 케이크도 같이 드릴까요?  
 현자 ... 네...  
 직원 16,500원입니다.  
 현자 (당황하는) 아... 그렇게...  
 직원 (눈치채고는) ... 음료만 드릴까요?  
 현자 아... 아니에요... 주세요.

동전지갑에서 꾸깃꾸깃 접힌 지폐를 꺼내는 현자. 만 원권 한 장과 천 원권 네 장이 있다. 나머지 동전을 세는데 모자란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자.

직원 (작은 소리로) ... 그냥 주세요.  
 현자 ... (양손으로 돈을 주며) 감사합니다... (허리 굽혀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테라스 자리에 앉는 현자. 커피와 케이크를 사진과 똑같이 배치한다. 그러고는 참 곱게도 바라본다.

현자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 이게 그렇게 맛있니? 엄마도 먹어볼까?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신다) ... 맛은 있는데 엄마는 너무 달다. (웃으며) 그래? 엄마가 촌스러워서 그래.

혼자 대화하는 현자를 흘깃거리는 사람들. 현자를 보며 인상 쓰는 주인, 직원을 노려본다. 모르는 척 테이블을 정리하는 직원. 핸드폰으로 블로그 사진들을 쭈욱 올려보는 현자. 예쁜 풍경과 음식 사진들이 가득하다.

현자 밥을 먹어야 하는데... 맨날 이런 것만 먹네. 그래도 참 예쁘긴 하다. (웃으며) 우리 민아가 찍어서 더 예뻐 보이냐?

손이나 몸의 일부가 같이 찍힌 사진은 있어도 얼굴이 나온 사진은 하나도 없다. 블로그에 있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 점점 과거로 내려가며 모자이크처럼 화면에 쌓이다가 얼굴이 나온 사진 한 장에서 멈춘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민아의 사진이다. 웃고 있는 민아의 얼굴 위로 뜨는, 타이틀. “민아의 유산”

### #3 은수 집 + 현자 집 교차(밤)

환한 실내. 소파에 눕는 은수. 테이블 위 시계는 새벽 3시를 넘어간다. 시계 옆 수면제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데 약통이 비었다. 눈을 감는 은수, 금세 다시 뜬다. 다시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한다. 은수의 시점으로 천장의 환한 실내등이 잠시 보이고, 암전.

암전에서 시점으로 보이는 실내는 좀 전에 환한 실내와는 반대로 어둡다. 시점에서 벗어나는 카메라, 돌면 현자가 보인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어두운 한곳을 응시하는 현자. 손을 더듬어 스위치를 켜다. 스탠드 조명이 켜지며 장식장이 드러난다. 잔과 그릇이 가지런히 놓인 장식장. (가까이 보이지 않는다. 맞은편 소파에 누운 현자의 시점으로 보인다) 눈을 감으며 암전.

암전에서 천장의 실내등이 보이고 다시 암전.

암전에서 장식장 보이고 다시 암전.

### #4 은수 집(낮)

암전에서 천장의 실내등 보이고, 시점에서 벗어나 카메라 돌면, 밤새 잠을 못 자 충혈된 눈을 깜빡이는 은수가 보인다. 핸드폰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은수. 책상으로 가 컴퓨터를 켜다. 생수를 들이켜며 일일 스케줄표를 본다. 인터넷 창을 열고 블로그로 들어간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온다. 인상을 쓰는 은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엔터를 누른다. “가입되지 않은 아이디입니다. 회원가입하시겠습니까?”라고 뜬다. 잘못 썼나? 다시 한다.

### #5 신사동 카페(낮)

유리잔에 라떼의 하얀 띠가 여러 개 보인다. 신기하게 보며 혼자 대화하는 현자. 곧바로 유리잔과 스푼, 그릇을 휴지로 싸서 가방에 넣는다.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카페를 나서는 현자. 직원은 현자를 붙잡는다.

### #6 은수 집(낮)

은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원가입을 한다. 이번엔 틀린 주민번호라고 나온다. 여러 번 해도 같은 결과다. 당황하는 은수. 상담원 프로그램 채팅창에 뜨는 팀장의 메시지. “10분 전! 은수 씨 온라인 해주세요.” 은수는 팀장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블로그 고객센터에 전화한다.

상담원(V.O) 상담원 이해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수 로그인인 안 돼서요.

상담원(V.O) 그러십니까, 고객님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그동안 사용을 안 하시다가...

은수 (말 자르며) 어제까지 했어요.

상담원(V.O) 그러면 페이지 새로고침이나...

은수 (말 자르며) 아니에요.

상담원(V.O) 혹시 인터넷 연결 문제는...

은수 (버럭) 블로그만 안 돼요!

상담원(V.O) 아... 그럼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은수 이민아. 94XXXXX-2XXXXXXX.

상담원(V.O)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초조한 표정의 은수. 손발을 불안하게 떤다. “1분 전! 은수 씨 온라인!!” 팀장의 메시지에 프로그램에 온라인 하는 은수. 곧바로 상담용 전화기에 빨간 불이 깜빡인다.

상담원(V.O) 저... 고객님의 계정이 요청에 의해 강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은수 … 뭐라고요?  
상담원(V.O) 사망자로 분류되어 삭제됐습니다. 고객님의 본인 맞으십니까?  
은수 !!

팀장의 메시지가 또 올린다. “정은수 씨! 콜 받아요!!”

은수 누… 누가 요청했어요?  
상담원(V.O) 요청자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은수 누구냐니까!  
상담원(V.O) … 고객님의 본인이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화를 끊어버린다. 곧바로 올리는 핸드폰. 보면, 팀장이다.  
요란하게 올리는 핸드폰 소리와 요란하게 반짝이는 대기콜 빨간 불빛 위로 터지는,

은수 으아아아악-!! (순간, 생각나는) … 아… 아줌마…!

## #7 파출소(낮)

유리잔과 스푼, 그릇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현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는 경찰.

경찰 이런 거 돈 안 돼요. 아시잖아요.  
현자 (기어가는 소리로) … 네…  
경찰 그런데 왜 훔치셨어요?  
현자 … 우리 딸 만난 기념으로…  
경찰 …? 따님이랑 같이 드셨어요? 어머님 혼자 두고 그냥 갔어요? 따님 지금 어디 있어요?  
현자 (핸드폰 보이며) … 여기…  
경찰 …? 핸드폰 좀 쥐보세요. 제가 연락할게요. 어서요.  
현자 … (핸드폰을 건넨다)  
경찰 따님 이름이 뭐예요?

현자 … 민아…

연락처를 열어보는 경찰. 저장된 전화번호가 ‘우리 딸 민아’ 딱 하나다. 전화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나온다.

경찰 없는 번호라는데… 따님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자 (핸드폰을 가져와 블로그를 열며) 우리 딸 여기 있어.

현자는 페이지를 열지만 빈 페이지로 나오다가 검색창으로 넘어간다. 여러 번 해도 마찬가지다. 당황하는 현자.

현자 여… 여기 있는데… 분명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이게 왜… (핸드폰 내밀며) 우리… 우리 딸 좀 찾아줘…

현자를 가만히 보다 컴퓨터로 현자 인적사항을 찾아보는 경찰. 이민아 사망자로 나온다.

경찰 …?! 어머님. 따님… 7년 전에…  
현자 (순간 버럭) 아니야-! (벌떡 일어나며) 아냐! 아냐! 아냐!  
경찰 (놀란) …  
현자 (핸드폰 내밀며) 우리 민아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찾아달라고!!

할 수 없이 핸드폰을 받아 민아를 찾아보는 경찰. 동일 이름의 블로그를 다 봐도 아니라고 하는 현자. 경찰은 블로그 고객센터에 전화한다.

경찰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는다) 저기… 어머님… 따님 계정이 삭제됐대요.  
현자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 그러니까… (블로그 가리키며) 이제 여기서 따님 못 봐요. 아예 사라졌어요.  
현자 …?! 아… 아니… 좀 전까지 있었는데… 왜…? 거기 있는데… 아냐… 거기 있어. 거기에… 있어…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현자.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놀라 말리는 경찰. 현자는 소리를 지르다 이내 폭 쓰러진다.

### #8 은수 집(낮)

‘현자 아줌마’ 통화버튼을 누를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는 은수. 누른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다. 살며시 열리는 현관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머리만 살짝 내밀고 밖을 살피는 은수.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레 나온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폭 눌러쓰는 은수, 우산을 편다.

### #9 전철 안(낮)

한산한 전철 안. 은수는 맨 끝에 엉덩이만 간신히 걸치고 불편하게 앉아 있다. 환승역에 정차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은수 옆으로 뻑뻑하게 앉는 사람들. 몸이 경직되는 은수, 벌떡 일어난다. 순간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은수를 본다. 아무도 은수를 보지 않지만, 은수의 눈에는 모두 자기를 본다. 숨이 가빠지는 은수. 문 쪽으로 가서 창을 향해 선다. 그제야 편해지는데, 다시 문이 열리며 밀려드는 사람들. 은수는 눈을 감아버린다. 암전 상태에서 들리는 민아의 목소리.

민아(V.O) 눈 좀 떠봐. 응?

플래시백.  
7년 전. 학교 옥상. 나란히 누워 있는 민아와 은수.

민아 무섭다고 눈만 감으면 뭐 해. 똑바로 보고 맞서야지.  
은수 ... 피하는 것도 방법이야... (민아가 간지럽힌다. 웃음을 참으며) 으으읍으으...

현재.  
옆구리를 긁으며 혼자 비틀거리는 은수의 뒷모습.

순간 피 흘리는 괴기스러운 얼굴이 은수 앞으로 확 들어오면서,

괴성(V.O) 눈 떠!

놀라 눈을 번쩍 뜨는 은수. 닫히려는 문 사이로 간신히 내린다.

### #10 현자 집 앞(낮)

집 뒤쪽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는 은수.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들어갈 결심을 한다. 벨을 누르려는데 열려 있는 현관문.

### #11 현자 집 안(낮)

조심스레 들어오는 은수.

은수 ... 계세요? ... 아줌마?

대답이 없다. 은수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부터 켜다. 보이는 실내는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엉망이다. 사방에 쓰레기와 옷가지, 책 등이 널려 있다. 먹다 남은 음식물도 있어 썩은 내도 난다. 집 안에서 단 한 곳만 깨끗하다. 잔과 그릇들이 놓여 있는 커다란 장식장. 카페 냅킨 위에 각각의 잔과 그릇들이 날짜별로 정갈하게 놓여 있다. 맨 마지막 며칠 전 날짜에 놓여 있는 냅킨의 이름이 보인다. 모던 카페. 장식장을 멍하니 보는 은수.

은수 ... 어디 가셨어요...

핸드폰이 진동하고, 보면 현자 아줌마라고 뜬다.

은수 (받으며) 아줌마?  
경찰(V.O) 부재중 전화가 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박현자 씨 아세요?

은수 ... 누구세요?  
경찰(V.O) 신사과출소 이상훈 순경입니다.  
은수 ...?!

## #12 병실(낮)

누워 있는 현자의 모습은 깊은 잠에 빠진 것같이 보인다.  
현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은수. 50대 초반인데도 할머니처럼 늙었다.

## #13 7년 전. 고등학교 근처(낮 + 밤)

미정, 지선, 주연이 걸어간다. 두세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은수.

미정 (긴너편 핫도그 가게를 보며) 와... 개짜증.  
지선 왜? (따라 보고는) 헐...  
주연 대박. 민아 엄마야? 왜 저런대?  
미정 (주연 노려보며) 재수 없으니까 이름 말하지 말라고!

따라 보는 은수. 핫도그 가게 테라스에 앉아 있는 현자가 보인다.  
이미 여러 개를 먹은 듯 접시가 쌓였다. 현자는 핫도그를 먹으며 울다  
웃기를 반복한다. 가게 안 사람들도 현자를 힐끔거린다.  
뒤돌아 은수를 보는 미정. 멈춰 서서 현자를 보는 은수. 지선과 주연은  
미정의 눈치를 보며 은수를 부르지만 은수는 반응이 없다.

점프.

다른 날. 늦은 밤. 핫도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 은수. 셔터가 내려진 문  
앞에 쓰그러 앉아 있는 현자를 발견한다. 그냥 지나가려는데,

현자 은수야...  
은수 (멈칫, 망설이다 다가간다) ... 뭐 하세요?  
현자 ... 문을 안 열어...  
은수 (셔터문에 붙은 휴일 쪽지를 본다) ... 내일은 열 거예요.

현자 ... 은수야...  
은수 (현자 옆에 앉는다) ... 네.  
현자 ... 은수야...  
은수 ... 네.  
현자 은수는 대답하는데... 민아는 대답이 없어...  
은수 ...  
현자 ... 민아 보여줄까? 은수도 우리 민아 본 지 오래됐지?

현자는 핸드폰으로 민아 블로그를 열어 보여준다.  
민아가 핫도그를 먹는 사진에서,

플래시백.

1. 핫도그 가게 테라스에서 핫도그를 들고 웃는 민아.
2. 은수와 민아가 양쪽에서 핫도그를 베어 먹는 모습이 핸드폰 셀카로 찍힌다.

은수 (민아 사진을 보다 시선을 돌리고)  
현자 ... 전화도 꺼져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  
은수 ...!  
현자 혹시 아니? 민아 핸드폰 어디 있는지...  
은수 (벌떡 일어나며) 저... 저 먼저 가볼게요.

은수는 도망치듯 달려간다.

## #14 7년 전. 다리 위(밤)

달려와 난간을 붙잡는 은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민아 핸드폰이다. 강물에 던지려는데...

플래시백.

학교 옥상. 파란 하늘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힌다. 옥상에 나란히 누워  
셀카를 찍는 민아와 은수. 핸드폰이 기종과 케이스가 같아 쌍둥이처럼

보인다. 둘은 찍은 사진을 곧바로 블로그에 올린다.

민아 네 인생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은수 어... 아! (핸드폰 보이며) 이거! 이 안에 내 전부가 있어. 이걸...  
 나야!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이걸 꼭 네가 가지고 있어.  
 내 유산이니까.  
 민아 왜 사라져?  
 은수 그냥... 가끔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어.  
 민아 ... 아니지! 사라질 때 가져가야지! 그래야 연락이 되지!  
 은수 그럼 사라지는 게 아닌데?  
 민아 음... 그래도 안 돼. 나랑은 연락해야 돼. (손가락 내밀며) 약속해.  
 은수 (피식 웃는) 좋아. (손가락 걸며) 그럼 너도 약속해.  
 민아 좋아!

다리 위 이어서.  
핸드폰을 던지지 못하는 은수. 울음이 터져 나온다.

## #15 현재. 병원 진료실(낮)

의사에게서 현자의 검사 결과를 듣는 은수.

의사 (핸드폰 문자 보내며 기계적인 말투로)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진 것 같은데 깨어나질 않습니다.  
 은수 민아가... 사라졌어요...  
 의사 민아가 누구...  
 은수 (대뜸) 앓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의사 ... 깨어나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은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 신체상 문제는 없다.  
 은수 그럼 안 깨어난다는 말인가요? 본인이 깨기 싫어서?  
 의사 (생각하는) ...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수 (말 자르며) 깨기 싫은 이유를 해결하면 깨어난다는 말인가요?

의사 ...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은수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만 살리면...

덜컹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지선.

지선 아빠! ... 어?  
 의사 (다정하게) 10분만 있다 오라고 문자 보냈는데.  
 지선 아... 못 봤어. 미안. (은수에게) 죄송합니다. (문을 닫고 나간다)

지선은 은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은수만 지선을 알아보고 순간 얼어붙는다.

의사 흠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입니다...?

은수 보면 이미 나가고 없다.

## #16 병원 복도(낮)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지선. 바로 앞에 서 있는 은수. 지선은 뭔가 위협적인 느낌에 옆으로 간신히 일어난다. 죄송하며 꾸벅 인사하고 진료실로 들어가려는 지선. 다시 막는 은수, 지선의 눈을 안 보려고 시선을 피한다. 지선은 뭐야? 하다가 서서히 은수를 알아본다.

## #17 병원 근처(낮)

병원 뒤쪽 구석진 곳. 현기증에 손을 벽에 짚는 은수, 최대한 차분한 모습을 보이려 애쓴다. 그런 은수를 보며 짧게 한숨짓는 지선.

지선 (반감지 않은 표정으로) 반감긴 한데... 내가 좀 바쁜데...  
 은수 (지선이 들고 있는 의대 관련 책을 보며) ... 의사 되려고?  
 지선 뭐... 우리 집안이 그렇잖아. 아빠 말 잘 듣기로 했어.  
 은수 그 일 이후로?

지선 (순간 날카로워지는) ... 뭐?

플래시백.  
7년 전. 폐건물 안. 민아의 머리를 여러 번 세차게 때리는 지선.

지선 너 머리 좋잖아. 생각 좀 하고 행동하지 그랬어!

현재.  
은수의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지선. 순간 반사적으로 피하는 은수.

지선 (왜 이래 하며 보다가 손을 거둬 자신의 정수리를 누르며) 어지러울 때 여기 누르면 좀 괜찮아져.

은수 (민망한) ...

지선 혈압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 혈액이 안 좋은데 검사 안 해봤으면...

은수 (대뜸) 네가 그랬지?

지선 뭘?

은수 (애써 힘주며) 민아 블로그. 니들이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

지선 ... 블로그...? 아... 그거?

은수 왜 그랬어?! 그거 뻔에... 그거 뻔에... (눈물이 맺힌다)

지선 (한심하게 보는) ... 우니? 그것 때문에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애들 보긴 했지. 어떤 미친... (넌 하려다 말 바꾸는) 누가 그런 짓을 하나 했는데 너였어? 하긴... 너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했다. (전화 온다. 아빠다. 목소리 톤 바뀌며) 바로 앞이야. 아니 친구 만나서 잠깐 인사하느라~ 응~ 금방 올라갈게~ (끊는다) 난 모르는 일이야. 너처럼 추억 속에 빠져 살 시간 없어.

은수 ... 넌 추억이야?

지선 (날카로워지는 눈빛) 그럼 뭘데?

은수 난... 현실이야.

지선 (은수를 노려본다)

은수 (기가 죽으며 고개만 떨구고)

지선 (이내 눈빛 풀린다) ... 나한테 이러지 말고 주연이한테 가서 따져. 그 블로그 발견한 것도 주연이고, 만나자고 연락한 것도 주연이야.

은수 ...! 어... 어디 있는데?

지선 (짜증) 은수야. 생각 좀 하자. 머리 나빠도 생각은 하잖아. 개가 어디 있겠니? 지 할아버지한테 딱 붙어 있겠지.

## #18 주연 회사 앞(밤)

퇴근시간. 나무 뒤에 숨어 사람들을 주시하는 은수.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 주연이 은수의 시선으로 보인다. 서너 명의 동료들과 얘기를 하며 길을 걷는 주연.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들어간다.

## #19 고깃집 밖(밤)

구석에서 스욱 일어나는 은수.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주연과 동료들을 살핀다. 테이블엔 술병이 쌓여 있다. 은수는 구석에 앉아 다시 기다린다. 주연의 동료 두 명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핀다.

동료1 (주연과 눈이 마주치자 담배를 들어 보이며 웃는다) 재 왜 안 가지? 보통 이 정도 마시면 뻔지 않냐?

동료2 선배는 오늘이 처음이군요. 전 이제 포기했습니다.

동료1 씨발 인턴 주제에 정직원 데리고 술 마시는 게 현실이냐?

동료2 쟈 인턴이 아니라 그냥 회장님 외손녀예요. 재가 들고 다니는 백이 우리 세 달 월급이에요. 백도 맨날 바뀌어요.

동료1 그래서 재랑 놀아주면 우리 월급이 오르냐?

동료2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요번에 우리 부서만 인원 감축에서 빠졌잖아요. 다른 부서는 지금 술도 못 마셔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터는 동료1. 불씨가 은수에게 튄다. 시커먼 게 움직이자 흠칫하는 동료1, 2.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들어간다.

점프.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주연을 양쪽에서 보필하며 나오는 동료들. 택시에 태워 보내려는데,

주연 엄머! 인턴 주제에 어떻게 제가 먼저 가요. 선배님들 먼저 타세요~  
동료2 우린 괜찮아요. 주연 씨 취한 거 같은데 먼저 타요.  
주연 엄머! 그럴까요~ 선배님들 짱 멋져~ 널 배용~

택시에 타는 주연. 차가 출발하자 웃는 얼굴을 거두는 동료들.  
은수는 도로로 나가 택시를 막아선다. 깍- 급브레이크를 밟는 택시.  
은수는 재빨리 뒷자리로 가 주연 옆에 탄다.  
소리에 돌아보는 동료1, 2. 시커먼 은수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본다.

동료2 아까 담배 필 때 그 사람 아니에요?  
동료1 (못 본 척하고 싶다) ... 에이 씨, 몰라. 그냥 가.

## #20 택시 안(밤)

놀란 기사, 은수에게,

기사 미쳤어?! 당신 뭐요?! (주연에게) 아가씨, 아는 사람이예요?  
주연 (은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유심히 본다)  
은수 (주연을 똑바로 못 보고 눈을 피하며) 오... 오랜만이야.  
주연 ... (확 껴안으며) 은수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주연의 반응에 당황하는 은수.  
어느새 다가와 툭툭- 창문을 두드리는 동료1.

동료1 주연 씨, 괜찮아?  
주연 (웃으며) 네~ 괜찮아요. 친구예요~

차를 출발시키는 기사.

주연 (동료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며) 안 왔음 니들 다 짤렸어. 오늘만 봐준다. (은수에게) 근데 여기서 뭐 해?  
은수 어? 어... 너랑 술 한잔할까 하고...

주연 그럴까아~? 우리 집에 가서 같이 한잔할까아~?

## #21 주연 집(밤 + 낮)

소파에 털썩 앉는 주연. 은수에게 백을 내민다.

주연 (드레스룸 가리키며) 내 베이비 줌 저기 놔줄래?  
은수 (백을 보고) ...

플래시백.

7년 전. 폐건물 안.

뺨을 맞고 머리가 돌아가는 민아. 입에서 나온 피가 주연의 가방에 튄다.

주연 으아아아악-! 이게 얼마짜런데! 곱게 맞을 것이지 왜 피는 튀기고 지랄이야! 질질 흘리지 말고 삼켜!

현재.

주연 싫어?  
은수 ...

백을 들고 드레스룸으로 간다.  
벽면 가득 수십 개의 명품백이 진열되어 있다.

플래시백.

현자 집. 벽면 장식장에 가지런히 진열된 카페 집기와 그릇들.

현재.

드레스룸에서 나오는 은수.

주연 (유리잔에 양주를 따르며) 은수야! 정은수! 이런 미친년. 너 보니까 술이 확 깬다. (술을 들이켠다) 꼴이 그게 뭐야. 너무 웃긴다. 너.

크크크... 어떻게 나왔어? 너 집에서 못 나오잖아. 설마 나 보려고 몇 년 만에 탈출한 건 아닐 테고,  
 은수 ...! 그걸 어떻게...  
 주연 왜 그러고 사니? 태생이 그러니 나처럼은 못 살겠지만 그러고 살 필요는 없잖아. 네가 왜? 미정이가 나쁜 년이지.  
 은수 ...!  
 주연 속 쓰리다. 안주 좀 차려봐.  
 은수 ...  
 주연 (날카롭게) 어?!

치즈와 과일을 테이블에 놓는 은수. 과일을 깎는다.

은수 그래서 미정이가 그런 거야?  
 주연 (과일 집어 먹으며) 그래서 남의 엄마 봉양하는 이유가 뭐야? 얼마 안 되는 돈 벌어서 너 살고, 민... (민아 하려다) 개 엄마 살고. 저금할 돈은 남니? 너 같은 애들은 저금해야 목돈 만지잖아.  
 은수 (과일 깎는 손이 멈춘다) ... 나 조사했니?  
 주연 호호호호~ 아니 나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처음엔 미쳤나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 사서 알아봤지. 좀 이상하지 미치진 않았더라고.  
 은수 ... (순간 정적. 갑자기 크게 웃으며) 아하하하하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미쳤을까 봐?  
 주연 ... (왜 이래 하다가 같이 웃는다) 호호호호~ 그래! 미치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 말귀를 못 알아먹어. 너도 알지? 네가 봉양하는 미친 엄마.  
 은수 ... 아하하하하하 (술잔을 들며) 윈샷!  
 주연 오케~! (윈샷 한다)

주연 잔에 술을 따르는 은수. 둘은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신다.  
 취할 대로 취한 주연.

주연 미정이는! 네 과야! 나나 지선이 과가 아나아-! 차라리 민아가 우리 과지! 그러면서 맨날 부러먹기나 하고! 나쁜 년!  
 은수 그래서 누구야?

주연 내가 왜에~? (귀여운 척) 내가 개 죽였어?  
 은수 응.  
 주연 ... 뭐?  
 은수 ...  
 주연 아니잖아. 그냥! 내 양심이! 하아...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양심은 너 같은 애들이나 따지는 거거든.

테이블에 엎드리는 주연. 점점 눈이 감긴다.  
 주연의 얼굴에 얼음을 던지는 은수. 순간 잠시 정신을 차리는 주연.

은수 미정이나고?  
 주연 크크크크... 모르지. 근데 이제 와서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 아! 미정이... 올해 거기 들어갔어. 근데 그건 또 무슨 상관이래?  
 은수 ... 거기가 어디야?  
 주연 그 블로그 회사. 크크크크 웃긴다.  
 은수 ...!  
 주연 지가 고딩 때나 잘나갔지. 지금은 언제 찢릴지 모르는 계약직이야. 아~ 우리 회사에 왔어야 했는데. 내가 확 찢라버리게. 크크크...

그대로 잠이 든 주연. 은수는 주연의 핸드폰을 가져온다. 주연의 손가락을 대 지문 잠금장치를 풀고 핸드폰을 열어 미정의 전화번호를 저장한다. 나가려다 드레스룸을 보는 은수. 조명에 반짝거리는 화려한 백들을 본다.

점프.  
 아침. 부스스 눈을 뜨는 주연. 일어나 드레스룸을 지나는데 뭔가 허전하다. 이상한 기분에 고개를 돌리는데,

인서트.  
 새벽. 주연 아파트 앞. 커다란 쓰레기봉투 두 개를 힘겹게 끌고 나오는 은수. 쓰레기 수거차가 보인다. 수거차에 던져지는 쓰레기봉투들.

주연(V.O) 오... 노오오오오오-!!

주연의 비명과 함께 보이는 진열장, 텅 비어 있다.

## #22 호텔 룸(낮)

침대 위 누워 있는 여자, 미정이다. 핸드폰 진동에 본다.

“회사 1층 카페야. 잠깐 볼 수 있을까? 은수”

“기다려.” 답문자 보내는 미정.

욕실에서 중년 남자(이하 부장)가 나온다. 재빨리 포즈를 섹시하게 바꾸는 미정. 부장은 웃을 입는다.

미정 (다가가 벅타이를 매주며)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부장 (미정을 이상하게 보며) ... 연애해?

미정 우리 연애하는 거 아니야?

부장 (피식 웃으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미정 연애할 거 아니면 정직원이나 해주던지.

부장 연애하면 정직원 필요 없고?

미정 ...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부장 (미정의 목걸이 보며 엉덩이를 톡톡거리다) 목걸이 잘 어울리네.

미정 그럼~ 누가 해준 건데~

먼저 룸을 나가는 부장. 미정은 웃어 보이다 표정 거두며,

미정 능구렁이 새끼. 한 번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네.

## #23 블로그 회사 1층 카페(낮)

카페로 들어오는 미정이 은수의 시점으로 보인다. 숨이 가빠온다.

심호흡을 하며 숨을 고르는 은수.

미정은 은수를 찾으려고 둘러보다가 부장을 발견한다. 다른 중년 남자와 얘기 중이다. 은수를 지나쳐 부장에게 가려는데, 미정의 팔을 잡는 은수. 모자에 가린 얼굴을 서서히 든다. 미정과 눈이 마주치자 피하는 은수.

미정 ... (몇 초간 들여다보다 차갑게) 기다려.

은수 ... (스르르 미정을 잡은 손이 풀리고)

부장에게 가는 미정.

미정 (밝게) 안녕하세요, 부장님.

부장 (보고는 당황한다) ... 아... (모르는 척 사원증 보며) ... 미정 씨?

미정 (웃으며) 네. 저번 회식 때 잠깐 뵈어요. 제가 방해했나요?

중년 남자 (미정의 계약직 사원증 보고는) 자네는 젊은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나 봐.

부장 (어색한) 아... 하하하... (미정에게) 무... 무슨 일인가?

미정 부장님을 잘 못 뵈서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실례했습니다. 그럼 얘기 나누세요~

인사하고는 은수 쪽으로 오는 미정. 은수는 보지도 않고 지나치며,

미정 따라와.

미정은 그대로 회사 밖으로 나간다. 은수는 당황하는 부장을 보다 따라 나간다.

## #24 회사 뒤편 골목(낮)

짹! 소리 선행되며 보이는 은수, 미정에게 뺨을 맞고 고개가 돌아간다. 바닥에 떨어지는 은수의 모자.

미정 좀 용감해졌어? 나한테 먼저 문자도 보내고.

은수 ... (모자를 줍는 은수의 손이 떨린다)

미정 집 어디야?

은수 (놀라 멈칫)

미정 왜? 회사에 막 찾아오는 사인데 집에도 못 가? 카페에서 얘기하면 네가 쪽팔릴까 봐. 내가 또 (손 올리며) 이럴까 봐.



은수 (반사적으로 고개 돌아가는)  
미정 (피식 웃으며) … 귀엽네.  
은수 … (모자를 권 손에 힘이 들어간다)

## #25 은수 집(밤)

밝은 실내 불빛에 눈살을 찌푸리는 미정. 은수 집을 신기하게 본다.

미정 (쌓여 있는 재활용기 보며) 예술하니? (고개를 저으며)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책상 위 상담원 기기들을 보며) 그래. 이거 한다고  
했지. (무심결에) … 개새끼…

은수 …?

미정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뭐… 있어. 홈쇼핑에서 파는 싸구려  
보석으로 때우는 새끼가. (자기 집처럼 소파에 편하게 앉으며)  
주연이가 길길이 날뛰던데. 너 깜빡 보낸다고. 팬잖아, 걱정하지 마.  
그년이 정말 그럴 생각이면 나한테 왜 일러바쳐? 그냥 신고하지.  
지도 찢리는 게 있어서 못 해. 백이야 또 사면 되니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은수.

미정 (웃으며) 야, 나 예전 강미정이 아니야. 즐지 마. 아까는 네가  
잘못했잖아. 그냥 살짝 벌 받은 거라 생각해.

은수 …

플래시백.

7년 전. 폐건물 안. 한겨울이다. 속옷만 입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민아.  
온몸을 부들부들 떠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과 몸엔 피가 묻어 있다.

미정 (은수 핸드폰 모서리로 머리를 톡톡 치며) 네가 잘못했잖아. 너 벌  
받는 거야.

한쪽에서 드럼통 불을 쬐고 있는 지선과 주연. 키득키득 웃는다.

주연 재 웃기네. 똥개 훈련시킨다.  
지선 그만하고 가자. 이 정도 했으면 똥오줌 가리겠지.

현재.

미정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 내며) 정신 차려. 용건을 말하라고.  
은수 (떨리는 손에 힘을 주며) … 민아 블로그… 살려봐.

미정 … 내가 왜?

은수 네가 없었잖아.

미정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나쁜 년이야? 지선이나  
주연이보다?

은수 …

미정 네가 지금까지 그 꼴짓을 할 수 있게 놔둔 게 누군지 알아? 나야.  
주연이가 없애려고 하는 거 내가 막았다고. 왜? 나와 나는 친구거든.

은수 …?!

미정 지선이나 주연이가 우리 같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할 것 같아? 개들은  
민아를 채수 없어 했어. 자기들 무시하고 너 같은 애랑 노니까. 나?  
개들은 나와 논 게 아니야. 우린 공생한 거야. 공생은 서로의 약점을  
안다는 얘기고.

은수 …

미정 그럼… 너랑도 공생인가?

은수 …!

미정 (일어나며)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 내가 예전처럼 니들 뒤봐주며  
살 여유가 없다.

은수 블로그!

미정 (돌아보는)

은수 … 그것만 돌려봐…줘. 부탁이야. 그 회사 다니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죽은 게 아니라고… 살아 있다고… 그것만 바꾸면 되잖아.

미정 (눈꼬리 올라간다) 너 블로그 그거 병이야. (쌓여 있는 재활용품들  
가리키며) 이것도 병이고, (은수 바로 앞까지 가 얼굴을 마주한다)

은수 (눈을 깔고 시선을 피하는)

미정 이것도 병이고.

은수 (버럭) 너 때문이야!  
 미정 (살벌해지는 눈빛) … 나 때문이라고?  
 은수 그래! 네가 그랬어! 니들이 그랬어!  
 미정 (이내 눈빛 풀어지며) … 은수야.  
 은수 … 네가 그랬어…  
 미정 불쌍하게 왜 이래.  
 은수 (혼자 중얼거리듯) … 네가… 니들이… 그랬어… 니들이… 네가…  
 미정 그래, 그년 내가 죽였다. 블로그도 내가 없었어. 어쩔 건데?  
 은수 … (무릎 꿇는다) 제발… 부탁이야… 블로그만… 그것만…  
 미정 (쫓그리고 앉아 은수 바라보며) 지선이나 주연이는 몰라. 네가 왜 뜯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몇 년 만에 만나서 네가 미쳤네 어쩌네 하는데 내가 웃겨서 진짜. 아마… 아줌마도 모르지?  
 은수 …!!  
 미정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은수 …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제발…  
 미정 (일어나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신밖에 못 한다. 내가 신은 아니잖아?

나가는 미정. 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대로 앉아 있다.  
 갑자기 캄캄해지는 실내. 어느새 공간이 폐건물로 변한다. 은수 앞으로 서서히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민아가 나타난다. 같은 자세로 서로 마주 앉아 있는 은수와 민아. 민아는 은수를 보지만 은수는 민아를 보지 못한다.

## #26 7년 전. 고등학교 운동장(낮)

주연(V.O) 야-!  
 운동장에서 남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은수와 민아, 소리에 돌아보면 미정, 주연, 지선이 멀리 보인다. 은수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주연. 망설이다 일어나는 은수. 민아는 은수를 막는다.

은수 이게 편해.  
 민아 1년 해봤잖아. 남은 2년 동안 또 할래? 2년 후엔 재들이 없어져?  
 은수 …  
 민아 (은수 대신 큰 소리로) 왜-?!  
 자세히 들리지는 않지만 옥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미정, 주연, 지선은 다른 곳으로 간다.  
 민아 년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 재들은 인간도 아냐, 악마야.  
 난 정은수를 지키는 수호천사!  
 은수 (피식 웃으며) 고맙다. 잘나서.  
 민아 (패딩을 목까지 잠그며) 추워! 가자.  
 은수 늙은이 같애. 춥다고 난리야.  
 민아 너야말로 할머니 같아. 벤치에 앉아서 별 쬐는 거.  
 은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며) 이 좋은 걸 할머니들만 한단 말이야? 아이~ 좋다!

순간, 땡~ 머리가 울리는 은수.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 고개가 꺾인다.

민아 (놀란) 괜찮아?  
 은수 (고개를 제자리로 올리며) … 어지러워.  
 민아 … (걱정스레 보다 웃음이 나온다) 크…크크크 이봐, 가라잖아.  
 기현(V.O) 괜찮아?

공을 가지러 온 기현. 축구하던 남학생 중 한 명이다.

민아 (기현 보고는) 어? 너도 축구하고 있었어?  
 기현 몰랐어? 난 너 아까부터 봤는데. (은수에게) 정…은수 맞지? (은수 머리에 손을 대며) 많이 아파?  
 은수 (얼굴 빨개지는) …  
 민아 어쭙, 끼 부리냐? 얼렁뚱땅 넘기려고? 너도 맞아봐. 아픈지 안 아픈지. (공을 주워 기현 머리에 던진다)

기현 (피하며 공 받는다) 에이~ 미안 미안. (도망치며) 일부러 그랬어.  
너 맞히려고.  
민아 뭐야?!

기현 (웃으며) 가방 가져올게, 기다려! 내가 밥 살게!  
민아 우리가 왜 기다려! (하며 은수 보는데 없다. 가방 들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은수) 야! 넌 어디 가?! 밥 얻어먹어야지!

## #27 7년 전. 분식집(낮)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이 놓인 쟁반을 테이블에 놓는 기현.  
마주 앉은 은수와 민아. 기현은 민아 옆에 앉는다.

기현 밥 산다니까.  
민아 (허겁지겁 먹으며) 우리가 입이 싸. 그치? (은수 보는데)  
은수 (깨작거리며 조신하게 먹는) ... 응...  
기현 이봐. 딴 거 먹자니까. 은수 씨 안 좋아하나 봐.  
은수 ... 괜찮아요.  
민아 (기막힌) 씨? 요? 너네 뭐 하니?  
기현 네가 소개를 안 해주니까 이리잖아. 맨날 둘만 다니면서.  
민아 내가 왜 널 소개해? 네가 뭐데?  
기현 나? 너랑 결혼한 사이지.  
은수 (놀라 보는)  
기현 유치원 때.  
민아 야! 이게 아직도... (때리려는데)  
기현 (일어나 은수 옆으로 자리 옮기며) 은수야. 말 봐도 되지? 우리 결혼사진도 있다. (핸드폰 사진 찾으려) 볼래?

티격태격하며 장난치는 기현과 민아.  
멍하니 보는 은수 눈에는 기현만 보인다.

## #28 몽타주. 7년 전

### 1. 길거리(낮)

애기하며 걸어가는 민아와 기현. 뒤에서 따라가는 은수.  
민아는 은수를 찾다 돌아보고는 다가와 팔짱을 낀다. 반대편으로 와 같이 팔짱을 끼는 기현. 놀라 보는 은수. 씨익 웃어 보이는 기현. 셋은 나란히 걸어간다.

### 2. 카페(낮)

나란히 앉아 있는 민아와 기현. 마주 앉은 은수.  
축구 얘기에 열을 올리는 기현. 관심 없는 민아와 달리 은수는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인다. 민아와 눈이 마주치자 아닌 척 표정을 거두는 은수.

### 3. 극장 안(낮)

공포영화의 무서운 장면에 놀라는 민아, 은수의 팔을 잡는데 의자 손잡이만 잡힌다. 보면 은수도 놀라 옆자리 기현의 팔을 잡고 있다. 은수와 기현은 순간 어색해하다 서로 보며 웃는다. 표정이 굳는 민아.

### 4. 은수 집 앞(밤)

나란히 걷는 은수와 기현. 사이를 두고 어색하게 걸으며 작게 웃는 은수의 모습은 첫 데이트같이 설레 보인다.

## #29 7년 전. 민아 집 거실(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현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은수와 민아.  
예능을 보며 웃는 민아와는 달리 은수는 긴장한 듯 보인다. 민아의 눈치를 살피다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은수.  
“나... 기현이 만났어.”  
확인하는 민아. 핸드폰만 보고 반응이 없다.  
어색한 몇 초가 흐르고, 답문자 보내는 민아.

“헐 데이트? 대박! 기현이랑 잘되면 좋겠다!”  
 민아는 다시 TV를 보지만 웃지 않는다.  
 슬쩍 민아를 보는 은수. 민아는 다시 문자를 보낸다.  
 “기현이… 나 좋아한다고 고백했었어.”  
 놀라는 은수. 민아는 TV만 보고 있다. 다시 흐르는 어색함.  
 민아는 핸드폰을 놓고 부엌으로 간다.

민아      엄마, 밥 아직이야?  
 현자      다 됐어. 은수야, 밥 먹어. 여보, 당신도 나와요.

방에서 나오는 성철, 식탁에 앉는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현자, 성철과  
 얘기하는 민아. 은수는 그런 민아를 보다 핸드폰을 놓고 식탁으로 간다.

점프.  
 소파에 놓여 있는 민아와 은수의 똑같은 핸드폰.

은수(V.O)  잘 먹었습니다. 갈게요.  
 현자(V.O)  조심해서 가. 은수야.

핸드폰 하나를 잡는 은수의 손.

### #30 7년 전. 고등학교 교실 + 복도(낮)

은수를 보고 교실로 들어오는 민아.  
 은수는 민아를 무시하고 복도로 나간다.  
 따라 나가는 민아. 은수를 쫓아가다 멈칫, 은수와 함께 있는 학생들을  
 본다. 미정, 주연, 지선이다. 민아를 보며 씩웃어 보이는 주연.

주연      왜?  
 민아      은수야.  
 주연      왜에-?  
 민아      같이 매점 안 갈래?

주연      우리랑 갈 거야.  
 민아      (핸드폰 보이며) 이거… 얘기 좀 해.

은수는 민아를 무시하고 간다.

### #31 7년 전. 고등학교 내 창고(낮)

빵과 과자, 음료 등을 잔뜩 들고 오는 은수. 주머니에서 남은 돈을 꺼내  
 주연에게 준다.

주연      (피식 웃는) 그사이 존나 착실해졌어. 개한테 물들었냐?

각자 자기들이 주문한 먹을거리를 가져가는 미정, 지선, 주연. 지선은 빵과  
 음료 하나를 은수에게 던져준다.

지선      재수탱이랑 싸웠어?  
 주연      싸웠다고 설마. 우리도 맨날 싸우는데. 그냥 뱀새 황새 그거야.  
 지선      (피식 웃는) 뱀새 황새가 뭔데?  
 주연      뭐… 있잖아. 짧으면 쫓아가지 마라 그거. 그니까 (서 있는 은수에게)  
           재 자리는 딱 저기야. 알고 왔잖아.  
 지선      크크크. 개무식한 년.  
 미정      야, (핸드폰 보이며) 이게 뭐야?  
 은수      … 아무것도 아냐.  
 주연      핸드폰이 뭐?  
 지선      아까 재수탱이가 (핸드폰 보이며) 이러면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주연      아~ (은수에게) 야, 꺼내봐.  
 은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주연, 지선 (먹다 멈추고 노려본다)  
 은수      … (핸드폰 꺼내고)  
 주연      헐… 대박. 너네 커플이야? 쌍폰 맞았어?  
 지선      구분은 하나? 비번도 같은 거 아냐? (피식 웃다가) 아… 바뀌었어?  
 은수      …! 아… 아냐…

미정 가져와봐.  
은수 아... 아무것도 아냐... 정말이야...  
미정 (가만히 은수 보다가) ... 그럼 말고.

### #32 7년 전. 폐건물 안(밤)

민아 폰 문자메시지를 보며 피식피식 웃는 미정.  
은수는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있다.

미정 핸드폰 안 바뀌었으면 어쩔. 너 완전 새될 뻔했어. 이년이 나쁜  
년이네.  
은수 ...  
미정 근데 이게... 그 새끼 지 거니까 건들지 마라야, 아님 그런 새끼 너나  
가져라야? 존나 이상해. 원래 잘난 것들은 말을 이따위로 하나?  
은수 ... 돌려줘.  
미정 (은근 다정한 척) 은수야. 너도 알지? 지선이나 주연이가 입이 너무  
싸. 더군다나 남자 애긴데. 내일이면 학교 전체가 알걸? 남자 때문에  
친구 버린 년이라고.  
은수 (불안한 눈빛) ... 그런 거 아냐.  
미정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핸드폰 바꿔줄게. 너 민아 보기 싫잖아. 대신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 #33 7년 전. 민아 방(밤)

핸드폰 문자 소리. 확인하는 민아. 은수에게서 온 문자다.  
“핸드폰 바꾸자.”

### #34 7년 전. 폐건물 안(밤)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하다.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며 들어오는 민아.

민아 은수야. 어디 있어?

안쪽에서 불빛이 보인다. 다가가던 민아, 흠칫 놀란다.  
불을 피운 드럼통 주위에 모여 있는 그림자들. 미정, 주연, 지선이다.

지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기다리다 불까지 피웠잖아.  
주연 출지? 일로 와서 너도 불 좀 췌.  
민아 ... 은수는데?  
미정 금방 올 거야.

망설이다 다가가는 민아.  
민아가 다가오자 양옆으로 서는 주연과 지선.  
네 명은 불 주위로 동그랗게 서서 불을 췌다.

지선 (불빛에 어른거리는 얼굴을 들이밀며) 너 남자랑 뽀뽀해봤어?  
민아 ...?  
주연 야 왜 그래~ 요샌 초딩도 키스해. (대뜸) 자봤어?  
민아 ...?!  
지선 (깔깔대고 웃으며) 야! 애가 어떤 앤데. 내가 애 뺨에 존나 피 뵈.  
(민아에게) 너네 엄마는 왜 그렇게 올 엄마 만나서 자랑질이니?  
주연 내 애긴 안 해?  
지선 미친년, 너나 나나. 크크크.  
주연 하긴. 크크. 너 엄마한테 우리 욕했다며? 학부모회 가서 돈은 돈대로  
내고 딸내미 욕만 쳐들고 왔다고 나도 개 피 봤다.  
민아 아... 아냐... 어쩌냐고 물어봐서... 그냥...  
지선 그냥 뭐?  
미정 (낮게 깔며) ... 야.  
지선 (미정 눈치 보고는) 그래, 오늘 모임의 주제는 이게 아니지.  
주연 너... 기현이 미정이 건데 건드렸다면?  
민아 ...??  
지선 (혀를 차며) 어찌려고 그랬니... 참...  
민아 무슨... (미정 보는)  
미정 (씨익 웃는) 핸드폰 줘봐.  
민아 (핸드폰을 꼭 쥐는) ... 은수 오면...

곧바로 민아의 뺨을 후려치는 미정.

점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민아. 얼굴은 붓고 코와 입가에선 피가 흘러나온다. 부들부들 떨며 옷을 하나씩 벗는다. 캄캄한 어둠 속 한곳을 주시하는 민아. 벗을 때마다 발로 차는 지선과 주연. 민아는 맞으면서도 캄캄한 한곳만을 주시한다.

점점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는 은수다. 입을 막고 울고 있는 은수, 민아와 눈이 마주친다. 서로를 보는 은수와 민아. 은수는 눈을 감아버린다.

민아 ... 눈 떠.  
지선 ...? 뭐래?  
주연 설마... 나야? 지금 나 눈 작다고 이려는 거야?  
민아 눈 떠!  
미정 (민아가 보는 곳을 따라 보는) ...

### #35 현재. 은수 집(밤)

(#25 이어서) 암전 속, 동굴처럼 울리는 기이한 목소리.

괴성(V.O) 눈 떠-!

번쩍 눈을 뜨는 은수. 캄캄하다. 집 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다. 비틀거리며 불을 켜는 은수. 순간 모니터도 같이 켜진다. 상담원 프로그램까지 로그인 되어 있다. 팀장의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온다.

“은수씨 괜찮아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로그인 되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요.”  
“무단결근은 제가 휴가로 처리할게요.”  
“연락 좀...”

눈에 익은 고객 이름이 화면에 떠 있다. 정보유출로 항의한 고객이다. 프로그램을 닫으려는데,

플래시백.

블로그 회사 카페. 미정을 보고 당황하는 부장.

미정(V.O) 뭐... 있어. 홈쇼핑에서 파는 싸구려 보석으로 때우는 새끼가.

현재.

고객명에 강미정을 검색하는 은수. 같은 이름이 여러 명이다. 주문 건을 보고 몇 명을 골라낸다. 다시 각각의 주소로 검색하자 연결되는 남자 이름이 나온다. 정부남. 이 이름으로 다시 검색하자 몇 개의 주소가 나온다. 미정이 한 목걸이를 배송한 주소가 세 개다. 모두 여자 이름이다. 그중의 하나가 미정의 주소다. 생필품과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옷 등을 주문하는 대치동 주소가 하나 더 있다. 정부남, 강미정, 대치동 주소를 보는 은수. 똑같은 목걸이를 주문하고 대치동 주소와 주문자명에 강미정을 입력한다.

### #36 호텔 룸(낮)

콧노래를 부르며 옷을 벗는 미정. 가운을 걸치며 부장을 맞을 준비를 한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부장.

미정 (부장을 안으려고 팔 벌려 다가가며) 이렇게 빨리 연락하고 웬일이야~ (순간, 짹- 소리와 함께 뺨을 맞고 쓰러진다)

부장 (미정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낚아채며) 감히 내 마누라한테 이걸 보내! 감히 나에게 헐박질이야!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내가 너 같은 녀은 처음이다!

부장은 계속 때리며 미정을 몰아붙인다.

점프.

헝클어진 머리와 옷을 매만지는 미정. 터진 입술의 피를 닦다 침을 뱉는다. 침이 아니라 피다.

미정 오랜만에 피 맛 보네.

### #37 7년 전. 고등학교 앞(낮)

학생들 사이로 학교를 나오는 은수가 보인다.  
은수에게 달려가는 현자, 붓고 상처 난 은수의 얼굴을 보고 놀란다.

현자 얼굴이 왜 이래? 너도 우리 민아랑 같이 있었어? 같이 당한 거야?  
 은수 … 아니에요.  
 현자 (은수를 잡고 흔들며) 아니긴 뭐가 아냐! 누구니? 도대체 누구야?  
 왜 그런 거야?!

은수 …  
 현자 … 모르겠다… 정말… 맨날 붙어 다니더니 넌 연락도 없고…  
 병원에도 안 오고… 민아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한데…  
 답답해 죽겠는데…

은수 … (고개만 숙인 채)  
 현자 (눈물을 꼭 참으며) 민아랑 싸웠어? 그래서 병원에 안 오는 거야?  
 은수 …  
 현자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민아 많이 다쳤어…  
 은수 …  
 현자 부탁이다. 은수야… 한 번만… 민아 한 번만…  
 은수 … 갈게요…  
 현자 (은수를 안으며) 고맙다. 고맙다 은수야…

은수를 안고 우는 현자.  
은수의 시선 끝 미정, 지선, 주연이 보인다.

### #38 현재. 병실(낮)

누워 있는 현자. 은수는 헝클어진 현자의 머리를 가지런히 만져준다.

은수 아줌마… 참 예뻐는데… 맨날 욕만 하는 올 엄마만 보다 아줌마 처음

보고 친사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엄마도 있구나… 그랬어요.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헛기침 소리. 돌아보는 은수. 어느새 의사가 들어와 있다.

의사 우리 지선이 친구라고?  
 은수 … 지선이가 그래요?  
 의사 (어색하게) 으…응 그럼. 그래서 말인데… 병원비는 걱정 안 해도 돼.  
 은수 … 친구…라서요?  
 의사 그럼, 그럼! 나도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다. 그… 친구의 친구의…  
 어머님이… 흐흫.

은수의 핸드폰이 진동한다. 문자 확인하면 “빨리 와라 - 미정”

은수 (현자에게) 아줌마.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절 친구라고 부르네요.  
 전에는 야! 이랬는데.  
 의사 (어색하게 다른 곳 보는)  
 은수 갈게요. 다른 친구가 불러요. 답엔 꼭 민아 데리고 올게요.

### #39 은수 집(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은수. 집 안이 난장판이다.

플래시백.  
와장창- 쌓여 있던 생수통과 일회용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진다.  
책상 위 컴퓨터를 집어 던지고 가지런히 쌓여 있던 것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 미정. 으아아아-! 소리 지르며 밟히는 대로 차고,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진다.

현재.  
소파에 앉아 있는 미정.

미정 (씨익 웃으며) 예전 기분 좀 내봤어. (일어난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일회용기를 구두로 헤치며 은수에게 걸어간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협박을 해! 이런 소리를. 내가. 너 때문에.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은수의 뺨을 때리려 내리치는데, 미정의 손을 막는 은수.  
놀라는 미정.

은수 니들은 왜 그렇게 당당해? 지선이가 그러더라. 나보고 생각 좀 하라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랬더니 모르겠어. 니들은 왜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니들은 왜 그게 추억인지.

미정 (눈꼬리 올라가는) ...

은수 부인으로 끝이 아냐. 답엔 네 회사, 그다음엔 인터넷에 뿌릴 거야.  
미정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나 계약직이야. 백도 없고 돈도 없어서 간신히 붙들고 있는 계약직! 누가 신경이나 써?

은수 너 말고 두 명이 더 있어.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만 건드리는 직장상사면 쓸걸.

미정 ...!

은수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미정 (어이없어 웃는다) 때린 년 기회 줘서 참 고맙네. 넌? 아줌마가 기회 좀 주시디? 아... 깨어나면 기회 좀 얻을까 해서 이 난리야? 야, 그러면 지선이 아빠를 뒤통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

은수 ...

미정 왜 모른 척해? 왜 아닌 척해? 아님 정말 미친 거야? 아니면 뭐 죄책감 때문에 미치기 일보직전까지 가다 기억상실 이런 거야?

은수 ...

미정 믿어는 내가 죽인 게 아냐.

은수 (흔들리는 눈빛)

미정 네가 죽였어. 정은수! 너 때문에 죽었다고!

은수 ...!

경찰(V.O) (벨소리와 함께) 정은수 씨!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은수 (벨소리 안 들린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미정 악-!

맞은 척 쓰러지는 미정. 비명 소리에 문 열고 들어오는 경찰, 붓고 터진 미정의 얼굴을 본다.

## #40 경찰서(밤)

경찰에게 조사 받는 은수. 미정은 구석에서 통화 중이다.

미정 개인정보 털린 게 부장님이잖아요. 본인이 와야 해결된다구요. (시끄러운 옥지거리에 잠시 핸드폰을 뺏다가) 저 말고 두 명 더 있던데 그 친구들도 부를까요? (잠시 침묵) 네에~ 빨리 오세요~

점프.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부장, 두리번거리다 미정 발견하면 은수를 눈짓하는 미정. 부장은 은수에게 달려가 목살부터 잡고 난리다. 부장을 말리는 홈쇼핑회사 팀장과 직원. 부장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미정을 보는 은수. 미정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훌쩍이며 구경 중이다.

점프.

미정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는 부장. 뒤따라 팀장, 직원, 은수가 나온다.

부장 (은수 가리키며) 이 여자 다시 한 번만 우리 직원 앞에 얼굴 드릴거나 연락하면 그 즉시 당신네 회사 고소야. 알았어!

팀장 (허리 숙여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실수? 이게 실수야?! 고의적인 협박이잖아-! 말 똑바로 해!

팀장, 직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부장 막으며) 이제 가요, 부장님.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차에 오르는 부장과 미정.

부장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숙이는 팀장과 직원, 차가 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둔탁한 소리가 나고, 돌아보면 은수가 쓰러져 있다.

## #41 7년 전. 민아 병실(밤)

들어오는 은수, 조심스레 문을 닫는다.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있어서

민아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인기척에 돌아보는 민아. 주먹 크기만큼 부은 눈과 얼굴은 온통

푸른색이다. 놀란 은수, 문에 기대서서 다가가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린다.

민아 한 2주 지나면 봐줄 만하대. 그때까진 슈렉이야. 크큭…

은수 … (어색한 정적)

민아 … 좀만 가까이 와줄래? 내가 좀 힘들어서…

은수 (문을 보고 선다. 뒤로 걸어가 다가간다)

민아 이렇게 겁이 많은데… 어떻게 있었어…

은수 …! (주먹 쥐 손이 떨린다)

민아 … 은수야… 괜찮아… 내가… 내가 잘못했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나 때문이야…

은수 (순간 올라오는 눈물을 꼭 참는다)

민아 나… 슈렉에서 피오나로 변신하면… 아… 마법에 걸린 피오나…  
(혼자 어색하게 피식) 우리 같이…

은수 (눈을 꼭 감은 채) 착한 척… 역겨워.

민아 …!

은수 개들은 솔직해.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지만 그게 다야.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고,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면 돼. 그냥 내 앞에서 바보라고  
하지 내 뒤에서 날 바보로 만들지 않아.

플래시백.

1. 7년 전. 거리(밤) (#29 이어서)

걸어가는 은수. 핸드폰 문자 소리가 울린다.

“집이야. 나와”

기현이 보낸 문자다.

뒤지 싶은 은수. 핸드폰을 보다 그제야 민아 폰인 걸 안다.

“답 좀 해!”

“은수 어떡할 거야!”

걸어가던 은수의 발이 멈춘다.

2. 7년 전. 민아 집 앞(밤)

계속해서 벨을 누르는 기현. 문을 열고 나오는 민아.

기현 질투하냐? 이제 와서 내가 좋아졌어?

민아 …

기현 아니면 좋아하진 않는데 남 주기는 싫어? 그런 거야?

민아 …

기현 도대체 뭐야!

민아 … 은수… 좋아?

기현 …

민아 근데 왜 만났어?

기현 넌 왜 그랬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은수 만나라고 했어?

민아 나 때문이라는 거야?

기현 그래! 네가 그랬잖아! 은수가 나 좋아하는 거 같다고 만나보라고!

민아 너 바보야?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만나라고 해서 만나게?!  
넌! 마음에도 없으면서 만나라고 한 너는!

기현 …

민아 …

기현 나… 바보야. 좋아한다 고백해도… 좋다 싫다 반응 없는 널  
기다리는…

민아 …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만나.

기현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 고백…했어.

민아 ?!

기현 … (민아에게 편지를 내밀고)

민아 … (편지를 보기만 하고 받지 않는다)

기현 은수도 기다릴 거야. 나처럼 바보같이.

민아 …

민아에게 억지로 편지를 건네는 기현. 안 받으려고 뒷걸음치는 민아. 그사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은수의 편지. 바닥에 고인 물에 젖어 더러워지고, 기현과 민아는 더러워진 편지를 보기만 한다.

점프.

기현이 떠나고 혼자서 편지를 내려다보는 민아. 이내 민아도 집으로 들어간다. 그사이 바닥에서 사라진 편지. 구석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꾸깃꾸깃 꽃혀 있다. 쓰레기봉투에서 편지를 꺼내는 손.

(병실 이어서)

얼룩지고 구겨진 편지를 민아의 침대에 놓는 은수.

은수    널 그렇게 만든 개네들보다 네가 더 잔인해. 너보다 개들이 나아.  
민아    …!!

은수가 나가고 문이 닫힌다.

디졸브.

창가에 서 있는 민아의 뒷모습. 손에 들린 편지가 바람에 날아가 공중을 부유한다.

디졸브.

사라진 뒷모습. 창문으로 들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에 커튼만 펄럭인다.

디졸브.

현재.

펄럭이는 커튼 사이로 다시 보이는 뒷모습. 민아와 똑같다. 창턱 위로 올라간다. 위태롭게 서 있는 뒷모습. 캄캄한 바닥이 내려다보인다. 떨어질 듯 휘청거리는 시점. 순간 괴기스러운 얼굴이 확 다가오며,

괴성(V.O)    눈 떠!

번쩍 눈을 뜨는 은수. 아득하게 보이는 바닥. 휘청거리다 창틀을 잡는다. 들어오는 의사. 놀라 달려와 은수를 잡는다.

의사    왜 이래? 아주머니 때문에 그래?

은수    … 아줌마가 왜요?

의사    상태가 좀 안 좋아.

은수    …!

## #42    중환자실 앞(낮)

달려오는 은수. 들어가려는데 막아서는 성철.

성철    누구…?

은수    … 아저씨?

## #43    대기실(낮)

의자에 앉아 있는 성철과 은수.

은수    아주머니… 죽어요?

성철    그럴 수도 있다는구나. 나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 보면… 너한테 면목이 없네. 이혼한 남편보다 죽은 딸 친구가 더 가족 같으니… (전화 온다. 일어나 받으며) 어… 아니… 아직 잘 몰라.

은수    제가 살릴 수 있어요. 민아만 살리면 돼요.

성철    …! (통화하다가) … 뭐라고?

성철 돌아보면, 은수 자리에 없다.

## #44    전철 안(밤)

은수의 병원복을 힐끔거리는 사람들. 은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는다.

## #45 주연 집(밤)

은수를 어이없게 보는 주연.

주연 (팅 빈 진열장 가리키며) 야 이 도둑년아! 저거 보여? 내 베이비들 어쨌어?!

은수 버렸어.

주연 (기막힌) 뭐... 뭐... 뭐야!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 나보고 블로그 살려내라고?!

은수 넌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알아냈잖아.

주연 그거 다 돈이야. 니 통장에 그만한 돈 없어. 집도 월세고, 담보도 없잖아. 장기라도 팔래? 거래를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지! 내 베이비 팔아서 하지 그랬어! 그거면 하고도 남았어! 신나서 버렸지!

은수 돈보다 훨씬 좋은 거야.

주연 (어이없어 웃는) 네가 너무 없이 살아서 밥만 먹고 살아도 행복해요 이딴 거 믿나 본데, 고기 맛 한번 보면 싹 바뀌는 게 사람이야. 돈이 최고라고.

은수 다 찍혔어.

주연 (짜증) 아 뭐가아?!

은수 그날 나 거기 있었어.

주연 언제?! ... (생각나는) ... 그때? 아냐, 너 없었어. 네가 그년 다구리 까는데 올 깡은 없잖아. 우린 당연히 그렇게 알고...

은수 미정이가 시켰어. 너랑 지선이 몰래 찍으라고.

주연 ...?!

**플래시백.**

7년 전. 폐건물 안. (#32 이어서)

미정 대신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자기 핸드폰을 은수에게 주며) 줌 있다 애들 올 거야. (구석 가리키며) 저기서 우리 좀 찍어.

은수 ... 뭐 할 건데?

미정 뭐 없어. 불 쬐고, 입 좀 털다 가는 거야. (씨익 웃으며) 나중엔 다

추억이잖아.

**점프.**

불가에 모여 있는 민아, 지선, 주연, 미정이 은수가 찍는 핸드폰 영상으로 보인다. 미정이 민아를 때리는 모습에 흔들리는 영상.

**현재.**

주연 장난해? 네가 그걸 다 보고 있었다고?

은수 봤다고 안 했어. 찍혔다고.

**플래시백.**

7년 전. 폐건물 안.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은수. 바닥에 떨어지는 핸드폰. 들에 비스듬히 세워져 계속 찍힌다.

**현재.**

흔들리는 주연의 눈빛.

주연 (괜찮은 척) 그게 뭐? 이제 와서? 7년이야, 7년. 그걸 누가 신경 써.

은수 니들은 말하는 것도 똑같구나. 하찮고 오래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니?

주연 당연한 거 아냐?

은수 넌 왜 신고 안 했어? 지선이 아빠는? 동영상에 있는 줄 모르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네 회사 사람들이 다 보면 할아버지도 신경 쓸 거 같은데... 안 그래?

주연 ...?! 거기 미정이라도 찍혔잖아! 갠 뭐 투명인간이야!

은수 네가 그랬잖아. 너와 지선이, 나와 미정이와의 차이. 잃을 게 있고 없고의 차이.

주연 ! ...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은수 미정이라도 그러더라. 너와 지선이랑은 친구가 아니라고. 공생이라고. 공생은 서로의 약점을 아는 거라고.

주연 ...!

은수 언제, 돈보다 좋지?  
주연 ...

은수 핸드폰이 진동한다. 전화 받고 달려가는 은수.

## #46 병원 대기실(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성철. 은수는 초조한 듯 주위를 서성이며  
중얼거린다.

은수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성철 은수야... 아까 무슨 소리야? 민아 살린다는 말...  
은수 아... (핸드폰 블로그 보이며) 이게... 오늘은 안 되는데...  
성철 ...?! 이거...  
은수 민아 블로그... 갑자기 사라져서... 그래서 아줌마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시 살리면...  
성철 너...였어? 네가 계속 민아 블로그 했던 거야?  
은수 ... 아셨어요?  
성철 아니. 최근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민아가 있어서... 너무 놀라서...  
은수 ...?! 그럼 아저씨가... 없었어요?  
성철 ...  
은수 ...! 왜... 왜요...?  
성철 ... 그게...

대기실로 들어오는 젊은 여자와 여자아이(초등생). 성철은 보고 다가간다.

성철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젊은 여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도 와야 할 거 같아서요.  
성철 (여자아이에게) 우리 민아 졸려서 어떡해?  
은수 ...?! (여자아이 보는)  
여자아이 (웃어 보이며) 괜찮아요. 아저씨. 엄마 몰래 밤늦게도 자요.  
젊은 여자 (여자아이 눈치 주고)

여자아이 (엄마 보고는) 새...아...(빠)...  
성철 (여자아이 기특하게 보며) 아저씨도 괜찮아.

점프.

화장실 가는 젊은 여자와 여자아이를 보는 성철과 은수.

성철 민아가... 그러니까 저 아이가 블로그를 해. 나보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그러다 알게 됐어...  
은수 ...  
성철 미안하다... 몰랐어... 그런 줄은... 사는 게 지옥이었는데... 저  
아이를 보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은수 ... 아줌마도 저도 지옥이었어요...  
성철 ...!

은수는 일어나 나간다.

## #47 은수 집(밤)

싱크대 위 칼을 보는 은수. 칼을 집어 든다. 벽을 향해 칼을 꽂는다.  
벽지가 발라진 문틈에 칼을 꽂았다. 문 모양대로 벽지가 잘린다.  
문을 밀지만 열리지 않는다. 있는 힘껏 몸으로 밀어 문을 연다.  
텅 빈 방.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상자를 여는 은수. 똑같은 핸드폰 두 개가 들어 있다.

플래시백.

7년 전. 고등학교 창고. 수다 떨며 낄낄대는 주연과 미정.  
주연은 우두커니 서 있는 은수를 발견한다.

주연 왜 빈손이야? 안 사 왔어? 아 배고파야!  
은수 으아아아! (순간 미정에게 달려든다)  
미정 (피하며 은수 넘어뜨리고) 미쳤냐?

달려오는 지선, 주연에게 말을 전한다. 놀라 미정을 보는 주연.

주연 죽었대.  
미정 누가?!  
주연 (은수를 눈짓으로 가리킨다) 병원에서 뛰어내렸대.  
미정 …!

다시 달려드는 은수. 미정은 밀려 벽에 부딪친다. 은수가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주먹에 몇 대 맞다가 역전시키는 미정. 벽에 부딪치며 쓰러지는 은수. 미정은 은수를 더 때리려다 참는다.

은수 니들이 죽였어!  
주연, 지선 (찢린다. 흔들리는 눈빛. 미정을 보고)  
미정 (가방에서 민아와 은수의 핸드폰을 꺼내 은수에게 다가간다) 너 그거 알아? 너보다 민아가 백배 나은 거. 그렇게 처맞고도 입도 뻥긋 안 했어. 너 때문에. 죽으니까 남 탓하는 너 같은 찌질이 때문에.  
은수 …!  
미정 이런 것도 친구라고. 죽은 년만 불쌍하지. (핸드폰을 던지며) 에이, 재수 없어.

## #48 중환자실(밤)

은수는 현자 손에 민아 폰을 쥐여준다.

은수 너무… 너무 늦게 가져와서 죄송해요… 아줌마…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 때문에… 민아가 거짓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아는요… 수호천사였어요. 악마에게서 절 구해준 천사. 근데 제가 민아한테 그랬어요. 넌 악마보다 더하다고… 악마가 더 낫다고… 근데요… 아줌마… 개들은 악마가 아니에요… 제가… 악마였어요… 민아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완벽한 애가 내 친구라는 게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신기하고 고맙고… 민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민아랑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꾸

제가 보였어요. 언제나 민아보다 못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하나가 나타났어요. 기현이가… 민아가 아닌 날 좋아하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었어요. 민아보다 나은 하나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민아를 죽였어요…

현자 (손이 움찔한다. 천천히 눈을 뜨고) … 은…수야…  
은수 (놀라) …?!  
현자 (힘겹게 손을 움직인다) 민아가… 가져오래… 핸드폰…  
은수 … 네…?  
현자 계속 민아랑 있고 싶은데 민아가 너무 걱정을 하네… 핸드폰 가져와야 한다고…  
은수 …?!  
현자 은수가 그랬다며… 사라질 때 꼭 가져가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은수 …! 저도 데려가요. 아줌마 아니면 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발… 같이 갈래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 같은 걸 친구라고… 가장 중요한 건데… 나 같은 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 같은 병신이… 아무것도 아닌 병신이…  
현자 … 아니야… 민아한테… 가장 중요한 거… 은수야…  
은수 …!  
현자 은수는 자기 유산이래…

플래시백.  
7년 전. 학교 옥상.

은수 이걸… 나야!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이걸 꼭 네가 가지고 있어. 내 유산이니까.  
민아 … 아니지! 사라질 때 가져가야지! 그래야 연락이 되지!  
은수 그럼 사라지는 게 아닌데?  
민아 음… 그래도 안 돼. 나랑은 연락해야 돼. (손가락 내밀며) 약속해.  
은수 (피식 웃는) 좋아. (손가락 걸며) 그럼 너도 약속해.  
민아 좋아!  
은수 … 넌?

민아 뭐가?  
 은수 가장 중요한 것.  
 민아 뭐... 비슷해.  
 은수 비슷해는 뭐야?  
 민아 (핸드폰 보이며) 이게 나면... 나도 이거!

현재.

현자 민아가 미안하대... 말로만 맞서라고 하고... 자기는 피했다고...  
 비겁하게 피했다고... 그러지 말래... 은수는 용기 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은수 으...으...으허어어어... (눈물이 터져 나온다)  
 현자 ... 괜찮아... 은수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현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다 빠- 기계음으로 변한다.  
 달려오는 의사와 간호사. 심장충격기에 현자의 몸이 들썩인다. 반복적인  
 충격에도 기계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민아 손을 쥔 현자의 손이 침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은수의 시선으로  
 보인다. 힘이 풀린 손이 툭 떨어지는데, 민아 폰이 없다!  
 침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찰나에 사라져버린 핸드폰. 동시에 환자  
 모니터의 심장박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놀란 은수. 표정이 서서히 변한다. 점점 안정적으로 뛰는 현자의 심장  
 박동처럼... 점점 편안한 얼굴로...

## #49 폐건물 안(밤)

또각또각 구두 소리 선행되며 보이는 미정. 드럼통에 불을 피워 쪼고 있는  
 지선과 주연이 보인다.

미정 니들 뭐야? 왜 사람을 이런 데로 불러?  
 주연 (밝게 웃으며) 왔어! 흡지? 일루 와.  
 지선 봄인데도 밤엔 꽤 추워.

나란히 서서 불을 끄는 미정, 지선, 주연.

미정 꼭 여기서 할 말이 뭔데?  
 주연 꼭 여길 필요는 없는데 아직도 그대로더라고. 깜짝 놀랐다.  
 지선 그러게. 주인이 땅문서 들고 죽었나? ㅋㅋㅋ.  
 주연 그런가? ㅋㅋㅋㅋ (도로 가로등 가리키며) 그래도 가로등이 생겨서  
 전보다 환해, 그치?  
 미정 (뭐 하나 싶은) 뭐냐?  
 주연 아니, 뭐 추억 들고 좋잖아.  
 미정 (비아냥) 그래, 니들은 추억이라고 했지.  
 지선 년... 추억이 아니야?  
 주연 그러게. 아니야?  
 미정 ... 왜 이래?  
 주연 그것 뻔애?  
 미정 ... 뭐?  
 지선 아... 너도 현실이구나. 우리 잡으려고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미정 (분위기 이상하다) ... 뭘?!  
 주연 그날 다 찍혔다며. 네 폰에.  
 미정 ...?! 뭐... 뭐라는 거야?!  
 지선 우리는 조용하게 물어보잖아. 왜 이렇게 흥분해? 질려?  
 주연 헐 진짜가 봐. 존나 흥분해.  
 미정 누... 누가... (하다가 퍼뜩) 은수가 그래? 니들 그날 말을 믿는 거야?!  
 주연 나는 긴가민가하더라고. 그래서 지선이한테 의견을 물었지. 지선이가  
 이것저것 따져보더니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애가 머리는 또  
 끝장이잖아. 그래서 네가 밟았잖아. 안 그래?  
 지선 그랬지. 거기다 잘 산다고. (주연에게) 넌 돈만 많고 멍청해서  
 공평한테 난 공평하질 않다고.  
 주연 (발끈) 뭐야? 너한테 그렇게 지껄었어?!  
 미정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나 강미정이야! 니들 3년 동안 돌봐준  
 강미정!!

순간 퍽-! 날아오는 주먹에 얼굴이 돌아가는 미정.

점프.

심하게 맞은 모습이다. 피투성이 미정이 무릎 꿇고 앉아 있다.

미정 내... 내가 찍으라고 시킨 건 맞아. 맞는데...

플래시백.

7년 전. 골목(밤)

자신의 핸드폰 동영상을 확인하는 미정. 초반에 좀 찍히다가 끊긴다.

미정 이거 하나 못 하나?! 어?! 너보고 그년을 까라 그랬어? 주인공 없이 다구리 까냐고 너 없이 안 한다는 거 설득해서 부탁 들어줬더니 날 이렇게 무시해?!

은수 해... 핸드폰만 바꾼다고 했잖아. 그냥 핸드폰만 바꾼다고!

미정 (기막힌) 나 강미정이야. 네가! 강미정한테! 왔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

은수 ... 아니야... (짜- 뺨 맞고 ) 아니야 (뺨 맞고) ... 아니야 (뺨 맞고)

... 나... 난...

은수가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미정의 손이 날아온다. 계속해서 뺨을 맞으며 부정하는 은수.

현재.

은수의 터진 얼굴에서 미정의 터진 얼굴로 디졸브 되며,

미정 왜...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주연 통장도 마이너스에 집도 월세고, 그나마 있던 돈줄도 잘리고, 너도 잘리고, 너에게 남은 건 그거 하나야.

지선 고로 믿을 이유가 없다.

주연 그치? (동시에 휘두르는 방망이)

미정, 지선, 주연에서 멀어지는 화면, 도로 가로등으로 다가간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로등 옆 CCTV가 보이고 미정, 지선, 주연의 모습이 CCTV

화면으로 바뀐다.

## #50 은수 집(밤)

들어오는 은수. 캄캄한 실내. 은수는 불을 켜지 않고 창가로 간다. 두터운 커튼을 시원하게 젖힌다. 환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온다. 창가에 누는 은수. 스르르 감기는 눈.

민아(V.O) 눈 좀 떠봐.

은수 ...

민아(V.O) 응?

실눈을 뜨는 은수. 나란히 누워 자신을 보는 민아가 보인다. (학교 옥상과 같은 모습)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다.

민아 소파에서 자.

은수 거긴 좁아. 너 못 누워.

민아 ... 그럼 오늘만이야.

은수 ... (눈이 감긴다) 응.

민아(V.O) 잘 자.

은수 ... 응.

민아(V.O) ... 안녕.

은수 ... 응...

눈물이 맺히는 은수. 작게 미소 지으며 잠이 든다.

끝.

작가 후기    시나리오 작업만 해왔던 저에게 단막극과 드라마는 생소함이었습니다.  
볼 수는 있으나 잡히지 않는 하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다가갈 수 없었던, 두려움이  
앞섰던 장르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안개 속에서 길을 보여준 곳이 오픈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드라마를 혼자가 아닌 19명의 동기들과 함께 용기 내어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리뷰를 통해 볼 수 있었던 19개의 다른 시선과 의견은 〈민아의 유산〉을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당선 당시와 비교해서 수정된 부분의 양은 적지만 질적 깊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김지일 센터장님을 비롯한 오픈 임직원 여러분과 멘토 감독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 오픈 드라마 작품집 하권

1판 1쇄 인쇄. 2019년 1월 21일

1판 1쇄 발행. 2019년 1월 21일

글. 김지훈, 김민정, 이정연, 정수훈, 안은빈  
류솔아, 이아연, 김도연, 백선영, 유경민  
김보겸, 홍혜이, 최이륜, 문민정, 김효진, 송진  
김민주, 최성준, 구옥선, 김의정

제작. 오픈

디자인. 오혜진(OYE),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문유진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씨제이이엔엠

발행인. 허민희

등록번호. 제 2015-000016 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139

ISBN 979-11-965232-7-5 04680

ISBN 979-11-965232-0-6 (세트)

© 2018 CJ ENM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35705)